정답과 해설

채움

고전시가

Ⅰ. 단독 4

Ⅱ. 복합 ❶ 31

Ⅲ. 복합 ❷ 144

빠른 정답 찾기

Ⅰ 단독

본문 16~41쪽

01	001 ③ 002 (1) ○ (2) × (3) × 003 ④ 004 ④ 005 (1) 만족감 (2) 부정적 006 ② 007 ③ 008 ① 009 ② 010 ③
02	011 ⑤ 012 (1) ○ (2) × (3) ○ 013 ③ 014 ⑤ 015 ⑤
03	016 ③ 017 ② 018 ① 019 ③ 020 ③
04	021 ⑤ 022 ② 023 ④ 024 ④ 025 ①
05	026 ③ 027 (1) ○ (2) ○ (3) × 028 ⑤ 029 ② 030 ② 031 ④ 032 ③ 033 (1) 망고대, 혈망봉 (2) 중향성 034 ④ 035 ②
06	036 ① 037 ② 038 ④ 039 ③ 040 (1) ○ (2) × (3) × 041 ④ 042 ④ 043 (1) 전승산, 나 (2) 나, 전승산 (3) 전승산 044 ⑤
07	045 ① 046 (1) ○ (2) ○ (3) × 047 ⑤ 048 ④ 049 ⑤
08	050 ② 051 (1) ㉠ (2) ㉡ (3) ㉢ 052 ① 053 ⑤ 054 ①
09	055 ④ 056 ③ 057 ① 058 ③ 059 ②
10	060 ④ 061 (1) 붉은 도마뱀 (2) 붉은 꽃, 가지, 안개 062 ② 063 ④ 064 ② 065 ①

Ⅱ 복합 ❶

본문 46~155쪽

11	066 ⑤ 067 ② 068 ⑤ 069 ② 070 ③
12	071 ④ 072 ② 073 ④ 074 ⑤ 075 ㄱ, ㄴ, ㄹ 076 ⑤ 077 ② 078 (1) × (2) ○ (3) ○ 079 ③
13	080 ② 081 ② 082 ④ 083 ④ 084 (1) ○ (2) ○ (3) ○ (4) ○ (5) × 085 ① 086 ⑤ 087 ③ 088 ①
14	089 ⑤ 090 ③ 091 ⑤ 092 ④ 093 ③
15	094 ① 095 ③ 096 ④ 097 ① 098 ㄱ, ㄷ, ㅁ
16	099 ① 100 ③ 101 ⑤ 102 ④ 103 ④ 104 ③ 105 (1) ○ (2) × (3) ○ 106 ⑤
17	107 ④ 108 ② 109 ① 110 ③ 111 (1) ○ (2) ○ (3) × 112 ⑤ 113 ㄱ, ㄴ 114 ⑤ 115 ③
18	116 ⑤ 117 (1) (나) (2) (가) (3) (가) 118 ③ 119 ② 120 ① 121 ③ 122 ⑤ 123 (1) ○ (2) × (3) ○ 124 ③
19	125 ① 126 (1) × (2) × (3) × 127 ③ 128 ⑤ 129 (1) 잔나비 (2) 가을 (3) 술 130 ① 131 ④ 132 ② 133 ⑤
20	134 ③ 135 ㄱ, ㄷ 136 ① 137 ④ 138 (1) × (2) ○ 139 ① 140 ② 141 ⑤ 142 ③ 143 ②
21	144 ④ 145 ㄱ, ㄴ 146 ⑤ 147 ② 148 ③ 149 ② 150 ② 151 ③ 152 ③
22	153 ④ 154 ① 155 ② 156 ③ 157 ② 158 ④ 159 ③ 160 ② 161 ⑤
23	162 ① 163 (1) (가), (나) (2) (가) (3) (나) 164 ④ 165 ⑤ 166 (1) ○ (2) × (3) ○ 167 ⑤ 168 ④ 169 (1) 부지지 (2) 물외 (3) 체념, 탈속적 170 ③
24	171 ④ 172 ㄱ, ㄴ 173 ④ 174 ③ 175 (1) ○ (2) × 176 ④ 177 ② 178 ① 179 ⑤ 180 (1) 소유 (2) 맹자 181 ③
25	182 ② 183 (1) (가), (나) (2) (나) (3) (가) 184 ⑤ 185 ③ 186 (1) 만족감, 걱정 (2) 처간, 순응 187 ④ 188 ① 189 (1) × (2) ○ 190 ① 191 ③ 192 ④
26	193 ② 194 ③ 195 ② 196 ⑤ 197 ㄱ, ㄴ 198 ③ 199 ① 200 (1) 소, 소금 (2) 경제적, 신의 (3) 사대부 201 ④
27	202 ② 203 (1) ○ (2) × 204 ④ 205 ① 206 ② 207 ④ 208 ③ 209 (1) 삶의 방향성 (2) 유유자적 (3) 일치 210 ⑤ 211 ⑤
28	212 ③ 213 (1) ○ (2) × (3) ○ 214 ⑤ 215 ④ 216 ㄱ, ㄷ 217 ⑤ 218 ⑤ 219 ⑤ 220 ② 221 ③
29	222 ① 223 (1) (가), (나) (2) (나) (3) (가) 224 ⑤ 225 ② 226 (1) ○ (2) × 227 ⑤ 228 ① 229 ④ 230 ⑤ 231 (1) × (2) ○
30	232 ② 233 (1) ○ (2) × 234 ⑤ 235 ④ 236 ㄷ 237 ④ 238 ④ 239 (1) 왜적, 연민 (2) 충심, 바람 240 ⑤ 241 ② 242 ⑤
31	243 ④ 244 ㄱ, ㄴ 245 ④ 246 ④ 247 (1) × (2) ○ 248 ③ 249 ② 250 (1) 애련 (2) 환기 (3) 풍요와 안녕 251 ③
32	252 ① 253 (1) ○ (2) × 254 ① 255 ⑤ 256 ㄱ, ㄴ 257 ⑤ 258 ① 259 (1) × (2) ○ 260 ② 261 ⑤ 262 (1) 병자호란 (2) 세자 (3) 백성
33	263 ③ 264 (1) × (2) ○ (3) × 265 ① 266 ⑤ 267 ② 268 ② 269 ④ 270 (1) 만족감 (2) 부정적 (3) 아쉬움 271 ⑤

34	**272** ② **273** (1) ○ (2) × (3) ○ **274** ② **275** ③ **276** ㄴ **277** ③ **278** ⑤ **279** (1) 변함없는 (2) 고모 진태 (3) 골짜기 **280** ④
35	**281** ④ **282** (1) × (2) × (3) ○ **283** ⑤ **284** ④ **285** ㄱ, ㄴ **286** ③ **287** ② **288** (1) ○ (2) × (3) × **289** ② **290** ① **291** (1) 지양 (2) 있는 그대로 누리며
36	**292** ① **293** ㄱ, ㄷ, ㄹ **294** ③ **295** ⑤ **296** (1) × (2) × (3) × **297** ① **298** ③ **299** (1) 학문 수양 (2) 회재 이언적 (3) 정신적 (4) 장차 '나'가 자연으로 돌아갈 것임 **300** ②
37	**301** ④ **302** (1) ○ (2) ○ (3) × **303** ③ **304** ④ **305** ㄱ, ㄷ **306** ③ **307** ④ **308** (1) 화공, 도회인 (2) 감탄 **309** ① **310** ④ **311** (1) × (2) ○
38	**312** ② **313** ㄱ, ㄷ, ㄹ **314** ② **315** ③ **316** ⑤ **317** ③ **318** (1) ○ (2) ○ (3) × (4) ○ **319** ②
39	**320** ① **321** (1) ○ (2) × (3) × **322** ⑤ **323** ③ **324** (1) 흥겨움, 한탄 (2) 그리움, 위안 **325** ③ **326** ④ **327** ㄱ, ㄷ, ㄹ **328** ④ **329** ④ **330** (1) 도착 후 화전놀이 (2) 외부, 내부 (3) 부녀자의 신세 한탄

Ⅲ 복합 ❷

본문 160~231쪽

40	**331** ③ **332** ③ **333** ④ **334** (1) ○ (2) × (3) × **335** ①
41	**336** ① **337** (1) × (2) ○ (3) × **338** ④ **339** ② **340** (1) 4음보 (2) 산림 (3) 가을, 봄
42	**341** ③ **342** (1) ○ (2) ○ (3) × **343** ⑤ **344** ④ **345** ③
43	**346** ③ **347** (1) × (2) ○ **348** ② **349** ④ **350** ㄴ, ㄷ **351** ⑤
44	**352** ① **353** (1) ○ (2) × (3) ○ **354** ② **355** ③ **356** ② **357** ⑤ **358** ⑤ **359** (1) 긍정적 (2) 경계 (3) 현재 **360** ② **361** ②
45	**362** ⑤ **363** (1) ○ (2) × (3) ○ **364** ③ **365** ③ **366** ② **367** ④ **368** ⑤ **369** ③ **370** ⑤ **371** (1) 내적 (2) 내적
46	**372** ② **373** (1) × (2) ○ (3) ○ **374** ④ **375** ② **376** (1) 백발옹 (2) 눈 (3) 절개 **377** ③ **378** ④ **379** (1) 풍류적 (2) 감흥 (3) 속세 **380** ④ **381** ④ **382** (1) ○ (2) × (3) × **383** ③
47	**384** ⑤ **385** ㄱ, ㄴ, ㄹ **386** ④ **387** ⑤ **388** (1) × (2) ○ (3) ○ **389** ④ **390** ② **391** (1) 산중 (2) 여행에서 접한 공간 (3) 자연물 **392** ① **393** (1) × (2) ○ (3) ○ **394** ②
48	**395** ② **396** (1) 명경, 명덕 (2) 속세 (3) 거위 **397** ② **398** ⑤ **399** (1) × (2) ○ **400** ⑤ **401** ③ **402** ① **403** ③ **404** ② **405** ③
49	**406** ① **407** (1) × (2) × (3) ○ **408** ④ **409** ⑤ **410** ② **411** ⑤ **412** (1) 관리들 (2) 은혜, 도 **413** ③ **414** ② **415** ③
50	**416** ① **417** (1) 성취 (2) 백발 (3) 반성 **418** ④ **419** ③ **420** ㄱ, ㄴ **421** ④ **422** ④ **423** ④ **424** ① **425** (1) × (2) × (3) × **426** ①
51	**427** ① **428** (1) ○ (2) × (3) ○ **429** ⑤ **430** ⑤ **431** ② **432** ⑤ **433** ③ **434** (1) 한양 (2) 현재 (3) 성슈만년 **435** ⑤ **436** ③
52	**437** ③ **438** ③ **439** ⑤ **440** ③ **441** (1) 은한 (2) 귀뚜리 (3) 난 **442** ④ **443** ③ **444** ㄱ, ㄷ **445** ③
53	**446** ④ **447** (1) 산림 (2) 수정렴 (3) 예찬적 **448** ⑤ **449** ⑤ **450** (1) × (2) × (3) × **451** ② **452** ② **453** ① **454** ①
54	**455** ② **456** (1) 외씨 (2) 남산 (3) 사람 사이에서 **457** ④ **458** ④ **459** ㄱ, ㄷ **460** ④ **461** ④ **462** (1) × (2) ○ (3) ○ **463** ④
55	**464** ③ **465** (1) × (2) ○ (3) × **466** ③ **467** ④ **468** (1) 백구 (2) 광풍 (3) 서재 **469** ① **470** ⑤ **471** ① **472** ④
56	**473** ③ **474** ㄱ, ㄴ **475** ④ **476** ④ **477** (1) × (2) ○ **478** ③ **479** ③ **480** ③ **481** ④ **482** (1) 칡순 (2) 산나물 (3) 순수
57	**483** ① **484** (1) × (2) ○ (3) ○ **485** ② **486** ③ **487** (1) 등 (2) 병아리 (3) 생명력 **488** ② **489** ⑤ **490** ㄱ, ㄷ **491** ⑤
58	**492** ③ **493** ㄱ, ㄷ **494** ② **495** ④ **496** ⑤ **497** ③ **498** (1) ○ (2) ○ (3) × **499** ⑤
59	**500** ① **501** (1) ○ (2) × (3) × **502** ⑤ **503** ③ **504** (1) 보리밥 풋ᄂᆞ물 (2) 먼 뫼 (3) 강산 **505** ⑤ **506** ③ **507** ① **508** ④ **509** ㄷ **510** ⑤

I 단독

01 어부사시사

작품 분석 본문 16~19쪽

작가 윤선도
갈래 연시조
주제 강촌의 아름다운 풍경과 어부의 흥취
특징 ① 화자가 물아일체의 삶과 나라에 대한 근심 사이에서 갈등함.
② 자연을 긍정적인 대상으로, 속세를 부정적인 대상으로 여기고 대조함.
③ 시간의 추이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④ 설의법, 대구법, 문답법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함.
⑤ 시조의 각 장 사이에 여음구를 넣어 전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함.

한 줄 의미

❶ 봄날의 (강촌)의 풍경
❷ 안개와 달만 실은 (일엽편주)
❸ (비) 갠 후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
❹ 여름 (배) 안에서 느끼는 흥취
❺ 자연의 정취와 세상에 대한 (근심(걱정))
❻ (속세)를 떠난 즐거움
❼ 어부로서의 삶에 대한 (만족감)
❽ 속세와 (단절)되기를 소망함.

001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통사 구조가 유사한 구절을 대응시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통사 구조가 유사한 구절을 대응시켰다는 것은 유사한 형태를 지닌 시구를 짝 지어 제시하는 대구법이 사용되었음을 의미한다. 〈춘 1〉의 '압개예 안긔 것고 뒫뫼희 히 비췬다', 〈춘 7〉의 '갈 제는 ᄂᆡ뿐이오 올 제는 ᄃᆞᆯ이로다', 〈하 1〉의 '구즌비 머저 가고 시낸물이 ᄆᆞᆯ아 온다', 〈추 9〉의 'ᄂᆡ일도 이리ᄒᆞ고 모뢰도 이리ᄒᆞ쟈' 등에서는 대구법을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의문형 어구를 반복하여 심리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춘 7〉의 '일엽편쥬에 시른 거시 무스것고', 〈하 1〉의 '연강텹쟝은 뉘라셔 그려 낸고' 등에서는 의문형 어구를 사용하여 아름다운 풍경에 대한 감탄을 드러내고 있고, 〈추 9〉의 '됴션이 좁다 ᄒᆞ나 부세와 얻더ᄒᆞ니'에서는 의문형 어구를 사용하여 어부로서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을 뿐 심리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하 6〉의 '애내성 중에 만고심을 긔 뉘 알고'에서만 의문형 어구를 사용하여 세상에 대한 근심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의문형 어구를 반복하여 심리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② 부재 ~~대상을 점층적으로 강조하여 시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각 계절에 따른 자연의 풍경과 화자(어부)의 풍류적 삶을 그려 내고 있을 뿐, 대상을 점층적으로 강조하여 시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지는 않다.

④ 부재 ~~색채어를 활용~~하여 시의 분위기를 다채롭게 조성하고 있다.
화자가 머무는 강 풍경이 다채롭게 제시되기는 하였으나 색채어를 활용하여 시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는 않다.

⑤ 부재 ~~상승 이미지와 하강 이미지를 반복~~하여 심리 변화의 양상을 표현하고 있다.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가 반복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통해 화자의 심리 변화의 양상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002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
이 작품은 '춘(봄) → 하(여름) → 추(가을) → 동(겨울)'의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2) 부재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대상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다. (○, ×)
시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 등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 즉 강촌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으나, 공감각적 심상은 활용되고 있지 않다.

(3) 헛짚기 ~~자연을 깨달음을 주는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 ×)
강촌의 아름다운 풍경과 어부의 흥취를 노래하고 있을 뿐, 자연을 깨달음을 주는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지는 않다.

003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원근**: ① 멀고 가까움. ② 먼 곳과 가까운 곳. 또는 그곳의 사람.
- **중의적**: 한 단어나 문장이 두 가지 이상의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정·정·이

④ 물음의 방식으로 말하는 이의 뜻을 강조하여 전달하고 있다.
001번-①의 해설을 참고할 때, 이 작품에서는 물음의 방

식으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오·이

① 부재 ~~과거와 미래를 대비~~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과거와 미래를 대비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통해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부재 ~~해학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을 희화화~~하고 있다.

해학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대상을 희화화하고 있지도 않다.

③ 부재 ~~연쇄적 표현~~을 통해 내용의 긴밀성을 높이고 있다.

연쇄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통해 내용의 긴밀성을 높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부재 ~~원근을 대비하여 대상이 지닌 중의적 의미~~를 보여 주고 있다.

원근을 대비하고 있지 않으며, 대상의 중의적 의미를 보여 주고 있지도 않다.

004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화자 오류 ㉣에서 '부세'와 대응하는 '됴션'은 ~~세속적 삶에 대한 화자의 미련을 반영~~하는군.

'됴션(낚싯배)'은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화자의 삶을 반영하는 공간이고, '부세(헛되고 덧없는 세상)'는 속세를 의미하는데, 화자는 '부세'와 비교하며 '됴션'이 비록 좁아도 그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세속적 삶에 대한 미련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에서 화자가 친숙하게 대하는 소재인 'ᄃᆞᆯ'은 자연에 동화된 삶을 드러내는군.

'ᄃᆞᆯ(달, 달빛)'은 화자가 배에 싣고 오는 자연물로, 자연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화자의 삶을 보여 주는 소재이다.

② ㉡에서 화자의 흥을 돋우는 '낫대'는 자연에서 느끼는 충만감을 고조시키는군.

비가 그친 뒤 시냇물이 맑아지자 화자는 '낫대(낚싯대)'를 둘러메고는 기쁜 흥을 금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므로, '낫대'는 화자가 자연 속에서 느끼는 충만감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에서 '그려 낸' 것으로 여기는 '연강텹장'은 자신을 둘러싼 자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나타내는군.

'연강텹장'은 안개 낀 강과 겹겹이 쌓인 산봉우리를 가리키는데, 화자가 이를 그려 낸 듯하다고 인식하는 모습에서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이 나타난다.

⑤ ㉤에서 화자가 기대하는 'ᄂᆡ일'과 '모뢰'에는 현재의 삶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심리가 내재되어 있군.

옷 위에 서리가 와도 추위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자연 속에서 만족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화자는 내일과 모레 즉 앞으로도 이러한 삶이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다.

005 답 (1) 만족감 (2) 부정적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만경징파에 슬ᄀᆞᆺ지 용여ᄒᆞ쟈'에는 화자의 (초조함, (만족감))이 담겨 있다.

화자는 '만경징파에 슬ᄀᆞᆺ지 용여ᄒᆞ쟈'에서 자연을 실컷 즐기고자 하는 심정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여기에는 자연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화자의 만족감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2) 상반 '부세'와 '딘훤'은 속세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 준다.

'부세'는 헛되고 덧없는 세상을, '딘훤'은 속세의 시끄러움을 의미한다. 따라서 속세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006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혼탁**: 정치, 도덕 따위 사회적 현상이 어지럽고 깨끗하지 못함.
- **풍류**: 멋스럽고 풍치가 있는 일. 또는 그렇게 노는 일.
- **부조리**: 이치에 맞지 아니하거나 도리에 어긋남. 또는 그런 일.

정·정·이

② 헛짚기 〈하 3〉에서 ~~'북포남강'은 '녀름 ᄇᆞ람'에 'ᄇᆡ' 가는 대로 맡겨 두고 있는 화자의 삶과 대조를 이루면서 현실의 혼탁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군.

〈하 3〉에서 화자는 '녀름 ᄇᆞ람'에 'ᄇᆡ' 가는 대로 가다 '북포남강', 즉 북쪽 포구나 남쪽 강 어느 곳에 이르러도 좋다고 하고 있으므로, '북포남강'은 화자가 즐기는 자연일 뿐 화자의 삶과 대조를 이룬다고 볼 수 없으며, 현실의 혼탁함을 드러낸다고도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춘 1〉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교차하는 '안기'와 'ᄒᆡ', '밤믈'과 '낟믈'

은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군.

〈춘 1〉에서 안개가 걷히고 해가 비치고, 썰물이 빠지고 밀물이 밀려오는 풍경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보여 주는 것이다.

③ 〈하 6〉에서 '만고심'이란 어부 생활의 풍류를 즐기면서도 한편으로는 현실을 떠올리고 안타까워하는 화자의 내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군.

〈하 6〉의 '만고심'은 화자가 '수조가'를 부르면서 어부 생활의 풍류를 즐기는 가운데 느끼게 되는 근심으로, 이는 자신이 즐기는 자연의 질서와 조화가 결여된 현실을 떠올리고 느끼는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추 2〉에서 '만경징파에 슬ᄀᆞ지 용여ᄒᆞ자'는 화자의 말은 자연에 몰입하여 흥취를 즐기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군.

〈추 2〉에는 가을이 되어 고기마다 살이 올라 있는 어촌의 모습에 감탄하며 자연을 실컷 즐기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⑤ 〈추 2〉에서 '머도록 더욱 됴타'는 '인간'으로 제시된 현실의 부조리함에 대한 화자의 거리감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군.

〈추 2〉에서 '인간(속세)'은 '수국(바다)' 즉 자연과 대비되는 공간으로, 화자에게는 멀수록 더욱 좋은 곳이다. 화자는 속세와 멀수록 더욱 좋다고 함으로써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007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A]의 '구룸'은 〈보기〉의 '명월'과 달리 부정적 현실을 차단하는 자연물로 기능하고 있다.

[A]의 '구룸'은 화자가 있는 곳에서 '세샹' 즉, 속세를 가려 주는 기능을 하는 자연물이다. 한편 〈보기〉의 '명월'은 화자가 벗으로 삼고자 하는 자연물이다.

오·오·이

① 화자 오류 〈보기〉는 ~~[A]와 달리 현실 개혁에 대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보기〉의 화자는 임자 없는 풍월 강산에 살며 저절로 늙겠다고 하며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을 뿐, 현실의 삶을 개혁하겠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② 범위 오류 [A]는 〈보기〉~~와 달리~~ 현재의 삶에 순응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A]의 화자는 속세의 시끄러움이 닿지 않는 자연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수용하고 있고, 〈보기〉의 화자 역시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삶에 만족하면서 그 속에서 늙어 가겠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두 화자 모두 현재의 삶에 순응하려는 자세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④ 범위 오류 [A]는 '묽ᄀᆞ'와 '세샹'의 대비를 통해, 〈보기〉는 '강호'와 '풍월 강산'의 대비를 통해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A]에서 '묽ᄀᆞ'는 화자가 머물고 있는 공간, 즉 자연을 의미하고 '세샹'은 화자가 거리를 두고자 하는 공간, 즉 속세를 의미하므로 두 공간의 대비를 통해 주제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기〉의 '강호'와 '풍월 강산'은 모두 자연을 의미하므로 대비된다고 볼 수 없다.

⑤ 범위 오류 [A]와 〈보기〉 모두 화자 자신의 삶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보기〉의 화자는 '강호 한 꿈을 꾼 지도 오래러니 / 입과 배가 누가 되어 어즈버 잊었도다'에서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잊었던 자신에 대한 반성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A]의 화자는 속세와 거리를 둔 채 자연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을 뿐 반성적 태도는 드러내고 있지 않다.

정·오 지름길

⑤ [A]와 〈보기〉 모두 화자 자신의 삶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보기〉는 고어로 제시된 작품이 아닌데도 1~2행은 화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반성적 태도를 보이는지 파악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1~2행을 읽기 쉬운 말로 고쳐 보면 '자연을 벗 삼아 살아가겠다고 한 꿈을 꾼 지도 오래거니 / 먹고사는 것이 누가 되어 아, 잊었도다'라는 뜻이에요. 즉 여기서는 먹고사느라 자연을 벗 삼아 사는 생활을 소홀히 했던 자신을 반성하는 모습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A]에는 반성적 태도가 나타나 있지 않은 게 확실해요. 따라서 〈보기〉의 작품에 대해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확실하게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을 토대로 정오답을 가려내는 연습을 해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008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상반 [A]에서 '파랑셩'은 '구룸'과 ~~대조적인~~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A]의 '구룸'과 '파랑셩'은 모두 화자가 있는 곳에서 속세를 가려 주는 기능을 하는 자연물들이므로,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② 〈보기〉의 '강호'와 '풍월 강산'은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보기〉의 '강호'와 '풍월 강산'은 모두 화자가 살아가고자

하는 자연을 의미한다.

③ [A]와 〈보기〉의 화자는 모두 자연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A]의 화자는 속세의 시끄러움이 닿지 않는 자연에서 사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고, 〈보기〉의 화자 역시 자연에서 사는 삶에 만족하면서 그 속에서 늙어 가겠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A]와 〈보기〉의 화자 모두 자연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009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본분**: 의무적으로 마땅히 지켜 행하여야 할 직분.
- **비관적**: ① 인생을 어둡게만 보아 슬퍼하거나 절망스럽게 여기는. ② 앞으로의 일이 잘 안될 것이라고 보는.

정·정·이

② 〈보기〉의 화자는 [가]의 화자와 달리 자연 속에 머무르면서도 신하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고 있다.

〈보기〉의 화자는 중장과 종장에서 임금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고 있는 충신으로서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지만, [가]의 화자는 신하로서의 본분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오·오·이

① 범위 오류 [가]의 '수국'은 〈보기〉의 '강산'과 달리 화자가 지향하는 아름다운 자연 공간을 의미한다.

[가]의 '수국'과 〈보기〉의 '강산' 모두 화자가 지향하는 아름다운 자연 공간을 의미한다.

③ 화자 오류 [가]와 〈보기〉 모두 화자가 속세를 떠나 느끼는 비관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가]의 화자는 '인간을 도라보니 머도록 더욱 됴타'에서 속세를 떠난 즐거움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가]의 화자가 속세를 떠나 느끼는 비관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보기〉의 화자는 '강산이 됴타'에서 자연에서 사는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을 뿐, 속세를 떠나 느끼는 비관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④ 화자 오류 [가]와 〈보기〉 모두 유교적 가치관에 대한 화자의 저항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가]의 화자는 '인간을 도라보니 머도록 더욱 됴타'에서 속세에서 멀어지고자 하는 심정을 드러내고 있을 뿐, 유교적 가치관에 대한 저항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보기〉의 화자는 중장과 종장에서 유교적 가치관인 임금에 대한 '충'을 드러내고 있을 뿐, 유교적 가치관에 대한 저항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⑤ 헛짚기 [가]의 '인간'과 〈보기〉의 '내 분'은 모두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화자 자신을 비유한 표현이다.

[가]의 '인간'은 화자가 거리를 두고자 하는 속세를 의미하는 표현일 뿐, 화자 자신을 비유한 표현이 아니다. 〈보기〉의 '내 분'은 자연 속에서 편하게 사는 것이 자신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임금님의 은혜 덕분임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일 뿐, 화자 자신을 비유한 표현이 아니다. 또한 [가]와 〈보기〉의 화자 모두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지도 않다.

010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향수**: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나 시름.
- **감흥**: 마음속 깊이 감동받아 일어나는 흥취.

정·정·이

③ ⓐ와 ㉮는 모두 화자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공간을 차단하고 있다.

이 작품의 '머흔 구룸(ⓐ)'과 '파랑성'은 세속적 공간인 '세상'과 '딘흰'을 차단하는 기능을 한다. 〈보기〉의 '만첩청산(㉮)'도 '천심녹수'와 함께 속세를 의미하는 '십장홍진'을 차단하는 기능을 한다. 즉 ⓐ와 ㉮는 모두 화자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공간인 속세 또는 번잡한 인간 세상과 화자를 단절시켜 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와 ㉮는 모두 역동적인 느낌을 강화하고 있다.

'머흔 구룸(ⓐ)'과 '만첩청산(㉮)' 모두 역동적인 느낌과는 관련이 없다.

② 헛짚기 ⓐ와 ㉮는 모두 화자가 도달해야 할 도덕적 가치를 상징하고 있다.

'머흔 구룸(ⓐ)'과 '만첩청산(㉮)' 모두 속세를 가려 주는 역할을 할 뿐, 화자가 도달해야 할 도덕적 가치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④ 범위 오류 ⓐ는 향수를 유발하고 있고, ㉮는 감흥을 자아내고 있다.

속세를 단절시켜 주는 '만첩청산(㉮)'은 자연에 대한 감흥을 자아내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머흔 구룸(ⓐ)'이 향수를 유발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⑤ 범위 오류 ⓐ는 계절적 배경을, ㉮는 공간적 배경을 알려 주고 있다.

'만첩청산(㉮)'은 화자가 있는 자연이라는 공간과 관련된 시어로 공간적 배경을 알려 주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머흔 구룸(ⓐ)'이 특정 계절을 알려 준다고 볼 수는 없다.

02 어부단가

작품 분석 본문 20~21쪽

작가 이현보
갈래 연시조
주제 강호에 묻혀 사는 어부의 풍류와 한가로움
특징 ① 화자는 자연에 몰입하는 즐거움과 우국충정 및 연군지정을 드러냄.
② 자연과 속세를 드러내는 대조적인 시어를 활용함.
③ 설의법, 대구법, 의인법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해 시상을 전개함.
④ 상투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정경 묘사가 추상적이고 관념적임.
⑤ 고려 때부터 전해지던 「어부가」를 개작한 작품임.

한 줄 의미
❶ 속세를 잊은 (**어부**)의 생활
❷ (**자연**)에 몰입하여 사는 즐거움
❸ 자연의 참된 의미를 모르는 세태에 대한 (**탄식**)
❹ 자연과의 (**물아일체**)의 삶
❺ 우국충정과 (**연군지정**)

011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부재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일엽편주', '노적화총에 빅 미야 두고', '어주에 누어신들' 등에서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어부의 생활을 하고 있는 화자의 처지를 확인할 수 있으나, 시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지게 사용되었을 뿐 청각적 이미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오·오·이

① 대구의 방식을 통해 운율감을 조성하고 있다.
〈제2수〉의 '구버는 천심녹수 도라보니 만첩청산', 〈제4수〉의 '산두에 한운이 기ᄒᆞ고 수중에 백구ㅣ 비이라' 등에서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운율감을 조성하고 있다.

② 영탄의 어조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제1수〉의 '이 듕에 시름 업스니 어부의 생애로다', 〈제5수〉의 '장안을 도라보니 ~ 니즌 스치 이시랴' 등에서 자연에서 살아가는 즐거움과 나라와 임금을 걱정하는 마음 등을 영탄의 어조로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공간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천심녹수', '만첩청산', '월백', '청하', '녹류' 등 색채 이미지가 드러나는 시어를 통해 화자가 있는 공간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④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제2수〉의 '십장홍진이 언매나 ᄀᆞ렛ᄂᆞᆫ고', 〈제3수〉의 '어ᄂᆡ 부니 아ᄅᆞ실가', 〈제5수〉의 '제세현이 업스랴' 등에서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012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공간의 대비가 드러나 있다. (○, ×)
화자가 어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자연의 공간인 '만경파', '천심녹수', '만첩청산', '강호', '노적화총' 등과 속세의 공간인 '인세', '십장홍진', '장안', '북궐' 등이 대비되고 있다.

(2) 헛짚기 ~~노동하는 어부의 생활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 ×)
화자는 자연에서 유유자적하며 어부의 삶을 살고 있지만, 실제 어부가 아닌 가어옹(가짜 어부라는 뜻으로, 속세를 떠나 강호에서 낚시하면서 시나 읊고 술잔을 기울이던 양반을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화자가 자연에 살며 느끼는 즐거움과 만족감은 드러나지만, 노동하는 어부의 생활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3) 수(數) 표현을 통해 속세와의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다. (○, ×)
〈제2수〉에서는 '천', '만'의 숫자를 통해 속세와 단절된 거리를 강조하고 있고, 〈제5수〉에서는 '북궐이 천 리'라고 하면서 심리적 거리감을 표현하고 있다.

013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대상을 의인화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제4수〉의 '너를 조차 노로리라'에서 '한운'과 '백구'를 의인화하여 '너'라 지칭함으로써 자연에 대한 화자의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계절적 배경을 통해 암울한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 있지 않으며 암울한 시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도 않다.

② 부재 ~~대상을 점층적으로 강조하여 시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대상을 점층적으로 강조하고 있지 않으며 시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지도 않다.

④ 부재 ~~반어법을 사용하여~~ 속세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제1수〉의 '인세를 다 니젯거니', 〈제2수〉의 '십장홍진이 언매나 ᄀᆞ렛ᄂᆞᆫ고' 등에서 속세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반어법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⑤ 부재 ~~공간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가치관이 변화하는 과정을 드러내~~

~~있다.~~

화자가 자연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공간의 이동은 드러나 있지 않으며, 화자의 가치관이 변화하는 과정도 드러나 있지 않다.

014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시작**: 시를 지음. 또는 그 시.
- **정계**: 정치에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조직체나 개인의 활동 분야.
- **사직**: 맡은 직무를 내놓고 물러남.
- **우국**: 나랏일을 근심하고 염려함.

정·정·이

⑤ 헛짚기 '내 시름'은 ~~시작(詩作)에 따르는 괴로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제5수〉에서 '내 시름'은 '장안'의 '북궐'에서 비롯된 근심을 말하는데, '장안'의 '북궐'은 임금이 계신 곳을 상징하므로 여기에서 비롯된 시름은 임금과 나라에 대한 근심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어부의 생애'는 귀향 후의 유유자적하는 삶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보기〉에서 이현보가 고향에 돌아와 자연을 즐겼다고 한 것으로 보아, '어부의 생애'는 이현보의 귀향 후의 유유자적하는 삶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십장홍진'은 혼탁한 정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보기〉에서 이현보가 혼탁한 정계에 싫증을 느꼈다고 한 점과 관련지어 볼 때, '천심녹수'와 '만첩청산'으로 가리고자 한 속세의 모습, 즉 '십장홍진'은 혼탁한 정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한운'과 '백구'는 작가가 즐기는 자연으로 볼 수 있겠군.

〈보기〉에서 이현보가 귀향 후 자연을 즐기며 살았고 이 작품에는 유유자적하는 삶이 담겨 있다고 한 것으로 볼 때, '한운(한가로운 구름)'과 '백구(갈매기)'는 작가가 즐기는 자연으로 볼 수 있다.

④ '니즌 스치 이시랴'는 사직한 후에도 우국의 심정을 지녔음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겠군.

〈보기〉에서 이현보가 이 작품에 우국의 심정을 담아 형상화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어주'에 누워서도 잊은 적이 없는 것은 나랏일임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니즌 스치 이시랴'는 사직한 후에도 우국의 심정을 지녔음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015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교체 ㉠과 ㉡에서 심리적 갈등을 겪던 화자가 선택한 최종적인 삶의 방향은 ~~㉠~~의 대상이다.

㉠을 통해 화자는 속세와의 단절을 확인한 후 강호에 비치는 달을 보며 더욱 마음을 비우고 있고, ㉡을 통해서는 어지러운 속세에 대한 걱정을 떠올리고 있다. 화자는 자연 속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면서도 나라와 임금에 대한 걱정을 놓지 않고 있어 둘 사이에서 갈등을 겪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의 시름이 아니라고 하며 자연 속의 삶을 선택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가 선택한 최종적인 삶의 방향은 ㉠의 대상이다.

오·오·이

① '만첩'은 ㉠과 ㉡의 대상 간의 단절을 강조하는 시어이다.

'만첩'이라 할 만큼 겹겹이 쌓인 청산은 속세와 자연을 단절시키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② '월백'은 '홍진'과 대비되어 강호 공간의 청정하고 순수한 이미지를 부각한다.

달이 밝게 비치는 모습인 '월백'은 '홍진(붉은 먼지)'으로 표현되는 속세와 대비되어 강호 공간의 청정하고 순수한 이미지를 부각한다.

③ ㉠은 '더욱 무심ᄒᆞ얘라'와 연결되어 강호 공간에서 화자가 추구하려는 자기 절제의 내면세계를 드러낸다.

화자는 '만첩청산'을 돌아본 후 더욱 무심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더욱 무심해지고자 하는 화자의 내면세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은 '니즌 스치 이시랴'와 연결되어 강호 공간에서도 버릴 수 없었던 정치적 이상에 대한 미련을 드러낸다.

화자는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긍정적으로 그리면서도 '니즌 스치 이시랴'라고 말함으로써 속세에 대한 미련, 즉 정치적 이상에 대한 미련을 보이고 있다.

03 조홍시가

작품 분석 본문 22~23쪽

작가 박인로
갈래 연시조
주제 부모에 대한 효심과 유학자로서의 자긍심
특징 ① 효와 관련된 고사를 적절히 인용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함.
②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화자의 의지를 드러냄.
③ 은유법, 직유법, 설의법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함.

한 줄 의미

❶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❷ (**효성**)을 다할 것을 다짐함.
❸ 늙으신 (**부모님**)이 천천히 늙기를 바람.
❹ 봉황새와 어울리고 싶어 하는 (**외까마귀(까마귀)**) / 현인군자들과 교유하는 유학자로서의 자긍심

016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제3수〉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제3수〉에서는 큰 쇳덩어리를 늘려 노를 꼬아 지는 해를 잡아매고 싶다고 하였다. 화자는 이와 같이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부모님이 늙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을 강렬하게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제1수〉에서는 ~~계절적 배경을 묘사하여 생동감을 주고~~ 있다.
〈제1수〉에서 화자는 '조홍감'을 보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떠올리며 서러움을 느끼고 있을 뿐, 계절적 배경을 묘사하여 생동감을 주고 있지는 않다.

② 부재 〈제2수〉에서는 ~~선경후정의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제2수〉에서 '왕상의 잉어'나 '맹종의 죽순', '노래자의 옷'은 효와 관련된 고사를 인용한 부분으로 풍경 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경후정의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했다고 보기 어렵다.

④ 부재 〈제4수〉에서는 ~~점층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제4수〉에서는 은유법, 직유법, 설의법 등을 사용하여 현인군자들과 교유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을 뿐, 점층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의 특성을 부각하고 있지는 않다.

⑤ 화자 오류 〈제1수〉와 〈제3수〉에서는 자연물을 활용하여 ~~삶의 무상함을 제시하고~~ 있다.
〈제1수〉에서는 '조홍감', 〈제3수〉에서는 '장천', '해' 등의 자연물이 활용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삶의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017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고사**: 유래가 있는 옛날의 일. 또는 그런 일을 표현한 어구.
- **자책**: 자신의 결함이나 잘못에 대하여 스스로 깊이 뉘우치고 자신을 책망함.

정·정·이

② 〈제2수〉에서는 고사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제2수〉에서는 '왕상의 잉어'나 '맹종의 죽순', '노래자의 옷'과 같은 효와 관련된 고사를 활용하여 효성을 다하겠다는 화자의 다짐을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제1수〉에서는 ~~정유형 어미를 사용하여 과거의 잘못을 자책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제1수〉에서는 청유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화자는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을 뿐 과거의 잘못을 자책하고 있지 않다.

③ 화자 오류 〈제4수〉에서는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부정적 현실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강조~~하고 있다.
〈제4수〉의 종장에 설의적 표현이 사용되고는 있으나 이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현인군자들과의 교유에 대한 화자의 자부심을 드러낸 것이다.

018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부재 연쇄와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제3수〉의 '길게 길게'에서 반복법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연쇄법이 사용된 부분은 이 작품에서 찾을 수 없다.

오·오·이

② 대비되는 시어를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④ 설의적인 표현을 통해 화자의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제4수〉에서는 현인군자들을 상징하는 '군봉', '백옥'과 화자를 상징하는 '외까마귀', '돌 하나'의 대비(②)와 설의적

표현(④)을 통해 현인군자들과의 교유에 대한 화자의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③ 비유적 표현을 통해 상황을 재치 있게 표현하고 있다.

〈제4수〉에서는 현인군자들과 화자를 동물과 사물에 비유함으로써 상황을 재치 있게 표현하고 있다.

⑤ 과장된 표현을 통해 화자의 바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제3수〉에서는 하늘에 닿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쇳덩어리를 길게 늘려 지는 해를 잡아매겠다고 과장하여 표현함으로써 늙으신 부모님이 천천히 늙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019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화자 오류 '백옥 쌓인 곳'에 '돌 하나 같다'는 것은 ~~화자가 부모님께 불효한 것에 대해 자책한 것~~으로 볼 수 있겠어.

〈제4수〉에서 '백옥 쌓인 곳에 돌 하나 같다'는 것은 초장의 '군봉 모이신 데 외까마귀 들어오니'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여기서 '외까마귀'는 효를 실천하고 싶은 화자를, '군봉'은 앞서 제시된 왕상, 맹종, 노래자, 증자와 같은 효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외까마귀가 군봉 속에 끼어들었다는 것은 화자도 이름난 효자들과 같이 효를 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로 보아 '백옥 쌓인 곳에 돌 하나 같다'를 화자가 부모님께 불효한 것에 대한 자책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오·오·이

① '군봉'은 〈제2수〉에서 언급된 효를 실천한 위대한 사람들로 볼 수 있겠어.

〈보기〉에 따르면 '군봉'은 〈제2수〉에 제시된 인물들, 즉 왕상, 맹종, 노래자, 증자와 같이 역사적으로 효를 실천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외까마귀'는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자 하는 화자의 모습으로 볼 수 있겠어.

까마귀가 효조로 널리 알려져 있다는 〈보기〉의 내용을 고려하면 '외까마귀'는 부모님께 효도하고자 하는 화자 자신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봉황'도 '비조와 류'라고 한 것은 위대한 효자도 화자와 같은 인간이라는 점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어.

'봉황도 비조와 류시니'는 봉황도 나는 새의 한 종류이고 외까마귀도 새이므로 결국 봉황과 외까마귀는 같은 새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는 역사적으로 위대한 효자도 화자와 같은 인간이라는 점을 이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봉황'을 '모셔 논'다는 것은 효자로 이름난 사람들을 본받고 싶어 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

'봉황'을 '모셔 논'다는 것은 효자로 이름난 역사적 인물들과 섞이고 싶다는 의미로, 그들의 효심을 본받아 화자 자신도 효자가 되고 싶다는 심정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020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상반 '맹종'의 눈물과 화자의 서러움의 원인은 ~~동일하다~~ 다르다.

'맹종'이 대숲에서 눈물을 흘린 것은 어머니가 먹고 싶어 하는 죽순을 겨울에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고, 이 작품의 화자가 조홍감을 보고 서러워하는 것은 조홍감을 품어 가도 그것을 드실 부모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므로 이 둘의 원인은 서로 다르다.

오·오·이

① '조홍감'에서 화자는 육적의 '유자'를 떠올렸다.

'조홍감'을 본 화자가 '유자이 아니라도 품음직 하다마는'이라고 한 것을 볼 때, 육적이 품은 '유자'가 떠올라 조홍감을 집에 품어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음을 알 수 있다.

② '왕상의 잉어'는 효를 실천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보여 준다.

왕상은 잉어를 먹고 싶어 하는 계모를 위해 겨울에 옷을 벗고 얼음을 깨려고 할 만큼 효심이 깊은 인물이다. 화자는 이러한 왕상의 고사를 인용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효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④ '노래자'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부모님을 위해서라면 화자가 나이에 맞지 않는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래자'는 70세의 나이에도 색동옷을 입고 부모님을 즐겁게 해 드릴 만큼 효심이 깊은 인물이다. 화자는 이러한 노래자의 고사를 인용하여 자신도 노래자처럼 나이에 맞지 않는 일도 무릅쓰고 효도를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화자는 '왕상'과 '노래자'가 효를 실천한 방법은 다르지만 '양지성효'라는 점에서는 공통성이 있다고 본다.

화자는 효자인 왕상, 맹종, 노래자를 언급하며 이들과 같이 부모에게 효를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화자가 왕상과 노래자가 양지성효를 실천했다고 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04 전가팔곡

작품 분석 본문 24~25쪽

작가 이휘일
갈래 연시조
주제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즐거움과 보람
특징 ① 농부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건강한 노동과 소박한 농촌의 삶의 모습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냄.
② 농기구와 농부들의 소박한 밥상 등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소재를 통해 농촌의 모습을 제시함.
③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④ 자문자답, 청유형·명령형 문장을 활용함.

한 줄 의미

❶ 서사_사골에 살며 (**풍년**)을 기원함.
❷ 춘_(**이웃(농인)**)과 함께 서로 도우며 농사일을 시작함.
❸ 하_땀을 흘리고 (**더위**)를 견디며 농사일을 함.
❹ 추_농사지어 수확한 (**곡식**)으로 밥을 지어 먹으며 만족함.
❺ 동_(**내년**) 봄이 오면 바로 농사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함.
❻ 새벽_(**새벽**)부터 농사일을 하러 부지런히 밭으로 나감.
❼ 낮_고생하는 (**농부들**)과 함께 소박한 음식을 먹음.
❽ 저녁_(**농사일**)을 마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옴.

021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화자 오류 자문자답의 방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안타까움을 부각~~시키고 있다.

〈제1수〉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고'라고 묻고 '이 중의 우국성심은 풍년을 원하노라.'라고 답하고 있다. 여기에서 자문자답의 방식이 활용되었으나, 이는 풍년을 기원하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지 화자의 안타까움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오·이

① 대구법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제2수〉의 '앞집의 쟁기 잡고 뒷집의 따비 내네'와 〈제5수〉의 '밤에는 새끼를 꼬고 낮에는 띠를 베어' 등에서 대구법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② 설의법을 활용하여 삶의 깨달음을 나타내고 있다.

〈제3수〉의 '어사와 입립신고 어느 분이 아실까.'에서 설의법을 활용하여 농사일의 어려움에 대한 깨달음을 나타내고 있고, 〈제4수〉의 '이밖에 천사만종을 부러 무엇하리오.'에서 설의법을 활용하여 부귀영화를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삶의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또 〈제8수〉의 '이 중의 즐거운 뜻을 일러 무엇하리오.'에서 설의법을 활용하여 전원에서의 삶의 가치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③ 명령형의 문장을 활용하여 구체적 행동을 지시하고 있다.

〈제5수〉의 '초가집 잡아매고 농기 좀 손보아라', 〈제7수〉의 '배곯는 농부들을 진시예 먹여라'에서 명령형의 문장을 활용하여 구체적 행동을 지시하고 있다.

④ 청유의 방식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행동을 이끌어 내고 있다.

〈제6수〉의 '아희들아 밭 보러 가자꾸나', 〈제8수〉의 '호미를 둘러메고 달 지고 가자꾸나'에서 청유의 방식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행동을 이끌어 내고 있다.

022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계절적 배경을 소재로 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 작품은 '서사, 춘-하-추-동, 새벽-낮-저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계절별로 농부들이 하는 일과 하루 동안의 농부들의 일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농촌에서 농사짓는 즐거움과 보람을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동일한 시구의 반복~~으로 작품 전체에 안정감을 주고 있다.

이 작품에서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를 통해 작품 전체에 안정감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부재 ~~색채 대비를 통해 대상의 속성을 대조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에는 대비되는 색채 이미지가 나타나 있지 않으며, 대상의 속성이 대조되고 있지도 않다.

023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인용**: 남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 씀.
- **고단함**: 일이 몹시 피곤할 정도로 힘듦.

정·정·이

④ 부재 〈제5수〉의 '밤에는 새끼를 꼬고 낮에는 띠를 베어'에서는 ~~행위의 대비를 통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이겨 내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밤에는 새끼를 꼬고 낮에는 띠를 베어'에서 '밤'과 '낮'이라는 시간적 배경이 대비되고는 있으나 새끼를 꼬고 띠를 베는 것은 모두 내년 봄을 준비하기 위해 해야 하는 행위이므로 대비된다고 볼 수 없다. 또 화자는 내년의 농사일을 준비하고 있을 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지 않으

므로 이를 이겨 내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제2수〉의 '봄 왔네 밭에 가세'에서는 이웃 농인의 말을 인용하여 농부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봄 왔네 밭에 가세'는 봄을 맞아 서로 도와 농사일을 시작할 것을 권유하는 말로, '농인이 와 이르되'를 통해 볼 때 이웃 농인이 한 말을 인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제3수〉의 '땀 흘러 땅에 떨어지네'에서는 하강적 이미지를 통해 농사일의 고단함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땀 흘러 땅에 떨어지네'는 땀이 떨어지는 하강적 이미지를 통해 농사일의 수고로움과 고단함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제4수〉의 '좋기도 좋을시고'에서는 '좋다'는 의미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만족감을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다.

〈제4수〉에서 화자는 힘들게 농사지어 수확한 곡식을 보고 '좋기도 좋을시고'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좋다'는 의미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만족감을 강조하고 있다.

⑤ 〈제6수〉의 '백설이 소리한다'에서는 청각적 심상을 통해 새벽부터 농사일을 시작하는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제6수〉에서는 새벽이 되어 온갖 새가 노래한다는 청각적 심상을 통해 새벽부터 농사일을 시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024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근경**: 가까이 보이는 경치. 또는 가까운 데서 보는 경치.
- **원경**: 멀리 보이는 경치. 또는 먼 데서 보는 경치.
- **노고**: 힘들여 수고하고 애씀.
- **조응**: 둘 이상의 사물이나 현상 또는 말과 글의 앞뒤 따위가 서로 일치하게 대응함.
- **순환성**: 주기적으로 자꾸 되풀이하여 도는 성질.

정·정·이

④ 부재 [C]는 ~~각 수마다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확대해 가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 주고~~ 있어.

〈제8수〉는 초장의 '서산에 해 지고'와 '풀 끝에 이슬 맺힌다'는 내용을 통해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의 이동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으나, 〈제6수〉와 〈제7수〉에는 시선의 이동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따라서 [C]는 각 수마다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확대해 간다고 볼 수 없으며, [C]에서는 농촌의 일상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각 수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 주고 있다는 설명도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A]에는 [B]와 [C]의 시간을 통해 실현하고 싶은 화자의 소망이 드러나 있어.

'서사'인 [A]에서 화자는 풍년이 들기를 바라고 있으며 [B]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이, [C]에는 새벽, 낮, 저녁이라는 하루 동안의 시간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A]에는 [B]와 [C]의 시간을 통해 실현하고 싶은 화자의 소망, 즉 풍년이라는 소망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B]에는 사계절에 따라 '시작–노고–결실–준비'로 조응되는 농사의 과정이 드러나 있어.

[B]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흐름에 따른 농사의 과정이 드러나 있다. 즉 봄에는 농사를 시작하는 모습이, 여름에는 땀 흘려 일하는 모습이, 가을에는 결실을 맺는 모습이, 겨울에는 다음의 농사를 준비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③ [B]는 봄부터 겨울을 거쳐 다시 봄으로 이어지는 시간의 순환성을 바탕에 둔 것이라 할 수 있어.

[B]에는 '춘–하–추–동'의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 있으며, 특히 〈제5수〉에서는 '내년에 봄 온다 하거든'이라고 하여 또 다시 내년 봄을 생각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따라서 [B]는 봄부터 겨울을 거쳐 다시 봄으로 이어지는 시간의 순환성을 바탕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C]는 하루 동안의 시간을 통해 농촌의 일상을 드러내고 있어.

[C]에는 '새벽–낮–저녁'으로 이어지는 하루 동안의 시간이 나타나 있다. 즉 [C]에서는 밭으로 일을 하러 나가자고 하는 새벽,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낮, 농사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저녁의 모습을 통해 농촌의 일상을 나타내고 있다.

025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화자 오류 [A]에서는 '세상의 버린 몸'으로 '풍년'을 바라는 마음을 통해 ~~정치 현실에 대한 화자의 미련~~을 드러내고 있다.

[A]에서는 속세를 떠난 화자가 전원에 묻혀 살면서 나라를 걱정하는 사대부의 마음을 '풍년'을 통해 드러내고 있을 뿐, 정치 현실에 대한 미련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오·오·이

② [B]에서는 '쟁기', '밭고랑', '곡식', '새끼' 등을 통해 사계절 동안 화자가 경험한 농민의 삶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쟁기', '따비', '밭고랑', '곡식', '새끼', '띠' 등은 농사일, 농

촌과 관련된 시어로, [B]에서 화자는 이러한 시어를 활용하여 계절별로 농부들이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③ [B]에서는 '입립신고', '좋을시고' 등을 통해 일 년 농사일로 화자가 느낀 고단함과 만족감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

[B]에서 화자는 '입립신고'를 통해 여름에 더위를 견디며 농사일을 하는 고단함을, '좋을시고'를 통해 가을에 농사지은 곡식을 수확한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다.

④ [C]에서는 '즐거운 뜻'을 통해 하루 일과를 마친 농부의 즐거움을 제시하고 있다.

[C]에서 화자는 새벽부터 시작한 농사일을 마치고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즐거움을 '즐거운 뜻'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⑤ [A]에서는 '우국성심'으로 '풍년'을 기원하는 사대부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고, [B], [C]에서는 직접 농사일을 하는 생활인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화자는 [A]에서는 속세를 떠나 있지만 사대부로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풍년을 기원하고 있고, [B], [C]에서는 건강한 노동을 하며 소박하게 살아가면서 농촌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05 관동별곡

작품 분석 본문 26~29쪽

작가 정철
갈래 가사
주제 관동 지방의 절경 유람과 연군, 선정의 포부
특징 ① 여정, 산수, 풍경, 고사, 풍속, 감회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음.
② 화자의 정서적 추이와 갈등이 함축적으로 드러남.
③ 3(4)·4조, 4음보의 율격을 지님.
④ 영탄법, 대구법, 은유법, 직유법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함.
⑤ 우리말의 묘미를 살리는 표현이 많음.
⑥ 시간과 공간의 이동에 따라 내용을 전개함.

한 줄 의미

❶ (금강대)에서의 신선적 풍모
❷ (진헐대)에서의 조망과 망고대, 혈망봉의 기개
❸ (개심대)에서의 금강산 조망
❹ 개심대에서 (비로봉)을 본 감회
❺ (화룡소)에서의 감회
❻ (불정대) 십이 폭포의 장관
❼ (동해)로 향하는 감회

026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개심대'에서는 선경후정의 방식으로 화자가 바라본 풍경과 그에 대한 감흥이 서술되고 있다.

화자는 '개심대'에 올라 금강산의 만 이천 봉우리를 조망하고, 그에 대한 감흥을 서술하고 있다. 즉 금강산의 만 이천 봉우리마다 맺혀 있는 맑고 깨끗한 기운을 먼저 묘사한(선경) 후 금강산의 기운을 흩어 뛰어난 인재를 만들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후정) 있는 것이다.

오·오·이

① 화자 오류 '금강대'에서 '진헐대'로 이동하면서 자연에 대한 화자의 ~~이중적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일관된 태도

화자는 '금강대'의 '선학'이 '서호 녯 주인'을 반기는 것처럼 자신을 반기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데, 이는 화자가 자연 속에서 만족감을 느끼며 자연에 동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진헐대'에 올라 금강산의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하는 것으로 보아, 화자가 '금강대'에서 '진헐대'로 이동하면서 자연에 대해 일관되게 긍정적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화자가 자연에 대해 이중적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부재 '진헐대'와 '불정대'에서는 ~~이미지의 대립을 통해 화자의 내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진헐대'와 '불정대'에서 이미지의 대립은 드러나 있지 않다.

또한 화자는 '진헐대'에서는 금강산의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하고 있고, '불정대'에서는 십이 폭포의 장관에 감탄하고 있으므로 화자의 내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도 볼 수 없다.

④ 부재 '화룡소'에서는 화자의 시선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하며 대상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다.

화자는 '화룡소'를 보며 마치 천년 묵은 늙은 용이 굽이굽이 서려 있는 것 같다고 묘사하면서 '화룡소'가 넓은 바다와 이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다. 화자의 시선은 '화룡소'에 고정되어 있을 뿐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하고 있지 않다.

⑤ 상반 '화룡소'에서 '불정대'까지의 이동 경로를 ~~드러내지 않아~~ 드러내어 시상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화자는 '화룡소'에서 마하연, 묘길상, 안문재를 넘어 내려가 '불정대'에 오르고 있다. 따라서 '화룡소'에서 '불정대'까지의 이동 경로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027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화자는 '진헐대'에서 금강산을 예찬하고 있다. (○, ×)

화자는 '진헐대'에서 '여산 진면목이 ~ 북극을 괴왓는 듯'이라고 하며 금강산의 아름다움과 산봉우리의 변화무쌍한 모습을 예찬하고 있다.

(2) 화자는 '화룡소'에서 '불정대'로 이동하였다. (○, ×)

026번-⑤의 해설을 통해 볼 때, 적절한 진술이다.

(3) 화자 오류 화자는 십이 폭포를 직접 보고 ~~기대에 못 미쳐 실망하고~~ 있다. (○, ×)

화자는 십이 폭포를 보고 '이적선 이제 ~ 여산이 여긔도곤 낫단 말 못하려니'라고 하며 십이 폭포의 장관에 대한 감탄과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028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풍모**: 풍채(드러나 보이는 사람의 겉모양)와 용모를 아울러 이르는 말.

정·정·이

⑤ 화자 오류 '불정대'에서 화자는 십이 폭포가 여산 폭포보다 ~~낫지 못하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불정대'에서 화자는 '이적선 이제 이셔 ~ 여산이 여긔도곤 낫단 말 못 하려니'라고 말하며 십이 폭포가 여산 폭포보다 더 낫다는 감탄과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① '금강대'에서 화자는 자신을 '서호 녯 주인'에 비유하면서 신선적 풍모를 드러내고 있다.

'금강대'에서 화자는 신선이 타고 논다는 학인 '선학'이 자신을 '서호 녯 주인(임포)'인 줄 알고 반겨 노는 듯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화자의 신선적 풍모가 드러나고 있다.

② '진헐대'에서는 정적인 이미지와 동적인 이미지의 조화를 통해 산봉우리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진헐대'에서 화자는 산봉우리의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며 묘사하고 있는데, '날거든 뛰디 마나 섯거든 솟디 마나'에서는 산봉우리의 동적인 모습을, '부용을 고잣는 듯 백옥을 믓것는 듯'에서는 산봉우리의 정적인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③ '진헐대'에서 화자는 높이 솟은 '망고대'와 '혈망봉'을 보며 굳은 의지와 절개를 느끼고 있다.

'진헐대'에서 화자는 '놉흘시고 망고대 외로올샤 혈망봉이 ~ 구필 줄 모르느냐'라고 말하며 굽힐 줄 모르는 강직한 자세로 우뚝 솟은 망고대와 혈망봉의 모습에서 굳은 의지와 절개를 느끼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④ '불정대'에서는 은유법, 직유법을 활용하여 십이 폭포의 모습을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은하수 한 구비를 촌촌이 버혀 내여'에서는 십이 폭포를 은하수에 비유하는 은유법을, '실가티 플텨 이셔 베가티 거러시니'에서는 십이 폭포의 근경과 원경을 각각 '실'과 '베'에 비유하는 직유법을 활용하여 십이 폭포의 모습을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029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영속성**: 영원히 계속되는 성질이나 능력.
- **웅장한**: 규모 따위가 거대하고 성대한.
- **통사 구조**: 문장의 구성 요소들이 문장을 이루는 구조.

정·정·이

② 헛짚기 봉우리를 '백옥', '동명'과 같은 무생물에 빗대어 대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자연의 영속성~~을 표현하였다.

[A]에서는 금강산 봉우리가 백옥을 묶어 놓은 것 같다고 비유하면서 산봉우리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동해 바다

를 박차는 것 같다고 비유하면서 산봉우리의 웅장한 느낌을 전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산봉우리의 변화무쌍한 모습을 표현한 것이지 자연의 영속성을 표현한 것은 아니다.

오·오·이

① 봉우리를 '부용'을 꽂고 '백옥'을 묶은 듯한 시각적 형상으로 묘사하여 대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A]에서는 금강산의 수많은 봉우리들이 '부용'을 꽂아 놓은 것 같기도 하고 '백옥'을 묶어 놓은 것 같기도 하다며 봉우리를 연꽃과 백옥에 빗대어 시각적으로 묘사하면서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③ 봉우리를 '동명'을 박차고 '북극'을 받치는 듯한 모습에 빗대어 대상의 웅장한 느낌을 표현하였다.

[A]에서는 금강산의 봉우리가 크고 거대한 '동명(동해 바다)'을 박차고 나온 것 같고, '북극'을 받치고 있는 것 같다고 빗대어 금강산 봉우리의 웅장한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④ '날거든 뛰디 마나 섯거든 솟디 마나'와 같이 행위를 부각하는 대구를 통해 봉우리의 역동적인 느낌을 표현하였다.

[A]의 '날거든 뛰디 마나 섯거든 솟디 마나'는 동일한 문장 구조를 짝을 맞추어 제시한 것으로, 대구적 표현에 해당한다. 또한 날고, 뛰고, 서 있고, 솟는 등의 다양한 움직임을 통해 금강산의 봉우리를 나타냄으로써 역동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

⑤ '고잣는 듯', '박차는 듯'과 같이 상태나 동작을 보여 주는 유사한 통사 구조의 나열을 통해 봉우리의 다채로운 면모를 표현하였다.

[A]에서는 '고잣는 듯', '믓것는 듯', '박차는 듯', '괴왓는 듯'과 같이 상태나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을 유사한 통사 구조의 나열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금강산 봉우리의 아름다움, 웅장함 등과 같은 다채로운 면모를 표현하고 있다.

030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부용을 고잣는 듯 백옥을 믓것는 듯'에서 연꽃과 백옥에 빗대어 산봉우리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부용을 고잣는 듯 백옥을 믓것는 듯'에서는 연꽃과 백옥에 빗대어 산봉우리의 정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날거든 뛰디 마나 섯거든 솟디 마나'에서 ~~역설적 표현~~을 통해 산봉우리의 동적인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날거든 뛰디 마나 섯거든 솟디 마나'에서 산봉우리의 동적인 모습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역설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③ 부재 '동명을 박차는 듯 북극을 괴왓는 듯'에서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산봉우리의 웅장함을 보여 주고 있다.

'동명을 박차는 듯 북극을 괴왓는 듯'에서 산봉우리의 웅장함을 보여 주고 있기는 하지만,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031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여정**: 여행의 과정이나 일정.
- **경륜**: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함. 또는 그 계획이나 포부.
- **포부**: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희망.
- **우회적**: 곧바로 가지 않고 멀리 돌아서 가는 것.
- **역경**: 일이 순조롭지 않아 매우 어렵게 된 처지나 환경.

정·정·이

④ ㉣: 거쳐 온 곳을 열거하면서 행위를 나타내는 서술어를 최소화하여 여정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마하연', '묘길상', '안문재'는 모두 화자가 지나온 곳으로, 화자의 여정을 보여 준다. ㉣에서 화자는 이처럼 자신이 거쳐 온 곳을 간단히 나열하는 한편 서술어는 '너머 디여'로 최소화하여 여정을 압축적으로 속도감 있게 제시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 ~~여행에 대한 경륜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은 '노나라가 좁은 것도 우리는 모르는데'라는 의미로, '넙거나 넙은 천하'를 작다고 했던 공자의 기개와 높은 경지를 떠올리며 그에 미치지 못하는 화자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는 표현이다. 여기에서 반어적 표현은 활용되고 있지 않다.

② 화자 오류 ㉡: ~~정지적 포부를 펼칠 만큼 높은 지위에 이르지 못한 데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의 '뎌 디위'는 천하를 작다고 했던 공자의 정신적 경지, 즉 공자의 호연지기(거침없이 넓고 큰 기개)를 의미하는 것으로, ㉡에는 화자가 결코 도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공자의 높은 기개와 정신적인 경지에 대한 경외감이 드러나 있다.

③ 화자 오류 ㉢: ~~자신에게 험난한 역경이 다가오고 있음~~을 자연 현상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의 '삼일우'는 '삼 일 동안 계속해서 내리는 비(풍족한 비)'로, '음애예 이온 플(그늘진 벼랑에 시든 풀)'에게 생명

력을 부여할 수 있는 존재이다. '음애에 이온 플'이 헐벗고 굶주린 백성을 상징한다고 본다면 '삼일우'는 그러한 백성을 살릴 수 있는 선정(백성을 바르고 어질게 잘 다스리는 정치)을 의미한다. 따라서 ㉢은 화자가 위정자로서 가지는 선정에 대한 의지와 소망을 자연 현상에 비유하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화자에게 닥칠 험난한 역경과는 관계가 없다.

⑤ 부재 ㉤: 이동하는 모습을 ~~과장되게 묘사하여 자신의 권위를 강조~~하고 있다.

㉤의 '남여'는 '의자와 비슷하고 뚜껑이 없는 작은 가마'를 의미하고 '완보'는 '천천히 걸음.'을 뜻한다. 따라서 ㉤은 '남여를 타고 천천히 나아가 산영루에 오르니'라는 의미이다. 여기에서 이동하는 모습을 과장되게 묘사하거나 화자의 권위가 강조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정·오 지름길

② ㉡: 정치적 포부를 펼칠 만큼 높은 지위에 이르지 못한 데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에서 '뎌 디위'의 '디위'를 '정치적 지위'라는 뜻으로 오해하거나 화자의 태도를 '겸손'이 아닌 '야망', '불만' 등으로 잘못 파악한 경우에는 ②를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뎌 디위'는 '공자의 정신적 경지'를 가리키고, 화자는 그러한 공자의 경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있으므로 정치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는 없어요.

032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구현**: 어떤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로 나타나게 함.
- **투사**: 어떤 상황이나 자극에 대한 해석, 판단, 표현 따위에 심리 상태나 성격이 반영되는 일. ≒투영.

정·정·이

③ 헛짚기 '중향성'을 바라보며 천지가 '자연이 되'었다고 본 것은, 자연의 미가 ~~하늘의 이치가 구현된 인간 사회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작가의 인식을 보여 주는군.

화자는 '중향성'을 바라보며 천지가 생겨날 때에 금강산의 만 이천 봉우리가 저절로 생겨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여기에는 자연에 '하늘의 이치가 구현'되었다고 보는 작가의 인식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자연의 미가 인간 사회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작가의 인식은 드러나 있지 않다.

오·오·이

① '혈망봉'을 '천만 겁'이 지나도록 굽히지 않는 존재로 본 것은, 작가가 지향하는 이상적 인간상을 자연에 투사한 것이군.

'혈망봉'은 '천만 겁 디나도록 구필 줄 모르'는 변치 않는 지조를 지닌 존재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는 작가가 지향하는 이상적 인간상의 특징인 지조라는 가치를 '혈망봉'이라는 자연에 투사하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개심대'에서 '뎌 긔운 흐터 내야 인걸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은, 작가가 자연을 바라보며 자신의 사회적 책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군.

깨끗하고 맑은 금강산의 기운을 흩어 내어 인걸을 만들겠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 수 있는 뛰어난 인재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보기〉에 따르면 이는 작가가 '개심대'에서 금강산을 바라보며 자신의 사회적 책무를 떠올리고 뛰어난 인재를 구하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불정대'에서 본 폭포의 아름다움을 '실'이나 '베'와 같은 구체적 사물을 활용하여 표현한 것은, 자연을 사실감 있게 나타내려는 작가의 태도를 반영한 것이군.

'불정대'에서 본 폭포는 은하수를 베어 실처럼 풀어서 베처럼 걸어 놓은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처럼 폭포를 '실'이나 '베'와 같은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사물을 활용하여 표현한 것은, 〈보기〉에 따르면 자연의 미를 사실감 있게 묘사하고자 한 작가의 태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불정대'에서 본 풍경을 중국의 '여산'과 비교하며 우리 자연의 아름다움을 강조한 것은, 관념이 아닌 현실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작가의 차별성을 보여 주는군.

'불정대'에서 본 풍경에 대해 이백도 여산 폭포가 더 낫다는 말을 못 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여산'과 비교하며 우리 자연의 아름다움을 강조한 것이다. 이처럼 금강산을 중국의 '여산'과 비교한 것은, 〈보기〉에 따르면 관념이 아닌 현실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작가의 차별성을 보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033 답 (1) 망고대, 혈망봉 (2) 중향성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금강대, 망고대)'와 '(혈망봉, 개심대)'을/를 지조가 있는 이상적인 존재로 여기고 있다.

'놉흘시고 망고대 외로올샤 혈망봉'이 '천만 겁 디나도록 구필 줄 모르느냐'라고 하며 '망고대'와 '혈망봉'을 굽히지 않는 지조를 지닌 이상적인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

(2) 교체 '(중향성, 불정대)'을/를 바라보며 조물주의 솜씨를 찬양하고 있다.

화자가 '중향성'을 바라보며 '천지 삼기실 제 ~ 유경도 유경할샤'라고 한 데서 조물주의 솜씨를 찬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화자는 '불정대'에 올라가서 본 십이 폭포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을 뿐 '불정대'의 모습을 예찬하고 있지는 않다.

034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천문**: 우주와 천체의 온갖 현상과 그에 내재된 법칙성.
- **관조**: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비추어 봄.

정·정·이

④ [B]에서는 자연물의 아름다움을, 〈보기〉에서는 자연물의 움직임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B]의 '은하수 한 구비를 ~ 실가티 플텨 이셔 베가티 거러시니'에서는 십이 폭포의 아름다움을 '은하수', '실', '베'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보기〉에서는 파도의 움직임을 '고래'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B]와 〈보기〉는 모두 ~~자연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B]는 십이 폭포의 모습을, 〈보기〉는 망양정에서 내려다본 바다와 파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을 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② 헛짚기 [B]와 〈보기〉는 모두 ~~인간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자연의 냉혹함~~을 드러내고 있다.

[B]에서는 십이 폭포의 장관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고, 〈보기〉에서는 바다와 파도의 장관을 역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B]와 〈보기〉는 모두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웅장함, 역동성 등을 드러낸 것이지, 인간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자연의 냉혹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범위 오류 [B]는 지상의 자연물을 천문 현상에 비유하고, 〈보기〉는 ~~천문 현상을 지상의 자연물에 비유~~하고 있다.

[B]에서는 폭포를 '은하수'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으므로 지상의 자연물을 천문 현상에 비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보기〉에서는 자연물인 파도의 모습을 '고래', '은산', '백설' 등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으므로 천문 현상을 지상의 자연물에 비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⑤ 범위 오류 [B]에서는 자연의 모습을 관조하고 있고, 〈보기〉에서는 ~~자연을 통해 자신을 반성~~하고 있다.

[B]에서는 십이 폭포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모습을 묘사하고 그에 대한 감상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관조'의 태도가 드러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보기〉에는 대상에 대한 묘사가 주를 이루고 있을 뿐, 화자가 자연을 통해 자신을 반성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035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 뎌 긔운 흐터 내야 인걸을 만들고쟈

ⓓ 음애예 이온 플을 다 살와 내여스라

ⓐ에는 금강산의 깨끗하고 맑은 기운을 흩어 내어 나라를 잘 이끌어 갈 인재를 만들고 싶어 하는 화자의 소망이, ⓓ에는 그늘진 벼랑에 시든 풀처럼 힘겹게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이 드러나 있다. 따라서 ⓐ, ⓓ에는 작가가 지향하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오·오·이

ⓑ 헛짚기 ~~동산 태산이 어느야 놉돗던고~~

'동산 태산'은 중국 산둥성에 있는 산들로 두 산보다 비로봉이 더 높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언급한 것이다.

ⓒ 헛짚기 ~~그 알피 너러바회 화룡소 되여졔라~~

금강산 계곡의 연못에 대해 표현한 것일 뿐, 여기에 작가가 지향하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 있지는 않다.

06 일동장유가

작품 분석 본문 30~33쪽

작가 김인겸
갈래 가사
주제 일본 방문의 여정과 견문
특징 ① 여정에 따른 추보식 구성 방식을 취함.
② 여정 중의 날씨, 자연 환경, 사건, 풍물, 작가의 느낌 등을 사실적으로 묘사함.
③ 직유법, 은유법, 영탄법, 과장법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생동감 있게 묘사함.

한 줄 의미
❶ 성대한 송별연을 뒤로 하고 (**부산항**)을 출발함.
❷ (**바다**)에서 거센 풍랑을 만남.
❸ 풍랑이 끝난 아침 바다의 (**장관**)을 보고 감탄함.
❹ 폭풍에 시달린 후 여전히 (**대마도**)에 도착하지 못함.
❺ 일본인 문인 (**전승산**)과 필담으로 의사소통을 함.

036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악화**: 일의 형세가 나쁜 쪽으로 바뀜.
- **목전**: 눈의 앞. 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가까운 곳. = 눈앞.

정·정·이

① 헛짚기 동물의 역동성을 통해 ~~공간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바꾸고~~ 있다.
동물의 역동적인 모습을 활용한 '성난 고래 동한 용은 물속에서 희롱하니'와 같은 표현은 화자를 태우고 일본으로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나 요동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위태로운 화자의 상황을 드러낸 것이지 공간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다.

오·오·이

② 거대한 자연물에 비유하여 악화된 기상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큰 바람으로 파도가 크게 치는 모습을 '태산 같은 성난 물결'과 같이 거대한 자연물에 비유하여 악화된 기상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③ 식물의 연약한 속성을 활용하여 화자의 위태로운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나뭇잎'이라는 연약한 식물의 속성을 활용하여 화자가 탄 배가 큰 바람에 흔들리는 위태로운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④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대비하여 목전에 닥친 위기감을 강조하고 있다.
'하늘에 올랐다가 지함에 내려지니'에서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대비하여 눈앞에 닥친 위기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⑤ 인물의 행동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열거하여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중략 이후에서 화자와 전승산이 필담을 나누는 상황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열거하여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037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다양한 수사법을 활용하여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삼현과 군악 소리 ~ 응당히 놀라리라'에서 과장법을 활용하여 송별연의 성대함을 묘사하고 있고, '태산 같은 성난 물결 ~ 잎잎이 우는구나'에서 과장법, 직유법, 은유법 등을 활용하여 큰 파도와 센 바람에 흔들리는 배와 돛대, 돛, 방 안 풍경 등을 묘사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자문자답~~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중략 이후 화자와 전승산이 필담을 나누는 상황이 묘사되어 있을 뿐, 자문자답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③ 화자 오류 ~~유배 생활에서 겪은 고생~~을 사실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장풍에 돛을 달고 ~ 응당히 놀라리라'를 통해 볼 때, 화자는 성대한 송별연을 뒤로하고 배를 타고 떠나고 있으므로, 유배 생활에서 겪은 고생을 사실적으로 서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작품은 일본으로 가는 여정에 따른 견문을 사실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038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과장된 표현을 통해 화자가 처한 상황을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다.
037번-②의 해설을 통해 볼 때, 적절한 진술이다.

오·오·이

① 부재 ~~계절적 배경을 바탕으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에는 계절적 배경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② 부재 ~~공간의 대조를 통해~~ 화자의 정서적 변화를 부각하고 있다.
화자는 일본으로 가는 여정에 있으므로 공간을 이동하고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공간의 대조를 통해 화자의 정서적 변화를 부각하고 있지는 않다.

③ 화자 오류 비유적 표현을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태산 같은 성난 물결 ~ 잎잎이 우는구나'에서 직유법, 은유법 등과 같은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고는 있으나, 이를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⑤ 부재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세상과 거리를 두려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화자는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고 있지 않으며, 세상과 거리를 두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도 않다.

039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풍광**: 산이나 들, 강, 바다 따위의 자연이나 지역의 모습. = 경치.
- **실체**: 실제의 물체. 또는 외형에 대한 실상.
- **은폐**: 덮어 감추거나 가리어 숨김.

정·정·이

③ ㉠은 자연의 풍광에 대한 감탄을, ㉡은 인물의 능력에 대한 감탄을 표현하고 있다.

㉠은 풍랑이 그치고 배 밖에서 해 돋는 장관을 구경하는 상황에서 제시된 표현이므로, 자연의 풍광에 대한 감탄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은 일본인 문인인 전승산이 화자인 '나'가 글을 짓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을 영광이라 생각하는 상황에서 제시된 표현이므로, 인물('나')의 능력에 대한 감탄으로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화자 오류 ㉠과 ㉡은 모두 ~~화자의 고난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은 풍랑이 그친 뒤에 바라본 해가 돋는 풍경에 대해 표현한 것이고, ㉡은 전승산이 글솜씨로 유명한 퇴석 선생('나')의 글을 짓는 모습을 보고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둘 다 화자의 고난 극복 의지와 관련이 없다.

② 헛짚기 ㉠과 ㉡은 모두 화자가 구경하는 대상의 ~~실체를 은폐하고~~ 있다.

화자와 전승산은 각각 ㉠과 ㉡을 직접 보면서 이에 대한 감탄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둘 다 대상의 실체를 은폐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범위 오류 ~~㉠은 화자의 관찰력에 대한~~, ㉡은 화자의 창조력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담고 있다.

㉠은 화자가 자신이 직접 본 풍경에 대해 표현한 것이므로, 여기에는 타인의 평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에는 화자('나')의 글솜씨에 대한 '전승산'의 평가가 담겨 있으므로 ㉡은 화자의 창조력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범위 오류 ㉠은 대상에 대한 화자의 만족을, ㉡은 대상에 대한 화자의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만족

㉠은 해 돋는 장관에 대한 화자의 만족을, ㉡은 '나'가 글 쓰는 모습에 대한 전승산의 만족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대상에 대한 화자의 아쉬움을 드러낸다고 볼 수 없다.

040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에서 화자는 풍랑이 그친 뒤 해가 돋는 바다의 모습을 보며 경이로움을 느끼고 있다. (○, ×)

'어와 장할시고'를 통해 ㉠에서 화자가 거센 풍랑이 그친 뒤 해가 돋는 바다의 모습을 보며 경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교체 ㉡에는 전승산의 능력에 대한 화자의 감탄이 드러나 있다. (○, ×)

㉡에는 화자('나')의 글솜씨에 대한 '전승산'의 감탄이 드러나 있다.

(3) 헛짚기 ㉠은 ~~㉡과 달리 객관적 관점에서 대상을 비교하고 있다~~. (○, ×)

㉠에는 자연의 풍광에 대한 화자의 감탄이 드러나 있으므로 객관적 관점에서 대상을 비교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에도 화자의 글솜씨에 대한 전승산의 감탄이 드러나 있으므로 객관적 관점에서 대상을 비교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041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무력감**: 스스로 힘이 없음을 알았을 때 드는 허탈하고 맥 빠진 듯한 느낌.
- **동요**: 생각이나 처지가 확고하지 못하고 흔들림.

정·정·이

④ ⓐ에서는 화자가 자신의 심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에서는 화자가 자신의 심정을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고국을 떠나온 자신의 처지에 심란함을 느낀 화자는 ⓐ에서 자신의 심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한편 자신의 글솜씨에 대한 전승산의 칭찬을 들은 화자는 그에 대한 만족감을 ⓑ에서 웃는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① 화자 오류 ⓐ와 ⓑ에는 모두 절박한 상황에 처한 화자의 무력감이 드러나 있다.

ⓐ와 ⓑ에서 화자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지도 않고, 화자의 무력감이 드러나 있지도 않다.

② 화자 오류 ⓐ와 ⓑ에는 모두 긴 여정을 소화하면서 느끼는 화자의 자신감이 드러나 있다.

ⓐ에서 화자는 이제 막 여정을 시작하는 심란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긴 여정을 소화하면서 느끼는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에는 자신의 글솜씨에 대한 전승산의 칭찬을 들은 화자의 심정이 드러나 있을 뿐, 긴 여정에 대한 화자의 심정이 드러나 있지는 않다.

③ 화자 오류 ⓐ에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화자의 좌절감(심란함)이 드러나 있고, ⓑ에는 상대방의 평가에 대한 화자의 부담감(만족감)이 드러나 있다.

ⓐ에서 화자는 고국을 떠나온 자신의 처지에 대해 심란함을 느끼고 있을 뿐, 좌절감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한편 자신의 글솜씨에 대한 전승산의 칭찬을 들은 화자가 자신의 글을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기는 하지만 ⓑ에서 웃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부담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범위 오류 ⓐ에서는 주변 상황으로 인해 느끼는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고, ⓑ에서는 내면의 동요로 표출되는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에서 화자는 고국을 떠나온 상황으로 인해 느끼는 심란함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에서 화자는 전승산의 칭찬으로 인한 반응을 드러내고 있을 뿐, 내면의 동요로 인한 감정을 표출하고 있지는 않다.

042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예법**: ① 예의로써 지켜야 할 규범. ② 예의에 관한 모든 절차나 질서.
- **동원**: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사람을 모으거나 물건, 수단, 방법 따위를 집중함.
- **찬사**: 칭찬하거나 찬양하는 말이나 글.

정·정·이

④ 상반 [B]의 '귀한 별호 퇴석'과 [D]의 '소국의 천한 선비'는 선비의 예법을 동원하여 동일한(다른) 사람을 다르게 지칭한 표현이군.

'귀한 별호 퇴석'에서 '퇴석'은 작가(김인겸)이자 화자인 '나'의 호이고, '소국의 천한 선비'는 일본인 문인인 전승산이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표현한 것이다. 전승산이 상대방의 호를 '귀한 별호'라고 칭한 것이나, 자신을 낮추어 '소국의 천한 선비'라고 칭한 것은 모두 전승산이 선비의 예법을 동원하여 쓴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퇴석'은 '나'를, '소국의 천한 선비'는 전승산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두 표현이 동일한 사람을 다르게 지칭한 것이라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A]는 [B]~[D]의 필담이 시작되는 계기를 보여 주는군.

[A]는 '나'가 글을 쓰는 모습을 전승산이 바라보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전승산이 '나'를 알아보고 필담을 건네게 된 것이므로 [A]가 필담이 시작되는 계기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② [B]의 '빠른 재주'는 '나'의 글에 대한 상대의 평가를, [C]의 '늙고 병든 둔한 글'은 자신의 글에 대한 '나'의 입장을 보여 주는군.

[B]의 '선생의 빠른 재주'는 '나'의 글에 대해 전승산이 칭찬한 말이고, [C]의 '늙고 병든 둔한 글'은 전승산의 칭찬에 대해 '나'가 겸손한 태도로 자신의 글을 낮추어 표현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③ [B]의 '필담으로 써서 뵈되'와 [C]의 '내 웃고 써서 뵈되'를 통해, 문답의 형식을 활용하여 의사소통 장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군.

[B]의 '필담으로 써서 뵈되'는 전승산이 '나'에게 퇴석 선생이 맞는지를 묻기 위해 한 행동이고, [C]의 '내 웃고 써서 뵈되'는 전승산의 질문에 '나'가 대답하기 위해 한 행동이므로 필담을 통해 서로 의사소통하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⑤ [D]에는 '나'의 글에 대한 상대의 찬사가 나타나 있고, [E]에는 상대의 글값에 대한 '나'의 거절이 드러나 있군.

[D]에서 전승산은 '나'가 글을 쓰는 모습을 보게 된 것에 대해 '장한 구경'이라고 하면서 찬사를 보내고 있다. 그리고 [E]에서 '나'는 '의에 크게 가하지 않아 / 못 받고 도로 주니'라며 전승산이 글값으로 가져온 비단과 은자를 거절하고 있다.

043 답 (1) 전승산, 나 (2) 나, 전승산 (3) 전승산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귀한 별호 퇴석'은 '(나, 전승산)'이/가 '(나, 전승산)'을/를 지칭하여 한 말이다.

'퇴석'은 '나'의 호로, '귀한 별호 퇴석'은 전승산이 '나'에게 쓴 필담에서 '나'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2) 교체 '빠른 재주'는 '(나, 전승산)'의 글에 대한 '(나, 전승산)'의 칭찬이 드러나 있는 표현이다.

전승산은 글을 쉽게 짓기로 유명한 '나'의 빠른 글재주를

'빠른 재주'라며 칭찬하고 있다.

(3) 교체 '소국의 천한 선비'는 '(나. 전승산)'이/가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한 말이다.

전승산은 '나'를 만난 것이 영광임을 밝히며 자신을 '소국의 천한 선비'라고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다.

044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풍속**: ① 옛날부터 그 사회에 전해 오는 생활 전반에 걸친 습관 따위를 이르는 말. ② 그 시대의 유행과 습관 따위를 이르는 말.
- **송별연**: 떠나는 사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
- **가늠**: 사물을 어림잡아 헤아림.

정·정·이

⑤ 헛짚기 ㉲에서 화자와 일본의 문인인 전승산이 필담을 나누는 상황을 제시하여 ~~일본의 풍속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를 통해 화자와 전승산이 필담을 나누고 있음을 알 수는 있으나, 이를 통해 일본의 풍속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다.

오·오·이

① ㉮를 통해 일본으로 향하는 화자의 일행을 위한 송별연이 매우 성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에서는 떠나는 화자 일행을 위해 울리는 악기 연주 소리에 세상이 진동하여 물속의 물고기들도 놀랄 것이라고 과장함으로써 송별연의 성대함을 나타내고 있다.

② ㉯에서는 비유를 통해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난 상황을 실감 나게 묘사하고 있다.

㉯에서는 거센 파도를 '고래'와 '용'에 빗대어 풍랑을 만난 상황을 실감 나게 표현하고 있다.

③ ㉰에서는 풍랑을 겪은 후 자신의 위치를 가늠하지 못하는 화자의 솔직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에서는 풍랑을 겪은 후 함께 떠난 다섯 배의 행방을 잃고 자신의 위치를 가늠하지 못하는 화자가 느끼는 안타까움과 슬픔이 드러나고 있다.

④ ㉱를 통해 부산항을 출발하여 일본으로 향하는 화자의 여정을 확인할 수 있다.

㉱를 통해 부산항을 출발한 화자 일행이 '대마도(일본)'로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7 상사곡

작품 분석 본문 34~35쪽

작가 박인로
갈래 가사
주제 변함없는 연군의 정
특징 ① 군신 관계를 남녀 관계에 빗대어 우의적으로 표현함.
② 고사에 나오는 소재를 활용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함.

한 줄 의미

❶ 이별한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❷ 임을 잊지 못해 그리움이 (병)이 됨.
❸ (임)을 만나지 못하여 애달픈 처지에 놓임.

045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풍자**: 문학 작품 따위에서, 현실의 부정적 현상이나 모순 따위를 비웃으면서 씀.
- **언어유희**: 동음이의어를 활용하거나, 각운을 맞추거나, 도치법으로 문장의 앞뒤를 바꾸는 등 말장난을 활용하여 해학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

정·정·이

① 자문자답의 방식으로, 임에 대한 그리움을 부각하고 있다.

화자는 '천지간에 어느 일이 남들에겐 서러운가', '아마도 서러운 건 임 그리워 서럽도다'와 같이 자문자답을 하며 임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해서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② 부재 ~~풍자의 기법으로, 떠나간 임에 대한 서운함~~을 나타내고 있다.

풍자의 기법은 사용되지 않았으며, 화자는 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을 뿐 떠나간 임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③ 부재 ~~언어유희를 통해, 이별의 현실을 수용하는 담담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언어유희는 사용되지 않았으며, 화자는 이별로 인한 아픔과 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이별의 현실을 담담하게 수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부재 ~~의태어를 나열하여, 임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을 시각적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다.

의태어를 나열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통해 임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을 시각적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부재 ~~반어적 표현으로, 임에 대한 애정이 식어 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다.

반어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으며, 화자는 임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을 뿐 임에 대한 애정이 식어 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046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견우직녀'와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 ×)
화자는 '견우직녀를 ~ 이토록 못 보는고'에서 한 해에 한 번은 만나는 견우직녀와 자신을 대비하여 임을 만나지 못하는 처지를 강조하고 있다.

(2) 대구법을 통해 임과 이별하여 괴로워하는 화자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 ×)
'먹던 밥 덜 먹히고 자던 잠 덜 자인다'에서 대구법을 활용하여 임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화자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3) 부재 ~~역설적 표현~~을 통해 임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다. (○, ×)
화자가 임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기는 하지만, 역설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047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부재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임과 좋은 시절을 함께하지 못하는 화자의 서러움을 드러내고 있다.
'화조월석에 울며 그리워할 뿐이로다'에 임과 좋은 시절을 함께하지 못하는 화자의 서러움이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이 작품에서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오·오·이

① 과장된 표현을 통해 임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그리워해도 못 보니 하루가 삼 년 같도다' 등에서 과장된 표현을 통해 임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② 사물에 빗대어 임과 이별한지 오래된 화자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반쪽 거울 녹이 슬어 티끌 속에 묻혀 있다'에서는 연인들이 정표로 주고받던 물건인 '반쪽 거울'이 녹이 슬어 티끌 속에 묻혀 있다고 표현함으로써 임과 이별한 지 오래된 화자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③ 설의적 표현을 통해 임을 만나지 못하는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소식도 못 듣거늘 임의 모습 보겠는가', '애달프구나 우리는 ~ 이토록 못 보는고' 등에서 설의적 표현을 통해 임과 만나지 못하는 화자의 안타까움과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④ 고사에 나오는 소재를 활용하여 임과 이별한 화자의 상황과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청조', '백안', '사택망처', '사광', '편작', '비익조' 등 고사에 나오는 소재를 활용하여 임과 소식이 끊긴 화자의 상황과 임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며 함께하고자 하는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048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화자 오류 ㉣은 인연을 맺었던 때를 가리키는 '처음'과 현재의 상황을 나타내는 '이리되자'라는 시어를 통해 ~~임과의 예정된 이별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에서 '처음'은 '인연을 맺었던 때'를 가리키고 '이리되자'는 현재의 이별한 상태를 가리킨다. 이를 통해 ㉣이 '처음에는 현재와 같은 이별을 맞이하고자 인연을 맺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일까'라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화자는 임과 이별하게 될 것임을 예상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오·오·이

① ㉠은 꽃 피는 아침과 달 밝은 밤, 즉 경치가 좋은 시절을 뜻하는 '화조월석'이라는 시어를 통해 임과 함께 좋은 때를 누리지 못하는 서러움을 표현하고 있다.
아름다운 풍경을 떠올리게 하는 시어 '화조월석'과 임이 그리워 우는 화자의 모습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임과 함께하지 못하는 화자의 서러움을 강조하고 있다.

② ㉡은 짧은 동안을 나타내는 '하루'와 긴 시간을 나타내는 '삼 년'이라는 시어의 대비를 통해 임을 기다리는 간절한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하루'를 '삼 년'과 같다고 표현한 데서, 임을 기다리는 간절함 때문에 '하루'와 같이 짧은 시간을 '삼 년'처럼 길게 느끼는 화자의 정서가 잘 드러난다.

③ ㉢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인 '밥'과 '잠'이라는 시어를 통해 임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한 고통을 나타내고 있다.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은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인데 이것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에서 화자가 느끼는 고통이 드러난다.

⑤ ㉤은 임과의 만남을 가로막는 존재를 나타내는 '은하'라는 시어를 통해 임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한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견우직녀의 이야기를 활용한 것을 통해 '은하'가 임과 화자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가리킴을, '애달프구나'를 통해 임과 만나지 못하는 화자의 슬픔을 확인할 수 있다.

049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헛짚기 ⓔ와 같은 부부가 되고 싶다고 표현함으로써 ~~화자와 임이 이별하더라도 결국에는 재회할 운명임을 드러내고~~ 있군.

'비익조(ⓔ)'는 암수가 함께 있어야만 날 수 있는 새로, 화자는 '비익조'와 같은 부부가 되어 임과 항상 함께하고자 하였으나 현재는 동과 서에 따로 살며 그리워하다 늙어 버렸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비익조'는 현재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존재일 뿐, 임과 재회할 운명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오·이

① ⓐ가 아니 온다고 표현함으로써 화자와 임 사이에 소식이 끊겼음을 드러내고 있군.

'청조(ⓐ)'는 소식을 전해 주는 새이므로, 청조가 아니 온다는 것은 임의 소식이 끊겼음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② ⓑ를 배우고 싶다고 표현함으로써 화자가 임을 잊기 어려워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

화자는 무심함과 쉽게 잊는 법을 배우고 싶어 진나라와 초나라 같이 먼 나라에 가서라도 '사택망처(ⓑ)'한 이를 알고자 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화자가 임을 잊기 어려워함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의 기억력에 견주어 표현함으로써 화자가 임에 대한 기억을 떨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

'사광(ⓒ)'은 기억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인데 화자는 임에 대한 자신의 기억력에는 '사광'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는 '사광'의 기억력에 견주어 화자가 도저히 임을 잊지 못함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조차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없다고 표현함으로써 임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이 고칠 수 없는 병처럼 매우 깊음을 드러내고 있군.

'편작(ⓓ)'은 중국 고사에 나오는 명의인데 화자는 자신이 임을 그리워하다 생긴 병은 '편작'이 와도 고칠 수 없다고 함으로써, 임에 대한 그리움이 매우 깊음을 드러내고 있다.

정·오 지름길

① ⓐ가 아니 온다고 표현함으로써 화자와 임 사이에 소식이 끊겼음을 드러내고 있군.

'청조'는 '소식을 전해 주는 새'를 의미하므로 임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는 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어지는 시구에서 '청조'가 아니 온다고 했으므로 임의 소식이 끊겼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처럼 시어의 의미를 파악할 때는 제시된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시어가 어떤 맥락 속에서 활용되고 있는지도 고려할 줄 알아야 해요.

08 상사별곡

작품 분석 본문 36~37쪽

작가 이세보
갈래 가사
주제 임에 대한 그리움과 이별로 인한 고통
특징 ① 두 명의 화자가 대화하는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함.
② 비유적 표현과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심정을 부각함.
③ 계절의 변화를 통해 이별의 시간을 드러냄.
④ 대구의 방식으로 리듬감을 형성함.
⑤ 자연물을 활용하여 애상적 분위기를 형성함.

한 줄 의미
❶ 임과 이별하여 (애)가 타는 갑의 한탄과 임에 대한 그리움
❷ 임과 이별한 을의 한탄과 임에 대한 (그리움)

050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부재 ~~공간의 이동을 활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공간의 이동을 활용하고 있지 않으며, 화자의 의지가 나타나 있지도 않다.

오·오·이

①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ᄌᆞ네 사정 ᄂᆡ가 알고 ᄂᆡ 사정 ᄌᆞ네 알니' 등에서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③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심정을 부각하고 있다.

'흉중의 불이 나니 구회간장 다 타 간다', 'ᄂᆡ 가삼 ᄐᆡ우는 불은 물노도 어이 못 끄난고'에서 임과 이별하여 애가 타는 화자의 심정을 '불'에 빗대어 부각하고 있다.

④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화자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송안성'에서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임과 이별한 화자의 외로운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⑤ 설의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구든 언약 깁흔 정을 ᄂᆡᆫ들 어이 이젓슬가', '운산이 머럿쓰니 소식인들 쉬울손가', 'ᄃᆡ인난 긴 한숨의 눈물은 몇 때런고' 등에서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051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치유**: 치료하여 병을 낫게 함.
- **상사**: 서로 생각하고 그리워함.

정·정·이

(1) 교체 치유되지 않는 상사의 아픔을 구체적 형상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ᄂᆡ 가삼 ᄐᆡ우는 불은 물노도 어이 못 끄난고(㉠)'에서는 치유할 수 없는 상사의 아픔을 '물'로도 못 끄는 '불'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2) 교체 작품 중간에 화자가 바뀌면서 대화의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ᄌᆞ네 사정 ᄂᆡ가 알고 ᄂᆡ 사정 ᄌᆞ네 알니(㉡)'에서는 화자가 바뀌면서 화자 'ᄂᆡ(을)'가 화자 'ᄌᆞ네(갑)'에게 말을 건네는 대화의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3) 교체 시각적 심상과 청각적 심상을 통해 화자의 외로움과 그리움을 부각하고 있다. (㉢)

'세우ᄉᆞ창 저문 날'에서는 시각적 심상을 통해, '송안성'에서는 청각적 심상을 통해 화자의 외로움과 그리움을 부각하고 있다.

052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내용 전개 과정에서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고 있다.

'황ᄆᆡ시절 떠난 이별 만학단풍 느젓스니'에서는 봄('황ᄆᆡ시절')부터 가을('만학단풍')에 이르기까지의 계절의 변화를 통해, '삼ᄒᆞ 삼추 지나가고 낙목한천 또 되엿ᄂᆡ'에서는 여름, 가을('삼ᄒᆞ 삼추')에서 겨울('낙목한천')에 이르기까지의 계절의 변화를 통해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고 있다.

오·오·이

② 부재 ~~선경후정의 방식으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선경후정의 방식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③ 부재 ~~감탄사를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감동을 표현하고~~ 있다.

감탄사를 활용하고 있지 않으며, 대상에 대한 감동을 표현하고 있지도 않다.

④ 부재 ~~인간과 자연의 대비~~를 통해 주제 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⑤ 헛짚기 자연물을 활용하여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황ᄆᆡ', '만학단풍', '세우', '소소상풍', '방춘화류' 등 자연물과 관련된 표현이 제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자연과 인간을 대비하고 있지 않으며(④) 자연물을 통해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지도 않다(⑤).

053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화자 오류 화자는 오고 가는 '글발'과 'ᄉᆞ연'을 ~~임과 이별하게 된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화자는 임과 오고 가며 나눈 글과 사연이 한 자 한 획 다정했음을 생각하며 어쩌다 한 이별에 그리움을 참기 어려워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글발'과 'ᄉᆞ연'을 이별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화자는 '인간의 일'이나 '조물'과 같은 외적 요인을 임과 재회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로 떠올리고 있다.

화자는 '인간의 일이 만코 조물이 시긔런지'에서 임과 재회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로 '인간의 일'과 '조물'의 시기와 같은 외적 요인을 떠올리고 있다.

② 화자는 '삼ᄒᆞ 삼추'와 '낙목한천'이라는 계절의 흐름을 통해 임과 이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화자는 '삼ᄒᆞ 삼추 지나가고 낙목한천 또 되엿ᄂᆡ'에서 임과 이별하고 여름의 석 달, 가을의 석 달이 지나고 나뭇잎이 다 떨어진 겨울이 되었다며 계절의 흐름을 통해 임과 이별한 상황이 오래 지속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③ 화자는 '긴 한숨'과 '눈물'을 통해 임을 기다리며 느끼는 상사의 아픔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는 'ᄃᆡ인난 긴 한숨의 눈물은 몇 때런고'에서 오지 않는 임을 기다리며 느끼는 상사의 아픔을 '긴 한숨'과 '눈물'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④ 화자는 'ᄎᆞ싱빅년'을 '서로 밍세'했던 과거를 떠올리며 임과 행복했던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다.

화자는 '청산녹수 증인 두고 ᄎᆞ싱빅년 서로 밍세'에서 자신과 임이 맹세를 한 과거를 떠올리고 있고, '일부일 월부월의 운우지락 협흡할 제'에서 자신과 임이 행복했던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다.

054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화자 오류 [A]의 '져도 나를 그리련이'와 [B]의 'ᄌᆞ네 사정 ~ ᄌᆞ네 알니'를 통해 두 화자가 ~~서로~~ 각자의 임를 그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의 '져도 나를 그리련이'는 [A]의 화자('나')가 임('져')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임도 화자를 그리워할 것이라는 의미이고, [B]의 'ᄌᆞ네 사정 ᄂᆡ가 알고 ᄂᆡ 사정 ᄌᆞ네 알니'는 [B]의 화자('ᄂᆡ')와 [A]의 화자('ᄌᆞ네')가 서로의 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두 화자가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 화자가 각자의 임을 그리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② [A]의 '구든 언약 깁흔 정'과 [B]의 'ᄎᆞ싱ᄇᆡᆨ년 서로 밍세'에서 두 화자가 임과의 사랑에 대해 지녔을 기대감을 떠올릴 수 있다.

[A]의 '구든 언약 깁흔 정'과 [B]의 'ᄎᆞ싱ᄇᆡᆨ년 서로 밍세'는 두 화자가 임과 했던 영원한 사랑에 대한 약속을 의미하므로, 여기에는 영원히 함께하며 사랑을 이어 가고자 했던 두 화자의 기대감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A]의 화자는 '소식'이 전달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B]의 화자는 '오는 글발'이 끊긴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출하고 있다.

[A]의 화자는 '운산이 머럿쓰니 소식인들 쉬울손가'에서 '운산'으로 인해 '소식'이 전달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B]의 화자는 '오는 글발 가는 ᄉᆞ연 ᄌᆞᄌᆞ획획 다정턴이 / 엇지타 한 별니가 역여조기 어려웨라'에서 과거에는 다정하게 오고 가던 글이 이별하여 끊긴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09 북찬가

작품 분석 본문 38~39쪽

작가 이광명
갈래 가사
주제 늙으신 어머니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
특징 ① 자연물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냄.
② 대구법, 연쇄법, 은유법, 직유법 등의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화자의 처지와 감정을 드러냄.
③ 일반적 유배 가사와 달리 충(忠)이 드러나지 않음.

한 줄 의미

❶ (어머니(노친))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❷ (어머니)가 계신 곳에 가고 싶은 마음
❸ 떠도는 자신의 신세 한탄과 어머니에 대한 (걱정)

055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부재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대상을 사실감 있게 제시~~하고 있다.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통해 대상을 사실감 있게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물음의 방식을 통해 화자의 처지를 강조하고 있다.

'못 본 제는 기다리나 ~ 내 소식 노친 알까', '산과 강물 막힌 길에 일반고사 뉘 헤올고' 등은 설의법을 사용한 부분으로, 물음의 방식을 통해 어머니와 함께 있지 못하는 화자의 처지를 강조하고 있다.

② 비유의 방법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전달하고 있다.

'여의 잃은 용', '키 없는 배' 등을 통해 어머니와 만날 수 없는 화자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③ 유사한 구조의 시구끼리 짝을 지어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앉은 곳에 해가 지고 누운 자리 밤을 새워', '흐르는 내가 되어 집 앞에 두르고저 / 나는 듯 새나 되어 창가에 가 노닐고저' 등에서 대구법을 사용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⑤ 연쇄법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잠든 밧긔 한숨이오 한숨 끝에 눈물일세'에서 앞 구절의 끝부분을 다음 구절의 시작 부분에 이어받아 강조하는 연쇄법을 활용하여 어머니를 걱정하며 슬픔에 잠겨 있는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056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도치된 문장으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묻노라 밝은 달아 두 곳에 비추는가'에서는 말의 차례를 바꾸는 도치법을 활용하여 어머니에 대한 화자의 걱정을 강조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명령형 표현으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명령형 표현을 활용하고 있지 않으며 화자의 의지도 드러나 있지 않다.

② 부재 반어적 표현으로 화자의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057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자연물을 통해 현실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

'산과 강물 막힌 길에 일반고사 뉘 헤올고'에서 어머니와 화자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상징하는 자연물인 '산', '강물'을 통해 어머니와 떨어져 유배 중인 현실의 부정적 측면을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② 부재 대조적 소재의 열거를 통해 시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내', '새' 등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자연물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조적인 소재를 열거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통해 시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부재 공간의 이동에 따라 변화하는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공간의 이동은 나타나 있지 않으며,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화자의 정서도 변화하고 있지 않다.

④ 부재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그리움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화자는 유배 생활을 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느끼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였을 뿐,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고 있지 않다.

⑤ 부재 일상생활의 관찰을 통해 사물에서 삶의 교훈을 얻어 내고 있다.

일상생활에 대한 관찰이 드러나지 않으며, 사물에서 삶의 교훈을 얻고 있지도 않다.

058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노모**: 늙은 어머니.

정·정·이

③ 화자 오류 '여의 잃은 용'에는 충성스러운 신하를 귀양 보낸 임금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이 표현되어 있군.

〈보기〉에서 이 작품은 임금에 대한 충심을 노래한 다른 유배 가사와 달리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과 어머니에게 갈 수 없는 절망과 한탄의 정서를 노래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해석하면 '여의 잃은 용'은 충성스러운 신하를 귀양 보낸 임금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 표현이 아니라 유배로 어머니를 만날 수 없는 화자의 처지를 가장 중요한 '여의'를 잃은 '용'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오·오·이

① '밤밤마다 꿈에 뵈니'에는 어머니에 대한 화자의 간절한 그리움이 담겨 있군.

'밤밤마다 꿈에' 보이는 대상은 어머니로, 어머니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이 드러나 있다.

② '산과 강물 막힌 길에 일반고사 뉘 헤올고'에는 노모에게 소식을 전할 수 없는 화자의 절망감이 담겨 있군.

'산과 강물 막힌 길에 일반고사 뉘 헤올고'에서 '산'과 '강물'은 화자와 어머니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의미하는 소재로, 노모에게 소식을 전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화자의 절망감을 의문형 문장으로 표현한 것이다.

④ '어느 때에 주무시며 무엇을 잡숫는고'에는 홀로 남겨진 노모에 대한 화자의 걱정이 드러나 있군.

'어느 때에 주무시며 무엇을 잡숫는고'에는 홀로 남겨진 어머니의 일상을 걱정하는 화자의 심정이 드러나 있다.

⑤ '나 아니면 뉘 뫼시며'에는 노모에게 효를 다하지 못하는 화자의 안타까움이 나타나 있군.

'나 아니면 뉘 뫼시며'는 내가 아니면 누가 노모를 모시겠느냐는 의미로, 노모에게 효를 다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러나 있다.

059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다급한**: 일이 바싹 닥쳐서 매우 급한.
- **의탁**: 어떤 것에 몸이나 마음을 의지하여 맡김.

정·정·이

② ㉠은 화자가 부러워하는 대상이고, ㉣는 화자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이다.

이 작품에서 ㉠의 '구름'은 화자의 어머니가 계신 남쪽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화자가 부러워하는 대상이다. 반면 〈보기〉에서 ⓐ의 '구름'은 굳이 밝은 햇빛을 쫓아다니면서 그 빛을 덮는 존재로 임금의 총명을 가리는 간신을 의미하므로 화자가 비판적으로 여기는 대상이다.

오·오·이

① 헛짚기 ㉠은 ~~화자의 여유로움이 드러나는 소재~~이고, ⓐ는 ~~화자의 다급한 마음이 의탁된 소재~~이다.

㉠은 화자의 여유로움과는 관련이 없고, ⓐ도 화자의 다급한 마음과는 관련이 없다.

③ 범위 오류 ㉠은 화자가 처한 불행한 현실을 드러내고, ⓐ는 ~~화자가 추구하는 세계~~를 드러낸다.

㉠은 화자와 달리 어머니가 계신 남쪽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어머니에게 가지 못하는 화자의 불행한 현실을 간접적으로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는 화자가 비판하는 대상이므로 화자가 추구하는 세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없다.

④ 헛짚기 ㉠과 ⓐ는 모두 ~~화자로 하여금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

㉠은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가는 존재일 뿐, 추억과 관련이 없고, ⓐ 또한 추억과는 관련이 없다.

⑤ 헛짚기 ㉠과 ⓐ는 모두 ~~화자에게 현실 극복 의지를 불러일으킨다.~~

이 작품의 화자는 ㉠을 보며 부러움을 느끼고 있을 뿐, 현실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보기〉의 화자도 ⓐ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보이고 있을 뿐, 현실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10 봉선화가

작품 분석 본문 40~41쪽

작가 미상
갈래 가사
주제 봉선화의 아름다움과 봉선화와의 인연
특징 ① 비유적 표현을 통해 봉선화에 대한 여인의 정감을 섬세하게 표현함.
②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③ 한탄이나 슬픔의 정서가 주를 이루는 대부분의 내방 가사와 달리 밝은 정서를 노래함.

한 줄 의미

❶ (**봉선화**)의 정숙함을 예찬함.
❷ 봉선화를 캐어 와 (**손톱**)에 물을 들임.
❸ 봉선화 물을 들인 (**손톱**)의 아름다움
❹ 봉선화는 졌지만 규중 여인과의 (**인연**)은 계속됨.

060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미화**: 아름답게 꾸밈.
- **관용적 표현**: 속담이나 격언 등과 같이 오래 써서 관습적(어떤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켜 내려와 그 사회 성원들이 널리 인정하는 질서나 풍습에 따른 것)으로 굳어진 표현.

정·정·이

④ 헛짚기 ㉣: 역동적인 묘사를 통해 ~~봉선화의 속성을 파악하기 어려움을 구체화~~하고 있다.

'난데없이 붉은 꽃'은 붉은 꽃물이 든 손톱의 모습을 의미하므로 '손으로 잡으려 하니 어지럽게 흩어지고'는 꽃물이 든 손톱을 잡으려는 손가락의 모습을 역동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을 통해 봉선화의 속성 파악의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오·오·이

① ㉠: 과정을 제시하여 손톱에 봉선화 물을 들이는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다.

흰 백반과 봉선화 꽃잎을 갈아 손톱 위에 올리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② ㉡: 비유적 표현을 반복하여 붉은 빛이 스며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스미는 듯', '끼이는 듯'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반복하여 봉선화 물이 스며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③ ㉢: 미화된 표현을 통해 봉선화 물들이기에 기울인 화자의 정성을 드러내고 있다.

봉선화 꽃잎을 빻아 손톱 위에 놓고 싸맨 모습을 '비단에 옥 글씨로 쓴 편지'라는 미화된 표현으로 묘사하여 정성껏

봉선화 물을 들이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⑤ ⓜ: 관용적 표현을 사용하여 손톱에 물든 봉선화 물의 붉은빛을 강조하고 있다.

'청출어람'과 관련된 '쪽 잎에서 나온 푸른 물이 쪽빛보다 푸르단 말'이라는 관용적 표현을 사용하여 손톱에 물든 봉선화 꽃물의 붉은 빛을 강조하고 있다.

061 답 (1) 붉은 도마뱀 (2) 붉은 꽃, 가지, 안개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환한 촛불, 붉은 도마뱀)'은 봉선화를 비유하는 표현이다.

'파사국 임금의 산호 궁전을 ~ 절구에 빻아 놓은 듯'에서 '산호 궁전'과 '붉은 도마뱀'은 봉선화의 보조 관념으로 흰 백반과 함께 개어 내어 손톱에 올린 봉선화를 비유하는 표현이다.

(2) 교체 '(붉은 꽃, 가지, 안개)'은/는 봉선화로 물들인 손톱을, '(붉은 꽃, 가지, 안개)'은/는 손가락을, '(붉은 꽃, 가지, 안개)'은/는 거울에 서린 입김을 의미한다.

'거울을 대하여 ~ 안개가 섞여 가리는구나.'에서는 거울에 비친 붉은 물이 든 손톱을 꽃이라 생각하여 잡으려 하는 손가락을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붉은 꽃'은 봉선화로 물들인 손톱을, 꽃이 붙어 있는 '가지'는 손가락을, '안개'는 거울에 서린 입김을 비유한 것이다.

062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며 화자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에는 봉선화를 완상하던 화자가 꽃을 캐어 와서 그 꽃잎으로 손톱에 물을 들이는 과정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확대해 가며 대상의 변화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

ⓐ에서 화자는 '옥난간'에서 봉선화를 바라보다가 이를 캐어 와 손톱에 물을 들이고자 아이를 부르고 있으므로 화자의 시선은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상의 변화 과정을 표현하고 있지도 않다.

③ 헛짚기 ⓒ: 일상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삶에 대한 반성을 이끌어 내고~~ 있다.

ⓒ에서 '거울'이라는 일상적 소재를 활용하고 있으나 삶에 대한 반성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④ 부재 ⓓ: ~~과거 회상을 통해 상황에 대한 회의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에서 과거를 회상하고 있지 않으며 회의적 인식도 드러나 있지 않다.

⑤ 부재 ⓔ: ~~감정을 절제한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객관적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에서 화자는 설의법을 통해 봉선화와 달리 도리화는 봄바람에 꽃잎이 떨어져도 슬퍼할 사람이 없다고 표현함으로써 봉선화에 대한 각별한 정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에서 감정을 절제한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화자의 객관적 태도가 부각되고 있다고도 볼 수 없다.

063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무상감**: 모든 것이 덧없다는 느낌.
- **낙화**: 떨어진 꽃. 또는 꽃이 떨어짐.
- **각별**: 어떤 일에 대한 마음가짐이나 자세 따위가 유달리 특별함.

정·정·이

④ 화자 오류 시적 화자는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쉽게 떨어지는 '동산의 도리화'에서 ~~무상감을 느끼고 이를 슬퍼하고~~ 있군.

이 작품의 화자는 시든 후 슬퍼해 줄 사람이 없는 '도리화'와 자신의 손톱에 자취를 남긴 '봉선화'를 대조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도리화'의 아름다움은 순간적이지만 봉선화와 자신의 인연은 계속됨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도리화'가 쉽게 떨어지는 것에서 무상감과 슬픔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시적 화자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봉선화의 '향기 없'는 속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군.

화자는 봉선화의 향기 없는 속성에서 벌과 나비를 꺼리는 정숙한 기상을 발견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② 시적 화자는 '녹의홍상 한 여인'이 등장하는 꿈을 통해 봉선화의 낙화를 예감하고 있군.

화자는 꿈에서 '녹의홍상 한 여인'을 만나고 난 뒤 '아마도 꽃 귀신이 내게 와 하직한 듯'하다고 생각해 급히 창문을 열어 봉선화의 낙화를 확인하고 있다.

③ 시적 화자는 '그대 자취 내 손에 머물렀'음을 근거로 '그대는 한스러워 마소'라고 하며 봉선화를 위로하고 있군.

⑤ 시적 화자는 '규중에 남은 인연 그대 한 몸뿐이로세'라고 말함으로써

봉선화에 대한 각별한 정을 드러내고 있군.

화자는 봉선화 꽃물을 들임으로써 손에 그 자취가 남아 규중에서 함께하는 각별한 인연임을 언급하며(⑤) 낙화한 봉선화를 위로하고 있다(③).

064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화자는 봉선화에게서 긍정적 속성을 발견하고 예찬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화자는 '봄 삼월 지난 뒤에 향기 없다 웃지 마소. ~ 정숙한 기상을 나밖에 뉘 벗할까.'에서 봉선화의 향기 없는 속성에서 벌과 나비를 꺼려 하는 정숙한 기상을 발견하고 봉선화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① 화자 오류 화자는 ~~봉선화와 자신의 처지를 대조하며 자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화자가 봉선화와 자신의 처지를 대조하고 있지 않으며 자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도 않다.

③ 화자 오류 화자는 ~~봉선화를 관조하며 봉선화가 지닌 의미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화자는 '옥난간'에서 봉선화를 바라보다가 이를 캐어 와 손톱에 물을 들이고 있으므로 봉선화를 관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봉선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 봉선화를 비판하고 있지 않다.

065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흥취**: 흥과 취미를 아울러 이르는 말.
- **단절감**: 다른 대상과의 유대(끈과 띠라는 뜻으로, 둘 이상을 서로 연결하거나 결합하게 하는 것. 또는 그런 관계)나 관계가 끊어져 있는 느낌.
- **지향**: 어떤 목표로 뜻이 쏠리어 향함. 또는 그 방향이나 그쪽으로 쏠리는 의지.
- **일면**: 물체나 사람의 한 면. 또는 일의 한 방면.

정·정·이

① 화자는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의인화된 대상에게 위로를 전하고 있다.

화자는 시들어 땅 위에 떨어진 봉선화를 보며 슬퍼하면서도 봉선화를 '그대'라고 의인화하여 말을 건네며 위로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오·오·이

② 화자 오류 화자는 대상의 아름다움을 부각하여 ~~자신이 즐기는 흥취를 강조~~하고 있다.

'해마다 꽃빛은 의구하니'에서 봉선화의 아름다움을 부각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화자가 흥취를 즐기고 있지는 않다.

③ 화자 오류 화자는 ~~대상에게서 단절감을 느끼며 대상과의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봉선화가 시들어 땅에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화자는 봉선화에게 말을 건네고 있으므로 화자가 봉선화에게서 단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고도 볼 수 없다.

④ 화자 오류 화자는 ~~자신의 처지와 대비되는 대상을 제시하여 자신의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봉선화가 화자의 처지와 대비된다고 볼 수 없으며, 화자의 지향이 드러나 있지도 않다.

⑤ 화자 오류 화자는 ~~대상의 화려한 속성을 통해 자신이 지향하는 세속적 삶의 일면을 제시하고~~ 있다.

화자는 '봄 삼월 지난 뒤에 향기 없다 웃지 마소. ~ 정숙한 기상을 나밖에 뉘 벗할까.'에서 봉선화의 향기 없는 속성에서 벌과 나비를 꺼려 하는 정숙한 기상을 발견하고 있으므로 대상의 화려한 속성을 통해 자신이 지향하는 세속적 삶의 일면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Ⅱ

복합 ❶

11 가 정석가 나 임이 오마 하거늘 ~

작품 분석 본문 46~47쪽

가 정석가

작가 미상
갈래 고려 가요
주제 임(임금)에 대한 영원한 사랑과 믿음
특징 ① 은유법, 설의법, 과장법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냄.
② 같은 구절을 두 번씩 반복하여 화자의 감정을 강조함.
한 줄 의미
• 임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

나 임이 오마 하거늘 ~

작가 미상
갈래 사설시조
주제 임에 대한 그리움
특징 ① 과장되고 수다스러운 어조를 통해 해학적인 효과를 얻음.
②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냄.
③ 대구법,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함.
한 줄 의미
❶ 초조한 마음으로 (임)을 기다림.
❷ (주추리 삼대)를 임으로 착각하고 반겨 맞으러 나감.
❸ (자신)의 행동에 대해 겸연쩍어함.

066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가)는 상황의 가정에서, (나)는 행동의 묘사에서 과장이 드러난다.
(가)는 '천 년을 외따로이 살아간들'에서 상황을 과장되게 가정하고 있고, (나)는 '버선을 벗어 품에 품고 ~ 가리지 말고 워렁퉁탕 건너가서'에서 황급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화자의 행동을 과장되게 묘사하고 있다.

오·오·이

① 교체 (가)는 (나)에 비해 시간과 공간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나)에서는 화자가 저녁밥을 지어 먹고 집에 있다가 산으로 뛰어가는 상황이 제시되어 있어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에서는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② 교체 (나)는 (가)에 비해 설의적 표현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가)에는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와 같이 설의적 표현이 쓰였으나 (나)에서는 설의적 표현을 찾아볼 수 없다.

③ 부재 (가)와 (나) 모두 ~~대조와 연쇄를 통해 생동감을 드러낸다.~~
(가)와 (나) 모두에서 대조와 연쇄가 나타나지 않는다.

④ 부재 (가)와 (나) 모두 ~~격정적 어조를 통해 고요한 분위기를 드러낸다.~~
(가)는 비유와 가정 등을 활용하여 화자의 마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나)는 해학적 어조로 임을 기다리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가)와 (나) 모두 감정을 격렬하게 표현하는 격정적 어조를 통해 고요한 분위기를 드러낸다고 볼 수 없다.

067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나)는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간절한 마음을 해학적으로 그리고 있다.
(나)에서 임을 애타게 기다리던 화자는 주추리 삼대를 임으로 착각하여 맞으러 나갔다가 임이 아님을 깨닫고 겸연쩍어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해학성이 드러난다.

오·오·이

① 부재 (가)는 ~~역설적인 상황 설정을 통해 임과 이별하지 않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가)에 역설적인 상황 설정은 드러나 있지 않다. 또 (가)의 화자는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과 믿음을 드러내고 있을 뿐, 임과 이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지 않다.

③ 화자 오류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임을 원망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가)의 화자는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과 믿음을, (나)의 화자는 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을 뿐, 임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다.

068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함으로써 운율감이 조성되고 있다.
(가)는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와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등에서, (나)는 '버선을 벗어 ~ 손에 쥐고' 등에서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오·오·이

① 범위 오류 (나)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나)에서는 '중문', '대문', '지방' 등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지만, (가)에서는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② 범위 오류 의태어의 반복을 통해 긴박감이 유발되고 있다.
(나)의 '곰비임비 임비곰비 천방지방 지방천방'에서는 의태어를 반복적으로 활용하여 긴박감을 유발하고 있으나, (가)에서는 의태어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③ 범위 오류 영탄적 표현에서 고조된 정서가 드러나고 있다.
(나)에서는 '임이로구나', '속였구나' 등에서 영탄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고조된 정서를 드러내고 있으나, (가)에서는 영탄적 표현이 활용되고 있지 않다.

④ 범위 오류 구체적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주제가 부각되고 있다.
(가)에서는 '천 년'과 같이 구체적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이라는 주제를 부각하고 있으나, (나)에는 구체적 수치가 드러나 있지 않다.

069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진솔함**: 진실하고 솔직함.

정·정·이

② 화자가 '임'이라 여긴 '거머희뜩'한 것을 향해 '워렁퉁탕' 건너가는 모습에서 독자는 웃음 지으면서도 그 속에 담긴 절실함을 공감한다.
〈보기〉에서 사설시조의 해학성을 설명하면서, 화자의 착각에서 낭패로 이어지는 행동이 독자의 웃음을 유발하지만 독자는 그 행동 이면의 절실함과 애틋함 등에 공감하게 된다고 하였다. (나)에서 화자가 '거머희뜩'한 것을 '임'으로 착각하고 '워렁퉁탕' 건너가는 모습은 웃음을 유발하며, 이는 '임'에 대한 절실한 그리움으로 인한 것이기에 독자는 이에 공감할 수 있다.

오·오·이

① 화자 오류 화자가 '저녁밥'을 짓다가 '임'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혼잣말하는 모습에서 독자는 웃음 지으면서도 그 속에 담긴 진솔함을 공감한다.
화자는 '임'이 온다고 하여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은 후 '임'을 기다리고 있으므로, '저녁밥'을 짓다가 '임'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혼잣말을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화자 오류 화자가 집 안 마당에서 서성대며 '건넛산'을 느긋하게 바라보는 모습에서 독자는 웃음 지으면서도 그 속에 담긴 애틋함을 공감한다.
화자는 대문을 나가 지방에 앉아 임을 기다리고 있으며, 느긋한 태도가 아니라 간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건넛산'을 바라보고 있다.

④ 화자 오류 화자가 처음 보는 '삼대'를 '임'으로 착각하여 '임'을 원망하는 모습에서 독자는 웃음 지으면서도 그 속에 담긴 간절함을 수용한다.
화자는 자신이 '삼대'를 '임'으로 착각한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을 뿐 '임'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다.

⑤ 화자 오류 화자가 '임'이 오지 못하게 된 이유를 '밤' 탓으로 돌리는 모습에서 독자는 웃음 지으면서도 그 속에 담긴 진지함을 수용한다.
화자는 자신이 실수를 한 때가 '밤'이라 남에게 웃음을 덜 살 수 있어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 '임'이 오지 못하는 이유를 '밤' 탓으로 돌리고 있지 않다.

070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 끈
〈보기〉에서는 (가)가 남녀 간의 사랑뿐 아니라 군신 간의 충의를 담은 노래로 해석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런 맥락을 바탕으로 보면 '바위'에 떨어져도 끊어지지 않는 '끈(㉢)'은 '천 년'을 따로 살아도 끊어지지 않는 '믿음'과 연결되므로, '끈'은 곧 임(임금)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으로 풀이될 수 있다. 따라서 '끈'이 '군신 간의 충의(ⓐ)'의 개념과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 구슬

② 헛짚기 ㉡ 바위
'바위(㉡)'는 '구슬(㉠)'을 부서지게 할 수 있는 대상이므로 시련이나 장애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②). 또한 그러한 '바위'에 '구슬'이 떨어지는 것은 임(임금)과의 이별과 같은 부정적 상황으로 볼 수 있다(①).

④ 헛짚기 ㉣ 천 년

⑤ 헛짚기 ㉤ 외따로이
'천 년(㉣)'을 '외따로이(㉤)' 사는 것은 바위에 구슬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부정적 상황이 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④, ⑤). 그러므로 임금에 대한 '충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오 지름길

② ㉡ 바위
얼핏 보기에는 '바위'가 굳건하고 변하지 않는 이미지를 지니기 때문에 충의와 연결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어 자체의 이미지가 아니라 작품 전체의 맥락을 통해 시어의 의미를 해석하여 '남녀 간의 사랑 → 충의'로 연결될 수 있는 시어를 찾아야 하므로 정답은 '바위'가 아닌 '끈'이에요.

12 가 서경별곡 나 만분가

작품 분석 본문 48~51쪽

가 서경별곡

작가 미상
갈래 고려 가요
주제 이별의 정한(정과 한을 아울러 이르는 말)
특징 ① 이별을 거부하는 적극적인 화자를 통해 사랑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함.
② 반복법, 설의법 등을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함.
③ 분연체 구조를 보이며 각 연마다 후렴구를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함.

한 줄 의미

❶ (이별)을 거부하고 임을 따르겠다는 적극적 의지
❷ 임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

나 만분가

작가 조위
갈래 가사
주제 자신의 억울함에 대한 하소연과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
특징 ① 최초의 유배 가사로, 후대에 정철의 「사미인곡」, 「속미인곡」 등에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됨.
②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남녀 관계에 빗대어 표현했으며, 임금이 계신 곳을 옥황상제의 거처에 비유하여 표현함.
③ 자연물을 매개로 하여 자신의 감정을 드러냄.

한 줄 의미

❶ 오랜 유배 생활에 대한 (체념)
❷ 임(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과 (그리움)

071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회피**: ① 몸을 숨기고 만나지 아니함. ② 꾀를 부려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지지 아니함.

정·정·이

④ (가)의 '좃니노이다'와 (나)의 '빗취어든'은 모두 임의 곁에 있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가)의 '좃니노이다'는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여기에는 임이 사랑해 준다면 울면서 따라가겠다는 마음이 담겨 있다. (나)의 '비취어든'은 '비치거든'이라는 의미로, 여기에는 임의 집 창밖의 매화 되어 달빛 그림자로 임의 옷에 비치고 싶다는 마음이 담겨 있다. 따라서 '좃니노이다'와 '비취어든'은 모두 임의 곁에 있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범위 오류 (가)의 '셔울'과 ~~(다)의 '건덕궁'은 모두~~ 화자가 현재 머무르고 있는 공간이다.

(가)의 '셔울'은 화자가 현재 머무르고 있는 공간이지만, (나)의 '건덕궁'은 임이 머무르고 있는 공간이자, 화자가 가고 싶어 하는 곳이다.

② 헛짚기 (가)의 '질삼 뵈'와 (나)의 '빈 낙대'는 모두 ~~화자가 현재 회피하고 싶은 대상~~이다.

(가)의 '질삼 뵈'는 화자의 생업과 관련된 중요한 것으로 화자는 임과 함께할 수 있다면 이를 버리겠다고 말한 것이지 회피하고 싶어서 버리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다. (나)의 '빈 낙대'는 화자의 욕심 없는 마음을 대변하는 대상일 뿐, 회피하고 싶은 대상이 아니다.

③ 교체 (가)의 '우러곰'과 (나)의 '슬피 우러'는 모두 ~~임~~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가)의 화자는 임이 자신을 사랑해 주기만 한다면 울면서라도 좇아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나)의 화자는 임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금강산의 학이 되어 달이 밝게 뜬 가을밤에 슬프게 우는 상황을 가정하면서, 임을 그리워하는 슬픈 울음소리가 임의 귀에까지 들릴 수 있을지는 옥황상제의 처분에 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가)의 '우러곰'과 (나)의 '슬피 우러'는 모두 임이 아니라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범위 오류 ~~(가)의 '그츠리잇가'~~와 (나)의 '반기실가'는 ~~모두~~ 미래 상황에 대한 의혹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반기실가'는 '반가워하실까'라는 의미로, 여기에는 임이 자신을 반가워하실지 기대하는 마음과 의구심이 모두 담겨 있으므로 미래 상황에 대한 의혹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가)의 '그츠리잇가'는 '끊어지겠습니까'라는 의미로, 여기에는 임에 대한 믿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화자의 확신이 담겨 있으므로 미래 상황에 대한 의혹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정·오 지름길

•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나)에서 공통적인 기능이나 의미를 지니는 시어들을 찾아 비교하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의 오답 선지는 (가)에만 해당하는 내용이거나 (나)에만 해당하는 내용인 경우가 많고, (가), (나)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인 경우도 있으므로, 선지의 틀린 부분에 ×로 표시해 가면서 문제를 풀면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072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화자 오류 (나)의 화자는 ~~임이 슬퍼하는 것을 보고 함께 마음 아파하~~

고 있다.

(나)에서 임이 슬퍼하고 있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나)의 '슬피 우러'의 주체는 화자로, 화자는 학이 되어 슬피 울어 자신의 심정을 임에게 전하고 싶다고 하고 있을 뿐, 임의 슬픔에 공감하고 있지는 않다.

오·오·이

① (가)의 화자는 임이 자신을 사랑해 주면 임을 따라가겠다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가)의 '괴시란ᄃᆡ 아즐가 괴시란ᄃᆡ 우러곰 좃니노이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임의 곁에 머물고자 하는 바람을 노래하고 있다.

(가)의 화자는 이별을 거부하며 임을 따르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하고 있고, (나)의 화자 역시 임의 집 창밖의 매화가 되어 임의 옷에 비치겠다며 임의 곁에 머물고 싶은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073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의구심**: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 **우유부단**: 어물어물 망설이기만 하고 결단성이 없음.

정·정·이

④ (가)의 화자는 가정적 상황에 대한 확신을, (나)의 화자는 가정적 상황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가)에서는 천 년을 외로이 살아가는 가정적 상황에서 믿음이 변치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는 임의 집 창밖의 매화 되어 달빛 그림자로 임의 옷에 비치는 가정적 상황에서 임이 자신의 얼굴을 반기실까 하는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① 화자 오류 (가)의 화자는 자책감을, (나)의 화자는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가)의 화자는 자책감을 드러내고 있지 않으며, (나)의 화자도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② 범위 오류 (가)의 화자는 대상에 대한 신뢰를, (나)의 화자는 대상에 대한 연민을 표현하고 있다.

(가)의 화자는 〈제2연〉에서 '긴힛ᄯᆞᆫ 그츠리잇가', '신잇ᄃᆞᆫ 그츠리잇가'와 같이 말하며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을 표현하고 있으나, (나)의 화자가 임에 대한 연민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③ 범위 오류 (가)의 화자는 대상에 대해 우유부단한 태도를, (나)의 화자는 대상에 대해 간절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의 화자는 임에 대한 믿음이 변치 않을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임에 대한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반면 (나)의 화자는 '백구 건네 저어 건덕궁에 가고지고'에서 임과의 재회를 소망하고 있으므로 임에 대한 간절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범위 오류 (가)의 화자는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는 태도를, (나)의 화자는 자신의 처지를 체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의 화자는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반면, (나)는 '이 몸이 녹아져도 ~ 옥황상제 처분이라' 등에서 임과 이별한 화자가 자신의 처지에 대해 체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74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표상하고**: 추상적이거나 드러나지 아니한 것을 구체적인 형상으로 드러내어 나타내고.

정·정·이

⑤ 헛짚기 'ᄀᆞ을 ᄃᆞᆯ 볼근 밤'과 '월중'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통해 임과 재회한 순간을 드러내고 있다.

'ᄀᆞ을 ᄃᆞᆯ 볼근 밤'과 '월중'은 화자가 현재 처해 있는 시간적 배경이지, 임과 재회한 순간은 아니다. 화자는 자연물인 '만장송', '금강산 학', '매화' 등을 통해 임과 재회하기를 바라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오·오·이

① '임자 업시 구닐'던 '이 몸'이 '학'이 되어 솟아오르게 함으로써 상승의 이미지를 구현하고 있다.

'공산'에 거처하며 '임자 업시 구닐'던 화자는 윤회하여 '학'으로 다시 태어나 솟아오르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는데, '학'이 되어 솟아오르는 모습에 상승의 이미지가 나타나 있다.

② '만장송'과 '매화'라는 소재를 활용하여 임을 향한 화자의 마음을 표상하고 있다.

'만장송'과 '매화'는 전통적으로 선비의 절개를 나타내는 소재로, 화자는 이를 통해 임에 대한 꿋꿋한 절개를 드러내고 있다.

③ '바람비 뿌린 소리'와 '두어 소리'의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임에게 알리고 싶은 화자의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화자는 '만장송'이 되어 '바람비 뿌린 소리'를 임에게 들리

게 하고 싶고, '금강산 학'이 되어 '두어 소리'를 임에게 들리게 하고 싶다고 하고 있으므로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임에게 알리고 싶은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매화'의 '뿌리'와 '가지'를 활용하여 '혼'의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다.
'혼이 뿌리 되고 눈물로 가지 삼아'에 따르면 매화의 '뿌리'와 '가지'는 각각 이별로 인한 '혼'과 '눈물'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이를 통해 '혼'의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075 답 ㄱ, ㄴ, ㄹ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ㄱ. 설의적 표현을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군.
'긴힛뜬 그츠리잇가', '신잇든 그츠리잇가' 등에서 설의적 표현을 반복하여 임에 대한 화자의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

ㄴ. 후렴구를 반복함으로써 전체적인 통일감을 높이고 있군.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와 같이 후렴구를 반복함으로써 전체적인 통일감을 높이고 있다.

ㄹ. 이별의 상황에 처한 화자가 적극적인 태도로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군.
화자는 임이 자신을 사랑해 주시기만 한다면 삶의 터전인 '쇼셩경'과, 자신의 생업인 '질삼 뵈'를 버리고서라도 임을 따라가겠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태도로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오·이

ㄷ. 상반 시적 화자인 '나'가 표면에 노출되어 연모의 정을 노래하고 있군.
화자가 임에 대한 연모의 정을 노래하고 있기는 하지만, 시적 화자인 '나'가 표면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다. (가)의 '나는'은 여음구이다.

076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교체 '침변에 시드는'은 임이 처한 현재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침변', 즉 임의 '베갯머리'에 시드는 것은 설중에 혼자 피어 있는 매화이고, 이는 시적 화자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침변에 시드는'은 임 없이 외롭게 살아가는 시적 화자의 현재 상황을 형상화한 것이지 임이 처한 현재 상황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

오·오·이

① '옥황상제'는 화자가 자신의 처지와 심정을 드러내기 위해 설정한 존재이다.
'옥황상제'는 화자의 운명을 처분하는 절대자로, 화자는 자신의 처지와 심정을 절대자의 처분과 관련지으면서 드러내고 있다.

② '공산 촉루', '외나모'는 화자의 외로운 심정을 보여 준다.
'공산 촉루'와 '외나모'는 모두 혼자 있는 외로운 존재들로 화자 자신을 비유한 표현인데, 이를 통해 화자의 외로운 심정과 처지가 드러나고 있다.

③ '만장송', '금강산 학'은 임을 향한 화자의 변치 않는 마음이 투영된 대상이다.
화자는 죽어서 '만장송'이나 '금강산 학'이 되어서라도 임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이는 임에 대한 화자의 변하지 않는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바람비 뿌린 소리', '두어 소리'는 임에게 전하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을 담고 있다.
'바람비 뿌린 소리'나 '두어 소리'는 모두 화자가 임의 귀에 들렸으면 하고 바라는 소리이다. 따라서 그 소리는 임에게 전하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을 담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오 지름길

③ '만장송', '금강산 학'은 임을 향한 화자의 변치 않는 마음이 투영된 대상이다.
화자의 의도를 고려하지 않고 표면적으로만 보면 죽어서 '만장송'이 되고 '금강산 학'이 되겠다는 말이 임을 향한 화자의 변치 않는 마음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의 화자가 죽어서 '만장송'과 '학'이 되어서라도 임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이는 임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임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077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헛짚기 [A]에서는 '신'을, [B]에서는 '붉은 마음'을 굳건한 '바위'로 형상화하였군.
[A]의 '신'과 [B]의 '붉은 마음'은 모두 변하지 않는 화자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반면에 '바위'는 [A]와 [B]에서 모두 변치 않는 마음을 지키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과 '붉은 마음'을 '바위'로 형상화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A]와 [B]에서 '구슬'은 변할 수 있는 것을, '긴'이나 '끈'은 변하지 않는 것을 비유하는 소재로 활용하였군.

[A]와 [B]에서 모두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도 '긴'이나 '끈'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구슬'은 변할 수 있는 것(깨질 수 있는 것), '긴'이나 '끈'은 변하지 않는 것(끊어지지 않는 것)을 비유한다고 볼 수 있다.

③ [A]와 [B] 모두에서 변하지 않는 마음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화자의 태도가 나타나는군.

[A]에서는 '신잇돈 그츠리잇가', [B]에서는 '붉은 마음이야 어찌 바뀌리오?'라고 하며, 대상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변하지 않는 '신'과 '붉은 마음'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화자의 태도를 알 수 있다.

④ [A]와 [B]를 보니 동일한 모티프가 서로 다른 형식의 작품으로 수용되었군.

[A]와 [B]에는 모두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도 '긴'이나 '끈'은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화자의 마음('신', '붉은 마음')도 변하지 않는다는 모티프가 사용되었다. 이는 동일한 모티프가 고려 가요([A])와 한시([B])라는, 서로 다른 형식의 작품에 수용된 것이다.

⑤ [A]와 [B]를 보니 여음구의 사용 여부에 차이가 있군.

[A]에는 '아즐가', '나ᄂᆞᆫ',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등의 여음구(후렴구)가 사용되었지만, [B]에는 특정한 여음구가 사용되지 않았다.

078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A]의 '구슬'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 것은 [B]의 '끈'이다. ('긴')

(○, ⊗)

[A]의 '구슬'은 변할 수 있는 것(깨질 수 있는 것), [B]의 '끈'은 변하지 않는 것(끊어지지 않는 것)을 비유하므로 '구슬'과 '끈'이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 [A]와 [B]의 화자는 모두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 ×)

[A]와 [B]의 화자는 모두 '긴'과 '끈'에 빗대어 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3) [A]와 [B]는 모두 이별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 ×)

[A]의 화자는 '즈믄 히를 외오곰 녀신ᄃᆞᆯ'에서 임과 이별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B]의 화자 역시 '낭군과 천 년을 이별한다고 해도'에서 임과 이별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079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범위 오류 ~~(나)의 '침변에 시드는 듯'과~~ 〈보기 2〉의 '반이 넘게 늙으셨네'에는 ~~모두~~ 임을 염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군.

〈보기 2〉의 '반이 넘게 늙으셨네'에는 꿈에서 본 임을 염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그러나 (나)의 '침변에 시드는 듯'은 임이 없이 외롭게 살아가는 시적 화자가 처한 현재 상황을 형상화한 것으로, 임을 염려하는 마음과는 거리가 멀다.

오·오·이

① (나)의 '님'과 〈보기 2〉의 '임'은 모두 임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군.

(나)와 〈보기 2〉가 모두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다는 〈보기 1〉의 내용을 참고할 때, (나)의 '님'과 〈보기 2〉의 '임'은 모두 임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② (나)의 '공산'과 〈보기 2〉의 '찬 자리'는 모두 임이 부재하는 공간이라 하겠군.

(나)의 '공산'은 '텅 빈 산'이라는 의미로 임이 부재하는 공간을 나타내고, 〈보기 2〉의 '찬 자리'는 화자가 밤중에 돌아오는 공간으로, 임이 부재하는 추운 잠자리를 의미한다.

④ (나)에서는 '옥황상제'와 같은 초월적 존재를 설정하고 있는 반면, 〈보기 2〉에서는 초월적 존재를 설정하고 있지 않군.

(나)에서 '옥황상제'는 화자의 운명을 처분하는 초월적 존재로, 화자는 이러한 존재와 관련지어 자신의 처지와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보기 2〉에서는 이러한 초월적 존재를 설정하고 있지 않다.

⑤ (나)의 '님의 집 창밧긔'와 〈보기 2〉의 '임 계신 창 안에'는 모두 화자가 임에 대한 그리움으로 다가가려는 공간이군.

(나)의 '님의 집 창밧긔'는 화자가 매화가 되어 임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공간이고, 〈보기 2〉의 '임 계신 창 안에'는 화자가 낙월이 되어 임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공간이다.

13 가 고시 나 시집살이 노래

작품 분석 본문 52~55쪽

가 고시

작가 정약용
갈래 한시
주제 지배층의 횡포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과 그에 대한 비판
특징 ① 우의적인 표현으로 현실을 비판함.
② 비유적 표현을 통해 핍박받는 백성에 대한 연민을 드러냄.
③ 대화체를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함.

한 줄 의미

❶ 홀로 (**뿌리**)가 없어 바람에 불려 다니는 부평초
❷ 작고 가는 (**목숨**)의 부평초
❸ 부평초를 괴롭히는 (**연잎**)과 (**마름**)
❹ 지배층에 대한 (**비판**)과 백성들에 대한 연민
❺ 그치지 않는 (**제비**)의 울음소리
❻ (**집**) 없는 서러움을 호소하는 듯한 제비의 울음소리
❼ (**제비**)에게 느릅나무와 홰나무에 깃들지 않는 이유를 물음.
❽ 제비가 (**황새**)와 (**뱀**)의 횡포에 대해 호소하며 대답함.

나 시집살이 노래

작가 미상
갈래 민요
주제 고된 시집살이에 대한 한탄과 체념
특징 ① 두 여인의 대화체로 구성됨.
② 과장법, 반복법, 대구법, 열거법, 대조법, 비유법 등의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해 주제를 강조함.

한 줄 의미

❶ 근친 오는 사촌 형님 마중과 (**시집살이**)에 대한 궁금증
❷ 시집살이의 고달픔에 대한 (**하소연**)
❸ (**체념**)을 통해 현실의 고됨을 달랜.

080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대화 형식을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가)는 '느릅나무 홰나무 ~ 깃들지 않니'에서 화자가 제비에게 묻고 '느릅나무 구멍을 ~ 와서 뒤진다오'에서 제비가 화자에게 대답하는 대화의 형식을 활용하여, '황새'와 '뱀'에 의해 '제비'가 괴롭힘을 당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사촌 동생이 사촌 형님에게 시집살이가 어떠냐고 묻고 사촌 형님이 시집살이가 힘들다고 대답하는 대화 형식을 활용하여 고달픈 시집살이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반어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시적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가), (나) 모두 반어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③ 부재 ~~시간의 흐름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가), (나) 모두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 있지 않으며,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도 나타나 있지 않다.

④ 헛짚기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다.
(가)의 '칭칭 감아 조이네(촉각)', '지지배배 그 소리', '제비 다시 지저귀며(청각)', (나)의 '나뭇잎이 푸르대야 시어머니보다 더 푸르랴(시각)' 등에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⑤ 부재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대상에 대한 안타까움을 강조하고 있다.
(가)에는 '부평초'와 '제비'로 상징되는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나)에는 고된 시집살이를 하는 사촌 형님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고 있지는 않다.

081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가)와 (나)는 모두 현실 상황을 자연물에 비유하여 표현하여 부정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가)에서는 피지배층(백성)을 '부평초', '제비'에, 지배층을 '연잎', '마름', '황새', '뱀'에 비유하여 지배층에 의해 피지배층이 고통을 당하는 현실을 부정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나)에서는 시집살이를 '개집살이'에 비유하고, 시댁 식구들을 새에 비유하여 고된 시집살이를 하고 있는 화자의 현실을 부정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가)와 (나)는 모두 ~~감탄과 반성의 어조를 교차하여~~ 복잡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가)에서는 연민과 비판의 어조가, (나)에서는 한탄의 어조가 드러나 있을 뿐, (가)와 (나) 모두 감탄과 반성의 어조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③ 부재 (가)는 (나)와 ~~달리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확대해 가면서 화자의 심리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가)와 (나) 모두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확대하고 있지 않으며, 화자의 심리가 변화하고 있지도 않다.

082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정착**: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아 붙박이로 있거나 머물러 삶.
- **감내**: 어려움을 참고 버티어 이겨 냄.

정·정·이

④ '부평초'와 '제비' 모두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

'부평초'는 '물 위를 두둥실 떠도는 신세'를 통해, '제비'는 '집 없는 서러움'을 통해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오·이

① 범위 오류 '부평초'는 '제비'와 달리 삶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부평초'는 '연잎'과 '마름'으로 인한 삶의 고통을, '제비'는 '황새'와 '뱀'으로 인한 삶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따라서 '부평초'와 '제비' 모두 삶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범위 오류 '부평초'는 '제비'와 달리 갈등의 요인을 외부에서 찾고 있다.

'부평초'는 '연잎', '마름'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제비'는 '황새', '뱀'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부평초'와 '제비' 모두 갈등의 요인을 외부에서 찾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범위 오류 '제비'는 '부평초'와 달리 연민의 대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각각 '연잎, 마름'과 '황새, 뱀'에 의해 고통을 겪고 있는 '부평초'와 '제비'는 모두 연민과 안타까움의 대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⑤ 상반 '부평초'와 '제비' 모두 현실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부평초'는 '언제나 바람에 불려 다니네'에서 알 수 있듯이 현실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있지 않다. '제비'도 '집 없는 서러움을 호소하는 듯'에서 알 수 있듯이 현실의 문제에 대해 호소하고 있을 뿐,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있지 않다.

083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착취**: 계급 사회에서 생산 수단을 소유한 사람이 생산 수단을 갖지 않은 직접 생산자로부터 그 노동의 성과를 무상으로 취득함. 또는 그런 일.
- **터전**: ① 집터가 되는 땅. ② 살림의 근거지가 되는 곳.
- **고발**: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잘못이나 비리 따위를 드러내어 알림.

정·정·이

④ 헛짚기 ⓓ그런 상황에서도 백성들은 ~~현실에 굴하지 않는 꿋꿋한 모습~~을 보여.

제비가 '지지배배' 소리를 그치지 않는 것은 지배층의 횡포로 피지배층인 백성의 고통이 끝나지 않아 계속 울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백성들이 현실에 굴하지 않는 꿋꿋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황새'와 '뱀'은 백성들을 괴롭히는 지배 세력을 상징하고,

② ⓑ'제비'는 지배 세력으로부터 착취당하는 백성들을 상징해.

③ ⓒ피지배층의 고난은 삶의 터전마저 빼앗기는 절박한 상황으로 그려지고 있어.

「고시」가 조선 후기 지배층의 횡포와 피지배층의 고난을 드러낸 작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제비'가 느릅나무와 홰나무에 살지 못하도록 쪼고 뒤지는 '황새'와 '뱀'은 백성들을 괴롭히는 지배층을 상징하고(①), 삶의 터전을 빼앗긴 '제비'는 지배층에 의해 착취당해 절박한 상황에 처한 백성을 상징한다고(②, ③) 볼 수 있다.

⑤ ⓔ작가는 당대의 부정적 현실을 우회적으로 고발하고 있어.

작가는 백성을 괴롭히는 지배층을 '황새'와 '뱀'에, 착취를 당하는 백성을 '제비'로 표현하여 지배층의 횡포로 고통을 당하던 당대의 부정적 현실을 우회적으로 고발하고 있다.

084 답 (1) ○ (2) ○ (3) ○ (4) ○ (5)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 제비의 그침 없는 소리에 주목한다. (○, ×)

㉮에서는 처음 날아와 지지배배 그치지 않는 소리를 내는 제비에 주목하고 있다.

(2) ㉯: 제비가 말하는 내용에 관해 짐작한다. (○, ×)

㉯에서는 제비가 집 없는 서러움을 호소하는 듯하다고 짐작하고 있다.

(3) ㉰: 제비에게 의문 나는 점에 대해 질문한다. (○, ×)

㉰에서는 느릅나무와 홰나무에 구멍이 많은데 어찌하여 그곳에 깃들지 않느냐고 의문 나는 점을 묻고 있다.

(4) ㉱: 제비의 지저귐을 사람을 향한 것으로 여긴다. (○, ×)

㉱에서는 제비가 다시 지저귀는 것이 사람에게 말하는 듯하다고 여기고 있다.

(5) 화자 오류 ㉲: 제비가 하는 말에 ~~의구심~~을 드러낸다. (○, ×)

㉲에서 '제비'는 '황새'와 '뱀'의 횡포에 대해 호소하고 있는데, 작품의 주제를 고려하면 이는 지배층에 의해 착취당하는 피지배층이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에서 제비가 말하는 내용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085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유보**: 어떤 일을 당장 처리하지 아니하고 나중으로 미루어 둠. = 보류.
- **만류**: 붙들고 못 하게 말림.
- **지목**: 사람이나 사물이 어떠하다고 가리켜 정함.
- **제약**: 조건을 붙여 내용을 제한함. 또는 그 조건.
- **용모**: 사람의 얼굴 모양.
- **고충**: 괴로운 심정이나 사정.

정·정·이

① 화자 오류 화자는 Ⓐ에서 물음에 대한 답변을 ~~유보하며 사촌 동생의 결혼을 만류~~하고 있다.

'시집살이 어떱뎁까'라는 사촌 동생의 물음에 화자(사촌 형님)는 '시집살이 개집살이'라고 답하고 있으므로 답변을 유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는 화자가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사촌 동생의 결혼을 만류하는 내용은 (나)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오·이

② 화자는 Ⓑ에서 과장된 표현을 통해 며느리가 수행해야 하는 가사 노동의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에서 화자는 '오 리', '십 리'라는 거리와 '아홉 솥', '열두 방'과 같은 과장된 표현을 통해 가사 노동이 과중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③ 화자는 Ⓒ에서 시집 식구들을 일일이 지목하여 시집 식구들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에서 화자는 '시아버니', '시어머니', '동세', '시누', '시아지비', '남편'을 일일이 지목하여 각각의 성격이나 특징을 새에 비유하면서 시집 식구들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④ 화자는 Ⓓ에서 며느리가 감당해야 하는 제약을 제시해 며느리의 처지를 보여 주고 있다.

Ⓓ에서 화자는 '귀먹어서', '눈 어두워', '말 못해서'라는 표현을 통해 들어도 못 들은 척, 보고도 못 본 척,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아야 되는 시집살이하는 며느리의 처지를 제시하고 있다.

⑤ 화자는 Ⓔ에서 결혼 전후의 용모 변화를 자연물에 빗대어 시집살이의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에서 화자는 결혼 전 '배꽃'같이 아름다웠던 얼굴이 결혼 후 시집살이의 고됨으로 '호박꽃'이 되었고, 결혼 전 '삼단'같이 숱이 많고 아름다웠던 머리가 결혼 후 시집살이의 고됨으로 '비사리춤'이 되었다고 표현하며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086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헛짚기 ㉤에서 ~~'거위'와 '오리'에 빗대어~~ 현실에 대응하지 못하고 체념하는 자신을 드러내고 있군.

화자(사촌 형님)가 현실에 대응하지 못하고 체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거위'와 '오리'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에서 '거위'와 '오리'는 화자의 자식들을 빗댄 표현으로, 화자 자신을 빗댄 것이 아니다.

오·오·이

① ㉠에서 '고추', '당추'와 비교하여 시집살이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군.

시집살이가 '고추', '당추'보다 더 맵다고 표현함으로써 시집살이의 고통을 드러내고 있다.

② ㉡에서 '오 리'와 '십 리'를 활용하여 감당해야 할 노동이 과중함을 강조하고 있군.

물을 떠오기 위해 가야 하는 거리와 방아를 찧어 오기 위해 가야 하는 거리를 각각 '오 리', '십 리'로 과장되게 표현함으로써 가사 노동의 과중함을 강조하고 있다.

③ ㉢에서 '호랑새'와 '꾸중새'를 활용하여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대하기 힘든 존재로 표현하고 있군.

무서워서 대하기 힘든 시아버지와 늘 꾸중을 해서 어려운 시어머니를 각각 '호랑새'와 '꾸중새'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힘든 시집살이를 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④ ㉣에서 '배꽃'과 '호박꽃'을 대비하여 초라하게 변한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고 있군.

화자가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배꽃'에, 현재의 모습을 '호박꽃'에 비유하여 대조함으로써 초라해진 현재의 모습에 대한 한탄을 드러내고 있다.

087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범위 오류 (나)와 ~~〈보기〉에서는 모두~~ 가부장제에 따른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

(나)에는 며느리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가부장제에 따른 폐해가 드러나 있다. 반면 〈보기〉에는 가족에게 정성을 다하고자 하는 여성 화자의 태도가 부각될 뿐, 가부장제에 따른 폐해는 드러나 있지 않다.

오·오·이

① (나)에서는 〈보기〉와 달리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이 부각되고 있다.
(나)에는 며느리(화자)와 시댁 식구들 간의 갈등이 부각되고 있으나, 〈보기〉에는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② 〈보기〉에서는 (나)와 달리 가족애와 유교적 윤리관이 강조되고 있다.
〈보기〉의 '외씨 같은 보선 지어 오빠님께 드리고'와 '겹옷 짓고 솜옷 지어 우리 부모 드리겠네'에서는 형제간의 우애와 효라는 유교적 윤리관과 가족애가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나)에서는 고된 시집살이에 대한 화자의 한탄과 체념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가족애와 유교적 윤리관이 강조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나)와 〈보기〉에서는 모두 여성의 현실적 삶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나)에는 식사 준비, 불 때기 등과 같은 고된 가사 노동에 시달리는 여성 화자의 현실적 삶이 드러나 있고, 〈보기〉에는 뽕잎을 따 누에를 먹이고 베를 짜는 노동을 하는 여성 화자의 현실적 삶이 드러나 있다.

⑤ (나)와 〈보기〉에서는 모두 언어유희를 통한 해학성이 유발되고 있다.
(나)의 '시집살이 개집살이', 〈보기〉의 '갈 적에는 갈뽕을', '올 적에는 올뽕을' 등에서 언어유희를 통한 해학성이 유발되고 있다.

088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승하**: 임금이나 존귀한 사람이 세상을 떠남을 높여 이르던 말.
- **중상모략**: 중상(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 명예나 지위를 손상함.)과 모략(사실을 왜곡하거나 속임수를 써 남을 해롭게 함. 또는 그런 일)을 아울러 이르는 말.
- **유배**: 오형(五刑) 가운데 죄인을 귀양 보내던 일.
- **당쟁**: 당파(조선 시대에, 정치 세력 결집 단체였던 붕당 안에서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다시 나뉜 파벌)를 이루어 서로 싸우던 일.
- **폐해**: 폐단(어떤 일이나 행동에서 나타나는 옳지 못한 경향이나 해로운 현상)으로 생기는 해.

정·정·이

① 교체 '풀'은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약자를 억압하는 세력을 나타내고 있군.
'연잎', '마름'
뿌리가 없어 물 위를 두둥실 떠도는 부평초도 '풀'의 하나이므로 '풀'이 '부평초' 즉 약자를 억압하는 세력을 나타낸다고 볼 수는 없다. '부평초'와 같은 약자를 억압하는 세력을 나타내는 것은 '연잎', '마름'이라 할 수 있다.

오·오·이

② '떠도는 신세'는 정조의 승하로 위태로운 처지가 된 다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군.
〈보기〉에 따르면 '뿌리' 즉 든든하게 지지해 줄 대상이 없어 '두둥실 떠도는' '부평초'는 자신을 든든하게 후원해 주었던 정조를 잃은 다산의 처지를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바람에 불려 다니네'는 정치적 수난으로 인해 제 뜻대로 살지 못하는 다산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군.
〈보기〉에 따르면 '바람에 불려 다니'는 '부평초'의 처지는 시기와 질투, 모함으로 인해 제 뜻대로 살지 못했던 다산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칭칭 감아 조이네'는 중상모략을 하는 무리로 인해 유배된 자신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군.
〈보기〉에 따르면 부평초를 '칭칭 감아 조이'는 마름은 중상모략을 일삼는 무리를 상징하므로, 마름에 의해 칭칭 감아 조여진 부평초는 유배된 다산의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몹시도 어긋나는가'를 통해 당쟁의 폐해를 비판하는 다산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군.
〈보기〉에 따르면 '몹시도 어긋나는가'는 화합하지 못하고 당쟁을 일삼는 무리에 대한 다산의 비판적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14 가 용비어천가 나 강호사시가

작품 분석 본문 56~57쪽

가 용비어천가

작가 정인지 외
갈래 악장
주제 조선 개국의 정당성과 왕조의 번영 송축 및 후대 왕에 대한 권계
특징 ①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천명하며 왕조의 발전을 기원하는 송축가로 총 125장으로 구성됨.
② 훈민정음으로 창작된 최초의 작품임.
한 줄 의미
❶ (조선)의 무궁한 발전 송축
❷ 후대 (왕(임금))에 대한 경천근민 권계

나 강호사시가

작가 맹사성
갈래 연시조
주제 자연에서 한가로운 삶을 즐기며 임금님의 은혜에 감사함.
특징 ① 계절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② '강호에'로 시작해 '역군은이샷다'로 끝나는 형식을 반복하여 형식적 통일성을 유지함.
③ 대유법과 의인법을 사용하여 자연에 대한 친밀감과 자연과 어우러진 삶의 모습을 드러냄.
한 줄 의미
❶ 춘사_(강호)에서 느끼는 봄의 흥취
❷ 하사_(초당)에서의 한가한 여름 생활
❸ 추사_(물고기)를 잡으며 유유자적하는 생활
❹ 동사_설경 속에서 (안분지족)하는 생활

089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내포**: 어떤 성질이나 뜻 따위를 속에 품음.
- **전언**: 말을 전함. 또는 그 말.
- **수신자**: 우편이나 전보 따위의 통신이나 유선 또는 무선 통신에서 신호를 받는 사람. = 수신인.
- **명시**: 분명하게 드러내 보임.
- **어감**: 말소리나 말투의 차이에 따른 느낌과 맛. ≒ 말맛.

정·정·이

⑤ 부재 〈제2장〉과 〈제125장〉은 모두 ~~자연 현상과 인간의 삶을 대조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제2장〉에서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가뭄에 그치지 않는 샘이 깊은 물이라는 자연 현상을 제시하여, 튼튼한 기초를 바탕으로 한 조선 왕조의 영원성을 기원하고 있다. 그리고 〈제125장〉에서는 조선 건국의 정당성과 영원무궁한 발전 송축, 후대 왕에 대한 권계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고사를 인용하고 있다. 〈제2장〉과 〈제125장〉 모두 자연 현상과 인간의 삶을 대조하고 있지 않다.

오·오·이

① 〈제2장〉에서는 유사한 자연의 이치가 내포된 두 사례를 나란히 배열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 꽃이 좋고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자연의 이치와,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그치지 않아 내를 이루어 바다에 간다는 자연의 이치를 나란히 배열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 왕조가 근원이 깊고 영원할 것이라는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② 〈제125장〉에서는 행에 따라 종결 어미를 달리하고 있다.
〈제125장〉에 쓰인 종결 어미는 1행은 '-니', 2행은 '-ㄹ 것입니다'라는 의미의 옛말 '-리이다', 3행은 '-까'로 서로 다르다.

③ 〈제2장〉과 달리, 〈제125장〉은 전언의 수신자를 명시하고 있다.
〈제125장〉의 '임금하'에서 이 노래의 수신자가 후대 임금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제2장〉에는 수신자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④ 〈제125장〉과 달리, 〈제2장〉은 한자어를 배제하고 순우리말의 어감을 살리고 있다.
〈제125장〉에서는 '천세', '누인개국', '복년', '성신', '경천근민', '낙수' 등 한자어가 많이 쓰이고 있다. 그러나 〈제2장〉에서는 한자어를 쓰지 않고 '뿌리', '나무', '바람', '샘', '물', '가뭄' 등 순우리말이 사용되고 있다.

090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범위 오류 ~~(가)~~와 (나)에서는 ~~모두~~ 의인화를 통해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유신한 강파'에서는 강 물결이 신의가 있다고 의인화하여 표현함으로써 그 속성을 드러내고 있으나, (가)에서는 대상을 의인화하고 있지 않다.

오·오·이

① (가)에서는 고사를 인용하여 주제 의식을 전달하고 있다.
(가)의 〈제125장〉의 '낙수에 사냥 가 있어 조상만 믿겠습니까'에서는 고사를 활용하여 후대 왕에 대한 권계를 전달하고 있다.

② (나)에서는 계절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나)에서는 봄(제1수), 여름(제2수), 가을(제3수), 겨울

(제4수)의 계절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여 자연을 벗 삼아 유유자적하게 사는 화자의 삶을 드러내고 있다.

091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각 수 종장의 마지막 어절에는 동일한 시어를 배치하여 전체적 통일성을 확보해야겠군.

각 수 종장의 마지막 어절에서는 '역군은이샷다'를 동일하게 반복하여 통일성을 주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각 수 초장의 전반부에는 ~~사회적 배경~~을 제시하며 시상의 단서를 드러내야겠군.
계절적 배경

각 수 초장에는 '강호에 ~이 드니'라는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때 전반부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직접 제시하여 시상을 시작하고 있을 뿐, 사회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② 범위 오류 ~~각 수~~ 〈제2수〉~〈제4수〉 초장의 후반부에서는 내면적 감흥을 구체적 사물을 통해 표현해야겠군.

초장의 후반부에서 구체적 사물이 언급된 것은 〈제2수〉('초당'), 〈제3수〉('고기'), 〈제4수〉('눈')이다. 〈제1수〉의 초장 후반부에서는 '미친 흥이 절로 난다'라고 노래하며 화자의 내면적 감흥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③ 범위 오류 ~~각 수~~ 〈제1수〉~〈제3수〉 중장에서는 주변의 자연 풍광을 묘사하여 화자가 즐기고 있는 삶의 모습을 제시해야겠군.

〈제1수〉의 중장에는 시냇가에서 물고기를 안주 삼아 막걸리를 마시는 모습이, 〈제2수〉의 중장에는 강에 이는 물결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맞는 모습이, 〈제3수〉의 중장에는 작은 배에서 그물을 던져 놓은 채 유유자적하게 즐기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 〈제4수〉의 중장에서는 '삿갓 빗기 쓰고 누역으로 옷을 삼아'라고 노래하며 주변의 자연 풍광의 묘사가 아닌 화자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④ 부재 각 수 종장의 전반부에서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임금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생생하게 드러내야겠군.

각 수 종장의 전반부는 모두 '이 몸이'로 시작할 뿐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092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인공물**: 인공적(사람의 힘으로 만든 것)으로 만든 물체.
- **정체성**: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 ≒ 아이덴티티.
- **기반**: 기초가 되는 바탕. 또는 사물의 토대.
- **유구하다**: 아득하게 오래다.
- **송축**: 경사를 기리고 축하함. ≒ 송도.
- **권계**: 잘못함이 없도록 타일러 주의시킴.

정·정·이

④ 헛짚기 (나)에서 '강파', '바람' 등의 자연물과 '소정', '그물' 등의 인공물의 ~~대립은 '사'와 '대부'라는 정체성 사이에서 고뇌하는 모습을 드러내는군.~~

'강파', '바람'이 자연물이고 '소정', '그물'이 인공물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강파', '바람'은 화자가 즐기는 대상이고 '소정', '그물'은 화자가 자연을 충분히 즐길 수 있게 해 주는 수단으로 제시된 것들이기 때문에 이 소재들은 서로 대립적인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오·오·이

① (가)에서 '뿌리 깊은 나무'와 '샘이 깊은 물'은 기반이 굳건하고 기원이 유구하다는 뜻을 내세워 왕조를 송축하는 표현이겠군.

〈보기〉에서 「용비어천가」는 새 왕조에 대한 송축을 담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뿌리 깊은 나무'와 '샘이 깊은 물'은 새 왕조의 기반이 튼튼하고 기원이 유구함을 드러냄으로써 새 왕조를 송축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② (가)에서 '경천근민'의 덕목을 부각하여 왕에 대해 권계한 것은 '대부'로서의 정치적 의식을 드러낸 것이군.

왕에게 '경천근민'하도록 권계하는 것은 나라를 잘 다스리라는 의미를 담은 것이므로 이는 정치에 참여하는 자, 즉 '대부'로서의 의식을 드러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③ (나)에서 '한가'하게 '소일'하는 개인적 삶도 임금의 은혜 덕분이라고 표현한 데서 정치적 성격을 엿볼 수 있군.

(나)의 화자가 한가하게 소일하며 살아가면서 임금의 은혜를 떠올린 것은, 곧 임금이 정치를 잘하여 백성을 잘 보살핀 덕분이라는 의미를 포함하므로 정치적 성격을 엿볼 수 있다.

⑤ (가)의 '한강 북녘'은 새 왕조의 터전이라는 정치적 의미를 지니고, (나)의 '강호'는 개인적, 정치적 의미를 모두 지니고 있겠군.

〈보기〉에서 (가)는 정치적 목적으로 창작된 작품이라고 하였으므로 (가)의 '한강 북녘'은 새로 왕조를 연 조선의 터전, 즉 한양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정치적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나)의 '강호'는 자연을 의미하는 공간으로 화자가 선비로서 자연을 즐기며 살아가는 개인적 공간이면서 동시에 임금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공간, 즉 신하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게 되는 정치적 공간이기도 하다.

093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공적**: 국가나 사회에 관계되는 것.

정·정·이

③ 화자 오류 신하로서의 공적인 삶이 개인적 삶과 조화를 이루게 된 것은 ~~유교적 이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화자의 노력 때문~~이군.

(나)의 화자가 유교적 이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거나, 신하로서의 공적인 삶과 개인적 삶의 조화가 유교적 이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화자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내용은 작품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오·이

① 각 수의 초장과 중장은 주로 화자의 개인적인 삶의 모습을 그린 것이겠군.

각 수의 초장과 중장은 자연에서 화자가 즐기는 풍류와 흥취를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적인 삶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각 수 종장의 '역군은이샷다'는 신하라는 공적인 삶과 관련지어 한 말이겠군.

'역군은이샷다'는 '역시 임금님의 은혜이시다'라는 뜻으로, 신하의 입장에서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 그러므로 이는 화자가 신하라는 공적인 삶과 관련지어 한 말로 볼 수 있다.

15 가 어와 동량재를 ~ 나 고공답주인가

작품 분석 본문 58~59쪽

가 어와 동량재를 ~

작가 정철
갈래 평시조
주제 당쟁으로 인해 인재들을 잃는 현실에 대한 비판
특징 ① 나라의 현실에 대해 우국적·비판적인 태도를 보임.
② 어지러운 현실을 집에 비유하여 의미를 전달함.
③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함.

한 줄 의미

❶ (**동량재**)를 함부로 다루는 상황에 대한 탄식–나라의 인재를 잃는 데 대한 탄식

❷ 무너져 가는 집을 수리하지 않고 (**논쟁**)만 벌이는 상황에 대한 답답함–당쟁을 일삼는 상황에 대한 답답함

❸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목수들**)에 대한 비판–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정치가들**)에 대한 비판

나 고공답주인가

작가 이원익
갈래 가사
주제 고공(관리)들에 대한 훈계, 국가 세태에 대한 비판과 해결 방안
특징 ① 국가의 운영 문제를 비유적으로 표현함.
② 상전에게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한 줄 의미

❶ 몸을 사리는 (**종들**)을 비판하고, 위태로운 집안(나라)과 (**주인(임금)**)을 걱정하면서도 주인(임금)에게 책임을 물음.

❷ (**주인(임금)**)에게 집안(나라)을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094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가)와 달리 (나)에서는 연쇄와 반복을 통해 리듬감이 나타나고 있다.

(나)의 '집 일을 곳치거든 ~ 죵을 미드쇼셔'에서 연쇄의 표현 기법이 쓰였고, 3행, 4행, 6행에서는 '뉘라셔 곳쳐'와 '뉘라셔'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러한 연쇄와 반복은 의미를 강조하는 한편 리듬감을 형성한다. 반면 (가)에는 연쇄와 반복의 표현 방식이 쓰이지 않았다.

오·오·이

② 범위 오류 (나)~~와 달리~~ (가)에서는 설의적인 표현을 통해 안타까움의 정서가 강조되고 있다.

(가)의 '뎌리ᄒᆞ야 어이ᄒᆞᆯ고'에서 설의적 표현을 통해 동량재를 함부로 다루는 상황, 즉 나라의 인재를 잃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강조하고 있다. (나) 역시 '비 식여 셔근 집을 ~ 뉘라셔 곳쳐 쓸고', '뉘라셔 힘써 ᄒᆞᆯ고', '명령을 뉘 드ᄅᆞ며 논의를 눌라 ᄒᆞᆯ고' 등에서 설의적 표현을 통해 위태로운 집안(나라)의 형세에 대한 안타까움을 강조하고 있다.

③ 교체 (나)와 달리 (가)에서는 직유의 방식을 통해 대상의 이미지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가)에서는 '동량재(나라의 인재)', '기운 집(어려운 지경에 놓인 나라)'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직유가 아닌 은유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나)의 '옥 ᄀᆞᆺ튼 얼굴'에서는 직유의 방식을 사용하여 대상(임금의 얼굴)의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 한편 '마누라, 주인(임금)', '죵(신하)', '큰나큰 기운 집(위태로운 나라)', '어른 죵(영의정과 같은 고위 관리)' 등에서는 은유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④ 범위 오류 (가), (나)에서는 모두 색채어를 통해 대상의 면모가 강조되고 있다.

(가)에서는 색채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반면 (나)의 '옥 ᄀᆞᆺ튼 얼굴'에서는 임금의 희고 아름다운 얼굴을 '옥'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으므로 색채어를 통해 대상의 면모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⑤ 부재 (가), (나)에서는 모두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와 (나)에는 모두 현실 상황에 대한 탄식이 표현되어 있을 뿐,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한 시상의 전환은 나타나지 않는다.

095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우의**: 다른 사물에 빗대어 비유적인 뜻을 나타내거나 풍자함. 또는 그런 의미.

정·정·이

③ (가), (나)는 우의적 표현을 통해 현실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가)에서는 나라의 유능한 인재를 '동량재'에, 당쟁을 일삼는 정치가들을 '목수'에, 위태로운 나라를 '기운 집'에 비유하여 부정적인 정치 현실을 우의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나)에서는 임금을 '마누라', '주인'에, 신하를 '죵'에, 위태로운 나라를 '기운 집'에 빗대어 당대의 현실을 우의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가)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변화하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가)에 '기운 집'이라는 공간이 제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공간의 이동은 드러나 있지 않으며 화자의 정서도 변화하고 있지 않다.

② 화자 오류 (나)는 의문형 진술을 통해 삶의 무상감을 표현하고 있다.

(나)의 '비 ᄉᆡ여 셔근 집을 ~ 뉘라서 곳쳐 쓸고', '뉘라서 힘써 흘고', '명령을 뉘 드ᄅᆞ며 논의를 눌라 흘고' 등에서 의문형 진술을 활용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위태로운 집안(나라)의 형세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을 뿐, 삶의 무상감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096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방안**: 일을 처리하거나 해결하여 나갈 방법이나 계획.
- **격식**: 격(주위 환경이나 형편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분수나 품위)에 맞는 일정한 방식.

정·정·이

④ 영탄적 어조로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가)의 '의논도 하도 할샤(말이 많기도 많구나)'와 (나)의 '몸 ᄉᆞ릴 ᄲᅮᆫ이로다(몸 사릴 뿐이로다)', '마누라 타시로다(상전 탓이로다)' 등에서 각각 영탄적 어조로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자연물과 인간의 모습을 대비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 자연물과 인간의 모습을 대비하고 있지 않다.

② 범위 오류 대구법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여 나타내고 있다.

(나)의 '비 ᄉᆡ여 셔근 ~ 뉘라서 곳쳐 쓸고', '명령을 뉘 드ᄅᆞ며 논의를 눌라 흘고' 등에서는 대구법을 활용하여 잘못된 세태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과 걱정을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가)에서는 대구법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③ 범위 오류 구체적 청자를 설정해 상황을 개선할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나)의 'ᄂᆡ 주인 외다 ᄒᆞ기 ~ 가도 절노 닐니이다'에서는 'ᄂᆡ 주인'을 구체적 청자로 설정해 상황을 개선할 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나, (가)에서는 구체적 청자를 설정하고 있지 않다.

⑤ 범위 오류 공손한 어투로 뜻을 전달해 대상과의 격식을 유지하고 있다.

(나)에서는 '사뢰나이다', '드로쇼셔', '닐니이다' 등과 같이 공손한 어투로 뜻을 전달해 대상과의 격식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가)에는 공손한 어투가 나타나 있지 않다.

097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패망**: 싸움에 져서 망함.
- **대사**: 다루는 데 힘이 많이 들고 범위가 넓은 일. 또는 중대한 일. = 큰일.
- **도출**: 판단이나 결론 따위를 이끌어 냄.
- **관여**: 어떤 일에 관계하여 참여함.
- **외세**: 외국의 세력.
- **국익**: 나라의 이익.
- **사익**: 개인의 이익.

정·정·이

① (가)의 '동량재'와 (나)의 '어른 죵'은 모두 국가의 바람직한 경영을 위해 요구되는 중요한 요소를 뜻하겠군.

(가)에서는 건축물의 마룻대와 들보로 쓸 만한 재목인 '동량재'를 함부로 다루어 집이 기울어 가고 있음을 한탄하고 있고, (나)에서는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른 죵'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의 '집'이 '국가'를 뜻하는 것으로 보면, (가)의 '동량재'는 인재를 뜻하고 (나)의 '어른 죵'은 영의정과 같은 고위 관리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의 '동량재'와 (나)의 '어른 죵'이 국가의 바람직한 경영을 위해 필요한 존재라고 감상한 내용은 적절하다.

오·오·이

② 범위 오류 (가)의 '기운 집'은 위태로운 상태에 놓인 국가를, (나)의 '기운 집'은 되돌릴 길 없어 기울어 패망한 국가를 나타내겠군.

(가)의 '기운 집'은 위태로운 상태에 놓인 국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나)에서는 '기운 집'을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을 주인(임금)에게 간곡히 제안하고 있으므로, '기운 집'은 되돌릴 길 없이 기울어 패망한 국가가 아니라 위험에 놓여 있지만 일으켜 세워야 할 나라로 볼 수 있다.

③ 범위 오류 (가)의 '의논'과 (나)의 '논의'는 모두 국가 대사를 위해 임금과 신하가 합의하여 도출해 낸 올바른 대책을 뜻하겠군.

(가)의 '의논'은 바른 방향을 잡지 못하고 불필요하게 전개되는 당쟁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가리킨 말이므로, 국가 대사를 위한 대책인 (나)의 '논의'와는 성격이 다르다.

④ 헛짚기 (가)의 '뭇 목수'는 조정의 일에 무관심한 신하들을, (나)의 '헴 업는 죵'은 조정의 일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신하를 나타내겠군.

(가)의 '뭇 목수'는 조정의 일에 관심은 많으나 당쟁을 일삼는 신하들을 가리키고, (나)의 '헴 업는 죵'은 조정의 일에 무심하고 직무를 소홀히 하는 신하들을 가리킨다.

⑤ 헛짚기 (가)의 '고자 자'와 (나)의 '문허진 담'은 모두 외세의 침입에 협조하며 국익을 저버리고 사익을 추구하는 마음을 뜻하겠군.

(가)의 여러 목수들은 '고자 자'를 들고 허둥대고 있을 뿐 집을 바로 세우고 있지 못하며, (나)의 '문허진 담'은 위험에 빠진 국가를 가리킨다. (가)의 '고자 자'와 (나)의 '문허진 담'을 외세의 침입에 협조하며 국익을 저버리고 사익을 추구하는 마음을 뜻하는 것으로 볼 근거는 없다.

098 답 ㄱ, ㄷ, ㅁ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ㄱ. ㉠: 직분을 망각하여 화자에 의해 비판을 받고 있는 존재

'제 소임 다 바리고 몸 ᄉᆞ릴 ᄲᅮᆫ이로다'로 볼 때, '바깥 마름'은 직분을 망각하여 화자의 비판을 받고 있는 존재로 볼 수 있다.

ㄷ. ㉢: 잘못된 일을 고치도록 화자가 설득하고 있는 청자

'ᄂᆡ 주인'은 화자의 주인, 즉 임금이다. 화자는 '도로혀 헤여 ᄒᆞ니 마누라 타시로다'라고 하면서 임금의 잘못을 지적하고 '내 말ᄉᆞᆷ 드로쇼셔'라며 임금을 설득하고 있으므로, 'ᄂᆡ 주인'은 화자가 잘못된 일을 고치도록 설득하고 있는 청자라고 할 수 있다.

ㅁ. ㉤: 화자가 공정하고 엄중하게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는 일

화자는 주인이 '상벌'을 밝히라고 충고하고 있으므로, '상벌'은 화자가 공정하고 엄중하게 시행되기를 바라는 일로 볼 수 있다.

오·오·이

ㄴ. 헛짚기 ㉡: 가까운 곳에서 화자에게 불안감을 주는 존재

'불한당 구멍 도적'은 멀지 않은 곳에 다니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이들은 가까운 곳에 있으며 화자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는 세력으로 볼 수 있다.

ㄹ. 헛짚기 ㉣: 화자가 청자에게 당부하는 시급하고 중요한 행위

'새끼 ᄭᅩ기 마르시고 내 말ᄉᆞᆷ 드로쇼셔'로 볼 때, 화자는 '주인(임금)'이 새끼를 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충언을 받아들여 서둘러 실천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므로 '새끼 ᄭᅩ기'를 화자가 청자에게 당부하는 시급하고 중요한 행위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6 가 몽천요 나 명월음

작품 분석 본문 60~63쪽

가 몽천요

작가 윤선도
갈래 연시조
주제 연군과 우국의 정
특징 ① 비유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처지를 우의적으로 드러냄.
② 구체적 공간을 설정하여 화자의 바람과 좌절을 형상화함.
③ 영탄법과 설의법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냄.
④ 대구법과 대조법을 활용하여 화자의 상황을 제시함.

한 줄 의미

❶ 뭇 신선(간신들)을 벗어나 (**강호**)에 사는 것이 분수에 맞음.
❷ 뭇 신선(간신들) 때문에 (**백성**)의 고충에 대해 의논하지 못함.
❸ (**나라**)의 어려운 때를 수습할 방법에 대해 묻지 못하여 안타까워함.

나 명월음

작가 최현
갈래 가사
주제 나라의 위기에 대한 걱정과 임금에 대한 충정
특징 ① 비유적 표현을 통해 시적 상황을 우의적으로 드러냄.
② 대구법을 통해 운율감을 형성함.
③ 설의법을 활용하여 화자의 의도를 강조함.
④ 감정 이입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냄.

한 줄 의미

❶ 구름이 몰려와 (**달**)을 가려 근심함.
❷ 부채와 비를 만들어 (**구름**)을 걷어 내기를 소망함.
❸ 단심을 지켜 (**명월(밝은 달)**)을 다시 볼 수 있는 날을 기다림.

099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가)의 '옥황은 반기시나 뭇 신선이 꺼리는구나', '하늘이 이지러졌을 때 무슨 기술로 ~ 어떤 목수 이루어 냈는고'와 (나)의 '단단 환선으로 긴 바람 부쳐 내어 ~ 일천 장 비를 매어 저 구름 다 쓸과다.' 등에서 대구법을 활용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오·오·이

② 범위 오류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나)의 '매화 한 가지 계영인가 돌아보니, / 처량한 암향이 날 따라 근심한다.'에서는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가)에서는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③ 부재 ~~대화의 형식을 통해 대상과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가)와 (나) 모두 대화의 형식을 활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통해 대상과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부재 ~~인간과 자연의 대비~~를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 인간과 자연을 대비하고 있지 않다. (나)에서는 환란을 맞이한 나라와 임금의 상황을 구름에 가린 달의 모습에 비유하고 있을 뿐이다.

⑤ 부재 ~~명령적 어조~~를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가)와 (나) 모두 명령적 어조를 활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통해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100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부재 (가)와 (나)는 모두 ~~선경후정의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 선경후정의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지 않다. (가)에서는 임금이 계시는 곳을 '천상'에, 여러 간신들을 '뭇 신선'에, 임금을 '옥황'에 비유하고, (나)에서는 환란을 맞이한 나라와 임금의 상황을 구름에 가린 달에 비유하고 있을 뿐이다.

오·오·이

① (가)에서는 영탄적 어조로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가)에서는 '꺼리는구나', '옳도다', '꾸짖는구나', '어즈버', '왔도다' 등에서 영탄적 어조로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② (나)에서는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매화 한 가지 계영인가 돌아보니, / 처량한 암향이 날 따라 근심한다.'에서 화자는 '매화'에 감정을 이입하여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101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가)와 (나)에서는 모두 뜻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는 화자의 안타까움이 표현되어 있다.
(가)의 화자는 '백만억 창생을 어느 사이 물어보리.', '옥황께 여쭤보자 하였더니 다 못하여 왔도다.'에서 뭇 신선(간신들)의 배척으로 옥황(임금) 곁에서 백성과 나라를 위해 고민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나)의 화자는 '부운이 어디서 와 가리었나', '혜나니 허사로다' 등에서 뜻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① 화자 오류 (가)에서는 ~~(나)와 달리 지난날에 대한 화자의 성찰적 태도가 부각되고~~ 있다.

(가)와 (나)의 화자 모두 지난날에 대한 성찰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② 화자 오류 (나)에서는 ~~(가)와 달리 탈속적 삶에 대한 화자의 지향이 부각되고~~ 있다.

(가)의 화자는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고, (나)의 화자는 나라의 위기에 대한 걱정과 임금에 대한 충정을 드러내고 있을 뿐, (가)와 (나)의 화자 모두 탈속적 삶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화자 오류 (가)와 (나)에서는 모두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한 화자의 자부~~심을 엿볼 수 있다.

(가)와 (나)의 화자 모두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④ 범위 오류 ~~(가)~~와 (나)에서는 ~~모두~~ 미래에 대한 기대를 잃지 않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나)의 '명월 볼 날 기다리노라'에서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잃지 않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으나, (가)에는 이러한 태도가 드러나 있지 않다.

102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사양**: 겸손하여 받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함. 또는 남에게 양보함.
- **은거**: 세상을 피하여 숨어서 삶.

정·정·이

④ 헛짚기 ㉣은 작가가 올바른 정치를 실현하려는 대상으로, ~~임금을 떠나는 계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백만억 창생(㉣)'은 화자가 '옥황'에게 묻고자 하는 대상인 현실 속 백성들로서, 작가가 올바른 정치를 실현하려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보기〉의 내용으로 보아 작가는 이들이 아니라 '뭇 신선', 즉 간신들로 인해 임금의 곁을 떠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은 작가가 임금의 부름을 사양한 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뭇 신선(㉠)'은 화자를 꺼리고 꾸짖는 대상이므로, 현실 속에서 작가를 질시하는 세력(간신들)으로 볼 수 있다. 〈보기〉에서는 윤선도가 이처럼 자신을 질시하는 세력들을 의식하여 임금의 부름을 사양했다고 했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② ㉡은 작가가 은거하고 있는 삶의 공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강호(㉡)'를 '내 분수에 옳도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은 작가가 현실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머물고 있는 장소로 볼 수 있다.

③ ㉢은 작가를 필요로 하는 임금이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천상십이루(㉢)'는 '옥황'이 머물고 있는 공간으로 현실 속 임금이 있는 궁궐을 비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⑤ ㉤은 무너진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주체로, 작가 자신을 비롯한 인재를 비유한다고 볼 수 있다.

'목수(㉤)'는 '백옥루'를 '중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인재, 즉 작가를 비롯한 충신들을 비유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103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화자 오류 〈제1수〉의 '내 분수에 옳도다'와 〈제3수〉의 '다 못하여 왔도다'에서 ~~올바른 정치에 대한 화자의 의지가 부각~~되고 있군.

〈제1수〉의 '내 분수에 옳도다'와 〈제3수〉의 '다 못하여 왔도다'에 올바른 정치에 대한 화자의 의지는 드러나 있지 않다. '내 분수에 옳도다'에서는 안분지족(편안한 마음으로 제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을 앎.)을 추구하고 있음을, '다 못하여 왔도다'에서는 뜻을 펼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오·오·이

① 〈제1수〉의 '꿈이런가'와 〈제2수〉의 '꿈을 꾸어'에서 화자가 꿈속에 빗대어 내면을 풀어놓고 있음을 알 수 있군.

'꿈이런가', '꿈을 꾸어'에서 화자는 꿈속에서 천상에 다녀온 상황을 가정하여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하게 된 상황을 우의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② 〈제1수〉의 '옥황은 반기시나'와 〈제2수〉의 '옥황은 웃으시되'는 임금이 화자를 지극하게 불렀다는 점과 연관되는군.

'옥황은 반기시나', '옥황은 웃으시되'는 임금이 화자를 보고 반기고 웃었다는 의미로, 여기에는 화자에 대한 임금의 긍정적 태도가 드러나 있으므로, 임금이 화자를 지극하게 불렀다는 점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③ 〈제1수〉의 '꺼리는구나'와 〈제2수〉의 '꾸짖는구나'에서는 자신을 질시하였던 세력에 대한 화자의 반감이 엿보이는군.

〈제1수〉에서 '꺼리'고 〈제2수〉에서 '꾸짖는' 주체는 '뭇 신선', 즉 간신들이므로 '꺼리는구나'와 '꾸짖는구나'에는 자신을 질시하였던 세력에 대한 화자의 반감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제3수〉의 '기워 냈는고'와 '이루어 냈는고'를 통해서 부정적인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화자의 문제의식을 엿볼 수 있군.

화자는 이지러진 하늘을 무슨 기술로 '기워 냈는고'를 통해서는 나라의 위태로운 상황을 바로잡을 방법이 필요함을 드러내고 있고, 백옥루 중수할 때 어떤 목수 '이루어 냈는고'를 통해서는 백옥루를 중수한 목수와 같이 유능한 신하가 필요함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기워 냈는고', '이루어 냈는고'에는 위태로운 나라의 상황에 대한 화자의 문제의식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104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헛짚기 '제 몸만 밝히'는 '금작경'은 ~~피란길에 오른 임금의 상황을~~ 비유한 것이겠군.

〈보기〉에서 '피란길에 오른 임금을 달에 비유'했다고 하였는데, (나)에서 달('명월')은 화자의 흉중에 '아니 비친 구멍' 없이 밝은 존재이다. 그런데 화자가 벽상에 걸어 둔 '금작경'은 제 몸만 비추고 남을 비출 수 없는 대상이므로, 임금의 상황을 비유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오·이

① '사뢰려'는 '뜻'은 혼탁하고 암담한 시대 현실과 관련된 것이겠군.

화자가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의 '마음에 먹은 뜻'을 '사뢰려' 한 것으로 보아 그 '뜻'은 혼탁하고 암담한 시대 현실과 관련된 것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② '옛 빛'이 '점점 아득하'다는 것은 임금이 처한 상황이 점점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겠군.

달빛이 구름에 가려 옛날의 빛을 잃고 있다는 것은 임금이 처한 상황이 점점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단단 환선'으로 '바람'을 일으키려는 것은 부정적인 현실을 바꾸고 싶은 소망을 드러낸 것이겠군.

화자는 '단단 환선', 즉 부채로 바람을 일으켜 부정적 대상인 '구름'을 걷어 내고자 하고 있으므로, '단단 환선'으로 '바람'을 일으키는 것을 통해 부정적인 현실을 바꾸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자신의 뜻이 '허사'라고 한 것은 신분적 제약으로 인해 자신을 '진토'로 인식한 결과이겠군.

화자는 자신을 미미한 티끌과 흙인 '진토'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신분적 한계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결과로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음을 깨달아 자신의 뜻을 '허사'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감상은 적절하다.

105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달'과 '구름'이라는 상징적 소재를 통해 임진왜란 당시의 혼탁하고 암담한 시대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 ×)

(나)에서는 임금을 '달'에, 환란(임진왜란)을 달을 가리는 '구름'에 비유하여 임진왜란 당시의 혼탁하고 암담한 시대 현실을 표현하고 있다.

(2) 헛짚기 '제 몸만 밝히'는 '금작경'은 ~~단심을 지키려는 화자의 의지를~~ 나타낸다. (○, ×)

'제 몸만 밝히'고 남 비칠 줄 모르는 '금작경'은 자신의 안위만 도모하는 신하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심을 지키려는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지 않는다.

(3) '단단 환선', '바람', '일천 장 비'는 임진왜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소망을 비유하고 있다. (○, ×)

'단단 환선'으로 '바람'을 불게 하여 '구름'을 걷어 내고, '일천 장 비'로 '구름'을 다 쓸어 버리고 싶다는 것에는 임진왜란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과 소망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106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연모**: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사랑하여 간절히 그리워함.
- **우려**: 근심하거나 걱정함. 또는 그 근심과 걱정.

정·정·이

⑤ 화자 오류 '풍운이 변화한들 본색이 어디 가료'에서 ~~연모하는 대상과 화자 사이의 장애가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화자의 우려~~가 느껴지는군.

'풍운이 변화한들 본색이 어디 가료'는 바람과 구름이 변화한들 달은 사라지거나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화자는 이를 통해 연모하는 대상인 임금이 사라지거나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풍운이 변화한들 본색이 어디 가료'에 연모하는 대상과 화자 사이의 장애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오·오·이

① '청광'이 '흉중이 아니 비친 구멍 없다'에서 연모의 대상에 대한 화자의 예찬적 태도를 엿볼 수 있군.

〈보기〉를 참고하면 달은 임금을 상징하므로 '청광'이 '흉중이 아니 비친 구멍 없다'는 것은 임금의 덕을 한껏 느끼고 있는 화자의 내면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광'이 '흉중이 아니 비친 구멍 없다'에는 연모의 대상인 임금에 대한 화자의 예찬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맘 나쁜 부운이 어디서 와 가리었나'에서 연모의 대상과 화자 사이의 장애를 원망하는 정서가 부각되는군.

화자가 연모의 대상인 달(임금)을 가리는 장애인 '부운'을 '맘 나'쁘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맘 나쁜 부운이 어디서 와 가리었나'에는 화자의 원망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처량한 암향이 날 따라 근심한다'에서 연모의 대상에 대한 화자의 마음이 감정 이입의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군.

'처량한 암향이 날 따라 근심한다'에서 화자는 '매화'에 감정을 이입하여 연모의 대상인 임금에 대한 걱정을 표현하고 있다.

④ '일천 장 비를 매어 저 구름 다 쓸과다'에서 연모의 대상과 화자 사이에 놓인 장애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드러나는군.

화자는 자신과 연모의 대상인 달(임금) 사이에 놓인 구름을 '일천 장 비'로 쓸어 버리고 싶다고 하였으므로, 여기에는 화자와 연모의 대상 사이에 놓인 장애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17 가 탄궁가 나 농가

작품 분석 본문 64~67쪽

가 탄궁가

작가 정훈
갈래 가사
주제 가난으로 인한 고통과 체념
특징 ① 일상적 소재를 활용하여 가난한 생활을 사실적으로 묘사함.
② 가난을 '궁귀'로 의인화하여 괴로운 상황을 희화화하여 제시함.
③ 설의법을 통해 한탄의 정서를 강조하여 표현함.

한 줄 의미

❶ (궁핍(가난))한 현실을 한탄함.
❷ 가난으로 인해 (농사)짓기 어려운 현실을 한탄함.
❸ (종들)마저 무시할 정도로 가난한 형편을 한탄함.
❹ 명절과 (제사)조차 제대로 지낼 수 없는 형편을 한탄함.
❺ 가난한 삶을 (체념)하고 받아들임.

나 농가

작가 위백규
갈래 연시조
주제 농사일의 즐거움과 농촌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감
특징 ① 일상적인 어휘와 순우리말을 사용하여 농부의 일상적인 삶을 그림.
② 사대부 신분에서 벗어나 농부의 처지에서 농민의 생활을 노래함.
③ 설의법, 대구법 등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냄.
④ 대상을 의인화하여 친근감을 드러냄.

한 줄 의미

❶ (아침)에 김을 매기 위해 밭으로 나감.
❷ (칠월)에 풍요로운 결실을 봄.
❸ 한가롭고 여유로운 (농촌)에서의 삶에 만족함.

107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특정 계절을 배경으로 제시해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가)에서는 '춘일'이라는 시어를 통해 계절적 배경이 '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봄을 배경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 농기구를 빌리지만 씨앗이 부족하여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화자의 곤궁한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계절의 변화에 조응하는 여러 자연물을 활용~~해 화자의 인식 전환을 보여 주고 있다.

(가)의 화자는 자신의 가난한 처지를 한탄하며 '원수 궁귀'를 떠나보내려 하지만, '궁귀'의 원망을 들은 후 자신의 가난한 삶을 운명으로 수용하고 있으므로 화자의 인식이 전환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계절의 변화에 조응하는 여러 자연물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부재 계절감이 드러난 소재를 대등하게 나열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가)에서는 '기장 피 조 팥'과 같이 곡식을 대등하게 나열하고 있을 뿐, 계절감이 드러난 소재를 대등하게 나열하고 있지는 않다.

③ 부재 특정 계절의 풍속을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라 묘사하고 있다.
(가)에서 '세시 삭망 명절'에 제사를 지내는 풍속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그러한 풍속을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라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

⑤ 부재 계절의 순환을 중심으로 자연의 섭리를 드러내고 있다.
(가)에서는 '춘일'이라는 시어를 통해 계절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을 뿐, 계절의 순환은 드러나 있지 않으며 자연의 섭리도 나타나 있지 않다.

108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범위 오류 (가), (나) 모두 농촌을 배경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묘사하고 있다.
(가)에서는 농촌을 배경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묘사하고 있으나, (나)에서는 농촌을 배경으로 농사일의 즐거움과 농촌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감, 풍요로움 등을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① (가), (나) 모두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가)에서는 '극심할까', '어이 살리', '차려 낼꼬', '어찌하리' 등에서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한탄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나)에서는 '우거졌던고', '곱난가' 등에서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농촌 생활에 대한 화자의 만족감을 강조하고 있다.

③ (가), (나) 모두 대상을 의인화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가)에서는 가난을 '궁귀'로 의인화하여 가난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고, (나)에서는 면화와 벼를 '너희'로 의인화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친근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109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긍지**: 자신의 능력을 믿음으로써 가지는 당당함.
- **귀의**: ① 돌아가거나 돌아와 몸을 의지함. ② 몰아의 경지에서 종교적 절대자나 종교적 진리를 깊이 믿고 의지하는 일.

정·정·이

① 대구의 방식으로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동린에 쟁기 얻고 서사에 호미 얻고', '나라 빚과 이자는 ~ 어찌하여 차려 낼꼬', '시절이 풍년인들 ~ 몸을 어이 가릴고' 등에서 대구법이 쓰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화자의 가난한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② 부재 색채 대비를 통해 화자의 긍지를 나타내고 있다.
색채의 대비는 쓰이지 않았으며, 화자의 긍지가 드러난 부분도 찾아볼 수 없다.

③ 부재 여음과 후렴구를 사용하여 운율감을 자아내고 있다.
여음과 후렴구는 사용되지 않았다.

④ 부재 대립적 공간을 설정하여 이상 세계를 보여 주고 있다.
대립적 공간이 설정되지 않았으며, 이상적 세계 또한 제시되지 않았다.

⑤ 헛짚기 영탄법을 활용하여 절대자에 대한 귀의를 다짐하고 있다.
'돌이켜 생각하니 네 말도 다 옳도다'에서 영탄적 표현이 쓰이기는 하였으나, 이를 통해 절대자에게 귀의를 다짐하고 있지 않다.

110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취약**: 무르고 약함.
- **파종**: 곡식이나 채소 따위를 키우기 위하여 논밭에 씨를 뿌림.

정·정·이

③ 화자 오류 ㉢은 체면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을 제시해 취약한 경제적 기반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내려놓는 향촌 사대부의 죄책감을 드러낸다.
(가)의 화자는 명절에 제사도 올리지 못하고 친척과 손님에게 대접하기도 어려운 가난한 상황에서 '이 얼굴 지녀 있어 어려운 일 하고 많다(㉢)'고 한탄하고 있다. 따라서 ㉢은 사대부로서의 체면을 지키기 어려운 화자의 상황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향촌 공동체에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사대부가 가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어려운 자신의 궁핍한 삶에 대한 고뇌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에서 화자가 사회적 책임을 내려놓거나 죄책

감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오·오·이

① ㉠은 파종할 볍씨를 쥐가 먹어 버린 상황을 제시해 가난한 향촌 사대부의 곤혹스러운 처지를 실감 나게 그려 낸다.

㉠에서 화자는 농사를 짓기 위해 이웃에게 농기구를 빌렸으나 파종할 '올벼 씨 한 말'의 반 이상을 쥐가 먹어 버려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가난한 향촌 사대부의 곤혹스러운 처지를 실감 나게 그려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은 솥과 시루가 녹슨 상황을 제시해 끼니조차 잇지 못하는 생활이 지속되는 향촌 사대부 가정의 궁핍함을 부각한다.

㉡에서 화자는 평소 음식을 해 먹을 형편이 못 되어서 솥과 시루가 녹이 슬어 붉은 빛이 보이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끼니조차 잇지 못하는 생활이 지속되는 향촌 사대부 가정의 궁핍함을 부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은 밭을 맬 때 예정된 차례에 따라야 함을 나타내어 사회적 약속에 대한 존중을 향촌 공동체 발전의 방도로 여기는 관점을 드러낸다.

㉣에서 화자는 누구의 밭이 우거졌든지 밭의 김을 매는 것은 차례를 정한 일이므로 약속된 순서를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밭을 맬 때에도 예정된 차례에 따라야 함을 나타냄으로써 사회적 약속에 대한 존중을 향촌 공동체 발전의 방도로 여기는 관점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은 먹을거리에 부족함이 없이 즐거운 향촌 구성원의 모습을 통해 가난을 벗어난 이상화된 농촌상의 일면을 보여 준다.

㉤에서 화자는 밥과 술을 함께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먹을거리에 부족함이 없는 농촌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먹을거리에 부족함이 없이 즐거운 향촌 구성원들의 모습을 통해 가난을 벗어난 이상화된 농촌상의 일면을 보여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111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은 농사지을 씨앗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화자가 처한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 ×)

㉠에서는 농사지을 씨앗을 반 넘게 쥐가 먹어 버려 농사를 짓기 어렵게 된 화자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 ㉡은 솥과 시루를 방치해 두어 녹이 슬었다는 것으로, 음식을 해 먹을 형편이 아님을 보여 준다. (○, ×)

㉡은 당장 먹고 살 양식도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음식을 해 먹는 것은 꿈도 꾸기 어려운 상황임을 표현한 것이다.

(3) 화자 오류 ㉤은 ~~어려운 처지에서도 밥과 술을 마련하여 대접한다는 것으로, 힘겨운 상황을 낙천적인 태도로 극복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

㉤에서는 흥겹게 밥을 먹고 술을 마시는 모습을 통해 여유로운 농촌에서의 삶과 그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을 뿐, 화자의 어려운 처지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따라서 화자가 힘겨운 상황을 낙천적인 태도로 극복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112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초월적**: 어떠한 한계나 표준, 이해나 자연 따위를 뛰어넘거나 경험과 인식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
- **의례**: 행사를 치르는 일정한 법식. 또는 정하여진 방식에 따라 치르는 행사.
- **예우**: 예의를 지키어 정중하게 대우함.

정·정·이

⑤ 화자 오류 [A]와 [B]에서 화자는 각각 초월적인 존재인 '하늘'과 '하느님'을 ~~예찬하는~~ 어조를 취하고 있다.

[A]의 '하늘 삼긴 이내 궁을 설마한들 어이하리'에서 '하늘'은 초월적 존재로 볼 수는 있으나, 여기에서는 가난을 운명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을 뿐 초월적 존재인 '하늘'에 대한 예찬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B]의 '아마도 하느님 너희 삼길 제 날 위하여 삼기셨다'에서 '하느님'도 초월적 존재로 볼 수는 있으나, 여기에서는 화자를 위해 하느님이 면화와 벼를 만드셨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을 뿐 초월적 존재인 '하느님'에 대한 예찬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오·오·이

① [A]에서 '술에 후량'을 갖춘 화자는 의례를 통해 '궁귀'에 대한 예우를 표하고 있다.

[A]에서 화자는 '궁귀'를 떠나보내기 위해 '술에 후량'을 갖추고 '궁귀'의 이름을 부르며 전송하고자 하고 있는데, 이는 화자가 의례에 따라 '궁귀'를 멀리 떠나보내는 예우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B]에서 화자는 시간의 경과를 의식하며 '세 다래 네 다래' 열린 '면화'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B]에서 화자는 '오뉴월'이 가고 '칠월이 반'이라며 시간의 경과를 의식하고 풍성하게 열린 면화는 하느님이 자신을 위해 만들어 준 것이라며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③ [A]에서 화자는 '이내 궁'과의 관계를, [B]에서 화자는 '너희'와의 관계

를 운명적인 것으로 여기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A]의 '하늘 삼긴 이내 궁을 설마한들 ~ 서러워해 무엇하리'에서 화자가 가난을 자신의 분수라 생각하며 운명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의 '아마도 하느님 너희 삼길 제 날 위하여 삼기셨다'에서 화자가 농사를 짓는 '너희' 즉 '면화', '벼'와 자신의 관계를 운명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A]에서 화자는 '옳도다'라는 응답으로 '네 말'을 수용하는 태도를, [B]에서 화자는 '반이로다'라는 감탄으로 '패는 모'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A]의 '돌이켜 생각하니 네 말도 다 옳도다'에서 화자는 '네 말', 즉 '궁귀'의 말을 옳다고 생각하며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B]에서 화자는 '칠월이 반이로다'라며 '패는 모'를 수확할 수 있는 계절이 오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113 답 ㄱ, ㄴ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ㄱ. [A]에서 화자는 '궁귀'와의 대화를 통해 대상에 대한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A]에서 가난을 한탄하고 원망하던 화자는 '궁귀'와의 대화를 통해 가난을 자신의 운명으로 수용하는 태도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ㄴ. [B]에서 화자는 면화와 익어 가는 곡식을 보며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B]에서 화자는 칠월에 세 다래, 네 다래씩 열매가 맺힌 면화와 익어 가는 벼를 보며 풍요로운 결실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ㄷ. 화자 오류 [B]에서 화자는 계절의 흐름을 인식하며 지나간 시간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B]의 '오뉴월이 언제 가고 칠월이 반이로다'에서 화자는 계절의 흐름을 인식하고 있으나 지나간 계절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ㄹ. 부재 [A]와 [B]에서 화자는 각각 의문형으로 시상을 매듭지어 삶에 대한 반성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A]에서는 '무엇하리'라는 의문형으로 시상을 매듭짓고는 있으나 이를 통해 삶에 대한 반성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B]에서는 '삼기셨다'로 시상을 매듭짓고 있으므로 의문형으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삶에 대한 반성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도 않다.

114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타개**: 매우 어렵거나 막힌 일을 잘 처리하여 해결의 길을 엶.
- **관념적**: 관념(현실에 의하지 않는 추상적이고 공상적인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

정·정·이

⑤ ㉮는 현실 타개의 어려움과 그로 인한 탄식이, ㉯는 의인화된 대상과의 대화가 나타나 있다.

㉮에는 먹고살기 힘든 현실에 대한 탄식이 드러나 있으며, ㉯에는 가난을 의인화한 '궁귀'와의 대화가 나타나 있다.

오·오·이

① 부재 ㉮와 ㉯는 모두 설득적 어조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에서는 농사짓기 어려운 현실에 대한 한탄이 드러날 뿐 설득적 어조가 쓰이지는 않았다. ㉯의 궁귀의 말에는 설득적 어조가 드러나지만, 그 내용이 화자의 의지에 따른 것은 아니다.

② 부재 ㉮와 ㉯는 모두 주장적 소재를 열거하여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에서는 '기장 피 조 팥' 등 일상적인 소재를 열거하고 있으며, ㉯에서는 '궁귀'라는 추상적 소재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열거의 방식이 쓰이고 있지 않다.

③ 화자 오류 ㉮는 과거 상황에 대한 그리움이, ㉯는 현재 상황에 대한 비판이 나타나 있다.

㉮에는 현재 상황에 대한 어려움이, ㉯에는 현재 상황에 대한 수용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④ 헛짚기 ㉮는 관념적인 문제를, ㉯는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제시되어 있다.

㉮에서는 관념적인 문제가 아닌, 가난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과정도 드러나 있지 않다. ㉯에서는 궁귀를 떠나게 하고자 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지만 결국 가난을 받아들이게 되므로 이를 문제 해결의 과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115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화자의 가난한 삶이 ⓐ의 '이다지도 괴로운고'에서는 탄식의 대상이지만 ⓑ의 '서러워해 무엇하리'에 이르러서는 체념적 수용의 대상으로 변모되어 있군.

화자는 ⓐ에서 자신의 가난한 처지에 대해 '이다지도 괴로운고'라고 하며 한탄한다. 그러고는 ⓑ에서 '궁귀'와의 대화를 계기로 '빈천도 내 분이니 서러워해 무엇하리'라고 하며 가난함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체념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오·오·이

① 화자 오류 ⓐ의 '일정 고루 하련마는'에 나타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화자의 신념이 ~~ⓑ의 '하늘 삼긴 이내 궁'에 이르러서 강화되어 있군.~~

ⓐ의 '일정 고루 하련마는'에는 하늘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들었다는 화자의 신념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의 '하늘 삼긴 이내 궁'에는 화자가 자신의 가난함을 하늘이 내린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적 자세가 드러난다. 따라서 ⓑ에서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신념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② 화자 오류 ⓐ의 '어찌 된 인생이'에 나타난 화자의 비관적 인생관이 '싸리피 바랑이'에 이르러서는 ~~낙관적 세계관으로 변화되어 있군.~~

ⓐ의 '이다지도 괴로운고'라는 시구를 고려할 때 '어찌 된 인생이'에는 화자의 비관적 인생관이 드러난다. '싸리피 바랑이'는 화자의 밭에 끊임없이 나는 잡초들로, 농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다. 화자는 '싸리피 바랑이'로 인해 괴로움을 느끼고 있으므로, 낙관적 세계관으로의 변화를 보여 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화자 오류 '부러워하나 어찌하리'에 나타난 ~~화자의 열등감~~이 ⓑ의 '설마한들 어이하리'에 이르러서는 ~~우월감으로 극복되어~~ 있군.

'부러워하나 어찌하리'에서 화자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무지하여 근심 없이 잘만 자라는 '장초'를 부러워하고는 있으나, '장초'보다 자신을 못하거나 무가치한 존재로 낮추어 평가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열등감이 나타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설마한들 어이하리'에는 가난함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겠다는 화자의 체념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따라서 열등감이 우월감으로 극복되어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⑤ 화자 오류 '이 얼굴 지녀 있어'에서는 ~~화자가 자신의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보이나 ⓑ의 '빈천도 내 분이니'에 이르러서는 ~~그 자신감이 약화되어~~ 있군.

'이 얼굴 지녀 있어'에는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 친척과 손님들을 대접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괴로움이 드러나 있고, ⓑ의 '빈천도 내 분이니'에는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게 된 수용적 태도가 드러난다. 따라서 자신감이 약화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8 가 상춘곡 나 고산구곡가

작품 분석 본문 68~71쪽

가 상춘곡

작가 정극인
갈래 가사
주제 봄 경치의 완상과 안빈낙도
특징 ① 의인법, 설의법, 대구법 등의 다양한 표현 방법과 감정 이입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함.
②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로 주제 의식을 부각함.

한 줄 의미

❶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
❷ (봄)의 아름다운 경치
❸ (봄)의 흥취
❹ (산수) 구경 권유
❺ (술)을 마시며 풍류를 즐김.

나 고산구곡가

작가 이이
갈래 연시조
주제 고산 구곡의 아름다움 예찬과 학문의 즐거움
특징 ① 첫 수에 작품을 지은 동기를 제시하고 고산의 구곡에 맞게 아홉 수를 배치하여, 전 10수로 구성함.
② 자연 친화적 태도와 학문 수양에의 의지를 모두 드러냄.
③ 실제 지형에 맞게 장소와 자연 경치를 제시함.
④ 하루의 순환과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⑤ 매 수마다 '~은 어디미오 ~에 ~다' 형태의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형식적 통일성을 유지하고 각 수에 순차성을 부여함.

한 줄 의미

❶ 고산구곡가를 짓게 된 (동기)
❷ 관암(갓바위)에서의 (아침) 풍경
❸ 늦봄 (화암)의 절경
❹ 취병의 (여름) 풍경에 대한 감탄
❺ (은병)에서의 영월음풍
❻ 풍암의 (가을) 경치에 대한 감탄
❼ 문산의 (눈) 덮인 경치

116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회고적**: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하는. 또는 그런 것.

정·정·이

⑤ 자연물을 통하여 시간적 배경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가)에서는 '도화행화', '녹양방초' 등의 자연물을 통해 봄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도 '곳'을 통해 봄을, '녹수'를 통해 여름을, '청상'을 통해 가을을, '눈'을 통해 겨울을 시간적 배경으로 시각화하여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과거를 회상하며 현실의 덧없음을 환기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현실의 덧없음을 환기하는 부분도 드러나 있지 않다.

② 부재 음성 상징어의 사용으로 생동감을 부각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대상의 생동감은 감각적·비유적 묘사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③ 부재 점층적인 표현으로 대상과의 거리감을 강조하고 있다.

(가)와 (나)에서는 점층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대상과의 거리감을 강조하고 있지도 않다.

④ 부재 역사적 인물들을 호명하여 회고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가)에서는 역사적 인물을 호명하고 있지 않다. (나)의 '학주자'에서 역사적 인물인 '주자'를 호명하고 있으나, 이는 학문 수양에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회고적 분위기의 조성과 관련이 없다.

117 답 (1) (나) (2) (가) (3) (가)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범위 오류 자문자답의 형식을 반복하여 작품 전체에 통일감을 주고 있다. (나)는 ((나))

(나)에서는 〈제1수〉를 제외하고 각 수의 초장이 스스로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작품 전체에 형식적 통일감을 주고 있다.

(2) 범위 오류 붉은빛과 푸른빛의 색채 대비를 통해 시각적 이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가)는 ((가))

(가)에서는 '도화행화(복숭아꽃과 살구꽃)', '낙홍'의 붉은빛과 '녹양방초(버드나무와 풀)', '녹수'의 푸른빛을 대비하여 시각적 이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3) 범위 오류 대조적 시어를 통해 이질적 공간을 대비하고 자연 속에서 안빈낙도하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가)는 ((가))

(가)는 '홍진'과 '산림'이라는 대조적 시어를 통해 속세와 자연의 이질적 속성을 드러내고, 자연을 벗하며 그 속에서 사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나)는 〈제3수〉에서 '야외'라는 시어로 속세를 지칭하고 있으나, 이는 아름다운 경치를 알리려는 마음과 관련된다.

118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부재 (가)는 감정 이입을 통해, (나)는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 애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가)의 '수풀에 우는 새'에서 새가 봄의 기운을 못 이겨 운다고 하며 봄의 흥취를 즐기는 화자의 감정을 새에 이입하여 표현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애상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는 않다. (나)에는 객관적 상관물이 나타나 있지 않으며 애상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도 않다.

오·오·이

① (가)는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여 상대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바 니웃드라 산수 구경 가쟈스라'에서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여 이웃들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② (나)는 각 수에서 유사한 시구를 반복함으로써 형식적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다.

〈제1수〉를 제외하고 각 수의 초장에서 '~은 어듸ᄆᆡ오'를 반복함으로써 형식적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다.

④ (가)와 (나)에는 모두 계절의 변화가 드러나 있다.

(가)는 '엇그제 겨을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에서, (나)는 '화암에 춘만커다', '녀름 경이 업ᄉᆡ라', '풍암에 추색 됴타' 등에서 계절의 변화가 드러나 있다.

⑤ (가)와 (나) 모두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가)의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를 못내 계워 소ᄅᆡ마다 교태로다(청각적 이미지)', '청향은 잔에 지고 낙홍은 옷새 진다(후각적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 등에서, (나)의 '녹수에 산조는 하상기음ᄒᆞ는 적의(시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 '청상 엷게 치니 절벽이 금수ㅣ로다(시각적 이미지)' 등에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119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화자 오류 붓으로 그린 듯한 숲속에서 봄의 흥을 노래하는 새를 바라보는 데에서 새에 대한 화자의 부러움이 드러나는군.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를 못내 계워 소ᄅᆡ마다 교태로다'에서 화자가 느끼는 봄의 흥취가 새에게 이입된 것으로 보아, 화자가 새를 부러워한다고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자신의 삶을 옛사람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풍월주인이라 여기는 데에

서 화자의 자부심이 드러나는군.

(가)의 화자는 '녯사름 풍류를 미출가 못 미출가'에서 자신의 삶을 옛사람과 비교하고, '송죽 울울리예 풍월주인 되어셔라'에서 자신을 스스로 풍월주인이라고 여김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삶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③ 오늘과 내일, 아침과 저녁에 할 일들을 나열하는 데에서 하고 싶은 일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이 드러나는군.

'답청으란 오늘 ᄒᆞ고 욕기란 내일 ᄒᆞ새'와 '아츰에 채산ᄒᆞ고 나조히 조수ᄒᆞ새'를 통해 알 수 있다.

④ 맑은 향이 담긴 술잔과 옷에 떨어지는 꽃잎을 주목하는 데에서 자연과 화자의 일체감이 드러나는군.

화자는 '청향은 잔에 지고 낙홍은 옷새 진다'에서 맑은 향이 담긴 술잔과 옷에 떨어지는 꽃잎에 주목함으로써 자신이 느끼는 물아일체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⑤ 시냇물에 떠내려오는 도화를 보며 이상향을 연상하는 데에서 화자의 고조되는 감흥이 드러나는군.

화자는 '청류를 굽어보니 ~ 져 믜이 긘 거인고'에서 떠내려오는 도화를 보며 동양적 이상향인 무릉도원을 연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봄의 경치에 대한 화자의 고조된 감흥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20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가)와 (나)의 화자 모두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연에 은거하고 있는 (가)의 화자는 봄을 맞은 자연의 모습을 감상하며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연(고산 구곡) 안에서 머무르고 있는 (나)의 화자도 자연을 예찬하며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오·이

② 범위 오류 (가)의 화자는 (나)의 화자와 달리 자연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의 화자와 (나)의 화자 모두 자연에 대해 예찬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의 화자는 '칼로 물아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 / 조화신공이 물물마다 헌ᄉᆞ롭다' 등에서 자연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고, (나)의 화자는 각 수에서 고산 구곡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다.

③ 범위 오류 (나)의 화자는 (가)의 화자와 달리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고 있다.

(가)와 (나)의 화자 모두 자연 속에서 살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있다.

121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귀환**: 다른 곳으로 떠나 있던 사람이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오거나 돌아감.
- **괴리**: 서로 어그러져 동떨어짐.

정·정·이

③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즐거움이 드러나 있다.

(가)의 화자는 '산림에 못쳐 이셔 지락을 ᄆᆞᄅᆞᆯ 것가', '풍월주인 되어셔라', '시비예 거러 보고 ~ 호재로다' 등을 통해 자연을 벗하며 한가롭게 지내는 즐거움을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① 화자 오류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나 있다.

(가)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② 화자 오류 ~~고향으로의 귀환에 대한 기대감~~이 드러나 있다.

(가)의 화자가 고향으로의 귀환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다.

④ 화자 오류 ~~인간의 유한한 삶에 대해 한탄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가)의 화자가 인간의 유한한 삶에 대해 한탄하고 있지는 않다.

⑤ 화자 오류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비롯된 회의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가)의 화자는 '무릉이 갓갑도다'에서 현실을 이상 세계처럼 느끼고 있을 뿐,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비롯된 회의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122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합일**: 둘 이상이 합하여 하나가 됨. 또는 그렇게 만듦.
- **연보**: 사람이 한평생 동안 지낸 일을 연월순으로 간략하게 적은 기록.
- **계승**: 조상의 전통이나 문화유산, 업적 따위를 물려받아 이어 나감.

정·정·이

⑤ 헛짚기 자연의 감상에 대한 「송애기」의 기록을 참고할 때, 바위를 덮은 '눈'에서 ~~자연과 합일을 이루려는 인간의 의지를 엿볼 수 있겠군.~~

(나)에서 바위를 덮은 '눈'은 문산의 아름다움을 부각하는 것이지 자연과 합일을 이루려는 인간의 의지를 형상화한 것이 아니다. 〈보기〉의 「송애기」와 관련된 설명에서도 인간의 의지에 대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오·이

① 고산 구곡에서의 생활에 대한 「송애기」의 기록을 참고할 때, 고산 구곡이 작자와 '벗님'들의 교유 장소로도 활용되었음을 추리할 수 있겠군.

〈보기〉에서 이이가 고산 구곡의 곳곳에서 지인들과 교유한 경험을 「송애기」에 소개하고 있다고 한 내용을 통해 추리할 수 있다.

② 작품 창작 이후와 관련한 연보의 기록을 참고할 때, '학주자'를 하려는 작자의 선택에 대한 사람들의 긍정적 반응을 추측할 수 있겠군.
〈보기〉의 '「고산구곡가」의 창작 이후 이곳을 찾는 이들이 더 많아졌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를 통해 추측할 수 있다.

③ 정사에 대한 연보의 기록을 참고할 때, '은병'이 주자를 학문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선택된 공간이기도 했음을 짐작할 수 있겠군.
〈보기〉에서 이이가 주자가 무이 구곡의 은병에서 후학을 양성한 것을 본받아 고산 구곡에 정사를 건립했다고 한 내용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④ 참된 즐거움과 관련한 「송애기」의 기록을 참고할 때, '강학'과 '영월음풍'이 모순 없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행위임을 유추할 수 있겠군.
〈보기〉의 '자연으로부터 마음을 바르게 하는 도리를 찾으면 군자의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그의 생각이 나타나 있다.'에서 마음을 바르게 하는 도리인 '강학'과 자연을 누리는 '영월음풍'이 모순 없이 어울릴 수 있는 행위임을 유추할 수 있다.

123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제1수〉와 〈제6수〉의 '학주자', '강학' 등을 통해 화자가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학문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군. (○, ×)
〈제1수〉와 〈제6수〉의 '학주자'와 '강학'은 학문과 연관된 시어로 화자의 자연 속에서의 삶이 학문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2) 화자 오류 〈제2수〉에는 하루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펼쳐지는 풍광을 ~~자신을 찾아온 '벗'과 함께 감상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군. (○, ×)
〈제2수〉에서 '벗 오는 양'은 관암의 아름다운 아침 경치를 마치 벗이 온 것처럼 보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화자가 자신을 찾아온 '벗'과 함께 풍광을 감상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3) 〈제4수〉에서는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취병'의 여름 경치를 노래함으로써 계절에 따른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해 주는군. (○, ×)
〈제4수〉에서는 산새가 지저귀고 반송에 바람이 부는 여름 경치를 묘사하여 계절에 따른 아름다움을 보여 주고 있다.

124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헛짚기 '야외'는 ~~화자의 마음 안 풍경을 떠올려 주는 실제 풍경~~이겠군.
(나)의 〈제3수〉에서 '벽파에 곳을 씌워 야외로 보ᄂᆡ노라'라고 한 이유는 종장에 제시되고 있다. 화자는 벽파에 꽃을 띄워 '야외'로 보냄으로써 승지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보아 '야외'는 마음 안 풍경을 촉발시켜 주는 실제 풍경이라기보다 승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곳, 즉 속세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원산이 그림이로다'의 '그림'은 마음 안의 풍경을 의미하겠군.
'원산이 그림이로다'는 풍경이 그림처럼 아름답다는 의미로, 이는 실제 풍경으로부터 촉발된 마음 안의 풍경으로 볼 수 있다.

② '녹준'을 놓고 '벗'을 기다리는 화자도 풍경의 일부라고 볼 수 있겠군.
〈보기〉의 작가 자신마저도 풍경의 일부이고자 하였다는 설명에 따르면 적절한 해석이다.

④ '승지'는 작가가 꿈꾸는 이상적인 자연의 모습을 의미하겠군.
'승지'는 '경치가 좋은 곳'을 의미하는 말로, 작가의 주관에 따라 이상화된 자연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⑤ 당대 다른 작품에도 '취병', '녹수', '반송' 등의 시어가 등장할 수 있겠군.
〈보기〉에서 마음 안의 풍경은 당대의 그림이나 다른 문학 작품 등에서 추출되고 재구성된 것이라 하였으므로, 당대 다른 작품에도 (나)에 사용된 '취병', '녹수', '반송'과 같은 시어가 등장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정·오 지름길

④ '승지'는 작가가 꿈꾸는 이상적인 자연의 모습을 의미하겠군.
'승지'를 '이곡'이라는 구체적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만 여겨 이상적인 자연의 모습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의 화자가 '승지'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어 한다는 점, 작품 전반에서 자연이라는 시적 대상에 대해 예찬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미루어 봤을 때 '승지'는 단순히 실제 풍경의 의미를 넘어 작가 주관에 따라 이상적으로 그려진 관념적 풍경으로 볼 수 있어요.

19 가 추풍감별곡 나 월곡답가

작품 분석 본문 72~75쪽

가 추풍감별곡

작가 미상
갈래 가사
주제 임과 헤어진 슬픔과 임에 대한 그리움
특징 ① 고전 소설 「채봉감별곡」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임.
② 계절적 배경과 화자의 정서가 조응함.
③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냄.
④ 대구법, 직유법, 의인법 등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함.

한 줄 의미

❶ 가을밤 임을 그리다 (꿈)을 깨어 쓸쓸함을 느낌.
❷ 임과 재회할 기약이 없어 슬픔을 느끼다 (술)을 마시며 회포를 풀고자 함.

나 월곡답가

작가 정훈
갈래 연시조
주제 월곡에 대한 그리움과 흠모
특징 ① 중국의 고사를 인용하여 화자의 소망을 드러냄.
② 영탄법, 대구법, 설의법 등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함.

한 줄 의미

❶ (옛사람)을 닮은 내 벗(월곡)에 대해 예찬함.
❷ (사념) 없이 초야에 은둔해 사는 내 벗님(월곡)을 흠모함.
❸ 벗님(월곡)이 (사는 땅(곳))을 바라보며 그리워함.
❹ (고인(월곡))과 떨어져 있어 마음으로 흠모함.
❺ 월곡에게 (세상)에 거리를 두고 함께 살아가자고 제안함.

125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흠모**: 기쁜 마음으로 공경하며 사모함.
- **사모**: ①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함. ② 우러러 받들고 마음속 깊이 따름.

정·정·이

① 대상에게 흠모의 정을 느끼는 화자가 부재하는 대상을 그리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의 화자는 흠모하는 임과 이별하여 부재하게 된 임을 그리워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흠모하는 벗을 만날 수 없어 그리워하고 있다.

오·오·이

② 화자 오류 ~~사랑하는 대상에게 외면당한 화자가 자신의 현실에 대해 체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와 (나)에는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외면당한 것으로 볼 만한 근거가 나와 있지 않다. 또한 두 화자 모두 현실을 체념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화자 오류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화자가 세상에 대하여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와 (나) 모두 화자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고, 세상에 대해 화자가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도 않다.

④ 화자 오류 ~~사모하는 대상을 지키지 못한 화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와 (나)의 화자 모두 사모하는 대상을 지키지 못한 후회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⑤ 화자 오류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는 화자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자진을 성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와 (나)의 화자 모두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고 있지 않으며,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성찰하고 있지도 않다.

126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화자 오류 (가)의 화자는 ~~임과의 이별의 원인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 ⊗)
(가)의 화자가 임과 이별한 상황에 처해 있기는 하지만 이별의 원인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있지는 않다.

(2) 화자 오류 (나)의 화자는 ~~대상과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애쓰고~~ 있다. (○, ⊗)
(나)의 화자는 '벗(벗님)'을 흠모하며 예찬하고 있을 뿐, '벗'과 갈등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상과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애쓰고 있다고 볼 수 없다.

(3) 범위 오류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 (○, ⊗)
(가)의 화자는 '삼춘에 즐기던 일 예련가 꿈이련가'에서 임과 함께했던 과거를 회상하고 있으나 (나)의 화자는 과거를 회상하고 있지 않다.

127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촉매**: 어떤 일을 유도하거나 변화시키는 일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연모**: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사랑하여 간절히 그리워함.

정·정·이

③ ㉢은 임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키는 자연물이다.
'추풍(㉢)'이 '별회를 부쳐'낸다는 것으로 보아, '추풍'은 임

과의 이별로 인해 '별회'를 느끼는 화자에게 이별의 정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과 ㉣은 모두 임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한다.

'죽창(㉠)'은 임의 부재로 인해 막막함을 느끼는 화자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여는 것일 뿐, 임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소재가 아니다. '백운(㉣)'은 초야에 은둔해 살고 있는 벗의 삶을 드러내는 자연물일 뿐 벗과 화자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소재는 아니다.

② 헛짚기 ㉡에는 돌아오지 않는 임을 원망하는 화자의 심정이 담겨 있다.

'인정(㉡)'은 임과 화자가 나누었던 사랑을 나타내므로, '인정(㉡)'에 돌아오지 않는 임에 대한 화자의 원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헛짚기 ㉣은 임에 대한 화자의 정서 변화에 촉매 역할을 한다.

'백운(㉣)'은 속세에서 벗어나 은둔하는 삶을 사는 벗의 자연 친화적 삶을 드러내는 소재일 뿐 화자의 정서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다.

⑤ 헛짚기 ㉣과 ㉤은 모두 화자가 연모하는 임과 함께 지내는 공간이다.

'백운(㉣)'은 벗이 머물고 있는 공간인 '초옥 삼간'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물일 뿐 화자와 벗이 함께 지내는 공간이 아니다. '상산(㉤)'은 연모하는 벗과 함께 지내는 공간이 아니라 화자가 벗과 함께 있고자 하는 공간이다.

128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부재 [E]: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대상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E]에서 화자는 이별의 슬픔으로 인해 바람에 잎이 지는 소리, 풀 속에서 짐승이 우는 소리도 슬프게 들린다며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이때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대상을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아해'는 화자가 술을 부으라고 말을 건네는 대상일 뿐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대상이 아니다.

오·오·이

① [A]: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가 느끼는 계절의 변화에 대한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A]에서는 '여름 구름이 흩어지고(시각적 이미지)'와 '찬 기운(촉각적 이미지)' 등의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여름에서 가을로의 계절의 변화에서 쓸쓸함을 느끼고 있는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② [B]: 동일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와 조응하는 시적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B]에서는 '~에 ~을(를) ~ 듯'의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임과 이별한 화자의 슬픈 정서와 조응하는 쓸쓸한 가을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③ [C]: 화자의 정서가 투영된 대상을 의인화하여 화자의 정서를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C]의 '가을 잔나비 슬피 운다'에서는 의인화한 대상인 '가을 잔나비'에 화자의 정서를 투영하여 슬픔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④ [D]: 회상의 방식을 사용하여 과거와 달라진 현재 상황에서 느끼는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D]의 '삼춘에 즐기던 일 예련가 꿈이련가'에서는 회상의 방식을 사용하여 임과 함께하던 과거와 달리 임과 이별한 현재 상황에서 화자가 느끼는 외로움과 슬픔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129 답 (1) 잔나비 (2) 가을 (3) 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가)에서 화자는 '(바람, 잔나비)'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여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128번-③의 해설을 참고할 때,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은 '잔나비'임을 알 수 있다.

(2) 교체 (가)에서 '금성'과 '찬 기운'은 작품의 계절적 배경이 (봄, 여름, 가을, 겨울)임을 드러낸다.

'가을의 느낌을 자아내는 바람 소리'인 '금성'과 여름 구름이 흩어진 강산에 어린 '찬 기운'은 (가)의 계절적 배경이 가을임을 드러내 주고 있다.

(3) 교체 (가)에서 화자는 임과 이별한 슬픔의 회포를 '(수성, 술)'을 통해 풀고자 하고 있다.

(가)의 '아해야 술 부어라 행여나 회포 풀까'를 통해 화자가 임과 이별한 슬픔의 회포를 술을 통해 풀고자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0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화자 오류 ⓐ: 설의적 표현을 통해 대상을 일방적으로 그리워하는 데

대한 화자의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

ⓐ에서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화자는 '넷사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을 뿐, 일방적인 그리움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오.오.이

② ⓑ: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이 은거하고 있는 자연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의 '청송'은 푸른색을 띠고 '백운'은 흰색을 띠는 것이므로, ⓑ에서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벗님'이 은거하고 있는 자연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 공간의 특성을 나열하여 화자가 대상을 만날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에서는 '벗님'이 사는 멀고 아득한 공간의 특성을 나열함으로써 화자가 '벗님'을 만날 수 없음을 제시하고 있다.

④ ⓓ: 대구법을 활용하여 화자와 대상 사이의 물리적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다.

ⓓ에서는 대구법을 통해 첩첩한 산과 잦은 구름으로 인해 '고인'의 집을 볼 수 없다고 표현함으로써 화자와 '고인' 사이의 물리적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다.

⑤ ⓔ: 중국의 고사를 활용하여 대상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에서 화자는 중국 진시황 때의 고사를 활용하여 월곡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131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동질감**: 성질이 서로 비슷해서 익숙하거나 잘 맞는 느낌.
- **경계**: 옳지 않은 일이나 잘못된 일들을 하지 않도록 타일러서 주의하게 함.

정.정.이

④ 헛짚기 〈제7수〉에서 작가는 벗의 '집'을 '믜'와 '구룸'에 묻혀 있는 은거의 공간으로 설정함으로써 '믜'와 '구룸'을 매개로 자신이 추구하는 친자연적 삶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군.

첩첩한 '믜'와 잦은 '구룸'은 작가가 벗을 찾아갈 수 없게 만드는 장애물이므로 '믜'와 '구룸'을 매개로 작가가 추구하는 친자연적 삶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제1수〉에서 작가는 의병장이었던 '월곡'을 '벗'으로 지칭함으로써 '월곡'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자신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군.

〈제1수〉에서 작가는 전란 중에는 충의를 중시하고 전란 후에는 초야에 묻혀 살았던 월곡을 '벗'으로 지칭함으로써 충의의 삶과 친자연적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② 〈제4수〉에서 작가는 '초옥 삼간'에서 '사념'이 없이 살고 있는 벗을 사랑한다고 표현함으로써 벗이 지향하는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

〈제4수〉에서 작가는 자연 속에서 '사념' 없이 살아가는 '벗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함으로써 그가 지향하는 맑고 깨끗한 삶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③ 〈제5수〉에서 작가는 벗이 있는 공간인 '구룸 ᄃᆞ리' 위를 '꿈'에서나마 다녀옴으로써 벗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을 드러내고 있군.

〈제5수〉에서 작가는 현실적으로는 갈 수 없는 '구룸 ᄃᆞ리' 위를 '꿈'속에서나마 다녀온다고 함으로써 '벗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벗님'을 만나고 싶은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⑤ 〈제9수〉에서 작가는 '우리'라는 시어를 통해 벗과의 동질감을 표현하며 '어즈러온 일'에 대한 경계를 나타냄으로써 현실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군.

〈제9수〉에서 작가는 자신과 '벗'을 '우리'라는 시어를 통해 표현함으로써 같은 삶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의 동질감을 드러내고, '어즈러온 일'을 듣지도 보지도 말자고 함으로써 혼탁한 현실에 대한 경계를 드러내고 있다.

132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헛짚기 〈제7수〉에서 작가는 '월곡'과의 공간적 거리감을 통해 자신의 부족한 덕을 드러내고 있다.

〈제7수〉에서 작가는 '믜'와 '구룸' 때문에 '월곡'의 집이 있는 땅을 바라보아도 볼 수 없음을 노래하면서, 마음만 '월곡'의 집을 오락가락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월곡'과의 공간적 거리를 정신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것일 뿐, '월곡'보다 못한 자신의 부족한 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오.이

① 〈제4수〉에서 작가는 마음속에 그릇된 생각이 없이 초야에 은둔했던 '월곡'에 대한 예찬을 드러내고 있다.

〈제4수〉에서 작가는 '청송'으로 울타리를 삼고 '백운'으로 장막을 두른 '초옥 삼간'에 숨어 사는 '월곡'의 마음에 그릇된 생각이 없어 그를 사랑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여기에는 '월곡'에 대한 작가의 예찬적 태도가 드러난다.

③ 〈제9수〉에서 작가는 속세를 멀리하고 정신적 동반자로서 '월곡'과 함께하려는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제9수〉에서 작가는 굳이 다른 사람들과 '상산의 영지 캐러' 갈 이유가 없으니 어지러운 세상일은 신경 쓰지 말고 둘만 같이 가자고 하면서 '월곡'을 정신적 동반자로 삼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133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헛짚기 '은하 작교 끈쳤으니 건너갈 길 아득하다'에서는 ~~화자가 위치한 공간적 배경을 제시하여~~ 화자의 고독감을 강조하고 있군.

'은하 작교'는 칠월 칠석날 저녁에, 견우와 직녀를 만나게 하기 위하여 까마귀와 까치가 은하수에 놓는다는 다리로, '은하 작교'가 끊어졌다는 것은 임과 재회할 기약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화자가 위치한 공간적 배경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

오·오·이

① '금성', '추국', '추풍' 등을 통해 가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제시하여 애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군.

(가)에서는 '가을의 느낌을 자아내는 바람 소리'라는 뜻의 '금성', '가을에 피는 국화'라는 뜻의 '추국', '가을바람'이라는 뜻의 '추풍' 등의 시어를 활용해 가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제시함으로써 애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② '심사도 창연한데 물색도 유감하다' 등에서 한자를 많이 활용한 것은 상류 문화를 지향하는 대중들의 문화적 욕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심사도 창연한데 물색도 유감하다'에서는 '심사', '창연', '물색', '유감' 등 한자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보기〉에 따르면 여기에는 상류 문화를 지향하는 대중들의 문화적 욕구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③ '정원에 부는 바람 이한을 알리는 듯 / 추국에 맺힌 이슬 별루를 머금은 듯'에서는 직유법을 활용하여 슬픔을 반복하여 드러냄으로써 화자의 정서를 강화하고 있군.

'이한을 알리는 듯', '별루를 머금은 듯'에서는 직유법을 통해 슬픔을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화자의 이별의 슬픔을 강화하고 있다.

④ '임 여희고 썩은 간장 하마터면 끈치리라'에서는 화자가 느끼는 이별의 고통을 확인할 수 있군.

임과의 이별로 인한 슬픔 때문에 '간장'이 하마터면 끊어질 뻔했다고 과장하여 표현함으로써 화자가 느낀 이별의 고통과 슬픔을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다.

20 가 속미인곡 나 사노친곡

작품 분석 본문 76~79쪽

가 속미인곡

작가 정철
갈래 가사
주제 이별한 임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연군지정
특징 ① 두 화자의 대화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함.
② 순우리말을 절묘하게 구사함.
③ 임금에 대한 충정을 임을 그리워하는 여인의 심정에 빗대어 표현함.

한 줄 의미

❶ 갑_(백옥경)을 떠난 이유를 물음.
❷ 을_임과 (이별)하게 된 사연
❸ 을_임에 대한 (그리움)
❹ 을_독수공방의 슬픔과 임과의 (재회)에 대한 소망
❺ 을_죽어서라도 (임)을 따르고 싶어 함.
❻ 갑_(위로)의 말을 건넴.

나 사노친곡

작가 이담명
갈래 연시조
주제 유배지에서 느끼는 노모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
특징 ① 자연 현상과 화자의 처지를 대조함.
② 직유법, 설의법, 대구법 등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함.
③ 대상과의 심리적·공간적 거리감을 수치화하여 나타냄.

한 줄 의미

❶ 봄이 온 것을 느끼며 고향에 돌아가 (노모(어머니))를 뵙고 싶어 함.
❷ 늙으신 (어머니)를 걱정하며 돌아갈 기약이 아득한 상황을 슬퍼함.
❸ (소식)을 전하지 못한 채 어머니를 그리워함.
❹ (부모님)을 모실 시간이 흐르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근심함.
❺ (유배) 중에도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머니를 걱정함.
❻ (임금)의 자애로움을 기대함.

134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A]와 [B]는 모두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A]의 '반기시는 ᄂᆞᆺ비치 녜와 엇디 다ᄅᆞ신고', '하ᄂᆞᆯ히라 원망ᄒᆞ며 사ᄅᆞᆷ이라 허믈ᄒᆞ랴'와 [B]의 '편지를 뉘 전ᄒᆞ리', '꿈인들 이룰손가' 등에서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오·오·이

① 범위 오류 [A]와 달리 [B]는 직유법을 사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A]의 '내 몸의 지은 죄 뫼ᄀᆞ티 빠혀시니'에서는 직유법을 사용하여 임과 이별한 이유가 화자 자신에게 있음을 드러내고 있고, [B]의 '나도 이 봄 오고 이 플 프르기ᄀᆞ티'에서

는 직유법을 사용하여 봄이 돌아와 다시 또 푸르러지는 풀처럼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② 범위 오류 [B]와 달리 [A]는 대구법을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A]의 '누어 싱각ᄒᆞ고 니러 안자 혜여 ᄒᆞ니', '하ᄂᆞᆯ히라 원망ᄒᆞ며 사ᄅᆞᆷ이라 허믈ᄒᆞ랴'와 [B]의 '봄은 오고 ᄯᅩ 오고 플은 플으고 ᄯᅩ 플으ᄂᆡ', '친년은 칠십오ㅣ오 영로는 수천 리오' 등에서 대구법을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④ 부재 [A]와 [B]는 모두 ~~의성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생동감을 드러내고~~ 있다.
[A]와 [B]에서는 모두 의성어를 활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통해 대상의 생동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부재 [A]와 [B]는 모두 ~~의인법을 활용하여~~ 대상을 친근하게 드러내고 있다.
[A]와 [B]에서는 모두 의인법을 활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통해 대상을 친근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135 답 ㄱ, ㄷ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ㄱ. [A]에서는 두 명의 화자가 말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뎨 가는 뎌 각시 ~ 눌을 보라 가시는고.'와 '어와 네여이고 내 ᄉᆞ셜 드러 보오.'를 통해 두 명의 화자가 대화하는 형식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ㄷ. [A]와 [B]의 화자는 대상과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상을 그리워하고 있다.
[A]의 화자는 이별한 '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고, [B]의 화자는 고향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늙으신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ㄴ. 부재 [B]에서는 ~~반어적 표현을 통해~~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B]에서는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어머니와 떨어져 있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영로는 수천 리오 ~ 아득ᄒᆞ다', '기력이 아니 ᄂᆞ니 ~ 전ᄒᆞ리' 등에서 드러나고 있다.

136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가)는 (나)와 달리 자연물에 의탁하여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가)에서는 화자가 '낙월' 등을 통해 임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고자 하므로, 자연물에 의탁하여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에서는 화자가 〈제11수〉에서 임금을 '하ᄂᆞᆯ', '일월'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을 뿐, 이를 통해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오·오·이

② 교체 (나)는 (가)와 달리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면서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나)의 화자가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기는 하지만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 (가)의 화자는 '날 보시고 네로다 녀기실ᄉᆡ'와 '반기시는 ᄂᆞᆺ비치 네와 엇디 다ᄅᆞ신고.'에서 임이 자신을 사랑해 주었던 과거와 자신에 대한 태도가 변한 현재를 대비하면서 임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③ 화자 오류 (나)는 (가)와 달리 경치를 묘사한 후 ~~자연 속에 머무는 즐거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봄은 오고 ᄯᅩ 오고 플은 플으고 ᄯᅩ 플으ᄂᆡ'에서 경치를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나)의 화자는 자연 속에 머무는 즐거운 심정이 아니라 유배지에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④ 부재 (가)와 (나)는 모두 ~~자문자답의 형식~~을 통해 극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
(가)에서는 자문자답의 형식이 아니라 두 명의 화자가 대화하는 형식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나)에서도 자문자답의 형식은 활용되지 않았다.

⑤ 헛짚기 (가)와 (나)는 모두 공간의 이동을 통해 ~~화자의 정서가 변화하는 양상~~을 표현하고 있다.
(가)에서는 '믈ᄀᆞ', '모쳠 ᄎᆞᆫ 자리'로의 공간 이동이, (나)에서는 '동산'으로의 공간 이동이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가)와 (나)의 화자 모두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을 뿐, 정서가 변화하고 있지는 않다.

137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군신**: 임금과 신하를 아울러 이르는 말.
- **유배지**: 귀양살이하는 곳. = 귀양지.

정·정·이

④ 헛짚기 (가)는 '셜워 플텨 헤'는 모습에서 ~~임금에 대한 서운함~~을, (나)

는 '구름'이 험한 모습에서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울분을 드러내고 있군.

(가)의 '셜워 플텨 헤니 조믈의 타시로다.'에서 화자는 임과의 이별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셜워 플텨 헤'는 모습에서 임금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의 '태행이 어드메오 구룸이 머흐레라'에서 화자는 구름이 험한 모습을 보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때 '구룸'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로 본다고 하더라도 '구룸'이 험한 모습이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해 화자가 울분을 드러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오·이

① (가)는 임금을 떠난 작가의 처지를 '님'을 잃은 여인의 모습으로 설정함으로써 군신 관계를 우의적으로 형상화하여 드러내고 있군.

(가)는 임금을 떠난 작가의 처지를 임과 이별하고 천상 백옥경을 떠나온 여인의 모습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군신 관계를 우의적으로 형상화하여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나)는 '노모'와의 거리감을 '영로는 수천 리'로 나타내어 작가가 유배지에서 느끼는 가족과의 이별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군.

(나)에서는 유배를 온 작가와 고향에 계신 어머니와의 거리감을 '영로는 수천 리'라고 표현함으로써 작가가 유배지에서 느끼는 가족과의 이별로 인한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③ (가)는 '내 몸의 지은 죄'를 생각하며 자신의 잘못을 탓하는 모습을, (나)는 '유찬이 박벌'이라며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군.

(가)의 '내 몸의 지은 죄 뫼ᄀᆞ티 싸혀시니'에는 자신의 죄를 탓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고, (나)의 '내 죄를 아옵거니 유찬이 박벌이라'에는 유배가 오히려 가벼운 처벌이라며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⑤ (가)는 죽어서 '낙월'이 되고 싶어 하는 모습을 통해 임금에 대한 연모를, (나)는 '성은'을 생각하는 모습을 통해 임금에 대한 감사를 드러내고 있군.

(가)에서는 죽어서 '낙월'이 되어서라도 임의 곁에 머물고 싶어 하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임금에 대한 연모를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에서는 '성은(임금의 거룩한 은혜)'을 갚을 길이 없다며 탄식하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8 답 (1) × (2)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화자 오류 (가)는 임을 원망하는 여인의 마음에 빗대어 임금에 대한 연모를 표현하고 있다. (○, ⊗)

(가)는 임을 원망하는 여인의 마음이 아니라 그리워하는 여인의 마음에 빗대어 임금에 대한 연모를 표현하고 있다.

(2) (나)는 유배로 인해 효를 실현할 수 없는 작가의 처지를 반영해 노모에 대한 그리움과 염려를 표현하고 있다. (⊙, ×)

(나)의 '영로는 수천 리오', '유찬이 박벌이라' 등에서 화자가 유배로 인해 효를 실현할 수 없는 처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눈믈계워 셜웨라', '애일 촌심' 등의 표현을 통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염려를 드러내고 있다.

139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화자 오류 〈제1수〉의 '봄은 오고 또 오'는 것에서 〈제2수〉의 '도라갈 기약'이 실현될 것이라는 화자의 확신이 드러나는군.

〈제1수〉의 '봄은 오고 또 오'는 것은 계절의 순환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화자는 순환하는 자연 현상과 달리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고 있다. 〈제2수〉에서도 화자는 '도라갈 기약'이 아득하다고 하였으므로, '도라갈 기약'이 실현될 것이라는 화자의 확신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없다.

오·오·이

② 〈제2수〉의 '중야'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흘리는 '눈믈'을 통해 화자의 시름이 드러나는군.

〈제2수〉에서 화자는 갈수록 늙어 가는 어머니를 걱정하며 돌아갈 기약이 아득한 상황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으므로 '눈믈'에 화자의 시름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제2수〉의 '친년은 칠십오'라는 것을 떠올리는 모습과 〈제7수〉의 '갈ᄉᆞ록 애일 촌심'을 느끼는 모습에서 화자의 근심이 드러나는군.

화자가 〈제2수〉에서 '친년은 칠십오'라는 것을 떠올리는 것은 갈수록 늙어 가는 어머니를 생각하는 모습이고, 〈제7수〉에서 '갈ᄉᆞ록 애일 촌심'을 느끼는 것은 부모님을 모실 시간이 흐르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모습이므로 여기에는 화자의 근심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제6수〉의 '매일' '노친 얼굴'을 떠올리는 모습과 〈제7수〉의 '동산을 올라' '고국'을 바라보는 행위에는 화자의 간절함이 드러나는군.

화자는 〈제6수〉에서는 '매일' '노친 얼굴'이 눈에 아른거린다며 그리워하고 있고, 〈제7수〉에서는 '동산을 올라' '고

국'을 바라보며 그리워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고국'에 계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화자의 간절함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제11수〉의 '모자지정을 솔피실'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화자의 기대감이 드러나는군.

〈제11수〉에서 화자는 하늘이 높지만 낮은 데를 들르시듯 임금의 은혜가 낮은 곳까지 드리워지기에 우리 모자지정을 살피실 때가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140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화자 오류 (가)의 화자는 사공은 없고 '빈 ㅂ'만 걸려 있다며 ~~사공을 원망하고 있어. 이는 사공이 임과 자신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거야.

임의 소식을 듣기 위해 물가에 간 화자는 임에 대한 소식은 듣지 못하고 사공도 없는 '빈 ㅂ'만 발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화자는 사공을 원망하고 있지 않으며, 사공이 임과 자신의 사이를 가로막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도 않다. 여기에서 화자는 임과 떨어져 홀로 남겨진 것으로부터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뿐이다.

오·오·이

① (가)의 화자는 '믈ㄱ'를 헤매다 안타까워하고 있어. 이는 그리운 임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일 거야.

(가)의 화자는 임의 소식을 듣기 위해 '믈ㄱ'에 가지만, 사공도 없이 빈 배만 걸려 있는 것을 보고 강가에 홀로 서서 임의 소식을 듣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③ (가)의 화자는 '오ㄹ며 ㄴ리며 헤쓰며 바니'며 임의 소식을 듣고자 헤매고 있어. 이는 임의 소식을 알고자 하는 화자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행동으로 볼 수 있을 거야.

(가)의 화자는 임의 소식을 듣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낮 동안 '오ㄹ며 ㄴ리며 헤쓰며 바니'고 있다.

④ (가)의 화자는 '풋잠'에서 깨어난 것을 아쉬워하고 있어. 이는 '꿈'속에서는 임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일 거야.

(가)의 화자는 임을 그리다 '풋잠'이 잠깐 든 사이에 꿈에서 임을 만나지만 닭 울음소리에 잠이 깨어 안타까워하고 있다.

⑤ (가)의 화자는 '낙월'이 되어 '창 안'을 비추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어. 이는 임에 대한 간절한 사랑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을 거야.

차라리 죽어 '낙월'이 되어 임의 창 안을 비추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는, 멀리서라도 임을 바라보고자 하는 임에 대한 화자의 간절한 사랑을 드러낸다.

141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화자가 처한 현실 상황을 깨닫게 하는 소재이다.

(가)의 화자는 '계성(ⓐ)'으로 인해 잠에서 깨어 임이 부재하는 상황을 다시 깨닫고 있다. (나)의 화자는 '기럭이(ⓑ)'가 날지 않아 편지를 전할 수 없다고 하며 유배지에서 고향에 소식을 전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있다. 따라서 ⓐ와 ⓑ는 화자가 처한 현실 상황을 깨닫게 하는 소재로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화자의 ~~소망을 실현시켜 주는 소재~~이다.

(가)의 화자는 ⓐ로 인해 임을 만날 수 있는 꿈에서 깨어나게 되므로 ⓐ는 화자의 소망을 실현시켜 주는 소재로 볼 수 없다. ⓑ는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 소식을 전할 수 있지만, 날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화자의 소망을 실현시켜 주는 소재로 볼 수 없다.

② 헛짚기 화자의 ~~감정이 이입되어 있는 소재~~이다.

ⓐ와 ⓑ에 화자의 감정이 이입되어 있지 않다.

③ 헛짚기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향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와 ⓑ는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향과 관련이 없다.

④ 헛짚기 ~~자연에 대한 화자의 경외감을 보여 주는 소재~~이다.

화자는 ⓐ와 ⓑ에 대해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142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교체 '낙월'은 임에 대한 적극적 사랑을, '구즌비'는 임에 대한 소극적 사랑을 의미한다.

'낙월'은 임을 멀리서 바라본다는 점에서 소극적 사랑을, '구즌비'는 임 가까이 다가간다는 점에서 적극적 사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ㅂ람', '믈결', '계성'은 화자와 임 사이를 막는 장애 요소이다.

'ㅂ람'과 '믈결'은 화자가 임에게 가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계성'은 임과 만날 수 있는 꿈을 깨운다는 점에서 화자와 임 사이를 막는 장애 요소로 볼 수 있다.

② '반벽 청등'은 임 없이 홀로 있는 화자의 외로움을 불러일으키는 소재이다.

'반벽 청등'은 임 없이 독수공방하고 있는 화자의 외로움을 불러일으키는 객관적 상관물로 볼 수 있다.

143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과 ㉡은 모두 화자가 현실적 한계를 경험하는 공간이다.

(가)의 화자는 임의 소식을 듣기 위해 '믈ᄀ(㉠)'로 가지만 바람과 물결 등으로 인해 임의 소식을 듣지 못한다. (나)의 화자는 유배지에서 어머니가 계시는 고향을 보고자 '동산(㉡)'에 올라가지만 고향이 너무 멀고 구름이 험하고 사나워 보지 못한다. 이로 보아 '믈ᄀ'와 '동산'은 모두 화자가 현실적 한계를 경험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과 ㉡은 모두 ~~과거에 대한 성찰이 드러나는 공간~~이다.

'믈ᄀ(㉠)'와 '동산(㉡)'에서 화자가 과거에 대해 성찰하고 있지는 않다.

③ 범위 오류 ㉠은 ~~시련에 맞서는 공간~~이고, ㉡은 희망을 상실한 공간이다.

'믈ᄀ(㉠)'에서 (가)의 화자는 시련에 맞서고 있지 않다. 반면 (나)의 화자는 유배지에서 어머니가 계시는 고향을 보고자 '동산(㉡)'에 올라가지만 고향이 너무 멀고 구름이 험하고 사나워 보지 못했으므로 '동산(㉡)'을 희망을 상실한 공간으로 볼 수 있다.

④ 범위 오류 ㉠은 화자가 존재하는 공간이고, ㉡은 ~~화자가 바라보는 공간~~이다.

'믈ᄀ(㉠)'와 '동산(㉡)'은 모두 화자가 존재하는 공간이다.

⑤ 범위 오류 ㉠은 화자의 기대가 반영된 공간이고, ㉡은 ~~화자의 심리와 대조되는 공간~~이다.

'믈ᄀ(㉠)'와 '동산(㉡)'은 모두 화자가 그리운 대상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찾아간 곳이므로 화자의 기대가 반영된 공간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동산(㉡)'을 화자의 심리와 대조되는 공간으로 볼 수 없다.

21 가 규원가 나 재 위에 우뚝 선 ~

작품 분석 본문 80~83쪽

가 규원가

작가 허난설헌

갈래 가사

주제 남편의 사랑을 잃은 여인의 원망과 봉건 제도하에서 겪는 규방 부인의 한

특징 ① 여인의 애절한 심정을 대구법, 설의법, 비유법, 고사의 활용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유려하게 표현함.
② 감정 이입과 객관적 상관물을 활용하여 화자의 심정을 표현함.

한 줄 의미

❶ 아름다웠던 과거를 회상하며 (**늙음**)을 한탄함.
❷ 남편에 대한 (**원망**)과 서글픈 심정을 토로함.
❸ (**거문고**)를 타며 외로움과 한을 달램.
❹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며 (**임**)을 원망함.

나 재 위에 우뚝 선 ~

작가 미상

갈래 사설시조

주제 임과의 이별로 인한 슬픔과 임에 대한 그리움

특징 ① 일상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슬픔을 해학적으로 표현함.
② 대구법을 활용하여 운율을 형성함.
③ 의태어를 통해 대상의 유사성을 드러냄.

한 줄 의미

❶ 바람 불 때마다 흔들리는 (**소나무**)와 개울에 흔들리며 서 있는 (**버들**)
❷ (**임**)에 대한 그리움으로 후루룩 비쭉 슬퍼하는 입과 코

144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부재 [A], [B]는 ~~계절적 배경을 알려 주는 시어를 활용하여 시간에 따라 화자의 처지가 달라졌음~~을 드러내었다.

[A]의 '봄바람 가을물'은 세월이 빠르게 흘러감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표현일 뿐,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A]의 '설빈 화안 어디 두고 면목가증 되거고나'는 아름다운 얼굴이 밉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A]에서는 시간에 따라 화자의 처지가 달라졌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B]에서는 '겨울밤', '여름날'을 통해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고 있으나, 달라진 화자의 처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오·오·이

① [A]는 여성의 생활에 밀접한 소재를 활용하여 흘러가는 세월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A]에서 '베오리'와 '북'은 베틀과 관련된 소재로 여성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데, 화자는 이를 통해 빠르게 흘러

가는 세월에 대한 인식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② [B]는 단어를 반복하는 구절을 행마다 사용하여 화자가 주목하는 각 계절의 특성을 강조하였다.

[B]의 '차고 찬 제', '길고 길 제'에서는 각각 '차다'와 '길다'라는 단어를 반복하여 화자가 주목하는 겨울과 여름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③ [C]는 두 대상을 발음이 비슷한 의태어로 표현하여 움직이는 모습의 유사성을 드러내었다.

[C]에서는 '흔덕흔덕'과 '흔들흔들'이라는 발음이 비슷한 의태어를 통해 소나무와 버들이 흔들리는 모습의 유사성을 드러내고 있다.

⑤ [B], [C]는 대구를 활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였다.

[B]에서는 '~ 제 ~고'와 같은 통사 구조가 짝 지어 반복되고, [C]에서는 '~에 ~ 흔덕흔덕(흔들흔들)'과 같은 통사 구조가 짝 지어 반복됨으로써 리듬감이 형성되고 있다.

145 답 ㄱ, ㄴ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ㄱ. [A]에서는 화자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대비하여 드러내고 있다.

[A]에서는 '설빈 화안'과 '면목가증'을 통해 화자의 아름다웠던 과거의 모습과 미운 현재의 모습을 대비하여 드러내고 있다.

ㄴ. [B]에서는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키는 자연물을 제시하고 있다.

[B]에서는 화자의 외로움과 쓸쓸함을 심화시키는 자연물인 '자최눈'과 '궂은비'를 제시하고 있다.

오·오·이

ㄷ. 상반 [C]에서는 ~~대조적인~~ 유사한 시어를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C]에서 '흔덕흔덕' 하는 '소나무'와 '흔들흔들' 하는 '버들'은 유사성을 지닌 대상이므로 대조되는 시어로 볼 수 없다.

146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화자 오류 대구법을 사용하여 ~~운명에 맞서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겨울밤 차고 찬 제 자최눈 섯거 치고 / 여름날 길고 길 제 궂은비는 무슨 일고', '소상 야우의 댓소리 섯도는 듯 / 화표 천년의 별학이 우니는 듯' 등에서 대구법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가)에 운명에 맞서려는 화자의 의지는 드러나 있지 않다.

오·오·이

① 과거를 회상하며 현재의 처지에 대해 탄식하고 있다.

'소년 행락 생각하니 일러도 속절없다', '부생모육 신고하여 ~ 백 년 기약하였더니'에서 과거에 대한 회상이 나타나며, '설빈 화안 어디 두고 면목가증 되거고나'를 통해 아름다웠던 과거의 모습이 사라지고 미운 모습이 된 현재의 처지에 대해 탄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음보를 규칙적으로 사용하여 음악적 효과를 얻고 있다.

(가)는 '엊그제∨젊었더니∨하마 어이∨다 늙거니'와 같이 4음보를 규칙적으로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③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슬픔을 심화하고 있다.

화자는 '새소리 더욱 설다'에서 '새소리'에 자신의 서러운 감정을 이입함으로써 슬픔을 심화하여 드러내고 있다.

④ 영탄적 어조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면목가증 되거고나', '간장이 구곡되어 굽이굽이 끊쳤어라' 등과 같이 영탄적 어조를 사용하여 탄식과 슬픔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147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망각**: 어떤 사실을 잊어버림.
- **단정**: 딱 잘라서 판단하고 결정함.
- **필연성**: 사물의 관련이나 일의 결과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요소나 성질.

정·정·이

② ㉡은 현실에서는 화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선택한 방법이다.

'부용장 적막하니'를 통해 현재 임이 부재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화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차라리 잠을 들어 꿈에나 보려' 하고 있으므로, 화자는 임을 만날 수 없는 현실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꿈'이라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은 ~~흐릿한 기억 때문에 혼란스러운 화자의 심정~~을 나타낸다.

화자는 '장안 유협 경박자'와 부부가 된 것을 '꿈같이 만나 있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경박한 사람과 인연이 맺어진 것이 마치 꿈처럼 믿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은 흐릿한 기억 때문에 혼란스러운 화자의 심정

과는 관련이 없다.

③ 헛짚기 ㉠은 임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에서, ㉡은 임과의 이별에 대한 망각에서 비롯된다.

화자가 임을 '경박자'라고 표현하고, 뒤이어 마음 쓰기가 살얼음 디디는 듯하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이 임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은 부재하는 임을 만나기 위해 화자가 시도하는 것이므로, 임과의 이별을 망각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범위 오류 ㉠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회상하고, ㉡은 곧 일어날 일에 대해 단정하고 있다.

㉠은 화자가 과거에 임을 만났을 때를 회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은 화자가 꿈을 통해 임을 만나려 하고 있음을 드러낼 뿐, 곧 일어날 일에 대해 단정하고 있지는 않다.

⑤ 헛짚기 ㉠은 인연의 우연성에 대한, ㉡은 재회의 필연성에 대한 화자의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화자는 '삼생의 원업', '월하의 연분'에 의해 정해진 대로 임과 부부가 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에 인연의 우연성에 대한 우려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에는 꿈에서라도 임을 만나고 싶어 하는 화자의 심정이 담겨 있으므로, ㉡에 임과의 재회의 필연성에 대한 화자의 우려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없다.

148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야유원'은 임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는 공간, '부용장'은 임의 부재를 느끼는 공간이다.

'야유원'은 한량들이 노는 기생집을 뜻하는 시어로, '새 사람이 나단 말가'에서 알 수 있듯이 남편이 새 기생에게 빠져 그곳에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고 화자가 추측하는 공간이다. '부용장'은 연꽃을 그리거나 수놓은 휘장으로, 이것을 쳐 놓은 방이 '적막하'다는 표현을 통해 화자가 텅 빈 방에서 임의 부재를 느끼고 있음을 드러낸다.

오·오·이

① 헛짚기 '야유원'은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 '부용장'은 화자가 벗어나고자 하는 공간이다.

화자가 '야유원'을 지향하거나 '부용장'을 벗어나려 하는 태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② 범위 오류 '야유원'은 임이 화자를 기다리는 공간, '부용장'은 화자가 임을 기다리는 공간이다.

'야유원'은 임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공간일 뿐 그곳에서 임이 화자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다. 반면 '부용장'은 화자가 임을 기다리고 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149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와 ⓑ의 원인은 모두 사랑하는 임의 부재에 있다.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임의 부재로 인한 그리움과 슬픔으로 인해 '눈물(ⓐ, ⓑ)'을 흘리고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와 ⓑ는 모두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다.

(가)와 (나)의 화자는 임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눈물(ⓐ, ⓑ)'을 흘린 것이지,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눈물을 흘린 것은 아니다.

③ 헛짚기 ⓐ와 ⓑ에는 모두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담겨 있다.

(가)와 (나)의 화자가 현실을 비판하며 '눈물(ⓐ, ⓑ)'을 흘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상반 ⓑ와 달리 ⓐ를 흘리는 주체는 화자가 아니다.

(가)에서 '눈물(ⓐ)'을 흘리는 주체는 화자이다.

⑤ 교체 ⓐ와 달리 ⓑ는 화자의 불안감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가)의 화자는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며 '눈물(ⓐ)'을 흘리고 있으므로 이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나)의 '눈물ⓑ)'은 불안감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볼 근거가 없다.

150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교감**: 서로 접촉하여 따라 움직이는 느낌.
- **몰입**: 깊이 파고들거나 빠짐.

정·정·이

② 화자 오류 (가)에서 '부용장 적막하니 뉘 귀에 들리소니'는 화자가 외부와의 교감을 거부하고 내면에 몰입하는 모습을 드러내는군.

(가)의 '부용장 적막하니 뉘 귀에 들리소니'는 화자가 외부와의 교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독수공방의 처지에 있는 화자가 자신이 연주하는 '벽련화 한 곡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고 외로움을 토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가)에서 '실솔이 상에 울 제'는 화자가 자신의 슬픔을 주변으로 확장한 것을 보여 주는군.

'실솔이 상에 울 제'는 귀뚜라미가 침상에서 운다는 의미로, 화자는 임의 부재로 인해 느끼는 외로움과 슬픔을 '실솔'에 이입하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실솔이 상에 울 제'는 화자가 자신의 슬픔을 주변으로 확장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③ (나)에서 화자는 '소나무'가 '바람 불 적마다 흔덕'거리는 모습에서 자신과의 동질성을 발견한 것이겠군.

(나)에서 '소나무'는 '바람 불 적마다 흔덕'거리고 있는데, 이 모습은 임이 그리워서 우는 화자가 '입과 코'를 '후루룩 비쭉'거리는 모습과 유사하다. 따라서 이는 화자가 외부 대상의 모습에서 자신과의 동질성을 발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가)의 '삼춘 화류'는, (나)의 '버들'과 달리 화자의 내면과 대비되어 외부와의 단절감을 강조하는군.

(가)의 '삼춘 화류 호시절의 경물이 시름없다'는 임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으로 봄날의 좋은 시절에 아름다운 경치를 보아도 아무 생각이 없다는 의미로, 여기에서 '삼춘 화류'는 화자의 외롭고 쓸쓸한 내면과 대비되는 풍경이다. 〈보기〉에 따르면 이는 화자가 외부와 단절된 채 자신의 쓸쓸한 내면에 몰입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나)에서 개울에 흔들리며 서 있는 '버들'은 임이 그리워 우는 화자의 모습과 동질성을 가진 외부 대상으로 볼 수 있다.

⑤ (나)의 '후루룩 비쭉' 하는 '입하고 코'는, (가)의 '긴 한숨 지는 눈물'과 달리 화자가 자신의 우스운 외양에 주목하여 슬픔과 거리를 두는 것을 보여 주는군.

(나)의 '후루룩 비쭉' 하는 '입하고 코'는 이별의 슬픔으로 인해 눈물 흘리며 훌쩍거리는 화자의 입과 코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보기〉에 따르면 이는 화자가 슬픔을 분출하는 자신의 우스운 외양에 주목하여 슬픔과 거리를 두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가)의 '긴 한숨 지는 눈물'은 임의 부재로 홀로 지내는 화자가 외로움과 슬픔을 드러낸 것으로, 〈보기〉에 따르면 화자가 슬픔을 확장하고 펼쳐 낸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51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헛짚기 '천상의 견우직녀'는 임과 영원히 만날 수 없는 화자의 처지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화자의 슬픔을 대변~~하고 있군.

'천상의 견우직녀'는 '칠월 칠석 일 년 일도 실기치' 않고 만나는 이들로, 임의 소식마저 끊긴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천상의 견우직녀'가 화자의 슬픔을 대변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서러운 말'에는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화자의 운명과 처지에 대한 한이 담겨 있겠군.

'서러운 말'은 남편으로부터 버림받고 독수공방하며 겪는 외로움과 서러움에 대한 한탄을 암시하는 표현이다.

② '스스로 참괴하니'를 통해 화자는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 대해 자신을 책망하고 있군.

'스스로 참괴하니'는 아름다웠던 과거의 모습은 사라지고 '면목가증'이 된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부끄러워한다는 뜻으로, 이를 통해 화자가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나 같은 이 또 있을까'를 통해 화자는 홀로 지내는 자신의 외로움을 강조하고 있군.

'나 같은 이 또 있을까'는 '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의미로, 설의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외로움을 강조하고 있다.

⑤ '아마도 이 임의 탓으로 살동말동 하여라'에는 남편을 원망하는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 있군.

화자는 자신이 '살동말동' 한 것이 '임의 탓'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남편을 원망하는 정서를 드러낸 것이다.

152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범위 오류 Ⓐ와 ~~〈보기〉 모두~~ 청각적 심상을 통해 임과 이별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의 '풀 속에 우는 짐승', '새소리 더욱 설다'에서는 청각적 심상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지만, 〈보기〉에는 청각적 심상이 나타나 있지 않다.

오·오·이

① Ⓐ와 〈보기〉 모두 화자는 꿈을 통해서라도 임과 만나기를 바라고 있다.

Ⓐ의 화자는 '차라리 잠을 들어 꿈에나 보려 하니'에서, 〈보기〉의 화자는 '꿈에나 님을 보려 턱 받치고 기댔으니'에서 꿈에서라도 임을 만나기를 바라고 있다.

② Ⓐ와 〈보기〉 모두 화자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임을 탓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의 화자는 '임의 탓으로 살동말동 하여라'에서 자신이 처

한 상황에 대한 책임을 임에게 돌리고 있고, 〈보기〉의 화자는 '어와 내 병이야 이 님의 탓이로다'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책임을 임에게 돌리고 있다.

④ 〈보기〉의 화자는 Ⓐ의 화자보다 임과 함께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의 화자는 임 가신 데를 바라보며 서러워하고 있지만, 〈보기〉의 화자는 죽어서 '범나비'가 되어서라도 임을 따르겠다며 임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의 화자보다 적극적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보기〉의 화자와 달리 Ⓐ의 화자는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의 화자는 '죽림 푸른 곳에 새소리 더욱 설다'에서 '새'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여 서러운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보기〉에는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자신의 심정을 표현한 부분이 나타나 있지 않다.

22 가 만언사 나 만언사답

작품 분석 본문 84~87쪽

가 만언사

작가 안조원
갈래 가사
주제 고생스러운 유배 생활에 대한 탄식과 죄의 뉘우침
특징 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내용을 애절하게 읊음.
② 유배지에서의 고통을 사실적으로 그림.
③ 대구법, 반복법, 설의법, 영탄법 등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함.

한 줄 의미

❶ 유배지에서의 비참한 생활을 (**한탄**)함.
❷ 추수하는 (**농부**)를 보며 자신의 과거 잘못을 뉘우침.
❸ 등짐을 지고 (**동냥**)을 하며 고생스럽게 지냄.
❹ 짚신 삼기, 자리노 꼬기 등을 하며 (**슬픔**)을 달램.
❺ 가을날 (**외기러기**) 울음소리를 듣고 임(임금)을 그리워함.

나 만언사답

작가 안조원
갈래 가사
주제 귀양살이로 실의에 빠진 손님에 대한 위로
특징 ① 「만언사」에 대한 화답 형식으로 지어진 작품임.
②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함.
③ 대구법, 설의법 등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전달함.

한 줄 의미

• 유배 생활의 고통이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위로**)를 전함.

153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부재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가)에 과거의 일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지도 않다.

오·오·이

① 대구의 방법을 사용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아마도 꿈이로다 ~ 등짐도 꿈이로다', '뒤에서 당기는 듯 앞에서 밀치는 듯', '네 웃음도 듣기 싫고 많은 밥도 먹기 싫다' 등에서 대구법을 활용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② 영탄적 표현을 통해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평생에 처음이요 다시 못할 일이로다 / 차라리 굶을지언정 이 노릇은 못하리라'에서 화자는 영탄적 표현을 통해 동냥을 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에 따른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③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계절감을 표현하고 있다.

'오동이 엽락하고(시각적 이미지)', '금풍이 소슬하니(촉각

적 이미지)', '만산 초목이 잎잎이 추성이라(청각적 이미지)' 등에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가을이라는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다.

⑤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가 처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동냥도 한번이지 빌긴들 매양일까', '종이노도 못 꼬거든 짚신 날을 어찌 꼬리' 등에서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가 처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154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대구법을 활용하여 화자의 인식을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다.
(가)의 '이 몸이 살았는가 ~ 모양은 귀신일다', '아마도 꿈이로다 ~ 등짐도 꿈이로다' 등에서는 대구법을 활용하여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유배지 생활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하늘에도 변화 있어 ~ 밀물과 썰물이 있사오니'에서도 대구법을 활용하여 자연이 변화하는 것처럼 인간사도 늘 좋을 수만은 없다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② 범위 오류 (가)는 대화 형식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반감을 나타내고 있다.
(가)의 '양반도 하릴없다 ~ 저녁밥은 많이 먹소'는 주인이 한 말이다. 이에 대해 화자가 '네 웃음도 듣기 싫고 ~ 먹기 싫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가)는 대화 형식을 통해 대상에 대한 반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나)에는 화자가 대상(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대화 형식이 쓰였으나, 대상을 위로해 줄 뿐 반감이 나타나지 않는다.

③ 부재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화자의 생활을 실감 나게 제시하고~~ 있다.
(가)와 (나)에서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또한 화자의 생활이 실감 나게 제시된 것은 (가)뿐이다.

155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화자 오류 한자어의 빈번한 사용을 통해 ~~화자의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존비귀천', '진퇴', '한서 온냉' 등에서 한자어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화자의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화자는 청자에게 유배 생활의 고통이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위로를 전하고 있을 뿐이다.

오·오·이

①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화자가 '이보소 손님내야 설운 말씀 ~ 나의 말씀 들어보소'라고 하며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것으로 보아 적절함을 알 수 있다.

③ 비슷한 시구를 짝 지어 제시함으로써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하늘에도 변화 있어 ~ 밀물과 썰물이 있사오니', '손님 팔자 ~ 고생 계속할까' 등에서 비슷한 시구를 짝 지어 제시하는 대구법을 활용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④ 열거법을 활용하여 귀양살이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춘하추동 사시절에 한서 온냉 돌아가니'에서는 계절의 변화를 열거하며 계절이 변화하는 것처럼 귀양살이의 고통도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⑤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
'손님 팔자 좋다 한들 ~ 고생한들 저런 고생 계속할까'에서는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유배 생활의 고통이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화자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156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특정 대상을 떠올리는 매개물의 기능을 한다.
'외기러기 슬피 울 제 ~ 임 생각이 새로워라'로 볼 때, 화자가 '외기러기(㉠)'를 통해 '임'을 떠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외기러기'는 '임'이라는 특정한 대상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물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화자에게 ~~심리적 위안을 주는~~ 기능을 한다.
'외기러기'로 인해 임 생각이 떠올라 임을 그리워하고 있으므로 심리적 위안을 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헛짚기 화자의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는~~ 기능을 한다.
'외기러기'로 인해 임 생각이 떠올랐다고 하였는데, 이때 화자가 임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을 부정적 인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 '외기러기'가 임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촉구하고 있으므로 완화하는 기능을 한다고도 볼 수 없다.

④ 헛짚기 ~~외부 대상과의 단절을 유발하는~~ 기능을 한다.
'외기러기'가 외부와 화자를 단절하는 기능을 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헛짚기 ~~삶의 지향점을 집약적으로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

'외기러기'는 임을 떠올리게 하고 있을 뿐, '외기러기'가 삶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157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헛짚기 ㉠과 ㉡ 모두 ~~화자에게 임의 소식을 전해 주는 대상~~이다.

'외기러기(㉠)'는 화자로 하여금 임을 떠올리게 하는 대상일 뿐 화자에게 임의 소식을 전해 주고 있지 않다. '학(㉡)'도 임금에게 가고 싶은 화자의 소망이 담겨 있는 대상일 뿐 화자에게 임의 소식을 전해 주고 있지 않다.

오·오·이

① ㉠은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다.

'외기러기(㉠)'가 슬피 운다고 한 데서 화자의 감정이 이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과 ㉢ 모두 임에게 가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는 대상이다.

화자는 '학(㉡)'이 되어 임에게 날아가 보고 싶고, '달(㉢)'이 되어 임을 비추어 보고 싶다고 하고 있으므로 ㉡과 ㉢은 모두 임에게 가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58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회유**: 어루만지고 잘 달래어 시키는 말을 듣도록 함.
- **설움**: 서럽게 느껴지는 마음. ≒ 서러움.

정·정·이

④ 화자 오류 ⓓ: 부귀를 몸에 붙여 두는 일의 ~~어리석음을 비판하며 청자를 회유~~하고 있다.

ⓓ에서 부귀를 풀칠해 몸에 붙여 둘 수 없다는 것은 부귀를 늘 누릴 수는 없다는 의미인데, 화자는 이러한 말을 통해 자연이 변화하는 것처럼 인간사도 늘 좋을 수만은 없음을 이야기하며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청자('손님')를 위로하고 있다. 따라서 ⓓ를 통해 부귀를 누리는 일의 어리석음을 비판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청자를 회유하고 있다고도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 자신이 처한 비참한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화자의 심정이 드러나 있다.

ⓐ에서 화자는 동냥을 하는 것도, 등짐을 지는 것도 꿈이길 바라고 있는데, 이를 통해 화자가 자신이 처한 비참한 현실을 거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 자신의 슬픔과 설움을 노 꼬는 일로 달래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에서 화자는 노 꼬기를 하며 유배 생활로 인한 슬픔과 원망의 마음을 달래려 하고 있다.

③ ⓒ: 청자의 처지가 바뀔 수 있음을 주장하기 위해 자연의 변화를 예로 들고 있다.

ⓒ에서 화자는 청자('손님')를 위로하기 위해, 하늘에서 때로는 일식이 일어나고 때로는 월식이 일어나는 것처럼 유배 온 청자의 처지도 바뀔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⑤ ⓔ: 고통스러운 유배 생활에서 벗어나 다시 서울로 올라간 사례가 있음을 언급하며 청자를 위로하고 있다.

ⓔ에서 화자는 신분이 높은 귀공자도 섬에서 고생스러운 유배 생활을 했으나 임금의 은혜를 입어 유배 생활을 끝내고 복귀했다며 청자를 위로하고 있다.

159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헛짚기 (가)에서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일하는 모습은 ~~(나)의 '변화'를 겪은 화자가 삶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가)에서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일하는 모습은 (나)의 '변화'를 겪은 화자의 삶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화자의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을 부각하여 제시한 것이다.

오·오·이

① (가)에서 '동냥'을 해야 하는 화자의 처지는 (나)의 '설운 말씀'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군.

(가)의 '동냥'은 유배 생활을 하는 화자의 서러운 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나)에서 '손님'의 '설운 말씀'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② (가)에서 '짚신 날'을 꼬는 행위는 (나)의 '고생'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가)의 '종이노도 못 꼬거든 짚신 날을 어찌 꼬리'라는 표현을 통해 '짚신 날'을 꼬는 일은 화자가 처음 해 보는 고생스러운 일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짚신 날'을 꼬는 행위는 유배지에서 겪는 고생을 가리키는 (나)의 '고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가)에서 '임금'을 보고 싶은 마음은 (나)의 '천은'을 통해 해소될 수 있

다고 볼 수 있겠군.

(가)의 화자는 '임금'을 보고 싶어 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나)의 '천은'이라는 임금의 은혜를 입어 현실에 복귀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⑤ (가)에서 '학'이 되어 날아가고자 함은 (나)의 '손님'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고 볼 수 있겠군.

(가)에서 '학'은 임금에게 가고 싶은 화자의 마음을 드러낸 소재로, (가)의 화자이자 (나)의 청자인 '손님'의 소망이라고 볼 수 있다.

정·오 지름길

•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에서 알 수 있듯이 (나)는 (가) 「만언사」의 화자를 청자로 설정하고 있어요. 이 점에 주의하지 않으면 선지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나)의 '손님' 부분에 '(가)의 화자'라는 표시를 해 두고 (나)를 읽는 것이 좋아요. 그렇게 하면 (가)와 (나)의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160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반감**: 반대하거나 반항하는 감정.
- **훈계**: 타일러서 잘못이 없도록 주의를 줌. 또는 그런 말.
- **외면**: 마주치기를 꺼리어 피하거나 얼굴을 돌림.
- **촉구**: 급하게 재촉하여 요구함.
- **현학적**: 학식이 있음을 자랑하는.
- **질책**: 꾸짖어 나무람.

정·정·이

② '양반'은 청자의 태도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고, '나'는 청자를 위로하고 있다.

[A]의 '양반'은 '코웃음에 비웃음'을 보이는 '주인', 즉 청자의 행위에 대해 '네 웃음도 듣기 싫고 많은 밥도 먹기 싫다'라고 하며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나'는 고생스러운 지금의 유배 생활을 참고 견디면 '천은'을 입어 올라갈 날이 있을 것이라며 청자인 '손님'을 위로하고 있다.

오·오·이

① 화자 오류 '양반'은 청자를 훈계하고 있고, '나'는 청자의 힘겨운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

[A]의 '양반'은 청자인 '주인'에게 반감을 드러낼 뿐, 훈계하고 있지는 않다. (나)의 '나'도 청자인 '손님'의 힘겨운 상황을 이해하며 위로하고 있으므로 청자의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범위 오류 '양반'과 '나' 모두 미래의 상황을 언급하며 청자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나)의 '나'는 '설운 말씀' 그만하라고 한 뒤 '번화하다 고생한들 저런 고생 계속할까'라며 미래에는 청자인 '손님'의 고생이 끝날 수 있을 것이라고 위로하고 있으므로, 참고 견딜 것을 촉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A]의 '양반'은 미래의 상황을 언급하거나 행동을 촉구하고 있지 않다.

④ 범위 오류 '양반'과 '나' 모두 청자에게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나)의 '나'는 청자인 '손님'에게 참고 견디면 고생이 끝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으므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A]의 '양반'은 청자인 '주인'에게 상황을 해소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⑤ 화자 오류 '양반'과 '나' 모두 현학적 표현을 사용하여 청자의 언행에 대해 질책하고 있다.

[A]의 '양반'과 (나)의 '나'는 모두 현학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질책하고 있지 않다.

161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본성**: 사람이 본디부터 가진 성질.
- **전략**: 정치, 경제 따위의 사회적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책략.

정·정·이

⑤ 헛짚기 공명에 대한 욕심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잘거가 유배에서 풀려나면 벼슬길에 다시는 나아가지 않겠군.

화자는 '공명을 탐치 말고 농사에 힘쓸 것을'이라고 하며 공명을 탐했던 것을 뉘우치고 있으므로 공명에 대한 화자의 욕심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유배지에서 풀려날 목적으로 임금에게 자신의 목소리가 전달되기를 기대하며' 유배 가사를 지었다는 〈보기〉의 내용을 고려하면, 이러한 표현은 용서를 받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즉 이는 다시 임금의 곁에 가면 죄를 짓지 않고 충성을 다하겠다는 것이지,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오·이

① 자신을 '벌나비'에 빗댄 것은 자신의 죄를 유혹에 약한 인간 본성의 탓으로 돌리려는 것이 아니었을까?

벌, 나비가 꽃을 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유는 화자 자신이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유혹을 당해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었음을 보여 주기 위해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죄에 대한 벌을 충분히 받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 유배지에서의 고난을 과장했을 가능성이 있겠군.

(가)는 유배지에서의 고통스러운 삶을 세밀하고 과장되게 묘사하고 있다. 이는 화자 자신이 죗값을 충분히 치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의도라고 볼 수 있다.

③ 자신을 '미친 사람'이라고 인식한 것은, 유배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화자는 유배지에서의 비참한 생활을 언급하며 자신이 살아 있는지 죽은 귀신인지 모르겠다고 하고 있는데, 화자가 한숨을 쉬다 눈물짓고 다시 웃으며 스스로를 '미친 사람'이라고 한 것은 그만큼 유배 생활이 힘들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④ '그물에 걸렸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작가가 죄를 지으려는 의지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겠군.

화자는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을 누군가가 쳐 놓은 그물에 벌, 나비가 걸린 것에 비유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유를 통해 자신은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려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23 가 유원십이곡 나 조용(嘲慵)

작품 분석 본문 88~91쪽

가 유원십이곡

작가 안서우

갈래 연시조

주제 자연 속에서의 삶을 추구하는 마음

특징 ① 자연에서의 삶에 만족하면서도 속세에 대한 미련을 드러내기도 함.
② 속세와 자연을 대조하면서 자연을 지향하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냄.
③ 대구법, 대유법, 대조법, 설의법 등을 활용하여 표현의 효과를 높임.
④ 고사를 활용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나타냄.

한 줄 의미

❶ 현실을 체념하며 (**성대농포**)가 되고자 함.
❷ 아무 근심 없이 (**자연**)을 즐김.
❸ 자연에서 얻는 (**즐거움**)에 만족함.
❹ (**자연**)을 택하는 것이 옳음을 깨달음.
❺ (**속세**)에 대한 미련을 느낌.
❻ 자연을 누리는 (**흥겨움**)

나 조용(嘲慵)

작가 성현

갈래 고전 수필

주제 게으름이 가져다주는 유익함

특징 ① '나'와 게으름의 귀신이 대화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함.
② 역설적 발상을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냄.
③ 열거법, 대구법, 대조법, 설의법 등을 활용하여 '나'와 게으름의 귀신의 관점을 드러냄.

한 줄 요약

❶ '나'가 (**게으름**)의 귀신이 든 것 같아 무당을 불러 귀신에게 말함.
❷ '나'가 게으름의 폐단을 언급하며 게으름의 귀신에게 (**낙토**)로 떠나라고 함.
❸ 게으름의 귀신이 게으름의 (**긍정적**) 측면을 언급하며 '나'의 요구를 반박함.
❹ (**'나'**)가 게으름의 귀신과 함께 살기로 함.

162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대조적 소재를 통해 삶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가)에서는 속세를 나타내는 '홍진', '인간', '풍진 붕우' 등과 한가로운 자연을 나타내는 소재인 '백운', '녹수청산', '물외', '강호 구로', '연하' 등이 대조됨으로써 자연 속에서의 삶을 지향하는 화자의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나)에서도 '근면'과 '게으름'이 대조됨으로써 세속적 가치를 좇는 근면을 부정하고, 세속적 가치를 멀리하는 게으름을 긍정하는 화자의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오·오·이

② 부재 ~~명령적 어조를 통해 세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진술하고 있다.

(가)에서는 명령적 어조가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나)에서

는 "너는 어서 나를 떠나 저 낙토로 가거라."에서 명령적 어조가 나타나지만, 이는 게으름을 피운 글쓴이가 자신의 허물을 게으름의 귀신 탓으로 돌리면서 게으름의 귀신이 떠날 것을 요구한 말일 뿐, 세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드러낸 말이 아니다.

③ 부재 공간의 이동을 통해 주어진 삶에 순응해야 함을 드러내고 있다.
(가)의 화자는 현실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 뒤 성대농포가 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이후 자연에 묻혀 살며 삶에 만족감을 드러내므로, 주어진 삶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으나, (가)에 공간의 이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나)는 '나'가 게으름의 귀신과 함께 살기로 한 데에서 주어진 삶에 순응해야 함을 드러낸다고도 볼 수 있으나, (나) 역시 공간의 이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부재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하여 자연에서 얻은 깨달음을 진술하고 있다.
(가)는 독백적 어조로 자연 속에서 안분지족하는 삶에 대해 노래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하고 있지 않다. (나)는 '나'와 게으름의 귀신과의 대화를 통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나'가 이를 통해 자연에서 얻은 깨달음을 진술하고 있지는 않다.

⑤ 부재 계절의 변화를 통해 과거와 대비되는 현재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가)의 화자가 〈제8장〉의 종장에서 전에 그르다고 생각했던 자연이 지금에서야 옳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 부분에서 과거와 대비되는 현재 상황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한편 (나)에는 계절의 변화나, 과거와 대비되는 현재의 상황이 드러나 있지 않다.

163 답 (1) (가), (나) (2) (가) (3) (나)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대구법을 활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가), (나))
(가)는 〈제1장〉, 〈제6장〉, 〈제8장〉, 〈제11장〉의 초장과 중장에서 유사한 형식의 시구를 짝 지어 제시함으로써 의미를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는 귀신의 말 "굳센 쇠는 부서지고 ~ 우뚝한 것은 꺾이기 쉽습니다.", "굳은 돌은 고요함으로 ~ 영원한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은 쉽게 요절하고 고요한 것은 장수합니다.", "유지를 버리고 ~ 무생을 즐기면" 등에서 대구법을 활용하여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범위 오류 음보율을 통해 정형적 운율미를 형성하고 있다. ((가))
(가)는 연시조로서 4음보를 규칙적으로 반복하여 정형적 운율미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산문인 고전 수필로, 정형적 운율미는 드러나지 않는다.

(3) 범위 오류 대화의 방식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나))
162번-④의 해설을 참고할 때, 대화의 방식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개하는 것은 (나)뿐임을 알 수 있다.

164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의 화자는 현재의 삶이 옳음을 '세도론가'로 밝히고, ㉡의 '나'는 반성의 태도를 '고칠 터이니'로 드러내고 있다.
㉠은 화자가 자신의 과거 생활은 그르고, 자연에서 은거하는 현재 생활이 옳음을 깨달았다는 뜻이고, ㉡은 '나'가 게으름의 귀신이 반박하는 말을 듣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 자신의 잘못을 고치겠다는 반성의 태도를 드러낸 것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오·오·이

① 화자 오류 ㉠의 화자는 '공맹을 보호'가 위해 '성대농포'의 길을 가야 함을, ㉡의 '나'는 '굳센 쇠'와 같은 변치 않는 삶을 다짐하고 있다.
(가)의 〈제1장〉에서 공자와 맹자를 배운다는 것은 성인의 도를 익히는 것으로, 하늘로 오르는 것과 같아 미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까닭에 종장에서 화자는 학문을 하는 대신 '성대농포'가 되어 태평성대에 농사를 짓겠다고 한 것이므로 적절한 진술이 아니다. (나)에서 '굳센 쇠'는 부서지는 것으로 게으름의 귀신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속성이므로, 게으름의 귀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나'가 굳센 쇠처럼 변치 않는 삶을 다짐한다고 볼 수 없다.

② 범위 오류 ㉠의 화자는 도연명과 태부의 선택을 비판하고, ㉡의 '나'는 '태초와 하나가' 되게 하는 상대의 제안을 수용하고 있다.
(가)의 화자는 〈제9장〉에서 도연명과 태부가 벼슬을 버리고 떠난 고사를 언급하며 그 호연한 태도를 부러워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선택을 비판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반면, (나)의 '나'는 '그대와 함께 살기를 바란다'며 게으름의 귀신이 제시한 제안을 수용하고 있다.

③ 범위 오류 ㉠의 화자는 '녹수청산'에서의 삶을 즐거워하고, ㉡의 '나'는 '깨끗한 것'을 '길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가)의 〈제3장〉에서 화자는 '녹수청산'에서 시름없이 늙어가면서 '무한지락'을 느끼고 있으므로 이곳에서의 삶을 즐

거워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나)의 '나'는 게으름의 귀신이 한 말에 수긍하고 ㉡에서 자신의 잘못을 고치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때 게으름의 귀신이 "깨끗한 것은 더러워지기 쉽"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나'가 '깨끗한 것'을 '길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화자 오류 ㉠의 화자는 '풍우 다'한 현실을 ~~긍정하고~~, ㉡의 ~~'나'는 '시비의 소리'에 흔들렸던 과거를 후회~~하고 있다.

(가)의 화자는 〈제11장〉의 초장에서 '풍우'와 같은 고난과 역경 등이 많은 인간 세계에 머물지 않겠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화자가 '풍우 다'한 현실을 긍정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나)에서 게으름의 귀신이 한 말에 따르면 화자는 게으름 덕분에 현재 물러나 앉아 있어서, '시비의 소리'가 전혀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나'가 '시비의 소리'에 흔들렸다고 볼 수 없으며, 과거를 후회한다고도 볼 수 없다.

165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교체 화자가 '물외에 벗'과 '위우'하고자 하는 이유는 ~~'유정코 무심'~~('무심코 유정')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물외에 벗'은 '백운', '강호 구로'와 같은 자연물로, 화자는 속세와 절교하고 자연을 벗으로 삼고자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제8장〉에서 알 수 있듯이, 속세에 있는 인간의 벗('풍진 붕우')은 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관심이 없는 반면, 자연의 벗('강호 구로')은 무심한 듯 보이지만 정이 있기 때문이다.

오·오·이

① 화자가 '절교'하고자 하는 대상은 '인간의 벗'으로 볼 수 있다.

② 화자는 '붕우'를 '절교'하고자 하는 대상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제3장〉에서 화자는 속세인 '홍진'을 절교한다고 하였고, 〈제6장〉에서 인간 세상에 벗이 있으나 알기를 싫어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화자가 절교하고자 하는 대상이 '인간의 벗'(①)이자, '풍진 붕우'(②)임을 알 수 있다.

③ 화자는 '백운'과의 '위우'를 통해 '무한지락'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3장〉에서 화자는 '백운'과 '위우'하여 자연 속에서 시름없이 늙어 가며 '무한지락'을 느끼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화자가 '위우'하고자 하는 '구로'는 '물외에 연하 족'한 곳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구로'는 강호에 존재하는 대상으로 '물외에 벗'에 해당한다. 이때 '물외에 연하 족'한 곳은 자연을 의미하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166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화자는 속세와의 관계를 끊고 자연을 벗으로 삼고자 하고 있다. (○, ×)

〈제3장〉의 '홍진에 절교ᄒᆞ고 백운으로 위우ᄒᆞ야'를 통해 화자가 속세와의 관계를 끊고 자연을 벗으로 삼고자 함을 알 수 있다.

(2) 교체 화자는 속세에 연연하지 않는 태도를 지닌 ~~'구로'~~(도연명, 태부)를 부러워하고 있다. (○, ×)

속세에 연연하지 않는 '호연 행색'을 지닌 대상은 〈제9장〉에서 언급된 도연명과 태부 소광으로, 화자는 이들에게 부러움을 느끼고 있다. 한편 '구로'는 무심한 듯하지만 정이 있는 자연물로, 화자가 벗으로 삼고 싶어 할 뿐, '구로'를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다.

(3) 화자는 속세의 벗은 무심한 존재이고, 자연의 벗은 정이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다. (○, ×)

〈제8장〉에서 화자는 속세의 벗인 '풍진 붕우'는 정이 있는 듯하지만 무심하고, 자연의 벗인 '강호 구로'는 무심한 듯하지만, 정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167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전가**: 잘못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씌움.

정·정·이

⑤ 교체 ㉮에는 상대의 생각을 바꾸려는 ~~'나'~~(게으름의 귀신)의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

㉮는 게으름의 귀신이 한 말이므로, 게으름을 멀리하려는 '나'의 생각을 바꾸려는 게으름의 귀신의 의도가 내재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오·오·이

① ㉮에는 현실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 화자의 체념이 담겨 있다.

㉮의 '이내 몸 쓸ᄃᆡ업ᄉᆞ니'는 맥락상 '문장'과 '공맹'을 배워 세상에 나아가 쓰이고자 한 뜻을 이루지 못한 화자가 스스로를 쓸데없다고 평가한 표현으로, 체념의 정서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에는 자연을 친근히 여기는 화자의 인식이 부각되고 있다.

㉯에서는 '강호 구로'가 무심한 듯하지만 정이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자연을 친근히 여기는 화자의 인식이 부

각된다고 할 수 있다.

③ ㉰에는 자연에서의 삶을 선택함으로써 느끼는 흥취를 표출하고 있다.
〈제11장〉의 초장과 중장에서 화자는 속세에 '풍우(고난과 역경)'가 많으니 머무를 이유가 없고, 자연에 '연하(안개와 노을)'가 풍족하니 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에서 자연에서의 삶을 선택한 후, 속세를 벗어나 자연을 누리는 흥취를 표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에서 '나'는 자신의 잘못을 다른 이에게 전가하고 있다.
㉱에서는 게으름에 따른 '나'의 허물을 게으름의 귀신 탓으로 돌리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168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동기**: 어떤 일이나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계기.

정·정·이

④ 헛짚기 〈제9장〉의 중장에는 ~~속세에 미련을 갖게 하는 가치를 언급함으로써~~ 화자의 갈등이 드러난다.
〈제9장〉의 초장에 언급된 인물 도연명과 태부 소광은 속세에 미련을 버린 인물들로, 화자는 중장에서 이 둘의 모습이 자신이 지향하는 바임을 표현하고 있다. 이를 알고도 그만둘 때를 알지 못한다는 종장의 내용은 속세에 미련이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화자의 갈등을 드러낼 뿐, 속세에 미련을 갖게 하는 가치를 언급한 것은 아니다.

오·오·이

① 〈제1장〉의 초장에는 화자가 강호를 선택하게 되는 동기가 드러난다.
〈제1장〉의 초장은 글자를 알게 되면서부터 근심이 시작된다는 내용으로, 이러한 근심은 화자가 강호를 선택하는 동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② 〈제3장〉의 중장에는 강호를 선택한 삶의 모습이 긍정적으로 드러난다.
〈제3장〉의 중장에 자연에서 아무 걱정 없이 늙어 간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강호를 선택한 삶의 모습이 긍정적으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③ 〈제6장〉의 종장에는 화자 자신이 분수에 맞는 선택을 했음이 드러난다.
〈제6장〉의 종장은 '싫거나 즐겁거나 내 분수인가 하노라.'라는 의미로, 화자가 자연을 택한 것이 자신의 분수에 맞는 것이었음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제9장〉의 종장에는 갈등하는 화자의 모습이, 〈제11장〉의 종장에는 자신의 선택에 만족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제9장〉의 종장에서 화자는 속세에 연연하지 않았던 도연명과 태부 소광의 태도를 긍정하면서도 속세의 가치를 추구하는 마음을 그만두어야 할 때를 알지 못한다며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제11장〉의 종장에서는 이제 자연으로 가려고 정하니 흥겹다고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선택에 만족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169 답 (1) 부지지 (2) 물외 (3) 체념, 탈속적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탈속적**: 부나 명예와 같은 현실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난. 또는 그런 것.

정·정·이

(1) 교체 강호에 머문 뒤에도 화자가 강호와 속세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음을 '(작비금시, 부지지)'라는 표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68번-⑤의 해설을 참고할 때, 그만두어야 할 때를 알지 못한다는 의미의 '부지지'에서 화자가 강호와 속세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작비금시'에는 자연을 택하는 것이 옳다는 깨달음이 드러나 있다.

(2) 교체 강호와 속세 사이에서의 갈등을 반복하면서도 결국 '(인간, 물외)'을/를 선택하는 모습에서 이상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보기〉에서 화자는 강호와 속세 사이의 갈등을 반복하면서도 항상 강호를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결정이 가치 있는 것임을 드러낸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제6장〉과 〈제11장〉에서 화자가 강호인 '물외'를 선택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에서 강호에서의 만족한 삶이라는 이상에 대한 화자의 지향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3) 교체 학문을 닦아 출세하는 것에 (체념, 도달)한 뒤 '녹수청산'에서 시름없이 늙어 간다는 점에서 화자가 (탈속적, 풍자적)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제1장〉의 초장과 중장을 통해 화자가 문장과 공맹을 배우려 하였으나, 이로 인해 근심을 얻고 어려움을 느껴 '녹수청산'에서 늙어 가는 것을 선택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학문을 닦아 출세하는 것에 체념한 뒤 강호의 삶을 선택하고 있으므로, 탈속적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170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화자 오류 '나'가 '멋대로' 행동하는 게으름을 탓하면서도 ~~게으름을 자~~

~~진의 '허물'이라 여기는 것에서, 게으름의 양면성이 드러나는군.~~

'나'는 게으름을 피운 자신의 행위와 그 폐단을 나열하며, 이 모든 허물을 게으름의 귀신의 탓으로 돌릴 뿐, 자신의 허물이라 여기지 않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게으름의 부정적 측면을 드러낼 뿐, 게으름의 양면성을 드러내고 있지도 않다.

오·오·이

① '나'가 무당을 내세워 '귀신'에게 말하는 것에서, 자신의 게으른 생활에 대해 살펴보려는 글쓴이의 모습을 알 수 있군.

'가슴이 돌에 눌린 것처럼 답답한 게 게으름의 귀신이 든 것' 같다고 생각한 '나'는 무당을 내세워 '귀신'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데, 이를 통해 글쓴이가 자신의 게으른 생활에 대해 살펴보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② '나'가 집안의 대소사에 게으름을 피우는 행위를 나열한 것에서, 글쓴이가 경계하려는 게으름의 폐단이 드러나는군.

"게을러서 집을 수리할 생각도 못하며, ~ 말수조차 줄어들고 있다."와 같이 '나'가 집안의 대소사를 해결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행위와 그로 인한 폐단을 나열한 것에서, 글쓴이가 게으름의 폐단을 드러내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④ 게으름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귀신'의 말에서, 세력을 좇거나 물욕에 휘둘리는 세태에 대한 글쓴이의 비판적 시각이 나타나는군.

게으름의 귀신은 "당신의 게으름은 복의 근원이 될 수도 있지요."라고 한 뒤, 세상 사람들이 세속적 가치에 근면하여 세력을 좇거나 물욕에 휘둘리는 반면, '나'는 세속적 가치에 게으른 덕분에 시비의 소리가 없고 제정신을 잘 보존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로 보아 글쓴이가 귀신의 말을 통해 세력을 좇거나 물욕에 휘둘리는 세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게으름 덕분에 걱정이 없어 제정신을 잘 보존하는 것이라는 '귀신'의 말은 게으름의 긍정적 측면을 보여 주는군.

게으름의 귀신이 "세상 사람들은 물욕에 휘둘려서 이익을 얻기 위해 날뛰지만, 지금 당신은 걱정이 없어 제정신을 잘 보존"하고 있다고 말한 것을 통해 게으름의 긍정적 측면을 보여 주고 있다.

24 가 오륜가 나 차마설(借馬說)

작품 분석 본문 92~95쪽

가 오륜가

작가 주세붕
갈래 연시조
주제 오륜을 지키는 올바른 삶에 대한 권유
특징 ① 오륜의 유교 이념을 강조함.
② 백성들을 교화하려는 목적으로 창작한 작품으로 조선 시대의 이상적인 인간관을 드러냄.
③ 대구법, 설의법 등의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함.

한 줄 의미

❶ (**사람**)답게 살기 위해 배워야 하는 도리
❷ 끝이 없는 부모님의 (**은혜**)
❸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심
❹ 손님을 대하듯 (**지아비**)를 공경함.
❺ (**형제간**)에 불화하지 말아야 함.
❻ (**웃어른**)을 공경해야 함.

나 차마설(借馬說)

작가 이곡
갈래 고전 수필, 설
주제 소유에 대한 성찰과 깨달음
특징 ① 글쓴이가 체험을 통해 깨달은 삶의 이치를 우의적으로 제시함.
② 유추를 통해 개인적 체험을 인간의 보편적 사실로 일반화함.
③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함.

한 줄 요약

❶ 말을 빌려 탄 (**경험**)
❷ 잘못된 소유관에 대한 (**비판**)
❸ 이 글을 쓴 (**동기**)

171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권고**: 어떤 일을 하도록 권함. 또는 그런 말.
- **이상향**: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를 갖춘 완전한 사회. ≒ 도원경.

정·정·이

④ 삶의 태도에 대한 경계와 권고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가)의 화자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 말삼'을 배워야 한다고 권고한 뒤, 이를 지키지 않는 삶의 태도를 경계하고 있다. (나)의 '나'는 말을 빌려 탔던 경험을 바탕으로 외물에 따라 쉽게 마음이 바뀌는 것과 그릇된 소유 관념을 경계하고 소유욕에 얽매이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오·오·이

① 범위 오류 영탄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속성을 예찬하고 있다.

(가)의 〈제2수〉에 쓰인 종결 어미 '-랏다'는 '-구나'의 옛

말이고, '-샷다'는 '-시도다'의 옛말로 모두 감탄의 의미를 드러낸다. 그리고 〈제5수〉에서도 감탄사 '어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어버이의 끝없는 은혜와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예찬하고 있다. 반면 (나)는 '아, 사람의 감정이라는 ~ 뒤바뀔 수가 있단 말인가'에서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대상의 속성을 예찬하고 있지 않다.

② 부재 ~~장만된 세계관이 대구의 형식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가)와 (나) 모두 바람직한 삶에 대한 가치관을 제시하며 그렇지 않은 것을 경계하고 있을 뿐, 상반된 세계관을 대구의 형식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지 않다.

③ 화자 오류 바람직하지 않은 인간에 대한 ~~연민의 시선~~을 담고 있다.
(가)의 화자는 불화하는 형제, 늙은이와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고, (나)의 '나' 역시 빌린 것을 본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이로 보아 (가)의 화자와 (나)의 '나'는 모두 바람직하지 않은 인간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뿐, 연민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부재 ~~이상향에 대한 의식을 역설적 표현을 통해 진술~~하고 있다.
(가)와 (나)는 현실을 살아가는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권고하는 작품으로, 이상향에 대한 화자나 '나'의 의식을 역설적 표현을 통해 진술하고 있지 않다.

172 답 ㄱ, ㄴ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ㄱ. (가)는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사람답기 위해 추구해야 하는 가치를 나타내고 있다.
(가)의 〈제3수〉에서 벌과 개미에 인격을 부여하여 벌과 개미가 여왕벌과 여왕개미에게 충성을 다하듯이 신하도 임금에게 충심을 다하여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ㄴ. (나)는 선인의 말을 인용하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나)의 마지막 문단에서 맹자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사람이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은 빌려 온 것이라는 '나'의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다.

오·오·이

ㄷ. 범위 오류 (가), ~~(다)는 모두~~ 특정 대상과 대화하는 형식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가)는 〈제5수〉에서 초장은 아우가 형님에게, 중장은 형님이 아우에게 하는 말로, 대화하는 형식을 활용하여 형제 간의 우애를 노래하고 있다. 그러나 (나)에서는 특정 대상과 대화하는 형식을 찾아볼 수 없다.

173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부조리**: 이치에 맞지 아니하거나 도리에 어긋남. 또는 그런 일.

정·정·이

④ (가)와 (나)는 모두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말하려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
(가)는 '뉘라서 삼가신고', '손이시나 다르실가', '어디가 다를고' 등에서, (나)는 '뒤바뀔 수가 있단 말인가' 등에서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말하려는 바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오·이

① 교체 (가)는 (나)와 달리 외양 묘사를 통해 대상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가)에서는 외양 묘사를 통해 대상의 특성을 드러내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 반면, (나)에서는 '발굽이 높고 귀가 쫑긋하며 잘 달리는 준마'에서 외양 묘사를 통해 말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부재 (나)는 (가)와 달리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나)의 '나'는 과거의 경험에서 깨달음을 얻고 있을 뿐,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처지를 부각하고 있지 않다.

③ 부재 (가)와 (나)는 모두 ~~언어유희를 통해 현실의 부조리를 풍자~~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 언어유희가 활용되고 있지 않으며, 현실의 부조리를 풍자하고 있지도 않다.

⑤ 범위 오류 (가)와 ~~(나)는 모두~~ 경어체를 통해 대상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가)에서는 '나흐시고', '기르시니', '업스샷다', '다르실가' 등에서 높임의 의미를 더하는 '-시-'를 활용한 경어체를 통해 대상인 어버이와 지아비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나)에서는 경어체가 활용되고 있지 않다.

174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나)는 개인적 체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사회적 차원으로 일반화하고 있다.
(나)의 '나'는 말을 빌려 탄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얻은 소유에 대한 깨달음을, 임금, 신하, 자식, 지어미, 비복 등 사

회적 차원의 문제로 일반화하여 소유에 대한 집착을 경계하고 소유에 구애받지 않는 삶을 살 것을 당부하고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가)는 관념적 덕목을 열거하여 각각이 지닌 모순점을 밝히고 있다.

(가)의 화자는 〈제2수〉~〈제6수〉에서 유교 사회에서 실천해야 할 관념적 덕목을 열거하며 이를 배울 것을 권고하고 있을 뿐, 각각이 지닌 모순점을 밝히고 있지 않다.

② 상반 (가)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의식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옹호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가)의 화자는 부모와 자식, 임금과 신하, 지아비와 지어미, 형과 아우, 웃어른과 아랫사람 간에 지켜야 할 도리에 대해 말하고 있으므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의식하지 않는 삶을 옹호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사람들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는 삶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④ 화자 오류 (나)는 인물의 내면 심리를 형상화하여 욕망의 실현을 돕는 자연적 질서에 대한 경이감을 표출하고 있다.

(나)는 빌린 말의 상태에 따라 '나'의 마음가짐이 달라졌던 경험을 통해 소유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있을 뿐, 욕망의 실현을 돕는 자연적 질서에 대한 경이감을 표출하고 있지 않다.

⑤ 부재 (가)와 (나)는 모두 자연물이 지닌 덕성을 부각하여 인간적 삶에 대한 긍지를 드러내고 있다.

(가)의 〈제3수〉에서 '벌과 개미'가 지닌 덕성을 부각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인간적 삶에 대한 긍지는 드러내고 있지 않다. (나) 역시 자연물이 지닌 덕성을 부각하여 인간적 삶에 대한 긍지를 드러내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정·오 지름길

③ (나)는 개인적 체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사회적 차원으로 일반화하고 있다.
'개인적 체험'을 '사회적 차원으로 일반화'한다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예요. 이때 선지의 말 자체가 어려워서 잘 모르겠다면, '개인적 체험'과 '사회적 차원'을 구분하여 해당 내용이 (나)에 있는지 찾아본 후에 이 둘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 보면 돼요. (나)에서 '나'가 말을 빌려 탔던 경험은 개인적 체험에 해당하고, 남에게 빌리지 않은 것이 없다는 '나'의 주장을 '임금과 신하', '부모와 자식', '지아비와 지어미', '주인과 비복'의 경우에까지 비추어 본 것은 '사회적 차원'에 해당해요. 그리고 '나'는 말을 탄 경험을 통해 소유의 본질에 대해 성찰하였으므로, 개인적 체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사회적 차원으로 일반화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차근차근 내용을 확인해 보면서 정오를 판단하면 돼요.

175 답 (1) ○ (2)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가)는 인간이 지켜야 할 윤리를, (나)는 잘못된 소유관에 대한 비판을 제시하고 있다. (○, ×)

(가)에서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 배워야 하는 윤리를, (나)에서는 빌린 것을 본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고 돌이켜 보려고 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비판을 제시하고 있다.

(2) 부재 (가)와 (나)는 모두 대조적 경험을 통해 상황에 맞게 처신하는 일의 중요성을 보여 주고 있다. (○, ×)

(가)에는 대조적 경험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 임금과 신하, 지아비와 지어미, 형제간, 웃어른과 아랫사람 간의 관계에서 도리에 맞게 처신하는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상황에 맞게 처신하는 일의 중요성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나)에는 대조적 경험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를 통해 외물에 따라 쉽게 변하는 마음을 경계하고, 소유에 대한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을 뿐이다.

176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번민**: 마음이 번거롭고 답답하여 괴로워함.

정·정·이

④ ㉠은 화자가 바람직하게 여기는 대상인 반면, ㉡은 '나'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대상이다.

'사람(㉠)'은 문맥상 사람이 지켜야 하는 도리를 아는 사람으로, 화자가 바람직하게 여기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사람(㉡)'은 외물에 따라 감정이 쉽게 바뀌는 사람으로, '나'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은 화자가 친근하게 대하는 대상인 반면, ㉡은 '나'가 낯설게 대하는 대상이다.

'사람(㉠)'과 '사람(㉡)'은 (가)의 화자와 (나)의 '나'가 친근하게 대하거나 낯설게 대하는 특정한 관계의 인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② 헛짚기 ㉠은 화자에게 깨달음을 주는 대상인 반면, ㉡은 '나'로 인해 깨달음을 얻은 대상이다.

'사람(㉠)'은 도리를 배워 사람답게 사는 존재일 뿐, 화자에게 깨달음을 주는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외물에 따라 쉽게 바뀌는 감정을 지닌 존재이므로, '나'로 인해 깨달음을 얻은 대상이라 할 수 없다.

③ 범위 오류 ㉠은 화자를 포함하여 가리키는 말인 반면, ㉡은 '나'를 제외한 타인을 가리키는 말이다.

(가)의 화자가 사람이 지켜야 하는 도리를 알고 권하는 것으로 볼 때, '사람(㉠)'은 (가)의 화자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외물에 따라 쉽게 바뀌는 감정을 지닌 '사람(㉡)'은 (나)의 '나'를 포함하는 말이다.

⑤ 헛짚기 ㉠은 화자에게 보람을 느끼게 하는 대상인 반면, ㉡은 '나'로 하여금 번민을 유발하는 대상이다.

(가)의 화자는 사람들에게 오륜을 배워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을 뿐, '사람(㉠)'으로부터 보람을 느끼고 있지 않다. (나)의 '나'는 개인적 경험으로부터 깨달음을 얻고 있을 뿐, '사람(㉡)'으로 인해 번민하고 있지 않다.

177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부재 〈제4수〉에서는 화자로 대체된 '지아비'와 지어미의 문답 방식을 통해 아내가 추구해야 할 윤리적 가치를 정당화하고 있다.

〈제4수〉의 화자는 지아비가 아니다. 화자는 밭 갈러 간 지아비에게 반상을 들고 가는 지어미의 모습을 묘사하며 아내가 추구해야 할 윤리적 가치를 제시하고 있을 뿐, 지아비와 지어미가 묻고 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 않다.

오·오·이

① 〈제3수〉에서는 '벌과 개미'의 생태로부터 윤리적 실천의 주체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를 유추하고 있다.

〈제3수〉에서는 벌과 개미가 여왕벌, 여왕개미를 위해 일하는 생태로부터 윤리적 실천의 주체인 '종(신하)'이 '주인(임금)'을 위해 추구해야 할 도리가 충심임을 유추하고 있다.

③ 〈제5수〉에서 어머니의 '젖'은 어머니의 사랑을 상징하는 표현으로서, '형님'과 '아우'가 이를 화제로 삼아 대화를 나누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제5수〉에서는 아우와 형이 대화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초장은 형님을 따라 어머니의 젖을 먹는다고 말하는 아우의 말로, 여기서 '젖'은 중장의 '어마님 너 사랑이야'에 비추어 볼 때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④ 〈제5수〉의 '개돼지'는 〈제1수〉의 '사람이라도 사람 아니니'의 의미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따르는 윤리적 주체와 대비되고 있다.

〈제5수〉의 '개돼지'는 서로 화목하게 지내지 않는 형제들을 비유한 말로, 〈제1수〉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말씀'을 듣지 않아 '사람이라도 사람 아'닌 대상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5수〉의 '개돼지'는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따르는 바람직한 사람과 대비된다고 할 수 있다.

⑤ 〈제6수〉에서 '부모'와 '형'은, 〈제2수〉의 '부모'와 〈제5수〉의 '형님'과는 달리, '늙은이'와 '어른'에 빗대어져 쓰임으로써 사회 윤리가 가정 윤리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제6수〉의 초장에서 '늙은이'는 부모에, 어른은 '형'에 빗대어져 쓰이고 있다. 그리고 종장에서 '나이가 많으시거든 절하고야 마로리이다'라며 '장유유서'의 도리를 정당화하고 있으므로, 비유적 표현을 통해 사회 윤리가 가정 윤리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78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제3수〉에서는 자연으로부터 임금에 대한 충심을 유추한다.

〈제3수〉는 '벌과 개미'로부터 종과 주인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유추하여 제시한 부분으로, 임금에 대한 일편단심, 즉 변함없는 충심을 강조하고 있다.

오·오·이

② 부재 〈제4수〉에서는 장정을 통해 지아비를 손님과 같이 적당한 거리감을 두고 대해야 함을 보여 준다.

〈제4수〉는 지어미에게 지아비를 귀한 손님 대하듯 공경할 것을 권하는 내용이다. 이를 적당한 거리감을 두고 대할 것을 권하는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여기에 상징의 표현 방식이 쓰이지도 않았다.

③ 헛짚기 〈제6수〉에서는 비유를 통해 부모와 형을 다르게 대할 것을 나타낸다.

〈제6수〉는 웃어른을 부모나 형에 비유하며 이들을 대하듯 똑같이 공경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부모와 형을 다르게 대할 것을 알려 주고 있지 않다.

179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나'는 '맹자'의 '이 말'에서, 빌린 것을 소유했다고 여기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떠올리고 있다.

마지막 문단의 "오래도록 차용하고서 반환하지 않았으니, 그들이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는가."라는 맹자의 말은 그릇된 소유 관념의 문제점을 지적한 말이다. 글쓴이는 '이 말을 접하고서 느껴지는 바가 있기에 「차마설」을 지어서 그 뜻을 부연해' 본다고 하였으므로, 맹

자의 말을 통해 빌린 것을 자기의 소유라고 여기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떠올렸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오·오·이

① 교체 '나'는 '노둔하고 야윈 말'을 빌리는 경우 '전전긍긍'하다가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후회하게 된다고 여기고 있다.
'준마' '의기양양'

1문단에서 '나'는 '노둔하고 야윈 말'을 빌린 경우 '전전긍긍하'며 말을 조심히 타서 '후회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하였다. 반면에 준마를 얻었을 경우에는 '의기양양하여 방자하게' 타다가 '말에서 떨어지는 환란을 면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므로, 위험에 처하여 후회하는 것은 준마를 빌렸을 때와 관련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상반 '나'는 '준마'를 빌려 탈 때의 '의기양양'한 감정이 그것을 소유할 때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더 심해질

2문단에서 '나'는 사람의 감정이 쉽게 뒤바뀔 수 있음에 놀라며, 남의 물건을 빌렸을 때에도 이러한데 진짜로 소유한 경우에는 이러한 마음이 더해질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나'는 '준마'를 빌릴 때보다 소유할 때 의기양양한 감정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볼 수 있다.

③ 화자 오류 '나'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천한 사람들을 '미혹'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나'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천한 사람들을 미혹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볼 만한 근거는 (나)에서 찾을 수 없다. 3문단에서 '나'는 임금, 신하, 자식, 지어미, 비복 등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빌린 것을 소유했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 미혹된 일이라고 비판하고 있을 뿐이다.

④ 교체 '나'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권력이 빌린 것임을 돌아보는 '임금'의 모습을 '독부'로 표현하고 있다.
빌렸던 것을 돌려주게 된

4문단에서 '혹 잠깐 사이에 그동안 빌렸던 것을 돌려주는 일이 생기게 되면, 만방의 임금도 독부가' 된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독부'는 백성으로부터 빌린 권력을 돌려주게(빼앗기게) 된 임금의 모습을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80 답 (1) 소유 (2) 맹자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상반 '나'는 빌린 것을 (소유 반환)했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있다.

'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남에게 빌린 것이라 생각하고,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며 돌이켜 보지 않는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빌린 것을 소유했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교체 '나'는 말을 빌려 탄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으로 (맹자 독부)의 말에 담긴 뜻을 부연하고자 「차마설」을 지었다.

마지막 문단에서 맹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차마설」을 지어서 그 뜻을 부연한다고 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181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인륜**: 군신·부자·형제·부부 따위에서 지켜야 할 도리.

정·정·이

③ 교체 ⓒ에서 화자는 부부간에 서로가 정성을 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지어미

ⓒ에서 화자는 지어미는 지아비를 귀한 손님처럼 정성껏 대해야 한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을 뿐, 부부간에 서로가 정성을 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오·오·이

① ⓐ에서 화자는 부모에 대한 보은을 중시하는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는 부모의 덕을 갚으려 하니 하늘처럼 끝이 없다는 의미로, 부모에 대한 보은을 중시하는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② ⓑ에서는 두 마음을 먹지 않는 것이 신하의 도리라 여기는 화자의 인식이 드러나 있다.

ⓑ는 신하가 임금에 대해 두 마음을 갖지 않고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로, 두 마음을 먹지 않음을 신하의 도리라 여기는 화자의 인식이 드러나 있다.

④ ⓓ에서 화자는 형제간의 불화를 인륜에 어긋나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다.

ⓓ는 형제간에 화목하지 않으면 개돼지와 같다는 의미로, 형제간의 불화를 인륜과 어긋나는 일로 여기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에서 화자는 연장자에 대한 예우를 다짐하고 있다.

ⓔ는 나이가 많은 분을 맞이하면 절하고야 말겠다는 의미로, 연장자에 대한 예우를 다짐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25 가 풍계육가 나 포화옥기(匏花屋記)

작품 분석 본문 96~99쪽

가 풍계육가

작가 이정
갈래 연시조
주제 자연 친화적 삶의 태도와 속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
특징 ① 대조적 의미의 시어를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나타냄.
② 대구법과 설의법 등을 통해 자연 친화적인 삶의 태도를 드러냄.
③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대상에 대한 친근감을 표현함.

한 줄 의미

❶ (자연)을 즐기는 삶
❷ 소박한 삶과 속세와의 (단절)
❸ '나'를 보러온 이와 (술)을 함께하며 풍류를 즐기는 삶
❹ (욕심) 없는 삶의 태도
❺ 변함없는 (자연)에 대한 예찬과 자연에서 사는 즐거움
❻ (세속적) 삶에 대한 경계

나 포화옥기(匏花屋記)

작가 이학규
갈래 고전 수필, 기
주제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태도
특징 ① 대조되는 삶의 모습을 통해 주제를 드러냄.
②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

한 줄 요약

❶ ('나')가 현재 사는 곳의 열악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병을 얻음.
❷ 나그네가 여관에서 불편하게 지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며 ('나')를 위로함.
❸ 여관집의 (노비)가 천수를 누리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며, 세상과 인생이 (여관)과 같음을 말함.
❹ '나'가 여관집 노비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음)을 얻음.

182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대조적인 방식으로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가)는 아름다운 자연과 어지러운 속세를 대비하여 자연 속에서 만족하며 소박하게 지내는 삶을 추구함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주어진 환경에 불만을 지니는 '나'와,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여관집의 노비'의 모습을 대비하여 운명에 순응하고 주어진 삶에 만족하는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반어적 표현을 통해 현실 비판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통해 현실 비판 의식을 부각한다고도 볼 수 없다.

③ 부재 ~~고사를 활용하여 현재의 삶에 대한 반성~~을 드러내고 있다.
(가)는 고사를 활용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의 삶에 대한 반성을 드러내고 있지도 않다. (나)는 고사를 활용하고 있지 않으나, 성현의 도를 배우려 하면서도 여관집 노비의 깨달음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질타하는 나그네의 말을 듣고 '나'가 깨달음을 얻고 있으므로, 현재의 삶에 대한 반성을 드러내었다고 볼 수 있다.

④ 범위 오류 (나)는 계절감을 나타낸 어휘를 통해 상황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가)에서는 계절감이 나타나는 어휘를 찾을 수 없다. 반면, (나)에는 '한여름', '모기'와 같은 계절감이 나타나는 어휘를 사용하여 좁고 천장이 낮은 집에서 불편하게 살고 있는 '나'의 상황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⑤ 부재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현재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가)와 (나) 모두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나타나지도 않는다.

183 답 (1) (가), (나) (2) (나) (3) (가)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가), (나))
(가)에서는 얼마 안 되는 봉급을 '오두미'에, 속세를 '홍진'에 비유하여, (나)에서는 "마치 쌀쌀한 ~ 잠자듯 한답니다.", "지금 이 세상은 ~ 여관 같은 곳입니다."에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 범위 오류 (나)는 계절적 배경이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나))
(나)의 '나'는 담장 밑에 박을 심어 한여름의 햇볕을 가렸으나, 이로 인해 생긴 모기와 파리, 뱀들을 신경 쓰느라 병이 생기게 되었으므로, 계절적 배경이 열악한 집 환경으로 인한 화자의 고통을 심화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가)에는 특정한 계절적 배경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3) 범위 오류 (가)는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대상에 대한 친근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가))
(가)의 〈제5수〉에서 '산'과 '물'을 의인화하여 '너'라고 부른 것에서 자연에 대한 화자의 친근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나)에서는 자연물을 의인화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184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범위 오류 (나)는 (가)와 ~~달리~~ 모두 공간적 배경의 특성을 제시하며 그에 대한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가)의 〈제5수〉에서는 높은 산과 흐르는 물의 모습을 제시하고 변함없는 자연에 대한 화자의 예찬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나)는 '나'가 사는 집을 '높이가 한 길이 못 되고 ~ 창문이 뜨겁게 달아오른다.'라고 묘사함으로써 좁고 열악한 집 환경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오·오·이

① (가)는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가)는 〈제1수〉의 초장과 중장에서 '~을 좋이 여겨 ~노라.'와 같은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제5수〉에서 '~아 너는 어이(찌)~'와 같은 문장 구조가 반복됨으로써 자연을 즐기며 예찬하는 화자의 태도가 강조되고 있다.

② (나)는 대화 상황을 통해 나그네로 인해 삶에 대한 '나'의 인식이 바뀌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나)에서 '나'는 찾아오는 손님에게 현재 사는 집의 사정을 자세히 말하곤 했는데, 서울에서 온 어떤 나그네가 '나'의 말을 듣고 위로를 해 주었다고 하였다. 이에 깨달음을 얻은 '나'가 벽에 그 내용을 적었다는 것으로 보아, '나'와 나그네의 대화 상황을 통해 '나'의 인식이 바뀌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가)는 (나)와 달리 자연과 속세를 대비하며 지향하는 바를 제시하고 있다.

182번-②의 해설을 참고할 때, '나'와 '여관집의 노비'의 삶의 모습을 대비한 (나)와 달리, (가)는 자연과 속세를 대비하며 자연에 묻혀 사는 삶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가)는 (나)와 달리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나)와 달리 (가)는 〈제2수〉의 '내라서 누구라 하여 작녹을 맘에 둘꼬'에서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작녹'과 같은 세속적 가치를 거부하는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185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열악함**: 품질이나 능력, 시설 따위가 매우 떨어지고 나쁨.

정·정·이

③ 모두 실제 삶의 공간이지만, ㉠은 만족감을 느끼는 공간, ㉡은 열악함을 느끼는 공간이다.

'내 집(㉠)'은 (가)의 화자가 자연 속에서 은거하는 공간으로, 자연을 즐기며 '처간에 인지한 군자'가 '못내 즐겨' 한다고 표현할 정도로 만족감을 느끼는 공간이다. 반면, '내가 사는 집(㉡)'은 (나)의 '나'가 지내는 공간으로 소갈증과 답답함을 느끼는 협소하고 열악한 공간이다.

오·오·이

① 헛짚기 ~~모두~~ 소망과 관련되는 공간이지만, ㉠은 ~~좌절되는~~ 공간, ㉡은 ~~정취되는 공간이다.~~ ㉠은

'내 집(㉠)'은 (가)의 화자가 지향하는 삶을 실현하는 곳이므로, 화자의 소망과 관련된 공간으로 볼 수 있으나 소망이 좌절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한편, '내가 사는 집(㉡)'은 환경이 열악하므로 '나'의 소망과 관련된 공간으로 볼 수 없으며, 소망이 성취되는 공간으로도 볼 수 없다.

② 범위 오류 ~~모두~~ 이상적인 공간이지만, ㉠은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공간, ㉡은 ~~실현 불가능한~~ 공간이다. ㉠은

'내 집(㉠)'은 (가)의 화자가 자연 속에서 소박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공간이므로, 이상적인 공간이자 이상의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사는 집(㉡)'은 (나)의 '나'가 살고 있는 열악한 현실적인 공간이지, 이상적인 공간이 아니다. 그런데 이후 나그네의 말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 삶의 태도를 바꾸고 있으므로, 이상 실현이 불가능한 공간이라고는 볼 수 없다.

④ 범위 오류 ~~모두~~ 현실과 갈등하는 공간이지만, ㉠은 ~~갈등이 심화되는~~ 공간, ㉡은 갈등이 해소되는 공간이다. ㉡은

(가)의 화자는 '내 집(㉠)'에서 소박한 삶에 만족하고 있으므로, 현실과 갈등하는 공간이 아니다. 한편 '내가 사는 집(㉡)'은 (나)의 '나'가 나그네의 말을 듣고 운명에 순응하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삶의 태도를 깨닫는다는 점에서 갈등이 해소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⑤ 범위 오류 ~~모두~~ 회상의 공간이지만, ㉠은 ~~자신의 삶에 대한 회상~~, ㉡은 타인의 삶에 대한 회상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은

'내 집(㉠)'은 (가)의 화자가 자연 속에서 은거하는 공간으로 회상의 공간이 아니다. 또한 (가)의 화자가 자신의 삶을 회상하고 있지도 않다. 한편, (나)에서는 나그네가 자신의 경험을 '나'에게 말해 주고 있으므로, 나그네에 의해 타인인 '여관집 노비'의 삶에 대한 회상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186 답 (1) 만족감, 걱정 (2) 처간, 순응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가)의 화자는 ㉠에서 (만족감, 불안감)을 느끼고, (나)의 '나'는

㉡에서 (걱정 즐거움)을 느낀다.

(가)의 화자는 '내 집(㉠)'에서 자연을 즐기며 소박하게 지내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는 반면, (나)의 '나'는 '내가 사는 집(㉡)'에서 모기와 파리 때, 뱀들로 인해 걱정하고 있다.

(2) 교체 ㉠은 '나'가 (처간 홍진)에서 지내는 소박한 공간이고, ㉢은 '노비'가 운명에 (순응 좌절)하는 공간이다.

'내 집(㉠)'은 자연 속에 지은 조그만 띠집으로, 〈제5수〉에서 처간의 군자가 자연을 즐긴다고 하였으므로 처간에서 지내는 소박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여관집(㉢)'은 (나)의 나그네의 이야기 속 인물인 '노비'가 운명에 순응하며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사는 공간이다.

187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행적**: ① 행위의 실적(실제로 이룬 업적이나 공적)이나 자취. ② 평생 동안 한 일이나 업적.

정·정·이

④ ㉮와 ㉯는 모두 자신의 삶에 안분지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의 '나(㉮)'는 자연 속에서의 소박한 삶에 만족하고 있으므로, 안분지족의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나)의 '노비(㉯)'는 지금의 삶을 본래 정해진 운명이라 여기고 걱정 등으로 기운을 허하게 하지 않아 열악한 환경에서도 편안하게 천수를 누리고 있다. 이로 보아 '노비(㉯)' 역시 안분지족의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오·오·이

① 범위 오류 ㉮는 물욕을 내려놓은 반면, ㉯는 물욕을 추구하고 있다.

(가)의 〈제4수〉에서 화자의 세간이 낚싯대 하나 뿐이라는 것으로 보아 '나(㉮)'가 물욕을 내려놓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나)의 '노비(㉯)'는 주어진 일을 부지런히 하면서 열악한 환경에도 불평하지 않고 지내고 있으므로, 물욕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화자 오류 ㉮는 과거의 행적에 대한 후회를, ㉯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가)의 '나(㉮)'는 과거의 행적에 대해 후회하고 있지 않다. (나)의 '노비(㉯)'는 주어진 삶에 만족하는 태도를 보이는 인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③ 화자 오류 ㉮와 ㉯는 모두 주어진 상황에 대해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

(가)의 '나(㉮)'와 (나)의 '노비(㉯)'는 모두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있으므로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⑤ 범위 오류 ㉮와 ㉯는 모두 스스로 바라던 이상적인 삶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가)의 〈제2수〉에서 '나(㉮)'가 '작녹'을 마음에 두지 않아 '조그만 띠집'을 시내 위에 짓고, 문을 닫아 속세와 단절한 것으로 보아, 자연 속에서의 삶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나)의 '노비(㉯)'는 나그네를 통해 주어진 삶에 순응하며 사는 삶의 모습이 드러날 뿐, '노비(㉯)'가 그러한 삶을 이상적인 것으로 여기고 스스로 바라며 적극적으로 실천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188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허점**: 불충분하거나 허술한 점. 또는 주의가 미치지 못하거나 틈이 생긴 구석.

정·정·이

① 지향하는 바와 다르게 행동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상대방을 비판하고 있다.

나그네는 [A]에서 청자인 '나'가 성현의 말씀을 배우기를 바라면서, 여관집의 노비가 운명에 순응하며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처럼도 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A]에서 나그네는 '나'가 지향하는 바와 다르게 행동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나'를 비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② 부재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어 상대방의 감정에 호소하고 있다.

나그네는 [A]에서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아울러 '나'의 감정에 호소하려는 의도도 보이고 있지 않다.

③ 부재 상대방의 말의 허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면서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고 있다.

나그네는 [A]에서 청자인 '나'의 행동이 지향하는 바와 다름을 지적할 뿐, '나'가 한 말의 허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고 있지도 않다.

④ 부재 상대방이 가진 능력을 인정하면서 상대방이 이루어 낸 성과를 치하하고 있다.

나그네가 청자인 '나'에게 "도를 지키고 운명에 순종하며, 소박하고 솔직한 태도로 행하는 분"이라고 한 말은 '나'의 능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나'가 이루어 낸 성과를 치하하고 있지는 않다.

⑤ 부재 상대방의 말에 겉치레로 동조하는 척하면서 상대방을 안심시키려 하고 있다.

나그네는 청자인 '나'의 말에 거짓으로 동조하는 척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통해 '나'를 안심시키려 하고 있지도 않다.

189 답 (1) × (2)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헛짚기 ~~자신을 낮추며~~ '나'의 품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 ×)

[A]에서 나그네는 '나'가 도를 지키고 운명에 순종하고 소박하고 솔직한 태도로 행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을 뿐, 자신을 낮추고 있지는 않다.

(2) '나'가 겪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깨달음을 주고 있다. (○, ×)

[A]에서 나그네는 '나'에게 병이 생긴 원인에 대해 자기가 사는 곳을 여관이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화를 돋우고 들볶아 원기를 손상시"켰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여관집의 노비'의 삶의 태도와 비교하여 운명에 순응하여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삶의 태도를 지녀야 함을 알려 주고 있다.

190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부재 ~~맹자의 말을 인용하여~~ 이상적인 삶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나그네'는 맹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지 않다. 이상적인 삶의 태도는 '자신이 예전에 몸소 겪었던 일'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오·오·이

②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위로하고 있다.

나그네는 '나'의 말을 듣고 위로하며 과거에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일을 말해 주었다.

③ '나'의 품성에 대해 언급하며 '나'가 마음을 달리 먹을 것을 권하고 있다.

나그네는 '나'가 도를 지키고 운명에 순종하며, 소박하고 솔직한 태도로 행하는 분이라며 '나'의 품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여관집의 노비'가 하는 것처럼도 하지 못한다고 지적함으로써 '나'가 삶의 태도를 바꾸도록 권하고 있다.

④ 제삼자의 관점에서 '나'의 태도와 상황에 대해 신랄하게 평가하고 있다.

189번-(2)의 해설을 참고할 때, 나그네가 '나'에게 세상을 잠시 머물다 가는 여관으로 여기지 못하고 스스로 화를 돋우고 들볶아 병이 생겨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한 것은 제삼자의 관점에서 '나'의 태도와 상황을 신랄하게 평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비슷한 상황에 처했었던 다른 사람과 삶의 태도를 비교하며 스스로 깨닫게 하고 있다.

(나)의 나그네는 '나'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지냈지만, 불평하지 않고 편안히 지냈던 '여관집의 노비'와 삶의 태도를 비교하며 운명에 순응하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사는 삶의 태도를 스스로 깨닫게 하고 있다.

191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헛짚기 〈제4수〉에서 '그지없다'고 한 '욕심'은 ~~자연과의 합일을 지속하려는 마음~~을 가리키겠군.

〈제4수〉의 초장에서 '그지없다'고 한 '욕심'은 속세 사람들의 끝없는 욕심을 의미한다. 이 '욕심'을 자연과의 합일을 지속하려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제1수〉에서 '명월'이 좋아 '잠'을 자지 않는 행위를 통해 자연 친화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군.

〈제1수〉의 중장에서 '명월'이 좋아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것은 화자가 자연과의 합일을 도모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화자의 자연 친화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 준다.

② 〈제2수〉에서 '작녹'을 마음에 두지 않고 '문'을 늦도록 닫아 두는 것은 세속적 삶을 멀리하려는 태도라 하겠군.

〈제2수〉의 초장에서 '작녹', 즉 벼슬과 녹봉은 세속적 가치를 지닌 소재이다. 이를 마음에 두지 않고 '조그만 띠집'을 시내 위에 짓고, '손수 닫은 문'을 늦도록 닫아 두었다고 하였으므로, 세속적인 삶을 멀리하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④ 〈제5수〉에서 '산'과 '물'을 청자로 설정하여 자연물의 변함없는 모습을 예찬하고 있군.

〈제5수〉의 초장과 중장에서 '산'과 '물'을 '너'라고 지칭하면서 '한결같이 높'고, '날날이 흐르'는 변함없는 모습을 예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제6수〉에서 '홍진'과 거리를 두며 '칼 톱'이 무섭다고 한 것은 벼슬길의 위험성을 인식했기 때문이겠군.

〈제6수〉의 초장과 중장에서 '홍진'은 속세를 의미하는 말로, 화자가 '홍진'에 '나지 마라'라고 한 것과 '칼 톱'이 무섭

다고 한 것은, 벼슬길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192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헛짚기 ⓓ: ~~작가의 처지가 조금씩 개선되리라는 것을 일깨우려는 나그네의 의도~~가 담겨 있다.

(나)가 작가인 이학규가 유배되었을 때 창작된 것이라는 〈보기〉의 내용으로 보아, ⓓ는 먼 곳에 유배되어 있는 작가의 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나그네는 세상을 잠시 머물다 가는 '여관'에 비유하며 ⓓ와 같이 말함으로써 '나'가 있는 이곳이 여관 중의 여관임을 언급하였을 뿐, 작가의 처지가 개선되리라는 것을 일깨우고자 했다고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 빈궁한 유배지의 환경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는 작가가 사는 주거 환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작가가 유배지에서 매우 빈궁한 생활을 하였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② ⓑ: 나그네의 직접 경험이 담긴 이야기임이 드러나고 있다.

ⓑ의 '우리네 같은 사람들'은 나그네를 포함한 낮은 계층의 사람들로, 나그네가 예전에 덥고 불편한 곳에서 지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여 걱정과 근심 없이 지내는 여관집 노비의 모습을 관찰하여 전달하고 있다.

ⓒ는 '여관집의 노비'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덥고 불편한 곳에서도 선선한 방에서 잠자듯 했던 일을 관찰하여 전달한 것으로, 이를 통해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여 걱정과 근심 없이 평화롭게 지내는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⑤ ⓔ: 나그네의 이야기를 통해 얻은 교훈을 작가가 오래 간직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에서 작가가 나그네의 말을 서술하여 벽에 적었다고 한 것은 나그네의 이야기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오래 간직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26 가 견회요(遣懷謠) 나 마환우설

작품 분석 본문 100~103쪽

가 견회요(遣懷謠)

작가 윤선도
갈래 연시조
주제 임금에 대한 충심과 부모에 대한 그리움
특징 ① 화자의 강직한 삶의 태도가 드러나 있음.
② 충과 효가 다르지 않다는 당대 사대부들의 의식을 바탕으로 함.
③ 시어의 반복, 감정 이입, 설의법, 대구법 등의 표현 방법을 사용함.

한 줄 의미

❶ 자신의 (**신념**)에 충실한 삶의 의지
❷ 자신의 (**충심**)을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하소연
❸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심
❹ 유배 간 곳에서 (**어버이**)를 그리워함.
❺ 충과 (**효**)가 다르지 않음을 인식함.

나 마환우설

작가 홍성민
갈래 고전 수필, 설
주제 곤궁한 유배 생활 속에서 느끼는 서글픔과 한탄
특징 ① 대화를 직접 인용하여 상황을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냄.
② 경험한 일에 대한 생각과 내면 심리를 진솔하게 표현함.
③ 설의법과 대구법 등의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함.

한 줄 요약

❶ (**유배**) 온 '나'에게 부령 사람이 호구책을 일러 줌.
❷ '나'가 호구책을 거절하자 '어떤 이'가 (**소유**)의 가변성을 들어 지적하고 '나'가 이에 (**동의**)함.
❸ 사대부로서 (**신의**)를 지키지 못한 사람이 된 것에 대한 '나'의 한탄

193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의문의 방식을 활용하여 상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가)는 〈제1수〉의 '그밧긔 ~ 이시랴', 〈제2수〉의 '내 일 ~ 모를쏜가', 〈제3수〉의 '므음 ~ 흐르는다' 등에서 화자의 생각을, (나)는 "말이 비록 미물이지만 내가 차마 저버릴 수 있겠소?", "어찌 일정한 주인이 있겠소?" 등에서 '나'와 '어떤 이'의 생각을 의문의 방식을 활용하여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지향하는 공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다.

(가)는 〈제3수〉의 초장과 〈제4수〉의 종장에서 시냇물 소리와 외기러기 소리를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제시하고 있으나, 지향하는 공간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화자의 변치않는 충심과 어버이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다. (나)에서는 감각적 이미지가 활용되고 있지 않다.

③ 부재 반어적 표현을 통해 현실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가)와 (나)에서 반어적 표현이 활용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다만 (가)의 화자는 모함을 당해 억울하게 유배된 상황이고, (나)의 '나'도 유배지에서 먹고살기 위해 말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고 말을 판 것을 한탄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현실의 부정적 측면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④ 헛짚기 영탄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가치를 예찬하고 있다.

(가)는 〈제5수〉의 종장의 '여기노라'를 영탄적 표현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를 통해 충과 효가 다르지 않음을 밝히고 있을 뿐, 대상의 가치를 예찬하고 있지는 않다. (나)는 '누를 끼쳤구나', '몹시 그르쳤구나' 등에서 영탄적 표현을 통해 먹을 것(실리)을 추구하느라 신의를 저버린 것에 대한 자책을 나타내고 있을 뿐, 대상의 가치를 예찬하고 있지는 않다.

⑤ 부재 계절의 변화를 통해 생동감을 조성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한 생동감이 조성된다고도 볼 수 없다.

194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비슷한 어구를 짝 지어 제시하여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가)는 〈제1수〉의 초장과 〈제4수〉의 초장 등에서, (나)는 "저쪽으로 가면 ~ 이쪽이 주인이오.", "반드시 내가 ~ 주인인 것도 아니다." 등에서 비슷한 어구를 짝 지어 제시하는 대구의 방식을 통해 내용을 강조함을 알 수 있다.

오·오·이

① 부재 공간의 대비를 통해 처량한 처지를 보여 주고 있다.

(가)의 화자와 (나)의 '나' 모두 유배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처지가 처량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공간의 대비를 통해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② 범위 오류 동일한 어휘를 반복함으로써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가)의 〈제4수〉에서는 '길고 길고', '멀고 멀고', '많고 많고', '울고 울고'와 같이 반복적 표현을 통해 멀리 떨어져 계신 어버이에 대한 그리움을 부각하고 있다. 반면 (나)에서는 반복법을 활용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195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자탄: 자기의 일에 대하여 탄식함.

정·정·이

② 범위 오류 (가)와 (나)에는 모두 자신에 대한 상대의 오해를 풀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가)의 화자가 〈제2수〉의 종장에서 누군가가 아무리 모함하여도 임금이 헤아려 달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자신에 대한 상대의 오해를 풀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에는 이러한 의도가 담겨 있지 않다.

오·오·이

① (가)와 (나)에서는 모두 삶의 태도에 관한 견해를 엿볼 수 있다.

(가)는 〈제1수〉의 '내 몸의 해 올 일만 닦고 닦을 뿐'과 〈제5수〉의 '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긔 불효인가'에서 충과 효를 다하며 살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나)는 "말은 내게 도움을 주었는데 ~ 저버릴 수 있겠소?", "말은 나를 주인으로 ~ 있지 못하게 만들었다." 등에서 신의를 중시하며 살고자 하는 '나'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③ (가)에는 (나)와 달리 특정 대상을 향한 그리움의 정서가 표현되고 있다.

(가)의 〈제4수〉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어버이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표현되고 있다. 반면 (나)에서는 특정 대상을 향한 그리움의 정서가 나타나지 않는다.

④ (가)에는 (나)와 달리 하늘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려는 삶의 자세가 드러나 있다.

(가)의 〈제5수〉에서 '임금 향한 뜻'도 하늘이 생기게 하였다며 이를 잊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아, 하늘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려는 삶의 자세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나)에서는 이러한 삶의 자세를 찾아볼 수 없다.

⑤ (나)에서는 (가)와 달리 자신의 행위가 가져온 결과에 대한 자탄이 부각되고 있다.

(나)의 "말은 나를 주인으로 삼았는데 ~ 내가 이들을 몹시 그르쳤구나."에서는 '나'가 먹을 것을 얻기 위해 말을 팔고 소를 빌려줌으로써 말과 소가 편안히 있지 못하게 된 일에 대한 자탄이 부각되고 있다. 반면 (가)의 화자는 임금과 나라를 위해 한 일로 모함을 받은 것에 대해 '임 위한 탓'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할 뿐, 자탄하고 있지 않다.

196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은 화자를 갈등 상황에 놓이도록 하는 존재이고, ㉡은 글쓴이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존재이다.

'아무(㉠)'는 화자를 모함한 대상이므로, 화자를 갈등 상황에 놓이게 하는 존재라 할 수 있다. '어떤 이(㉡)'는 말에 대한 신의를 강조하는 글쓴이에게 말을 팔아 소로 바꾸어 생계를 유지하라고 충고하는 존재이다. '어떤 이(㉡)'의 말에 '나'가 '그 사람의 말이 맞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글쓴이의 인식을 변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과 ㉡은 모두 화자나 글쓴이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대상이다.
'아무(㉠)'와 '어떤 이(㉡)'는 화자나 글쓴이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대상으로 볼 수 없다.

② 헛짚기 ㉠과 ㉡은 모두 화자나 글쓴이에게 삶의 허무함을 깨닫게 해 주는 존재이다.
'아무(㉠)'와 '어떤 이(㉡)' 모두 화자나 글쓴이에게 삶의 허무함을 깨닫게 해 주고 있지 않다.

③ 헛짚기 ㉠은 화자가 호감을 지닌 대상이고, ㉡은 글쓴이가 반감을 지닌 대상이다.
'아무(㉠)'는 화자를 모함하여 화자를 갈등 상황에 놓이게 하는 존재이므로 화자가 호감을 지닌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어떤 이(㉡)'는 유배지에서 경제적 곤궁에 시달리는 글쓴이에게 말에 대해 신의를 지키는 데 연연하지 말고 굶주림을 면하라고 충고하는 존재일 뿐, 글쓴이가 반감을 지니고 있는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④ 범위 오류 ㉠은 화자의 판단을 존중하는 존재이고, ㉡은 글쓴이의 판단을 비판하는 존재이다.
'아무(㉠)'는 화자를 모함하는 말을 임금에게 하는 존재로, 화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볼 수 없다. '어떤 이(㉡)'는 연명할 곡식이 없음에도 미물인 말에게 신의를 지키려는 글쓴이에게 "당신의 신의는 고루하구려.", "당신은 우활한 사람이오."와 같이 말하는 것으로 보아, 글쓴이의 판단을 비판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197 답 ㄱ, ㄴ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ㄱ. ㉠과 달리 ㉡은 글쓴이에게 조언을 해 주고 있다.
'어떤 이(㉡)'는 글쓴이에게 소유의 가변성을 언급하며,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바꾸어 어려운 처지를 넘길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옛날 군자도 신의는 동물이 아닌 사람에게 지켰다고 조언을 해 주고 있다. 반면 '아무(㉠)'는 화자를 모함하는 존재로, 글쓴이에게 조언을 해 준다고 볼 수 없다.

ㄴ. ㉠과 ㉡ 모두 화자와 글쓴이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무(㉠)'는 임금과 나라를 위해 살아온 화자를 모함하여 유배지인 '추성 진호루'에 가게 했다는 점에서, '어떤 이(㉡)'는 소유와 신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여 글쓴이가 말을 팔아 소를 구하고 이를 통해 곡식을 얻게 했다는 점에서 각각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오·오·이

ㄷ. 범위 오류 ㉠은 화자를 부정적으로 대하는 반면, ㉡은 글쓴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아무(㉠)'는 임금에게 화자를 모함하는 말을 했다는 점에서, '어떤 이(㉡)'는 글쓴이에게 신의가 고루하다고 하거나 우활하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화자와 글쓴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8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제3수〉의 '그칠 뉘를 모르나다'와 〈제5수〉의 '임금 향한 뜻'은 화자의 굳은 지조를 나타낸다.
〈제3수〉의 '그칠 뉘를 모르나다'는 임(임금)을 향한 화자의 뜻이 시내의 흐름처럼 그치지 않는다는 의미로 화자의 굳은 지조를 나타낸다. 이는 〈제5수〉의 '임금 향한 뜻'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난다.

오·오·이

① 범위 오류 〈제1수〉의 '그 밧긔 여남은 일'과 〈제2수〉의 '내 일'은 화자가 신념에 의거하여 추구하려는 일에 해당한다.
〈제1수〉의 '그밧긔 여남은 일'은 화자가 닦고 닦는 '해 올 일', 〈제2수〉의 '내 일'과 반대되는 것으로 세속적 이익, 안위와 관련된 일을 의미한다. 〈제2수〉에서 화자가 자신이 잘못될 줄 알면서도 임을 위해 '내 일'을 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내 일'은 '그밧긔 여남은 일'과 달리 화자가 신념에 의거하여 추구하려는 일이라 할 수 있다.

② 헛짚기 〈제2수〉의 '이 마음 어리기도'와 〈제3수〉의 '내 뜻'에서는 순수한 본성의 회복을 바라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난다.
〈제2수〉의 '이 마음 어리기도'는 망령된 일인 줄 알면서도 임을 위해 '내 일'을 행한 것에 대해 어리석다고 표현한 것으로, 〈제3수〉의 '내 뜻'과 함께 임금을 향한 화자의 변함없는 충심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순수한 본성의 회복과는 관련이 없다.

④ 헛짚기 〈제3수〉의 '임 향한 내 뜻'과 〈제5수〉의 '불효인가 여기노라'는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다.

〈제3수〉의 '임 향한 내 뜻'과 〈제5수〉의 '불효인가 여기노라'는 모두 임금에 대한 화자의 충심을 드러낸 표현이다. 특히 〈제5수〉에서 화자는 충과 효가 다르지 않음을 언급함으로써 충심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⑤ 헛짚기 〈제4수〉의 '뫼'와 '물'은 ~~화자의 풍류적 태도~~를, '많고 많고 하고하고'는 ~~자연에 귀의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보여 준다.

〈제4수〉의 '뫼'와 '물'은 화자와 어버이 사이의 장애물을, '많고 많고 하고하고'는 멀리에 계신 어버이에 대한 화자의 깊은 그리움을 드러낸 것으로, 풍류적 태도나 자연에 귀의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니다.

199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풍속**: 옛날부터 그 사회에 전해 오는 생활 전반에 걸친 습관 따위를 이르는 말.
- **면할**: ① 어떤 일을 당하지 않게 될. ② 어떤 상태나 처지에서 벗어날.
- **면전**: 보고 있는 앞.

정·정·이

① 헛짚기 [A]와 〈보기 2〉에서는 모두 유배지의 풍속을 인용함으로써 ~~그곳 거주민들이 이민족의 영향을 받고 있음~~이 나타난다.

[A]에서는 말이 천하고 소가 귀한 변방에서 소를 남에게 빌려줌으로써, 〈보기 2〉에서는 소금이 귀하고 곡식이 많은 오랑캐 땅으로 가 소금을 매매함으로써 곡식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곳 거주민들이 생계를 도모하는 방법이자 풍속일 뿐, 그들이 이민족의 영향을 받는 정황을 나타낸 것이 아니다.

오·오·이

② [A]와 〈보기 2〉에는 글쓴이가 굶주림을 면할 수 있도록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조언하는 사람이 등장한다.

[A]에서는 말을 팔아 소를 얻고, 이 소를 남에게 빌려줌으로써 곡식 몇 섬을 얻을 수 있음을, 〈보기 2〉에서는 바닷가에서 소금을 사서 이 소금을 오랑캐에게 팔아 곡식을 사면 곡식을 몇 배로 불릴 수 있음을 글쓴이에게 조언해 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다.

③ [A]와 〈보기 2〉에는 글쓴이의 면전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불편함을 드러내는 아이종의 모습이 나온다.

[A]는 '짐을 풀어 놓자 주머니에 남은 것이 없어 아이종이 불만스러운 얼굴이었다.'에서, 〈보기 2〉는 '아이종이 성을 내었다.'에서 글쓴이의 면전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불편함을 드러내는 아이종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④ [A]에는 대화의 과정에서 동물에 대해 신의를 지키려는 글쓴이의 생각이 드러난다.

말을 팔아 소를 사서 남에게 빌려주면 곡식 몇 섬을 얻을 수 있다는 주민의 말에 대해 글쓴이가 "아니오. 내 걸음을 대신하고 ~ 차마 저버릴 수 있겠소?"라고 대답한 것에서 말에게 신의를 지키려는 글쓴이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보기 2〉에는 글쓴이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이종을 시켜 물건을 매매한 과정이 제시된다.

〈보기 2〉에는 주민의 말을 들은 글쓴이가 처음에는 주저하지만, 배에서 소리가 나고 아이종이 성을 내자 결국 아이종을 시켜 바닷가에서 소금을 사오게 한 뒤 그것을 가지고 북관으로 가서 소금을 팔아 곡식을 사 오게 한 과정이 제시되고 있다.

200 답 (1) 소, 소금 (2) 경제적, 신의 (3) 사대부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말, 소)을/를 빌려주고, (소금, 곡식)을 오랑캐 땅에 파는 것에서 유배지의 구체적인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보기 1〉에 따르면, 말을 팔아 얻은 소를 빌려주면 곡식을 얻을 수 있다는 [A]의 내용과, 바닷가의 싼 소금을 사다 소금이 귀한 오랑캐에게 팔면 곡식을 몇 배로 늘릴 수 있다는 〈보기 2〉의 내용은 모두 개인의 구체적인 생활상이 반영된 부분으로 유배지의 실상을 엿볼 수 있게 한다.

(2) 교체 글쓴이가 (사회적, 경제적) 문제로 불편함을 드러내는 아이종을 신경 쓰는 모습은 미물인 동물에게도 (신의, 실리)를 지키려는 인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99번-③의 해설을 참고할 때, 아이종이 경제적 문제로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글쓴이가 낮은 신분인 아이종에게 신경을 쓰는 모습은 미물인 말에게 받은 도움을 저버리지 않으려는 인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3) 교체 부령 주민에게 굶주림을 면할 방법을 들은 글쓴이는 (장사꾼, 사대부)(으)로서의 가치관 때문에 이를 실행하기를 주저하고 있다.

[A]와 〈보기 2〉에서 글쓴이는 부령 주민으로부터 굶주림을 면할 방법을 듣는다. 그러나 [A]에서는 신의를 중시하여 말을 팔고 소를 사기를 주저하였고, 〈보기 2〉에서는 장사꾼이 하는 일이라며 바닷가에서 싸게 사온 소금으로 오랑캐에게 곡식을 사 오기를 한참 동안 주저하였다. 이로 보아 글쓴이가 굶주림을 면할 방법을 선뜻 실행하지 못한 것은 사대부로서의 가치관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201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화자 오류 ⓓ에서는 ~~글쓴이의 신분이 사대부에서 상인 계층으로 바뀐 것에 대한 한탄~~과 자기 비하가 나타나고 있다.

〈보기〉에서 유배지의 곤궁한 생활이 심할수록 작가가 자신을 비하하는 태도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에서 글쓴이가 자신이 장사꾼처럼 행동했다며 신세를 한탄한 것은 이와 관련된 자기 비하의 태도로 볼 수 있다. 글쓴이가 자신의 신분이 사대부에서 상인으로 바뀐 것을 한탄한 것이 아니다.

오·오·이

① ⓐ는 화자가 '뫼'와 '물'의 속성을 통해 자신이 유배지에 격리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는 길게 뻗은 산과 멀리 흐르는 물의 속성을 강조함으로써 어버이와 멀리 떨어져 유배지에 격리되어 있는 화자의 처지를 나타내고 있다.

② ⓑ는 화자가 '외기러기'를 통해 유배지에서 외롭게 가족을 그리워하는 심정을 보여 주고 있다.

ⓑ에서 울고 가는 '외기러기'는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화자의 감정이 투영된 대상으로, 유배지에서 외롭게 가족을 그리워하는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③ ⓒ는 연군의 정이 하늘의 뜻임을 밝혀 충신연주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의 '임금 향한 뜻'은 연군의 정을 의미하는 말로, 이 또한 하늘이 생기게 하였다고 말함으로써 화자의 충신연주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⑤ ⓔ에는 곤궁한 상황 속에서 한 행동에 대한 글쓴이의 자책이 담겨 있다.

ⓔ에서 글쓴이는 곤궁한 상황 속에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해 말을 팔아 소를 구하고, 소를 빌려주어 곡식을 얻은 것에 대해 실리를 추구하느라 신의를 저버렸다고 생각하며 자책하고 있다.

27 가 월선헌십육경가 나 어촌기

작품 분석 본문 104~107쪽

가 월선헌십육경가

작가 신계영

갈래 가사

주제 자연을 즐기며 살아가는 전원생활의 즐거움

특징 ① 벼슬에서 물러나 자연 속에서 누리는 삶의 즐거움을 노래함.
② 전원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는 한편, 임금을 그리워하며 은혜에 감사하는 연군의 정서도 나타냄.
③ 비유법, 설의법, 영탄법 등을 활용하여 주제를 형상화함.

한 줄 의미

❶ 전원생활의 (**풍요로움**)과 즐거움

❷ 전원생활의 즐거움과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

나 어촌기

작가 권근

갈래 고전 수필, 기

주제 강호에 머물며 자유롭게 사는 삶의 즐거움

특징 ① 인물의 말을 인용하여 삶의 방향성과 가치관을 제시함.
② 어부의 즐거움을 열거하고, 대조를 통해 삶의 만족감을 나타냄.
③ 대구법, 직유법, 설의법 등을 통해 주제를 드러냄.

한 줄 요약

❶ (**공백공**)에 대한 소개

❷ 공백공의 말 ① – 즐거운 (**어부**)의 삶

❸ 공백공의 말 ② – 벼슬을 하면서도 (**강호**)에 뜻을 두는 이유

❹ 글을 쓴 (**동기**)

202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청아한**: 속된 티가 없이 맑고 아름다운.
- **운치**: 고상하고 우아한 멋.

정·정·이

② 범위 오류 ㉡에는 한가로운 자연 속 흥취가, ㉦에는 ~~고독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나타난다.

㉡은 돛단배에서 어부가 노를 저으면서 부르는 노랫소리가 고기 파는 장사처럼 느껴진다는 뜻으로, 이에 대해 화자가 경치도 좋고 생활도 괴롭지 않다고 한 것으로 보아, 한가로운 자연 속 흥취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은 조류가 가는 대로 배를 맡겨 두고 경치를 완상하는 어부의 즐거움을 제시한 것으로, 여기에 삶의 고독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나타난다고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에는 전원에서의 생활상이, ㉥에는 자연과 동화되는 삶이 나타난다.

㉠은 게를 잡는 아이들이 그물을 흩어 놓고 있는 모습으로

전원생활의 모습이 나타난다. ㉥은 공백공이 갈매기와 백로를 벗으로 여기며 아이와 어른들을 데리고 자연을 즐기는 모습으로 자연과 동화되는 삶이 나타난다.

③ ㉢에는 자연 현상에서 연상된 그리움의 대상이, ㉦에는 배의 움직임에 따른 청아한 풍경이 나타난다.

㉢은 띠로 지붕을 이은 누추한 집에 비친 달빛과 임금이 계신 옥루에 비친 달빛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의미로, 달빛에서 그리움의 대상인 임금을 연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에는 달이 뜬 밤에 배가 물결을 헤치며 움직임에 따라 보이는 청아한 풍경이 나타난다.

④ ㉣에는 운치 있는 풍류의 상황이, ㉧에는 자연에서 누리는 흥겨운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

㉣은 술을 마시기 위해 잔을 기울이는 모습으로,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는 운치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은 공백공이 구운 고기와 생선회를 먹고 술을 마시는 모습으로, 자연에서 누리는 흥겨운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

⑤ ㉤에는 변화하는 자연에서 얻는 즐거움이, ㉦에는 생동감 넘치는 자연에서 느끼는 만족감이 나타난다.

㉤은 춘하추동, 낮과 밤, 아침과 저녁의 풍경이 아름답고 새로워 몸은 한가하지만 귀와 눈은 한가할 겨를이 없다는 뜻으로, 변화하는 자연을 완상하는 즐거움이 나타난다. ㉦에서 공백공을 기쁘게 하는 대상은 제멋대로 뛰는 물고기로, 생동감 넘치는 자연에서 느끼는 만족감이 나타난다.

203 답 (1) ○ (2)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가)의 화자와 (나)의 '공백공'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한가로운 흥취를 즐길 줄 안다. (○, ×)

(가)의 화자는 자연 속에서 술을 마시며 세속을 벗어난 흥취를 느끼며 시름없이 누워 종일 취하기를 바라고 있고, (나)의 '공백공' 역시 조류에 배를 맡겨 두고 술을 마시며 만족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2) 교체 (나)의 '공백공'은 (가)의 화자와 달리 생계를 위해 고기잡이를 하는 어부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 ×)

(가)의 화자는 돛단배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를 고기 파는 장사처럼 느끼며 그 풍경을 좋게 여기고 있으므로, 생계를 위해 고기잡이 하는 어부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나)의 '공백공'은 "빈궁하여 고기잡이를 하는 자"는 구차하게 이익을 계산한다며 생계를 위해 고기잡이를 하는 어부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204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미련**: 깨끗이 잊지 못하고 끌리는 데가 남아 있는 마음.
- **폐단**: 어떤 일이나 행동에서 나타나는 옳지 못한 경향이나 해로운 현상.

정·정·이

④ ⓐ는 '내'가 '강호'에서의 은거를 긍정하지만 정치 현실에 미련이 있음을, ⓑ는 '공백공'이 정치 현실에 몸담고 있지만 '강호'에 은거하려는 지향을 나타낸다.

ⓐ는 '강호 어조'에게 한, 자연에서 은거하겠다는 맹세가 깊은데 '옥당 금마', 즉 관직 생활에 대한 꿈이 섞여 있다는 뜻으로, 강호에서의 삶에 만족하면서도 정치 현실에 미련이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는 "몸은 벼슬을 하면서도 뜻은 강호에 두어"에서 정치 현실에 몸담고 있지만 '강호'에 은거하려는 지향이 드러난다.

오·오·이

① 화자 오류 ⓐ는 '내'가 ~~세력 다툼에서 밀려난 것에 대한 한탄~~을, ⓑ는 '공백공'의 ~~권세와 '강호'에 대한 소유욕~~을 나타낸다.

(가)에는 '내'가 세력 다툼에서 밀려나 '강호'에 은거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 이에 대한 한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 (나)에서 '공백공'은 성공과 실패는 운명에 맡기고 물욕 밖에서 방랑한다고 하였으므로, ⓑ가 권세와 '강호'에 대한 소유욕을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

② 화자 오류 ⓐ는 '내'가 ~~정치 현실로 복귀하려는 의지~~를, ⓑ는 '공백공'이 ~~정치 현실에서 잃은 신뢰를 회복하려는 소망~~을 나타낸다.

ⓐ에서 화자는 정치 현실에 미련을 보인 것일 뿐, 정치 현실로 복귀하려는 의지를 나타내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나)의 1문단에서 사람들이 '공백공'에게 원대한 기대를 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공백공'이 정치 현실에서 신뢰를 잃었다고 볼 수 없으며, ⓑ에 신뢰의 회복을 소망하는 내용이 나타난다고도 볼 수 없다.

③ 화자 오류 ⓐ는 '내'가 ~~'정치 현실의 모순을 해소하려는 자세~~를, ⓑ는 '공백공'이 ~~정치 현실과 갈등하여 도피하려는 자세~~를 나타낸다.

ⓐ는 화자에게 정치 현실에 미련이 있음을 보여 줄 뿐, 정치 현실의 모순을 해소하려는 자세를 나타내지 않는다. 그리고 ⓑ는 (나)의 1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공백공'이 높은 벼슬에 올라 사람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 현실과 갈등하여 도피하려는 자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

⑤ 화자 오류 ⓐ는 '내'가 ~~'강호'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 정치 현실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태도를, ⓑ는 '공백공'이 ~~정치 현실의 폐단을 없앤 뒤~~ '강호'에 돌아오려는 의지를 나타낸다.

ⓐ는 화자가 정치 현실에 미련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낸 것일 뿐, 화자는 자신이 새로운 나라를 세워 이상을 실현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 역시 강호에서의 삶에 대한 희망을 나타낼 뿐, '공백공'이 정치 현실의 폐단을 없애고자 한다고 볼 만한 근거는 (나)에 나와 있지 않다.

205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시간에 따른 공간의 다채로운 모습을 제시하며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해가 지고 ~ 노래를 부른다.", "밤이 깊어 ~ 차갑고도 슬프다.", "여름날 뜨거운 햇빛에 ~ 즐거움은 없는 때가 없다." 등에서 낮과 저녁, 깊은 밤, 그리고 여름과 겨울의 강물의 풍경을 제시하면서 자연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② 부재 ~~장대의 말과 행동이 불일치함을 언급하여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고 있다.

'공백공'은 자신의 뜻이 어부에 있다고 말한 후 자연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낼 뿐, '나'의 말과 행동이 불일치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를 통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고 있지도 않다.

③ 부재 ~~장대에 대해 심리적 거리감을 느껴 자신의 생각 표현을 자제~~하고 있다.

'공백공'은 강 풍경을 즐기는 것에 대해 "넉넉히 눈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한다.", "어부의 즐거움은 없는 때가 없다", "우수수 하는 소리가 차갑고도 슬프다." 등과 같이 느낌을 직접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공백공'이 '나'에게 심리적 거리감을 느껴 생각 표현을 자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부재 ~~질문에 답변하며 현실에 대처하는 자신의 태도를 밝히고~~ 있다.

'공백공'은 '나'에게 "그대는 어부의 즐거움을 아는가.",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와 같이 질문하며 강호에서의 삶에 대해 말하고 있을 뿐이다. '나'가 '공백공'에게 질문을 하고 있지 않으며, '공백공'이 질문에 답하며 현실에 대처하는 자신의 태도를 밝힌 것도 아니다.

⑤ 헛짚기 대상과 관련된 행위를 열거하며 자신의 ~~무력감을 깨닫고~~ 있다.

'공백공'은 낚싯대를 잡고, 배를 노 저어 조류에 몸을 맡기며, 고기와 생선회를 먹으며 술을 마시고, 배에 기대어 노래를 부르는 등 자연을 즐기는 행위들을 열거하며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낼 뿐, 무력감을 깨닫고 있지는 않다.

206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헛짚기 '나'는 고사를 통해 ~~'공백공'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나)의 '나'가 1문단에서 '증자'가 상송을 노래했던 옛일을 언급한 것은 「어부사」를 노래하는 '공백공'의 음성이 맑고 밝아 듣는 사람을 멀리 강호에 있는 것 같게 만든다는 것을 전하기 위함이지, '공백공'에게 사람들이 원대한 기대를 지니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 아니다.

오·오·이

① '나'는 '공백공'의 성격을 직접 제시하고 있다.

(나)의 '풍채와 인품이 소탈하고 명랑하여 사랑할 만하다.'에서 '공백공'의 성격이 직접 제시되고 있다.

③ '공백공'은 저녁과 밤, 여름과 겨울에 따라 달라지는 어촌 풍경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05번-①의 해설을 참고할 때, 시간과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어촌 풍경을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배의 지붕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우수수 하는 소리가 차갑고도 슬프다."와 같이 청각적·촉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7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대조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 세속적인 가치에 매달리지 않는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공백공'은 "영달에 얽매여 벼슬하는 자"와 "빈궁하여 고기잡이를 하는 자"는 영화에 매달리고, 구차하게 이익을 계산하는 반면, 자신은 스스로 유유자적을 즐기고, 운명에 순응하며 물욕 밖에서 방랑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대조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 세속적인 가치에 매달리지 않는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반어적 표현~~을 통해 공명을 좇는 이들과 자신이 다름을 강조하고 있다.

'공백공'은 "저 영달에 얽매여 벼슬하는 자는 ~ 함정에 빠지는 자와 같겠는가."에서 반어적 표현이 아닌 대조법과 설의법 등을 활용하여 공명을 좇는 이들과 자신이 다름을

강조하고 있다.

② 헛짚기 과거의 성현들을 언급하며 높은 경지에 다다르고 싶은 내면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공백공'은 강태공이 주 문왕을 만난 것과 같은 만남을 기약하거나 엄자릉과 같은 깨끗함을 바랄 수는 없다고 하며 과거의 성현들을 언급하고는 있으나, 높은 경지에 다다르고 싶은 내면 심리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③ 헛짚기 다양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계절이 바뀌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다.

배를 타고 가는 것을 "성사를 타고 하늘에 오르는 것"에 비유하거나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금빛 같은 비늘과 옥같이 흰 꼬리의 물고기"라고 한 것에서 비유적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연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공백공'의 만족감을 드러낼 뿐, 계절이 바뀌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지 않다.

⑤ 헛짚기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부귀영화를 모두 내려놓고 자연 속에 은거한 현재 상황을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다.

205번-①의 해설을 참고할 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풍경의 변화를 다채롭게 묘사함으로써 자연 속에 은거한 삶을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백공'이 "몸은 벼슬을 하면서도 뜻은 강호에 두"었다는 것으로 보아, 부귀영화를 모두 내려놓고 자연 속에 은거한 상황이라고는 볼 수 없다.

208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헛짚기 작가가 벗을 '아우'로 삼고 있다는 것을 통해 벗이 추구하는 삶의 자세가 작가로부터 전해 받은 것임을 알 수 있군.

작가가 공백공을 '아우'라고 하는 이유는 생일이 뒤이기 때문으로, 이는 공백공과 작가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그리고 작가가 공백공의 말을 듣고 기록한 후 자신의 삶도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으로 보아, 오히려 작가가 공백공이 추구하는 삶의 자세를 전해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오·오·이

① 벗이 '영화'와 '이익'을 중시하는 삶을 거부한다는 것을 통해 벗의 가치관을 알 수 있군.

"영달에 얽매어 벼슬하는 자"와 "빈궁하여 고기잡이를 하는 자"와 달리 공백공은 성공과 실패를 운명에 맡기고 부귀와 공명을 가볍게 여겨 세상의 물욕 밖에서 방랑한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공백공이 영화와 이익을 중시하는 삶을 거부하며, 강호에 뜻을 둔 삶에 가치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작가가 벗의 말을 '즐거워하며' 자신도 살피려 하는 것을 통해 작가는 벗의 생각에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작가가 공백공의 말을 듣고 즐거워하며 그대로 기록하고, 자신도 살피고자 한다는 것으로 보아, 작가가 공백공의 생각에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벗이 '강태공'과 '엄자릉'을 들어 '내가 감히'라는 말을 언급한 것을 통해 그들의 삶에 미치지 못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벗의 겸손한 성품을 알 수 있군.

공백공은 강태공이 성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강태공과 주 문왕이 만난 것과 같은 만남을 기약할 수 없으며, 엄자릉은 현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엄자릉의 깨끗함을 바랄 수는 없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공백공이 겸손한 성품을 지닌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⑤ 작가가 벗이 '대과에 급제'하여 기대를 받고 있는데도 '마음에 사욕이 없'다고 평한 것을 통해 벗의 말이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김을 알 수 있군.

작가는 공백공이 '풍채와 인품이 소탈하고 명랑하여 사랑할 만하'고, 대과에 급제하여 좋은 벼슬에 올라 나라의 옥새를 주관하는 관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사욕이 없어 사물에 초탈한 인물이라고 하였다. 공백공에 대한 이러한 평가로 보아, 작가가 공백공의 말을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9 답 (1) 삶의 방향성 (2) 유유자적 (3) 일치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공백공'이 '어촌'을 자호로 삼은 것은 그의 (삶의 방향성, 출생지)와/과 관련된다.

(나)의 '공백공'은 "강호의 취미"를 지니고 있으며, "나의 뜻은 어부에 있다."라고 하였다. 이로 보아 '어촌'을 자호로 삼은 것은 그가 강호에서의 삶을 지향함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상반 작가는 벗인 '공백공'이 (이익, 유유자적)을 추구하는 성품을 지닌 것을 알고 있다.

작가는 "저 영달에 얽매여 벼슬하는 자는 구차하게 영화에 매달리지만 ~ 나는 스스로 유유자적을 즐긴다."라고 한 '공백공'의 말을 듣고 이 글을 기록한 것이므로, '공백공'이 유유자적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임을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상반 작가가 벗인 '공백공'이 한 말을 기록한 것은 그의 가치관이 '공백공'의 것과 (일치, 불일치)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작가는 공백공의 말을 듣고 즐거워하며 그대로 기록하고 이를 통해 자신도 살피고자 하고 있으므로, 작가 역시 '공백공'과 일치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10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헛짚기 전원생활의 여유를 즐기면서도 ~~생업의 현장에서 느끼는 고단~~함을 '생리라 괴로오랴'와 같은 설의적인 표현으로 드러냈군.

화자는 누렇게 곡식이 익은 들판('만경 황운')과 게를 잡는 아이들, 애내성 등을 통해 가을날 전원생활의 풍요로움과 여유로움을 제시하고, 생활도 괴롭지 않음을 설의적인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를 생업의 현장에서 느끼는 고단함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전원생활에서 목격한 풍요로운 결실을 '만경 황운'에 비유해 드러냈군.

③ 전원생활의 풍족함을 여문 '블근 게'와 살진 '눌은 돍'과 같이 색채 이미지에 담아 드러냈군.

(가)가 생활 현장에서 볼 수 있는 풍요로운 결실을 노래했다는 〈보기〉의 내용을 고려할 때, 넓은 들판에 벼가 누렇게 익은 모습을 빗댄 말인 '만경 황운'은 전원생활에서 목격한 풍요로운 결실이라 할 수 있다(①). 그리고 붉은 게가 여물고 노란 닭이 살쪘다는 표현 역시 가을을 맞이한 전원의 풍족함을 색채 이미지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③).

② 전원생활 가운데 느끼는 여유를 '내노리 ᄒᆞ쟈스라'와 같은 청유형 표현을 통해 드러냈군.

(가)가 자연에서의 유유자적한 삶을 읊었다는 〈보기〉의 내용을 고려할 때, '내노리 ᄒᆞ쟈스라'는 청유형 표현으로 가을날 전원생활의 여유로움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전원생활에서의 현장감을 '밤블이 ᄇᆞᆯ가시니'와 '아젹믈이 미러오니'와 같은 묘사를 활용해 드러냈군.

(가)가 생업의 현장에서 느끼는 정서를 현장감 있게 노래했다는 〈보기〉의 내용을 고려할 때, 밝은 '밤블' 속에서 게를 잡는 아이들의 모습과 밀물이 밀려오는 호두포의 모습은 가을날 전원생활을 현장감 있게 묘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11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교체 화자가 '촌주 강어로 장일취'하기를 '원ᄒᆞ'는 것은 ~~생업의 현장~~ 자연에서의 유유자적한 삶에서 느끼는 정서와 관련이 깊다.

'촌주 강어로 장일취'하겠다는 것은 계속해서 자연을 즐기고 싶다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보기〉에 따르면 생업의 현장이 아닌, 자연에서의 유유자적한 삶과 관련된 정서라 할 수 있다.

오·오·이

① '너븐 들'이 '만경 황운'이 되는 모습은 월선헌 주변의 16경관 중 하나에 속한다.

〈보기〉에서 (가)는 월선헌 주변의 16경관을 그린 작품이라 하였다. 따라서 '너븐 들'이 '만경 황운'이 된 것은 중양절이 다가오는 때에 논의 벼가 익어 가는 월선헌 주변의 가을 풍경을 묘사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② 화자가 '돗ᄃᆞᆫ빗 애내성'을 '고기 ᄑᆞᄂᆞᆫ 댱ᄉᆡ'로 느낀 것은 전원을 현실적 생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화자는 돛단배에서 들려오는 어부의 노랫소리를 생계를 이어 가기 위해 장사를 하는 행위로 느끼고 있다. 이는 〈보기〉에 따르면 (가)가 자연에서의 유유자적한 삶을 읊으면서도 현실적 생활 공간으로서의 전원에 새롭게 관심을 두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③ '이적선'이 'ᄃᆞᆯ을 보고 밋치닷다'는 고사를 통해 자연 속에서 화자가 느낀 흥겨움을 강조한다.

달빛 따라 잔을 기울여 술을 마신 (가)의 화자는 흥겨움을 느끼며 날 것만 같다고 말하고 있다. 이어서 이태백이 이러한 연유로 달을 보고 미쳤나 보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 당나라의 시인 이태백이 술을 마시고 강가에 비친 달을 잡으려다 물에 빠졌다는 고사에 비추어 자연 속에서 화자가 느낀 흥겨움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화자가 '귀 눈은 겨ᄅᆞᆯ 업다'고 한 것은 자연 풍경을 즐기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낸다.

202번-⑤의 해설을 참고할 때, '귀 눈은 겨ᄅᆞᆯ 업다'는 것은 아름답고 새로운 자연의 풍경을 즐기느라 여유가 없다는 뜻으로, 자연 풍경을 즐기는 것에 대한 화자의 만족감을 나타낸 것임을 알 수 있다.

28 가 낙빈가(樂貧歌) 나 규정기(葵亭記)

작품 분석 본문 108~111쪽

가 낙빈가(樂貧歌)

작가 미상
갈래 가사
주제 자연에서 은거하며 안빈낙도, 안분지족하는 삶
특징 ① 자연을 감각적으로 묘사함.
② 설의법과 대구법, 고사의 인용 등을 통해 표현의 효과를 높임.
③ 대조적 의미의 시어를 활용하여 화자가 추구하는 삶을 나타냄.

한 줄 의미

❶ (**자연**)에 은거하게 된 계기와 소감
❷ 아름다운 풍경과 (**낚시**)하며 즐기는 자연
❸ 자연에서 (**소박(담박)**)하게 사는 무욕의 삶

나 규정기(葵亭記)

작가 조위
갈래 고전 수필, 기
주제 해바라기로 정자의 이름을 지은 의미
특징 ① 문답 형식을 통해 내용을 전개하고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의미를 강조함.
② 해바라기와 동일시하여 글쓴이의 처지와 충성심을 나타냄.

한 줄 요약

❶ '나'가 (**해바라기**)를 보고 정자 이름을 '규정'이라 지음.
❷ 손님이 보잘것없는 (**해바라기**)로 정자 이름을 지은 이유를 물음.
❸ '나'가 해바라기가 자신의 처지에 어울리며 (**충성**)과 (**지혜**)의 덕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함.

212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언어유희**: 동음이의어를 활용하거나 각운을 맞추거나, 도치법으로 문장의 앞뒤를 바꾸는 등의 말장난을 활용하여 재미를 끌어내는 말의 표현.

정·정·이

③ 설의적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가)는 '분별이 없어거니 시름인들 있을소냐', '중점 영귀야 이에서 더할소냐', '어느 벗이 찾아오리' 등에서 설의적 표현을 통해 자연에 은거하며 사는 삶의 의미와 만족감이 강조됨을 알 수 있다. (나)는 "내가 소나무나 ~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두 가지의 아름다움이 ~ 천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해바라기로 나의 ~ 근거도 없다 하겠습니까?" 등에서 설의적 표현을 통해 해바라기로 정자의 이름을 지은 의미가 강조됨을 알 수 있다.

오·오·이

① 부재 ~~역설적 표현~~을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 역설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② 부재 ~~언어유희를 통해 대상의 속성을 희화화~~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에 언어유희가 나타나지 않으며, 대상의 속성을 희화화하고 있지도 않다.

④ 부재 ~~부르는 말의 반복을 통해 대상과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가)와 (나) 모두 부르는 말이 반복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로 인해 대상의 친밀감이 드러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나)는 글쓴이가 해바라기를 유배된 자신의 처지와 어울린다고 생각하여 정자 이름으로 삼은 것에서 해바라기에 대한 친밀감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⑤ 부재 ~~명령적 어조를 통해 대상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가)와 (나) 모두 명령적 어조가 나타나지 않으며, 대상에 대한 비판적 태도도 드러나고 있지 않다.

213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가)는 (나)와 달리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루의 일과를 제시하고 있다. (○, ×)
(가)에서는 아침에 캐 온 취를 점심에 다 먹고 노닐다가, 저녁 낚시를 한 후 해질 무렵에 돌아오는 하루의 일과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되고 있다.

(2) 범위 오류 (가)와 ~~(나) 모두~~ 고사를 인용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
(가)의 '서호 매학'과 '중점 영귀', '기산 영천에 소허'는 부귀공명 등과 거리가 먼 행적을 보였던 인물들과 관련된 고사를 인용한 것으로 자연을 즐기며 소박하게 지내는 삶에 대한 만족감 등을 드러낸다. 한편 (나)의 '심휴문', '사마군실'은 '나'가 읽은 시의 작가들로, 고사를 인용한 것이 아니다.

(3) (가)와 (나) 모두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시적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
(가)는 '무심한 구름', '유의한 갈매기' 등에서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자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나)는 '나'가 귀양지에서 천대받는 형편에 대해 "식물도 나를 서먹서먹하게 내"친다고 하거나, 해바라기에 대해 "분수를 지킬 줄" 안다고 인격을 부여함으로써 정자 이름을 해바라기로 삼은 이유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14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범위 오류 (가)는 ~~전경후정의 방식~~을 통해, (나)는 문답의 형식을 통해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가)는 화자가 자연에 은거하게 된 계기와 소감이 제시된 후 자연 풍경이 묘사되고 있으므로, 선경후정의 방식이 쓰였다고 볼 수 없다. (나)는 정자의 이름을 해바라기로 지은 이유를 손님이 묻고 '나'가 답하는 형식을 통해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오·오·이

① (가)는 자연에 묻혀 사는 한가로운 모습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가)는 화자가 저녁 낚시를 하러 가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들려오는 피리 소리에 「어부사」로 화답하는 모습을 청각적으로 나타냄으로써 자연에 묻혀 사는 한가로운 모습을 드러낸다.

② (나)는 의문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행동의 이유를 강조하고 있다.

212번-③의 해설을 참고할 때, 적절함을 알 수 있다.

③ (가)와 (나) 모두 서로 대비되는 대상을 제시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

(가)의 '빈천', '서호 매학', '증점 영귀', '소허' 등은 세속적 가치를 나타내는 '부귀', '천사', '만종' 등과 대비되는 것으로, 화자가 추구하는 안빈낙도의 삶을 강조한다. (나)의 '해바라기'는 '소나무, 대나무, 매화, 국화, 난초, 혜초'와 대비되는 식물로, 보잘것없으나 충심과 지혜를 지닌다는 점에서 화자의 가치관을 강조한다.

④ (가)는 대구법을 통해 화자의 상황을, (나)는 비유법을 통해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가)는 '부귀를 하직하고 빈천을 낙을 삼아', '삼순구식을 ~ 못 쓰거나' 등에서 대구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빈곤한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나)는 '해바라기'와 '소나무, 대나무, 매화, 국화, 난초, 혜초'를 사람에 빗대어 전자의 보잘것없음을, 후자의 울연한 명성과 덕망을 드러내고 있다.

215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은 '성상'에 대한 감사를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은 '임금님'에 대한 감사를 표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가)의 '내(㉠)'는 '성상'이 자신을 버리신 후에 자연에서 사는 것에 만족할 뿐, '성상'에 대한 감사를 표면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나)의 '나(㉡)'는 "자고 먹고 하는 것이 임금님의 은혜가 아님이 없습니다."에서 '임금님'에 대한 감사를 표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① 화자 오류 ㉠은 '성상'과의, ㉡은 '임금님'과의 ~~갈등 해소를 통해 가치관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가)의 '내(㉠)'가 쓸데없어져서 '성상'이 버렸다는 것은 벼슬길에서 물러난 상황을 나타낸 말이다. 이 표현만으로는 '내(㉠)'가 '성상'과 갈등을 겪었는지는 알 수 없으며, '내(㉠)'의 가치관이 변했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 (나)에서 '나(㉡)'는 의주로 귀양을 와 있는 상황이므로, '임금님'과의 갈등이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의 가치관이 변했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

② 화자 오류 ㉠은 '성상'의, ㉡은 '임금님'의 ~~입장 변화로 인해 현재 상황에 대한 불안함을 드러내고~~ 있다.

(가)와 (나) 모두 '성상'과 '임금님'의 입장 변화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가)의 '내(㉠)'와 (나)의 '나(㉡)'가 이로 인해 현재 상황에 대한 불안함을 드러낸다고 볼 수 없다.

③ 화자 오류 ㉠은 '성상'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은 '임금님'에게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고~~ 있다.

(가)에는 '내(㉠)'가 자연 풍경을 즐기며 소박하게 사는 삶이 드러날 뿐, '성상'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나)에서 '나(㉡)'는 '임금님'의 은혜로 귀양살이 중에도 자고 먹고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감사할 뿐, '임금님'에게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고 있지 않다.

⑤ 화자 오류 ㉠은 ~~일반적인 통념을 바탕으로 '성상'을 비난하지만~~, ㉡은 ~~'임금님'의 생각을 바탕으로 다른 이들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가)에서 '내(㉠)'가 일반적인 통념을 바탕으로 '성상'을 비난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나)에서도 '나(㉡)'가 '임금님'의 생각을 바탕으로 다른 이들의 태도를 비판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216 답 ㄱ, ㄷ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ㄱ. ㉠은 '천사'와 '만종'을 하찮게 여기고 있다.

(가)의 '내(㉠)'는 부귀공명을 멀리한 소허의 몸이 되어 화려하고 호화로운 시정에서의 생활인 '천사'를 비웃고, '만종'을 하찮게 여기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ㄷ. ㉠은 자연에 묻혀 사는 삶에, ㉡은 해바라기를 정자의 이름으로 삼은 것에 만족하고 있다.

(가)의 '내(㉠)'는 '산수 간'에 집을 짓고 걱정과 시름없이 한가롭게 지내는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나(㉡)'는 보잘것없는 식물인 해바라기로 정자의 이름을 지은 이유를 묻는 손님에게 해바라기가 귀양을 와 있는 자신의 처

지에 어울리고, 충성과 지혜의 덕목을 지니기 때문이라고 답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지은 이름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만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오·이

ㄴ. 화자 오류 ㉡은 ~~손님에게 귀양살이의 어려움을 한탄하고~~ 있다.

(나)의 "내가 지금 황량하고 머나먼 적막한 바닷가로 쫓겨나서 ~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는 해바라기로 정자의 이름을 지은 이유를 손님에게 설명하기 위해 자신의 처지를 설명한 것일 뿐, 귀양살이의 어려움을 한탄한 것이 아니다.

217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은 '성상'이 결정한 일에 대한 근거를 자신에게서, ㉡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이유를 '임금님'에게서 찾고 있다.

(가)의 '내(㉠)'는 '성상'이 자신을 버린 이유를 자신이 쓸데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성상'이 결정한 일에 대한 근거를 자신에게서 찾고 있다. (나)의 '나(㉡)'는 귀양살이 중에도 자고 먹고 하는 것은 '임금님'의 은혜 덕분이라고 말하며 현재의 생활을 이어 갈 수 있는 이유를 '임금님'에게서 찾고 있다.

오·오·이

① 화자 오류 ㉠은 '성상'에게, ㉡은 '임금님'에게 ~~한을 토로하고~~ 있다.

② 화자 오류 ㉠은 '성상'에게, ㉡은 '임금님'에게 ~~장황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가)의 '내(㉠)'는 욕심 없이 소박하게 사는 삶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나)의 '나(㉡)'는 귀양지에서 지내는 집이 낮고 좁아서 덥고 답답하지만, 임금님의 은혜 덕분에 자고 먹고 한다며 감사해하고 있다. 따라서 ㉠과 ㉡은 모두 한을 토로하고 있지 않으며(①), 현재 상황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도 않다(②).

③ 화자 오류 ㉠은 '성상'의, ㉡은 '임금님'의 ~~삶의 태도를 본받고 따르고자 하고~~ 있다.

(가)의 '내(㉠)'는 자연에서의 소박한 삶의 태도를 보이고, (나)의 '나(㉡)'는 '임금님'에 대한 충심을 드러내고 있을 뿐, 모두 '성상' 및 '임금님'의 삶의 태도를 본받고 따르고자 하고 있지 않다.

④ 범위 오류 ㉠은 ~~'성상'에 대한 그리움을~~, ㉡은 '임금님'에 대한 충심을 드러내고 있다.

(가)의 '내(㉠)'는 자연에 은거하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낼 뿐, '성상'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반면 (나)의 '나(㉡)'는 "자고 먹고 하는 것이 임금님의 은혜" 덕분이라 생각하고, 시를 읊을 때마다 '해(임금님)'를 향하는 마음을 스스로 그칠 수 없다는 것으로 보아 '임금님'에 대한 충심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218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냉소**: 쌀쌀한 태도로 비웃음. 또는 그런 웃음.

정·정·이

⑤ 화자 오류 '소허의 몸'이 되어 '천사를 냉소'하는 것에서 ~~자신의 뜻을 속세에서 알아주기 바라는~~ 화자의 태도를 짐작할 수 있군.

(가)에서 화자가 부귀공명을 멀리했던 인물들인 소부와 허유의 몸이 되어 화려하고 호화로운 시정에서의 생활을 냉소한다는 것은 자신의 뜻을 알아주지 않는 속세를 떠나 자연에서 살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화자가 이러한 자신의 뜻을 속세에서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다.

오·오·이

① '이 몸이 쓸듸업셔' 버림받았다는 것에서 정치 현실을 떠난 화자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군.

(가)의 '이 몸이 쓸듸업셔 ~ 부귀를 하직하고'에서 화자가 정치 현실을 떠난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② '산수 간'에서 '만사를 다 잊'은 채 '한가'하게 지내는 것에서 세속적 가치에 구애받지 않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가)에서 화자는 '빈천을 낙을 삼아', '일간 모옥을 산수 간'에 지어 살면서 걱정과 시름없이, 만사를 다 잊고 한가하게 산다고 하였다. 또한 많은 녹봉('만종')이 지푸라기처럼 느껴진다고 하는 것에서도 세속적 가치에 구애받지 않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여기'가 '무릉'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자연으로 돌아온 화자의 만족감을 짐작할 수 있군.

(가)의 '삼산이 어드메요 무릉이 여기로다'에서 화자는 현재 자신이 있는 '여기'를 이상적 공간인 '무릉'으로 표현함으로써 자연에 돌아와 지내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④ '아침에 캐 온 취'를 먹으며 '일없이 노닐'고 있는 것에서 소박한 삶을 살아가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가)에서 화자가 아침에 캐 온 취나물을 점심에 다 먹은 후 '일없이 노닐'고 있는 모습은, 자연에서의 소박한 삶을 보여 주고 있다.

정·오 지름길

⑤ '소허의 몸'이 되어 '천사를 냉소'하는 것에서 자신의 뜻을 속세에서 알아주기 바라는 화자의 태도를 짐작할 수 있군.

고전 시가는 고사를 인용한 표현이 많이 나와서 어휘의 뜻을 알아야 내용이 이해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⑤는 '소허'가 부귀공명을 멀리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정오를 판단할 수 있어요. 작품을 이해하는 데에 꼭 필요한 어휘는 지문 아래에 뜻풀이가 제시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자주 나오는 고사에 대해 미리 정리해 두면 낯설거나 새로운 고전 시가 작품을 읽을 때 도움이 돼요.

219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화자 오류 '어느 벗이 찾아오리'에서는 세속적 가치에서 멀어진, 가난한 형편에 대한 화자의 걱정이 드러난다.

'어느 벗이 찾아오리'는 세속적 가치에 구애받지 않은 화자가 소박한 살림살이만 가지고 자연에 은거하고 있음을 강조한 말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빈천을 낙을 삼아', '일신이 한가하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화자가 가난한 형편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오·이

① '부귀를 하직'했다는 것에서 화자의 귀거래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보기〉에서 (가)에는 정치 현실을 떠나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귀거래 의식이 드러난다고 하였다. '부귀를 하직'했다는 것은 화자가 정치 현실을 떠나 자연에서의 삶을 선택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② '삼순구식'과 '십 년 일 관'은 화자가 영위하는 소박한 삶을 드러낸다.

'삼순구식'은 삼십 일 동안 아홉 끼니밖에 먹지 못한다는 의미이고, '십 년 일 관'은 십 년 동안 관 하나만 쓴다는 의미로, 모두 화자가 영위하는 소박한 삶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③ '취수'에 걸린 '구름'과 '백사'의 '갈매기'는 화자가 살고 있는 자연의 풍경을 시각적으로 나타낸다.

푸른 빛이 도는 산봉우리에 걸린 '구름'과 '백사에 버려 있'는 '갈매기'는 화자가 은거하고 있는 자연 풍경을 묘사한 것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④ '산가 촌적을 어부사로 화답'하는 모습은 자연에서의 삶에 대한 화자의 만족감을 보여 준다.

화자는 낚시로 잡은 큰 물고기를 들고 돌아오다가 산속 집에서 들려오는 피리 소리에 「어부사」로 화답을 하고 있다. 이는 자연 속에서 만족하여 흥취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220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화자 오류 A에서 '손님'이 해바라기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긴 것에 대해, B에서 '나'는 해바라기를 ~~세상에 우뚝 홀로 선 사람들~~ 더럽고 변변치 못한 사람들에 비유하며 ~~인정하지 않고 있다.~~

(나)에서 '손님'이 한 말인 "저 해바라기는 식물 가운데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등을 통해서 '손님'이 해바라기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나'는 '손님'의 말을 인정하며 해바라기를 "사람에 비유하면 더럽고 변변치 못"하다고 하였다. '나'가 세상에 우뚝 홀로 선 사람들에 비유한 것은 소나무나 대나무 등과 같이 "특별한 풍치가 있거나 향기를 지닌" 식물들이다.

오·오·이

① A에서 '손님'은 많은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식물들과 해바라기를 대비하며 '나'가 정자 이름을 지은 이유를 묻고 있다.

'손님'은 '나'에게 특별한 풍치나 향기가 있는 소나무, 대나무, 매화, 국화, 난, 혜초와 같은 식물과 그렇지 않은 해바라기를 대비하며 '나'가 해바라기로 정자 이름을 지은 이유를 질문하고 있다.

③ B에서 '나'는 특별한 풍치나 향기가 있는 식물로 정자 이름을 짓지 않은 것이 자신의 처지를 고려한 선택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나'는 "황량하고 머나먼 적막한 바닷가로 쫓겨나" 천대를 받고 있는 자신의 상황을 말하며, 소나무나 대나무와 같이 특별한 풍치나 향기를 지닌 식물로 정자 이름을 짓는 것은 자신의 처지에 어울리지 않아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버림받은 사람으로서 천한 식물로 짝"한 것이 자신의 뜻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나'가 자신의 처지를 고려하여 특별한 풍치나 향기가 있는 식물로 정자 이름을 짓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다.

④ C에서 '나'는 해바라기의 속성을 충성이라는 덕목과 연결 지어 '손님'의 평가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나'는 해를 향하여 그 빛을 따라 기울어지는 해바라기의 속성을 충성이라는 덕목과 연결함으로써 해바라기를 천하게만 여길 수 없음을 밝히며, 해바라기가 보잘것없다고 평가하는 '손님'의 의견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⑤ D에서 '손님'은, A에서 가졌던 정자 이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나)의 마지막에서 '손님'은 "나는 하나는 알고 둘은 알지 못했는데, ~ 더할 것이 없어졌소이다."라고 하며 처음에 정자 이름에 대해 가졌던 자신의 생각이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221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화자 오류 B: ~~해바라기와 유사한 기질을 타고나 변변치 못하게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A에 답하고 있다.

'나'는 정자의 이름을 해바라기로 삼은 첫 번째 이유로 버림받은 사람으로서 천한 식물로 짝하고, 가까운 데서 취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자신이 해바라기와 유사한 기질을 타고나 변변치 못하게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았다.

오·오·이

① A: 통념을 바탕으로 '나'에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손님은 옛날 사람들이 '특별한 풍치'나 '향기'를 기준으로 식물의 가치를 판단하여 그러한 특성을 지닌 소나무, 대나무 등으로 자기가 사는 집의 이름을 지었음을 언급하며 '나'에게 해바라기로 정자의 이름을 지은 이유를 묻고 있다.

② B: 다른 이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정자의 이름을 지었음을 밝히고 있다.

'나'가 소나무나 대나무 같은 것으로 정자의 이름을 지으면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보아, '나'가 다른 이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정자의 이름을 지었음을 알 수 있다.

④ C: 해바라기에 군자도 어려워하는 덕목이 있음을 언급하며 B에 타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나'는 해바라기가 지닌 충성과 지혜는 남의 신하된 자가 갖추어야 할 절조이며, 충성으로써 임금을 섬기고 지혜로써 시비를 가리는 것은 군자도 어렵게 여기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자신 역시 해('임금님')를 향하는 마음을 그칠 수 없어서 해바라기를 정자의 이름으로 지은 것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적절하다.

⑤ D: '나'의 대답을 듣고 식물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얻게 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손님이 해바라기를 천하게 여길 수 없다는 '나'의 말을 듣고 수긍하는 것으로 보아, 손님이 식물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을 얻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9 가 용사음(龍蛇吟) 나 원목(原牧)

작품 분석 본문 112~115쪽

가 용사음(龍蛇吟)

작가 최현
갈래 가사
주제 임진왜란의 참상과 비분강개, 무책임한 관리들에 대한 비판
특징 ① 무책임한 관리들과 희생적인 백성들을 대조하여 주제를 강조함.
② 설의법, 대구법, 비유법, 과장법 등을 통해 화자의 정서 및 상황을 나타냄.
③ 실존 인물을 언급하며 그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직접 제시함.

한 줄 의미

❶ (백성)과 군사들을 수탈하여 (재화(부))를 축적한 관리들이 향락을 즐김.
❷ 도적(왜적)의 침입에 달아나거나 패배한 관리들에 대한 (비판)
❸ 의병들에 대한 (추모)와 수많은 백성들의 참혹한 죽음

나 원목(原牧)

작가 정약용
갈래 고전 수필
주제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목민관의 본분
특징 ①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글을 시작함으로써 화제에 집중시킴.
② 설의법, 연쇄법, 대구법 등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달함.
③ 동일한 문장을 반복하여 목민관이 백성을 위해 존재한다는 작가의 입장을 분명히 드러냄.

한 줄 요약

❶ (목민관)의 유래와 소임 및 백성들에 의해 제정된 (법)
❷ 후세의 관리 임명 및 법 제정 과정에 따라 (백성) 위에 군림하게 된 수령에 대한 비판

222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대조의 방식을 사용하여 주제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가)에서는 임진왜란 때 무책임하고 무능한 관리들과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잃은 백성(의병)들을 대조하여, 관리들을 비판하고 죽은 백성들을 추모하고 있다. (나)에서는 백성을 위해 존재했던 태초의 목민관이 후세에는 백성 위에 군림하게 된 상황을 대조하여, 목민관이 본분을 지켜 백성을 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오·오·이

② 부재 ~~활유의 방식을 사용하여 관념적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에서 활유의 방식을 사용하여 관념적 대상을 묘사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③ 부재 ~~풍자적 표현을 활용하여 주제의 양면성~~을 드러내고 있다.

(가)의 '주인 좀든 집의 ~ 개는 어이 즛쟛는고'를, 나라의 방비가 허술함을 짖지 않는 개에 비유하여 풍자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주제의 양면성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나)

는 풍자적 표현과 주제의 양면성 모두 나타나지 않는다.

④ 부재 ~~연쇄의 방식을 사용하여 상황의 심각성을 표현~~하고 있다.

(가)에는 연쇄의 방식이 사용되지 않았다. 반면 (나)에서는 2~5문단에서 태초에 목민관과 법이 형성된 과정 및 후세에 목민관의 본분이 잊히게 된 과정 등을 연쇄의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목민관이 백성들 위에 군림하며 백성들을 수탈하고 부패를 일삼는 등의 부정적 상황의 심각성은 연쇄가 아니라 마지막 문단에서 예시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⑤ 부재 ~~역설적 표현~~을 활용하여 세태의 혼란함을 강조하고 있다.

(가)는 임진왜란의 참상을, (나)는 백성들을 수탈하고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관리들의 부패상을 강조하고 있으나, (가)와 (나) 모두 역설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223 답 (1) (가), (나) (2) (나) (3) (가)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전하려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 ((가), (나))

(가)는 '만장을 뉘 너모며', '천척을 뉘 건너료', '문은 어이 여럿ᄂᆞ뇨', '개ᄂᆞᆫ 어이 즛쟛ᄂᆞᆫ고' 등에서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백성을 수탈하고 향락을 즐긴 관리들과 국방을 지키지 못한 관리들에 대한 비판을 강조하고 있다. (나)는 '태초의 아득한 ~ 목민관이 있었겠는가', '어찌 바른 이치이겠는가.' 등에서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목민관은 백성을 위해 존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2) 범위 오류 질문의 형식으로 글을 시작하며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나)는 ((나))

(나)는 '목민관이 백성을 위해 있는 것인가, 백성이 목민관을 위해 사는 것인가?'와 같이 질문의 형식으로 글을 시작하며 목민관의 본분에 대해 이야기할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가)는 질문의 형식으로 글을 시작하고 있지 않다.

(3) 범위 오류 실존 인물과 실제 사건을 언급하여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가)는 ((가))

(가)의 '김수', '신립', '김해', '정의번', '유종개', '장사진' 등은 모두 실존 인물들로, 특히 '김수', '신립'과 관련된 실제 사건을 언급함으로써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반면 (나)에서는 실존 인물과 실제 사건이 언급되고 있지 않다.

224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나)는 (가)와 달리 연쇄의 방식을 사용하여 제도가 변모해 가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222번-④의 해설을 참고할 때, 적절함을 알 수 있다.

오·오·이

① 교체 (가)는 (나)와 달리 동일한 문장의 반복·변형을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가)에서는 동일한 문장의 반복이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나)에서는 '목민관이 백성을 위해 있는 것이다.'라는 문장을 반복·변형함으로써 목민관의 본분을 강조하고 있다.

② 헛짚기 (가)는 (나)와 달리 과장법을 통해 혼란한 세태에서의 ~~관리들의 공적~~을 강조하고 있다.

(가)의 '재화로 성을 쓰니 ~ 천척을 뉘 건너료'는 백성을 수탈하여 축적한 재물의 양을 과장하여 나타낸 것으로, 부패한 관리들을 비판할 뿐, 관리들의 공적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

③ 범위 오류 (나)는 (가)와 ~~달리~~ 모두 비유법을 통해 문제 상황을 밝히고 있다.

(가)의 '니 됴흔 수령들 ~ 허위ᄂᆞ니 군사로다'는 백성과 군사들을 수탈하는 관리들의 행위를 이로 짓씹고, 톱으로 자르는 것에 비유하고 있다. (나)는 '고혈과 골수를 다 짜내어 목민관을 살찌우니'에서 비유를 통해 목민관이 백성을 수탈하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④ 교체 (나)는 (가)와 달리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역사적 사건에 대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나)는 1문단의 '목민관이 백성을 위해 있는 것인가, 백성이 목민관을 위해 사는 것인가?', 2~3문단의 '~이라 이름하였다.', '~으로 삼아 ~ 이름하고' 등에서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목민관의 형성 및 변모 과정을 제시한 것일 뿐 역사적 사건에 대한 정서가 드러나지 않는다. 반면 (가)는 '어릴샤 김수야 ~ 배수진은 므ᄉᆞ 일고'에서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관리들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225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과 달리 ㉣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가치를 추구하는 행위가 드러난다.

(가)에서는 '일석(㉠)'에 관리들이 전쟁을 피해 달아나 숨은 반면, (나)에서는 '이때(㉣)'에 백성들의 바람에 따라 법을 만들었고, 모든 법이 백성들을 편하게 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때(㉣)'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가치를 추구하는 행위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오·오·이

① 교체 ㉠과 달리 ㉢에는 현실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행위가 드러난다.

(가)에서는 '일석(㉠)'에 관리들이 전쟁을 피해 달아나 숨었다고 한 반면, (나)에서는 목민관이 없던 '태초(㉢)'에 이웃끼리 다투면 공평한 말을 잘하는 어르신이 그 문제를 바로잡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현실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행위는 '일석(㉠)'에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③ 범위 오류 ㉠과 달리 ㉤에는 개인의 안위만을 고려하는 이기적인 행위가 드러난다.

(가)의 '일석(㉠)'에서는 전쟁을 피해 달아나는 무책임한 관리들의 모습을, (나)의 '지금(㉤)'에서는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백성들을 수탈하고 뇌물을 써서 훗날의 이익을 도모하는 수령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일석(㉠)'과 '지금(㉤)' 모두 개인의 안위만을 고려하는 이기적인 행동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④ 헛짚기 ㉡과 달리 ㉢에는 피지배자가 지배자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투쟁하는 행위가 드러난다.

(가)의 '일석(㉡)'은 우리나라의 최남단을 지키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때로 안타까움이 드러난다. 그리고 (나)의 '태초(㉢)'는 사람들 사이의 다툼을 공평하게 바로잡아 준 어르신을 '이정'이라 부르던 때로, 이것이 '목민관'의 시작임이 드러난다. 이는 모두 피지배자가 지배자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투쟁하는 행위와 관련이 없다.

⑤ 헛짚기 ㉡과 달리 ㉤에는 피지배자가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 문제를 해결하는 행위가 드러난다.

(나)에서 '지금(㉤)'은 수령이 백성들을 수탈하여 재산을 축적하고 뇌물을 보내 이익을 도모하는 행태로 보아, 피지배자인 백성이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 문제를 해결하는 행위가 '지금(㉤)'에 드러난다고 볼 수 없다.

226 답 (1) ○ (2)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가)의 '백관'은 전쟁이 발발하자 달아난 반면, '뇌남 장사들'은 나라를 지키다 죽었다. (○, ×)

(가)의 '인모 불장ᄒᆞ니', '일석에 분찬ᄒᆞ니' 등으로 보아 '백관'은 전쟁이 발발하자 무책임하게 달아났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뇌남 장사들'은 화자가 그들에게 죽음을 한하지 말라고 하며 '충혼 의백'을 위로해 주는 것으로 보아 나라를 지키다 죽었음을 알 수 있다.

(2) 교체 (나)에서 태초의 '이정', '당정', '주장', '국군', '방백', '황왕'은 모두 백성이 목민관을 위해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존재이다. (○, ×)

(나)의 3문단에서 황왕의 근본은 이정에서 시작되었으니 목민관은 백성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정에서 황왕에 이르기까지 태초에 목민관으로서의 역할을 한 이들은 모두 목민관이 백성을 위해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존재라 할 수 있다.

227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 백성의 바람이 반영된 편안한 삶

ⓑ: 목민관을 위한 백성의 삶

4문단에서 '백성들의 바람에 따라 법을 제정'하여 '백성들을 편하게' 한다는 것으로 보아, '그 법(ⓐ)'이 백성의 바람이 반영된 편안한 삶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한편 5문단에서 '그 법(ⓑ)'으로 인해 '임금을 높이고 백성을 낮추며 ~ 백성들은 목민관을 위해 사는 것처럼' 되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오·오·이

① 헛짚기 ⓐ: 백성의 의무가 강요되는 삶

ⓑ: 목민관에 의해 백성의 권리가 보장되는 삶

④ 범위 오류 ⓐ: 백성의 고통이 계속되는 삶

ⓑ: 목민관의 재량으로 백성의 이익이 훼손되는 삶

4문단에 따르면 '그 법(ⓐ)'은 백성들을 편하게 한다고 하였으므로, 의무를 강요하는 삶(①)이나 백성에게 고통이 계속되는 삶(④)을 가져다줄 것이라 볼 수 없다. 한편, 5문단에 따르면 '그 법(ⓑ)'은 황제와 제후의 욕심대로 제정된 것이므로, 백성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삶(①)을 가져다줄 것이라 보기 어렵다. 반면, 목민관이 법을 남용하여 사회 전체의 이익에 반하게 행동한다면 백성의 이익이 훼손(④)될 수도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② 범위 오류 ⓐ: 백성의 염원이 실현되는 삶

ⓑ: 목민관에 의해 백성의 민원이 해소되는 삶

③ 헛짚기 ⓐ: 백성의 욕망이 좌절되는 삶

ⓑ: 목민관에 의해 백성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삶

4문단에 따르면 '그 법(ⓐ)'은 백성들의 바람에 따라 제정한 것이므로, 백성의 염원이 실현되는 삶(②)을 가져다줄 수 있으나, 욕망이 좌절되는 삶(③)을 가져다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한편 5문단에 따르면 '그 법(ⓑ)'은 황제와 제후의 욕심대로 제정되어 임금을 높이고 백성을 낮추게 하였다고 했으므로, 백성들에게 민원이 해소(②)되거나 소

망이 이루어지는 삶(③)을 가져다줄 것이라 볼 수 없다.

228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교체 '하나 한 백관도 수 치올 뿐이랏다'를 통해 ~~일본~~(지배층)에 대한 의병들의 분노를 짐작할 수 있겠군.

일본이 조선을 침략했을 때 백성들은 자신들을 외면한 지배층에 분노하며 의병으로 참전했다는 〈보기〉의 내용으로 보아, 수많은 관리들이 숫자만 채울 뿐이라는 내용에서 지배층에 대한 의병(백성)들의 분노를 짐작할 수 있다.

오·오·이

② '질풍이 아니 블면 경초를 뉘 아더뇨'를 통해 임진왜란에서 드러난 백성들의 강인함을 짐작할 수 있겠군.

'질풍'은 전란을, '경초'는 백성을 비유한 말이다. 〈보기〉에서 (가)에 백성들의 강인함이 형상화되었다는 것으로 보아, 임진왜란과 같은 전란이 아니라면 백성(의 힘)을 누가 알겠느냐는 것에서 백성들의 강인함을 짐작할 수 있다.

③ '충혼 의백을 어듸 가 부르려는가'를 통해 의병들의 충성스러운 희생을 짐작할 수 있겠군.

'충혼 의백'은 충성스럽고 의로운 혼백이라는 뜻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죽은 백성들을 추모하는 화자의 모습에서 의병들의 충성스러운 희생을 짐작할 수 있다.

④ '조종 구강애 도적이 님재 도여'를 통해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겠군.

왜적을 '도적'이라 하고 이들이 조상의 영토에 임자가 되었다고 한 것에서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⑤ '원혈이 흘러나려 평육이 성강ᄒᆞ니'를 통해 임진왜란에 의해 벌어진 참상을 짐작할 수 있겠군.

원통하게 죽어 나온 피가 흘러내려 강이 되었다는 표현에서 임진왜란에 의해 벌어진 참상을 짐작할 수 있다.

229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부패**: 정치, 사상, 의식 따위가 타락함.

정·정·이

④ 교체 '양령'과 '한강'에 ~~외세의 개입~~(외침)에 대한 걱정이 담겨 있군.

높지 않은 '양령'과 깊지 않은 '한강'은 왜적의 침입을 막을 만큼 산세가 험하지 않음을 나타낸 것으로 외세의 개입이 아니라 외침에 대한 걱정이 담겨 있다.

오·오·이

① '재화로 성을' 쌓고, '고혈로 히지'를 판다고 함으로써 부패한 국내 현실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군.

'재화'와 '고혈'은 관리들이 백성들에게서 수탈한 것으로, 그 양이 성을 쌓고 못을 만들 정도라는 표현을 통해 부패한 국내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도적'이라는 표현에서 적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고 있군.

조선에 침략한 일본에 대해 '도적이 엿보거든', '도적이 님재 도여' 등과 같이 '도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적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고 있다.

③ '우울샤 신립아'에 잘못된 대처에 대한 비판이 나타나 있군.

〈보기〉에서 우국 가사에는 위기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국내 현실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다고 하였다. '우울샤'는 '우습구나'라는 의미로 잠복 전투를 하자는 건의를 무시한 신립이 배수진을 치고 정면 돌파를 했다가 참패한 일에 대한 화자의 비판이 직접 드러난 말이다.

⑤ '김해 정의번 유종개 장사진'에게 죽음을 한하지 말라고 함으로써 의병으로서의 마음가짐을 드러내고 있군.

〈보기〉에서 (가)는 나라에 대한 걱정이 담긴 우국 가사로, 의병에 가담한 작가의 체험이 담겨 있다고 하였다. '김해 정의번 유종개 장사진'은 의병 활동을 하다 죽은 인물들로, 나라를 위해 죽은 이가 많으니 죽음을 한하지 말라는 말을 통해 의병으로서의 충심을 드러내었다고 할 수 있다.

230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헛짚기 (가)의 '죽ᄂᆞ니 만커니와 이 죽엄 한티 마라'에서는 ~~관리들이 초래한 백성의 빈곤함~~을, (나)의 목민관이 '형벌과 위엄'으로 백성을 '두렵게' 한다는 것에서는 ~~관리들의 무능력함~~을 엿볼 수 있다.

(가)에서 전쟁 중에 죽는 사람들이 많으니, 이 죽음을 한탄하지 말라고 한 것은 의병으로서의 충심을 나타낸 것으로, 관리들이 초래한 백성의 빈곤함과 관련이 없다. (나)에서 목민관이 '형벌과 위엄'으로 백성을 '두렵게' 한다는 것은 관리들의 가혹함을 나타낸 것으로 무능력함과 관련이 없다.

오·오·이

① (가)의 '니 됴흔 수령들 너흐ᄂᆞ니 백성이요'와 (나)의 목민관이 백성을 '매질하고 곤장을 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본다는 것에서 관리들의 가

혹함을 엿볼 수 있다.

(가)에서 수령들이 이로 백성을 물어뜯는다는 것과, (나)에서 백성이 곡식과 쌀 등을 내지 않아 매질을 당하는 것은 모두 백성을 가혹하게 수탈하는 관리의 모습을 나타낸다.

② (가)의 '재화로 성을 ᄊᆞ니 만장을 뉘 너모며'와 (나)의 목민관이 '돈과 베를 거둬들여 전택을 마련'한다는 것에서 백성들을 수탈하는 관리들의 탐욕을 엿볼 수 있다.

백성으로부터 빼앗은 재물로 쌓은 성이 매우 높다는 (가)의 내용과, 목민관이 백성으로부터 거둬들인 돈과 베로 전택을 마련한다는 (나)의 내용 모두 백성들을 수탈하는 관리들의 탐욕을 보여 준다.

③ (가)의 '인모 불장ᄒᆞ니 하놀히라 엇디ᄒᆞ료'와 (나)의 목민관이 '굶어 죽'은 '한 사람'에 대해 '제 스스로 죽은 것'이라고 한 것에서 관리들의 무책임함을 엿볼 수 있다.

(가)의 '인모 불장ᄒᆞ니'는 지배층으로서 할 수 있는 도리를 다하지 않음을 뜻하는 것으로 관리들의 무책임함을 나타낸다. 또한 (나)에서 백성을 위해 있어야 하는 목민관이 굶어 죽은 사람에 대해 '제 스스로 죽은 것'이라고 한 것 역시 관리로서 본분을 다하지 않는 무책임함을 나타낸다.

④ (가)의 'ᄒᆡ도 길것마ᄂᆞᆫ 병촉유 긔 엇덜고'에서는 관리들의 방탕함을, (나)의 '자신이 목민관이라는 사실을 잊고'에서는 목민관이 본분을 망각했음을 엿볼 수 있다.

(가)에서 밤에 촛불을 밝혀 놀이를 즐기는 모습에서 관리들의 방탕함을, (나)에서 지금의 수령이 '자신이 목민관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라고 한 데에서 백성을 위해 일해야 하는 관리로서의 본분을 망각했음을 엿볼 수 있다.

231 답 (1) × (2)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헛짚기 (가)의 화자는 '감사', '병사', '목부사', '만호', '첨사'의 ~~탐욕스러움과 방탕함~~을 지적하고 있다. (○, ⊗)

(가)의 '감사', '병사', '목부사', '만호', '첨사'는 전쟁이 발발하자 산림으로 달아난 이들로, 화자는 이들의 무책임함을 지적하고 있다.

(2) (나)의 글쓴이는 '지금의 수령'이 공적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

(나)의 글쓴이는 마지막 문단에서 목민관이 사람들 간의 문제나 백성이 굶어 죽는 일을 외면하는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공적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30 가 선상탄(船上嘆) 나 파리를 조문한다

작품 분석 본문 116~119쪽

가 선상탄(船上嘆)

작가 박인로

갈래 가사

주제 전쟁의 비애를 딛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싶은 마음

특징 ① 고사를 활용하여 전쟁을 일으킨 왜적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드러냄.
② 은유법, 설의법, 영탄법 등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개함.

한 줄 의미

❶ 주사로 (**진동영**)에 부임하여 선상에서 적진을 바라봄.
❷ (**배**)를 처음 만든 헌원씨를 원망함.
❸ 왜적이 생기게 한 (**진시황**)을 원망함.
❹ 왜적들에게 당한 수치심과 변치않는 (**우국단심**)

나 파리를 조문한다

작가 정약용

갈래 고전 수필

주제 굶주려 죽은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관리들의 학정에 대한 비판

특징 ① 파리를 '너희', '그대'라고 표현하는 등 파리를 의인화하여 제시함.
② 직유법과 설의법, 대구법, 영탄법 등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달함.

한 줄 요약

❶ 경오년 여름에 (**파리(파리 떼)**)가 창궐함.
❷ 파리는 굶어 죽은 (**백성**)이 변해서 된 것임.
❸ 굶어 죽은 백성의 화신인 (**파리**)를 조문함.

232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화자 오류 [B]에는 배를 만든 '헌원씨'를 ~~추모하는~~ 원망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가)의 '진실로 배 아니면 ~ 배 만들기를 비롯하였는가'는 헌원씨가 배를 만들어 오랑캐가 남의 나라를 엿보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이를 고려할 때, [B]의 '헌원씨를 애달파하노라'는 왜적이 우리나라를 침범할 수 있게 계기를 제공한 '헌원씨'를 원망하는 말이지 추모하는 말이 아니다.

오·오·이

① [A]는 '주사'로 임명되어 '진동영'에 내려온 화자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늙고 병든 몸'은 화자를 가리키는 말로, 화자가 진동영에 주사로 부임하여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C]에는 왜적을 생기게 한 '진시황'에 대한 화자의 원망이 드러나 있다.

'진시황의 탓이로다'에서 '진시황'에 대한 화자의 원망이 드러나는데, '왜적이 아니 생겼던들'로 보아, 진시황이 왜적을 생기게 했기 때문에 화자가 원망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④ [D]에는 '한·당·송'에 뒤지지 않는 '문물'을 가졌음에도 '왜적'의 침략을 받아 원통해하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나 있다.

[D]에서 화자는 우리나라가 한·당·송에 뒤지지 않는 문물을 가졌으나, 국운이 불행하여 왜적의 침략을 받게 되었다며 원통함을 드러내고 있다.

⑤ [E]에는 '신하'로서 '우국단심'을 다짐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E]에서 화자는 신하 되어 임금을 곁에서 모시지 못해도, 우국단심을 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33 답 (1) ○ (2)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원근에 쌓'인 '황운'은 전쟁의 기운을 나타낸다. (○, ×)

(가)의 '황운'은 누런 빛깔의 구름이라는 뜻으로 화자가 왜적이 있는 대마도를 보며 황운이 먼 곳과 가까운 곳에 쌓였다고 묘사하는 것으로 보아, 전쟁의 기운을 은유적으로 나타낸 말이라 할 수 있다.

(2) 헛짚기 '통분한 수치'는 ~~왜적의 침입을 받은 중국인들의 수치~~를 의미한다. (○, ×)

'통분한 수치'는 장생 불사약을 얻기 위해 바다의 모든 섬에 사람들을 보냈다가 왜적을 생기게 한 일에 대한 화자의 견해가 담긴 말로, 왜적의 침입을 받은 중국인들의 수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234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만고의 그 원한'은 현재 상황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집약하여 보여 주고 있다.

'만고의 원한'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의 원한이라는 뜻으로, 화자가 그중 한 가지도 씻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왜적의 침략에 대한 화자의 정서가 집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아득한 창파'는 ~~유한한 인간의 삶과 대조되어 화자에게 무상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화자는 일장검을 차고 병선에 올라 적국인 대마도를 굽어보고 있다. '아득한 창파'는 이때 보이는 풍경을 묘사한 것으로 화자는 이로 인해 무상감을 느끼고 있지 않다.

② 헛짚기 '끝없는 큰 폐'에서는 ~~역사적 인물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일반적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헌원씨'는 배를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알려진 전설 속 인물로 실제의 역사적 인물이 아니다. 그리고 헌원씨가 배를 만듦으로써 오랑캐가 침략해 올 수 있었다는 생각은 화자의 견해이므로, 이를 '끝없는 큰 폐'라고 표현한 것을 다른 사람들의 일반적 평가로 볼 수 없다.

③ 헛짚기 '불사약'과 '만리장성'을 통해 ~~태평성대에 대한 화자의 바람~~을 나타내고 있다.

'불사약'과 '만리장성'은 진시황이 한 일과 관련된 시어로, 왜적을 생기게 한 진시황을 원망하며 언급한 말일 뿐, 태평성대에 대한 바람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④ 헛짚기 ~~'한·당·송'은 화자가 때때로 바라보고 있는 북쪽~~으로, 어지러운 세상에 대한 한탄을 느끼게 하고 있다.

화자가 바라보는 '북쪽'은 임금이 계신 곳으로, '한·당·송'이 있는 중국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여기에서 화자는 왜적의 침입을 받아 나라가 어지러운 것에 대한 한탄과 걱정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235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헛짚기 ㉣: 대비를 통해 ~~관리들의 부패를 개혁하려는 백성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에서 작가는 '어진 이'는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소인배'는 비방만 일삼고 있음을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백성들이 죽어 가는 상황에서도 호소할 곳조차 없는 답답한 현실을 드러낸 것일 뿐, 관리들의 부패를 개혁하려는 백성들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 아니다.

오·오·이

① ㉠: 열거를 통해 백성들이 겪었던 고통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에서는 백성들이 겪었던 고통의 상황인 기근, 혹독한 추위, 전염병, 가혹한 착취 등을 열거함으로써 이로 인해 수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② ㉡: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파리를 죽은 백성들로 인식하는 작가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파리를 '우리 사람들과 마찬가지'라고 한 데에서 작가가 파리를 굶주려 죽은 백성들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 의인법을 사용하여 굶주려 죽은 백성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에서 '그대'는 '파리'를 의인화한 것으로, 작가는 파리를 굶주려 죽은 백성들로 인식하고 그들에게 음식을 권함으로써 그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⑤ ⓐ: 비유를 통해 작가가 바라는 임금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번개처럼', '우레처럼' 같은 비유를 통해 임금이 빠르고 강하게 위엄을 떨치기를 바라는 작가의 마음이 드러나 있다.

236 답 ㄷ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당부: 말로 단단히 부탁함. 또는 그런 부탁.
- 학정: 포학하고 가혹한 정치.

정·정·이

ㄷ. ㉰에서 명령문을 통해 작가의 당부를 전함으로써 죽은 백성들에 대한 애도를 강조하고 있다.
㉰에서 작가는 '가거라', '아뢰어라'와 같이 명령문의 형식을 반복하여 굶주려 죽은 백성들의 화신인 파리들에게 임금님께 사정을 알려 어진 정치를 펼칠 수 있게 하라고 당부를 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죽은 백성들에 대한 애도를 강조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오·오·이

ㄱ. 헛짚기 ㉮에서 조문이라는 행위로 ~~파리가 다음 생애에서는 인간으로 태어나기를 빌고~~ 있다.
㉮에서 작가는 '파리를 조문'하는 행위로 굶주려 죽은 백성들을 애도하고 있을 뿐, 파리가 다음 생애에서 인간으로 태어나기를 빌고 있지 않다.

ㄴ. 헛짚기 ㉯에서 ~~백성들을 학정에 시달리게 만든 임금에 대한 원망을~~ 나열하고 있다.
'임금님께 그대의 충정을 하소연하고 ~ 어진 정치 펴 주십사 간곡히 아뢰어라.'로 볼 때, '임금'은 백성들의 억울함과 고초를 해소해 줄 존재이지, 백성들을 학정에 시달리게 만든 존재가 아니다. ㉯에는 백성들이 겪었던 고통의 상황이 나열될 뿐, 임금에 대한 원망을 나열하고 있지 않다.

237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위정자: 정치를 하는 사람.

정·정·이

④ 헛짚기 ⓓ: 비유를 통해 ~~조세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세력의 기세~~가 막강하였음을 보여 주고 있다.
아전들의 횡포
'사자의 포효처럼' 산천을 흔드는 소리는 조세를 독촉하는 아전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비유법과 과장법을 통해 나타낸 것으로 아전들의 횡포를 보여 준다. 조세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세력의 기세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니다.

오·오·이

① ⓐ: 예시를 통해 당시 파리 떼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는 파리 떼가 생겨나 점점 번식하여 저택과 술집, 떡집 등에도 몰려들게 된 상황을 예시를 통해 나타내고 있다.

② ⓑ: 과정이 드러나는 진술을 통해 구더기가 생겨나게 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에서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시신이 썩어 구더기가 생기게 되었음을 과정이 드러나는 진술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③ ⓒ: 과장적 표현을 통해 구더기가 매우 많았음을 강조하고 있다.
ⓒ에서 '강가의 모래알보다 만 배나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구더기가 많았음을 강조하는 과장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⑤ ⓔ: 대구의 형식을 통해 위정자의 처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제시하고 있다.
ⓔ는 그 앞 문장과 함께 대구의 형식이 활용된 부분으로, '봉황'은 어진 이를, '까마귀'는 소인배를 비유하는 말이다. 이때 '봉황(어진 이)'은 입을 다물고 있고, '까마귀(소인배)'는 우짖을 뿐, 핍박받는 백성들을 위해 행동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238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화자 오류 (가)의 화자는 ~~왜적을 이기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군.
(가)의 화자는 전운이 감도는 상황에서 배 위를 거닐면서 우국단심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왜적을 이기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거나, 이를 실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지는 않다.

오·오·이

① (가)의 화자는 주사로서의 충성심을, (나)의 '나'는 백성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있군.
(가)의 화자는 주사로 임명되어 진동영에 내려와 적국의 영토인 대마도를 바라보며 국방을 지키고 있으므로, 주사로

서의 충성심을 바탕으로 현실을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의 '나'는 굶주려 죽은 백성들의 넋을 위로하고 백성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관리들을 비판한다는 점에서, 백성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현실을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가)의 화자는 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과거의 인물과 관련지어 생각하고 있군.

(가)의 화자는 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처음으로 배를 만든 사람으로 알려진 '헌원씨'와 왜적을 생기게 한 '진시황'과 관련지어 생각하고 있다.

③ (나)의 '나'는 기근, 전염병, 가혹한 착취 등으로 백성들이 죽음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있군.

(나)의 '슬프게도 작년에 큰 기근을 ~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에서 '나'가 기근, 추위, 전염병, 가혹한 착취로 백성들이 죽음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나)의 '나'는 어진 정치가 펼쳐져 백성이 굶주리지 않기를 바라고 있군.

(나)의 마지막 문단에서 '나'는 파리에게 궁궐로 가서 임금님께 '어진 정치'를 펼쳐서 '임금님 위엄이 떨쳐지게 해 달라고' 아뢰라고 한다. 그리하면 '백성은 굶주리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적절함을 알 수 있다.

239 답 (1) 왜적, 연민 (2) 충심, 바람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가)의 화자는 (왜적, 호적)에 대해 적개심을, (나)의 '나'는 파리에게 (불쾌감, 연민)을 느끼고 있다.

(가)는 '두 눈 부릅뜨고 대마도를 굽어보니', '왜적의 흉한 침략', '만고의 그 원한' 등을 통해 화자가 왜적에게 적개심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는 파리를 굶주려 죽은 백성의 화신이라 생각하고 음식을 권하며 위로하는 것에서 '나'가 파리에게 연민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교체 '임금'을 향해 (가)의 화자는 (원망, 충심)을, (나)의 '나'는 (바람,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가)의 화자는 마지막 행에서 우국단심을 다짐함으로써 임금을 향한 충심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나'는 마지막 문단에서 임금이 '어진 정치를 펴' 풍년이 들고 백성이 굶주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240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가렴주구**: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어들이고, 무리하게 재물을 빼앗음.

정·정·이

⑤ 범위 오류 A는 불운한 국운으로 왜적의 침략을 받게 됨을, B는 따뜻해진 날씨로 파리 떼가 창궐함을 한탄하고 있군.

A는 우리나라의 문물이 한·당·송에 뒤지지 않음에도 국운이 불행하여 왜적의 침략을 받은 것에 대해 한탄하고 있다. 반면, B는 파리 떼가 생겨난 과정을 설명하면서 따뜻해진 날씨를 언급했을 뿐이다. B는 파리 떼가 창궐한 원인을 기근과 추위, 전염병과 착취로 인해 수많은 백성들이 죽게 된 것에서 찾고 이러한 상황을 한탄하고 있다.

오·오·이

① A는 배 위에서 국경을 지키며 의지를 다지고 있군.

238번-①의 해설을 참고할 때, 적절함을 알 수 있다.

② B는 가렴주구하는 관리들을 비판하고 있군.

(나)의 '가혹하게 착취까지 당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6월이면 조세를 독촉하며 ~ 죽어 간다.' 등을 통해 B가 가렴주구하는 관리들을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A는 우국단심을, B는 애민 정신을 드러내고 있군.

(가)는 마지막 행에서 A의 변치 않는 우국단심을, (나)는 백성들이 굶주려 죽은 것을 슬퍼하고 그들의 넋을 위로하며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모습 등에서 B의 애민 정신을 확인할 수 있다.

④ A는 자신이 늙고 병들어 변변치 못함을, B는 놀리고 짓밟혀 괴롭게 사는 백성의 삶을 직시하고 있군.

(가)는 '늙고 병든 몸', '늙은이 눈물짓네', '이 몸이 무상한들' 등에서 A가 늙고 병들어 변변치 못함을, (나)는 가혹한 조세 독촉에 시달리는 백성의 삶을 묘사한 부분에서 B가 백성의 삶을 직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41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가)의 '배'는 화자에게 시름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보기〉의 '빈 배'는 화자의 무욕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가)에서 화자는 '배'를 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으로 여기고 있으므로, (가)의 '배'는 화자에게 시름을 불러일으킨다고 할 수 있다. 〈보기〉의 '빈 배'는 달빛만 가득 싣고 있다는 점에서 화자의 무욕의 정서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오·오·이

① 범위 오류 (가)의 '배'는 화자가 머물러 있다가 떠나온 공간이고, 〈보

기〉의 '빈 배'는 화자가 머무르고 있는 공간이다.

(가)의 '선상에 거닐면서', 〈보기〉의 '빈 배 저어 오노라.'로 볼 때, '배'와 '빈 배' 모두 화자가 머무르고 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③ 화자 오류 (가)의 '배'와 달리 〈보기〉의 '빈 배'는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가)와 〈보기〉의 화자 모두 과거를 그리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으므로, '배'와 '빈 배'는 모두 과거에 대한 그리움과 관련이 없다.

④ 교체 〈보기〉의 '빈 배'와 달리 (가)의 '배'는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가)의 화자는 '배'를 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으로 보고 있으므로, '배'가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 반면, 〈보기〉의 '빈 배'는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게 살아가는 화자의 풍류적·낭만적·탈속적 삶의 모습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⑤ 교체 〈보기〉의 '빈 배'와 달리 (가)의 '배'는 계절적 배경과 어울려 풍류적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가)의 화자는 '을사년 여름에 진동영에 내려'와 선상에서 국경을 지키며 우국단심을 다짐하고 있으므로, 풍류적 분위기와 거리가 멀다. 반면, 〈보기〉의 '빈 배'는 가을이라는 계절적 배경과 어울려 풍류적인 분위기를 드러낸다.

정·오 지름길

② (가)의 '배'는 화자에게 시름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보기〉의 '빈 배'는 화자의 무욕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배'라는 동일한 소재가 등장하는 두 작품을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예요. 대개는 상황에 따른 화자의 정서가 소재에 투영되기 마련이므로, (가)와 〈보기〉의 시적 상황을 먼저 파악해 보는 것이 좋아요. (가)에서 화자는 임진왜란 직후 주사가 되어 진동영에 와서 전운이 감도는 바다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배'가 없었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한편 〈보기〉의 화자는 낚시를 하러 갔다가 '빈 배'에 달빛만 가득 싣고 돌아오고 있어요. 이를 바탕으로 (가)의 '배'에는 화자의 시름이, 〈보기〉의 '빈 배'에는 무욕의 정서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어요.

242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위신: 위엄과 신망을 아울러 이르는 말.

정·정·이

⑤ 범위 오류 (나)의 '언덕'은 ~~백성들에게 위안을 주는 공간~~이고, 〈보기〉의 '두엄 우희'는 '두터비'가 자신의 권세를 뽐내는 공간이다.

(나)의 '언덕'은 굶주려 죽은 백성들의 시신이 쌓인 곳으로 백성들이 겪은 고통이 드러나는 공간이지, 백성들에게 위안을 주는 공간이 아니다. 반면 〈보기〉의 '두엄 우희'는 '두터비'가 먹잇감인 파리를 잡아 오른 곳이므로 '두터비'가 권세를 뽐내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오·오·이

① (나)의 '봉황'과 〈보기〉의 '백송골'은 권세를 지닌 존재이다.

(나)에서 '봉황'은 '어진 이'를 비유한 말로, '나'는 '봉황'이 입을 다물고 있어 백성들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반대로 '봉황'이 입을 열고 행동한다면 이러한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므로, '봉황'이 권세 있는 존재에 해당함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보기〉의 '백송골'은 '파리'를 괴롭히던 '두터비'가 두려워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최상위 권력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② (나)의 '파리'와 〈보기〉의 '파리'는 모두 힘없고 고통받는 존재들을 의미한다.

(나)의 '굶어 죽은 사람들이 변해서 이 파리들이 되었다.' 등을 통해 '나'가 파리를 굶어 죽은 백성의 현신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보기〉의 '파리'는 두꺼비의 먹이이다. 따라서 (나)와 〈보기〉의 '파리'는 모두 힘없고 고통받는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③ (나)의 '아전'과 〈보기〉의 '두터비'는 모두 '파리'를 직접적으로 괴롭히는 존재이다.

(나)의 '아전'은 6월이면 조세를 독촉하여 가마솥은 물론 송아지와 돼지를 끌고 가고, 곤장을 치기도 한다. 그리고 〈보기〉의 '두터비'는 '파리'를 물고 있다는 점에서 '파리'를 괴롭히는 존재로 볼 수 있다.

④ (나)의 '북쪽'은 임금이 계신 공간이고, 〈보기〉의 '두엄 아래'는 '두터비'의 위신이 떨어지는 공간이다.

(나)에서 '나'는 파리에게 '북쪽'으로 가서 임금님께 하소연하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북쪽'은 임금이 계신 공간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보기〉의 '두엄 아래'는 백송골을 보고 놀란 '두터비'가 자빠진 곳으로 '두터비'의 위신이 떨어지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31 가 빈녀음 나 편지

작품 분석 본문 120~123쪽

가 빈녀음

작가 허난설헌
갈래 한시
주제 가난한 여인의 처지와 신세 한탄
특징 ① 기승전결에 따라 시상이 전개됨.
② 대조적 대상을 통해 화자의 심화된 정서를 드러냄.
③ 설의적 표현과 음성 상징어를 통해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함.
한 줄 의미
❶ 가난한 형편 때문에 좋은 (**중매 자리**)가 들어오지 않는 '나'의 처지
❷ 하루 종일 (**베**)를 짜는 '나'의 신세 한탄
❸ 춥고 깊은 밤에 시집가는 누군가의 옷을 짓는 '나'의 처량함과 (**외로움**)

나 편지

작가 백석
갈래 현대 수필
주제 사랑했던 여인에 대한 추억과 정월 대보름 고향 마을의 풍속에 대한 기억
특징 ① '당신'을 청자로 설정하여 쓴 편지 형식으로, 경어체를 사용하여 친근감을 높임.
② 과거를 현재형으로 진술하여 민족 고유의 풍속과 정서의 재현에 대한 소망을 드러냄.
③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생동감 있게 드러냄.
한 줄 요약
❶ 정월 대보름 밤에 당신이 보내 준 (**수선화**)를 보며 과거를 회상함.
❷ 첫 번째 회상_당신에게 (**노란 슬픔**)의 이야기를 들려 줌.
❸ 두 번째 회상_당신에게 사골 (**육보름 밤**)의 이야기로 정월 대보름과 관련된 고향 마을의 (**풍속**)을 들려 줌.

243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가)에서는 '삐걱삐걱', '싹둑싹둑' 등을 통해 화자의 처량하고 고달픈 상황을, (나)에서는 '초롱초롱', '찰락찰락' 등을 통해 수선화를 보는 '나'와 '새악시 처녀들'이 물을 길어 오는 상황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① 범위 오류 (나는) 시선의 이동에 따라 대상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다.
(가)에서는 화자의 시선 이동을 활용한 대상의 특징 묘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나)에서는 '육보름으로 넘어서는 밤'에 온갖 방에 불을 켜 두는 풍경과 동물들이 들뜬 모습, '새악시 처녀들'이 물 길어 오는 모습 등을 묘사한 부분 등에서 시선의 이동에 따른 대상의 특징 묘사가 나타난다.

② 부재 ~~주체와 객체를 전도시켜 삶의 덧없음을 부각하고 있다.~~
(가), (나) 모두에서 주체와 객체를 전도시켜 삶의 덧없음을 부각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부재 ~~역설적 표현을 통해 이상에 대한 열망을 표출하고 있다.~~
(가), (나) 모두에서 역설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이상에 대한 열망이 표출되고 있지도 않다.

⑤ 범위 오류 연쇄적 표현을 활용하여 정서의 변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가)에는 (나는) 연쇄적 표현이 활용되지 않았다. 반면 (나)는 '나는 지금 당신께서 보내 주신 ~ 노란 슬픔이 냇내같이 오릅니다.'에서 수선화 한 폭을 들여다보다 '새파란 꿈'과 '노란 슬픔'을 연상하게 되었음을 연쇄법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244 답 ㄱ, ㄴ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객관적 상관물**: 시에서 정서와 사상을 표현하기 위하여 찾아낸 사물, 정황, 사건을 이르는 말.

정·정·이

ㄱ. (가)는 (나)와 달리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가)의 '베틀 소리만 삐걱삐걱 처량하게 우네'는 '베틀'에 화자의 처량한 정서가 이입된 표현이므로, '베틀'을 객관적 상관물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나)에는 '나'의 정서가 이입된 객관적 상관물이 나타나 있지 않다.

ㄴ. (나)는 (가)와 달리 '당신'에게 경어체로 말하는 형식을 취하여 친근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나)는 '오겠습니다', '말입니까'와 같이 경어체를 사용하여 '나'가 '당신'에게 말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친근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반면 (가)는 독백적 어조로 화자의 내면 심리를 제시할 뿐, 청자를 설정하거나 경어체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오·오·이

ㄷ. 범위 오류 ~~(가)와~~ (나) ~~모두~~ 직유법을 통해 대상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가)에는 직유법이 활용되고 있지 않다. 반면, (나)에서는 '냇내같이', '그늘진 풀같이', '살기같이 여우같이' 등에서 직유법을 활용하여 대상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245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나)에서는 (가)와 달리 추상적인 관념을 색채어를 통해 시각화하고 있다.

(나)에서 '나'는 수선화 한 폭을 보고 떠오른 느낌을 '새파란 꿈', '노란 슬픔'과 같이 색을 지닌 것처럼 시각화하고 있다. 그러나 (가)에서는 추상적인 관념을 색채어를 통해 시각화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오·오·이

① 범위 오류 ~~(가)와~~ (나) ~~모두~~ 열거법과 반복법으로 인한 리듬감이 형성되고 있다.

(가)에서는 열거법과 반복법이 활용되지 않아 이로 인한 리듬감이 나타난다고 볼 수 없다. 반면 (나)는 5문단의 '안간으로 사랑으로 윗간에도 ~ 대문간에도 외양간에도'에서 열거법으로 인한 리듬감이, '~은/는 밤입니다.'의 통사 구조가 반복되는 부분에서 리듬감이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범위 오류 ~~(가)와~~ (나) ~~모두~~ '밤'을 시간적 배경으로 삼아 설렘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가)와 (나) 모두 '밤'을 시간적 배경으로 삼고 있지만, (가)에서 '밤'은 화자가 추운 겨울에 밤늦도록 일해야 하는 가난한 형편임을 보여 주는 동시에, 화자의 처량함과 외로움을 심화할 뿐이다. 반면 (나)는 정월 대보름 전날 밤에 이야기를 하며 긴긴밤을 보내는 '나'와, 들뜬 모습을 보이는 '닭', '개', '도야지', '새악시 처녀들'로 보아, '밤'이 설렘의 정서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③ 상반 (가)에서는 (나)와 달리 대구법을 통해 ~~타인~~(자기 자신)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가)의 '외모도 남에 비해 그리 빠지지 않고 / 바느질 솜씨 길쌈 솜씨도 좋건만'에서는 대구법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화자가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⑤ 부재 (나)에서는 (가)~~와 달리 공간의 이동에 따른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가)와 (나) 모두 공간의 이동에 따른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 있지 않다.

246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투영**: ① 어떤 일을 다른 일에 반영하여 나타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② 어떤 상황이나 자극에 대한 해석, 판단, 표현 따위에 심리 상태나 성격이 반영되는 일.

정·정·이

④ 헛짚기 [C]의 '베틀에 짜여 가는 이 한 필 비단'은 [D]의 '옷감을 마르'는 ~~힘겨운 일상에 위안을 주고 있군.~~

(가)에서 화자가 밤이 깊도록 짜고 있는 '이 한 필 비단'은 자신의 것이 아닌 '어느 색시'의 옷이 될 것이다. 따라서 추운 밤에 손끝이 곱아 오도록 옷감을 마르는 힘겨운 일상에 '한 필 비단'은 화자에게 위안을 준다고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A]의 '가난한 집안' 사정은 [B]의 '하루 종일 창가에서 베만' 짜야 하는 구체적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군.

[A]를 통해 화자의 형편이 좋은 혼처를 구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난한 집안' 사정 때문에 화자는 '춥고 굶주려도' 하루 종일 창가에서 베만 짜고 있는 것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② [A]의 '좋은 중매 자리'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은 [D]의 '해마다 홀로' 자야 하는 외로운 처지에 놓이게 했군.

화자는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좋은 중매 자리가 들어오지 않아 시집을 가지 못하여 '해마다 홀로' 자야 하는 외로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③ [B]의 '어떤 이웃'도 알아주지 않는 '이내 속'은 [C]의 '처량하게 우'는 '베틀'에 투영되어 있군.

[B]에서 화자는 하루 종일 베만 짜야 하는 자신의 마음을 그 어떤 이웃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자가 느꼈을 법한 서글픔은 [C]의 '삐걱삐걱 처량하게 우'는 베틀에 투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D]의 '길옷을 만들고 있'는 상황은 [C]의 '어느 색시'의 처지와 대비되어 서글픔을 심화시키고 있군.

화자는 가난 때문에 시집도 가지 못한 채 시집가는 누군가를 위해 '길옷을 만들고 있'는 데 반해, '어느 색시'는 화자가 짠 비단으로 만든 옷을 입을 수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화자와 '어느 색시'의 처지가 대비됨으로써 화자의 서글픔을 심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

247 답 (1) × (2)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범위 오류 '부모님'과 ~~'여떤 이웃'~~은 화자의 서글픈 처지를 알아주고 있다. (○, ⊗)

'오직 내 부모님만 가엾다 여기실 뿐 / 그 어떤 이웃이 이내 속을 알아주리오.'라고 한 것으로 보아 화자의 서글픈 처지를 알아주는 이는 '부모님'뿐임을 알 수 있다.

(2) '어느 색시'와 '시집가는 누군가'는 화자와 대조되는 존재로 화자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 ×)

'어느 색시'는 화자가 짠 비단으로 만든 옷을 입을 수 있는 존재이고, '시집가는 누군가'는 화자가 만드는 '길옷'을 입을 존재로, 가난한 형편 때문에 시집을 가지 못하는 화자와 대비된다. 따라서 '어느 색시'와 '시집가는 누군가'는 모두 화자의 부러움을 사는 존재라 할 수 있다.

248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은 '어떤 낡은 항구의 처녀'가 병을 앓게 된 것에 대해 떠오르는 슬픔을 스스로 가라앉히기 위해 한 행동이다.

㉢의 앞에서 '나의 노란 슬픔이 더 떠오르지 않게'라고 한 것으로 보아, '어떤 낡은 항구의 처녀'가 병을 앓게 된 것에 대해 떠오르는 슬픔을 가라앉히기 위해 ㉢과 같이 행동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은 '나'가 '고사리의 반가운 맛'과 달리 자신의 주변에서 쫓아내고 싶어 하는 대상이다.

㉠은 정월 대보름 전날 밤에 잠을 자면 하얗게 눈썹이 센다는 말을 다시 가리키는 말이다. '나'는 ㉠이 자신의 잠을 쫓아 버려도 좋다고 하였으므로, 주변에서 쫓아내고 싶어 하는 대상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고사리의 반가운 맛'에 대해서도 자신을 울려도 좋다고 하였으므로, '고사리의 반가운 맛'과 ㉠을 유사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교체 ㉡과 같은 사고의 결과 '나'는 '어떤 낡은 항구의 처녀'의 아름다움이 수선과 닮았음을 발견하였다.

'나'는 ㉡과 같이 생각한 결과 '어떤 낡은 항구의 처녀'의 아름다움을 닮은 것을 찾지 못하였다. '처녀'의 아름다움이 수선과 닮았음을 발견한 이는 '총명한 내 친구 하나'이다.

④ 헛짚기 ㉣은 '당신'이 좋아하는 정월 대보름 밤의 고향 풍속에 대한 이야기이다.

㉣은 '새악시 처녀들'이 복물을 길어 오며 나눈 이야기를 가리킨다. 이를 '당신'이 좋아하는 정월 대보름 밤의 고향 풍속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없다.

⑤ 교체 ㉤은 '나'가 이전에 관찰하였던 '어떤 낡은 항구의 처녀'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은 '나'가 이전에 고향 마을의 처녀들이 정월 대보름의 풍속을 행하였던 모습을 관찰하여 나타낸 것으로, '어떤 낡은 항구의 처녀'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 아니다.

정·오 지름길

① ㉠은 '나'가 '고사리의 반가운 맛'과 달리 자신의 주변에서 쫓아내고 싶어 하는 대상이다.

(가)에서 '고사리의 반가운 맛'과 ㉠이 '~도 좋듯이 ~ 좋습니다.'와 같은 형태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아, '나'가 이 둘을 서로 유사하게,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어요. 이처럼 시어·시구의 의미를 묻는 문제에서는 앞뒤 맥락과 전체 내용의 흐름을 바탕으로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249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환기**: 주의나 여론, 생각 따위를 불러일으킴.

정·정·이

② 헛짚기 화제가 ㉮의 '그'에서 ㉯의 '새악시 처녀들'로 확대되면서 글의 애상적인 분위기가 심화되고 있군.

㉮에서 '그'는 '나'가 사랑하는 여인으로, ㉮에는 '그'에 대한 애틋함이 드러난다. 반면, ㉯에서는 '새악시 처녀들'의 모습과 마을 풍속을 언급함으로써 민족 정서의 복원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화제가 ㉮의 '그'에서 ㉯의 '새악시 처녀들'로 확대되고 있기는 하나, 이로 인해 애상적인 분위기가 심화된다고는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수선화 한 폭'은 작가의 내면을 ㉮의 추억으로, '알록달록한 각시'는 ㉯의 기억으로 이어 주는 매개적 기능을 하는군.

'수선화 한 폭'을 들여다보던 '나'가 과거에 좋아했던 '그'에 대한 추억이 떠올라 ㉮를 이야기한 것이므로, '수선화 한 폭'은 작가의 내면을 ㉮의 추억으로 이어 주는 매개적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어머니께 얻은 헝겊으로 '알록달록한 각시'를 만들면서 ㉯를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알록달록한 각시' 또한 작가의 내면을 ㉯의 기억으로 이어 주는 매개적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③ '병든 내 사람'을 비유한 시들어 가는 '수선'은 ㉮의 '노란 슬픔'에서 환기되는 이미지와 연계되고 있군.

(나)의 '병든 내 사람'은 첫 번째 회상인 ㉮에서 시들어 가는 '수선'이라고 표현한 대상으로, '나'가 사랑하는 여인을 가리킨다. 따라서 '노란 슬픔'에서 환기되는 애틋한 슬픔의 이미지와 '병든 내 사람'이 연계된다고 볼 수 있다.

④ ㉯에서 '육보름으로 넘어서는 밤'의 풍속에 대한 기억을 열거하면서 민족 공동체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군.

㉯에서 열거하고 있는 풍속은 마을의 풍년을 점치고 기원하는 것과 관련된 것들이다. 그런데 〈보기〉에서 풍속에 대

한 기억을 불러냄으로써 민족 정서를 복원하고 어울림의 공동체를 지향한다고 하였으므로, 풍속에 대한 기억을 열거하여 민족 공동체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에서 과거의 이야기를 '~ 밤입니다'와 같은 현재형 진술로 반복한 것은 기억 속의 세계가 '지금', '여기'에 재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군.

〈보기〉에서 작가는 ㉯에서 풍속에 대한 기억을 현재형 진술을 통해 불러냄으로써 '지금', '여기'에서 재현될 수 있는 어울림의 공동체를 지향했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에서 과거의 이야기를 '~밤입니다'와 같은 현재형 진술로 반복한 것은 기억 속의 세계가 '지금', '여기'에 재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50 답 (1) 애련 (2) 환기 (3) 풍요와 안녕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나'는 '스물'을 넘지 못하고 '가슴의 병'을 얻은 '나의 수선'에 대한 (애련, 회한)의 심정을 느끼고 있다.

〈보기〉에서 (나)는 사랑하는 여인을 수선화에 빗대어, 그녀에 대한 애련한 심정을 담았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스물'을 넘지 못하고 '가슴의 병'을 얻은 '나의 수선'에 대해 말하다 슬픔이 더 떠오르지 않게 꽃을 치우는 모습에서 '나'가 느끼는 애련의 심정을 확인할 수 있다.

(2) 교체 '안간으로 사랑으로 윗간에도 맏윗간에도'에는 열거를 통해 기억을 (조작, 환기)하는 작가의 면모가 드러난다.

〈보기〉에서 백석은 '감각'과 '열거'를 통해 기억을 환기해 낸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안간으로 사랑으로 윗간에도 맏윗간에도'는 열거를 통해 육보름으로 넘어서는 밤에 불 밝힌 집 풍경에 대한 기억을 환기한다고 할 수 있다.

(3) 교체 솜 밭에 '울긋불긋한 각시와 새하얀 할미'를 세워 두는 것에서 고향의 (풍요와 안녕, 근대화)에 대한 기원을 엿볼 수 있다.

〈보기〉를 통해 (나)에 마을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풍속에 대한 기억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목화밭에서 천 근 목화가 날 것을 믿으며 '울긋불긋한 각시와 새하얀 할미'를 세워 두는 모습에는 고향의 풍요와 안녕에 대한 기원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251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시화: 시적인 것이 됨. 또는 그렇게 되게 함.

정·정·이

③ 교체 ~~'여느 색시'~~ 화자는 작가가 지녔던 삶의 고뇌를 투영한 존재라고 할 수 있군.

'어느 색시'는 가난한 형편으로 밤새 베를 짜야 하는 화자와 대조되는 인물로, 오히려 화자의 부러움을 사는 존재일 뿐, 작가가 지녔던 삶의 고뇌를 투영한 존재라고 할 수 없다.

오·오·이

① 화자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 '좋은 중매 자리'가 없다는 것은 가난한 여인의 뼈아픈 현실을 보여 주는군.

〈보기〉에서 (가)는 가난한 여인의 뼈아픈 현실을 형상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하였다. 이로 보아 화자가 가난 때문에 좋은 혼처도 소개받지 못한다는 것은 가난한 여인의 힘든 현실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② '삐걱삐걱 처량하게 우네'는 가난으로 밤이 깊어도 베 짜는 일을 멈추지 못하는 여인의 슬픔을 시화한 것이겠군.

〈보기〉에서 작가는 불행한 일을 겪은 후 불쌍한 사람들에게 더욱 연민을 느껴 그들의 슬픔을 시화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삐걱삐걱 처량하게 우네'는 밤이 깊어도 베를 짜는 손을 멈추지 못하는 화자의 처량함과 슬픔을 시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화자는 추위에 의해 '손끝이 곱아 오'는 육체적 고달픔을 겪는 동시에 외로움이라는 정신적 고통도 느끼고 있군.

〈보기〉에서 (가)의 화자에게는 육체적 고달픔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수반된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추위에 '손끝이 곱아 오'는 육체적 고달픔을 견디면서 옷을 만드는 화자가 해마다 홀로 자며 외로움이라는 정신적 고통도 느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작가는 다른 이의 '길옷'을 만들고 있는 여인의 처량함에 공감하여 연민의 시선으로 다루고자 했겠군.

〈보기〉에서 작가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끼고, 가난한 사람에 대한 박애의 미를 시화하였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작가는 시집을 못 간 채로 시집가는 누군가를 위해 '길옷'을 만드는 여인의 처량함에 공감하여 연민의 시선으로 (가)를 창작했다고 볼 수 있다.

32 가 비가(悲歌) 나 풍란

작품 분석 본문 124~127쪽

가 비가(悲歌)

작가 이정환
갈래 연시조
주제 국치에 대한 비분과 우국충정
특징 ① 화자가 처한 현실에 대한 괴로움이 드러남.
②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간 세자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남.
③ 돈호법, 설의법 등을 통해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함.

한 줄 의미

❶ 청나라에 볼모로 끌려간 소현 세자에 대한 (**그리움**)
❷ 세자를 모셔 오지 못하는 신하로서의 불충과 (**안타까움**)
❸ 청나라 (**화친**) 정책과 (**충신**)이 없는 현실에 대한 답답함
❹ 근심이 많은 (**임금**)에 대한 걱정
❺ 국치에 대한 (**시름**)
❻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

나 풍란

작가 이병기
갈래 현대 수필
주제 난초의 아름다움과 고결한 기품 예찬
특징 ① 대상의 속성을 제시하여 정신적 삶의 소중함을 일깨움.
② 개인적 체험을 바탕으로 대상이 지닌 가치를 기술함.
③ 시조의 삽입, 설의법, 비유법 등을 통해 대상에 대한 인식을 밝힘.

한 줄 요약

❶ 난에게 (**위안**)을 받았던 경험 및 (**난**)을 길러 온 과정에 대한 회고
❷ 풍란을 주제로 시조를 창작하게 된 계기 및 풍란에 대한 (**예찬**)
❸ 풍란에 대한 (**애정**)

252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가)에는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적 상황에 당면하여 고뇌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가)의 〈제4수〉에서 화자가 병자호란의 패배로 청나라에 볼모로 끌려간 소현 세자를 모셔 올 수 없어 슬퍼하는 것에서 문제적 상황에 대해 고뇌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오·오·이

② 화자 오류 (가)에는 시대적 고난에 맞서지 못하는 자신의 나약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가)의 '슬허ᄒᆞ노라', '슬프다', '시름겨워ᄒᆞ노라', '갈 길 몰라 ᄒᆞ노라'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는 신하로서 세자를 모셔 오지 못하는 현실에 맞서지 못하고 나약함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나약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없다.

③ 화자 오류 (나)에는 ~~인간의 유한한 삶에 대해 한탄~~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나)에는 작가가 난에게 위로받았던 경험과 난에 대한 작가의 애정이 나타날 뿐, 인간의 유한한 삶에 대해 한탄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지 않다.

④ 화자 오류 (나)에는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절망적 현실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가 드러나 있다.
(나)의 작가는 원고를 쓰다 밤을 새울 때나 병석에 누웠을 때 난에서 위안을 얻고, 조선어 학회 사건에 피검되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난을 되살리며 소중히 하고 있다. 그러므로 절망적 현실에 냉소적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없다.

⑤ 범위 오류 (가)와 ~~(나)에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비롯된 삶에 대한 회의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가)는 세자가 병자호란의 패배로 인해 청나라로 끌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상과 현실이 괴리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화자가 '갈 길 몰라' 한다는 점에서 회의적 태도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의 작가는 현실의 고난을 함께 견디고 위로해 준 난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태도가 회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

253 답 (1) ○ (2)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가)는 (나)와 달리 역사적 상황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
(가)의 〈제6수〉에서 화자는 조정에 무신이 많았음에도 청나라와 화친을 맺은 것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나)에는 조선어 학회 사건, 8·15 광복, 6·25 전쟁 등의 역사적 사건이 언급되어 있을 뿐, 그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2) 부재 (가)와 (나)는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라 태도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 ×)
(가)에는 시간의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 않으며, 화자의 태도가 변하지도 않는다. (나)에는 조선어 학회 사건부터 6·25 전쟁 이후까지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 있지만, 난을 대하는 작가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

254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고결**: 성품이 고상하고 순결함.

정·정·이

① 화자 오류 (가)는 '몸'이 하늘 밖에 떨어진 상황을 설정하여 현실의 고통을 잊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군.

〈제9수〉에서 화자의 '몸'이 '하늘 밖에 떨어'진다고 한 것은 방향성을 상실하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화자의 처지를 나타낸 것이지, 현실의 문제를 떠나 고통을 잊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드러낸 것이 아니다.

오·오·이

② (나)는 역사적 상황에 따른 작가의 행적과 '난'의 생사를 관련지어 '난'에 대한 작가의 애착을 드러내고 있군.

(나)의 작가는 조선어 학회 사건, 8·15 광복, 6·25 전쟁 등을 겪으며 난을 일부 잃었다가 다시 살려 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모습에서 '난'에 대한 작가의 애착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나)의 작가는 자연물을 통해 정신적 가치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군.

(나)의 작가는 '두실 와옥'이라도 '난'이 있다면 삼공, 즉 높은 지위라도 바꾸지 않을 정도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빵은 육체나 기를 따름이지만 난은 정신을 기'른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난'이라는 자연물을 통해 정신적 가치를 지향함을 확인할 수 있다.

④ (가)의 화자는 '꿈'에서 '학가 선객'을 본 일을, (나)의 작가는 밤을 새우며 원고를 쓸 때 난에게 위안을 얻었던 일을 언급함으로써 대상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군.

(가)의 화자는 병자호란의 패배로 인해 청나라와 화친을 맺은 일로 심양에 잡혀간 세자를 꿈에서 본 일을 언급하며, 세자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 등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작가는 힘들 때 난에게 위안을 얻었던 경험을 언급하며 난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⑤ (가)는 '박제상'이 살았던 시대와 현재를 대비하여 충신이 없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는 '빵'과 '난'을 대비하여 '난'의 고결함을 드러내고 있군.

(가)의 화자는 〈제4수〉에서 충신인 '박제상'이 죽은 후 현재는 그와 같은 충신이 없어 세자를 모셔 올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리고 (나)에서는 '빵'과 '난'을 대조하며 정신을 기르는 '난'의 고결함을 드러내고 있다.

255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은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소재로, ㉡은 화자의 처지와 동일시되는 소재로 제시되고 있다.

'풀(㉠)'은 역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저절로 자라나 아는 것이 없는 반면, 화자는 병자호란에 패배하여 세자가 청나라에 잡혀간 치욕스러운 상황에서 시름하고 있으므로 이 둘의 처지는 서로 대비된다. 반면 '검불(㉡)'은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날리는 존재로, 부정적 현실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화자와 동일시된다.

오·오·이

① 화자 오류 ㉠과 ㉡은 모두 화자가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소재이다.

봄비에 저절로 자라나 근심이 없는 '풀(㉠)'에 대해 '긔 아니 조흘쏘냐'라고 한 것은 그와 반대로 근심하고 있는 화자의 시름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검불(㉡)'도 혼란한 상황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화자와 동일시되는 소재이므로, 둘 다 화자가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소재라 할 수 없다.

② 헛짚기 ㉠과 ㉡은 모두 세월의 흐름을 나타내어 인생의 무상함을 드끼게 하는 소재이다.

'풀(㉠)'이 근심 없이 저절로 자라는 것과, '검불(㉡)'이 바람에 이리저리 날리며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것은 모두 세월의 흐름과는 관계없으며,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한다고도 볼 수 없다.

③ 범위 오류 ㉠은 화자의 울분을 심화하는 소재로, ㉡은 화자의 울분을 완화하는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풀(㉠)'은 화자와 처지가 대비된다는 점에서 화자의 울분을 심화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검불(㉡)'은 화자의 울분을 완화하기보다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화자의 정서를 대변하는 소재로 볼 수 있다.

④ 헛짚기 ㉠은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인식의 계기가, ㉡은 과거의 사건에 대한 회고의 계기가 된 소재이다.

화자는 병자호란 후의 치욕적인 상황을 이미 인식하고 있으므로, '풀(㉠)'이 현재의 상황을 인식하는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검불(㉡)' 또한 화자의 현재 처지를 비유적으로 드러내는 소재로서, 과거의 사건을 회고하는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256 답 ㄱ, ㄴ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ㄱ. '치술령 귀혼'은 세자에 대한, '성려'는 임금에 대한 화자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제4수〉의 '치술령 귀혼'은 박제상의 아내가 치술령에서 남편을 기다리다 망부석이 되었다는 전설과 관련된 말로, 이

를 인용하여 세자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제7수〉의 '성려'는 임금이 청나라에 잡혀간 세자와 '억망창생' 즉 백성에 대해 근심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화자가 임금의 근심이 많을 것을 걱정하는 모습에서 충심을 엿볼 수 있다.

ㄴ. '무신'과 '조구리'를 대비하여 충신이 없는 현실에 대한 화자의 답답함을 강조하고 있다.

〈제6수〉에서 '무신'은 조정에 많고, '조구리'는 이미 죽어 없는 상황을 대비함으로써 세자를 모셔 올 충신이 없는 현실에 대한 화자의 답답함을 강조하고 있다.

오·오·이

ㄷ. 범위 오류 '풀'은 나랏일로 시름겨워하는 화자와 대비되고, '바람'은 ~~갈 길 몰라 하는 화자와 대비되고 있다.~~

〈제8수〉에서 화자는 봄비에 절로 자라는 '풀'은 아는 일이 없는데 자신은 나랏일로 시름겨워한다고 말하며 서로 다른 처지를 대비하고 있다. 반면, 〈제9수〉에서 '바람'은 화자가 자신과 동일시하는 '검불'을 구르게 하는 대상일 뿐, 갈 길 몰라 방황하는 화자와 대비된다고 보기 어렵다.

257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가)와 (나)는 모두 의문의 형식을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와 '나'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가)는 '이역 춘궁을 뉘라서 모셔 오리', '신고흔 화친을 누를 두고 흔 것인고' 등에서 의문의 형식을 통해 병자호란의 패배로 세자가 청나라에 잡혀간 일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나)는 '두실 와옥이라도 ~ 않을 것 아닌가!', '난은 정신을 기르지 않는가!'에서 의문의 형식을 통해 난에 대한 '나'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가)는 ~~반어적 표현을 통해 과거에 대한 반성~~을 드러내고 있다.

(가)에는 반어적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으며, 화자가 과거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② 헛짚기 (나)는 대상에 대한 감각적 묘사를 통해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하얀 꽃이 몇 송이 벌었다. 방렬·청상한 향이 움직이고 있다.' 등에서 대상에 대한 감각적 묘사를 확인할 수 있으나, '나'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③ 교체 (가)에서는 (나)와 달리 삽입 시를 통해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가)가 아닌 (나)에서 풍란의 향을 맡으며 창작한 시를 삽입하여 난에 대한 예찬을 나타내고 있다.

④ 헛짚기 (나)에는 (가)와 달리 공간의 이동에 따라 ~~'나'가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 나타나 있다.

(나)에서는 서울 계동에 살던 '나'가 조선어 학회 사건에 의해 피검되어 홍원·함흥에 있다가 여산으로 돌아온 뒤 8·15 광복을 맞아 서울에 가 있다가 6·25 전쟁으로 피란을 가는 등 공간을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나'가 깨달음을 얻고 있지는 않다.

258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안목**: 사물을 보고 분별하는 견식.
- **영감**: 창조적인 일의 계기가 되는 기발한 착상이나 자극.

정·정·이

① 헛짚기 [A]의 '썩은 향나무 껍질'과 대조적인 의미를 지니는 '옥 같은 뿌리'는 ~~'화려 광활'한 이미지를 지닌다~~고 볼 수 있겠군.

[A]에서 난은 '썩은 향나무 껍질'처럼 척박한 환경에서도 '옥 같은 뿌리'를 내리는 고결한 존재로 묘사된다. 그러므로 '썩은 향나무 껍질'과 '옥 같은 뿌리'는 서로 대조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나)의 마지막 문단에서 아무리 '화려 광활'한 방이라도 난이 없다면 요릿집에 불과하다고 하였으므로, 난의 '옥 같은 뿌리'가 '화려 광활'한 이미지를 지닌다고는 볼 수 없다.

오·오·이

② [A]의 '높고 조촐한 그 품이며 그 향'은 '풍란'의 속성을 드러낸 것으로, 작가가 '풍란'을 곁에 두고자 하는 이유로 볼 수 있겠군.

(나)의 4문단에서 작가는 곁에 둔 풍란의 방렬·청상한 향을 맡으며 [A]를 창작했다고 하였다. [A]의 '높고 조촐한 그 품이며 그 향'은 풍란의 이러한 속성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이 품과 향 때문에 작가가 풍란을 곁에 두고자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A]의 '아는 이'는 '풍란'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사람으로, '난연'과 '난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작가도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군.

[A]의 '아는 이'는 숲속에 숨어 있어도 난의 품과 향을 알아보는 안목을 갖춘 이를 말한다. 작가는 자신에게 '난연'과 '난복'이 있으며, 어느 집의 난을 보면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다고 하였으므로, '난연'과 '난복'이 있는 작가 역시 '풍란'의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을 갖춘 사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④ [A]는 평소 '난'을 통해 '위안'을 얻던 작가가 '병석'에 누워 조리할 때 '풍란'에서 영감을 얻어서 창작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나)의 1문단에서 작가가 바쁜 생활 속에서 '난'을 통해 위안을 얻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4문단에서 병석에 누워 조리할 때 곁에 둔 '풍란'의 향을 맡으며 시상이 떠올라 [A]를 창작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⑤ [A]는 '난'과 함께한 작가의 정신세계를 함축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풍란'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군.

[A]의 '썩은 향나무 껍질에 옥 같은 뿌리를 서려 두고'는 풍란이 좋지 않은 토양에서 자라면서도 고결함을 잃지 않음을 드러낸 표현이다. 작가는 난의 이러한 속성을 묘사함으로써 겉으로 드러나는 위세나 부귀영화보다는 지조와 절개 같은 정신적 고결함을 추구하는 정신세계를 함축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풍란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59 답 (1) × (2)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풍란의 외양을 잎, 껍질, 꽃 순으로 묘사하고 있다. (○, (×))

뿌리

[A]에서 풍란은 잎, 뿌리, 꽃 순으로 묘사되고 있다. '껍질'은 '썩은 향나무의 껍질'로, 난이 뿌리를 내린 곳이다.

(2) '높고 조촐한' '품'과 '향'은 '풍란'의 숨겨진 가치로서 작가가 추구하는 삶의 자세를 드러내 준다. ((○), ×)

좋지 않은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풍란의 높고 조촐한 품과 향은 아는 이만 아는, 숨겨진 가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풍란'은 작가가 추구하는 삶의 자세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260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화자 오류 〈제4수〉에서 화자는 ~~옛사람의 자취를 따라 큰일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4수〉에서 화자는 박제상과 같은 충신이 없음을 한탄하고, 그의 아내가 박제상을 기다리다 망부석이 되었다는 전설을 언급하며 세자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낼 뿐이다. 박제상의 충성스러운 행적을 따라 큰일을 도모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오·오·이

① 〈제1수〉의 '만 리'는 화자와 대상의 거리감을 부각한다.

〈제1수〉의 '만 리'는 화자가 있는 곳과 '학가 선객', 즉 세자가 있는 요양 사이의 거리를 나타낸 말로, 둘 사이의 거리감을 부각한다.

③ 〈제6수〉의 '신고한 화친'에서는 역사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평가가 드러난다.

〈제6수〉에서 화자는 조정에 무신이 많았음에도 '신고한 화친'을 맺었다며 이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신고'는 '어려운 일을 당하여 몹시 애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병자호란의 패배로 화친을 맺은 일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이 드러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④ 〈제1수〉와 〈제8수〉에서 화자는 '꿈'과 '풀'을 의인화하여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한다.

〈제1수〉에서 화자는 '꿈아'라고 부른 뒤 꿈속에서 세자를 만난 일을 언급하며 세자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제8수〉에서 화자는 '풀'을 '너희'라고 부르며 시름없이 저절로 자란 풀과 달리 자신은 시름이 많음을 토로하고 있다.

⑤ 〈제9수〉의 '오색구름'은 장애의 이미지를 지닌다.

〈제9수〉에서 '오색구름'은 화자가 서울이 어디인지 알 수 없게 하므로 장애의 이미지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261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애석: 슬프고 아까움.

정·정·이

⑤ 헛짚기 〈제7수〉의 '달 발근 밤'과 〈제8수〉의 '봄비'에는 ~~부정적 현실이 개선되리라는 화자의 전망과 기대~~가 담겨 있다.

〈제7수〉의 '달 발근 밤'은 임금이 잠을 자지 못하고 근심하는 시간이고, 〈제8수〉의 '봄비'는 '풀'을 자라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부정적 현실이 개선되리라는 화자의 전망과 기대가 드러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오·이

① 〈제1수〉의 '어느덧 다녀온고'와 〈제4수〉의 '뉘라서 모셔 오리'라는 진술에는 잡혀간 세자를 그리는 화자의 마음이 투영되어 있다.

〈제1수〉의 '어느덧 다녀온고'는 화자가 꿈속에서 청나라 심양에 있는 소현 세자에게 다녀왔다는 의미이고, 〈제4수〉의 '뉘라서 모셔 오리'에는 청나라에 잡혀 있는 세자를 누가 모셔 올 수 있느냐는 의미로, 세자를 그리워하는 화자의 마음이 투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제4수〉의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님의 시름'에 대해, 〈제6수〉의 '조구리'와 같은 인물이 없는 현실에 처한 화자는 애석함을 느끼고 있다.

〈제4수〉의 '님의 시름'을 알 이가 없다는 것은, 세자가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간 참담한 상황에서 〈제6수〉의 '조구리'와 같은 충신이 없어 세자를 모셔 오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③ 〈제6수〉에서 조정에 많은 '무신'이 남아 있음에도 '신고흔 화친'을 맺은 결과로 〈제7수〉에서 세자가 '이역 풍상'을 겪는다고 화자는 판단하고 있다.

〈제6수〉에서 화자는 나라에 무신이 많은데도 '신고흔 화친'을 맺었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세자가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간 것에 대해 〈제7수〉에서 세자가 '이역 풍상(고난과 시련)'을 겪게 되었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적절하다.

④ 〈제7수〉에서 근심에 싸여 있는 '구중'의 임금을 떠올렸던 화자는 〈제9수〉에서는 '서울'을 찾지 못해 애태우고 있다.

〈제7수〉에서 화자는 잡혀간 '학가(세자)'와 '억만 창생' 때문에 근심하고 있을 '구중'의 임금을 떠올리고 있다. 이어 〈제9수〉에서 화자는 임금이 계신 서울을 찾아가려 하지만, '오색구름 깊은 곳에 어느 것이 서울인'지 몰라 애태우고 있다.

262 답 (1) 병자호란 (2) 세자 (3) 백성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가)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보기〉에서 「비가」는 병자호란 직후 지어진 작품이라고 하였다.

(2) 교체 (가)의 화자는 청나라에 머물고 있는 (세자, 박제상)의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보기〉에서 「비가」는 잡혀간 세자를 그리는 마음을 담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마음은 '이역 춘궁을 뉘라서 모셔 오리', '슬프다 ~ 참승흘 이 업세라' 등에서 청나라에 머물고 있는 세자를 모셔 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박제상'은 신라의 충신으로서 청나라가 아닌 왜에 의해 죽음을 맞이한 인물이다.

(3) 교체 (가)의 화자는 달 밝은 밤에 임금이 낯선 땅에서 고생하고 있을 세자와, 수많은 (백성, 무신)들을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제7수〉에서 화자는 달 밝은 밤 임금이 '이역 풍상'에 시달리는 세자와, '억만창생(수많은 백성)'에 대해 근심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33 가 고산별곡 나 까치

작품 분석 본문 128~131쪽

가 고산별곡

작가 장복겸
갈래 연시조
주제 자연 친화적인 삶의 태도
특징 ① 탈속적 삶의 태도와 풍류를 즐기는 태도가 드러남.
② 설의법을 통해 화자의 태도 및 정서를 강조함.
③ 감각적 표현을 통해 분위기를 조성함.

한 줄 의미

❶ 자연 속에서 술을 마시며 (**시름**)을 풀고자 함.
❷ (**속세**)와 멀어져 자연 속에서 술과 거문고로 소일하고자 함.
❸ 불고정에서 기거하며 (**시비**)를 따지는 일을 경계함.
❹ (**자연**) 속에서 술을 즐김.
❺ 자기 삶에 대한 인식과 (**소박한**) 삶
❻ 자신을 알아주는 (**벗**)이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자연과 동화된 삶

나 까치

작가 윤오영
갈래 현대 수필
주제 단아하고 소쇄한 삶의 희구,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가치
특징 ① 고사의 인용을 통해 자신이 깨달은 바를 드러냄.
② 간결하고 부드러운 문체로 대상에 대한 관찰과 일화를 서술함으로써 자연과 교감하는 삶의 가치를 전달함.

한 줄 요약

❶ (**까치 소리**)의 반가움
❷ '나'가 (**까치집**)을 좋아하는 이유와 (**집**)에 대한 관념과 정서
❸ 고요한 (**아침**) 숲속에서 까치를 보고, 예전에 본 (**민화**)를 떠올리며 깨달음을 얻음.

263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관조**: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비추어 봄.
- **사색**: 어떤 것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이치를 따짐.

정·정·이

③ (나)에는 대상을 관조하며 가치 있는 삶에 대해 사색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나)에서 까치 소리와 까치집에 대해 묘사한 것으로부터 '나'가 관조적인 태도로 '까치'에 대해 관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까치'와 마주친 경험과 이전에 본 적 있는 민화와 관련하여 자연과 공존하는 가치 있는 삶에 대해 사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오·이

① 화자 오류 (가)에는 ~~인간의 유한한 삶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가)에서는 자연에 은거하는 삶에 대한 화자의 만족감과 함께 자신을 알아주는 이가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 등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유한한 삶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태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② 화자 오류 (가)에는 ~~불우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가)의 화자는 자연에서 술과 악기로 소일하고 '일륜명월'을 벗 삼아 살고자 한다. 화자는 이러한 삶을 불운하다고 여기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지도 않다.

④ 화자 오류 (나)에는 ~~현재의 처지를 개선하여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나)에서 '나'는 까치와 까치집을 관찰하며 삶의 가치에 대해 사색하고 있을 뿐,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현재의 처지를 개선하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⑤ 범위 오류 (가)와 ~~(나)에는~~ 당면한 문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고뇌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가)의 〈제1수〉에서 화자가 풀고자 하는 '시름'은 〈제9수〉의 중장을 고려할 때, 화자를 알아주는 이가 없는 현실에 대한 아쉬움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화자는 술로 이러한 시름을 풀며 자연에 은거하는 삶에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화자가 당면한 문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고뇌하는 태도가 드러난다고 볼 수도 있다. 반면 (나)에는 문제 상황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고뇌하는 태도 역시 나타난다고 볼 수 없다.

264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시류**: 그 시대의 풍조나 경향.

정·정·이

(1) 범위 오류 (가)와 ~~(나)에는~~ 자연에 은거하여 유유자적하는 삶에 대한 만족감이 드러나 있다. (○, ⊗)

(가)의 화자는 자연 속에 은거하면서 한가롭게 사는 삶에 대해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나)에는 '나'가 정릉 안 숲속에서 까치를 마주한 경험만 제시되어 있으므로, '나'가 자연에 은거하여 살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2) (가)와 (나)에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담겨 있다. (⊙, ×)

(가)는 '믈', '뫼', '달'에서 술을 마시며 즐기려는 화자의 모습 등에서, (나)는 낮잠 자는 노옹의 배 위에 까치가 서 있는 민화에 대해 언급한 것 등에서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삶을 긍정하는 시선을 확인할 수 있다.

(3) 헛짚기 (나)는 일상의 관찰을 통해 ~~시류에 맞게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

(나)에서 '나'는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까치와 까치집을 관찰하여 집에 대한 관념 및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가치 등을 제시할 뿐, 시류에 맞게 사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265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범위 오류 ~~〈제1수〉의 '일존주'~~와 〈제9수〉의 '칠현'은 화자에게 근심을 유발하는 소재이다.

〈제1수〉에서 화자는 '일존주'로 시름을 풀고자 하고 있으므로, 이는 화자로 하여금 근심을 잊게 하는 소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제9수〉의 '칠현'은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소재이므로, 화자에게 근심을 유발하는 소재로 볼 수 있다.

오·오·이

② 〈제3수〉의 '강산'은 현재 화자가 머무는 곳이고, '세로'는 오래 전에 떠나온 곳으로 서로 대비된다.

〈제1수〉와 〈제4수〉를 통해 화자가 청산과 녹수로 둘러싸인 불고정에서 기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강산'은 현재 화자가 머무는 익숙한 공간인 반면, '세로(속세)'는 떠나온 지 오래되어 낯설어진 공간으로 '강산'과 대비된다.

③ 〈제3수〉의 '백 년 소일호리라'는 현재의 삶을 지속하려는 의지를, 〈제9수〉의 '이 곡조 게 뉘 알이'는 화자를 알아주지 않는 현실에 대한 회한을 나타낸다.

〈제3수〉에서 화자는 자연 속에서 '일존주'와 '삼척금'으로 풍류를 즐기며 평생을 소일하며 지내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제9수〉에서는 백아의 거문고 실력이 뛰어남을 알아본 종기의 고사를 인용하여 화자를 알아주지 않는 현실에 대한 회한을 나타내고 있다.

④ 〈제6수〉의 '믈', '뫼', '달'은 모두 화자의 감흥을 자아내는 자연물이자 벗이다.

〈제6수〉에서 화자는 엊그제 빚은 술 세 병을 '믈', '뫼', '달'에서 놀며 마신다고 하였으므로, 이 세 가지는 모두 화자의 감흥을 자아내는 자연물이자 벗이라 할 수 있다.

⑤ 〈제7수〉의 '흰 술 흔두 잔'과 '프른 글귀'는 화자의 소박한 삶의 모습을 보여 준다.

〈제7수〉에서 화자가 평생 동안 지닌 행장에 술 한두 잔과

글귀만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이 두 소재는 화자의 소박한 삶의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266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매개**: 둘 사이에서 양편의 관계를 맺어 줌.

정·정·이

⑤ [A]와 [B]는 모두 사물을 매개로 하여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A]에서 화자는 엇그제 빚은 술을 '믈', '뫼', '달'에서 마시겠다고 말하며, 자연과 하나가 되는 삶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B]에서 '나'는 낮잠 자는 노인의 배 위에 서 있는 까치 한 마리가 그려진 '민화' 한 폭을 언급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삶을 드러내고 있다. 이로 보아 [A]는 '술'을, [B]는 '민화'를 매개로 하여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오·이

① 부재 [A]는 ~~시선의 이동~~에 따라, [B]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A]에서 화자는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겠다는 의미로, '믈', '뫼', '달'을 언급한 것일 뿐 시선의 이동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B]에는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지 않으며,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이 형상화되고 있지도 않다.

② 부재 [A]는 대상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B]는 ~~대상을 의인화하는 방식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다.

[A]에서 화자는 함께 술을 즐길 대상으로 '믈', '뫼', '달'을 열거하고 있을 뿐, 자연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 [B]에서 '나'는 민화의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인간과 까치의 친근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을 뿐, 대상을 의인화하거나 자연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지 않다.

③ 부재 [A]는 구체적 대상에 ~~빗대어~~, [B]는 ~~주장적 소재를 열거하여 자연의 섭리에 대한 경외감을 표출~~하고 있다.

[A]에는 술 '세 병'이라는 구체적 대상이 제시되지만 이를 다른 것에 빗대고 있지 않으며, [B]에는 추상적 소재가 열거되고 있지 않다. 또한 [A]와 [B] 모두에서 자연의 섭리에 대한 경외감이 표출되고 있지 않다.

④ 헛짚기 [A]와 [B]는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자연이 지닌 역동적 생명력을 강조~~하고 있다.

[A]와 [B] 모두에서 시각적 이미지가 나타나지만, 이를 통해 자연의 역동적 생명력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정·오 지름길

⑤ [A]와 [B]는 모두 사물을 매개로 하여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⑤에서 '사물을 매개'로 한다는 표현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처럼 선지에 제시된 단어의 뜻을 모를 때는 앞뒤 문맥을 통해 의미를 추측해 보면 돼요. ⑤에서는 '매개'의 정확한 뜻은 몰라도 앞뒤 문맥상 '사물'이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제시한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정오를 판단하면 돼요. 그리고 선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평소에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정확히 숙지하여 어휘력을 키워 두는 것이 좋아요.

267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고사를 인용하여 전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가)의 화자는 〈제9수〉에서 친구인 백아의 거문고 실력이 뛰어남을 알아보았던 종기의 고사를 인용하여 자신을 알아주는 친구가 없는 현실에 대한 아쉬움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나)의 '나'는 이지봉과 정호음, 김백곡의 고사를 인용하여 실제로 접하지 않으면 실경인 것을 알아차리기 어려운 사례가 있음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고 있지 않다.

③ 범위 오류 (가)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가)는 〈제4수〉에서 어디서 '망녕의 손이 검다 셰다 ᄒᆞ나니'라며 시비를 따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으므로, '망녕의 손'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설의적 표현을 통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나)에서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268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나)는 비교의 방식을 통해 대상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나)에서는 제비집과 까치집을 비둘기장과 비교함으로써 '까치집'의 소쇄한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가)는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가)에서 말을 건네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통해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헛짚기 (가)와 (나) 모두 대구의 형식을 통해 ~~계절의 순환을 드러내고 있다.~~

(가)는 '청산은 에워 들고 ~ 신월이 소사난다' 등에서, (나)는 '제비집은 얌전하고 ~ 살림집이요, 까치집은 ~ 거처하는 집이다.' 등에서 대구의 형식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둘 다 계절의 순환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④ 범위 오류 (가)와 ~~(나) 모두~~ 무생물을 생물인 것처럼 표현하여 삶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가)의 화자는 〈제9수〉에서 무생물인 '일륜명월'을 사람인 것처럼 벗 삼겠다고 표현함으로써 자연과 동화된 삶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나)는 정호음의 시가 인용된 부분에서 무생물인 '산', '물(강물)', '달'을 생물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삶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⑤ 교체 (가)는 (나)와 달리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의 혼용이 나타나고 있다.

(가)에는 시제의 혼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나)는 주로 까치에 대한 화자의 생각이 현재 시제로 서술되고 있는데, 일부 과거의 일에 대해서는 과거 시제가 혼용되고 있다.

269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교체 〈제7수〉에서 화자는 '고초'하고 '담박'했던 생애를 긍정하면서도 '흰 술'에 만족해야 하는 현재의 삶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어.

〈보기〉에서 (가)는 자연에 은거하며 풍류를 즐기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노래하는 한편 출사의 기회를 얻지 못한 채 특별히 이루어 놓은 일 없이 만년에 접어든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담겨 있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제7수〉는 '고초'하고 '담박'했던 생애를 안타까워하면서도 '흰 술'에 만족하는 현재의 삶을 긍정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제1수〉에서 화자는 '청산', '녹수' 등을 통해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드러내면서도 만년에 느끼는 시름을 '일존주'로 달래려 하고 있어.

〈제1수〉에서 화자는 주변 풍경을 묘사함으로써 자연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드러내면서도, 한편으로는 눈앞의 '일존주'를 마시며 특별히 이룬 일 없이 만년에 접어든 것에 대한 시름을 풀고자 하고 있다.

② 〈제3수〉에서 화자는 '세로'의 삶과 달리 '백 년 소일'하는 '강산'에서의 삶을 긍정하며 자연에 은거하는 삶을 이어 가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제3수〉에서 '강산'은 자연을, '세로'는 속세를 의미한다. 화자는 출세를 위해 어느 댁(세도가) 문 앞에서 허리를 굽실거려야 하는 '세로'의 삶 대신에 '강산'에서 은거하며 평생을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③ 〈제4수〉에서 화자는 '늠', '손'의 평가와 상관없이 '고산 불고정'에서 지내는 삶을 통해 현재의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어.

〈제4수〉에서 화자는 자신이 '고산 불고정'에 기거하는 이유를 그곳이 좋아서라고 말함으로써, '늠'이나 '손'의 평가와 상관없이 그곳에서 지내는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⑤ 〈제9수〉에서 화자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 아쉬움을 드러내며 '일륜명월'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달래고 있어.

〈제9수〉에서 화자는 종기의 고사를 언급하며, '이 곡조'를 누가 알겠느냐고 말함으로써 백아를 알아본 종기처럼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현실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하늘의 '일륜명월'을 바라보며 달래고 있다.

270 답 (1) 만족감 (2) 부정적 (3) 아쉬움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가)의 '삼척금'은 자연에 은거하며 풍류를 즐기는 삶에 대한 (안타까움, 만족감)과 관련된다.

〈제3수〉에서 화자는 '삼척금'을 가지고 '백 년 소일호리라'라고 하였으므로, 자연에 은거하며 풍류를 즐기는 삶에 대한 만족감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2) 상반 (가)의 화자에게 '검다 셰다 ᄒᆞ'는 '손'은 (긍정적,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267번-③의 해설을 참고할 때 세상을 벗어나 고산 불고정에서 한가롭게 늙고 있는 화자가 '검다 셰다 ᄒᆞ'며 시비를 따지는 '손'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교체 (가)의 화자는 자신의 지난 생애를 돌아보며 (자랑스러움,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

〈제7수〉에서 화자는 자신의 지난 생애에 대해 '고초하고 담박'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보기〉의 내용을 고려할 때 이는 출사의 기회를 얻지 못한 채 특별히 이루어 놓은 일 없이 만년에 접어든 것에 대한 작가의 안타까움과 관련되므로, 지난 생애에 대해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71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화자 오류 '민화'에 대해 새롭게 깨달은 내용을 바탕으로 '시화'에 담긴 ~~장반된 해석들을 비판하면서~~ 글의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나'는 이지봉이 정호음의 시를 폄했으나 김백곡이 그와 관련된 실경을 접한 후 정호음의 시가 명구임을 깨달았다는 '시화'를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신도 낮잠 자는 노옹의 배 위에 까치가 앉아 있는 '민화'의 내용이 기발한 상상이 아니고 사실에 근거한 것임을 새롭게 깨달았음을 밝히고 있다. 이로 보아 '나'는 '시화'의 두 상반된 해석을 통해 자신의 깨달음을 드러낸 것일 뿐, 그 해석들을 비판하면서 주제를 드러내었다고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어느 날 이른 새벽'의 경험과 대비되는 '정릉 안 숲속'에서의 경험은 이 글의 창작 동기가 되고 있다.

'정릉 안'의 그윽한 '숲속'에서 까치와 함께 고요한 시간을 보낸 인상적인 경험이 사람들로 붐비던 과거의 '어느 날 이른 새벽'의 경험과 대비되어 이 글의 창작 동기가 되고 있다.

② '까치 소리'의 '기교 없이 가볍고 솔직'한 속성에 주목하여 반가움의 정서를 드러내며 글을 시작하고 있다.

'까치 소리는 반갑다.'라는 표현으로 글을 시작하면서 까치 소리의 '기교 없이 가볍고 솔직'한 속성을 제시하여 화자가 느끼는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③ 까치에 이어 '까치집'을 떠올리면서 '엉성하게 얽어 놓은' 것이 '용하게도 비가 아니 샌다'고 하면서 긍정적인 시선으로 특성을 서술하고 있다.

'나'는 '까치집'이 '엉성하게 얽어 놓은 것'이 '나무 삭정이가 그대로 떨어져서 쌓인 것' 같은데, 용하게도 비가 새지 않는다며 긍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④ '소쇄한 맛'이 있는 '까치집'과 '아늑한' 느낌을 주는 '제비집', 이들과는 대비되는 '비둘기장'을 언급하며 기교 없는 담백한 삶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까치집'이 '소쇄한 맛'이 나서 좋다고 밝힌 뒤, '까치집'과 마찬가지로 집다운 느낌을 주는 '아늑한' '제비집', 이와 대비되는 '비둘기장'을 서로 비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집'이란 '까치집'이나 '제비집'처럼 소쇄하거나 아늑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밝힘으로써 기교 없이 담백한 삶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34 가 입암이십구곡 나 고완

작품 분석 본문 132~135쪽

가 입암이십구곡

작가 박인로
갈래 연시조
주제 입암의 아름다운 경치 예찬
특징 ①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대상에 대한 친근감을 드러냄.
② 대구법과 대조법, 설의법 등을 활용하여 내용을 형상화함.

한 줄 의미

❶ 항상 곧게 서 있는 (**바위**)에 대한 예찬
❷ (**시련**)에도 변치 않는 바위에 대한 예찬
❸ 변함없는 바위를 (**벗**) 삼아 사는 즐거움
❹ (**탁연 직립**)하는 바위의 속성을 사람들이 본받게 하고 싶음.
❺ 자연과 함께 지내려는 삶의 자세와 (**안분지족**)

나 고완

작가 이태준
갈래 현대 수필
주제 옛 물건을 즐기고 감상하는 자세
특징 ① 연적을 계기로 사색의 범위를 확장하여 보여 줌.
② 대조를 통해 우리의 옛것이 지닌 아름다움을 드러냄.
③ 우아하고 고상한 문체와 한자어를 사용하여 예스런 분위기를 조성함.

한 줄 요약

❶ 아버지의 유품인 (**연적**)에 대한 '나'의 느낌과 기억
❷ (**옛사람들**)의 물건을 존경하게 된 이유
❸ 정성이 없는 세태에 대한 (**비판**)과 옛것을 완상하는 바람직한 자세

272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회한**: 뉘우치고 한탄함.
- **낙관적**: 인생이나 사물을 밝고 희망적인 것으로 보는 것.

정·정·이

② 세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가)는 〈제6수〉의 '세정이 하 수상ᄒᆞ니'에서 세태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나)는 '나'가 우연히 얻은 대혜보각사의 「서장」을 보며 오랜 시간 정성들여 책을 읽고 만들었던 옛날과 달리, 좋지 않은 글도 함부로 인쇄하여 책을 만드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는 것에서 세태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오·오·이

① 화자 오류 ~~지나온 삶에 대한 회한~~이 나타나 있다.

(가)에는 바위에 대한 예찬과 바위의 품성을 닮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 자연에서 늙어 가겠다는 의지 등이 드러나 있을 뿐, 지나온 삶에 대한 회한은 나타나지 않

는다. 그리고 (나)에도 아버지의 유품인 연적을 통해 삶의 흔적이 담겨 있는 옛사람들의 물건을 존경하게 된 이유와 옛것을 즐기는 자세 등이 언급될 뿐, 지나온 삶에 대한 회한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화자 오류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제시되어 있다.
(가)의 〈제6수〉에서 자연에 묻혀 살아가려는 의지가 제시될 뿐,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나)에도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화자 오류 초월적 세계에 대한 지향 의식이 나타나 있다.
(가)와 (나) 모두 초월적 세계에 대한 지향 의식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⑤ 화자 오류 부재하는 대상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가 드러나 있다.
(가)에는 부재하는 대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나)에서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부재하는 대상으로 볼 수 있지만 '나'가 아버지와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다.

273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가)와 (나) 모두 두 대상을 대비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
(가)의 〈제3수〉에서 '바위'는 화자가 벗으로 삼는 대상인 반면, '세상에 이익이 되는 세 벗은' 화자가 사귈 줄 모르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서로 대비된다. 〈제6수〉에서는 화자를 반기지 않는 '세정'과 화자가 지내고자 하는 '산', '물'이 대비됨으로써 자연에 은거하는 삶의 자세가 강조되고 있다. (나)는 '외국의 공예품들'과 '조선 시대의 공예품들'의 특성을 대비하며 생활의 자취가 남을수록 아름다워지는 우리의 옛것이 지닌 특징을 강조하고 있다.

(2) 범위 오류 (가)와 (나) 모두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바람직한 속성을 부여하고 있다. (○, ×)
(가)의 〈제1수〉에서는 바위를 유정한 대상으로 의인화하여 곧게 선 자태를 예찬하고, 〈제3수〉에서는 바위를 벗으로 삼으며, 〈제5수〉에서 이러한 바위의 '탁연 직립'한 속성을 긍정하며 본받을 만한 대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아 적절하다. 반면 (나)에서는 자연물을 의인화하고 있지 않다.

(3) (나)는 일상적인 경험과 그 속에서의 사색을 통해 '나'의 가치관을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다. (○, ×)
(나)에는 아버지의 유품인 연적, 대혜보각사의 「서장」 등의 옛 물건을 즐기는 일상적 경험과 그 속에서의 사색을 통해 옛것에 대한 지향과 그것을 즐기는 태도에 대한 '나'의 가치관이 진솔하게 드러나고 있다.

274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가)의 화자와 (나)의 '나'는 모두 긍정적으로 여기는 대상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가)의 화자는 '바위'를 긍정하며, 변함없이 높고 굳게 서 있는 바위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나)의 '나'는 연적과 같은 우리의 공예품을 긍정하며, 세월이 지날수록 사용자의 손때가 묻어 아름다워지는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오·오·이

① 화자 오류 (가)의 화자와 (나)의 '나'는 모두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직접 드러내고 있다.
(가)의 화자는 바위를 예찬하며 자연에 묻혀 사는 삶에 대한 의지를 나타낼 뿐, 그리움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나)에서는 '나'가 연적으로부터 아버님의 풍의를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엿볼 수 있기는 하나, 이를 표면에 직접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③ 교체 (가)의 화자는 (나)의 '나'와 달리 대상과 연관된 과거를 떠올리고 있다.
대상과 연관된 과거를 떠올리고 있는 것은 (가)의 화자가 아니라 (나)의 '나'이다. (나)에서 '나'는 아버지가 쓰시던 연적과 관련하여 아버지가 임종하실 때 머리맡에 붓과 연적이 놓였던 것을 본 일과, 외조모님이 허리춤에 넣고 다니시면서 '나'가 크기를 기다리던 일 등을 떠올리고 있다.

④ 교체 (가)의 화자와 달리 (나)의 '나'는 앞으로의 삶의 자세를 밝히고 있다.
(가)는 〈제6수〉에서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늙어 가겠다며 앞으로의 삶의 자세를 밝히고 있다. 반면, (나)에서는 옛것을 완상하는 바람직한 자세만 언급하고 있을 뿐, 앞으로의 삶의 자세를 밝히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

⑤ 화자 오류 (가)의 화자는 (나)의 '나'와 달리 자연물과 구분되는 인간만의 가치를 언급하고 있다.
(가)의 〈제2수〉에서 화자는 바위의 높고 굳음을 예찬하며, 사람이 이 바위라면 '대장부'일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바위의 가치를 알리고자 하므로, 자연물과 구분되는 인간만의 가치를 언급한다고 볼 수 없다.

275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천성적**: 타고난 성품의 성격을 지닌 것.
- **소회**: 마음에 품고 있는 회포(생각이나 정).

정·정·이

③ 헛짚기 '외국의 공예품'을 꺼려 한 것은, ~~시간이 경과되어도 외형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생활의 자취를 담아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4문단에서 '나'가 '외국의 공예품'이 너무 세밀하고 정교해서 작은 금만 생겨도 보기 싫어진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외국의 공예품'을 꺼려 하는 이유가 시간이 경과되어도 외형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생활의 자취가 남을수록 보기 싫어지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오·오·이

① '연적'을 보며 옷깃을 여미게 된 것은, 아버님이 주신 교훈을 떠올릴 수 있는 대상물로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나'는 아버지의 '연적'을 옷깃을 여미고 '입정', 즉 한마음으로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경건하게 대하는데, 이는 연적에서 아버님이 손수 주신 교훈을 떠올리기 때문이다.

② '찻종 하나, 술병 하나'의 금 간 데에서 아름다운 색조를 떠올린 것은, 옛사람들의 삶의 흔적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나)의 4문단에서 '나'가 '옛 물건의 옛 물건다운 것은 그 옛사람들과 함께 생활한 자취를 지녔음에 그 덕윤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나'가 '찻종 하나, 술병 하나'의 금 간 데에서 아름다운 색조를 떠올린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조선 시대의 공예품'이 사용할수록 아름다워진다고 여긴 것은, 천성적인 순박함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나'가 '조선 시대의 공예품'에 대해 '윤낙이 순박하게 타고 나서 손때나 음식물에 절수록 아름다워진다'고 한 것으로 보아 적절하다.

⑤ '대혜보각사의 「서장」'을 보며 소회를 느낀 것은,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하여 책이 완성되는 과정을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4문단의 '일획 일자를 써서 ~ 책이 되었을 것인가 생각하면'으로 보아, '나'가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하여 한 권의 책을 비로소 완성하는 과정을 떠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오늘날 인쇄의 덕으로 좋지 않은 글을 함부로 박아 돌리는 세태에 대한 일종의 참회를 느끼며, '대혜보각사의 「서장」'에 대한 소회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76 답 ㄴ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ㄴ. 아버지의 '연적'을 보며 마음을 바르게 하곤 한다.

1문단에서 웃어른이 안 계셔 때로 거만스러워지는 '나'가 아버님이 쓰시던 '연적'을 볼 때에는 옷깃을 여미고 입정을 맛본다는 것으로 보아 적절하다.

오·오·이

ㄱ. 화자 오류 ~~오늘날의 인쇄 기술을 긍정~~하고 있다.

4문단의 '인쇄의 덕으로 오늘 ~ 일종의 참회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로 볼 때, '나'가 오늘날 책을 함부로 만드는 세태를 안타까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인쇄 기술을 '나'가 긍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ㄷ. 헛짚기 ~~때가 잘 타지 않는~~ 옛 물건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있다.

'찻종 하나, 술병 하나라도 ~ 아름다운 색조가 떠오르는 것이다.'와 '조선 시대의 공예품들은 윤낙이 ~ 책장도 부드럽게 넘어간다.' 등으로 볼 때, '나'가 옛 물건에 생활의 때가 묻어 있는 점에서 아름다움을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때가 잘 타지 않는 점에서 아름다움을 찾고 있지 않다.

277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외국의 공예품'은 사용자의 손때가 묻을수록 보기 싫다고 생각하고 있다.

(나)의 '나'는 우리 조선 시대의 공예품과 달리 외국의 공예품은 생활의 자취가 남을수록 보기 싫어진다고 하였다. 사용자의 손때 역시 생활의 자취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오·오·이

① 상반 '몇 자루의 붓'과 관련된 ~~희미한~~ 몽롱하지 않은 기억을 떠올리고 있다.

2문단에서 '나'는 아버지의 임종 때 머리맡에 놓여 있던 몇 자루의 붓과 연적을 본 것이 어렸을 때이지만 조금도 몽롱한 기억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로 보아 '몇 자루의 붓'과 관련된 기억이 희미하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상반 '찻종 하나'를 세월에도 ~~변하지 않는~~ 변하는 존재로 여기고 있다.

3문단에서 '나'는 '찻종 하나'에 생긴 옛사람들의 생활의 때로부터 황혼과 같은 아름다운 색조를 떠올리고 있다. 이를 통해 '나'가 '찻종 하나'를 세월에 의하여 변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화자 오류 '조선 책'이 표지가 윤택하고 책장이 부드러워 ~~가는 금 하나에도 쉽게 망가진다고 여기고~~ 있다.

4문단에서 '나'는 조선 책들은 어느 정도로 손때에 절어야

만 표지가 윤택해지고 책장도 부드럽게 넘어간다고 하였을 뿐, 금 하나에도 쉽게 망가진다고 하지는 않았다.

⑤ 화자 오류 ~~'대혜보각사의 「서장」을 자신의 도일거리로 여겼던 것에 대해 참회하고 있다.~~

4문단에서 '나'는 '대혜보각사의 「서장」'을 보고 옛사람들이 책을 정독하고 만들었던 방식과 달리 오늘날은 책을 함부로 만들고 있음을 깨달으며 참회를 하고 있다. '대혜보각사의 「서장」'을 도일거리로 여겼던 것에 대해 참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278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헛짚기 〈제6수〉에서는 ~~바위의 속성에 산과 물의 속성을 더해 세속을 이상적 공간으로 정화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군.

〈보기〉에서 자연은 세속에서 벗어난 이상적 세계로 그려진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제6수〉에서 화자가 '세정이 하 수상'하여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늙겠다고 한 것은 부정적인 세속에서 벗어나 이상적인 자연에서 지내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세속을 이상적 공간으로 정화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오·오·이

① 〈제1수〉에서는 바위를 인간보다 우월한 특성을 지닌 인격체로 제시하고 있군.

〈보기〉에서 자연은 인간이 본받을 만한 우월한 특성을 지닌 인격체로 그려진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제1수〉에서 화자는 바위를 유정한 대상, 즉 인격체로 제시하고 가장 신령스러운 우리도 하기 어려운 '직립불의'를 바위가 보여 준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② 〈제2수〉에서는 바위의 높고 불변하는 속성을 예찬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군.

〈보기〉에서 자연은 인간에게 예찬의 대상이 된다고도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제2수〉에서 화자는 높고 불변하는 속성을 지닌 바위를 예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제3수〉에서는 진실한 품성을 지닌 바위를 벗으로 삼고자 하는 의식을 나타내고 있군.

〈보기〉에서 자연은 인간이 벗으로 삼고자 하는 대상이 된다고도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제3수〉에서 화자가 바위의 '고모진태', 즉 옛 모습대로의 참된 자태를 벗 삼아 앉는다고 하는 것은 진실한 품성을 지닌 바위를 벗으로 삼고자 하는 의식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제5수〉에서는 바위를 본받을 만한 특성을 지닌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

〈제5수〉에서 화자는 바위가 '탁연 직립', 즉 빼어나게 곧게 서 있으니 본받을 만하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화자가 바위를 본받을 만한 특성을 지닌 대상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79 답 (1) 변함없는 (2) 고모진태 (3) 골짜기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상반 바위의 (변화무쌍한, 변함없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제2수〉의 '바람 서리에 불변ᄒᆞ니 뚫을수록 더욱 굳다'로 보아 화자가 바위의 변함없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교체 '(세상에 이익이 되는 벗, 고모진태)'을/를 사귀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제3수〉의 '고모진태를 벗 삼아 안ᄌᆞ시니'로 보아 화자가 바위가 지닌 옛 모습대로의 참된 자태를 사귀고자 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세상에 이익이 되는 벗'은 명예와 권력, 부와 같은 세속적 가치를 가리키는 말로 화자가 사귈 줄 몰라 하는 대상이다.

(3) 상반 바위의 우월한 특성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유를 바위가 '(골짜기, 광야)'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제5수〉에서 화자는 '탁연 직립'하는 바위를 본받음 직하지만, 바위가 '구름 깁ᄒᆞᆫ 골짜기'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오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광야'는 바위를 옮겨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고자 한 곳이다.

280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헛짚기 '왕기순인'은 작가가 현재의 공간에서 추구하는 ~~안빈낙도의 신념을 보여 준다.~~

〈보기〉에서 자연은 안빈낙도의 신념을 실현하는 안식처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다. 〈제6수〉에서 '왕기순인'은 자기 몸을 굽혀 남을 좇으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화자는 왕기순인하여 어디로 옮아가겠느냐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산'과 '물'에서 살겠다

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왕기순인'이 안빈낙도의 신념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없다.

오·오·이

① '바위'는 작가가 유정함을 느끼는 자연물로, 긍정적 의미가 부여되는 대상이다.

〈보기〉에서 박인로의 작품에서 자연은 정신적 풍요를 가능하게 하는 공간으로 기능하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물에 긍정적인 의미가 부여된다고 하였다. 이는 〈제1수〉에서 화자가 무정히 서 있는 바위를 유정하게 느끼며 곧게 선 자태를 긍정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구름 깁흔 골짜기'는 중앙 정치에서 소외된 작가가 머물면서 안식을 얻는 공간이다.

〈보기〉에서 박인로는 중앙 정치에서 소외되어 지방에 머무는 향반 계층으로, 그에게 자연이 안빈낙도의 신념을 실현할 안식처라고 하였다. 〈제5수〉의 '구름 깁흔 골짜기'는 현재 화자가 머물며 바위의 '탁연 직립'한 모습에 감탄하고 이를 본받고자 하는 곳으로, 〈보기〉에 따르면 향반 계층인 작가가 지방에서 머물면서 정신적 안식을 얻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③ '나를 본돌 반길넌가'에서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작가의 고뇌가 드러난다.

〈제6수〉의 '세정이 하 수상ᄒᆞ니 나를 본돌 반길넌가'는 세상이 수상하여 화자를 보아도 반기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중앙 정치에서 소외되어 어려움을 겪었던 작가의 고뇌가 드러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⑤ '물 됴흔 골'은 현실 문제에 대한 고뇌를 보상하고 정신적 풍요를 작가에게 줄 수 있는 공간이다.

〈보기〉에서 자연은 정신적 풍요를 가능하게 하는 공간으로, 현실 문제에 대한 고뇌를 보상해 주기도 한다고 하였다. (가)에서 '물 됴흔 골'은 화자가 이곳에서 늙어 가겠다고 다짐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작가의 고뇌를 보상하고 정신적 풍요를 가능하게 해 주는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다.

35 가 멋 설 나 도산십이곡

작품 분석 본문 136~139쪽

가 멋 설

작가 조지훈
갈래 현대 수필
주제 멋의 의미를 통해서 본 자족하는 삶의 행복, 가을밤에 느끼는 인생에 대한 단상
특징 ①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함.
② 예스러운 말투와 한자어의 사용으로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형성함.
③ 영탄적 어조와 대구법, 설의법 등을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함.

한 줄 요약

❶ (가을)이 왔음을 인식함.
❷ (멋)에 대한 상념과 소박한 삶 가운데에서 느끼는 (만족감)과 행복

나 도산십이곡

작가 이황
갈래 연시조
주제 자연 속에 묻혀 살고 싶은 소망과 학문 수양에의 의지
특징 ① 자연을 향유의 대상이자 깨달음을 주는 대상으로 설정하여 시상을 전개함.
② 설의법, 대구법 등의 표현 방식을 사용하여 주제를 전달함.

한 줄 의미

❶ 자연과 더불어 허물없이 살고 싶은 (소망)
❷ 순박한 풍속과 어진 (인성)에 대한 강조
❸ (독서)의 즐거움
❹ 학문 정진에의 (의지)
❺ (학문)의 깊은 진리와 영원한 학문 수양의 길

281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글쓴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의 자세가 드러나 있다.

(가)의 '한 바리 밥과 산나물로 ~ 세상에 허물할 이가 누군가.'에서 글쓴이가 소박한 삶에 만족하며 유유자적하게 사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또한 〈제2수〉와 〈제7수〉에서 화자가 자연을 벗 삼고 만권의 책과 함께 한평생을 보내는 삶을 바람직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오·이

① 부재 ~~글쓴이의 체험을 사실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가)의 글쓴이와 (나)의 화자 모두 체험을 사실적으로 전달하고 있지 않다.

② 화자 오류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이~~ 드러나 있다.

(가)의 6문단에서 구태여 복을 찾으며 세상이 괴롭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 언급이 제시되고는 있으나, 이는

자족하는 삶의 행복을 모르는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낸 것일 뿐,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으로 보기 어렵다. (나) 역시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③ 화자 오류 현재와 대비되는 과거의 상황을 그리워하고 있다.

(가)의 글쓴이와 (나)의 화자 모두 자신의 인생관과 삶의 방향에 대해 사색하고 있을 뿐, 현재와 대비되는 과거의 상황을 그리워하고 있지 않다.

⑤ 화자 오류 현상에 얽매이는 태도를 비판하며 규범적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가)의 글쓴이는 모든 것이 덧없음을 위하여 산다고 생각하고 변함이 없는 세상은 '멋'이 없는 세상이며, 세상 사람들이 구태여 복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세상이 괴로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로 보아 (가)의 글쓴이는 변하기 쉬운 세상사를 이해하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삶에 대한 지향을 나타내고 있을 뿐, 현상에 얽매이는 태도를 비판하며 규범적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의 화자 역시 자연에 묻혀 학문에 정진하는 삶에 대해 노래할 뿐, 현상에 얽매이는 태도를 비판하며 규범적 가치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282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범위 오류 (가)와 (나) 모두 한문 문체의 양식을 취하여 전통적 사고방식을 드러내고 있다. (○, ×)

(가)는 한문 문체의 하나인 '설'의 양식을 취하여 안분지족이라는 전통적 사고방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반면 (나)는 한문 문체가 아닌, 우리 고유의 시가 양식인 연시조로 자연에 묻혀 사는 삶, 학문에의 정진 등의 전통적 사고방식을 드러내고 있다.

(2) 교체 (가)는 (나)와 달리 공간적 배경이 주제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 ×)

(가)에서는 주어진 삶에 자족하는 삶의 태도를 언급할 뿐, 특별한 공간적 배경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반면, (나)는 '연하'로 집을 삼고 '풍월'을 벗으로 삼아 학문에 정진하는 삶에 대해 노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연이라는 공간적 배경이 주제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나)에는 관조적 태도와 학문 정진에 대한 의지가 드러나 있다. (○, ×)

(나)의 〈제11수〉에서 화자는 '청산'과 '유수'와 같은 자연을 관조하면서 그로부터 변함없는 의지를 본받아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만고상청ᄒᆞ리라.'라고 하며 학문 정진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283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가)와 (나)에는 모두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사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가)의 글쓴이는 '한 바리 밥과 산나물'로 목숨을 잇는 것에 대해 복이 족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나)의 화자는 〈제2수〉에서 'ᄇᆞ라는 일은 허믈이나 업고쟈', 〈제7수〉에서 '만권생애로 ~ 닐러 므슴 ᄒᆞᆯ고'와 같이 말하고 있다. 이로 보아 (가), (나) 모두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사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오·이

① 범위 오류 (가)에는 (나)와 달리 자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드러나 있다.

(가)는 가을밤의 풍경을 묘사하는 3문단에서 자연에 대한 글쓴이의 긍정적 인식을 엿볼 수 있다. (나)는 화자가 '연하'로 집을 삼고, '풍월'을 벗으로 삼으며, '청산'과 '유수'로부터 본을 받아 학문에의 정진을 다짐한다는 점에서 자연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화자 오류 (가)에는 (나)와 달리 과거에 대한 후회와 성찰이 드러나 있다.

(가)와 (나) 모두에서 과거에 대해 후회하거나 성찰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③ 화자 오류 (나)에는 (가)와 달리 당시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드러나 있다.

(나)의 화자가 당시를 '태평성대'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당시 사회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헛짚기 (가)와 (나)에는 모두 계절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정서가 드러나 있다.

(가)에는 가을이라는 계절적 배경이 드러날 뿐, 계절의 흐름에 따라 글쓴이의 정서가 변하고 있지 않다. (나)에는 계절적 배경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화자의 정서도 변하고 있지 않다.

284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부재 옛사람의 작품을 인용하여 자신의 괴로움을 강조하고 있다.

옛사람의 작품을 인용하고 있지 않으며, 글쓴이가 괴로움을 느끼고 있지도 않다.

오·오·이

① 영탄적인 어조로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

5문단의 '나의 멋이 ~ 아가 되는구나', 6문단의 '복을 찾는 사람이여', 7문단의 '멋을 삼노라.' 등에서 영탄적 어조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글쓴이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2문단에서 '다시 왜 사는가'라고 질문한 뒤, '유위전변-바로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이 사나 보다.'라고 답함으로써 글쓴이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③ 대구를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이 다양함을 보여 주고 있다.

4문단의 "'도'라 하고 '일물'이라 하고 '일심'이라 하고", '멋을 멋있게 하는 것이 ~ 무상을 무상하게 하는 것이 ~' 등과 5문단의 '나의 멋이 ~ 아가 되는구나.' 등에서 대구를 활용하여 '멋'의 속성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⑤ 예스러운 말투와 한자어의 사용으로 고풍스러움을 드러내고 있다.

'내 모르되', '하느뇨', '삼노라' 등의 예스러운 말투와, '황국', '유위전변', '일물', '일심', '자적' 등의 한자어를 사용하여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85 답 ㄱ, ㄴ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ㄱ.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4문단의 '멋이 있겠는가', 5문단의 '있다 하랴', 6문단의 '족하지 않은가', '허물할 이가 누군가' 등에서, 설의적 표현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ㄴ. 감탄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미를 사용하여 글쓴이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284번-①의 해설에서 알 수 있듯이 '-구나'는 화자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주목함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고, '-노라'는 자기의 동작을 장중하게 선언하거나 감동의 느낌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모두 감탄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러한 어미를 사용함으로써 멋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오·오·이

ㄷ. 부재 ~~말하고자 하는 것을 반대로 나타내어~~ 세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6문단에서 구태여 행복을 찾으려 하는 이들을 안타까워한다는 점에서 세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난다고 할 수도 있으나,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286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제2수〉의 초장과 〈제3수〉, 〈제11수〉, 〈제12수〉의 초장·중장에서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오·이

① 부재 ~~청각적 이미지~~를 부각하여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나)에서는 자연 풍경에 대한 묘사가 주로 시각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청각적 이미지를 부각하여 대상을 묘사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② 부재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시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나)에는 역설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이로 인해 시적 긴장감이 높아졌다고도 볼 수 없다.

④ 부재 ~~청자와 대화를 주고받는 형식~~을 통해 주제를 심화하고 있다.

(나)에서 청자와 대화를 주고받는 형식은 찾아볼 수 없다.

⑤ 부재 ~~화자의 정서를 자연물을 통해 드러내는 감정 이입을 활용~~하고 있다.

(나)에서는 자연물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을 엿볼 수 있을 뿐이다. 화자의 정서를 자연물에 이입하여 표현하는 감정 이입이 활용되고 있지는 않다.

287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현학적**: 학식이 있음을 자랑하는 것.
- **향유**: 누리어 가짐.

정·정·이

② 헛짚기 [B]의 '허다 영재'는 [A]의 '허물이나 업고자' 하는 화자의 삶의 태도를 ~~현학적이라고 비판할 것 같아.~~

[A]에서 화자는 자연에서 허물없이 살고자 하는 바람을 내비치며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B]의 '허다 영재(수많은 영재)'가 [A]의 화자를 현학적이라고 비판할 것이라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A]의 '연하'와 '풍월'은 향유 대상으로서의 자연물로 보이고, [D]의 '청산'과 '유수'는 깨달음을 주는 자연물로 보여.

[A]의 자연물은 화자가 집과 벗으로 삼은 것이므로, 향유

대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D]의 자연물은 변함없는 속성을 지닌 것으로 화자로 하여금 끊임없이 학문에 정진할 것을 일깨운다는 점에서 깨달음을 준다고 할 수 있다.

③ [C]의 '낙사ㅣ 무궁'에는 자족적 태도가 드러나 있는데, 이는 [E]에 나타나듯이 '늙는 줄'도 잊고 학문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에 자연스럽게 연결된다고 봐.

[C]에서 화자는 많은 책을 읽으며 생애를 보내는 것의 즐거움이 끝없다고 말하면서 자족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러한 태도는 늙는 줄도 모르고 학문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내용의 [E]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④ [D]에서 말하는 '그치지 마라'의 내용은 [C]의 '만권 생애'와도 관련되는 것 같아.

[D]에서 '그치지 마라'는 끊임없는 학문 수양의 의지를 나타낸다. 이는 수많은 책을 읽으며 지내는 생애, 즉 [C]의 '만권 생애'와도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⑤ [E]의 '우부도 알며 ᄒᆞ거니'는 [B]의 중장처럼 누구나 '어진 인성'을 지니고 있으니 그로부터 자기 수양이 가능함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

화자는 [E]에서 어리석은 사람도 알고자 하면 학문을 수양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하였다. 이를 [B]의 중장에 비추어 보면, 누구나 어진 인성을 갖고 있으므로 어리석은 사람도 자기 수양이 가능함을 말한 것이라 볼 수 있다.

288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사람의 본성을 선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 ×)

〈제3수〉의 '인성이 어지다 ᄒᆞ니 진실로 올흔 말이'를 통해 (나)의 화자가 사람의 본성을 선하다고 믿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화자 오류 '청산', '유수'로부터 ~~변화의 가치~~를 깨닫고 있다. (○, ×)

(나)의 화자는 '청산'과 '유수'의 변하지 않는 속성으로부터 학문 정진에의 교훈을 얻고 있지, 변화의 가치를 깨닫고 있지 않다.

(3) 화자 오류 자연으로부터 즐거움을 얻는 ~~한편 늙는 것에 대한 서러움~~도 느끼고 있다. (○, ×)

〈제2수〉에서 '연하'로 집을 삼고 '풍월'을 벗 삼아 늙어 간다는 것은 자연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화자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제12수〉에서 학문을 하며 지내는 삶에 대해 '늙는 줄을 몰래라.'라고 한 것은 학문의 길이 영원함을 나타낸 것으로, 늙는 것에 대한 서러움과 관련이 없다.

289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화자 오류 '나'는 ~~세상의 변화가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준다~~고 보는군.

4문단에서 '나'는 변함이 없는 세상이라면 무슨 멋이 있겠느냐며 세상의 변화를 긍정하고 있다. 그리고 6문단에서 사람들이 행복을 구태여 찾으려 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라고 하였다. 이로 보아 '나'는 세상의 변화가 아닌, 행복을 구태여 찾으려는 삶의 태도 때문에 사람들이 괴로운 것이라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오·이

① 드높아 가는 '하늘'과 '황국'은 가을이 왔음을 알게 하는군.

1문단에서 '나'가 드높아 가는 '하늘'을 보며 가을인가 생각하고, 뜰 앞에 핀 '황국'을 본 사람들이 가을이라 이르니, 자신은 가을이라 믿을 수밖에 없다고 한 것으로 보아 적절한 진술이다.

③ 한 문장으로 한 문단을 구성하여 '나'의 삶의 태도를 강조하는군.

4문단에서 '나'는 '멋'에 대한 정의가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 '나'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행복임을 알려고 함을 멋으로 삼겠다는 한 문장으로 글을 마무리함으로써 '나'의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④ '멋'과 '무상'이 서로를 서로답게 한다고 생각하는 '나'의 인식이 나타나는군.

4문단의 '멋을 멋있게 하는 것이 바로 무상이며, 무상을 무상하게 하는 것이 멋'을 통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⑤ 가진 것으로 충분히 복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의 인생관이 드러나는군.

6문단에서 '나'는 '한 바리 밥과 산나물'을 먹고 상 위에 읽을 책이 있으니 살아 있는 복이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로 보아 '나'가 가진 것으로 충분히 복이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볼 수 있다.

290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이욕**: 사사로운 이익을 탐내는 욕심.

정·정·이

① 세상살이에 변화와 굴곡이 많음에도 집착함이 없고, 어떤 일에 대해서도 그 안에서 자적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가)에서 '나'는 세상이 본래 변하기 쉬워 덧없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흔들리지 않고 유유자적하며 삶에 만족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오·오·이

② 화자 오류 ~~인간의 이욕에 매여 살면서도~~ 그 스스로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을 밝혀 적었으니, 이로부터 괴로움을 벗어날 교훈을 얻게 된다.

(가)의 '나'는 인간의 이욕에 매여 사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화자 오류 훌륭하다. 내가 젊었을 적에 그런 멋진 생각을 했으면 이리 ~~곤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만 실천이 없이 말만 무성하지 않기를 바란다.

(나)의 화자는 자신의 처지를 곤궁하다고 보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화자 오류 행복해지고자 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를 제시하며 ~~모범적인 삶을 좇아가되, 즐김과 따져 봄의 균형 맞추기를 권하고 있어~~ 삶의 좋은 지침이 되고 있다.

(가)의 6문단에서 '이는 구태여 복을 ~ 멀어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한 것에서 행복해지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제시하고 있지만, 행복에 연연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권할 뿐, 모범적인 삶을 좇으며 즐김과 따져 봄의 균형 맞추기를 권하고 있지는 않다.

⑤ 헛짚기 ~~사람들은 기이하거나 허황한 것을 좋아하나 지훈은 평범함 속에서도 지조를 잃지 않으려는 멋을 가지고 있으니~~, 후세들도 그 성정을 따르기를 바란다.

(가)에는 사람들이 기이하거나 허황한 것을 좋아한다는 내용이나, 글쓴이인 조지훈이 평범함 속에서도 지조를 잃지 않으려는 멋을 지니고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91 답 (1) 지양 (2) 있는 그대로 누리며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상반 복을 찾으려 하는 태도를 (지양, 지향)하고 있다.

6문단의 '어째 세상이 괴롭다 하느뇨. ~ 행복이란 찾을수록 멀어 가는 것이 아닌가.'를 통해, '나'가 복을 찾으려 하는 태도를 지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교체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누리며, 극복하고 개선하며) 사는 것을 긍정하고 있다.

6문단의 '한 바리 밥과 ~ 살아 있는 복이 족하지 않은가.'를 통해 '나'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있는 그대로 누리는 태도를 긍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6 가 독락당 나 방우산장기

작품 분석 본문 140~143쪽

가 독락당

작가 박인로

갈래 가사

주제 독락당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와 독락당의 옛 주인인 이언적에 대한 추모

특징 ① 공간의 이동에 따라 자연 곳곳에 대한 예찬을 드러냄.
② 독락당의 옛 주인인 이언적의 흔적을 느끼며 추모함.
③ 비유법, 설의법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함.

한 줄 의미

❶ 독락당의 경치를 보며 독락당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생각함.

❷ (**양진암**)과 (**관어대**)의 경치를 보며 학문에 정진한 이언적의 삶에 대해 생각함.

나 방우산장기

작가 조지훈

갈래 현대 수필, 기

주제 '나의 집'을 '방우산장'이라 이름 지은 것의 의미, 자유로운 삶에 대한 지향

특징 ① 대상에 대한 통념과 글쓴이의 개성적인 시각을 대조하여 제시함.
② 불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글쓴이의 삶의 지향을 드러냄.
③ 열거법과 설의법 등을 활용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함.

한 줄 요약

❶ '나'가 거처하는 곳마다 '(**방우산장**)'이라는 집 이름을 붙인 이유

❷ '나'의 (**자유로운**) 정신과, '방우산장'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것들

❸ 현판이 필요 없는 방우산장과, '나'가 죽은 후에 (**묘석**)이 필요 없는 이유

292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회귀적**: 한 바퀴 돌아 제자리로 돌아오거나 돌아가는.

정·정·이

① 영탄적 어조를 사용하여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윽한 경치는 견줄 데 전혀 없네', '변함없는 경치가 그 더욱 반갑구나', '성현의 일 도모하시도다' 등에서 감탄의 의미를 나타내는 종결 어미 '-네', '-구나', '-도다'가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영탄적 어조로 독락당과 그 주변의 자연 경관 및 이언적에 대해 예찬하는 화자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오·오·이

② 화자 오류 자연의 불변성에 주목하여 ~~인간사의 한계를 부각~~하고 있다.

'변함없는 경치가 그 더욱 반갑구나.'에서 화자가 자연의 불변성에 주목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변함없는 자연에 대한 반가움이라는 정서를 제시한 것일 뿐, 인간사

의 한계를 부각하고 있지 않다.

③ 화자 오류 현실의 모순을 언급하며 과거 회귀적 지향을 나타내고 있다.
화자가 과거의 인물인 이언적의 자취를 좇는 모습에서 과거 회귀적 지향이 나타난다고 볼 수도 있으나 현실의 모순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④ 부재 치밀한 관찰에 근거하여 다양한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화자는 독락당, 양진암, 관어대를 둘러보며 소회를 드러내고 있을 뿐, 치밀한 관찰에 근거하여 다양한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⑤ 화자 오류 역사적 사례를 제시하며 장황 극복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공자의 제자들인 안회, 증삼, 자유, 자하, 그리고 사마온공, 용면, 엄자릉과 같은 역사적 인물들이 언급되고 있으나, 화자가 이들을 통해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293 답 ㄱ, ㄷ, ㄹ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ㄱ. 비유적 표현을 통해 풍경을 효과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관어대 내려오니 펼친 듯한 반석에 자취가 보이는 듯.', '상쾌하고 맑은 기운 난초 향기에 든 듯하네.' 등에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독락당 주변의 자연 풍경을 효과적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ㄷ. 공간을 이동함에 따라 대상에 대한 화자의 만족감이 제시되고 있다.
화자는 독락당에서 양진암으로 갔다가 관어대로 내려오며 이곳에서 지냈던 옛 주인의 자취를 느끼고 주변 풍경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ㄹ. 감탄의 의미를 나타내는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292번-①의 해설을 참고할 때, 적절함을 알 수 있다.

오·오·이

ㄴ. 부재 역설적 상황을 설정하여 부조리한 사회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
(가)는 역설적 상황을 설정하거나 부조리한 사회 현실을 고발하고 있지 않다. (가)에는 독락당과 주변 풍경을 감상하며 이언적의 삶과 함께 독락당이라는 공간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는 화자의 모습이 제시되고 있을 뿐이다.

294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푸른 담쟁이 헤치고 ~ 시내 따라 둘러 있고', '상쾌하고 맑은 기운 난초 향기에 든 듯하네.', '우뚝한 낭떠러지는 ~ 비치는 듯' 등에서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오·이

① 부재 연쇄법을 사용하여 대상을 긴밀하게 연결하고 있다.
(가)에서 연쇄법이 사용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② 헛짚기 고사를 활용하여 현재의 삶에 대한 반성을 드러내고 있다.
(가)에서 벼슬을 거부하고 자연에 은거한 '엄자릉'에 관한 고사를 인용한 것은 자연에 묻혀 사는 삶의 즐거움을 언급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화자가 현재의 삶에 대한 반성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④ 헛짚기 일상적 소재를 열거하여 화자의 심리적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왼쪽엔 안회 증삼, 오른쪽엔 자유 자하'에서 '안회 증삼', '자유 자하'를 그들의 사상이 담긴 책을 일컬은 것이라 할 때, 일상적 소재를 열거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소재들이 화자의 심리적 변화를 보여 준다고 할 수는 없다.

⑤ 부재 계절의 변화에 따라 학문 수양에 대한 화자의 의지가 강조되고 있다.
(가)에는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이에 따라 학문 수양에 대한 화자의 의지가 강조된다고도 볼 수 없다. '독서에 골몰하여 성현의 일 도모하시도다.'라는 구절은 독락당에서 학문을 수양했던 이언적을 추모하는 내용으로, 학문 수양에 대한 화자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 아니다.

295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헛짚기 ⓜ: 가정을 통해 소망이 생전에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나)의 '나'는 자신이 죽은 뒤 '방우산장'이라는 묘석이 무덤에 세워지는 상황을 가정하며, 자신의 뜻이 사후에 오해를 받게 될 것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나'의 소망이 생전에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오·이

① ㉠: 공간의 외부와 내부에 대한 진술을 나란히 제시하여 화자가 받은 인상을 개괄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에서는 '수많은 긴 대나무 시내 따라 둘러 있'는 독락당

외부의 자연 경관과 '만권의 서책'이 '네 벽에 쌓'여 있는 내부의 모습을 나란히 제시하여 독락당을 보고 화자가 받은 인상을 개괄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② ㉡: 감각적 심상과 비유를 결합하여 주변 경관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의 '난초 향기에 든 듯하네.'는 후각적 심상과 직유법이 결합된 표현으로, 관어대에서 느낀 경치의 상쾌하고 맑은 기운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③ ㉢: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어질 내용을 이끌어 내고 있다.

㉢에서 화자는 '갈매기들'에게 인격을 부여하여 '옛일을 아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다. 여기서 '옛일'은 바로 다음에 제시된 '엄자릉'과 관련된 고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이어질 내용을 이끌어 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 대조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의 '고루거각'과 '용슬소옥'은 각각 큰 집과 작은 집이라는 뜻으로, '나'는 이러한 대조적 표현을 활용하여 '집'이라는 대상에 대해 '본디 일정한 자리에 있는 것'이고, '떠메고 돌아다닐 수 없는 것'이라는 통념을 드러내고 있다.

296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부재 ㉠, ㉡은 독락당 주변의 경관을 ~~공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형상화하고 있다. (○, ⊗)

㉠은 시각적 이미지를, ㉡은 후각적 이미지를 이용하여 독락당 주변의 경관을 형상화하고 있을 뿐, 공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2) 부재 ㉢에서는 ~~대구의 방식~~으로 독락당에서 기거하는 삶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 ⊗)

㉢에 뒤이어 벼슬을 거부하고 자연에 은거한 '엄자릉'의 고사를 언급한 것으로 보아, 독락당에서 기거하며 자연을 즐기는 삶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에서는 의인법과 돈호법이 활용되고 있을 뿐, 대구의 방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3) 헛짚기 ㉣은 ~~'방우산장'이 지니는 독특한 성격~~과 관련된다. (○, ⊗)

㉣은 집이 일정한 자리에 있는 것으로 떠메고 옮길 수 없는 것이라는 통념을 제시한 것이다. 반면 '방우산장'은 '원래 특정한 장소, 일정한 건물 하나에만 명명한 것이 아니고 보니 ~ 다 방우산장이라 부를 수밖에 없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일반적인 '집'과 다른 독특한 성격을 지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97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는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공간이다.

화자는 '독락당(ⓐ)'과 그 주변 경치에 감탄하면서 책을 읽으며 학문을 수양하는 일을 긍정하고 있으므로 ⓐ는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② 헛짚기 ⓑ는 ~~삶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전환~~되는 공간이다.

'양진암(ⓑ)'에서 화자는 퇴계 이황의 자필에 감탄하고 있을 뿐, 삶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전환되고 있지는 않다.

③ 화자 오류 ⓒ는 화자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애상감을 드끼는~~ 공간이다.

④ 화자 오류 ⓒ는 화자가 ~~자연 속에 은거하면서도 속세에 대한 미련을 표출~~하는 공간이다.

'관어대(ⓒ)'에서 화자는 풍경에 감탄하며 자연에 은거하는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낼 뿐,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거나 애상감을 느끼고 있지 않다(③). 또한 화자가 자연 속에서 은거하는 상황인지 알 수 없으며, 속세에 대한 미련을 표출한다고 볼 만한 부분도 찾을 수 없다(④).

⑤ 화자 오류 ⓓ는 화자가 ~~흥망이 반복되는 역사에 대해 무상감을 드끼는 공간이다.~~

'낚시터(ⓓ)'를 보며 화자가 갈매기들에게 묻는 '옛일'은 '엄자릉'과 관련하여 벼슬을 버리고 자연에 은거한 삶을 가리킨다. 이에 대해 화자는 역사 속에서 흥망이 반복됨을 인식하거나 무상감을 느끼고 있지 않다.

298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골몰**: 다른 생각을 할 여유도 없이 한 가지 일에만 파묻힘.
- **깃들인**: 사람이나 건물 따위가 어디에 살거나 그곳에 자리를 잡은.
- **표상**: 대표로 삼을 만큼 상징적인 것.

정·정·이

③ 화자 오류 (가)에서 '연비어약을 말없는 벗으로 삼아 / 독서에 골몰'한다는 표현은 '관어대'와 관련된 것으로, ~~'정현의 일'을 이루지 못한 화자의 반성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가)의 화자는 관어대에서 '몇몇 옛 자취'를 보며 '연비어약을 말없는 벗으로 삼아 / 독서에 골몰하여 성현의 일 도모하시'던 이언적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 이는 화자가 관어대에서 이언적이 도모하던 '성현의 길'을 흠모하는 마음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성현의 일'을 이루지 못한 화자가 반성적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가)에서 '깨우친 것을 혼자서 즐기'는 행위는 '독락당'이라는 명칭의 의미와 연결되면서 학문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의 성격을 부각하고 있다.

(가)의 '깨우친 것을 혼자서 즐기도다'는 '독락당'이라는 명칭에서 '독락'이 지닌 의미와 관련된다. 따라서 '깨우친 것을 혼자 즐기'는 행위는 학문 수양을 목적으로 하는 독락당의 성격을 부각한다고 할 수 있다.

② (가)에서 '내 뜻도 뚜렷하다'는 진술은 '양진암'에 대한 것으로, 화자는 후학 양성에 뜻을 두었던 이언적에 대한 공감을 표현하고 있다.

(가)의 화자는 양진암을 바라보며 '바람 쐬며 바라보니 내 뜻도 뚜렷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는 이언적이 양진암을 통해 드러낸 후학 양성의 뜻에 자신도 공감함을 드러내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④ (나)에서 '내가 본디 산에서 나고 또 장차 산으로 돌아갈 자이기 때문이다'는 '산장'이라는 명칭의 근거와 함께 '나'가 귀의하고자 하는 공간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나)의 '나'는 자신의 집에 붙인 이름인 '방우산장'에서 '산장'이라는 이름의 근거를 '내가 본디 산에서 나고 또 장차 산으로 돌아갈 자이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자신이 궁극적으로 '산'으로 표상되는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⑤ (나)에서 '방우산장의 이름에 값할 집'은 궁극적으로 '내 영혼이 깃들인 곳집'과 연결되면서, 공간의 명칭이 정신적 지향의 표상임을 암시하고 있다.

(나)에서는 궁극적으로 '나를 바로 나 이게' 하는 '내 영혼이 깃들인 곳집'이 바로 '방우산장의 이름에 값할 집'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방우산장'이 궁극적으로 '영혼'이 깃드는 곳으로서, 어디에도 구속당하지 않는 자유에 대한 글쓴이의 지향을 표상한다고 할 수 있다.

299 답 (1) 학문 수양 (2) 회재 이언적 (3) 정신적 (4) 장차 '나'가 자연으로 돌아갈 것임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가)의 '독락당'은 그곳이 (학문 수양, 입신양명) 중심의 공간임을 부각하는 이름이다.

(가)의 '한가로운 가운데 깨우친 것을 혼자서 즐기도다. / 독락, 이 이름 뜻에 맞는 줄 그 누가 알리'로 볼 때, '독락'이 '깨우친 것을 혼자서 즐기다.'라는 뜻이며, '독락당'은 학문 수양 중심의 공간임을 드러내는 이름임을 알 수 있다.

(2) 교체 (가)의 화자는 자신이 존경하던 인물인 (퇴계 이황, 회재 이언적)이 거처하던 장소를 둘러보고 있다.

〈보기〉에서 (가)는 회재 이언적이 거처하던 독락당 및 후학 양성의 뜻을 드러낸 양진암 등을 다룬 박인로의 가사라고 하였다. 이로 보아 (가)의 화자가 자신이 존경하는 회재 이언적이 머물던 장소를 둘러보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3) 교체 (나)의 '나'는 '방우산장'이 자신의 (정신적, 정치적) 이상을 표명한 이름임을 밝히고 있다.

(나)에서는 궁극적으로 '내 영혼이 깃들인 곳집'이야말로 '방우산장의 이름에 값할 집'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신은 어느 한 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영혼이 깃드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집으로 삼는다는 자유정신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방우산장'은 '나'의 정신적 이상을 표명한 이름임을 알 수 있다.

(4) 교체 (나)의 '방우산장'의 '산장'은 (집이 항상 심산에 있음, 장차 '나'가 자연으로 돌아갈 것임)을 드러내는 이름이다.

(나)의 '산장이라 했으니 산속에 있어야만 ~ 장차 산으로 돌아갈 자이기 때문이다.'로 보아, '산장'은 '나'가 '산'과 같은 자연으로 귀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을 드러내는 이름임을 알 수 있다.

300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국한**: 범위를 일정한 부분에 한정함.
- **명명**: 사람, 사물, 사건 등의 대상에 이름을 지어 붙임.

정·정·이

② (나)에는 명칭이 지시하는 공간이 하나의 물리적 실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나타나 있다.

(나)의 '나'는 집의 이름이 일반적으로 고유 명사인 것과 달리, 자신의 집을 일컫는 '방우산장'은 원래 특정한 장소, 일정한 건물 하나에만 명명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따뜻한 친구의 집'에서부터 '무변의 창공', '나의 육신'에 이르기까지 모두 '방우산장'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로 볼 때, '방우산장'이라는 명칭이 지시하는 공간이 하나의 물리적 실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가)에는 그 공간에 깃드는 인물에 따라 공간의 명칭이 변화하는 과정이 제시되고 있다.

(가)에서는 화자가 둘러보는 공간이 독락당, 양진암, 관어대로 바뀌고 있을 뿐, 공간에 깃드는 인물에 따라 공간의 명칭이 변화하고 있지 않다.

③ 헛짚기 (가)와 (나)의 공간은 명명 과정에서 타인의 시선을 고려하는 단계를 거쳐 왔다.

〈보기〉에서 (가)의 공간은 이언적이 직접 명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나)의 공간에 대한 명명은 '나' 자신에 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언적과 (나)의 '나'가 타인의 시선을 고려했는지는 알 수 없다.

④ 교체 (가)와 달리 (나)에서는 공간의 외양과 명명의 근거가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

(가)에서는 '독락당'의 풍경을 묘사한 뒤 '독락, 이 이름 뜻에 맞는 줄 그 누가 알리'라고 하였으므로, 공간의 외양과 명명의 근거가 긴밀하게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나)에서는 '나의 방우산장은 심산에 있거나 시항에 있거나를 가리지 않'는다며, 방우산장이 될 법한 집으로 '따뜻한 친구의 집', '차운 여관의 일실', '야숙의 담요 한 장', '무변한 창공', '나의 육신'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공간의 외양과 명명의 근거가 긴밀하게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다.

⑤ 교체 (나)와 달리 (가)에서는 공간에 대한 작가의 경험이 명칭 지정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나)에서는 '어떤 때는 따뜻한 친구의 집이 내 산장이 되었고 ~ 피난 종군의 즈음에는 야숙의 담요 한 장이 내 산장이 되기도 하였다.'에서 공간에 대한 작가의 경험이 명칭 지정의 기준으로 작용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가)에서 공간의 명칭은 '이언적'이 명명한 것이므로 작가의 경험이 명칭 지정의 기준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없다.

정·오 지름길

④ (가)와 달리 (나)에서는 공간의 외양과 명명의 근거가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

(나)의 공간인 '방우산장'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내가 본디 산에서 나고 또 장차 산으로 돌아갈 자'라고 언급한 것을 잘못 해석했다면, '방우산장'의 외양과 그 명명의 근거가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글쓴이는 자신이 '잠자고 일하며 먹고 생각하는 터전'은 다 '방우산장'에 해당한다며 여러 곳이 '방우산장의 이름에 값할' 수 있다고 하였죠. 그러니 (나)는 공간의 외양과 명명의 근거가 긴밀하다고 볼 수 없어요.

37 가 매호별곡 나 다방찬

작품 분석

본문 144~147쪽

가 매호별곡

작가 조우인

갈래 가사

주제 자연에 사는 즐거움과 안빈낙도

특징 ① 자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자연에서의 한가로운 삶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보여 줌.
② 비유법과 대구법, 열거법 등을 활용하여 자연 풍경을 묘사함.
③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생각을 강조함.

한 줄 의미

❶ 벼슬을 버리고 (자연)으로 돌아옴.
❷ 임호정과 어풍대에서 바라본 풍경의 (아름다움)
❸ 독서를 하며 자연에 묻혀 사는 삶의 즐거움과 (안빈낙도)

나 다방찬

작가 채만식

갈래 현대 수필

주제 다방에 대한 예찬

특징 ① 이중 부정을 통해 다방의 효용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냄.
② 열거법과 대구법 등을 통해 다방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나타냄.

한 줄 요약

❶ 풍자만화인 「근일각다점풍경」의 내용과 다방 인종을 (풍자)하는 어휘들
❷ (다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

301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부재 ㉣: 영탄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은 갖춘 것이 부족하지만 아름다운 경치는 끝이 없다는 의미이다. 여기에 영탄적 표현이 쓰이고 있지 않으며, 화자의 의지가 표출되고 있지도 않다.

오·오·이

① ㉠: 설의적 표현을 통해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은 그 앞의 내용과 연관 지어 보면, 조물주가 허락하여 자연을 내게 맡겨 버렸으니 내가 그걸 사양하며 다툴 사람이 있겠느냐는 의미이다. 따라서 자신에게 맡겨진 자연에 묻혀 살겠다는 화자의 생각을 설의적 표현을 통해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② ㉡: 비유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상을 드러내고 있다.

㉡은 여울을 '옥'에, 여울이 흐르는 모습을 '비단'에 비유함으로써 여울이 흐르는 모습에 대한 화자의 인상을 드러내고 있다.

③ ㉢: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행위를 나타내고 있다.

㉢에서는 '~도 ~려니'의 통사 구조를 짝 지어 반복하는 대구의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자연에 묻혀 살아갈 공간인 '초옥 삼간'을 짓는 화자의 행위를 나타내고 있다.

⑤ ㉤: 열거의 방식을 활용하여 화자 자신에 대해 표현하고 있다.

㉤에서 화자는 열거의 방식을 활용하여 자신이 '늙고 병들고 게으'름을 표현하고 있다.

302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풍월'과 '강산'은 화자가 조물주로부터 허락받은 것이라고 인식하는 대상이다 (○, ×)

'갑 업슨 풍월과 ~ 날을 맛겨 ᄇᆞ리시니'를 통해 화자가 자연을 조물주로부터 허락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피여 디ᄂᆞᆫ ᄃᆞᆺ 푸르러 이우ᄂᆞᆫ ᄃᆞᆺ'에서 계절에 따라 변화를 보이는 자연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 ×)

피었다 지는 꽃과 푸르렀다 시드는 나뭇잎 등은 계절에 따라 변화를 보이는 자연 풍경을 묘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3) 부재 '좁은 방이 쓸쓸하고 용슬을 ᄒᆞ덧 마덧'에서는 ~~공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처지가 강조되고 있다. (○, ×)

화자가 거처하는 방이 너무 좁아 무릎을 들일 듯 말듯하다는 의미로, 여기에 공감각적 이미지가 활용되고 있지 않다.

303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헛짚기 ㉢: 대구의 방식을 통해 ~~부패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는 '~을 어이 알며(꼬)'의 형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구의 방식이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자연에 묻혀 살면서 속세의 일을 알지 못하게 된 화자의 상황을 나타낸 것일 뿐, 부패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낸 것이 아니다.

오·오·이

① ㉮: 특정 사물에 빗대어 물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천 이랑의 '물'을 닦은 '거울'에 빗대어 물의 맑은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② ㉯: 설의적 표현을 통해 풍경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다.

임호정과 어풍대에서 본 풍경의 아름다움을 보지 않고 어떻게 알겠느냐는 의미로, 설의적 표현을 통해 풍경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다.

④ ㉱: 이중 부정문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을 강조하고 있다.

'아닐 수 없다.'는 이중 부정문으로, 현대인에게 다방이 매우 고마운 것이라는 글쓴이의 인식을 강조하고 있다.

⑤ ㉲: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으로 인한 리듬감이 조성되고 있다.

'~ 길이라도 좋다.'와 같은 통사 구조가 반복됨으로써 리듬감이 조성되고 있다.

304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타고난 성품을 저버리지 마자'는 '책 속의 성현 말씀', '천지신명'과 관련하여 화자가 지향하게 된 태도를 나타낸다.

(가)의 화자는 좁고 쓸쓸하고 적막한 방에서 책 속의 성현 말씀과 천지신명을 통해, 타고난 성품을 저버리지 말고 주어진 것에 순응하며 살아가고자 한다. 따라서 '타고난 성품을 저버리지 마자'는 '책 속의 성현 말씀'과 '천지신명'과 관련하여 화자가 지향하게 된 태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오·오·이

① 상반 '갑 업슨 풍월과 임지 업슨 강산'은 화자가 ~~떠나온~~ 지내는 곳으로 '동천'과 ~~대조적~~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풍월'과 '강산'은 화자가 현재 지내는 자연을 가리킨다. '동천'은 산천으로 둘러싸인 경치 좋은 곳이라는 의미로, 화자가 돌아보며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곳이므로, 서로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② 헛짚기 '노프니ᄂᆞᆫ 절벽이오'는 화자가 ~~'맑은 연못 깊은 곳'에서 벗어나 도달하고자 하는 내면적 경지~~를 드러낸다.

높은 절벽과 맑은 연못은 화자가 '동천'에 찾아갔다가 발견한 풍경이다. 화자는 이에 감탄할 뿐 화자가 도달하고자 하는 내면적 경지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③ 헛짚기 '산수에 벽이 이셔'는 화자가 '빈천 기한'을 일생토록 겪으면서 ~~극복하고자 한 문제~~를 가리킨다.

'산수에 벽'은 자연을 즐기는 버릇을 뜻하는 말로, 일생 동안 '빈천 기한'을 겪던 화자가 하늘의 뜻에 순응하여 자기의 처지에 만족한, 이른바 '낙천지명'에 잠깐 들었다가 얻게 된 것이다. 따라서 '산수에 벽'이 화자가 극복하고자 한 문제를 가리킨다고 볼 수 없다.

⑤ 헛짚기 '거친 밥 마실 물'은 '작은 방'에서 '쓸쓸하'게 지내는 화자가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을 알려 준다.

화자는 '거친 밥 마실 물'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하지 않고 '성현 말씀', '타고난 성품', '고인 진락(자연에서 노닐던 옛 사람의 즐거움)' 등을 지향하는 태도를 보이므로, 화자가 '거친 밥 마실 물'을 궁극적으로 얻고자 한다고 볼 수 없다.

305 답 ㄱ, ㄷ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ㄱ. '초옥 삼간'은 화자가 소박하게 살고 있는 자연 속 공간이다.

'초옥 삼간'은 화자가 혼자 힘닿는 대로 지은 집으로 갖춘 것이 부족한 곳이라는 점에서, 화자가 소박하게 살고 있는 자연 속 공간이라 할 수 있다.

ㄷ. '영욕'과 '출척'은 늙고 병든 화자가 자연에 머물면서 알지 못하게 된 속세의 일이다.

'영욕'은 영예와 치욕을, '출척'은 못된 사람을 내쫓고 착한 사람을 올리어 쓰는 일을 가리키는 말로 속세의 일과 관련된 시어이다. 이에 대해 화자는 자연에 머물면서 득실도 모르고, 시비도 못 듣게 되어 '영욕'과 '출척'도 알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오·오·이

ㄴ. 화자 오류 '낙천지명'은 ~~입신양명에 대한 화자의 미련~~을 나타낸다.

'낙천지명'은 하늘의 뜻에 순응하여 자기의 처지에 만족한다는 의미로, 자연에 묻혀 사는 삶에 대한 만족감과 안빈낙도의 태도를 나타낸다. 이는 입신양명에 대한 화자의 미련과 관련이 없다.

306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버금갈**: 으뜸의 바로 아래가 됨. ≒버금할.

정·정·이

③ ⓒ: 다방에서 틀어 주는 음악 수준을 높이 평가하는 글쓴이의 생각이 나타나고 있다.

ⓒ의 앞에서 명곡을 빠짐없이 다 갖추었다고 한 뒤, 자신의 귀가 서툴러 못 알아들을 지경이라고 한 것은 그만큼 다방에서 틀어 주는 음악 수준이 높다는 글쓴이의 생각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오·오·이

① 화자 오류 ⓐ: ~~무릎을 꿇고 단정히 앉아 있는 사람이 다방 풍경과 조화를 이룬다는 글쓴이의 생각~~이 담겨 있다.

ⓐ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사람에 대해 "꽤 버티지?", "참선하나 봐!"라고 표현한 것에는 다방 인종에 대한 풍자가 담겨 있다. 따라서 ⓐ에서는 이 만화를 그린 작가의 다방 인종에 대한 생각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나)의 글쓴이가 다방 풍경과 그림 속 사람이 조화를 이룬다고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다.

② 화자 오류 ⓑ: 다방 인종들을 풍자하는 ~~첨구 거사들에 대한 글쓴이의 조롱~~이 드러나 있다.

ⓑ는 첨구 거사들이 다방 인종을 '벽화'라고 부르는 이유를 설명한 부분으로, 다방 인종을 풍자하는 첨구 거사들의 생각이 드러나 있다. 이에 대해 글쓴이는 '천금 값이 나가는 한마디'라며 그 재치를 칭찬하고 있으므로, 글쓴이가 첨구 거사들을 조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헛짚기 ⓓ: ~~다방의 설비가 가정집의 살림살이에 버금갈 정도임~~을 보여 주고 있다.

ⓓ에서 글쓴이는 조선의 중류 사람의 살림살이가 군색하기 때문에 다방의 설비를 가정집에 해 놓고 지내는 것은 감히 생각조차 못할 일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다방의 설비가 가정집의 살림살이에 버금갈 정도임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⑤ 화자 오류 ⓔ: 다방이 중심지에만 위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글쓴이의 아쉬움~~이 깔려 있다.

ⓔ에서 글쓴이는 다방이 중심 지대에 있어 여러 볼일을 겸하여 이용하기 좋다며 다방의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아쉬워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307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효용성**: 보람 있게 쓰거나 쓰이는 성질.

정·정·이

④ [A]는 자연이 보여 주는 다채로운 모습에 대한, [B]는 다방이 지니고 있는 효용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A]는 '피여 디는 듯 ~ 골짜기 구슬된 듯'에서 자연의 다채로운 모습을 묘사하고, 그 변화를 가늠할 수 없어 자연이 싫증 나지 않는다고 한 것에서 화자의 긍정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B]는 '다시없이 고마운 물건이 아닐 수 없다.'에서 다방이 지니고 있는 효용성에 대한 글쓴이의

긍정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오·오·이

① 화자 오류 [A]는 자연의 순리에 대한, [B]는 현대인의 모순된 생활 태도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A]에는 자연의 다채로운 모습에 대한 화자의 감탄이 드러날 뿐, 자연의 순리에 대한 깨달음은 나타나지 않는다. [B]에서도 다방 인종이 일부 사람에게 조롱받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나, 이를 현대인의 모순된 생활 태도와 관련지어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화자 오류 [A]는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생활에 대한, [B]는 도시에서의 바쁜 일상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③ 화자 오류 [A]는 자연과 인간의 부조화에 대한, [B]는 도시 속 공간과 인간의 부조화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A]에는 사시사철 변하는 자연 풍경과 그에 대한 화자의 감탄이 드러날 뿐,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생활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②)이나, 자연과 인간의 부조화에 대한 화자의 비판(③)이 드러나지 않는다. [B]에서도 일부 사람들이 조롱하는 단점을 해결할 만큼 다방의 장점이 큼을 제시하며 다방의 고마움을 강조할 뿐, 도시에서의 바쁜 일상에 대한 그리움(②)이나, 도시 속 공간과 인간의 부조화에 대한 비판(③)이 드러나지 않는다.

⑤ 화자 오류 [A]는 자연에서 느낀 세월의 흐름에 대한, [B]는 다방을 대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태도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A]에는 자연에서 느낀 세월의 흐름에 대한 안타까움이 나타나지 않는다. [B]에서 글쓴이가 다방 인종에 대한 일부 사람들의 태도를 언급하기는 하지만, 이에 대해 안타까워하지는 않는다.

308 답 (1) 화공, 도회인 (2) 감탄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가)에서 자연은 (성현, 화공)이 그린 그림으로, (나)에서 다방은 (촌맹, 도회인)에게 고마운 것으로 나타난다.

(가)의 화자는 사시에 보이는 자연 풍경을 화공이 그린 그림과 같다고 인식하고 있다. (나)의 글쓴이는 다방이 현대인에게 고마운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다방에서의 낙은 '도회인'만이 누릴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촌맹'일 것이라 하였다.

(2) 교체 (가)의 화자와 (나)의 글쓴이는 모두 대상에 대해 (감탄, 아쉬움)을 드러낸다.

(가)는 '경기는 그지없다', '말로 다 이르오며 아니 보아 어이 알꼬' 등에서, (나)는 '자리가 편안하겠다 ~ 피로는 자연 걷혀진다.', '푸근한 쿠션에 걸어앉아 ~ 하나의 낙인 것' 등에서 각각 자연과 다방에 대한 화자와 글쓴이의 감탄을 확인할 수 있다.

309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군색했던**: 필요한 것이 없거나 모자라서 딱하고 옹색했던(형편이 넉넉지 못하여 생활에 필요한 것이 없거나 부족했던).

정·정·이

① [㉮]에는 방에서의 화자의 생활과 감정이, [㉯]에는 글쓴이가 다방에 가는 이유가 드러나 있다.

[㉮]에는 좁고 쓸쓸하고 작은 방에서 거친 밥을 먹으며 생활하면서도, 책을 읽어 성현의 말씀을 따르고 타고난 성품을 저버리지 않으려는 화자의 내면이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는 다방에 가면 피로가 풀린다는 내용으로, 이를 통해 글쓴이가 다방에 가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오·오·이

② 범위 오류 [㉮]에는 자연을 감상하는 화자의 내면이, [㉯]에는 다방을 이용하는 글쓴이의 내면이 제시되고 있다.

[㉮]에서 화자는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안빈낙도의 삶의 태도를 보여 줄 뿐, 자연을 감상하고 있지 않다. 한편 [㉯]에서 글쓴이는 '자리가 편안하겠다 ~ 앉아 있노라면 피로는 자연 걷혀진다.'와 같이 다방을 이용하며 느낀 점을 제시하고 있다.

③ 범위 오류 [㉮]에는 현재의 삶에 대한 화자의 만족감이, [㉯]에는 다방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조롱이 제시되어 있다.

[㉮]에서 화자가 '거친 밥 마실 물'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하지 않고 '고인 진락'이 깊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안빈낙도의 삶의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에서 글쓴이는 다방이 현대인의 피로를 풀어 주어 고마운 존재임을 보여 줄 뿐, 다방에 출입하는 사람을 조롱하고 있지 않다.

④ 화자 오류 [㉮]에서는 공명부귀를 추구하는 화자의 태도를, [㉯]에서는 글쓴이가 다방에서 처리하는 업무의 종류를 엿볼 수 있다.

[㉮]에서 화자는 안빈낙도의 태도를 보여 줄 뿐, 공명부귀는 추구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에서의 '앉을 자리'와 '마시는 것', '음악'은 글쓴이가 다방에서 이용하는 대상일 뿐, 글쓴이가 처리하는 업무로 볼 수 없다.

⑤ 부재 [㉮]에는 화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성현의 말씀이 인용되고, [㉯]에는 당시 군색했던 조선인의 살림살이가 나열되고 있다.

[㉮]에는 화자가 성현의 말씀을 배우려는 태도가 드러날 뿐, 그 내용이 인용되고 있지 않다. [㉯]에는 글쓴이가 다방을 이용하며 느낀 점이 제시될 뿐, 당시 군색했던 조선인의 살림살이가 나열되고 있지 않다.

310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부재 ○화자 오류 ☑헛짚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정·정·이

④ 헛짚기 (가)의 '시비를 못 듯거니'와 (나)의 '그것을 모르고 도시에 살다니'는, ~~특정 공간에서 품게 된 내면의 욕구를 밝혔다는 점에서 주체가 공간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과정을 보여 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가)의 '시비를 못 듯거니'는 자연에서 지내고 있는 화자가 세속과 거리를 두고 있음을 나타낸 말로, 내면의 욕구를 밝힌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현재의 삶을 돌아보고 한 말이라는 점에서 성찰적 태도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나)의 '그것을 모르고 도시에 살다니'는 다방에서 즐길 수 있는 안일과 그 맛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낸 말로, 내면의 욕구나 성찰의 과정과 관련이 없다.

오·오·이

① (가)에서 '뉘 힘 맛는 뒤로 초옥 삼간 지어' 냈다고 한 것은, 주체가 자연을 일상생활의 공간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자연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가)의 화자가 자연 속에 '초옥 삼간'을 짓고, 갖춘 것은 부족한데 경치는 더없이 아름답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화자가 자연을 일상생활의 공간으로 삼음으로써 자연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고 볼 수 있다.

② (가)에서 '임호정과 어풍대에서 바라본 풍경'에 대해 '아니 보아 어이 알쏘'라고 한 것은, 체험을 통해 자연이 2인칭의 공간이 되었을 때 주체가 그 풍경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음을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가)의 화자가 임호정과 어풍대에서 바라본 풍경에 대해 직접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다고 한 것은, 화자가 이 풍경을 직접 접함으로써 자연과 '나와 너'의 관계를 맺게 되어 그렇지 않을 때보다 의미 있는 것이 되었기 때문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③ (나)의 '피로는 자연 걷혀진다'는 주체가 공간에 부여한 의미를 통해 주체에게 '다방'이 2인칭 공간임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나)의 글쓴이가 다방에서 '피로는 자연 걷혀진다'라고 한 것은, 글쓴이가 다방에 부여한 의미로, '다방'과 '나'의 관련성이 높아져 '다방'이 2인칭의 공간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⑤ (가)의 '고인 진락'과 (나)의 '안일과 그 맛'은, 공간이 주체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주체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겠군.

(가)의 화자는 좁고 쓸쓸하고 작은 방의 고요함 속에서 '고인 진락'이 깊다고 말하고, (나)의 글쓴이는 추운 겨울에 난로 곁에 앉아 따끈한 커피를 마시며 음악을 듣는 것에 대해 '안일과 그 맛'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결국 공간이 주체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가)의 화자와 (나)의 글쓴이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음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311 답 (1) × (2)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화자 오류 ○헛짚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가)의 화자에게 자연은 ~~'3인칭의 공간'~~ '2인칭의 공간'이다. (○, ⊗)

(가)의 화자는 자연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며 그곳을 의미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가)의 화자에게 자연은 '2인칭의 공간'임을 알 수 있다.

(2) 다방은 (나)의 촌맹에게는 '3인칭의 공간'이다. (⊙ ×)

〈보기〉에서 3인칭의 공간은 주체인 '나'에게 객관적인 대상으로 인식되는 공간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나)의 촌맹은 다방에서의 즐거움을 체험하고 그곳을 의미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글쓴이와 달리 다방에서의 즐거움을 알지 못하므로, 이들에게는 다방이 '3인칭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38 가 단산별곡 나 자전거 여행

작품 분석 본문 148~151쪽

가 단산별곡

작가 신광수
갈래 가사
주제 단양 팔경에 대한 감상
특징 ① 추보식 구성에 따라 단양 팔경에 대한 감상을 드러냄.
② 비유법을 활용하여 대상을 생생하게 묘사함.
③ 영탄적 어조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함.
④ 대구법, 설의법 등의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함.

한 줄 의미

❶ (**석문**), 은주암, 팔판동에 대한 감상과 (**단암 서원**), 강선대로의 이동 및 감상
❷ (**오로봉**)과 호천대, 창하정, (**옥순봉**)에 대한 감상

나 자전거 여행

작가 김훈
갈래 현대 수필
주제 자전거를 타고 국내 여행을 하며 느낀 감상과 깨달음
특징 ① 자전거 바퀴를 굴리면서 느낀 흙과의 교감을 몸의 힘과 흙의 힘이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묘사함.
② 감각적 이미지와 활유법, 비유법 등을 활용하여 여행지에서의 느낌을 전달함.
③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현장감과 생동감을 부여함.

한 줄 요약

❶ (**흙**)과 교감하며 자전거 바퀴를 굴린 '나'와 봄날의 (**생명력**)
❷ 자전거를 타며 본 (**풍경**)과 그에 대한 느낌을 우리말로 온전히 표현하고 싶은 바람

312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영탄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놀라움을 나타내고 있다.
'놀랍다', '몰낫도다', '기묘홀샤' 등의 영탄적 표현을 통해 석문과 은주암을 바라보면서 화자가 느낀 놀라움과 기묘함 등을 나타내고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대구의 방식을 통해 ~~계절의 변화를 표현~~하고 있다.
'용문산 ᄯᅳ린 도끼 ~ 산창을 밀쳣ᄂᆞᆫ가', '하늘 기둥은 우뚝 솟아 ~ 백학이 넘노ᄂᆞᆫ 듯' 등에서 대구의 방식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석문과 옥순봉의 모습을 묘사할 뿐 계절의 변화를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③ 부재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애상감을 심화~~하고 있다.
(가)에는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애상감을 심화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부재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화자의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가)에는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화자의 삶의 태도를 드러낸 부분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⑤ 헛짚기 문장의 어순을 도치하여 ~~화자의 체념적 인식을 강조~~하고 있다.
'놀랍다 져 산봉우리는 어이ᄒᆞ여 쑬녓ᄂᆞᆫ고'에서 문장의 어순을 도치하였으나, 이를 통해 석문에 대한 감탄을 드러낼 뿐, 체념적 인식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

313 답 ㄱ, ㄷ, ㄹ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ㄱ. 설의적 표현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가)의 '져 산봉우리는 어이ᄒᆞ여 쑬녓ᄂᆞᆫ고', '수문을 내엿ᄂᆞᆫ가', '산창을 밀쳣ᄂᆞᆫ가', '요초를 심었던가', '긔 뉘 알니', '경계를 정ᄒᆞ신가' 등에서 의문문의 형식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는 설의적 표현이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ㄷ. 비슷한 어구를 짝 지어 제시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312번-①의 해설을 참고할 때, 비슷한 어구를 짝 지어 제시하는 대구의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ㄹ. 추보식 구성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며 대상에 대한 화자의 감상을 드러내고 있다.
(가)의 화자는 석문에서 옥순봉으로 이동하면서 석문, 은주암, 팔판동, 단암 서원, 강선대, 오로봉, 호천대, 창하정, 옥순봉 등을 보며 느낀 놀라움과 신이함 등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걸음을 옮기는 순서에 따라 순행적으로 시상을 전개하며 대상에 대한 화자의 감상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오·이

ㄴ. 부재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가)에서 화자가 단암 서원에 첨배한 후 선현의 덕이 산수간에도 끼쳐 있다고 말한 부분에서 그 덕을 예찬하며 가치를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반어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314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직유법을 활용하여 대상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가)의 '오로봉 진면목은 부용이 소사는 듯'과 '하늘 기둥은 우뚝 솟아 ~ 백학이 넘노는 듯' 등에서 직유법을 활용하여 오로봉과 옥순봉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오.이

① 부재 ~~색채 대비~~를 통해 대상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

(가)에는 색채 대비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부재 ~~역설적 표현을 통해 화자가 처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가)에서 역설적 표현은 활용되고 있지 않다. 또한 (가)의 화자는 주로 단양의 풍경에 대한 감상을 드러낼 뿐, 자신의 처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④ 화자 오류 공간의 이동을 통해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가)의 화자는 석문에서 옥순봉까지 이동하면서 자연 풍경에 대한 놀라움과 기묘함, 신이함 등의 정서를 드러낼 뿐,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⑤ 부재 ~~점층적인 시상 전개를 통해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313번-ㄹ의 해설을 참고할 때, (가)는 추보식 구성으로 자연 풍경에 대한 감상을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에서 점층적인 시상 전개를 통해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315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종적**: 없어지거나 떠난 뒤에 남는 자취나 형상.
- **신이함**: 신기하고 이상함.

정.정.이

③ 화자 오류 [C]에서 화자는 은주암과 팔판동을 속세와 단절된 곳으로 인식하여 ~~자신의 종적을 다른 사람이 알 것을 걱정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C]에서 화자는 은주암과 팔판동을 작은 고깃배로 들어가면 그 누구도 처사의 종적을 알 리 없고, 사람 사는 곳이 어디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흰 구름만 잠겨 있는, 속세와 단절된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 여기에 자신의 종적을 다른 사람이 알까 걱정하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다.

오.오.이

① [A]에서 화자는 석문의 모습을 수문과 산창에 비유하여 초월적 존재가 만들었다고 여길 만큼 신기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A]에서 화자는 석문을 용문산을 때린 도끼로 만든 것 같은 '수문'과, 신령의 큰 손바닥이 밀친 것 같은 '산창'에 비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초월적 존재가 석문을 만들었다고 여길 만큼 화자가 석문을 신기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B]에서 화자는 신선이 살았을 법한 땅에 농사짓기를 권하여 백성들의 삶이 나아지기를 바라고 있다.

[B]에서 화자는 '신선이 농사짓던 열두 배미' 좋은 땅에 선인은 없고 풀만 남았으니 그 땅에 백성들이 농사를 짓도록 권하여 백성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④ [D]에서 화자는 호천대에서 주변을 바라보고, 창하정에서 술을 마시면서 신선이 된 듯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D]에서 화자는 호천대에 올라서 '전체를 대강 바라보고', '창하정'에서 술을 마시며 멀리 보이는, 공중에 서린 흐릿한 기운을 즐기다가 어느 순간 돌아보니 자신이 신선이 된 것 같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⑤ [E]에서 화자는 옥순봉의 모습을 여러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며 자신이 바라보는 풍경의 신이함을 드러내고 있다.

[E]에서 화자는 옥순봉의 다양한 모습을 북극을 괴고 있는 하늘 기둥과 백학이 넘노는 듯한 화표, 봉황이 먹는 열매 등에 빗대어 표현하며, 풍경의 신이함을 드러내고 있다.

316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화자 오류 ㉤에서는 조강의 언저리에서 벗어나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면서 ~~조강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해 내고 싶은 '나'의 소망~~이 드러나고 있다.

㉤에서 화자는 조강을 '할아버지의 강', '조국의 강', '소멸의 힘으로 신생을 이끄는 새로운 시간의 강'으로 표현함으로써 조강의 새로운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조강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싶은 바람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오.오.이

① ㉠에서는 봄의 대지 위를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상황을 묘사하며, 흙을 생명을 지닌 존재로 보는 '나'의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에서는 봄에 녹아 부푼 흙 위를 자전거로 달릴 때 바퀴가 빠지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이때 흙(의 알맹이들)을 '숨을 쉬느라고 바쁘다.', '밀어서 튕겨 주지 않고', '끌어당긴다' 등과 같이 생명을 지닌 존재처럼 표현한 것에서, '나'가 흙을 생명을 지닌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에서는 몸의 힘과 흙의 힘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모습을 통해 자전거 바퀴를 굴리는 것을 흙과 교감하는 것으로 느끼는 '나'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에서는 자전거 바퀴를 굴릴 때 몸의 힘과 흙의 힘이 상

호 작용하는 과정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이때 '자전거를 밀어 주는 흙의 힘은 몸속에 가득 찬다.'라고 표현한 것에서, '나'가 자전거 바퀴를 굴리는 것을 흙과 교감하는 것으로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에서는 풍경이 단순히 보고 지나치는 대상이 아니라, 보는 이의 몸과 마음에 의미를 더해 주는 것으로 보는 '나'의 생각이 나타나고 있다.
㉢에서 '나'는 자전거를 타고 나아갈 때 보이는 풍경이 마음에 스미고 그 스미는 풍경은 닥치고 스치면서 불려 간다고 함으로써 자전거를 타고 접하는 풍경이 몸과 마음에 의미를 더해 가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 이로 보아 '나'가 풍경을 단순히 보고 지나치는 대상이 아니라, 보는 이의 몸과 마음에 의미를 더해 주는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에서는 모국어에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풍경 속에서 느낀 바를 우리말로 온전하게 표현하고 싶은 '나'의 바람이 제시되고 있다.
㉣의 '말들아 풍경을 건너오는 ~ 날아올라다오.'에서 모국어인 '말'에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자전거를 타고 접하는 풍경에 대한 감상을 모국어로 온전히 구현하고 싶다는 소망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17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화자 오류 (가)의 '단구동문 새긴 글자 선현의 필적이라'는 '이황'을 떠올리며 ~~높은 학문의 경지에 도달한 화자의 상황~~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의 '단구동문'은 옥순봉을 단양의 관문이며 군의 경계로 정한다는 의미로, 퇴계 이황이 옥순봉에 새긴 글자이다. (가)의 화자는 '단구동문'을 보며 이황이 이 글자를 새기게 된 일화를 떠올리고, 옥순봉이 신선의 땅만큼 중요하여 경계를 정한 것인가 생각하고 있다. 화자가 높은 학문의 경지에 도달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오·오·이

① (가)의 '지금까지 씨친 덕이 산수 간의 흘너 잇다'는 단암 서원에서 첨배하면서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선현들을 예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의 '지금까지 씨친 덕'은 '단암 서원'에서 추모하는 대상인 우탁과 이황의 덕을 가리킨다. 화자는 그 덕이 지금까지 영향을 끼쳐 산수 간에 흐르고 있다고 함으로써 선현들을 예찬하고 있다.

② (가)의 '오로봉 진면목은 부용이 소사는 듯'은 여행 중에 마주친 오로봉의 아름다움을 연꽃에 비유하여 묘사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가)의 '부용이 소사는 듯'은 여행 중에 바라본 오로봉의 아름다움을 연꽃에 비유하여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나)의 '기진한 힘 속에서 새 힘의 싹들이 돋아 나오고'는 지친 몸에 새로운 힘을 채울 수 있는 봄의 생명력을 여행을 통해 깨달았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의 '새 힘의 싹들'은 자전거 바퀴를 굴리느라 많은 힘을 쓴 '나'에게 새롭게 채워지는 힘을 가리킨다. 그 힘을 '싹들'에 빗댐으로써 지친 몸에 새로운 힘을 채울 수 있는 봄의 생명력을 깨달았음을 드러내고 있다.

⑤ (나)의 '대지의 향기가 봄바람에 실려 온다.'는 도라 전망대에서 바라본 농부들의 모습을 보고 느낀 봄날의 감흥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의 '나'는 도라 전망대에서 마주 보이는 개성 남쪽 들녘에서 농부들이 밭으로 두엄을 실어 내고 있는 장면을 보고, 그 모습에서 느껴지는 봄날의 감흥을 '대지의 향기가 봄바람에 실려 온다.'라며 후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정·오 지름길

•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와 (나)가 모두 낯선 작품인 경우, 배경지식 없이 작품을 독해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이럴 때는 작품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는 〈보기〉 문제를 가장 먼저 풀어 보는 것도 좋아요. **317**번 〈보기〉를 통해 (가)와 (나)가 기행 문학에 속하며, 경치에 대한 묘사와 감흥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보기〉의 정보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독해하면 아무런 정보 없이 읽을 때보다 내용 파악이 수월할 거예요.

318 답 (1) ○ (2) ○ (3) × (4)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가)의 화자는 단양 산수의 절경과 풍치를 노래하고 있다. (○, ×)
(가)의 화자는 석문에서 옥순봉까지 단양 산수의 절경을 접하면서 느끼는 놀라움과 기묘함, 신이함 등의 감흥과 풍치를 노래하고 있다.

(2) (가)의 화자는 우탁과 이황의 덕을 기리고 있다. (○, ×)
317번-①의 해설을 참고할 때 적절함을 알 수 있다.

(3) 교체 (나)의 글쓴이는 생명력 넘치는 계절인 ~~여름~~ 봄에 자전거를 타고 여행하면서 느낀 바를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 (○, ×)
(나)의 글쓴이는 여름이 아닌 봄에 자전거를 타고 여행하면서 느낀 바를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

(4) (나)의 글쓴이는 여러 물길이 합쳐진 '조강'을 보며 새로운 것을 낳는 소멸의 힘을 느끼고 있다. (○, ×)
(나)의 글쓴이는 '조강'이 한강, 임진강, 한탄강, 예성강의

물길이 합쳐진 강이라고 하면서, '소멸의 힘으로 신생을 이끄는 새로운 시간의 강'이라고 말하였다. 이를 통해 글쓴이가 조강을 보며 새로운 것을 낳는 소멸의 힘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19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헛짚기 (가)의 '양액 청풍이 가볍게 들리는 듯'에는 ~~자연과 화자를 동일시함~~으로써 풍류를 지향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가)의 '양액 청풍이 가볍게 들리는 듯'은 양쪽 겨드랑이에 맑은 바람이 부는 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이를 자연과 화자를 동일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오·이

① (가)의 '우리 백성 농사를 권하여 수역의 올니고져'에는 백성들이 풍요롭게 살기를 바라는 애민 정신이 드러난다.

(가)의 '수역'은 풍요롭게 사는 즐거운 삶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화자는 백성에게 농사를 짓도록 권하여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하고 싶다는 소망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백성을 생각하는 애민 정신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③ (가)의 '신선의 땅을 중히 여겨 경계를 정ᄒᆞ신가'에는 특정 공간을 신선의 거처로 여기는 도교적 신선 사상이 드러난다.

(가)의 화자는 옥순봉을 '신선의 땅'에 빗대며, '선현(이황)'이 이를 중시하여 '단구동문'이라 새겨 경계를 정한 것이 아닌지 생각하고 있다. 이때 특정 공간인 옥순봉을 신선의 거처로 여겼다는 점에서 도교적 신선 사상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④ (나)의 '허벅지의 힘이 흙 속으로 깊이 스밀 때 자전거를 밀어 주는 흙의 힘은 몸속에 가득 찬다'에는 몸과 자연의 교감이 드러난다.

(나)에서 글쓴이는 허벅지의 힘은 흙 속으로 스미고, 흙의 힘은 몸속에 가득 찬다고 했으므로, 몸과 자연의 교감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⑤ (나)의 '하구의 시간과 공간은 크나큰 용해의 힘으로 느리고 평화롭다'에는 여러 강이 모여 큰 물길에 합쳐지는 풍경에 대한 화자의 새로운 인식이 드러난다.

(나)에서 글쓴이는 한강, 임진강, 한탄강, 예성강이 조강이라는 큰 물길에 합쳐지는 하구의 풍경을 보며, 물살이 느리고 평화롭게 흐르는 것이 시간과 공간이 녹아 만들어진 것이라는 새로운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39 가 덴동 어미 화전가의 서술 특성과 주제적 의미 나 덴동 어미 화전가

작품 분석 본문 152~155쪽

가 덴동 어미 화전가의 서술 특성과 주제적 의미

작가 함복희
갈래 설명문
주제 화전가와 「덴동 어미 화전가」의 서술상 특징
한 줄 요약
❶ 화전가를 향유하는 방식 및 화전가의 (**구성**)과 내용
❷ 화전가의 내용적 특징 및 (**액자식**) 구성을 띠는 「덴동 어미 화전가」

나 덴동 어미 화전가

작가 미상
갈래 가사
주제 화전놀이의 즐거움과 덴동 어미의 기구한 인생 및 의지적 삶의 태도
특징 ① 액자식 구성과 다양한 화자의 등장을 통해 인물의 사연을 제시함.
② 대구법과 설의법, 동일한 시어의 반복 등을 통해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함.
한 줄 의미
❶ 풍월 놀이를 하는 부인들 및 청춘 과녀가 우는 이유에 대해 묻는 (**한 부인**)
❷ 청춘 과녀의 대답_사별한 서방님에 대한 (**그리움**) 및 신세 한탄
❸ (**덴동 어미**)의 화답_청춘 과녀가 가는 것을 만류하며 자신의 사연을 말함.

320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밀착**: 서로의 관계가 매우 가깝게 됨.
- **문중**: ① 성과 본이 같은 가까운 집안. ② 한 종가의 문중에 속하는 사람들.
- **결속**: 뜻이 같은 사람끼리 서로 단결함.

정·정·이

① 헛짚기 화전가의 내용이 여성들의 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남성들은 창작과 향유에서 배제되었군.~~

화전가는 부녀자들이 화전을 만들어 먹으면서 낭송하던 가사를 말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때로는 남편이 지어 준 글을 가져오'기도 했다는 것으로 보아, 남성들도 화전가를 창작하고 향유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오·오·이

② 화전가에서는 특정한 계절의 풍속을 배경으로 화전놀이의 여러 과정이 제시되었군.

화전가는 삼월 삼짇날, 청명절 등에 부녀자들이 인근 산천을 찾아가 화전을 만들어 먹으면서 낭송한 규방 가사라고 하였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봄의 찬미, 화전놀이 공론과 택일, 통문, 허락, 경비 추렴, 화전놀이 출발, 도착 후 화전놀이, 재회의 기약, 이별, 귀가와 발문'으로 구성되어 있

다는 것으로 보아, 화전가에 봄의 풍속을 배경으로 화전놀이의 여러 과정이 제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화전가는 화전놀이를 하기 전이나 화전놀이가 끝난 후에도 창작이 가능했군.

화전가는 현장에서 창작되거나 집에 돌아간 후에 지어지고, 때로는 미리 지어 오기도 했다고 하였으므로, 화전놀이를 하기 전이나 끝난 후에도 창작이 가능했음을 알 수 있다.

④ 화전가는 문중에 소통되어 가문의 결속을 다지는 기능을 하기도 했군.

'화전가는 문중에 소통되면서 문답 형식의 화전가를 낳기도 했는데, 이를 통해 사람들은 흥취를 공유하거나 가문의 결속을 다지기도 했다.'를 통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⑤ 화전가는 화전놀이의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지어지기도 했군.

(가)에서 화전가가 '현장에서 창작되'었다는 것으로 보아,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지어지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321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화전가 중 액자식 구성을 띠는 작품으로 「덴동 어미 화전가」가 있다. (○, ×)

(가)에서 「덴동 어미 화전가」는 '외부 이야기' 안에 덴동 어미의 일생담이 담긴 '내부 이야기'가 포함된 액자식 구성을 띤다고 하였다.

(2) 헛짚기 부녀자의 정서부터 ~~사대부의 입신양명에의 염원~~까지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다. (○, ×)

(가)에서 화전가에 담기는 화전놀이의 내용에 부녀자의 신세 한탄이 포함된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으나, 사대부의 입신양명에의 염원이 담기는지는 알 수 없다.

(3) 교체 일반적으로 ~~'내칙'의 소개, 부녀자의 신세 한탄, 놀이에 대한 감흥~~의 순서로 내용이 전개되는 특징을 보인다. (○, ×)

(가)에서 화전가는 일반적으로 '봄의 찬미, 화전놀이 공론과 택일, 통문, 허락, 경비 추렴, 화전놀이 출발, 도착 후 화전 놀이, 재회의 기약, 이별, 귀가와 발문'의 순서로 내용이 이어지는 구성을 취한다고 하였다. '내칙' 같은 교양물을 읊는 풍월 놀이와 부녀자의 신세 한탄, 놀이에 대한 감흥은 화전놀이의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322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헛짚기 일 년 동안 벌어지는 ~~여자들의 다양한 놀이를 제시한 뒤 그중 화전놀이가 최고임을 명시~~하고 있다.

[A]의 '일 년 일 차 화전놀음 여자 놀음 이뿐일세'는 일 년에 한 번 있는 화전놀이가 여자들의 유일한 놀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여자들의 다양한 놀이를 제시하고 그중 화전놀이가 최고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천기'를 고려하여 화전놀이를 행할 날을 택하고 있다.

[A]의 '갑자을축 택일은 많으나 천기를 살펴보니 / 일구풍화 오늘같이 대동 대길 합당하다'로 보아, '천기'를 살펴봄으로써 화전놀이 날짜를 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봄을 맞이하여 화전놀이를 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A]의 '좋은 시절 엇지 그리 허송하랴', '꽃이 지면 ~ 화전놀음 무슨 흥미 잇으리오' 등에서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봄을 맞이하여 화전놀이를 가야 함을 드러내고 있다.

③ 봄을 맞이한 자연물들의 모습을 통해 봄을 찬미하면서 화자의 흥취를 나타내고 있다.

'방춘 삼월 좋은 가절 ~ 꽃 나비 춤을 춘다'에서 봄을 맞은 자연물인 '풀', '두견화', '꾀꼬리', '꽃', '나비'의 모습을 제시하면서 봄의 아름다움을 칭송하는 한편 봄을 맞은 화자의 흥취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④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을 취하여 화전놀이에 관한 화자의 정서를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다.

'때는 좋다 벗님네야 내 말씀 들어 보소'에서 청자인 '벗님네'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을 취하면서 화전놀이와 관련된 화자의 정서를 친근하고 진솔하게 전하고 있다.

323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섭리**: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
- **달관**: 사소한 사물이나 일에 얽매이지 않고 세속을 벗어난 활달한 식견이나 인생관에 이름. 또는 그 식견이나 인생관.

정·정·이

③ ㉠은 화자에게 감흥을 주는, ㉡은 화자에게 원망을 받는 소재이다.

(가)에서 화자는 '벗을 찾아 날아'드는 '꾀꼬리(㉠)'의 모습을 보며 봄을 맞은 즐거움과 흥취를 느끼고 있으므로, '꾀꼬리(㉠)'가 화자에게 감흥을 주는 소재라 할 수 있다. 한편 (나)에서 청춘 과녀는 꿈에서나마 서방님을 보고자 하나 '꾀꼬리(㉡)'의 소리에 꿈에서 깨어 서방님과의 만남을

이루지 못하고, 이에 '꾀꼬리(㉡)'를 '저놈의 새', '백 년 원수'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꾀꼬리(㉡)'는 화자에게 원망을 받는 소재라 할 수 있다.

오·오·이

① 범위 오류 ~~㉠과 ㉡ 모두~~ 화자의 내적 갈등을 유발하는 소재이다.

(가)의 '꾀꼬리(㉠)'는 화자에게 봄의 감흥을 주고 있으므로 내적 갈등을 유발한다고 볼 수 없다. (나)의 '꾀꼬리(㉡)'는 화자를 깨워 꿈에서조차 서방님을 만나지 못하게 방해하여 화자로 하여금 아쉬움과 슬픔을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내적 갈등을 유발한다고 볼 수도 있다.

② 헛짚기 ㉠과 ㉡ 모두 ~~자연의 섭리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게 하는~~ 소재이다.

(가)의 '꾀꼬리(㉠)'와 (나)의 '꾀꼬리(㉡)' 역시 자연의 섭리에 대한 경외감과 관련이 없다.

④ 화자 오류 ㉠은 화자의 ~~달관적~~ 태도를, ㉡은 화자의 ~~체념적~~ 태도를 드러낸 소재이다.

(가)의 '꾀꼬리(㉠)'는 화자에게 봄의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소재로 화자의 달관적 태도와 관련이 없다. (나)의 '꾀꼬리(㉡)'는 화자에게 원망의 대상이 되는 소재로, 화자의 체념적 태도와 관련이 없다.

⑤ 헛짚기 ㉠은 ~~과거에 대한 추억을 환기~~하고, ㉡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소재이다.

(가)의 '꾀꼬리(㉠)'는 현재의 화자에게 감흥을 주는 소재로, 과거에 대한 추억을 환기한다고 볼 수 없다. (나)의 '꾀꼬리(㉡)' 또한 현재 화자가 원망하는 대상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소재라고 할 수 없다.

324 답 (1) 흥겨움, 한탄 (2) 그리움, 위안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A]의 화자는 봄을 맞은 (흥겨움)을, [C]의 화자는 젊어서 과부가 된 신세에 대한 (한탄)을 드러내고 있다.

[A]의 화자는 방춘 삼월에 생동하는 자연을 보면서 봄을 맞은 흥겨움을 드러내고 있다. [C]의 화자는 젊어서 과부가 된 사연을 말하면서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

(2) 교체 [C]의 화자는 서방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D]의 화자는 화전놀음으로부터 (위안)을 얻지 못했음을 토로하고 있다.

[C]의 화자는 사별한 서방님이 마음에서는 안 죽었다며 서방님의 얼굴이 눈에 삼삼하고 말소리가 귀에 쟁쟁하다며 간절한 그리움을 토로하고 있다. [D]에서 화자는 사별한 서방님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을 달래기 위해 화전놀음에 와 보았으나, 보는 족족 눈물이 나고 '꽃 핀 걸 보아도 비창'하다며 가야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가 화전놀음으로부터 위안을 얻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325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상춘**: 봄을 맞아 경치를 구경하며 즐김.

정·정·이

③ 헛짚기 [D]에서는 [A]와 달리 참여자들 간의 ~~재회의 기약~~이 담겨 있다.

[D]에는 화전놀이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시 만나기를 기약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오·오·이

① [A]에서는 [D]와 달리 화전놀이 공론과 택일이 제시되고 있다.

[A]에서는 화자가 '이와 같이 좋은 시절 엇지 그리 허송하랴'라며 화전놀이를 공론화한 후, 오늘이 가장 좋다며 화전놀이 날을 정하고 있다. 반면 [D]에는 화전놀이 공론과 택일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② [A]에서는 [D]와 달리 봄의 찬미와 상춘의 흥취가 드러나고 있다.

[A]의 화자는 봄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며 봄 경치를 구경하며 즐기는 흥취를 드러내고 있는 반면, [D]의 화자는 봄의 경치를 보아도 눈물만 나오고 비창하다고 하였다.

④ [D]에서는 [A]와 달리 화전놀음에 온 화자의 동기가 나타나 있다.

[D]에서 화자는 사별한 심회를 조금 풀까 하고 친구를 따라 참여했다며, 화전놀음에 온 동기를 밝히고 있다. 반면 [A]는 화전놀이를 하자고 주변 사람들에게 권하는 내용으로, 화전놀음에 온 화자의 동기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D]는 [A]와 달리 도착 후 화전놀이의 내용으로, 화자의 정서가 직접 제시되고 있다.

[D]는 ⓐ에 따르면 도착 후 화전놀이를 진행하는 부분으로, 화자의 슬픔과 답답함 등이 직접 제시되고 있다. 반면 [A]는 ⓐ에 따르면 봄을 찬미하고 화전놀이를 공론화하며 택일하는 부분에 해당된다.

326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교체 [D]: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전놀음'에 함께 참여한 대장~~에
자기 스스로

대한 화자의 연민의 정감을 드러내고 있다.

[D]의 화자는 화전놀음에 함께 참여한 다른 대상이 아닌, 자신의 신세에 대해 '촉처 감창뿐이로세', '한심일세', '애고 답답', '어찌할꼬' 등과 같은 영탄적 표현으로 서방님과 사별한 화자의 슬픔과 외로움, 답답함 등을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① [B]: 직설적인 표현을 통해 '영결종천 이별'에 대한 화자의 괴로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B]에서 화자는 '겨우 삼 년 동거하고 영결종천 이별'한 서방님을 다시 볼 수 없는 괴로움에 대해 '방정맞고 가련하지 애고애고 답답하다'라며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② [C]: 대구를 활용하여 부재하는 '서방님'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다.

[C]의 '이웃 사람 지나가도 ~ 서방님이 말하는가', '그 얼굴이 눈에 삼삼 그 말소리 귀에 쟁쟁', '잠이 와야 꿈을 꾸지 꿈을 꿔야 임을 보지' 등에서 대구를 활용하여 부재하는 서방님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C]: 특정 시어를 반복하여 '우리 낭군'과 꿈속에서라도 만나기를 소망하는 화자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C]의 '잠이나 잘 오면 꿈에나 만나지만 ~ 정든 임을 잠깐 만나'에서 '꿈'이라는 시어를 반복함으로써 꿈에서나마 서방님을 만나고 싶은 화자의 간절한 소망이 드러나고 있다.

⑤ [D]: '천하 만물'과 자신의 처지를 대비하여 화자의 외로운 신세를 토로하고 있다.

[D]의 '천하 만물이 짝이 있건만 나는 어찌 짝이 없나'에서 화자가 자신의 처지를 '천하 만물'과 대비하여 자신의 외로운 신세를 한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7 답 ㄱ, ㄷ, ㄹ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만류**: 붙들고 못 하게 말림.
- **운명론적**: 운명론(모든 일은 미리 정하여진 필연적인 법칙에 따라 일어나므로 인간의 의지로는 바꿀 수 없다는 이론)을 따르거나 운명론에 바탕을 둔. 또는 그런 것.

정·정·이

ㄱ. ㉮에서 화전놀이를 즐기는 여러 여인들의 목소리가 등장하고 있다.

㉮에서 '좋은 풍경 좋은 놀음에 ~ 낙루 한심 웬일이오'는 한 부인의 말이고, '내 사정을 들어 보소'는 청춘 과녀의 말이다. 이를 통해 화전놀이를 즐기는 여러 여인들이 화자로서 목소리를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ㄷ. ㉰에서 동일한 어구의 반복으로 인해 상대를 만류하는 화자의 태도가 강조되고 있다.

㉰는 청춘 과녀의 사연을 들은 덴동 어미가 화답하는 말로, 가지 말라는 말이 반복됨으로써 화전놀음에서 위안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려는 청춘 과녀를 강하게 만류하는 덴동 어미의 태도가 강조되고 있다.

ㄹ. ㉱에서 비슷한 어구를 짝 지어 제시함으로써 화자의 운명론적 세계관을 드러내고 있다.

㉱에서 '~도 내 팔자요(지)'와 같은 어구가 짝 지어 제시됨으로써 정해진 팔자와 운명대로 사는 것이라는 덴동 어미의 운명론적 세계관이 드러나고 있다.

오·오·이

ㄴ. 부재 ~~㉯에서 화자의 감정이 자연물에 이입~~되어 나타나고 있다.

㉯에서는 화자의 정서가 '비참한데'와 같이 직접 제시되고 있다. 자연물에 화자의 감정이 이입되고 있지 않다.

328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부재 [C]: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대화의 상대로 삼고~~ 있다.

[C]에서 화자인 청춘 과녀가 자신의 꿈을 깨운 꾀꼬리를 원수라고 표현한 것에서 의인법이 쓰였다고 볼 수도 있으나, 화자가 꾀꼬리에게 말을 건네고 있지는 않다.

오·오·이

① [A]: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자연을 묘사하고 있다.

'푸릇푸릇', '불긋불긋'과 같은 시각적 이미지와 '향기로운'과 같은 후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싹이 돋고 꽃이 핀 봄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② [B]: 설의적 표현을 통해 안타까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 낭군 어느 때나 다시 볼꼬'에서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여 안타까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③ [C]: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부각하고 있다.

'그 말소리 귀에 쟁쟁'에서 '쟁쟁'은 음성 상징어로, 사별한 서방님의 목소리가 뚜렷하게 들리는 듯하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서방님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이 부각되고 있다.

⑤ [D]: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화자의 슬픔을 강조하고 있다.

'보나니 족족 눈물이요 듣나니 족족 한심일세'에서 '~나니 ~이요(일세)'와 같이 유사한 통사 구조가 반복되어 화자의 슬픔이 강조됨을 알 수 있다.

329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화자 오류 '덴동 어미'가 '신명 도망 못할지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부 이야기에 나오는 경험에서 ~~자신의 비극적 운명을 바꾸려는 의지~~를 이끌어 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나)의 덴동 어미가 청춘 과녀에게 '신명 도망 못할지라'라고 말한 것은 '신이 내린 운명은 피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가)를 참고하면 이는 '상부와 개가'를 반복한 덴동 어미가 자신의 경험(내부 이야기)을 토대로 깨달은 것일 뿐이다. 여기에서 덴동 어미가 자신의 비극적 운명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를 이끌어 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부인들이 '내칙 편을 외'고 '칠월 편을 노래하'는 풍월 놀이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부 이야기에 화전놀이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나)에서 어떤 부인이 글을 잘해서 '내칙 편을 외'고, 또 어떤 부인이 흥이 나서 '칠월 편을 노래하'는 것은 (가)에 제시된 풍월 놀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외부 이야기에 화전놀이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청춘 과녀'가 '한 부인'과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부 이야기에 여성들의 한스러운 심정이 담겨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가)에서 「덴동 어미 화전가」의 외부 이야기는 일반적인 구성을 따르고, 내부 이야기는 덴동 어미의 일생담이 담겨 있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나)에 제시된 '청춘 과녀'의 신세 한탄은 덴동 어미의 이야기가 아니므로 '외부 이야기'에 해당하며, 화전놀이에 일반적으로 담기는 내용 중 여성들의 한스러운 심정을 다룬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덴동 어미'가 '이내 말을 들어 보소'라는 말을 한 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외부 이야기에서 내부 이야기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나)에서 '덴동 어미'는 '이내 말을 들어 보소'라고 한 뒤, '나도 본디 순흥 읍내 임 이방의 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일생담을 말하고 있다. 「덴동 어미 화전가」가 액자식 구성을 띤다는 (가)의 내용을 고려할 때, '이내 말을 들어 보소'를 기준으로 외부 이야기에서 내부 이야기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화전놀음이 좋다'며 '심회를 조금 풀까'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부 이야기에 현실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당대 부녀자들의 바람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가)에서 일반적으로 화전가에는 '고달픈 삶을 살았던 여인들의 한스러운 심정과 현실의 굴레에서 하루만이라도 벗어나고 싶어 했던 부녀자들의 염원'이 잘 드러나 있다고 하였다. (나)에서 '화전놀음이 좋다 하기에 심회를 조금 풀까' 하여 화전놀이에 참석했다는 '청춘 과녀'의 말에는 당대 부녀자들의 이러한 바람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330 답 (1) 도착 후 화전놀이 (2) 외부, 내부 (3) 부녀자의 신세 한탄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나)의 시작 부분은 화전가의 구성 단계 중 (화전놀이 공론과 택일, 도착 후 화전놀이)에 해당된다.

(나)의 시작 부분인 '어떤 부인은 글 용해서 내칙 편을 외워 내고 / 어떤 부인은 흥이 나서 칠월 편을 노래하고'는 화전놀이의 내용 중 '내칙' 같은 교양물을 읊는 풍월 놀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에서 설명한 화전가의 일반적인 구성 중 '도착 후 화전놀이'의 상황임을 알 수 있다.

(2) 상반 「덴동 어미 화전가」의 액자식 구성 중, (나)의 '청춘 과녀'의 사정이 소개되는 부분은 (내부, 외부) 이야기에 속하고, '덴동 어미'의 일생담이 소개되는 부분은 (내부, 외부) 이야기에 속한다.

(가)에서 「덴동 어미 화전가」의 '외부 이야기'는 대체로 화전가의 일반적인 구성을 따르고, '내부 이야기'는 덴동 어미의 비극적인 삶을 담고 있다고 하였다. 이로 볼 때, '청춘 과녀'의 사연은 외부 이야기에 속하고, '덴동 어미'가 '이내 말을 들어 보소'라고 한 뒤에 자신의 일생담을 전개하는 것은 내부 이야기에 속함을 알 수 있다.

(3) 교체 (나)의 '청춘 과녀'가 자신의 사정을 읊는 부분은 화전놀이의 내용 요소 중 ('내칙' 같은 교양물을 읊는 풍월 놀이, 부녀자의 신세 한탄)에 해당한다.

'청춘 과녀'는 자신이 십칠 세에 과부가 된 사연을 이야기하며 탄식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화전놀이의 내용 요소 중 '부녀자의 신세 한탄'에 해당한다.

III 복합 ❷

40 가 가마귀 검다 ᄒᆞ고 ~ 나 가마귀 눈비 마ᄌᆞ ~ 다 여뀌꽃과 백로

작품 분석 본문 160~161쪽

가 가마귀 검다 ᄒᆞ고 ~

작가 이직
갈래 평시조
주제 표리부동한 인물에 대한 풍자, 조선 왕조에 가담한 자신을 비웃는 자들에게 하는 변론
특징 ①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주제를 우의적으로 드러냄.
② 설의법을 통해 대상에 대한 통념을 깨트리며 자신의 가치관을 강조함.
③ 색채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대비하고 대상을 풍자함으로써 자기 행위를 정당화함.
한 줄 의미
• 겉과 속이 다른 (**백로**)가 까마귀를 비웃는 것을 (**풍자**)하며 자신을 변론함.

나 가마귀 눈비 마ᄌᆞ ~

작가 박팽년
갈래 평시조
주제 변하지 않는 지조와 절개
특징 ① 수양대군이 단종을 폐위하고 왕위를 찬탈한 일을 소재로 함.
② 색채가 대비되는 소재를 활용하여 간신과 충신의 이미지를 선명하게 드러냄.
③ 설의법을 활용하여 시련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지조를 강조함.
한 줄 의미
• 밝은 (**달**)을 통해 임에 대한 변하지 않는 지조와 절개를 다짐함.

다 여뀌꽃과 백로

작가 이규보
갈래 한시
주제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과 그로 인해 어떤 대상이나 현상이 왜곡되는 세태에 대한 비판
특징 ① 백로에 대한 통념을 깨트리고, 백로를 통해 사대부의 위선적인 탐욕을 풍자함.
② 도치법을 통해 대상을 잘못 인식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강조함.
한 줄 의미
❶ (**사람**)을 피해 언덕에 앉은 백로
❷ 백로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에 대한 (**비판**)

331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상반 ㉢은 ~~권력을 탐하는 자들에게 고초를 겪는 작가 자신~~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권력을 탐하는 자들

'가마귀(㉢)'는 눈비를 맞아 희어지는 듯하지만 검은 본모습은 바꿀 수 없는 부정적인 존재를 의미한다. 이를 〈보기〉와 관련지어 이해하면, ㉢은 단종에 대한 지조를 지키려는 작가와 대비되는 존재, 즉 권력을 탐하는 자들을 의미한다.

오·오·이

① ㉠은 작가가 자기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자신과 동일시하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보기〉에 따르면 (가)에는 고려 유신으로 조선 개국에 참여한 작가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가)의 화자가 겉이 검다고 속까지 검은 것은 아니라며 '가마귀(㉠)'를 옹호하는 것으로 보아, ㉠이 화자와 동일시되는 대상으로서 작가의 정당성을 뒷받침해 준다고 할 수 있다.

② ㉡은 겉으로 고고한 척하는 무리를 가리키며, 작가가 비판하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보기〉에서 (가)에는 겉으로 고고한 척하는 이들을 비판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하였다. (가)의 화자가 '가마귀(㉠)'와 대비되는 '백로(㉡)'를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겉으로 고고한 척하는 이들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④ ㉣은 세조가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시대 상황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보기〉를 통해 (나)가 세조가 단종을 폐위하고 왕위를 찬탈한 일을 소재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밤(㉣)'은 의미상 부정적 상황을 나타내므로,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⑤ ㉤은 세조의 회유를 뿌리치고 단종에 대한 충의를 지키려는 작가의 굳은 마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나)의 작가가 단종 복위를 꾀하다 옥에 갇혔다는 〈보기〉의 내용을 고려할 때, '일편단심(㉤)'은 단종에 대한 작가의 충의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332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가)의 '가마귀'는 '백로'의 비웃음을 사는 대상이고, 〈보기〉의 '가마귀'는 '백로'가 멀리해야 하는 대상이다.
(가)는 초장에서 '백로'에게 '가마귀'를 비웃지 말라고 한 것으로 보아, '가마귀'가 '백로'의 비웃음을 사는 대상임이 드러나고 있다. 〈보기〉는 초장에서 '가마귀'가 싸우는 골짜기에 '백로'가 가지 말아야 한다고 함으로써 '가마귀'는 '백로'가 멀리해야 하는 대상임을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가)의 '가마귀'는 〈보기〉의 '가마귀'와 달리 '백로'에게 가르침을 주는 대상이다.

(가)의 '가마귀'는 겉이 희고 속이 검은 '백로'와 대비되는 존재로, '백로'의 표리부동함을 풍자하는 근거로 제시될 뿐, '가마귀'가 '백로'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지 않다.

② 교체 (가)의 '가마귀'는 〈보기〉의 '가마귀'와 달리 겉모습과 그 속성이 일치한다.

(가)의 '가마귀'는 겉은 검지만 속은 검지 않으므로 겉모습과 속성이 일치하지 않는다. 반면 〈보기〉의 '가마귀'는 골짜기에서 싸우고, 백로의 흰빛을 시샘하는 등의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겉모습과 속성이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④ 범위 오류 (다)의 '가마귀'와 〈보기〉의 '가마귀'는 모두 흰빛을 추구한다.

(나)에서 '가마귀'가 흰 듯하면서도 검다고 하였을 뿐, 흰빛을 추구하는지는 알 수 없다. 반면 〈보기〉의 '가마귀'는 흰빛을 시샘하고 있으므로 흰빛을 원한다고 볼 수 있다.

⑤ 헛짚기 (나)의 '가마귀'와 〈보기〉의 '가마귀'는 모두 화자가 바람직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드러낸다.

(나)의 '가마귀'는 흰 듯하면서도 검은 속성을 지닌 것으로 '야광명월'과 대조된다는 점에서 화자가 바람직하게 여기는 가치관인 '일편단심'을 드러낸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보기〉의 '가마귀' 역시 '백로'의 흰빛을 시샘하면서 성을 내고 있는 존재로,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대상으로 표현된다는 점에서 화자가 바람직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드러낸다고 할 수 없다.

333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상반 [D]의 '사람들'이 백로에 대해 보이는 인식은 [A]에 드러난 백로의 모습에 근거하고 있군.

[D]에서 '사람들'은 백로를 기심을 잊고 서 있는 청렴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A]에 드러난 백로는 물고기와 새우를 잡으려는 탐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 둘은 서로 반대된다.

오·오·이

① [A]의 '물고기와 새우'에 대한 백로의 욕망은 [B]에서 '사람' 때문에 일시적으로 충족되지 못하는군.

백로는 '물고기와 새우'를 잡아먹으려 했지만 사람을 보고 놀라 도망가게 되었으므로, '사람' 때문에 일시적으로 욕망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② [B]의 '여뀌꽃 핀 언덕'은 [C]의 '사람'을 경계한 백로가 피신해 있는 공간이군.

백로가 '사람'을 피해 '여뀌꽃 핀 언덕'에 날아가 앉았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③ [C]의 '깃털'이 젖은 모습은 [D]의 '마음' 때문에 백로가 처하게 된 부정적 상황을 보여 주는군.

[C]에서 백로가 사람이 돌아가기를 기다린 것은 그들이 간 후에 여울의 물고기와 새우를 잡아먹으려 했기 때문이다. 그 사이에 백로의 '깃털'이 다 젖게 된 것이므로 [D]의 '마음'이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A]~[D]에서 화자는 백로의 탐욕만이 아니라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사람들'도 비판하고 있군.

사람들은 백로가 기회를 엿보아 이득을 취하려는 마음을 잊고 서 있다고 말하지만, 백로의 마음은 사실 여울의 물고기에 가 있다. 이를 통해 화자는 백로의 탐욕과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사람들'을 함께 비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34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표리부동**: 겉으로 드러나는 언행과 속으로 가지는 생각이 다름.

정·정·이

(1) (가)에서 '백로'는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한 인물을 나타낸다. (○, ×)

(가)의 화자가 '백로'에게 '가마귀'를 비웃지 말라고 하며 '것 희고 속 검을손 너뿐'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백로'가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한 인물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2) 헛짚기 (나)에서 '야광명월'은 화자의 외로움을 부각한다. (○, ×)

(나)의 '야광명월'은 어두운 '밤'에도 빛을 잃지 않는 대상으로 임금을 향한 화자의 일편단심을 드러낼 뿐, 화자의 외로움을 부각하고 있지 않다.

(3) 헛짚기 (다)에서 '사람들'은 백로의 사냥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화자의 비판 대상에 해당한다. (○, ×)

(다)의 화자는 '사람들'이 백로의 탐욕을 알아차리지 못함을 비판하고 있을 뿐, '사람들'이 백로의 사냥을 방해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지 않다.

335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헛짚기 '물결'은 백로의 욕구를 좌절시키는 원인이다.

백로는 앞 여울에 많은 물고기와 새우를 잡아먹고자 '물결 뚫고 들어갈 생각'이 있었으나, '사람'을 보고 놀라 언덕 위로 날아가서 사람이 돌아가길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백로는 사람 때문에 사냥을 잠시 멈춘 것이지, '물결' 때문에 욕구가 좌절된 것이라 할 수 없다.

오·오·이

② 백로가 '여뀌꽃 핀 언덕'에 서 있는 모습은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⑤ 백로가 '여울의 물고기'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은 '기심'을 잊지 못해서이다.

'사람들'은 '여뀌꽃 핀 언덕'에 서 있는 백로가 '기심'을 잊고 서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사람들'의 오해(②)로, 백로는 '여울의 물고기'를 취하려는 '기심'을 잊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⑤).

③ '가랑비'는 백로의 마음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대상이다.

백로가 깃털이 젖는데도 '가랑비'를 피하지 않고 여울의 물고기에 대한 마음을 접지도 않는 것으로 보아, '가랑비'는 백로의 마음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④ '사람들'은 화자와 대비되는 존재로서 백로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보여 준다.

화자는 백로가 물고기와 새우를 잡아먹고자 하는 욕망을 버리지 않고 있음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백로가 기심을 잊고 서 있다고 오해하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화자와 대비되는 존재로서 백로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41 가 천만리 머나먼 길히 ~ 나 청초 우거진 골에 ~ 다 흥망이 유수ᄒᆞ니 ~

작품 분석 본문 162~163쪽

가 천만리 머나먼 길히 ~

작가 왕방연
갈래 평시조
주제 임(유배된 단종)과 이별한 애절한 마음
특징 ① 폐위된 단종을 유배지에 모신 후 돌아오는 상황에서 창작됨.
②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애절함을 표현함.
③ 임과의 심리적 거리감을 수치화하여 나타냄.
한 줄 의미
• 임(유배된 단종)과 이별하고 돌아오는 길에 느낀 (**슬픔**)

나 청초 우거진 골에 ~

작가 임제
갈래 평시조
주제 황진이의 죽음에 대한 애도
특징 ① 청색, 홍색, 백색의 색채 대비가 두드러짐.
② '홍안'과 '백골'의 대비를 통해 죽음으로 인한 대상의 부재와 무상감을 시각적으로 나타냄.
③ 영탄적 어조와 설의법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부각함.
한 줄 의미
• 황진이의 무덤가에서 그의 (**죽음**)을 슬퍼함.

다 흥망이 유수ᄒᆞ니 ~

작가 원천석
갈래 평시조
주제 고려 왕조의 멸망에 대한 탄식과 무상감
특징 ①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특정 공간의 풍경을 묘사함으로써 왕조의 몰락과 그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드러냄.
② 화자 자신을 객관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정서를 절제하여 전달함.
한 줄 의미
• (**멸망**)한 고국(고려)을 생각하며 한탄함.

336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대상의 부재에서 느끼는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가)에는 '고운 님'을 여읜 안타까움이, (나)에는 '백골'로 묻힌 이에 대한 안타까움이, (다)에는 망해 버린 '오백 년 왕업(고려 왕조)'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오·오·이

② 화자 오류 자신의 궁핍한 처지로 인한 좌절감이 표출되어 있다.

(가)~(다)의 화자는 모두 대상의 부재로 인해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을 뿐, 궁핍한 처지로 인해 좌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③ 헛짚기 예기치 않은 이별로 인한 서러운 심정이 나타나 있다.

(가)에서는 화자가 '고은 님'을 먼 곳에서 이별하고 돌아오는 길임을, (나)에서는 화자가 죽은 이의 무덤 앞에 서 있음을, (다)에서는 화자가 풀만 무성해진 고려의 왕궁 터에 서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이 예기치 않게 온 것인지는 알 수 없다.

④ 화자 오류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에 대한 경외감이 드러나 있다.

(가)의 '물'은 임과의 이별을 슬퍼하는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일 뿐이고, (나)의 '청초 우거진 골'이나 (다)의 '추초', '석양' 등은 화자에게 무상감을 느끼게 하는 자연물로, 모두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에 대한 경외감이 드러난다고도 할 수 없다.

⑤ 범위 오류 자신의 이념과 배치되는 현실에서 느끼는 실망감이 표출되어 있다.

(가)는 폐위된 단종을 유배지에 호송하고 돌아오는 상황에서 쓴 시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현실이 한 임금을 향해 지조를 지켜야 한다는 화자의 이념에 배치됨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화자가 느끼는 죄책감과 실망감이 '저 물'에 이입되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나)와 (다)의 화자가 각각 죽음과 망국으로 인해 느끼는 무상감과 슬픔은 이념과 배치되는 현실에서 느끼는 실망감과 관련이 없다.

337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화자 오류 (가)의 화자는 '고은 님'이 부재한 상황에서 재회의 소망을 드러내고, (나)의 화자는 자신의 청춘이 지나간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 ⊗)

(가)의 화자는 '고은 님'과 이별하고 슬픔을 느끼고 있을 뿐, 재회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나)의 화자는 '백골'로 묻힌 이의 죽음을 슬퍼하고 무상감을 느끼고 있을 뿐, 자신의 청춘이 지나간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지 않다.

(2) (다)에서 화자는 '눈물계워 ᄒᆞ'는 '객'으로 등장하며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 ×)

(다)에서 화자는 자신을 '지나ᄂᆞᆫ 객'으로 객관화하여 '눈물계워' 한다고 표현함으로써 황폐해진 고려의 왕궁 터에서 느끼는 무상감을 절제하여 드러내고 있다.

(3) 범위 오류 (가)의 '천만리'와 (다)의 '오백 년'은 대상과의 심리적 거리감을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 ⊗)

(가)의 '천만리'는 '고은 님'이 계신 곳으로 화자와 '님' 사이의 심리적 거리감을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다)의 '오백 년'은 고려 왕조가 유지되었던 시기를 언급한 것일 뿐, 대상과의 거리감을 나타내지 않는다.

338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암담한: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정·정·이

④ 헛짚기 (나)의 '홍안을 어듸 두고 백골만 무쳣ᄂᆞᆫ다'는 인간과 자연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홍안'은 대상이 살아 있을 적의 모습이고 '백골'은 죽은 후의 모습이므로, 인간과 자연이 대비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오·오·이

① (가)의 '천만리 머나먼 길히 고은 님 여희옵고'는 과장된 표현을 통해 '님'과 이별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가)의 '천만리'는 이별한 임과의 거리를 과장하여 표현한 것으로, 임과 이별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② (가)의 '져 물도 ᄂᆡ 온 ᄯᆞᆺ ᄒᆞ여'는 인간과 자연물의 동일시를 통해 화자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가)의 화자는 임과 이별한 슬픔을 냇가의 '물'에 이입하여 울면서 밤길을 간다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인간과 자연물을 동일시하여 화자의 슬픔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가)의 '밤길 녜놋다'는 캄캄한 '밤'의 속성을 통해 화자의 암담한 심경을 표현하고 있다.

(가)의 '밤길 녜놋다'는 캄캄한 '밤'의 속성을 통해 '밤길'을 울며 가는 화자의 암담한 심경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나)의 '잔 자바 권할 이 업스니'는 대상이 부재한 상황의 제시를 통해 화자의 외로움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 잔을 권할 이가 없다는 것은 함께 술을 마실 상대가 없다는 것으로, 대상이 부재한 상황에서 화자가 느끼는 외로움, 상실감, 안타까움 등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339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교체 〈다〉는 〈보기〉와 달리 이질적 공간을 대비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군.

(다)에는 '만월대'라는 고려의 왕궁 터만 제시되어 있을 뿐,

이와 대비되는 다른 공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보기〉에서 '홍진'에 묻혀 사는 사람들과 '산림'에 묻혀 사는 화자가 대비되고 있으므로, 이질적 공간을 대비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다)가 아니라 〈보기〉이다.

오·오·이

① (다)와 〈보기〉는 동일한 음보율을 사용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군.
(다)와 〈보기〉는 모두 4음보의 동일한 율격을 사용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③ (다)에서는 침울한 분위기를, 〈보기〉에서는 들뜬 분위기를 느낄 수 있군.
(다)의 '눈물계워 ᄒᆞ노라'에서는 침울한 분위기를, 〈보기〉에서는 봄을 맞이한 화자가 자신이 '풍월주인'이라 말하고 주변 풍경을 묘사하는 데에서 들뜬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④ (다)의 '석양'은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는 배경으로, 〈보기〉의 '석양'은 경치를 돋보이게 하는 배경으로 기능하고 있군.
(다)의 '석양'은 이전 왕조의 멸망과 관련하여 화자의 탄식을 심화하는 반면, 〈보기〉의 '석양'은 '도화 행화'와 시각적인 조화를 이루어 봄 경치의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다.

⑤ (다)는 화자가 혼잣말을 하는 방식으로, 〈보기〉는 화자가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군.
(다)의 화자는 혼잣말을 하는 방식으로, 감탄의 의미를 나타내는 종결 어미 '-로다', '-노라'를 사용하여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보기〉의 화자는 '홍진에 뭇친 분네 이내 생애 엇더ᄒᆞᆫ고'와 같이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340 답 (1) 4음보 (2) 산림 (3) 가을, 봄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다)와 〈보기〉는 (3음보, 4음보)의 율격을 보인다.
(다)는 '홍망이∨유수ᄒᆞ니∨만월대도∨추초ㅣ로다'와 같이 4음보의 율격을, 〈보기〉 역시 '홍진에∨뭇친 분네∨이 내 생애∨엇더ᄒᆞᆫ고'와 같이 4음보의 율격을 보인다.

(2) 교체 〈보기〉에는 (홍진, 산림)에 묻혀 사는 즐거움이 나타난다.
〈보기〉의 화자는 '홍진'에 묻혀 사는 다른 이들과 '산림'에 묻혀 사는 자신을 대비하면서, 자연을 즐기는 자신의 삶에 대한 즐거움과 자부심 등을 드러내고 있다.

(3) 교체 (다)의 계절적 배경은 (봄, 가을)이고, 〈보기〉의 계절적 배경은 (봄, 가을)이다.
(다)의 '추초'를 통해 계절적 배경이 가을임을, 〈보기〉의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를 통해 계절적 배경이 봄임을 알 수 있다.

42 가 어져 내 일이야 ~ 나 임 이별 하올 적에 ~ 다 내게는 원수가 없어 ~

작품 분석 본문 164~165쪽

가 어져 내 일이야 ~
작가 황진이
갈래 평시조
주제 이별한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
특징 ① 중의적 표현으로 시적 의미를 풍부하게 함.
② 감탄사를 사용하여 화자의 회한 어린 그리움을 표현함.
③ 도치법 또는 행간 걸침을 사용하여 화자의 심리를 부각함.
한 줄 의미
• 떠난 (임)을 그리워하며, 임을 보낸 것을 (후회)함.

나 임 이별 하올 적에 ~
작가 안민영
갈래 평시조
주제 임과 이별하는 순간의 안타까움과 아쉬움
특징 ①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함.
② 초장에서 먼저 요구를 제시한 뒤, 종장에서 그 이유를 밝히는 방식으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함.
한 줄 의미
• 다리를 저는 (나귀) 덕분에 임의 슬픈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생각과, 이별하는 순간의 아쉬움과 안타까움

다 내게는 원수가 없어 ~
작가 박문욱
갈래 사설시조
주제 임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개와 닭에 대한 원망
특징 ①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생동감 있게 드러냄.
②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함.
한 줄 의미
• 임과의 사랑을 방해하는 (개)와 (닭)을 원망하며 원수로 여김.

341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무상감**: 모든 것이 덧없다는 느낌.
• **낙천적**: 세상과 인생을 즐겁고 좋은 것으로 여기는 것.

정·정·이

③ 임과 함께 있고 싶은 소망을 담고 있다.
(가)의 화자는 임과 이별한 뒤 떠난 임을 그리워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임과 이별하는 순간에 느끼는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다)의 화자는 임과의 사랑을 방해하는 닭과 개에 대한 원망스러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가)~(다)는 모두 임과 함께 있고 싶은 소망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오·이

① 화자 오류 부정적인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가)~(다)의 화자는 모두 임과 함께하지 못하는 개인적 상황을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현실을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

② 화자 오류 세속적인 삶과 거리를 두고 있다.

(가)~(다)의 화자는 모두 사랑과 이별을 노래하고 있다. 세속적인 삶과 거리를 두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화자 오류 이별로 인한 삶의 무상감이 나타나고 있다.

(가)~(다)에는 모두 이별의 상황이 드러난다. 그러나 이로 인해 (가)~(다)의 화자가 삶의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⑤ 화자 오류 힘든 상황을 낙천적인 자세로 극복하고 있다.

(가)~(다)의 화자는 모두 임과 함께하지 못하는 처지이므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와 (나)의 화자는 낙천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임과의 이별이라는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 역시 보이고 있지 않다. 한편 (다)의 화자는 임과의 사랑을 방해하는 닭과 개를 '스러져 없이 하'겠다고 하였으므로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자 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낙천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342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설치게**: 필요한 정도에 미치지 못한 채로 그만두게.

정·정·이

(1) (가)의 화자는 임을 떠나보낸 것을 후회하고 있다. (○, ×)

(가)의 화자는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라며 임을 떠나보낸 것을 후회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2) (나)는 임과 이별하는 순간을 노래하고 있다. (○, ×)

(나)는 임과 이별하는 순간에 느끼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노래하고 있다.

(3) 헛짚기 (다)의 화자는 임 없는 밤에 자신의 잠을 설치게 하는 '개'와 '닭'을 원망하고 있다. (○, ×)

(다)의 화자가 '개'와 '닭'을 원망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 이유가 개와 닭이 임 없는 밤에 화자의 잠을 설치게 하기 때문인 것은 아니다. (다)의 화자는 개와 닭이 임과 자신의 사랑을 방해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있다.

343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부재 (나)의 '꽃 아래 눈물 적신 얼굴'은 과장된 표현을 통해 화자의 슬픔을 나타내고 있다.

'꽃 아래 눈물 적신 얼굴'은 이별할 때에 임이 꽃 아래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드러낸 표현으로, 대상인 임의 슬픔을 나타내고 있다. 또 이를 과장된 표현으로 볼 수는 없다.

오·오·이

① (가)의 '그릴 줄을 모르던가'와 (나)의 '어찌 자세히 보리오'는 모두 의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다.

(가)의 '그릴 줄을 모르던가'는 의문의 형식으로 임과 헤어진 후 화자가 느끼는 회한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어찌 자세히 보리오'는 의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나귀가 다리를 저는 덕분에 슬픔에 젖은 임의 얼굴을 보게 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② (가)의 '제 구태여'는 행동의 주체를 중의적으로 표현하여 화자의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제 구태여'를 앞의 '가랴마는'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면 행동의 주체는 '임'이 되어, 임이 굳이 떠나갔다는 의미가 된다. 그리고 '제 구태여'를 뒤의 '보내고'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면 행동의 주체는 화자가 되어, 화자가 굳이 임을 떠나보냈다는 의미가 된다. 이처럼 행동의 주체를 중의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화자의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가)의 '보내고 그리는 정'은 화자의 행위와 심리를 대비시켜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임을 보낸 화자의 행위와,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심리를 대비시켜 이별한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④ (나)의 '저는 나귀 한치 마소'는 다리를 절며 느리게 걷는 '나귀'를 통해 임과 함께 있는 시간을 연장하고 싶은 화자의 심정을 담아내고 있다.

나귀가 다리를 절어 느리게 걷는 것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에서, 임과 함께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하고 싶은 화자의 심정이 드러난다.

344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부재 〈보기〉와 달리 (다)는 ~~상황을 가정하여~~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군.

(다)의 화자는 임과의 사랑을 방해하는 개와 닭을 원망하며 이를 통해 임과 함께 있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망을 상황의 가정을 통해 드러낸 것은 아니다.

오·오·이

① (다)와 〈보기〉는 독백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군.

(다)와 〈보기〉는 모두 화자의 혼잣말 형태로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즉 (다)와 〈보기〉 모두 독백적 어조로 임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다)와 〈보기〉는 유사한 구조를 지닌 문장을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군.

(다)의 중장에서는 자는 임을 일어나서 가게 하고, 중문에 와 있는 임을 도로 돌아가게 하는 닭과 개의 행동이 유사한 구조로 제시되어 닭과 개에 대한 화자의 원망스러운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보기〉에서는 1~3행에서 비슷한 형태를 지닌 문장을 반복하여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③ (다)와 달리 〈보기〉는 계절의 변화에 따른 화자의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군.

(다)에는 '유월 유두', '백종' 등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 시어가 사용되었지만, 이를 통해 개와 닭을 없애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강조될 뿐, 계절의 변화에 따른 화자의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이와 달리 〈보기〉에서는 '춘풍', '추절', '동절'이라는 시어를 통해 계절의 변화에 따른 화자의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⑤ 〈보기〉와 달리 (다)의 의성어는 화자에게 원망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군.

〈보기〉에 사용된 의성어 '뚜루룰 낄룩'은 기러기의 울음소리로, 화자로 하여금 임을 떠올리게 하는 소리이다. 그러나 (다)의 의성어 '캉캉'은 중문에 와 있는 임을 돌아가게 만드는 개의 소리이므로 이는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로 하여금 개에 대한 원망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소리로 볼 수 있다.

345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보기〉와 달리 (다)의 화자는 임과의 사랑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의 화자가 임과의 사랑을 방해하는 장애물인 '개'와 '닭'을 '스러져 없이 하리라'라고 하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다)의 '개', '닭'은 〈보기〉의 '기러기'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

(다)에서 '개'와 '닭'은 화자와 임의 사랑을 방해하는 존재로, 화자가 원망하는 대상이다. 이와 달리 〈보기〉의 '기러기'는 화자로 하여금 임을 떠올리게 하는 대상이므로, (다)의 '개', '닭'은 〈보기〉의 '기러기'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없다.

② 화자 오류 (다)와 달리 〈보기〉의 화자는 임과 함께하지 못하는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며~~ 한탄하고 있다.

(다)는 임과 함께하지 못하는 원인이 '개'와 '닭'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편 〈보기〉에서는 임과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의 원인은 나타나 있지 않고, 임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만 드러나 있다.

43 가 어이 못 오던다 ~ 나 청천에 떠서 울고 가는 ~ 다 정선 아리랑

작품 분석 본문 166~167쪽

가 어이 못 오던다 ~

작가 미상
갈래 사설시조
주제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
특징 ① 임이 찾아오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물을 설정함.
② 임이 오지 못하는 이유를 과장하여 표현함으로써 화자의 심정을 강조함.
한 줄 의미
• (임)이 오지 않는 (이유)를 짐작해 보며 오지 않는 임을 원망함.

나 청천에 떠서 울고 가는 ~

작가 미상
갈래 사설시조
주제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특징 ① 대화 형식을 통해 화자의 소망을 드러냄.
② 의인화된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심정을 드러냄.
한 줄 의미
• 임에게 소식을 전해 달라고 (외기러기)에게 부탁하지만, 외기러기가 회의적으로 대답함.

다 정선 아리랑

작가 미상
갈래 민요
주제 정선 지방 사람들의 삶과 애환
특징 ① 구체적인 지명과 생활에 밀접한 자연물을 활용함.
② 대조법, 반복법, 대구법, 과장법 등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냄.
한 줄 의미
❶ 아우라지 (뱃사공)에게 강을 건너 달라고 부탁함.
❷ (임)이 늙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임과의 이별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
❸ (시집살이)의 힘겨움
❹ 돌아오지 않는 (임)에 대한 기다림과 임에 대한 서운함

346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거주**: 일정한 곳에 머물러 삶. 또는 그런 집.

정·정·이

③ (나)에서는 의인화된 자연물을 통해 자신의 처지를 임에게 알리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 '외기러기'는 화자의 말을 듣고 한양성 내에 들러 임에게 화자의 처지에 관한 소식을 전해 줄 수 있는 대상으로 의인화되어 있다.

오·오·이

① 화자 오류 (가)에서는 임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화자를 찾아오기에는 하루라는 시간이 짧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가)의 종장인 '흔 들이 셜흔 놀이여니 날 보라 올 하루 업스랴'는 임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찾아오는 데 하루로는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짧은 시간이라도 내어 찾아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는 것이다.

② 화자 오류 (가)에서는 화자가 처한 상황의 책임을 화자 자신에게 돌리며 자책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가)의 화자는 임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며 자신을 책망하고 있지 않다.

④ 화자 오류 (나)에서는 화자가 제삼자와 더불어 임과의 추억을 회상하며 임을 기다리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화자는 제삼자와 함께 임과의 추억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제삼자인 외기러기에게 부탁하여 자신의 소식을 임에게 전하려 하고 있다.

⑤ 부재 (가), (나) 모두에서는 임이 거주하는 공간의 특징을 묘사하여 화자의 고독감을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다.
(가), (나) 모두 화자의 고독감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 (가)에서 '무쇠로 성을 쌓고 ~ 수기수기 즘갓더냐'와 같이 형상화된 공간은 임이 거주하는 공간이 아니라 화자가 생각하는 가상의 공간이다. 또 (나)에 언급된 공간인 '한양성'은 임이 있는 공간이지만, 그에 대해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

347 답 (1) × (2)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화자 오류 (가)에서 화자는 '너'를 걱정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
(가)에서 화자는 '너', 즉 임이 오지 않는 이유를 추측하며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다. 임을 걱정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2) (나)는 화자와 '외기러기'의 대화 형식을 활용하고 있다. ((○), ×)
(나)의 화자는 '외기러기'에게 자신의 말을 임에게 전해 달라고 하였으나, 기러기는 자신도 임을 보러 가는 길이라 화자의 말을 '전흘동 말동' 하다며 회의적으로 대답하고 있다.

348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헛짚기 (가)의 'ᄒᆞᆫ 돌이 셜흔 ᄂᆞᆯ'과 (나)의 '잠간 들러'에서 ~~지간의 순차적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 것을 알 수 있다.~~

(가)의 'ᄒᆞᆫ 돌이 셜흔 ᄂᆞᆯ'은 한 달이 30일이나 되는데 하루도 화자를 보러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을 강조한다. 한편 (나)의 '잠간 들러'는 화자가 외기러기에게 부탁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시간의 순차적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오·오·이

① (가)에서는 '무쇠로 성을 쌓고 성 안에 담 쌓고 담 안에란 집을 짓고' 등에서 임이 오지 못하는 까닭을 열거를 통해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쇠로 성을 쌓고 성 안에 담 쌓고 담 안에란 집을 짓고' 등에서는 '성', '담' 등과 같이 임이 화자에게 오지 못하게 임을 가두는 장애물들을 제시하며 임이 오지 못하는 까닭을 추측하여 드러내고 있다.

③ (가)의 '집', '뒤주', '궤' 등과 (다)의 '고비', '고사리' 등을 통해 생활에 밀접한 사물을 이용하여 시적 상황을 표현한 것을 알 수 있다.

(가)에서는 '집'과 '뒤주', '궤'와 같은 가구들이, (나)에서는 '고비', '고사리'와 같은 식재료로 이용하는 식물들이 시어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생활에 밀접한 사물을 이용하여 시적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④ (가)의 '어이 못 오던다 무슨 일로 못 오던다'와 (다)의 '성님 성님 사촌 성님'을 통해 단어와 구절을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의 '어이 못 오던다 무슨 일로 못 오던다'와 (다)의 '성님 성님 사촌 성님'은 각각 '못 오던다'와 '성님'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⑤ (나)의 '전ᄒᆞ여 쥬렴'과 (다)의 '건너 주게'를 통해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이 활용된 것을 알 수 있다.

(나)의 '전ᄒᆞ여 쥬렴'에서는 외기러기를, (다)의 '건너 주게'에서는 뱃사공을 청자로 설정하여 말을 건네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349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화자 오류 [D]: 임이 떠나간 것은 자연의 순환적 질서에 따른 것이므로 ~~돌아오지 않는 것도 그 질서에 따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D]에서는 한 번 가서 돌아오지 않는 임을, 지면 변함없이 다시 뜨는 해, 달과 대조하고 있다. 즉 자연의 순환적 질서와 달리 돌아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① [A]: 임이 자연의 섭리에 영향을 받지 않기를 기원하는 말로 임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고 있어.

'고비 고사리'가 늙어 가는 것은 자연의 섭리인데, 화자는 이러한 섭리와 달리 임은 늙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이를 통해 임에 대한 화자의 애정을 알 수 있다.

② [B]: 임이 떠나가는 것을 자연 현상에 빗대어 임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어.

화자는 임이 떠나가는 것을 해가 지는 자연 현상에 빗대어, 임이 정 들이고 떠나가는 데에는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③ [C]: 묻고 답하는 방식을 빌려 여성의 고단한 삶을 표현하고 있어.

'시집살이가 어떻던가'와 같이 묻고, '삼단 같은 요 내 머리 비사리춤 다 되었네'라고 답하는 형식을 빌려 시집살이하는 여성의 고단함을 표현하고 있다.

⑤ [E]: 기대만큼 자신을 충분히 사랑해 주지 않는 임에 대한 서운함을 표현하고 있어.

화자는 임이 오지 않는 것은 자신이 임을 사랑하는 만큼 임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며, 기대만큼 자신을 충분히 사랑해 주지 않는 임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내고 있다.

350 답 ㄴ, ㄷ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ㄴ. [B]의 '해'는 임과 동일시되는 반면, [D]의 '해'는 임과 대조되고 있다.

[B]에서 '해'는 하루가 저물며 지는 존재로, 정 들이고 떠나는 임과 동일시되고 있다. 반면 [D]의 '해'는 오늘 갔다 내일 오는 존재로, 한 번 가고 오지 않는 임과 대조되고 있다.

ㄷ. [C]는 동생과 '사촌 성님'의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C]에서는 동생이 '사촌 성님'에게 시집살이에 대해 묻자 '사촌 성님'이 '삼단 같은 요 내 머리 비사리춤 다 되었네'라며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오·오·이

ㄱ. 화자 오류 [A]에서 화자는 임이 '고비', '고사리'와 같이 ~~늙음을 한탄하고~~ 있다.

[A]에서 화자는 다 늙은 '고비', '고사리'와 달리 임은 늙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 뿐, 임이 늙은 것을 한탄하고 있지는 않다.

351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극단적**: ① 길이나 일의 진행이 끝까지 미쳐 더 나아갈 데가 없는 것. ② 중용을 잃고 한쪽으로 크게 치우치는 것.
- **연쇄적**: 서로 연결되어 관련이 있는 것.

정·정·이

⑤ 화자 오류 ⓔ: 극단적인 상황을 제시하며 당신과의 ~~재회에 대한 확신~~을 드러내고 있다.

ⓔ에서 화자는 자신이 임을 생각하는 만큼만 임이 자신을 생각한다면, 가시밭길을 신발을 벗고서라도 올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오지 않는 당신(임)에 대한 아쉬움과 원망을 드러낸 표현이지, 재회에 대한 확신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오·오·이

① ⓐ: 구절을 연쇄적으로 제시하여 오지 않는 임에 대한 화자의 원망을 드러내고 있다.

ⓐ에서는 '성-담-집-뒤주-궤'로 구절을 연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임이 오지 않는 이유를 추측하며 오지 않는 임에 대한 화자의 원망을 드러내고 있다.

② ⓑ: 자신의 감정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대화체로 드러내고 있다.

ⓑ에서 화자는 임을 그리워하는 자신의 마음이 임에게 전해지길 바라며, 외기러기에게 자신의 말을 전해 달라고 말을 건네고 있다.

③ ⓒ: 상대에게 자신이 바라는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에서 화자는 뱃사공에게 배로 강을 건널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④ ⓓ: 비유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힘겨운 처지를 강조하고 있다.

ⓓ에서는 머리를 '삼단'과 '비사리춤'에 비유함으로써 시집살이로 고생한 처지를 강조하고 있다.

정·오 지름길

⑤ ⓔ: 극단적인 상황을 제시하며 ~~당신과의 재회에 대한 확신~~을 드러내고 있다.

ⓔ에서 화자가 가정한 내용은 당신이 '날만침만 생각을 한다면'이에요. 가정한 내용을 통해 보면 화자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만큼 당신은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에서 재회에 대한 확신을 드러낸다고 볼 수 없지요. 이처럼 시구의 내용을 이해할 때에는 앞뒤 상황을 통해서 주체가 누구인지, 숨겨진 전제는 없는지 등을 잘 확인해 보아야 해요.

44 가 풍아별곡 나 야와송시유감 다 서파삼우설

작품 분석 본문 168~171쪽

가 풍아별곡

작가 권익륭
갈래 연시조
주제 풍아를 즐기는 사대부가 갖추어야 할 자세
특징 ① 대구법, 설의법을 활용하여 화자의 태도를 강조함.
② 바람직하게 여기는 가치를 제시하여 권계의 뜻을 전함.

한 줄 의미

1. 옳은 (뜻)을 전하려는 의지
2. (군자)의 훌륭한 덕을 예찬함.
3. (풍류)를 즐기는 바람직한 자세
4. (현재)를 즐기되 지나치지 않는 '낙이불음'의 태도
5. 풍류를 즐기는 (삶)을 권함.

나 야와송시유감

작가 박은
갈래 한시
주제 시와 술로 근심을 달래는 처량함
특징 ① 자연물을 활용하여 쓸쓸한 분위기를 강조함.
②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가 나타남.

한 줄 의미

1. 방에 누워 (시)를 읊조림.
2. (술)을 마시며 근심을 달램.

다 서파삼우설

작가 유방선
갈래 고전 수필, 설
주제 서파삼우를 통해 배우는 대장부의 덕목
특징 ① 설의법, 고사 인용을 통해 대상의 긍정적 속성을 강조함.
② 이이립의 생애를 요약적으로 제시함.

한 줄 요약

1. 이이립이 확대경, 뿔잔, 쇠칼을 (벗)으로 삼음.
2. (이이립)이 확대경, 뿔잔, 쇠칼을 벗으로 삼은 진정한 이유
3. 이이립이 (관직)에 나아가 능력을 펼치기를 바라는 마음

352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가)는 대구의 형식을 사용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가)의 〈제3곡〉에서는 '위의도 거룩하고 예모도 넓을시고'와 같이 대구의 형식을 사용하여 군자의 엄숙하고 예의에 맞는 몸가짐을 예찬하고 있다.

오·오·이

② 부재 (나)는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에는 늦은 밤에 시를 읊고 술을 마시며 근심을 달래는 화자의 현재 모습이 나타나 있을 뿐 과거와 현재의 대비는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이를 통해 시상이 전환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헛짚기 (다)는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인간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다)는 확대경, 뿔잔, 쇠칼이라는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이 세 사물을 벗으로 삼은 이이립의 역량을 드러낼 뿐, 이를 통해 인간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

④ 부재 (가)와 (나)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를 통해 시간의 경과를 드러내고 있다.

(가)와 (나) 모두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는 사용되지 않았다. 한편 (가)에는 시간의 경과가 드러나지 않으며, (나)에는 화자가 방 안에서 시를 읊다 아내가 권하는 술을 마시고 다시 이불 덮고 눕는 모습에서 시간의 경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⑤ 부재 (가)와 (다)는 공간적 배경을 묘사하여 인물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가), (다)는 모두 공간적 배경을 묘사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인물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없다.

353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역량**: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

정·정·이

(1) (가)는 비슷한 어구를 짝 지어 제시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

352번-①의 해설을 참고할 때, 적절함을 알 수 있다.

(2) 헛짚기 (나)는 시간의 경과를 드러내어 흥겨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

(나)에는 화자가 방 안에 누워 시를 읊다가 아내가 권한 술을 마신 후 다시 눕는 모습에서 시간의 경과가 드러난다. 그러나 화자는 근심을 달래고 있으므로 흥겨운 분위기가 조성된다고 볼 수 없다.

(3) (다)는 인물이 벗으로 삼은 세 가지 물건에 인격을 부여하여 인물의 역량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

(다)는 이이립이 벗으로 삼은 세 가지 물건인 확대경, 뿔잔, 쇠칼에 인격을 부여함으로써, 그러한 물건을 벗으로 삼은 이이립의 역량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354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입신양명**: 출세하여 이름을 세상에 떨침.
- **경외감**: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감정.

정·정·이

② ㉠은 화자가 풍류를 즐기게 하는, ㉡은 화자의 근심을 잊게 하는 소재이다.

(가)에서 좌상에 손님이 있고 술통에 '술(㉠)'이 가득하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은 화자가 손님을 맞아 풍류를 즐기게 하는 소재이다. 한편 (나)에서 화자가 아내가 준 '술(㉡)'을 마시고 누우니 가슴속에 불평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겠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은 화자의 근심을 잊게 하는 소재이다.

오·오·이

① 범위 오류 ㉠은 화자에게 감흥을 자아내는, ㉡은 화자에게 불안감을 주는 소재이다.

(가)에서 '술(㉠)'은 화자가 풍류를 즐기기 위해 마시고자 하는 것이므로 화자에게 감흥을 자아낸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나)에서 '술(㉡)'은 화자가 근심을 잊기 위해 마시는 것이므로 화자에게 불안감을 준다고 볼 수 없다.

③ 헛짚기 ㉠은 화자의 입신양명에 대한 추구를 드러내는, ㉡은 화자의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가)의 화자는 입신양명에 대한 추구를 드러내고 있지 않으며, (나)의 화자는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④ 헛짚기 ㉠과 ㉡은 모두 화자가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소재이다.

(가)의 화자는 '술(㉠)'을 즐기고 있고, (나)의 화자는 '술(㉡)'을 통해 삶의 괴로움을 잠시 잊고 있다. 그러므로 ㉠, ㉡ 모두 경외감과는 관련이 없다.

⑤ 헛짚기 ㉠과 ㉡은 모두 화자가 소망을 성취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소재이다.

(가)의 '술(㉠)'과 (나)의 '술(㉡)'은 모두 화자의 소망 성취와는 관련이 없다.

355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화자 오류 '나'는 '이이립'의 이야기를 듣고, 벼슬에서 물러난 사람들이 나아갈 때를 가다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나'는 벼슬에서 물러난 이이립에게 세 벗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벗을 취하는 방법을 아는 이이립이 새로운 때를 만나 나라를 위해 그의 능력을 펼치기를 기대하고 있다. 벼슬에서 물러난 사람들이 나아갈 때를 기다리지 못함을 경계하고 있지는 않다.

오·오·이

① '나'는 '확대경'의 기능을 바탕으로 '이이립'이 밝은 덕을 밝혀서 지닐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확대경'은 불을 만드는 사물로, 한번 그 불을 얻어 꺼지지 않게 하면 그 빛이 비치지 않는 곳이 없으며, 이는 마음의 밝은 덕을 한번 밝혀 그치지 않게 하면 그것이 다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나'가 확대경을 벗으로 삼은 이이립이 밝은 덕을 밝혀서 지닐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나'는 벗을 취하는 법을 아는 '이이립'이 새로운 때를 만나 나라를 위해 능력을 펼치기를 기대하고 있다.

'나'는 확대경, 뿔잔, 쇠칼을 벗으로 삼은 이이립이 벗을 취하는 법을 안다고 이를 만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바야흐로 밝은 임금이 위에 있어 ~ 눈을 씻고 기다리겠노라.'라며 이이립이 새로운 때를 만나 나라를 위해 능력을 펼치기를 기대하고 있다.

④ '나'는 '뿔잔'의 생김새를 바탕으로 이를 벗 삼은 '이이립'이 모든 것을 포용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뿔잔'은 아래로 깊고 비어 있는 생김새로 모든 물건을 포용하는 아량을 품고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나'가 이이립이 이러한 뿔잔과 같이 모든 것을 포용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⑤ '나'는 '칼'의 특성을 바탕으로 관직에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공평함과 결단력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칼'은 예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정치가였던 진평과 여회의 고사를 통해 공평함과 결단력이라는 덕목을 상징함을 알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나'가 관직에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공평함과 결단력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356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시사**: 어떤 것을 미리 간접적으로 표현해 줌.

정·정·이

② 헛짚기 '쇠칼'은 이이립의 ~~뛰어난 무술 실력~~을 시사한다.

예리한 특성을 지닌 칼은, 이이립이 공평함과 결단력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에서 이이립의 무술 실력이 뛰어난지는 확인할 수 없다.

오·오·이

① '뿔잔'은 이이립의 넓은 아량을 시사한다.

355번-④의 해설을 참고할 때, 적절한 진술이다.

③ '확대경'은 이이립의 마음에 밝은 덕이 있음을 시사한다.

355번-①의 해설을 참고할 때, 적절한 진술이다.

357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화자 오류 화자는 '종고금슬'을 가지고 매일 즐겨야 백 년 후에도 ~~누군가가 그러한 모습을 따를 수 있다고 여긴다.~~

화자는 〈제6곡〉에서 '종고금슬'을 날로 즐겨 놀아야 한다며, '백 년 후'가 되면 '화옥'에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생전에 다 즐기지 못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화자가 백 년 후에도 누군가가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종고금슬'을 매일 즐겨야 한다고 한 것은 아니다.

오·오·이

① 화자는 '고조'를 아는 사람이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② 화자는 이제는 듣기 어려워진 '정성'을 다시 불러 보려 한다.

〈제1곡〉에서 화자는 '고조'를 아는 이가 전혀 없고(①), '정성'이 아득하여 듣기 어려워진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정성'을 다시 불러 보고자 함을 알 수 있다(②).

③ 화자는 '해학'을 긍정적으로 여기나 그것이 가혹해서는 안 된다고 여긴다.

〈제3곡〉에서 화자는 '해학을 좋아하나 가혹함이 되올소냐'라고 하면서, 해학을 긍정하되, 즐기는 것이 가혹하고 지나쳐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④ 화자는 놀고 즐기는 일이 거칠어지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어진 선비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제5곡〉에서 화자는 '즐김을 좋아하나 거칠음은 말지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근심하고 생각하는 '직사기우'가 어진 선비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358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사대부**: ① 사(士)와 대부(大夫)를 아울러 이르는 말. 문무 양반을 일반 평민층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다. ② 벼슬이나 문벌이 높은 집안의 사람.
- **겉치레**: 겉만 보기 좋게 꾸미어 드러냄.

정·정·이

⑤ 헛짚기 '종고금슬'로 날마다 즐겨 노는 것은 ~~'화옥'을 꿈꾸는 여리석은 행동이라며~~ 권계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군.

〈보기〉를 통해 (가)에는 현재를 즐기는 것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제6곡〉에서 화자는 '백 년 후'가 되면 '화옥'에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생전에 다 즐기지 못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화자는 '종고금슬'로 날마다 즐겨 노는 것을 통해 후회 없이 풍류를 즐길 것을 권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오·이

① '고조'를 아는 사람이 없고 '정성'이 아득하니 다시 불러 보겠다며 옳은 소리를 담은 노래가 사대부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군.

〈보기〉에서 작가는 당시 불리던 노래들이 사대부에게 적합하지 않으므로 옳은 소리를 담은 노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1곡〉의 '고조'와 '정성'은 옳은 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1곡〉에는 옳은 소리를 담은 노래가 사대부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② '해학'과 '즐김'을 좋아하지만 그것이 남을 괴롭히거나 거칠어서는 안 된다며 절제를 강조하는 낙이불음 사상을 드러내고 있군.

〈보기〉에서 (가)는 현재를 즐기되 그것이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낙이불음' 사상이 담겨 있다고 하였다. 〈제3곡〉과 〈제5곡〉에서는 '해학'과 '즐김'을 좋아하나 '가혹함'과 '거칠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낙이불음 사상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좌상'에 손님이 있다는 것과 '이 해'가 저물었으니 즐겁게 놀자는 것을 보아 자신을 찾아온 손님들과 현재를 즐기고자 하는군.

〈보기〉에서 (가)는 작가가 자신을 찾아온 손님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창작한 것으로, 모두 흥겹게 즐기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제4곡〉의 '좌상의 손이 있고'와 〈제5곡〉의 '이 해 저물었으니 아니 놀고 어찌하리'에서는 자신을 찾아온 손님들과 현재를 즐기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④ '외모'를 위하기보다 '중심'을 즐기라는 것을 보아 겉치레보다 마음속을 지키는 것이 사대부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하는군.

〈보기〉에서 (가)에는 중심을 지키는 것이 사대부의 바람직한 자세라는 교훈이 담겨 있다고 하였다. 〈제4곡〉의 '중심'을 즐길지니 '외모'를 위하지 말라고 한 구절은 이러한 교훈이 드러난 것으로, 겉치레보다 마음속을 지키는 것이 사대부의 바람직한 자세라는 화자의 생각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359 답 (1) 긍정적 (2) 경계 (3) 현재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상반 (가)의 화자는 '고조'와 '정성'을 (긍정적,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가)의 화자가 '고조'를 좋아하고 '정성'을 다시 불러 보려 하는 것에서 '고조'와 '정성'을 긍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교체 (가)의 화자는 '가혹함'과 '거칠음'을 (추구, 경계)하고 있다.

(가)의 〈제3곡〉 '해학을 좋아하나 가혹함이 되올소냐'와, 〈제5곡〉 '즐김을 좋아하나 거칠음은 말지어다'를 통해 화자가 '가혹함'과 '거칠음'을 경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교체 (가)의 화자는 (현재, 미래)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의 〈제6곡〉 '백 년 후 돌아보오 ~ 뉘우칠까 하노라'를 통해 화자가 현재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60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헛짚기 (나)에서 '늙은 종'이 재를 털어 '등불'을 밝히는 것은 ~~화자뿐만 아니라 늙은 종도 자연과 교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나)에서 '늙은 종'이 재를 털어 '등불'을 밝힌 것은 '늙은 종'과 자연의 교감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늙은 종이 재를 치워 등불을 밝힌 행위를 진술한 것이다.

오·오·이

① (나)에서 '시'를 읊자 '말'도 길게 운다고 한 것으로 보아 화자는 대상이 자신의 행동에 반응하고 있다고 느낀 것이겠군.

〈보기〉에서 대상을 인지하는 주체는 교감을 통해 대상이 자신의 행동에 반응한다고 느끼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나)에서 화자가 '시'를 읊조리자 '말'이 더욱 길게 운다고 한 것은 화자가 말이 자신의 시에 반응했다고 느낀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나)에서 '초승달'이 그림자를 만들고 '솔'도 소리를 낸다고 한 것은 화자가 자신을 둘러싼 자연과 교감을 하고 있다는 문학적 상상력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보기〉에서 주체와 교감하는 대상은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일 수도 있는데, 그 기저에는 모든 만물과 교감이 가능하다는 문학적 상상력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나)에서 화자가 시를 계속 읊조리자 '초승달'이 그림자를 만들고 '솔'도 절로 소리를 낸다고 한 것은, 화자가 자신을 둘러싼 자연과 교감을 하고 있다는 문학적 상상력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다)에서 '이이립'이 자신의 별호를 스스로 '서파삼우'라고 지은 것으로 보아, '이이립'은 사물에 보편적 속성 이상의 의미를 부여했겠군.

〈보기〉에서 대상을 인지하는 주체는 대상에 보편적 속성 이상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다)에서 '이이립'은 자신의 별호를 '서파삼우'라고 지었으므로 그가 사물을 벗으로 삼아 사물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음을 알 수 있다.

⑤ (다)에서 '나'가 '세 벗'의 의미를 '이이립' 대신 설명해 주는 것으로 보아, '나'는 '이이립'과의 교감을 통해 그가 사물로 벗을 삼은 이유를 알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

(다)에서 '나'가 '세 벗'의 의미를 '이이립' 대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나'가 '이이립'과의 교감을 통해 '이이립'의 마음을 헤아린 결과라고 볼 수 있다.

361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헛짚기 (다)의 이이립은 ~~청사에 아름다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만물과~~ 교감하고 싶어 하는군.

(다)에서 이이립은 확대경, 뿔잔, 쇠칼을 벗으로 삼아 교감하고 있다. '나'는 이러한 이이립이 벗을 취하는 법을 알고 있으므로, 때가 되면 관직에 올라 임금을 도와 청사에 아름다운 이름을 전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통해 볼 때, 이이립이 청사에 아름다운 이름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나'의 생각이므로, 이이립이 이러한 목적으로 만물과 교감하고 싶어 한다고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나)의 화자는 자신이 읊은 시가 다른 대상과 관계를 맺는 계기가 된다고 여기는군.

(나)에서 화자는 자신이 읊조린 시에 말이 울고, 초승달이 그림자를 만들고, 솔이 소리를 낸다고 여긴다. 이를 고려할 때 화자는 자신이 읊은 시가 다른 대상과 관계를 맺는 계기가 된다고 여긴다고 볼 수 있다.

③ (다)의 '나'는 진실로 벗할 덕이 있다면 사람과 물건 모두를 벗하여 교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군.

(다)의 '나'는 '진실로 벗할 덕이 있다면 사람과 물건을 모두 벗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45 가 사미인곡 나 방옹시여 다 옛집 정승 초당을 둘러보고 쓰다

작품 분석 본문 172~175쪽

가 사미인곡

작가 정철
갈래 가사
주제 이별한 임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연군지정
특징 ①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 임금에 대한 충정을 노래한 충신연주지사임.
② 계절의 배경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③ 상징적 시어를 활용하여 화자의 심리를 형상화함.
한 줄 의미
❶ 이별한 (**임**)에 대한 그리움
❷ (**매화**)를 꺾어 임에게 보내고자 함.

나 방옹시여

작가 신흠
갈래 연시조
주제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특징 ①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냄.
② '착각-진실'의 상황을 제시하여 주제 의식을 형상화함.
한 줄 의미
• 창밖의 소리에 (**임**)이 온 것으로 착각하였다가 (**낙엽**) 소리임을 확인한 후, 임을 간절히 그리워하는 마음

다 옛집 정승 초당을 둘러보고 쓰다

작가 유본학
갈래 고전 수필
주제 마음의 고요함을 추구하는 삶
특징 ① 집의 당호를 소재로 하여 내용을 전개함.
② 감각적 표현을 활용하여 옛집의 모습을 묘사함.
③ 옛 문헌의 글귀를 인용하여 글쓴이의 의견을 뒷받침함.
한 줄 요약
❶ 초당에서 '고요함이 더위를 이긴다'는 말을 (**당호**)로 걸고 살았음.
❷ 고요함에는 (**몸**)의 고요함과 (**마음**)의 고요함이 있음.
❸ 이사 후 다시 찾아간 (**옛집**)이 그대로 있음.
❹ 옛집에서 회상하는 추억과 옛집에 대한 (**그리움**)
❺ (**새집**)에서 옛집에서 지녔던 뜻을 추구하며 살고자 함.

362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가)의 '님이신가'와 (나)의 '님이신가'는 모두 임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을 독백적 어조로 드러낸 것이다.

(가)의 화자는 베개맡을 비추는 달을 보며 임을 떠올리고 있는데, '님이신가 아니신가'라는 독백을 통해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드러난다. 또한 (나)의 화자는 창밖에서 들리는 낙엽 소리를 임이 오는 소리로 착각하고 '님이신가'

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의 '님이신가'는 모두 임이 부재한 상황에서 임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을 독백적 어조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오·오·이

① 화자 오류 (가)의 '노여'와 (나)의 '다'라는 수식어는 모두 임에 대한 원망의 정서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가)의 '노여'는 '전혀'라는 의미로, 임에 대한 마음과 사랑이 지극하여 견줄 데가 전혀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나)의 '다'는 '모두'라는 의미로,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으로 인해 간장이 모두 끊어질 것 같은 심정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의 '노여'와 (나)의 '다'가 임에 대한 원망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화자 오류 (가)의 'ᄒᆞᄂᆞᆫ고야'와 (나)의 'ᄒᆞ노라'는 모두 화자의 의지를 단정적인 종결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가)의 'ᄒᆞᄂᆞᆫ고야'는 세월이 물 흐르듯 흘러가는 것에 대한 화자의 탄식을 드러내고 있으며, (나)의 'ᄒᆞ노라'는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단정적인 종결형으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범위 오류 (가)의 'ᄆᆡ화'와 (다)의 '혜란'은 모두 화자와 동일시되는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가)의 'ᄆᆡ화'는 화자가 임에게 보내고 싶어 하는 것으로, 임에 대한 화자의 변하지 않는 마음을 상징하는 소재이다. 또한 '님이 너를 보고 엇더타 너기실고'라고 한 것에서 'ᄆᆡ화'를 화자와 동일시하여 의인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나)에서 난초를 의미하는 '혜란'은 화자와 동일시되는 자연물이 아니며 의인화되지도 않았다.

④ 범위 오류 (가)의 'ᄆᆞᄉᆞ 일고'와 (다)의 'ᄆᆞᄉᆞ 일고'는 모두 뜻밖의 대상과 마주하게 된 반가움을 영탄적 어조로 표현한 것이다.

(가)의 'ᄆᆞᄉᆞ 일고'는 추운 날인데도 피어난 매화에 대한 화자의 감동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뜻밖에 매화를 마주하게 된 반가움을 영탄적 어조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나)의 'ᄆᆞᄉᆞ 일고'는 임이 온 줄 알고 기대했던 화자의 낙담이 드러난 것이므로, 반가움을 표현했다고 볼 수 없다.

363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분신**: 하나의 주체에서 갈라져 나온 것.

정·정·이

(1) (가)의 '그리ᄂᆞᆫ고'는 의문형 진술을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

(가)의 '그리ᄂᆞᆫ고'는 '그리워하는가'의 의미로, 의문형 진술을 통해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 헛짚기 (나)의 '혜란'은 화자의 분신으로, 대상에게 화자의 정서를 전달하는 매개물이다. (○, ×)

(나)의 '혜란'은 임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심화할 뿐, 화자의 분신이라고 할 수 없다.

(3) (다)는 '콸콸콸'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대상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 ×)

(다)의 글쓴이는 다시 찾아 마주한 옛집의 모습을 '콸콸콸'과 같은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364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유유자적**: 속세를 떠나 아무 속박 없이 조용하고 편안하게 삶.

정·정·이

③ (가)와 (다) 모두 자신이 있는 공간에서 그 공간에 부재하는 대상을 떠올리는 상황이 나타나 있다.

(가)의 화자는 광한전에서 홀로 하계로 내려온 상황에서, 함께 지내던 임을 그리워하고 있다. (다)의 글쓴이는 예전에 살았던 집을 찾아가 그곳에서 형제들과 함께 선친을 모시고 학문과 예술을 담론했던 때를 떠올리고 있다. 따라서 (가), (다) 모두 자신이 있는 공간에서 그 공간에 부재하는 대상을 떠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오·이

① 상반 (가)와 (다) 모두 변화하는 것의 가치를 예찬하는 태도가 나타나 있다.

(가)의 화자는 임과 헤어져 삼 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그리고 (다)의 글쓴이는 옛집에 찾아가 그곳에서 선친과 형제들과 함께 지냈던 추억을 떠올리며 아쉬워하고, 옛집의 당호를 새집에도 붙여 옛집에서 지녔던 뜻을 잃지 않고자 한다. 따라서 (가), (다)는 모두 변화하는 것의 가치를 예찬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변함없는 가치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② 화자 오류 (가)와 (다) 모두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삶에 대한 만족감이 나타나 있다.

(가)에서 화자는 임과 떨어져 지내면서 느끼는 외로움과 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을 뿐,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다)에

서 글쓴이는 임원에 새집을 짓고 마음의 고요함을 추구하며 살고자 하지만, 이는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삶에 대한 만족감과는 거리가 멀다.

④ 화자 오류 (가)에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순응적 태도~~가, (다)에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극복 의지~~가 나타나 있다.

(가)에서 인생의 유한함이 언급되기는 하나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순응적 태도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또한 (다)에서 인간사의 변화와 그로 인한 슬픔이 드러나기는 하나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극복 의지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⑤ 범위 오류 (가)에는 과거와 달라진 타인의 마음에 대한, ~~(다)에는 과거와 달라진 자신의 마음가짐에 대한~~ 아쉬움이 나타나 있다.

(가)의 '평ᄉᆡᆼ애 원ᄒᆞ요ᄃᆡ ᄒᆞᆫᄃᆡ 녜쟈 ᄒᆞ얏더니 / 늙거야 므ᄉᆞ 일로 외오 두고 그리ᄂᆞᆫ고'를 통해 볼 때, 화자는 임이 자신을 사랑하던 과거와 달리 현재 임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므로, 과거와 달라진 임의 마음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다)의 '그렇지만 인간사가 벌써 바뀌어, 사물에 닿을 때마다 슬픔만 더하므로 이 집에 다시 살고 싶지는 않다.'에서 글쓴이는 예전과 자신의 마음이 달라졌음을 밝히고는 있으나, 그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또한 옛집에 살던 때의 마음가짐을 떠올리며 그 뜻을 잊지 않으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과거와 달라진 자신의 마음가짐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365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상반 새집에 붙이고자 하는 당호의 의미를 통해 옛집에서 다시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다)의 글쓴이는 '인간사가 벌써 바뀌어, 사물에 닿을 때마다 슬픔만 더하므로 이 집에 다시 살고 싶지는 않다.'라고 하였다. 글쓴이가 새집에 옛집의 당호를 붙이고자 하는 것은, 옛집에서 지녔던 뜻을 잃지 않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오·오·이

① 여름에 더웠던 경험을 바탕으로 옛집 초당의 당호를 정하게 된 내력을 서술하고 있다.

글쓴이는 옛집 초당이 여름에 너무 더웠기 때문에 '고요함이 더위를 이긴다'는 말을 당호로 정해 위안을 삼았다고 하였다.

② 과거 인물의 행적에 비추어, 다시 찾은 옛집에서 떠올린 기억에 대한 감회를 드러내고 있다.

글쓴이는 옛집을 다시 찾아 이 집에 살던 시절은 집안이 번성하던 때였으며, 형제들이 선친과 함께 학문과 예술을 담론하고 옛일을 기록하는 등 즐겁게 보냈다며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을 잊을 수는 없건마는 다시 되찾을 수는 없다!'라며 감회를 드러내고 있다.

④ 변함없는 옛집의 외양과 달리, 변해 버린 인간사로 인해 새집을 지으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새 주인이 바뀐 지 여러 번이지만 집은 옛 모습 그대로였다.'에서 옛집의 외양이 변함없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렇지만 인간사가 벌써 바뀌어, 사물에 닿을 때마다 슬픔만 더하므로 ~ 마땅히 임원에 집터를 보아 집을 지어서'에서 변해 버린 인간사로 인해 새집을 지으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⑤ 집이 그릇과 같은 부류이지만 사람을 담고 있는 존재라는 점에 주목하여 옛집에 대한 그리움을 부각하고 있다.

'집 역시 그릇과 같이 무언가를 담는 부류이긴 하나 ~ 집은 그릇보다는 사람에 가깝다 하겠다. 그러니 어찌 그리워하지 않을 수 있으랴!'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366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헛짚기 옛집 초당의 당호를 '고요함이 더위를 이긴다'라고 지은 것은 그곳이 지어진 ~~위치의 장점과~~ 관련된다.

옛집 초당의 당호를 '고요함이 더위를 이긴다'라고 지은 것은 '초당이 동쪽으로 치우쳐 햇볕을 받았기에 여름이면 너무 더웠'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옛집 초당의 당호가 그곳이 지어진 위치의 장점과 관련된다고 볼 수는 없다.

오·오·이

① '유중영'은 책을 통해 자식들을 가르쳤다는 점에서 글쓴이의 선친과 공통점을 지녔다.

'선친께서 승명전에 봉직하실 때라, ~ 유중영의 옛일과 비슷하였다.'를 통해, 책을 통해 자식들을 가르쳤다는 점에서 유중영과 글쓴이의 선친이 공통점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③ 글쓴이가 새로 지을 집에 옛집의 당호를 걸어 두려는 이유는 마음의 고요를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이어 가기 위해서이다.

글쓴이는 옛집의 당호를 다시 새집에 걸어 두고 옛집에서 지녔던 뜻을 잊지 않으려 하는데, 옛집의 당호는 마음의 고요를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담고 있다. 따라서 적절한 진술이다.

367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나'는 고요한 곳에 마련한 공간에서도 마음의 고요함을 추구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다)의 마지막 문단에서 누군가가 임원이 이미 고요한데, 다시 '고요함이 이긴다'고 하는 것에 의문을 표한다면, '나'는 '고요한데 또 고요하니, 이것이야말로 고요함이라네.'라고 답하겠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나'는 고요한 임원에 마련한 공간에서도 마음의 고요함을 추구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오·오·이

① 화자 오류 '나'는 장흥방의 길갓집에 살던 시절에 더위를 피하기 위해 ~~집을 옮겼다.~~

'나'는 예전에 살던 집에서 더위를 느끼고 여기에 '고요함이 더위를 이긴다'라는 당호를 정하였다. 더위를 피하기 위해 집을 옮겼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② 상반 '나'는 즐거운 기억이 가득했던 옛집에서 ~~다시 살고자 하는 다짐을 하고 있다.~~

'나'가 옛집에서의 즐거운 기억을 떠올리고 있기는 하지만, 사물에 닿을 때마다 슬픔만 더하기에 예전 집에 다시 살고 싶지는 않다고 하였다.

③ 헛짚기 '나'는 이사한 후 다시 옛집을 찾아갔을 때 ~~그 외양이 변한 것을 보고 실망하였다.~~

'나'는 이사하고 삼 년 후에 옛집을 찾아가 보는데, 주인은 여러 번 바뀌었지만, 집의 모습은 예전 그대로라고 하였다.

⑤ 교체 '나'는 고요함으로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는 ~~모든 행동에 편안함~~ 마음의 고요함 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긴다.

모든 행동에 편안함을 취하는 것은 몸의 고요함을 추구하는 것이다. '나'는 '고요함이 이긴다'고 한 말이 마음의 고요함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368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헛짚기 '염냥'이 '가는 듯 고텨' 온다는 인식에서, 임과의 관계 단절에 따른 절망감으로 인해 지상의 물리적 시간이 ~~심리적으로 지연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어.

'염냥'이 '가는 듯 고텨' 온다는 것은 더위와 추위가 가자마자 곧 다시 돌아온다는 뜻이다. 이는 화자의 인생은 유한한데 임과 단절된 채 흐르는 지상의 물리적 시간이 빨리 흐르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지상의 물리적 시간이 심리적으로 지연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임과의 '연분'을 '하늘'과 연결 짓는 것은, 임과의 사랑이 천상의 시간 질서처럼 끝없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겠어.

〈보기〉에서 천상에서는 끝없는 사랑이 지속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임과의 '연분'을 '하늘'과 연결 짓는 것은 임과의 사랑이 천상의 시간 질서처럼 끝없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② '졈어 잇고'와 '늙거야'를 통해 화자가 천상의 시간에서 벗어나 지상의 시간으로 편입되었음을 알 수 있겠어.

'졈어 잇고'는 화자가 임과 함께 '광한뎐'에 올랐던 과거, 즉 천상의 시간에 해당한다. 그리고 '늙거야'는 화자가 임과 헤어져 '하계'에 온 현재, 즉 지상의 시간에 해당한다. 따라서 '졈어 잇고'와 '늙거야'를 통해 화자가 천상의 시간에서 벗어나 지상의 시간으로 편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삼 년' 전을 '엇그제'로 인식하는 것에서, 임과 함께한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어 지상의 물리적 시간이 심리적으로 압축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어.

〈보기〉에서 화자는 지상의 물리적 시간을 심리적으로 변형하여 자신의 심경을 드러낸다고 하였다. 화자가 임과 함께 광한전에 올랐던 때를 '엇그제'라고 한 것은 임과 함께했던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 있어 '삼 년'이라는 지상의 물리적 시간이 심리적으로 압축되어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인싱은 유흔'과 '무심흔 셰월'을 통해 지상의 시간적 질서에 따라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줄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엿볼 수 있겠어.

〈보기〉를 통해 천상과 다른 지상의 시간적 질서가 화자를 힘겹게 함을 알 수 있다. '인싱은 유흔'과 '무심흔 셰월'은 지상의 시간에 해당하는데, 여기에는 유한한 지상의 시간적 질서에 따른 화자의 불안함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369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에는 자신을 멀리하는 임금에 대한 작가의 정서가 드러난다.

㉢에서는 임과 이별하고 그리워하는 화자의 슬픔을 통해 자신을 멀리하는 임금에 대한 작가의 그리움과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① 교체 ㉠은 작가가 담양으로 ~~내려갔을 때의~~ 내려가기 전 경험을 드러낸다.

㉠의 '나 ᄒᆞ나 졈어 잇고 님 ᄒᆞ나 날 괴시'는 상황은 천상의 광한전에서 있던 일이므로 이는 작가가 담양으로 내려가기 전 임금과 함께했던 경험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교체 ㉡은 ~~작가가 떠나온 임금의~~ 화자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의 '비슨 머리 헛틀언'은 임이 아니라 임과 헤어진 화자의 외양을 묘사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상반 ㉣에 따라 작가는 임금을 ~~잊어 가고~~ 잊지 못하고 있다.
〈보기〉에서 작가는 한결같이 임금을 그리워함을 표현하였다고 하였다. (가)에서 화자는 '무심ᄒᆞᆫ 셰월(㉣)'이 흐르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⑤ 교체 ㉤은 임금이 담양에 있는 작가에게 보내고자 하는 것이다.
'창 밧긔 심근 ᄆᆡ화(㉤)'는 화자가 임에게 보내고자 하는 것이므로 임금에 대한 작가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70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헛짚기 (다)에서 '누군가'가 '고요함이 이긴다'는 당호를 '군더더기'로 본다는 것은 ~~외적 고요만으로는 삶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슬픔을 이겨 내기 어렵다고 여겼기 때문이겠군.~~
(다)에서 '누군가'가 '고요함이 이긴다'는 당호를 '군더더기'로 본다는 것은, 글쓴이가 집을 지으려고 하는 '임원'이 이미 소리나 움직임이 없이 잠잠한 상태인 외적 고요를 갖춘 곳이라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외적 고요만으로는 삶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슬픔을 이겨 내기 어렵다고 여겼다고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나)에서 '낙엽' 소리가 창 안에서도 들린다는 것은 화자가 외적 고요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겠군.
(나)에서 창밖의 아주 작은 '낙엽' 소리가 창 안에서도 들린다는 것은, 화자가 소리나 움직임이 없이 잠잠한 외적 고요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나)에서 '낙엽' 소리를 임이 오는 소리로 착각했다는 것은 화자의 심리가 내적 고요의 상태에 있지 못했기 때문이겠군.
(나)에서 '낙엽' 소리를 임이 오는 소리로 착각했다는 것은 화자가 임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화자가 마음이 평온한 상태인 내적 고요의 상태에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③ (다)에서 '사물에 닿을 때마다 슬픔만 더'한다는 것은 옛집을 돌아본 경험이 글쓴이로 하여금 내적 고요를 이루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겠군.
〈보기〉에서 (다)의 글쓴이는 고요함에 대한 통찰을 통해 자신이 처한 공간에서 내적 고요를 추구하려 하며, 이를 통해 삶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슬픔을 이겨 내는 동력을 얻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사물에 닿을 때마다 슬픔만 더' 한다고 한 것은 옛집을 찾아가 본 경험으로 인해 글쓴이가 내적 고요를 이루기 어려웠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④ (다)에서 '옛집'의 '초당'에 붙였던 당호를 '임원'의 새집에서도 사용하겠다는 것은 글쓴이가 외적 고요에 더해 내적 고요를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임원'은 이미 외적 고요를 갖춘 곳인데, 여기에 '고요함이 더위를 이긴다'는 당호를 더함으로써 내적 고요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정·오 지름길

⑤ (다)에서 '누군가'가 '고요함이 이긴다'는 당호를 '군더더기'로 본다는 것은 ~~외적 고요만으로는 삶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슬픔을 이겨 내기 어렵다~~고 여겼기 때문이겠군.
⑤에서는 '누군가'의 의견에 대해 진술하고 있어요. 그런데 '외적 고요만으로는 삶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슬픔을 이겨 내기 어렵다'는 것은 글쓴이의 생각에 가까워요. 이러한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가',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글쓴이의 생각이 잘 드러나는 수필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잘 출제되니 유의하세요.

371 답 (1) 내적 (2) 내적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상반 (나)에서 임을 그리워하며 괴로워하는 화자의 모습으로 보아 (외적, 내적) 고요가 달성되지 않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나)에서 낙엽 소리를 임이 오는 소리로 착각했다는 것은 화자가 간절하게 임을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마음이 평온한 내적 고요의 상태에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2) 상반 (다)의 옛집 초당의 당호가 '고요함이 더위를 이긴다'인 것은 (외적, 내적) 고요가 추구가 삶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슬픔을 이겨 내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보기〉에서 (다)의 글쓴이는 고요함에 대한 통찰을 통해 자신이 처한 공간에서 내적 고요를 추구하려 하며, 이를 통해 삶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슬픔을 이겨 내는 동력을 얻고 있다고 하였다. (다)에서 옛집 초당의 당호가 '고요함이 더위를 이긴다'인 것은, 초당이 동쪽에 치우쳐 여름에 너무 더웠던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내용으로 보아, 이것이 내적 고요의 추구가 삶의 불편을 이겨 내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46 가 매화사 나 면앙정가 다 홍덕보 묘지명

작품 분석 본문 176~179쪽

가 매화사

작가 안민영
갈래 연시조
주제 매화를 완상하며 매화의 우아하고 높은 절개를 예찬함.
특징 ① 매화를 의인화하여 화자의 정서와 감흥을 노래함.
② 매화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냄.
③ 감각적 심상을 통해 매화의 속성을 드러냄.

한 줄 의미

❶ 매화를 즐기는 (**백발옹**)의 풍류
❷ 매화의 아름다움과 (**절개**) 예찬
❸ (**추위**)를 이겨 내는 매화의 생명력 예찬

나 면앙정가

작가 송순
갈래 가사
주제 자연 속에서의 풍류와 군은에 대한 감사
특징 ①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 내용을 전개함.
② 비유법, 대구법 등의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함.

한 줄 의미

❶ 면앙정 주변의 (**봄**) 풍경
❷ 면앙정 주변의 (**여름**) 풍경
❸ 면앙정 주변의 (**가을**) 풍경
❹ 면앙정 주변의 (**겨울**) 풍경

다 홍덕보 묘지명

작가 박지원
갈래 고전 수필
주제 덕보 홍대용의 인물됨과 뛰어난 능력에 대한 예찬
특징 ① 홍대용의 묘지에 기록한 묘지명임.
② 일화를 통해 홍대용의 인물됨과 그의 능력을 부각함.

한 줄 요약

❶ 덕보의 인물됨과 탁월한 (**천문학**)적 식견을 예찬함.
❷ 뛰어난 능력을 지녔음에도 (**벼슬**)에 큰 뜻이 없었던 덕보
❸ 덕보가 (**북경**)에서 중국의 선비들을 만난 일화

372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흥취**: 흥과 취미를 아울러 이르는 말.

정·정·이

②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가 나타나 있다.
(가)에서 화자는 매화의 아름다움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나)의 화자는 면앙정 주변의 사계절의 아름다운 풍경을 노래하고 있다. (다)의 글쓴이는 덕보 홍대용이 지닌 뛰어난 능력과 인물됨을 예찬하고 있다. 즉, (가)~(다) 모두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가 나타난다.

오·오·이

① 범위 오류 자연 친화 의식이 드러나 있다.
(가)에는 (가), (다)는 매화에 대한 친화적, 예찬적 의식이 드러나고, (나)에는 면앙정 주변의 사계절에 따른 자연 경관에 대한 예찬과 함께 자연을 즐기는 흥취가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 (다)에는 자연 친화적 의식이 나타나지 않는다.

③ 화자 오류 ~~이상 세계에 대한 동경을 표현하고 있다.~~
(가)~(다) 모두 이상 세계에 대한 동경이 드러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④ 부재 ~~사물에 의탁하여 삶에서 얻은 흥취를 드러내고 있다.~~
(가)는 매화를 즐기는 흥취를, (나)는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 경관에서 느끼는 흥취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사물에 의탁하여 삶에서 얻은 흥취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는 덕보에 대해 예찬하고 있을 뿐, 사물에 의탁하여 삶에서 얻은 흥취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화자 오류 ~~자신의 의지와 상반된 상황에 대한 아쉬움이 나타나 있다.~~
(가), (나) 모두 화자의 의지와 상반된 상황과 그에 대한 아쉬움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에는 덕보가 북경에 갔을 때 만난 육비, 엄성, 반정균과 같은 선비들과 헤어짐을 아쉬워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지만, 이를 글쓴이의 의지와 상반된 상황에 대한 아쉬움으로 볼 수는 없다.

373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부재 (나)는 ~~대장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취하여~~ 친근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
(나)에서는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 사용되지 않았다.

(2) (다)는 구체적인 일화를 통해 인물의 능력과 인물됨을 보여 주고 있다. ((○), ×)
(다)에서는 덕보가 숙부를 수행하여 북경에 갔을 때 중국의 선비들과 만났던 일화를 소개하면서 그의 뛰어난 능력과 인물을 보여 주고 있다.

(3) (가), (나)는 모두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
(가)에서는 '매화'를 '너'라고 의인화함으로써 매화에서 고결한 품성과 절개를 발견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나)에서는 '산람'이 '아양'을 떤다거나 '황앵'이 '교태

겨워'한다고 의인화함으로써 자연 속에서 느끼는 화자의 흥취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374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구슬픈**: 처량하고 슬픈.
- **조망**: 먼 곳을 바라봄. 또는 그런 경치.

정·정·이

④ 범위 오류 (가)는 ~~서러운 정서를 강조하기 위해 구슬픈 배경 음악을~~, (나)는 아름다운 풍경을 부각하기 위해 은은한 배경 음악을 사용해야겠어요.

(나)는 계절에 따라 다채롭게 드러나는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하고 있으므로 은은한 배경 음악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한 계획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가)는 추운 계절에도 능히 꽃을 피우는 매화의 절개를 예찬하고 있으므로 서러운 정서나 구슬픈 배경 음악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오·오·이

① (가)는 늦겨울이나 초봄을, (나)는 사계절을 계절적 배경으로 설정하여 촬영해야겠어요.

(가)는 '백설 양춘(흰 눈이 날리는 음력 정월)'을 통해 늦겨울이나 초봄을 계절적 배경으로 촬영해야 함을 알 수 있고, (나)는 사계절에 따라 변하는 면앙정의 경치를 보여 주어야 하므로 사계절의 흐름에 따라 촬영하는 것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② (가)는 한옥의 뜰을, (나)는 주변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곳을 공간적 배경으로 설정하여 촬영해야겠어요.

(가)는 '매영이 부딪힌 창'과 '동각'을 통해 한옥의 뜰을 배경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나)는 '남여'를 재촉해 타고 가 다채로운 풍경을 맞이하는 상황이 드러나므로, 주변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곳을 공간적 배경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③ (가)는 주로 밤을 시간적 배경으로, (나)는 낮부터 해가 져서 밤이 될 때까지를 시간적 배경으로 설정해야겠어요.

(가)는 〈제1수〉의 '달이 또한 오르더라'를 통해 밤을 시간적 배경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나)에서는 '푸르락 붉으락 옅으락 짙으락'하는 변화를 알 수 있는 낮에서부터 '사양'에서 '달'이 뜨는 밤까지를 시간적 배경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⑤ (가)는 단아하고 우아한 분위기와 어울리는 소품들을 준비하여 촬영하고, (나)는 다채로운 자연의 모습이 잘 드러나는 풍경들을 담아 촬영해야겠어요.

(가)는 매화의 아름다운 모습과 그윽한 향으로 인해 느껴지는 운치에 대한 예찬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단아하고 우아한 분위기와 어울리는 소품을 사용하여 촬영하는 것은 적절한 계획이다. (나)는 사계절의 변화에 따른 자연의 경치를 실감 나게 묘사하고 있으므로, 다채로운 자연의 모습이 잘 드러나는 풍경들을 담아 촬영하는 것은 적절한 계획이다.

375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완상**: 즐겨 구경함.

정·정·이

② 헛짚기 '황혼월'은 ~~매화의 비유적 표현이다.~~

'황혼월'은 '저녁에 뜨는 달'을 의미하는 시어로, 매화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다.

오·오·이

① '백발옹'은 매화를 완상하는 주체이다.

'백발옹'은 매화를 완상하고 있는 화자 자신을 지칭하는 시어이다.

③ '아치 고절'은 매화에 부여된 관념적 속성이다.

'아치 고절'은 아담하고 격에 맞는 멋과 홀로 깨끗하게 지키는 절개로서, 매화의 우아함과 절개라는 관념적 속성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④ '두견화'는 매화와 대조되는 존재이다.

'두견화'는 매화와 달리 겨울의 모진 추위를 이기지 못하여 숨어 있는 꽃으로, 매화와 대조되는 존재라 할 수 있다.

⑤ '눈'은 매화의 생명력을 부각시키는 소재이다.

'눈'은 꽃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을 의미한다. 따라서 매화가 추운 날씨와 '눈'을 이겨 내고 피어난 것은 매화의 생명력을 부각시킨다.

376 답 (1) 백발옹 (2) 눈 (3) 절개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화자는 매화를 감상하는 자신을 '(백발옹)'(으)로 지칭하고 있다.

375번-①의 해설을 참고할 때, 화자는 스스로를 '백발옹'

으로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교체 '(눈)'은/는 매화가 이겨 내야 하는 시련을 상징한다.

'눈'은 꽃이 피어나기 어려운 환경이므로, 매화가 이겨 내야 하는 시련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3) 교체 화자는 '매화'에 우아함과 (절개)(이)라는 상징적 속성을 부여하여 그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다.

375번-③의 해설을 참고할 때, 화자는 '매화'에 우아함과 절개라는 상징적 속성을 부여하여 그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77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헛짚기 '된서리 빠진 후'의 '산빛'이 '금수'라는 것에서 풍경의 변화에 따른 적막감이 드러나고 있다.

'된서리 빠진 후'의 '산빛'을 '금수'로 표현한 것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 아름답게 바뀐 가을 산의 풍경을 표현한 것일 뿐, 적막감과는 관련이 없다.

오·오·이

① '녹양에 우는 황앵'은 자연의 흥취를 즐기는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소재이다.

화자는 자연 속에서 흥겨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녹양에 우는 황앵'에 투영하여 드러내고 있다.

② '백 척 난간'에서 내어 펴는 '긴 조으름'은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화자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화자가 '백 척 난간'에서 '긴 조으름'을 펴고 있다는 것은, 자연 속에서 풍경을 즐기며 한가롭게 지내고 있음을 드러낸다.

④ '달'을 따라 부는 '어적'은 시각적·청각적 이미지를 조화시키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달'은 시각적 이미지, '어적'은 청각적 이미지로서, '어적도 흥에 겨워 달을 따라 부는구나'는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를 조화시켜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표현이다.

⑤ '간 데마다 경이로다'는 눈 덮인 면앙정 주변의 풍경을 바라보던 화자의 감회를 집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화자가 '간 데마다 경이'롭다고 한 이유는 '경궁요대'와 '옥해 은산'으로 표현된 눈 덮인 풍경이 화자의 눈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 데마다 경이로다'는 눈 덮인 면앙정 주변의 풍경을 바라보던 화자의 감회가 집약적으로 제시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378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은 풍류를 즐기기 위한, ㉡은 마음을 수양하기 위한 방법이다.

㉠의 거문고 연주는 노래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으로 화자가 매화를 완상하며 풍류를 즐기는 방법이다. ㉡의 거문고 연주는 뒤에 이어지는 '자중자애하면서 세속을 벗어나 마음을 닦고 있구나.'를 통해 마음을 수양하기 위한 방법임을 알 수 있다.

오·오·이

① 범위 오류 ㉠과 ㉡은 자연으로부터 받은 감흥을 표현하고 있다.

㉠에서의 거문고 연주는 창에 비친 매화의 그림자를 보며 그 감흥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의 거문고 연주는 자연으로부터 받은 감흥과는 관련이 없다.

② 범위 오류 ㉠과 ㉡은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덕보가 과거를 단념한 채 명리를 생각지 않고 세속을 벗어나 거문고를 연주하며 마음을 닦는다는 점에서 ㉡의 거문고 연주는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의 거문고 연주는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심정과 관련이 없다.

③ 헛짚기 ㉠은 자신을 위해, ㉡은 타인을 위해 연주하고 있다.

㉠의 거문고 연주는 두세 명의 백발옹이 함께한다는 점에서 자신과 타인 모두를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의 거문고 연주는 덕보가 조용히 집에서 홀로 즐기는 것이므로 자신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범위 오류 ㉠은 주변 사람과 어울리기 위한, ㉡은 재능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다.

㉠의 거문고 연주는 두세 명의 백발옹이 함께 어울려서 즐기고 있으므로 주변 사람과 어울리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의 거문고 연주는 덕보가 조용히 집에서 홀로 즐기는 것이므로 재능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379 답 (1) 풍류적 (2) 감흥 (3) 속세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감읍**: 감격하여 목메어 울.

정·정·이

(1) 교체 (가)의 거문고 연주는 매화의 아름다움을 완상하는 자리의 (풍

자적, (풍류적) 분위기를 뒷받침하는 소재이다.

(가)의 거문고 연주는 노래와 함께 이루어지면서 매화를 완상하는 자리의 풍류적 분위기를 뒷받침한다.

(2) 교체 (나)에서 어부가 부는 피리 소리는 면앙정 주변의 가을 경치에서 비롯된 ((감흥) 감읍)과 관련된 소재이다.

(나)에서 '어적'은 '흥에 겨워 달을 따라 부는구나'라고 하였으므로, 면앙정 주변의 가을 경치에서 비롯된 감흥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3) 상반 (다)의 거문고 연주는 ((속세) 자연)에서 벗어나 조용히 마음을 닦는 수양의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다.

(다)에서 덕보는 '일찍부터 과거를 단념한 채 명리를 생각지 않고 조용히 집에 들어앉아' 거문고 연주를 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거문고 연주는 속세를 벗어나 마음을 수양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

380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는 자연의 혹독함을 드러내고, ⓑ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가)의 '건곤(ⓐ)'은 눈이 내려 '척촉', '두견화' 등 다른 꽃이 피지 못하는 혹독한 자연 환경을 나타내고, (나)의 '건곤(ⓑ)'은 간 데마다 경이로운 풍경이 펼쳐지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오·오·이

① 헛짚기 ⓐ와 ⓑ는 ~~모두 화자가 스스로를 성찰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가)의 화자와 (나)의 화자는 모두 스스로를 성찰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가)의 '건곤(ⓐ)'과 (나)의 '건곤(ⓑ)' 모두 화자가 스스로를 성찰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고 볼 수 없다.

② 헛짚기 ⓐ는 ⓑ와 ~~달리 화자가 가기를 소망하는 공간~~이다.

(가)의 '건곤(ⓐ)'은 눈이 내리는 온 세상이고, (나)의 '건곤(ⓑ)'은 화자가 현재 경치를 감상하고 있는 공간으로, 모두 화자가 가기를 소망하는 공간이라 할 수 없다.

③ 헛짚기 ⓑ는 ⓐ와 ~~달리 대상이 절망감을 느끼고 좌절하게 되는 환경~~이다.

(나)의 '건곤(ⓑ)'은 화자가 경치를 감상하는 공간으로 대상이 절망감을 느끼고 좌절하게 되는 환경이라 할 수 없다. 한편 (가)에서 매화는 '건곤(ⓐ)'에 '눈'이 가득한 혹독한 상황에서 피어나고 있으므로, 절망감을 느끼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이겨 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범위 오류 ⓐ는 화자가 대상을 관찰하는 공간이고, ⓑ는 화자가 ~~대상을 찾고 있는 공간이다.~~

(가)의 '건곤(ⓐ)'은 화자가 꽃을 관찰하는 공간으로 볼 수도 있으나, (나)의 화자는 '건곤(ⓑ)'에서 특정한 대상을 찾고 있지 않다.

381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헛짚기 '덕보'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바뀐 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글쓴이는 (다)를 통해 덕보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고 있을 뿐, 덕보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바뀐 계기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오·이

① '덕보'가 취한 평소의 생활 자세를 그리고 있다.

덕보는 뛰어난 능력을 지녔으나 '자신의 재주가 남에게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며, 덕보의 평소 생활 자세를 그리고 있다.

② 특정 대상과 비교하여 '덕보'의 능력을 부각하고 있다.

서양인과 비교하여 덕보가 일찍이 지구가 회전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점을, 문장과 예술에 능한 선비인 '육비, 엄성, 반정균'과 같은 중국의 학자들과 비교하여 덕보의 웅대하고 걸출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③ 감탄적인 어조로써 '덕보'에 대한 감회를 표출하고 있다.

'아아! 덕보는 만사에 통달하고 명민하며, 겸손하고 고아하며, 식견이 심원하고 아는 것이 정밀하였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예를 들어서 '덕보'의 인물됨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과거를 단념한 채 집에서 지내는 모습, 한두 고을의 수령을 지낼 때의 일, 북경에 방문하여 선비들을 만난 일화 등 여러 예를 제시하여 덕보의 인물됨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382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덕보'의 인물됨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

'덕보는 만사에 통달하고 명민하며, 겸손하고 고아하며, 식견이 심원하고 아는 것이 정밀하였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헛짚기 '덕보'의 여러 업적 중에서도 ~~과학적 업적에만 집중하여 소개~~하고 있다. (○, ⊗)

'특히, 율력에 정통하여 ~ 만년에 이르러 지구가 회전한다는 사실을 더욱 자신하였다.'와 같이 과학적 업적을 소개하고 있으나, 수령을 지낼 때의 일, 중국 선비들과의 일화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과학적 업적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다.

(3) 헛짚기 ~~뛰어난 재주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아 괴로워하는 '덕보'를 위로하고~~ 있다. (○, ⊗)

'덕보는 자신의 재주가 남에게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므로 덕보가 자신의 뛰어난 재주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아 괴로워했다고 할 수 없다. 또 글쓴이가 덕보를 위로하고 있지도 않다.

383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헛짚기 '덕보'가 자신의 주장을 책으로 정리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1문단에서 '덕보'가 지구가 회전한다는 주장에 관한 책을 쓰지 못했다고 하였을 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오·오·이

① '덕보'가 식견이 뛰어남을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덕보'의 '식견이 심원하고 아는 것이 정밀'하다고 언급한 후에, 혼천의 등 여러 기구들을 제작하였다며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② '덕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문단에서 '덕보가 담박하게 자중자애하면서 세속을 벗어나 마음을 닦고 있구나.' 하고 생각할 뿐이었다며, 덕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④ '덕보'가 자신의 능력에 대해 가진 인식을 통해 '덕보'의 인물됨을 보여 주고 있다.

2문단에서 '덕보'가 자신의 재주가 남에게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고, 고을의 수령을 지낼 때에도 '관아의 장부를 잘 정리하고 ~ 백성들을 잘 따르게' 했다는 설명을 통해 덕보의 인물됨을 보여 주고 있다.

⑤ '덕보'와 중국 학자들이 교류한 일화를 제시함으로써 덕보의 능력을 보여 주고 있다.

마지막 문단에서 '덕보'가 문장과 예술에 능한 중국의 선비들과 필담을 나누었고, 그들이 '덕보'를 큰선비로 떠받들었다는 내용을 통해 덕보의 능력을 보여 주고 있다.

47 가 산중잡곡 나 영삼별곡 다 침류대기

작품 분석 본문 180~183쪽

가 산중잡곡

작가 김득연
갈래 연시조
주제 자연 속에서 안분지족하는 삶의 흥취
특징 ① 대구법을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함.
② 영탄법, 의인법 등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함.
③ 스스로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시적 의미를 강조함.

한 줄 의미

❶ (**자연**) 속에서 즐기는 유유자적한 삶
❷ 소박한 음식에 만족하는 (**안분지족**)의 삶
❸ 자연 속에서 (**근심**)을 잊고 살고자 함.
❹ 자연 속에서 사는 것에 대한 (**만족감**)과 자부심

나 영삼별곡

작가 권섭
갈래 가사
주제 여행의 흥취와 자연의 아름다움
특징 ①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② 과장법을 사용하여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함.
③ 설의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함.

한 줄 의미

❶ 여행 중에 불안하게 (**밤**)을 새움.
❷ 아름답고 높은 (**산**)의 풍경에 대한 감상
❸ (**망망대양**)의 웅장한 모습에 대한 감상

다 침류대기

작가 이수광
갈래 고전 수필, 기
주제 침류대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서 느끼는 흥취
특징 ① 대화의 방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냄.
② 감각적인 묘사를 통해 대상의 아름다움을 나타냄.

한 줄 요약

❶ 유희경이 '나'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함.
❷ 침류대에서 (**자연**)을 즐기며 느끼는 흥취

384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화자 오류 '아이야 술 가득 부어라'는 ~~풍류적 지향과 정신적 수양 사이의 고뇌~~를 나타낸 것이다.

〈제10수〉 종장의 '아이야 술 가득 부어라'에는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며 '낙이망우', 즉 도를 즐겨 근심을 잊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다. 이로 보아 화자는 자연에서의 삶에 만족하고 있을 뿐, 풍류적 지향과 정신적 수양 사

이에서 고뇌하고 있지는 않다.

오·오·이

① '풍월'과 '연하'는 화자가 느끼는 한가함의 정서와 조응이 되는 대상을 나타낸 것이다.

〈제3수〉를 보면 화자는 '풍월'과 '연하'가 '좌우로 오는' 사이, 즉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며 한가하게 앉아 있다. 따라서 '풍월'과 '연하'는 화자가 느끼는 한가함의 정서와 조응된다고 볼 수 있다.

② '이 사이'와 '산중'은 화자가 현재 자연을 즐기는 공간을 나타낸 것이다.

〈제3수〉에서 '이 사이'는 '풍월'과 '연하'로 둘러싸여 화자가 자연을 즐기는 공간이다. 〈제10수〉의 '산중'은 '늙어 해 올 일 없어' 돌아온 화자를 '송국 원학'이 반겨 주는 곳으로, 화자가 술을 마시며 자연을 즐기는 공간이다.

③ '늙는 줄을 모르리라'는 자연과 조화를 이룬 화자의 심정을 나타낸 것이다.

〈제3수〉에서 '늙는 줄을 모르리라'는 한가하게 앉아 자연을 즐기는 사이에 화자가 자연에 완전히 동화되어 시간을 초월한 경지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④ '기장밥 익게 짓고 산채갱 므로 삶아'는 소박한 삶을 살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제5수〉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는 '기장밥 익게 짓고 산채갱 므로 삶아'서 아침저녁으로 먹는 소박한 삶을 살고 있다.

385 답 ㄱ, ㄴ, ㄹ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안분지족**: 편안한 마음으로 제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을 앎.
- **안빈낙도**: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겨 지킴.

정·정·이

ㄱ. 화자는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살아가고 있다.

(가)의 화자는 '산중'에 머물며 '술'을 즐기며 한가하고 여유롭게 살아가고 있다.

ㄴ. 화자는 현재 자신이 머무는 곳을 이상적인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제14수〉에서 화자는 '이 몸이 또 어떠하뇨 무릉인인가 하노라'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화자는 자신이 머무는 자연을 이상적인 공간, 즉 '무릉'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ㄹ. 화자는 안분지족(安分知足)과 안빈낙도(安貧樂道)의 태도를 지니고 있다.

〈제5수〉에서 소박한 식사에 만족하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다.

오·오·이

ㄷ. 화자 오류 화자는 속세를 멀리하고 살아가면서도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

화자가 속세를 멀리하고 자연 속에 은거하며 지내고 있기는 하지만,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386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유래**: 사물이나 일이 생겨남. 또는 그 사물이나 일이 생겨난 바.

정·정·이

④ 헛짚기 ㉣: ~~은밀하게 혼자서만 경치를 즐기려는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의 앞부분에서 유희경이 글쓴이에게 자신의 누대를 방문할 것을 청하는 내용으로 볼 때, 글쓴이가 유희경을 은밀하게 자기 혼자서만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은 침류대 주변의 경치에 감탄한 글쓴이가 유신의 일을 언급하며 아름다운 경치 속에서 생활하는 유희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 소박한 생활상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집 뒤에서 자차리를 뜯고 문 앞에서 샘물을 길어 직접 밥을 짓는 모습은 화자의 소박한 생활상을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② ㉡: 냇물에 젖은 옷을 말리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의 앞에서 '앞내에 빠진 옷을 쥡싸서 손에 쥐고'라고 하였으므로, ㉡은 냇물에 젖은 옷을 말리는 모습을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 누대가 놓인 곳의 모습을 살펴보고 누대 이름의 유래를 추측하고 있다.

㉢의 앞에서 '흐르는 물이 맑고 찬데 ~ 누대의 섬돌은 흐르는 물 위로 한 자 남짓 높게 쌓여 있었다.'에서 알 수 있듯이 글쓴이는 누대가 놓인 곳의 모습을 살펴보고 ㉢과 같이 '침류대'라는 누대 이름의 유래를 추측하고 있다.

⑤ ㉤: 아름다운 경치에 몰입하여 느끼게 된 흥취를 표현하고 있다.

글쓴이는 물가에 자리를 펴고 앉아 졸졸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깨끗해진 느낌을 받고 ㉤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은 아름다운 경치에 몰입하여 느낀 흥취를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87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부재 (가)와 (나)는 모두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통해 대상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가)는 묻고 답하는 방식을 통해 시적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가)의 〈제14수〉 종장에서는 '이 몸이 또 어떠하뇨'라고 묻고, '무릉인인가 하노라'라고 답하며 자연 속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② (나)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나)에서는 '외딴 마을(봉당)', '앞내', '뫼' 등으로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③ (나)는 과장적 표현을 통해 주관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하늘에 돋은 별을 저기면 만질노다', '대지 산악을 일야의 흔드는 듯'과 같은 과장적 표현을 통해 자연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④ (가)와 (나)는 모두 음보율을 사용하여 운율감을 드러내고 있다.

(가)는 '솔 아래 ∨ 길을 내고 ∨ 못 위에 ∨ 대를 싸니'와 같이 4음보의 율격을 사용하고 있다. (나) 또한 '별이실 ∨ 외딴 마을 ∨ 해는 어이 ∨ 쉬 넘거니'와 같이 4음보의 율격을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388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범위 오류 (가), ~~(나)~~는 모두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사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고조하고 있다. (○, ⊗)

(가)의 '송국'에서는 '국화'라는 가을의 계절감을 환기하는 시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나)에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2) (나), (다)는 모두 의문형 진술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

(나)는 '촉도난이 이렇던가' 등에서, (다)는 '이름을 붙인 것일까?' 등에서 의문형 진술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3) (나), (다)는 모두 공간의 이동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

(나)는 '외딴 마을(봉당)', '앞내', '뫼' 등으로 공간의 이동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고 있고, (다)는 금천교에서 침류대로 공간의 이동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389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가)는 (나)와 달리 특정한 종결 어미를 반복하여 화자의 삶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가)에서는 '-노라'와 '-리라'의 반복을 통해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지내고자 하는 화자의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나)에서는 특정한 종결 어미의 반복이 드러나지 않는다.

오·오·이

① 부재 (가)와 (나)는 모두 ~~대장과의 문답을 통해 화자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가)의 〈제14수〉에 화자 스스로 묻고 답하는 부분은 있으나, (가), (나) 모두 대상과 문답을 주고받는 방식을 통해 화자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② 부재 (가)와 (나)는 모두 ~~색채어의 대비를 통해~~ 주변 풍경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가), (나) 모두 색채어의 대비는 드러나지 않는다.

③ 교체 (가)는 (나)와 달리 청각적 심상으로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나)는 '새끼 곰 큰 호랑이 목 갈아 우는 소리'에서 청각적 심상을 이용해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가)는 청각적 심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⑤ 교체 (나)는 (가)와 달리 대상을 의인화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가)는 '송국 원학이 다 나를 반기나다'에서 대상을 의인화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나)에서는 대상을 의인화하여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390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화자 오류 [B]는 일상적 생활 공간에서 벗어난 사람이 ~~무릉도원보다 더 은 새로운 이상향을 찾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부각하고 있군.~~

[B]에서 화자는 일상적 생활 공간을 벗어나 여행을 하다가

보게 된 풍경에서 무릉도원을 연상하고 있을 뿐, 무릉도원보다 나은 새로운 이상향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지는 않다.

오·오·이

① [A]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관련지어 자신이 무릉도원에 산다는 사람들과 유사하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군.

[A]에서 화자는 골짜기 안에 가득한 붉은 노을의 아름다움을 이상향의 이미지와 관련지어 자신을 '무릉인(무릉도원에 산다는 사람)'에 빗대고 있다.

③ [B]와 [C]는 모두 「도화원기」에 언급된 이상향에 모여 사는 사람들의 내용과 연결하여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군.

[B]의 '진 때의 숨은 백성 ~ 낫단 말 못하려니'와 [C]의 '만리장성의 노역을 ~ 그 진나라 사람도 만나 보겠군.'은 모두 「도화원기」에 언급된 이상향인 무릉도원에 모여 사는 사람들의 내용과 연결하여 자신의 생각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C]와 [D]는 모두 「도화원기」와 관련된 자연물이 있는 시냇물의 광경을 통해 무릉도원을 연상하고 있군.

[C]와 [D]는 모두 「도화원기」와 관련된 자연물, 즉 복숭아꽃이 시냇물에 떠내려가는 광경을 통해 무릉도원을 연상하고 있다.

⑤ [B]는 여행지에서 체험한 풍경을, [D]는 특정 인물의 생활 공간인 누대 주변의 풍경을 무릉도원과 비교하고 있군.

[B]에서는 '도원이 여기보다 낫단 말 못하려니'라며 여행지에서 목격한 '뫼'의 풍경을 무릉도원과 비교하고 있다. [D]에서는 '무릉도원이라는 곳도 여기보다 낫지는 않을 듯하다'라며 유희경의 생활 공간인 침류대 주변 풍경을 무릉도원과 비교하고 있다.

391

답 (1) 산중 (2) 여행에서 접한 공간 (3) 자연물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건조물**: 지어 세운 가옥, 창고, 건물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사람이 살거나 주생활에 크게 이용하는 주거용을 주로 이른다.

정·정·이

(1) 교체 (가)의 화자는 자신이 머물고 있는 '(산중, 도원)'을 이상향으로 인식하고 있다.

(가)의 '도원이 있다 하여도 예 듣고 못 봤더니 ~ 이 진짓 거기로다'를 통해 화자가 자신이 머물고 있는 '산중'을 이상향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교체 (나)의 화자는 (일상적 생활 공간, 여행에서 접한 공간)에서 무릉도원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

(나)의 화자는 일상적 생활 공간을 벗어나 여행을 하다가 체험한 풍경에서 무릉도원을 연상하고 있다.

(3) 교체 (다)의 글쓴이는 중국의 「도화원기」에 언급된 (자연물, 건조물)을 목격한 것을 계기로 무릉도원을 연상하고 있다.

(다)의 글쓴이는 시냇물에 복숭아꽃이 떠내려오는 광경을 보고 무릉도원을 연상하고 있으므로, 중국의 「도화원기」에서 언급된 자연물을 목격한 것을 계기로 무릉도원을 연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92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밤중에 짐승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불안감을 느꼈군.

(나)의 화자는 외딴 마을에서 '새끼 곰 큰 호랑이 목 갈아 우는 소리'를 듣고 '칼 빼어 곁에 놓고' 밤을 겨우 새웠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오·오·이

② 상반 걸어가는 길이 ~~평탄해서~~ 먼 산을 바라보며 즐거워했군.

(나)에서 화자는 '천변의 가려진 뫼'를 바라보며 '위태코 높은 고개 촉도난이 이렇던가'라고 표현하였으므로, 산세가 험하고 걷기 쉽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걸어가는 길이 평탄했다고 볼 수 없다.

③ 상반 ~~인가에 머무르지 못해 야외에서 잠자리를 찾으며 탄식했군.~~

화자는 외딴 마을 인가의 '봉당'에 잠자리를 마련하였다. 그러므로 인가에 머무르지 못해 야외에서 잠자리를 찾으며 탄식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화자 오류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부재하는 임에 대한 그리움을 느꼈군.~~

'하늘에 돋은 별을 저기면 만질노다'라고 한 것은 저기면 하늘에 돋은 별도 만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의미로, '천변의 가려진 뫼'가 높다는 것을 과장되게 표현한 것이다. 부재하는 임에 대한 그리움은 찾아볼 수 없다.

⑤ 헛짚기 높은 산들로 ~~지야가 차단되어 바다를 보지 못하게 되자 아쉬워했군.~~

화자는 고개에 올라 '망망대양', 즉 끝없이 넓은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393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외딴 마을의 인가의 ~~따뜻한 방~~(봉당)에서 밤을 보내면서 곰과 호랑이의 울음소리에 불안해하고 있다. (○, ⊗)

(나)의 화자가 곰과 호랑이 울음소리에 불안해하며 밤을 새운 것은 맞지만, 흙바닥인 '봉당'에 자리를 보았다고 하였으므로 화자가 인가의 따뜻한 방에서 밤을 보냈다고 볼 수는 없다.

(2) 대관령 고개가 높아 가는 길이 험하다고 느끼고 있다. (◎, ×)

대관령 고개를 보고 '촉도난이 이렇던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 대관령 고개가 높아 가는 길이 험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넓디넓은 바다를 보며 그 무한함에 감탄하고 있다. (◎, ×)

'망망대양이 그 앞에 둘러 있어 ~ 만고에 한결같이 영축이 있었던가'를 통해 알 수 있다.

394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화자 오류 (나)의 화자는 대관령의 모습을 보며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고 있군.~~

(나)의 화자가 대관령을 보고 '촉도난이 이렇던가'라고 한 것은 길이 험하기로 유명한 촉나라로 가는 길이 이럴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지,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오·이

① (나)의 화자는 망망대양을 보며 그 웅장함에 감탄하고 있군.

(나)의 화자는 망망대양을 보며 '대지 산악을 ~ 영축이 있었던가'라고 표현함으로써, 바다의 웅장함에 감탄하고 있다.

③ (다)의 글쓴이는 유희경의 제안을 기쁜 마음으로 수락하였군.

유희경이 글쓴이에게 "공이 만일 가 보겠다면 내 마땅히 이곳의 주인으로서 기쁘게 맞이하겠네."라고 제안하자, 글쓴이는 '기쁜 마음으로 그를 따라갔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④ (다)의 글쓴이는 침류대에서 마주한 자연 풍경에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군.

물가에 자리를 펴고 앉아 졸졸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깨끗해진 느낌을 받은 글쓴이가 '온갖 잡념이 가시니, ~ 날아갈 듯하였다.'라고 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다)의 글쓴이는 평소에 정업원동의 경치를 구경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였군.

글쓴이는 서늘하고 아름다운 운치를 갖고 있는 정업원동을 아침저녁으로 지나며 '한 번도 조용히 찾아볼 수 없어서 한탄만 하였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48 가 자경 나 낙지가 다 의아기

작품 분석 본문 184~187쪽

가 자경

작가 박인로
갈래 연시조
주제 부정적 세태에 대한 경계
특징 ① 대조적 의미의 시어, 비유적 표현을 통해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함.
② 의문문의 형식으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함.

한 줄 의미

❶ (명덕(덕))을 닦기를 게을리하는 세태 비판
❷ 팔덕에 이르는 (바른) 길을 가지 않는 세태 비판
❸ 혼탁한 세상을 구제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한탄

나 낙지가

작가 이이
갈래 가사
주제 속세를 벗어난 안빈낙도
특징 ① 대비되는 시어를 활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냄.
② 설의법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함.

한 줄 의미

❶ (욕심(욕망))과 탐욕으로 가득 찬 속세
❷ (부귀공명)의 덧없음
❸ 속세를 떠나 (자연) 속에 은거하며 (신선)처럼 유유자적하며 살아가는 즐거움

다 의아기

작가 주세붕
갈래 고전 수필, 기
주제 신의 있는 거위에 대한 예찬, 신의 없는 인간 세태에 대한 비판
특징 ① 글쓴이의 체험을 바탕으로 교훈을 이끌어 냄.
② 거위와 인간의 대조를 통해 인간의 부정적인 면모를 비판함.
③ 설의법을 통해 글쓴이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한 줄 요약

❶ (큰누님)의 죽음을 슬퍼하고 서로를 위하며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는, 신의 있는 거위의 모습
❷ (거위)에 대한 예찬과 인간에 대한 비판
❸ (거위)에 대한 애정과 집필 의도

395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글쓴이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가)의 화자는 '명덕'을 닦는 삶의 태도를, (나)의 화자는 속세를 벗어나 안빈낙도를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다)의 글쓴이는 신의 있는 삶의 태도를 지향하고 있다.

오·오·이

① 화자 오류 ~~현재와 대비되는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다.~~

(가)~(다) 모두 현실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 비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와 대비되는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지는 않다.

③ 화자 오류 ~~내면적인 갈등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가)의 〈제3수〉에서는 혼탁한 세상을 구제하지 못하는 화자 자신에 대한 한탄이 드러나므로 내면적 갈등이 드러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을 극복하려는 의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나), (다)에는 내면적인 갈등이나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④ 범위 오류 속세를 벗어나서 유유자적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속세를 (나)에는 벗어나서 유유자적하는 삶의 모습은 (나)에만 나타나 있다.

⑤ 화자 오류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가)의 〈제3수〉에서 '사공이 변변치 못해 모강두에 버렸도다'라며 혼탁한 세상을 구제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한탄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은 드러나지 않는다. (나), (다)에서도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은 찾아볼 수 없다.

396 답 (1) 명경, 명덕 (2) 속세 (3) 거위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가)는 (명경, 명덕)을 닦는 일상적 상황을 통해 (명경, 명덕)을 닦아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다.

(가)에서는 돈을 주고서 '명경'을 닦는 일상적 상황을 통해 '명덕'을 닦아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다.

(2) 상반 (나)에는 (자연, 속세)을/를 떠나 조용하고 편안하게 사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나)에는 '속세'를 떠나 자연에서 안빈낙도하며 조용하고 편안하게 사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3) 상반 (다)는 신의 있는 (거위, 인간)의 모습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

(다)의 글쓴이는 신의 있는 거위의 모습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신의가 없는 인간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397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과 ㉣은 화자가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는 공간이다.

㉠은 화자가 '명덕'을 추구하기 위해 바라보는 공간이고, ㉣은 화자가 속세를 벗어나 유유자적하며 살아가는 공간이다. 따라서 ㉠과 ㉣은 화자가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범위 오류 ㉠과 ~~㉡은~~ 화자의 심리적 고뇌가 극복되는 공간이다.

㉠은 명덕을 추구하기 위해 바라보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화자의 심리적 고뇌가 완화 또는 해소되는 공간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은 세상을 구할 수단인 '제세주'가 버려지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화자의 심리적 고뇌가 심화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③ 범위 오류 ㉡과 ~~㉣은~~ 화자의 아쉬움이 드러나는 공간이다.

㉡은 세상을 구할 수단인 '제세주'가 버려지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화자의 아쉬움이 드러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은 화자가 만족하고 있는 공간으로 아쉬움이 드러나지 않는다.

④ 헛짚기 ㉢은 ㉡과 ~~달리~~ 모두 화자가 ~~바람직하게~~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공간이다.

㉢은 화자가 멀리하려는 속세에 해당하는 공간으로, ㉡과 마찬가지로 화자가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⑤ 범위 오류 ㉣은 ㉠과 ~~달리~~ 화자가 앞으로 머물고자 하는 공간이다.

㉠은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는 공간으로, 화자가 앞으로 머물고자 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은 화자가 현재 머물고 있는 공간이며, 화자가 이곳에서의 삶에 만족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머물고자 하는 공간이라 볼 수 있다.

398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얽매이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도록 몹시 구속되지.

정·정·이

⑤ 화자 오류 '모르도다, 아닌 게오, 버렸도다'와 같이 부정적인 서술어로 끝맺은 것은 ~~현실적 삶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화자의 의지를~~ 보여 주려 함이군.

〈제1수〉의 '모르도다'에는 명덕을 닦지 않는 세태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고, 〈제2수〉의 '아닌 게오'에는 덕을 닦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과 경계가 담겨 있다. 〈제3수〉의 '버렸도다'에는 '길 잃은 행인'을 구제하여 덕을 갖춘 좋은 사회를 만들지 못한 화자 자신에 대한 한탄이 담겨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정적인 서술어에는 화자의 안타까운 정서가 드러나 있을 뿐, 현실적 삶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의지적 태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오·이

① '아이 어른'이 '명경'은 값을 주고 닦으면서도, 값없이도 닦을 '명덕'은 닦지 않는다고 했으니, 이들이 '명경'과 '명덕'을 대하는 태도는 다르군.
〈제1수〉에서 '아이 어른'은 '명경'에 티가 끼면 값을 주고 닦으면서도, 값없이도 닦을 '명덕'은 닦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아이 어른'이 '명경'과 '명덕'을 대하는 태도가 다름을 알 수 있다.

② '아이 어른'이 '명덕'을 닦을 줄 모른다고 하는 것을 보니 '아이 어른'은 '한길'을 오도 가도 하지 않는 '행인'과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군.
'명덕'을 닦을 줄을 모르는 '아이 어른'은 덕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성의관'과 '팔덕문'으로 향하는 '한길'에 '행인'이 오도 가도 하지 않는다는 것 역시 덕을 실천하는 사람이 없음을 의미하므로, '아이 어른'과 '행인'은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한길'을 넓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한길'은 '행인'이 원한다면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길임을 드러낸 것이군.
넓고도 곧은 '한길'은 '행인'이 원한다면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곳이지만 종일 '행인'이 오도 가도 하지 않아 화자는 안타까워하고 있다.

④ '구인산'의 '솔'로 만든 배로 '행인'을 건네려 한 것을 보니 '명덕'으로 사람들을 구제하려는 화자의 의도를 읽을 수 있군.
'구인산'은 넓고 큰 덕으로 비유되는 높은 산을 의미한다. 이곳의 소나무로 만든 배로 길 잃은 '행인'을 건네려 하는 화자의 행위에는, '명덕'으로서 사람들을 구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399 답 (1) × (2)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상반 덕을 행하는 길의 ~~험난함을~~ '넓고도 곧'은 '한길'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
'팔덕문'을 바라보았을 때 보이는 '크나큰 한길'은 덕을 행하는 길로 볼 수 있다. 화자가 이 길이 '넓고도 곧'은데 어찌해서 종일 행인이 오도 가도 않는지 의문을 표하는 것으로 볼 때, 덕을 행하는 것은 원한다면 누구나 가능한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화자는 세상을 구제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 ×)
'사공이 변변치 못해 모강두에 버렸도다.'를 통해 화자는 '길 잃은 행인'을 구하기 위해 만든 '제세주'가 버려진 상황, 즉 세상을 구제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다.

400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화자 오류 화자는 '변변치 못'한 '사공'의 ~~방해로 인해~~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했음을 한탄하고 있군.
(가)에서 화자는 '행인을 다 건네려' 하였지만 '사공이 변변치 못해' 실패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화자가 스스로를 '사공'에 빗대어 혼탁한 세상을 구제하지 못하는 것을 한탄한 것이므로, 사공의 방해로 인해 화자가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명경'과 '명덕'을 대하는 태도의 대비로 주제를 강조하고 있군.

② 화자는 사람들이 '명덕'을 닦지 않는 현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군.
(가)의 〈제1수〉에서 화자는 '명경'에 티가 끼면 값을 주고 닦으면서도 값없이도 닦을 '명덕'은 닦지 않는다며, '명경'과 '명덕'을 대하는 태도를 대비함으로써(①), 사람들이 '명덕을 닦지 않는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다(②).

③ 화자는 '행인'들이 '한길'에 오가지 않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군.
화자는 '행인'들이 '성의관'과 '팔덕문'으로 향하는 '한길'에 오가지 않는 상황, 즉 유교적 가치로 이르는 바른 길을 가지 않는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④ '행인', '사공'과 같은 비유적 표현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군.
화자는 덕을 행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길 잃은 '행인'에, 혼탁한 세상을 구제하지 못하는 자신을 '사공'에 비유하며 올바른 도리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지 못하는 스스로의 능력 부족에 대한 자각을 드러내고 있다.

401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부재 ~~계절의 변화를 묘사하여~~ 인간과 자연을 대비하고 있다.
(나)의 화자는 속세를 탐욕과 욕심, 다툼이 있는 부정적인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속세에서 벗어나 세상사를 잊고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며 살아가고자 한다. 이를 전달하기 위해 인간과 자연의 대비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계절의 변화를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

오·오·이

①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뜬 구름', '새' 등을 통해 시비 없이 한가하게 살고자 하는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②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

'공명이 무엇이라고 일생에 골몰할까', '여년이 얼마런고, 이 아니 즐거운가' 등에서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

④ 고사(故事)를 인용하여 인생의 덧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남가의 한 꿈이라 황량이 덜 익었네.'에서 고사를 인용하여 인생의 덧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⑤ 비유를 활용하여 경계하려는 세상의 속성을 보여 주고 있다.

'욕심의 거센 물결', '탐욕의 샘물' 등에서 비유를 활용하여 경계하려는 세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402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부재 ~~선명한 색채 대비를 통해~~ 대상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나)에서는 선명한 색채 대비가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통해 대상을 형상화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오·오·이

② 대구의 방식을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내 몸은 속인이나 내 마음 신선이오.', '제 뜻을 고상하니 제 몸이 자중하고' 등에서 대구의 방식을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③ 평서문으로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을 의문문으로 제시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401번-②의 해설을 참고할 때, 적절함을 알 수 있다.

403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ㄷ. 상징적 시어를 사용하여 화자가 추구하는 바를 드러내고 있다.

ㄹ. 대비적인 상황을 제시하여 현실의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고 있다.

〈제2수〉에서는 '성의관', '팔덕문'과 같이 유교적 덕목을 상징하는 시어를 사용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유교적 이상을 드러내고 있다(ㄷ). 그리고 〈제1수〉에서는 '명경'은 값을 치르면서까지 닦으면서도 '명덕'은 닦지 않는 상황을 대비하여 현실의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고 있다(ㄹ).

오·오·이

ㄱ. 부재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는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ㄴ. 부재 ~~공간의 이동에 따른 화자의 의식 변화가 나타나 있다.~~

공간의 이동이나, 그에 따른 화자의 의식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404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추출**: 전체 속에서 어떤 물건, 생각, 요소 따위를 뽑아냄.

정·정·이

② 화자 오류 '나'는 B에서 거위의 행동이 ~~갖는 의미를 추출하여 이를 C에서 인간의 행동에 적용시키고 있다.~~

'나'는 B에서 거위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있을 뿐 그 행동이 갖는 의미를 추출하고 있지는 않다. 또 C에서 거위들의 행동이 갖는 의미를 인간의 행동에 적용시키고 있지도 않다. 거위들의 행동이 갖는 의미를 추출하여 인간의 행동에 적용시키고 있는 부분은 D로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나'는 A에서 간접적으로 접한 거위들의 신의 있는 모습을 C에서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A에서 큰누님의 죽음을 대하는 거위들의 신의 있는 모습은, '나'가 소문으로만 들어 간접적으로 접한 것이다. 반면 C에서 죽은 거위에 대한 남은 거위의 신의 있는 모습은 '나'가 직접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③ A~C에서 D로의 전개 과정은 '나'의 사고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A~C에서 D로 글이 전개되면서 '나'의 사고 범위는, 거위의 행동에 대한 생각에서 인간 세태에 대한 생각으로 확대되고 있다.

④ '나'는 D에서 인간의 세태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D에서 '나'는 주인에게 충성하고 친구에게 의로운 거위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못한 인간의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⑤ E에는 D의 깨달음을 타인에게 전달하려는 '나'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

D에서 '나'는 미물인 거위도 신의를 지키는데 인간이 신의를 지키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는 깨달음을 얻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E에서 사람들이 거위처럼

신의 있는 태도를 지니도록 하기 위해 의로운 거위의 이야기를 쓴다고 집필 의도를 밝히고 있다.

405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화자 오류 C에서 '나'는 거위의 행동을 보며 죽은 거위를 가져간 '동네 아이들'을 원망한다.

C에 해당하는 (다)의 3문단에는 죽은 거위를 동네 아이들이 가져가자 나머지 한 마리가 원망 어린 소리로 왔다 갔다 했다고만 서술되어 있을 뿐, '나'가 동네 아이들을 원망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오·오·이

① A에 나타난 거위들의 행동을 보며 '집안 식구들'은 거위들이 큰누님의 죽음을 슬퍼한다고 생각한다.

A에 해당하는 (다)의 1문단에서 '집안 식구들'은 거위들이 안방을 바라보고 몇 달이나 슬피 우는 모습을 보고 더욱 가슴 아파했다고 하였는데, 이는 '집안 식구들'이 거위들이 누님의 죽음을 슬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② B에서 '나'가 보게 된 거위들의 모습은 '나'가 거위에 대한 애정을 갖게 하는 이유가 된다.

(다)의 3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글쓴이는 '날마다 그놈들과 노는 것이 하나의 재미가 되었'다며 거위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B에서 보게 된 거위들의 신의 있는 모습이 이유가 된다고 할 수 있다.

④ D에서 '나'는 존재의 존귀함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D에 해당하는 (다)의 5문단의 '어질고 의로운 마음을 가진 짐승을 그냥 미물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를 통해, 글쓴이는 존재의 존귀함이란 종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⑤ E에서 '나'는 세상일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다.

E에 해당하는 (다)의 마지막 문단에서 '나'는 사람들의 나쁜 마음을 돌려서 거위와 같은 성실한 마음을 지니도록 하고자 하지만,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49 가 두터비 파리를 물고 ~ 나 고공가 다 어부(魚賦)

작품 분석 본문 188~191쪽

가 두터비 파리를 물고 ~

작가 미상
갈래 사설시조
주제 두꺼비(탐관오리)의 횡포와 허장성세 비판
특징 ① 인간의 세태를 동물의 모습에 빗대어 우의적으로 표현함.
② 종장에서 화자를 바꾸어 풍자의 효과를 높임.

한 줄 의미

• (**파리**)에게 횡포를 부리던 (**두터비**)가 백송골을 보고 도망가다 자빠졌으나, 자화자찬함.

나 고공가

작가 허전
갈래 가사
주제 고공(관리)들에 대한 훈계
특징 ① 관리들을 고공에 비유하여 비판함.
② 명령형 어조를 통해 고공들을 질책하고 훈계함.

한 줄 의미

❶ (**고공**)들이 서로 다투는 와중에 도적의 침략으로 가산을 탕진함.
❷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사욕**)만을 챙기는 고공들에게 일할 것을 채근함.
❸ 사욕에 눈먼 고공들을 생각하며 (**한탄**)함.

다 어부(魚賦)

작가 이옥
갈래 고전 수필, 부
주제 국가 경영의 올바른 도
특징 ① 인간의 세태를 물고기에 빗대어 우의적으로 표현함.
② 설의법, 영탄법 등을 사용하여 글쓴이의 생각을 강조함.

한 줄 요약

❶ 현실 세계를 (**수국**)에 빗댐.
❷ 군주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먼저 백성들을 수탈하는 (**관리**)를 엄벌해야 함.
❸ 부당한 (**정치**) 현실에 대해 경고함.

406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대상을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가)는 파리(힘없는 백성) 위에 군림하고 있지만, 자신보다 강자인 백송골(고위 관리) 앞에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두터비(중간 관리)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또한 (나)는 몰락한 집안(위기에 처한 국가)을 일으킬 생각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좇는 고공(나라의 신하)들을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다)는 작은 물고기(힘없는 백성)를 괴롭히는 큰 물고기(관리, 탐관오리)를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가)~(다)

에는 모두 대상을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오·오·이

② 화자 오류 ~~과거 사실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드러나 있다.~~

(가)~(다) 모두 부정적 대상들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을 뿐, 과거 사실에 대해 반성적 성찰을 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부재 ~~고사(故事)를 활용하여~~ 풍자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가)~(다) 모두 풍자적 태도가 드러나 있으나, 고사(故事)를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④ 범위 오류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나 있다.

(나), (다)는

(나)에는 도적들에 의해 무너진 집안을 일으키고자 하는 화자의 극복 의지가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고, (다) 또한 강자들이 약자들을 괴롭히는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에는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범위 오류 특정 장면에 초점을 맞추어 대상을 해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가)는

(가)에서는 파리를 물고 있던 두터비가 백송골을 발견하고 도망가다가 두엄 아래로 자빠지는 모습을 해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나), (다)에서는 대상을 해학적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다.

407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가)에서는 ~~'두터비'를 자빠지게 한~~ '파리'가 비판의 대상이다. (○, ⊗)

두터비

(가)에서는 자신보다 약한 존재인 '파리'를 괴롭히던 '두터비'가 자신보다 더 힘 있는 존재인 '백송골' 앞에서 비굴해지는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가)에서 비판하고 있는 대상은 '두터비'이다. 또 '두터비'는 '백송골'을 보고 놀라 도망가다가 자빠진 것이므로, '두터비'를 자빠지게 한 대상은 '파리'가 아니다.

(2) 교체 (나)에서 ~~'고공들'~~은 가산을 탕진하고 집을 불태웠다. (○, ⊗)

'화강도'

(나)에서 '가산이 탕진하'고 '집 하나 불타 버'린 것은 '고공들'이 아니라 엊그제 침입한 '화강도' 때문이다.

(3) (다)에서 '수많은 큰 물고기들'은 '작은 물고기'들을 해치는 족속들이다. (⊙, ×)

(다)에서 '물고기를 못살게 하는 것은 수많은 큰 물고기들'이며, '용의 도'는 '그들(작은 물고기들)을 해치는 족속들(큰 물고기들)을 물리치는 것'이라고 하는 데서 알 수 있다.

408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기반**: 기초가 되는 바탕. 또는 사물의 토대.

정·정·이

④ ㉣은 고공들에게 제공되는 기본적인 혜택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비'와 의미가 가깝다.

(다)의 '비'는 가뭄을 해소해 주는 것이기에 군주가 나라를 경영함에 있어 백성들이 살 수 있게 해 주는 가장 기본적인 혜택이라고 볼 수 있다. '죽조반(㉣)' 역시 고공들의 기본적 삶을 위해 제공하는 음식이므로 문맥적 의미가 '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은 삶의 기반이 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비'와 의미가 가깝다.~~

'움(㉠)'은 집과 더불어 삶의 기반이 되는 공간으로, '비'와 의미가 유사하지 않다.

② 헛짚기 ㉡은 가장 훌륭한 먹을거리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비'와 의미가 가깝다.~~

'백미(㉡)'는 '거친 올벼'와 대조되는, 가장 훌륭한 먹을거리 정도의 의미로, '비'와 의미가 유사하지 않다.

③ 헛짚기 ㉢은 국가의 살림살이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비'와 의미가 가깝다.~~

'살림(㉢)'은 국가의 살림살이를 비유한 것으로, '비'와 의미가 유사하지 않다.

⑤ 헛짚기 ㉤은 꾸준한 노력의 결과물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비'와 의미가 가깝다.~~

'새끼 한 사리(㉤)'는 화자가 신세 한탄을 하면서 꼬아 낸 결과물로, '비'와 의미가 유사하지 않다.

409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봉황**: 예로부터 중국의 전설에 나오는, 상서로움을 상징하는 상상의 새. 수컷은 '봉', 암컷은 '황'이라고 한다.
- **오작**: 까마귀와 까치를 아울러 이르는 말.

정·정·이

⑤ 장공에 떴는 솔개 눈 살핌은 무슨 일인가 / 썩은 쥐를 보고 빙빙 돌고 가지 않는구나 / 만일에 봉황을 만나면 웃음거리 될까 하노라.

'솔개', '쥐', '봉황'은 힘의 우위에 따라 '쥐<솔개<봉황'의 관계를 이루므로, (가)의 '두터비', '파리', '백송골' 간의 관계와 가깝다.

오·오·이

① 헛짚기 닭은 때를 알리고 개는 도적을 살피코 / 소 말은 큰 구실 맡겨 다 기름 직하거니와 / 저 매는 꿩 잡아 절로 바치든가 나는 몰라 하도 매라.

'닭'과 '개'는 화자가 기르고 있는 동물로 각자 자기 역할을 하기에 동등한 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꿩'은 '매'가 포획할 수도 있는 대상으로 화자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존재이다.

② 헛짚기 까마귀 검다 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 / 겉이 검은들 속조차 검을쏘냐 / 아마도 겉 희고 속 검은 것은 너뿐인가 하노라.

'까마귀'는 화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대상이며, '백로', 즉 '너'는 화자가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대상이다.

③ 헛짚기 나비야 청산 가자 범나비 너도 가자 / 가다가 저물거든 꽃에 들어 자고 가자 / 꽃에서 무대접하거든 잎에서나 자고 가자.

'나비'와 '범나비'는 동등한 관계로 화자는 이들과 함께 지향하는 곳인 '청산'에 가고자 한다. '꽃'은 '청산'에 가는 중간에 쉴 수 있는 장소로 이해할 수 있다.

④ 헛짚기 벽오동 심은 뜻은 봉황 올까 하였더니 / 봉황은 아니 오고 오작만 날아든다 / 동자야 오작 날려라 봉황 오게 하리라.

화자가 기대하고 있는 결과는 '봉황'인데, 실제로 얻은 것은 '오작'으로, 불만족스러운 결과이다. 이로 인해 화자는 '동자'에게 봉황을 오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410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헛짚기 '백송골'은 '두터비'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파리'를 도와주려는 의지를 보여는군.

'백송골'은 '두터비'보다 힘이 더 센 존재로, '파리'를 물고 있던 '두터비'로 하여금 놀라 뛰어내리게 한다. 그러나 '백송골'이 '파리'를 도와주려고 한 것은 아니다.

오·오·이

① 넘어지고도 스스로를 칭찬하는 '두터비'는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군.

'두터비'는 '백송골'을 보고 놀라 뛰어내리다가 넘어지지만, 자기가 날랬기 망정이지 멍이 들 뻔하였다며 허세를 부리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다.

③ '파리'를 물고 있다는 점에서 '두터비'는 '파리'보다 힘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군.

④ '백송골'은 '두터비'를 놀라게 한다는 점에서, '두터비'보다 강한 힘을 가진 존재군.

⑤ '두터비'는 '파리'에게는 강한 모습을 보이지만, 더 강한 '백송골'에게는 저항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군.

'두터비'는 '파리'를 물고 있다는 점에서 '파리'보다 힘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③). 그러나 '백송골'을 보고 '두터비'가 저항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놀라서 뛰어내린다는 점에서, '백송골'은 '두터비'보다 강한 힘을 가진 존재로 볼 수 있다(④, ⑤).

411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헛짚기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창고를 열어 백성들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일이옵니다.

'용의 도란 그들에게 구구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보다 먼저 그들을 해치는 족속들을 물리치는 것이다.'에서, (다)의 글쓴이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이들을 해치는 못된 관리들을 벌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백성들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일이 제일 시급하다고 하는 것은 (다)의 논지에 어긋난다.

오·오·이

① 성상께서는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항상 성심을 다하고 계시옵니다.

'용이 그 나라를 경영함에 가물어 물이 마르면 반드시 비를 내려 ~ 물결을 일렁이어 덮어 주니'에서, '용'으로 비유된 '성상'이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조정의 대신들은 백성들을 가볍게 여기고 있사옵니다.

1문단에서 '고래, 곤어, 바닷장어 같은 것은 그 군주의 내외 여러 신하이고'와 3문단의 '고래들은 조류를 따라가며 들이마셔 작은 물고기를 자신의 시서로 삼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지방관들은 백성을 사사로이 부리고 있으며, 그 밑에 있는 서리나 아전들은 백성들의 고혈을 짜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데만 눈이 멀어 있사옵니다.

'교룡, 악어는 물결을 다투어 삼키고 씹어 먹어 작은 물고기를 ~ 가물치 족속은 사이를 노리고 틈을 잡아 덮쳐서 작은 물고기를 은과 옥으로 삼는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백성이 있어야 성상께서도 군주가 되시옵고, 벼슬아치들도 살 수 있는 것이옵니다.

'작은 물고기가 없다면 용은 뉘와 더불어 군주 노릇을 하며, 저 큰 물고기들이 또한 어찌 으스댈 수 있겠는가?'를 통

해 알 수 있다.

412 답 (1) 관리들 (2) 은혜, 도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다)의 수국에서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괴롭히는 것은, (군주, 관리들)이/가 백성들을 괴롭히는 현실을 의미한다.

(다)에서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괴롭히는 것은, 관리들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현실을 의미한다.

(2) 교체 (다)의 글쓴이는 '용의 (은혜, 도)'보다 '용의 (은혜, 도)'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의 글쓴이는 가물 때 비를 내리는 '용의 은혜'보다, 작은 물고기들을 해치는 족속들, 즉 큰 물고기를 물리치는 '용의 도'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13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약육강식**: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먹힌다는 뜻으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희생시켜서 번영하거나,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끝내는 멸망됨을 이르는 말.
- **탄압**: 권력이나 무력 따위로 억지로 눌러 꼼짝 못 하게 함.

정·정·이

③ 화자 오류 ~~신하들과 백성들이 모두 약육강식의 현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여긴다고 주장한다.~~

(다)에서는 '강자는 약자를 삼키고 지위가 높은 것은 아랫것을 사로잡는' 약육강식의 행위에 싫증 내지 않는다면 물고기들, 즉 백성들이 남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약육강식의 행위를 멈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신하들과 백성들이 모두 약육강식의 현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여기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오·오·이

① 용에 빗대어 군주의 도리에 대해 논하고 있다.

1문단의 '물이 하나의 국가라면, 용은 그 나라의 군주'라며 용에 빗대어 군주의 도리를 논하고 있다.

② 백성이 없으면 나라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4문단에서 '작은 물고기가 없다면 용은 뉘와 더불어 군주 노릇을 하며'라고 한 것을 통해, 글쓴이는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군주가 백성을 위하더라도, 그 아래의 신하들은 백성을 탄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문단의 '물고기에게 자애로운 것은 한 마리 용이고, 물고기를 못살게 하는 것은 수많은 큰 물고기들'을 통해 용으로 비유되는 군주가 백성을 위하더라도, 그 아래의 큰 물고기들, 즉 신하들이 백성을 탄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군주의 도리를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백성을 핍박하는 존재를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문단의 '용의 도란 그들에게 구구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보다 먼저 그들을 해치는 족속들을 물리치는 것이다.'를 통해 알 수 있다.

414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관료**: 직업적인 관리. 또는 그들의 집단. 특히, 정치에 영향력이 있는 고급 관리를 이른다.
- **팽배**: 어떤 기세나 사조 따위가 매우 거세게 일어남.
- **반목**: 서로서로 시기하고 미워함.
- **재건**: 허물어진 건물이나 조직 따위를 다시 일으켜 세움.

정·정·이

② 화자 오류 '나'가 '고공'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관료 사회에는 불신이 팽배했군.~~

'나'가 '고공'이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을 비판하고 있기는 하지만, '너희 재주를 내 짐작하였노라'라고 한 것으로 보아 '고공'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나'가 '고공'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근거로 관료 사회의 불신이 팽배했다고 볼 수도 없다.

오·오·이

① '고공'이 반목과 질시를 일삼는 것으로 보아 조정에는 불화가 있었군.

'마음을 다투는 듯 호수를 시샘하는 듯 / 무슨 일 감겨들어 흘깃할깃 하느냐'를 통해 고공, 즉 벼슬아치들이 조정에서 서로 반목과 질시를 일삼으며 불화를 겪었음을 알 수 있다.

③ '나'는 외적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 외적의 재침략을 걱정하고 있군.

'엊그제 왔던 도적 아니 멀리 갔다 하되 ~ 화살을 제쳐 두고 옷 밥만 다투느냐'에서 '나'가 도적, 즉 외적이 다시 침략할까 봐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나'가 집안의 일을 염려하는 것으로 보아 '나'는 성공적인 국가 재건을 바라는 인물이군.

'생각 있는 새 일꾼 어느 때 얻어서 / 집일을 마치고 시름을 잊겠는가'와 같이 집안의 일을 염려하는 '나'의 모습에서,

성공적인 국가 재건을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고공'이 '옷 밥'만 탐했다는 것으로 보아 관료들은 본분을 잊어버리고 사욕만을 채우고자 하였군.

'화살을 제쳐 두고 옷 밥만 다투느냐'에서 '고공', 즉 관료들이 나랏일을 돌보고 나라를 지키는 본분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사리사욕만 채우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415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화자 오류 ⓑ는 ⓐ와 달리 종들이 ~~본분을 다했음을 주장하고 있다.~~

〈보기〉의 화자인 ⓑ가 종들이 본분을 다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철없는 종의 일은 묻지도 아니하려니와'와 '종의 죄가 많건마는'으로 볼 때, ⓑ 역시 종의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오·이

① ⓐ는 ⓑ와 달리 새로운 종을 바라고 있다.

(나)의 화자인 ⓐ는 '생각 있는 새 일꾼'을 얻어서 집일을 마치기를 바라고 있으므로, 새로운 종을 바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는 ⓐ와 달리 집일의 책임을 상전에게 돌리고 있다.

(나)의 화자인 ⓐ는 '고공들'을 탓하고 있으나, 〈보기〉의 화자인 ⓑ는 '마노라'의 탓이라며 상전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

④ ⓐ와 ⓑ는 모두 종의 잘못을 언급하고 있다.

(나)의 화자인 ⓐ는 '고공들'이 '은혜란 생각 않고 제 일만 하려' 하는 것 등을 지적하고 있고, 〈보기〉의 화자인 ⓑ는 '종의 죄가 많'다고 하였다.

⑤ ⓐ와 ⓑ는 모두 집일이 제대로 처리되기를 바라고 있다.

(나)의 화자인 ⓐ는 '집일'을 마치고 시름을 잊으려 하고, 〈보기〉의 화자인 ⓑ 역시 '집일을 고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와 ⓑ는 모두 집일이 제대로 처리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0 가 만보(晩步) 나 탄로가 다 돌층계

작품 분석 본문 192~195쪽

가 만보(晩步)

작가 이황
갈래 한시
주제 이루지 못한 학문적 숙원에 대한 성찰
특징 ① 자연적 배경과 내면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냄.
② 선경후정의 기법을 통해 시상을 전개함.
한 줄 의미
❶ (저녁)이 가까워짐.
❷ 가을 들판과 (마을)의 풍경
❸ (가을걷이(추수))를 앞둔 농촌의 풍요로운 정경
❹ 자신의 처지에 대한 (답답함)

나 탄로가

작가 신계영
갈래 연시조
주제 늙음에 대한 탄식
특징 ①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화자의 처지를 드러냄.
② 시어의 대비, 설의법, 영탄적 어조 등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부각함.
한 줄 의미
❶ (아이)가 늙은이가 되게 하는 세월의 무상함
❷ 늙어 버린 (외양)에 대한 탄식
❸ 지나 버린 젊은 시절에 대한 아쉬움과 (탄식)

다 돌층계

작가 유경환
갈래 현대 수필
주제 과정을 중시하는 성실한 삶의 가치
특징 ① 돌층계를 오르는 과정에 인생을 빗대어 표현함.
② 설의법, 비유법 등을 통해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함.
한 줄 요약
❶ (돌층계)를 보며 평소의 생활을 돌아봄.
❷ 돌층계를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함.
❸ (돌층계)를 오르며 놀던 어린 시절을 회상함.
❹ 성실한 삶의 태도에서 얻게 되는 (보람)

416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가)와 (나)는 의문의 형식을 빌려 탄식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가)에서 화자는 '내 인생은 홀로 무얼 하는 건가?'와 같은 표현을 통해 학문적 성취가 미진한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고 있고, (나)에서 화자는 '그동안에 아이들이 나 웃을 줄 어이 알리', '늙고 병이 드니 백발을 어이 하리'와 같은 표현을 통해 늙어 버린 자신의 상황에 대한 탄식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② 화자 오류 (가)와 (다)는 풍경 묘사를 통해 ~~자연 친화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가)는 해가 지는 강가의 풍경, 가을걷이가 가까워진 마을의 모습 등을 묘사하고 있으나 자연 친화적 정서가 드러나 있지는 않다. (다)는 1문단에서 돌층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으나 자연 친화적 정서가 드러나 있지는 않다.

③ 범위 오류 (나)와 ~~(다)는~~ 명령하는 형식을 통해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고 있다.

(나)에서는 '아이야 웃지 마라'와 같은 명령하는 형식의 표현을 통해 화자의 의도를 전달하고 있으나, (다)에는 명령하는 형식의 표현이 없다.

④ 부재 (가)~(다)는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심리의 변화가 나타나 있다.~~

(가)의 화자는 집 안에서 뜨락으로 이동하고 있으나 화자의 심리가 변화하지는 않았다. 또한 (나)와 (다)에서는 공간의 이동을 찾아볼 수 없다.

⑤ 범위 오류 ~~(가)~(다)~~ (가), (다)는 대상을 의인화하여 사물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가)는 '해오라비 우뚝 서니 모습 훤칠해.'에서, (다)는 '반듯하게 누워 있는 가지런한 돌층계' 등에서 대상을 의인화하여 그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에서 '거울이 원수로다'를 대상을 의인화한 부분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를 통해 사물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417 답 (1) 성취 (2) 백발 (3) 반성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가)의 화자는 학문적 (성취)을/를 이루지 못한 자신의 삶을 아쉬워하고 있다.

(가)의 화자는 '잊음 많아 어지러이 ~ 흩어진 책을 다시 정리하네.'에서 학문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또, '숙원이 오래도록 풀리질 않네.'에서 원하던 학문적 성취를 이루지 못하였음을 아쉬워하고 있다.

(2) 교체 (나)의 화자는 (백발)이/가 된 자신의 처지에 체념하고 있다.

(나)의 화자는 '늙고 병이 드니 백발을 어이 하리'에서 늙어서 백발이 된 자신의 처지에 체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교체 (다)의 글쓴이는 (반성)적 삶의 자세를 보여 주고 있다.

(다)의 글쓴이는 돌층계를 보며, 성실하게 인생의 계단을 하나씩 오르지 않고 남보다 앞서기 위해 두세 계단씩 건너뛰려 하지는 않았는지 자신의 지난날을 반성하고 있다.

418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나)와 달리, (가)는 선경후정의 방식을 통해 화자의 심정을 표출하고 있다.

(가)의 1행부터 12행까지는 화자가 바라본 가을 저녁의 풍경을 제시하고, 13행부터는 '내 인생은 홀로 무얼 하는 건가?'라며 풍경에서 촉발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선경후정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선경후정의 방식이 사용되지 않았다.

오·오·이

① 부재 (가)와 (다)는 ~~자연물에서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유추하고 있다.~~

(가)의 '해오라비'는 화자의 처지와 대조되는 자연물일 뿐, 화자가 해오라비를 통해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유추하고 있지는 않다. (다)의 글쓴이는 돌층계에서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유추하고 있으나, 돌층계는 자연물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범위 오류 (가)와 ~~(나)는~~ 특정한 계절을 통해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가)는 가을을 배경으로 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나, (나)는 특정한 계절감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③ 범위 오류 ~~(가)와~~ (나)는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화자는 〈제1수〉에서 '아이야'라며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가)의 화자는 독백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⑤ 범위 오류 (다)와 달리, (나)는 설의법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나)는 '늙고 병이 드니 백발을 어이 하리' 등에서 설의법을 활용하여 한탄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다) 또한 1문단의 '성실하지 못했던 생활 의식의 탓이 아니랴.', 2문단의 '도중하차를 해 왔던가?' 등에서 설의법을 활용하여 과거에 대한 성찰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419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동일시**: 둘 이상의 것을 똑같은 것으로 봄.
- **경건함**: 공정하며 삼가고 엄숙함.

정·정·이

③ ㉠과 ㉡은 화자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이다.

(가)에서 ㉠은 하루의 해가 지는 모습으로, 화자는 이를 통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학문적 성취가 미진함을 탄식하고 있다. (다)의 글쓴이 또한 ㉡의 돌층계를 보며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을 되돌아보고 성실한 자세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과 ㉡은 화자가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상징한다.

㉠과 ㉡은 모두 (가)의 화자와 (다)의 글쓴이가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와는 관련이 없다.

② 헛짚기 ㉠과 ㉡은 화자가 동일시하고자 하는 대상을 드러낸다.

㉠은 하루의 해가 지는 모습으로, 화자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는 있으나, 화자가 동일시하고자 하는 대상은 아니다. ㉡은 글쓴이가 삶의 과정과 비슷하다고 여기는 것일 뿐, 동일시하고자 하는 대상이 아니다.

④ 헛짚기 ㉠은 화자로 하여금 한가함을, ㉡은 경건함을 느끼게 한다.

㉠을 통해 (가)의 화자가 한가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다. 한편 (다)에서 글쓴이가 ㉡을 통해 과정을 중시하는 성실한 삶의 가치를 유추하고 있기는 하지만, 돌층계를 바라봄으로써 경건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다.

⑤ 헛짚기 ㉠은 화자에게 여러움을, ㉡은 풍요로움을 느끼게 한다.

(가)의 화자가 ㉠을 보며 자신의 학문적 성취의 미진함을 탄식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어려움을 느낀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은 풍요로움과는 관련이 없다.

420 답 ㄱ, ㄴ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깜

- **추상적**: 어떤 사물이 직접 경험하거나 지각할 수 있는 일정한 형태와 성질을 갖추고 있지 않음.
- **회한**: 뉘우치고 한탄함.

정·정·이

ㄱ. (가)는 '해'가 기우는 배경을 제시하며 성찰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419번-③의 해설을 참고할 때, 적절한 진술임을 알 수 있다.

ㄴ. (다)는 구체적인 사물의 속성을 이용하여 추상적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다)는 한 단씩 밟아 올라야 하는 '돌층계(계단)'의 속성을 이용하여 '삶'이라는 추상적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오·오·이

ㄷ. 범위 오류 (가)와 (다)는 모두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회한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가)의 '거문고만 둥둥 탄다'에서는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 느끼는 회한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다)의 '얼마나 비틀거렸는지, ~ 왔다 갔다 했었는지…….' 등에서 글쓴이가 회한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청각적 이미지는 사용되지 않았다.

421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는 화자의 현재 상황과 대비되고 있고, Ⓑ는 글쓴이의 삶의 태도에 깨달음을 주고 있다.

(나)의 화자는 '아이 적(Ⓐ)'에 타인의 백발을 비웃었던 경험이 있다. 이는 현재 타인이 화자의 백발을 보고 웃는 상황으로 바뀌었으므로, Ⓐ는 화자의 현재 상황과 대비된다고 볼 수 있다. (다)의 글쓴이는 '어렸을 적(Ⓑ)'에 돌층계에서 동무들과 놀다가 해가 저물어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게 되면 미련 없이 내려왔던 경험이 있다. 글쓴이는 이를 통해 인생의 계단에서 해가 지면 미련 없이 내려올 것을 다짐하며, 욕심을 버리고 그동안의 보람에 만족하는 삶의 태도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와 Ⓑ는 모두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을 불러일으킨다.

Ⓐ와 Ⓑ는 모두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과는 관련이 없다.

② 범위 오류 Ⓐ와 Ⓑ는 모두 이전과는 다른 삶의 자세를 갖게 한다.

Ⓐ로 인해 (나)의 화자가 삶의 자세를 바꾸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는 (다)의 글쓴이에게 깨달음을 준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른 삶의 자세를 갖게 한다고 볼 수도 있다.

③ 헛짚기 Ⓐ는 화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는 글쓴이에게 심리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는 (나)의 화자의 현재와 대비되는 과거일 뿐, 심리적 안정감을 주지는 않는다. 한편 (다)에서 글쓴이는 Ⓑ를 통해 깨달음을 얻고 있을 뿐, Ⓑ로 인해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지는 않다.

⑤ 헛짚기 Ⓐ는 화자의 현재 상황에 위안을 주고, Ⓑ는 글쓴이의 현재 상황에 회의를 유발하고 있다.

(나)의 화자는 현재 늙어 버린 자신의 상황에 불만이 있으나 이런 화자에게 Ⓐ가 위안을 주는 것은 아니다. 화자는 오히려 Ⓐ를 떠올리며 늙음을 더욱 한탄하고 있다. 한편 (다)에서 글쓴이는 Ⓑ를 통해 깨달음을 얻고 있을 뿐, 현재 상황에 회의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422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ㄱ. 추상적 내용을 공간적으로 형상화한다.

ㄴ. 열거의 방법으로 내용을 구체화한다.

ㄹ. 시간의 흐름을 시각화하여 표현한다.

[A]에서는 '메모'의 '삶'이라는 추상적 내용을 '계단'을 통해 공간적으로 형상화하였다(ㄱ). 또한 '잘못한 것'이라는 내용을 '얼마나 비틀거렸는지 ~ 갈지자로 왔다 갔다 했었는지 …….'와 같이 열거의 방법으로 구체화하여 표현하였다(ㄴ). 그리고 '어느새 하루가 다 지나고 있었다'는 내용을 '그것을 헤아리는 동안 내 그림자가 길어진다.'라고 시각화하여 표현하였다(ㄹ).

오·오·이

ㄷ. 부재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정서를 부각한다.

역설적 표현을 사용해 정서를 부각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ㅁ. 부재 ~~다른 대상과의 대조를 통해~~ 의미를 강조한다.

다른 대상과의 대조를 통해 의미를 강조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423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전념**: 오직 한 가지 일에만 마음을 씀.

정·정·이

④ 화자 오류 '숙원이 오래도록 풀리질 않네'는 ~~속세에 대한 미련 때문에 학문에 전념하지 못한 것을~~ 탄식한 것이겠군.

〈보기〉에서 화자는 자신의 학문적 성취가 미진한 것을 안타까워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숙원이 오래도록 풀리질 않네'는 이러한 화자의 탄식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학문적 성취가 미진한 이유가 속세에 대한 미련 때문이라고 판단할 근거는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해는 문득 서쪽으로 기울어지는데'는 화자의 심정과 관련 있는 시간적 배경을 드러낸 것이군.

해가 '문득 서쪽으로 기울어지는' 시간은 모든 사물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시간으로, 차분하게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화자의 심정과 관련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뜨락으로 내려가'에서 '뜨락'은 화자가 풍경을 감상하며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공간이겠군.

화자는 '뜨락'에서 구름과 마을 등 여러 풍경들을 감상하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③ '가을걷이'에 '기쁜 빛'이 도는 풍경은 화자의 내면과 대비되는 모습이겠군.

'가을걷이'의 풍성함으로 마을에는 '기쁜 빛'이 도는 데 반해, 화자는 자신이 학문적 성취를 충분히 이루지 못하였다고 생각하며 안타까워하고 있으므로, 이는 화자의 내면과 대비되는 풍경이라 할 수 있다.

⑤ '거문고만 둥둥 탄다'에는 화자의 시름이 투영되어 있군.

거문고를 타는 것은 화자가 자신의 시름을 달래려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행위에는 화자의 시름이 투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오 지름길

④ '숙원이 오래도록 풀리질 않네'는 ~~속세에 대한 미련 때문에~~ 학문에 전념하지 못한 것을 탄식한 것이겠군.

(가)의 화자가 마을의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점에서 마을, 즉 속세와 떨어진 곳에서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여, ④가 적절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화자가 속세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는지, 학문에 전념하지 못한 이유가 속세에 대한 미련 때문인지는 판단할 근거가 전혀 없어요. '속세에 대한 미련'이 고전 시가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작품에 맞지 않게 적용하면 오답이 되니 주의하세요.

424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헛짚기 ⓐ는 화자가 ~~거리를 두고자 하는 물질적 가치를 의미한다.~~

ⓐ는 물질적 가치가 아니라, 농부들의 노력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다. 화자는 ⓐ를 보며 자신은 무엇을 이루었는지 생각하면서 학문적 성취가 미진함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화자가 ⓐ에 거리를 두고자 하는지는 알 수 없다.

오·오·이

② ⓑ는 화자 자신의 현재 처지와 대비되는 모습이다.

ⓑ에 이어지는 '내 인생은 홀로 무얼 하는 건가?'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는 휜칠한 모습으로 우뚝 서 있는 '해오라비'와 학문적 성취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대비하며 탄식하고 있다.

③ ⓒ는 화자가 회포를 달래고 있는 모습이다.

ⓒ에서 화자는 풀리지 않는 숙원에 대한 회포를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거문고만 둥둥 탄다고 하였으므로, 화

자가 거문고를 타면서 회포를 달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표현한 것이다.

화자는 '거울'을 보고서 자신의 늙음을 확인하고, ⓓ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

⑤ ⓔ는 자신의 삶에 대한 예측인 동시에 내면적 다짐을 의미한다.

ⓔ에서 화자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미련 없이 내려와 순리를 따르겠다는 다짐을 드러내고 있다.

425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굴곡**: 사람이 살아가면서 잘되거나 잘 안되거나 하는 일이 번갈아 나타나는 변동.

정·정·이

(1) 헛짚기 (가)의 '해오라비'는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다.~~ (○, ⊗)

(가)의 우뚝 선 모습이 훤칠한 '해오라비'는 이룬 것이 없어 고뇌하는 화자의 모습과 대조되는 대상이다.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 아니다.

(2) 화자 오류 (나)의 '옛 얼굴'은 ~~화자가 되고자 하는 지향의 대상이다.~~ (○, ⊗)

(나)의 '옛 얼굴'은 화자가 거울을 보기 전에 스스로 생각한 외양이다. 거울을 본 화자가 '옛 얼굴'이 아님에 탄식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지향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3) 헛짚기 (다)의 '인생의 해가 지'는 것은 글쓴이의 ~~삶의 어두운 굴곡을 장정하고 있다.~~ (○, ⊗)

(다)에서 '인생의 해가 지'는 것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글쓴이의 삶의 굴곡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426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화자 오류 ㉮: ~~청춘을 회복하고 싶은 욕망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는 백발을 비웃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환기함으로써 늙음은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에 청춘을 회복하고 싶은 욕망은 드러나지 않고, 해학적이라고도 볼 수 없다.

오·오·이

② ㉯: 시간의 흐름이 빠르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젊은 시절에 재미있게 놀고 즐겁게 지내는 것을 의미하는 '소년행락'이 어제처럼 느껴진다고 하였으므로, 시간이 빨리 흘러갔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 현재 처지에 대한 무상감을 표출한 것이다.

늙고 병든 백발의 화자의 모습에서 젊었던 '옛 나'의 모습은 찾을 수 없다는 탄식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현재 처지에 대한 무상감을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욕망을 의미한다.

'한 층에 한 걸음이 맞도록' 만들어진 계단을 '두 단, 세 단씩' 뛰어오르는 것은,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욕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⑤ ㉲: 자신의 다양한 행동을 들어 반성의 태도를 드러낸 것이다.

자신이 계단을 오르는 과정에서 했을 다양한 행동, 즉 비틀거리고, 숨차게 헐떡이며 남을 밀치고, 헛디딜 뻔하고, 갈지자로 왔다 갔다 하는 등의 행동을 들어, 과거의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51 가 신도가(新都歌) 나 사우가(四友歌) 다 불국사 기행

작품 분석 본문 196~199쪽

가 신도가(新都歌)

작가 정도전
갈래 악장
주제 새로운 도읍과 태조에 대한 예찬
특징 ① 고려 가요의 여음구를 사용함.
② 새로운 도읍을 찬양하고 임금의 덕을 예찬하는 송축가로서의 특성이 드러남.
한 줄 의미
❶ 새로운 (**도읍**)의 아름다운 경치와 임금의 공덕을 예찬함.
❷ 새로운 도읍의 지세를 예찬하고 (**임금**)의 만수무강을 기원함.

나 사우가(四友歌)

작가 이신의
갈래 연시조
주제 사우(四友)인 소나무, 국화, 매화, 대나무의 고결한 기품 예찬, 지조와 절개를 지닌 삶에의 다짐
특징 ① 자연물에 관습적 의미를 부여하여 삶의 자세를 드러냄.
② 대비되는 시어와 이미지를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형상화함.
한 줄 의미
❶ 풍상에도 여위지 않고 변하지 않는 (**소나무**)
❷ 된서리에 혼자 피는 청고한 (**국화**)
❸ 눈 속에 피어 그윽한 향기를 풍기는 (**매화**)
❹ 백설 속에 푸르른 (**대나무**)

다 불국사 기행

작가 현진건
갈래 현대 수필
주제 석굴암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상
특징 ① 불국사, 석굴암 등 경주 지방을 여행하고 쓴 글로, 견문과 감상이 중점적으로 제시됨.
② 구체적인 묘사, 음성 상징어의 사용 등으로 대상의 아름다움을 극찬함.
한 줄 요약
❶ (**석굴암**)에 이르는 여정과 석굴암의 첫인상
❷ (**석가**)의 석상, 석벽에 새겨진 입상들, 천장 등 석굴암 내부의 아름다운 모습
❸ 석굴암 밖에서 바라본 (**자연**)의 아름다움

427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문물**: 문화의 산물, 곧 정치, 경제, 종교, 예술, 법률 따위의 문화에 관한 모든 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 **위용**: 위엄찬 모양이나 모습.

정·정·이

① (가)~(다)는 모두 대상을 예찬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가)는 새로운 도읍과 새로운 왕조의 임금을, (나)는 '사우(소나무, 국화, 매화, 대나무)'를, (다)는 석굴암과 그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예찬하고 있다.

오·오·이

② 범위 오류 ~~(가)~(다)는~~ (가), (다)는 모두 공간에 대해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가)는 새 도읍을 송축하며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다)의 '석굴암'에도 역사적 의미가 간접적으로 드러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나)에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 공간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③ 화자 오류 (가)와 (나)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을 드러내고 있다.~~
(가), (나)는 모두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④ 범위 오류 (가)와 ~~(다)는~~ 새로운 문물과 제도에 대한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새로운 문물과 제도에 대한 위용을 드러낸 것은, 새로운 도읍과 새 왕조를 예찬하고 있는 (가)이다.

⑤ 범위 오류 (나)와 ~~(다)는~~ 시련을 이겨 내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나)의 '솔(소나무), 국화, 매화, 대(대나무)'는 시련과 고난을 주는 혹독한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자라나는 존재로, 시련에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시련을 이겨 내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에서는 시련을 이겨 내려는 의지적인 자세를 찾기 어렵다.

428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가)는 새로운 도읍의 뛰어난 경치를 예찬하고 있다. (○, ×)
(가)의 '디위예 신도형승이샷다'에서 새로운 도읍의 뛰어난 경치를 예찬하고 있다.

(2) 헛짚기 (나)의 '솔, 국화, 매화, 대'는 ~~청빈함의~~ 표상이다. (○, ×)
(나)에서 '솔, 국화, 매화, 대'는 시련과 고난을 주는 혹독한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자라나는 존재로, 선비의 올곧은 기상을 상징한다. 그러나 청빈함을 지닌 존재로 묘사되고 있지는 않다.

(3) (다)에서 글쓴이는 석굴암의 석가 석상을 '천추에 빼어난 걸작'이라고 평하였다. (○, ×)
(다)의 '석련대 위에 올라앉으신 석가의 석상은 ~ 장중한 그 모양은 천추에 빼어난 걸작이라 하겠다.'에서 알 수 있듯이, 글쓴이는 석굴암의 석가 석상을 '천추에 빼어난 걸작'이라고 예찬하였다.

429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범위 오류 (나)의 '백설이 잦은 날'과 ~~(다)의 '오늘같이 흐리지 않은 날'은 모두~~ 시련과 고난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나)의 〈제4수〉의 '백설이 잦은 날'은 '대'에게 가해지는 시련과 고난의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다)의 '오늘같이 흐리지 않은 날'은 동해 바다의 푸른 물결과 그 위를 지나가는 큰 돛까지 보이는 날로, 시련과 고난의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오·오·이

① (나)의 '늠연한 줄 반가온뎌'는 자연물에 대한, (다)의 '정말 찬란하다 할밖에 없다'는 인공물에 대한 감탄을 표현하고 있다.

(나)의 〈제1수〉의 '늠연한 줄 반가온뎌'는 자연물인 '솔'에 대한 감탄을, (다)의 '정말 찬란하다 할밖에 없다'는 인공물인 석굴암 천장의 장치에 대한 감탄을 표현한 것이다.

② (나)의 '여위는 줄 전혀 업다'는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고, (다)의 '지금 손질이 많았지만'은 변화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나)의 〈제1수〉의 '여위는 줄 전혀 업다'는 '솔'이 풍상을 겪어도 전혀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고, (다)의 '지금 손질이 많았지만'은 석굴암 앞문에 변화가 있었음을 밝히는 것이다.

③ (나)의 '청고한 내 벗'과 (다)의 '어여쁜 파란 산들'에는 모두 대상에 대한 호감이 담겨 있다.

(나)의 〈제2수〉의 '청고한 내 벗'은 '국화'에 대한, (다)의 '어여쁜 파란 산들'은 석굴암 밖 경치에 대한 호감이 담긴 표현이다.

④ (나)의 '대숲이 푸르러세라'는 원하는 사물을 보았음을, (다)의 '그런 선연이 있을 턱이 없다'는 원하는 광경을 보지 못했음을 표현하고 있다.

(나)의 〈제4수〉의 '대숲이 푸르러세라'는 화자가 '대'를 보기 위해 창을 열고 본 장면이므로, 원하던 '대'를 보았음을 표현한 것이다. 반면 (다)의 '그런 선연이 있을 턱이 없다'는 원하는 동해의 일출 광경을 보지 못했음을 표현한 것이다.

430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제1수〉부터 〈제4수〉까지 모두 계절감을 활용해 '사우'의 긍정적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제1수〉는 '풍상'을 겪어도 여위지 않고 '봄빛'을 지니는 '솔'의 모습을, 〈제2수〉는 '춘광'을 마다하고 '엄상'에 혼자 피는 청고한 '국화'의 모습을, 〈제3수〉는 '눈' 속에 피어 그윽한 향기를 풍기는 '매화'의 모습을, 〈제4수〉는 '백설'이 잦은 날에도 푸르른 '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때 '풍상', '봄빛', '춘광', '엄상', '눈', '백설'은 모두 계절감이 나타난 시어로, 이를 통해 시련에 굴하지 않는 '사우'의 긍정적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① 범위 오류 ~~〈제1수〉와~~ 〈제4수〉에서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해 '사우'의 동작을 묘사하고 있다.

〈제4수〉에서는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의 모습을 '흔덕흔덕'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묘사하고 있지만, 〈제1수〉에는 음성 상징어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부재 〈제2수〉와 〈제3수〉에서는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교차하여~~ '사우'의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제2수〉와 〈제3수〉 모두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교차하여 '사우'의 모습을 부각하고 있지 않다.

③ 부재 〈제3수〉와 〈제4수〉에서는 ~~색채 대비를 통해 '사우'의 장단점을 제시하고 있다.~~

〈제4수〉에서는 흰 '백설'과 푸른 '대숲'을 대비하여 눈 속에서도 푸르른 대나무의 장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단점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제3수〉에서 '눈'과 '매화'는 '한 빛'이라고 했으므로 색채 대비가 나타나지 않으며, 매화의 단점 역시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④ 부재 〈제1수〉부터 〈제4수〉까지 모두 ~~반어적 표현을 통해~~ '사우'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1수〉부터 〈제4수〉까지 반어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431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헛짚기 (나)는 색채 대비를 통해 ~~애상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나)의 〈제4수〉에서는 흰 '백설'과 푸른 '대숲'을 대비하여 눈 속에서도 푸르른 대나무의 지조와 절개를 강조할 뿐, 애상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지는 않다.

오·오·이

① (가)는 영탄적 어조로 대상에 대한 감탄을 드러내고 있다.

(가)는 '알픈 한강슈여 뒤흔 삼각산이여' 등에서 영탄적 어조로 새 도읍에 대한 감탄을 드러내고 있다.

③ (다)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자연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다)는 '어여쁜 파란 산들이 띄엄띄엄 둘레둘레 머리를 조아리고', '흰 물줄기가 굽이굽이 골안개에 싸이었는데', '나비의 날개처럼 곰실곰실', '아침 햇발이 둥실둥실' 등에서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석굴암 밖에서 바라본 자연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432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범위 오류 ~~〈제1수〉~〈제4수〉는 모두~~ 〈제1수〉, 〈제3수〉, 〈제4수〉 의문형으로 시상을 종결함으로써, 대상에 대한 화자의 예찬적 태도를 강조하고 있군.

〈제1수〉는 '모르나니', 〈제3수〉는 '어이리', 〈제4수〉는 '하나니'와 같이 의문형으로 시상을 종결하고 있다. 그러나 〈제2수〉는 '하노라'와 같이 평서형의 문장으로 시상을 종결하고 있다.

오·오·이

① 〈제1수〉~〈제4수〉는 모두 초장에서 중심 소재를 제시하면서 시상을 시작하고 있군.

〈제1수〉의 '솔', 〈제2수〉의 '국화', 〈제3수〉의 '매화', 〈제4수〉의 '대'라는 중심 소재가 모두 각 수의 초장에 제시되어 있다.

② 〈제1수〉~〈제3수〉의 중장에는 날씨를 환기하는 시어를 배치하고 있군.

〈제1수〉는 '풍상', 〈제2수〉는 '엄상', 〈제3수〉는 '눈'이라는, 날씨를 환기하는 시어를 중장에 배치하고 있다.

③ 〈제4수〉는 중장에서 다른 대상과의 대조를 통해 중심 소재가 지닌 속성을 부각하고 있군.

〈제4수〉의 중장에서는 '온갖 꽃'과 '대'의 대비를 통해 눈 속에서도 푸르른 대나무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④ 〈제1수〉~〈제4수〉는 모두 시각적 이미지가 나타나는데, 〈제3수〉는 후각적 이미지도 나타나는군.

〈제1수〉~〈제4수〉는 모두 중심 소재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제3수〉는 매화의 '그윽한 향기'라는 후각적 이미지도 활용하고 있다.

433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주관**: 어떤 일을 책임을 지고 맡아 관리함.
- **성한**: 기운이나 세력이 한창 왕성한.

정·정·이

③ 헛짚기 '기국 성왕이 셩덕를 니르어샷다'는 조선의 개국을 송축하며 ~~임금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로군.~~

'기국 성왕이 셩덕를 니르어샷다'는 개국 성왕의 성덕을 기리고 송축하는 화자의 말이다. 임금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오·오·이

① '네는 양쥬ㅣ 쇼올히여'는 한양의 과거 지명과, '당금셩'은 한양의 현재 풍경과 관련된 것이로군.

'네는 양쥬ㅣ 쇼올히여'는 새 도성, 즉 한양의 옛 지명이 양주임을 밝히는 것이고, '지금의 경치'를 의미하는 '당금셩'은 새 도성의 풍경을 가리키는 것이다.

② '신도형승이샷다'에는 새로운 도성 건설을 주관한 작가의 자부심이 담겨 있겠군.

새로운 도읍의 경치에 대한 화자의 감탄이 드러나는 '신도형승이샷다'에서는 새로운 도성을 만들었다는 작가의 자부심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알픈 한강슈여 뒤흔 삼각산이여'는 풍수지리상 지덕이 성한 터임을 알려 주는군.

'알픈 한강슈여 뒤흔 삼각산이여'를 통해 한양이 앞에는 한강수가, 뒤에는 삼각산이 있어 풍수지리상 배산임수의 조건을 갖춘, 지덕이 성한 터임을 밝히고 있다.

⑤ '만셰를 누리쇼셔'는 궁극적으로 미래를 염두에 두고 조선 왕조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하는 것이겠군.

'만셰를 누리쇼셔'에는 임금의 만수무강과 조선 왕조의 무궁한 번영에 대한 기원이 담겨 있다.

434 답 (1) 한양 (2) 현재 (3) 셩슈만년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네는 양쥬ㅣ 쇼올히여'에서 '양쥬'는 새로운 도성인 (개경, 한양)의 과거 지명이다.

433번-①의 해설을 참고할 때, '양쥬'는 새로운 도성인 한양의 과거 지명임을 알 수 있다.

(2) 교체 '디위예 신도형승이샷다'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담겨 있다.

'디위예 신도형승이샷다'에서 화자는 새 도읍의 뛰어난 경치에 대해 감탄하고 있으므로, 이 구절에는 현재 새 도읍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3) 교체 화자는 '(셩덕, 셩슈만년)'에서 임금의 만수무강을 바라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성슈만년'은 임금의 나이가 끝이 없다는 뜻으로, 임금의 만수무강을 바라는 소망이 드러난다. '셩덕'는 '어진 임금이 다스리는 세상 또는 시대'라는 의미로 임금의 공덕을 예찬하는 표현이다.

435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절경**: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경치.
- **집약**: 한데 모아서 요약함.

정·정·이

⑤ 화자 오류 ⓜ 주위의 절경과 ~~동해의 수평선을 바라보며 신선이 된 것 같다고 느끼는 부분~~

'아침 햇발이 둥실둥실 동해를 떠나오는 광경은 정말 선경 중에서도 선경이라 하나, 화식 먹은 나 같은 속인엔 그런 선연이 있을 턱이 없다.'에서 글쓴이는 자신을 '속인'이라고 표현하면서 흐린 날씨로 인해 동해의 일출 광경을 보지 못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글쓴이가 주위의 절경과 동해의 수평선을 바라보며 신선이 된 것 같다고 느끼는 부분을 읽었다는 ⓜ은 적절하지 않은 감상이다.

오·오·이

① ㉠ 좌우 돌벽에 새긴 인왕과 사천왕의 생생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좌우 돌벽에 새긴 인왕과 사천왕이 흡뜬 눈과 부르걷은 팔뚝으로 나를 위협한다. ~ 사지는 울퉁불퉁한 세찬 근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 석가상의 온화한 얼굴을 묘사하며 그것을 바라볼 때 생기는 효과까지 제시하고

'석가의 석상은 그 의젓하고도 봄바람이 도는 듯한 화한 얼굴로 저절로 보는 이의 불심을 불러일으킨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 다양한 모습을 지닌 좌우 석벽의 보살과 나한 입상에 대한 감동을 하나의 단어로 집약하는 것

'각 간마다 보살과 나한의 입상을 병풍처럼 새겼는데 ~ 신품이란 말은 이런 예술을 두고 이름이리라.'를 통해 보살과 나한의 입상에 대한 감동을 '신품'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집약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 석굴암 천장 장치의 예술적 기교를 건축사의 위대한 업적으로 평가하는 부분

'온전히 돌이란 한 가지의 원료로 이렇도록 공교하고 굉걸하고 ~ 동양, 서양의 건축사에 가장 영광스러운 한 장을 점령할 것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436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나)는 자연물을 인격화하여 대상의 가치를 부각하고 있다.

(나)는 〈제1수〉에서 '솔'을 늠연한(위엄이 있고 당당한) 존재로 인격화하여, 〈제2수〉에서 '국화'를 '청고한(맑고 고결한) 내 벗'으로 인격화하여 그 가치를 부각하고 있다.

오·오·이

① 화자 오류 (가)는 유사한 시구를 반복하여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다.

(가)는 '잣다온뎌 당금썽 잣다온뎌'와 같이 유사한 형태의 시구를 반복하고 있으나, 화자가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② 부재 (가)는 ~~의문형 문장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가)에는 의문형 문장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대상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태도도 드러나 있지 않다. (가)의 화자는 새로운 도읍과 임금에 대해 예찬적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④ 부재 (다)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글쓴이의 인식 전환을 보여 주고 있다.~~

(다)에는 역설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글쓴이의 인식이 전환되고 있지도 않다.

⑤ 부재 (다)는 ~~자연과 인간을 대비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다)는 자연과 인간을 대비하여 정서를 표출한 부분이 없다.

52 가 다정가 나 귀뚜리 저 귀뚜리 ~ 다 쓰고 싶고 읽고 싶은 글

작품 분석 본문 200~203쪽

가 다정가

작가 이조년
갈래 평시조
주제 봄밤에 느끼는 애상적 정서
특징 ① 시각적 심상과 청각적 심상을 조화롭게 활용함.
② 선경후정의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함.
한 줄 의미
• 배꽃과 달, 자규의 소리가 어우러진 (**봄밤**)의 애상적 감흥으로 (**잠**)을 이루지 못함.

나 귀뚜리 저 귀뚜리 ~

작가 미상
갈래 사설시조
주제 임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
특징 ① 시적 화자의 감정을 자연물에 이입하여 표현함.
② 가을밤이라는 계절적, 시간적 배경을 바탕으로 임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함.
한 줄 의미
• (**귀뚜라미**)의 슬픈 울음소리에 잠을 깨어 동병상련을 느낌.

다 쓰고 싶고 읽고 싶은 글

작가 윤오영
갈래 현대 수필
주제 좋은 글의 요건
특징 ① 좋은 글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단정적으로 드러냄.
② 자문자답, 고사의 인용, 비유 등 다양한 표현 방식을 통해 주제 의식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함.
한 줄 요약
❶ (**예술**) 작품에 담긴 정신
❷ (**심안**)에 의한 글쓰기와 읽기
❸ 작자와 (**독자**)의 소통
❹ (**문인**)들이 신변잡사, 시정잡사를 쓰는 이유
❺ 사색의 글, (**여운**)이 있는 글, (**음미**)할수록 맛이 나는 글을 쓰고 싶고 읽고 싶음.

437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화자 오류 (나), (다)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나)는 가을밤에 임을 그리워하는 외로운 마음을 '귀뚜리'에 감정 이입하여 드러내고 있고, (다)는 쓰고 싶고 읽고 싶은 좋은 글이란 어떠한 글인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을 뿐,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지 않다.

오·오·이

① (가), (나)는 화자의 독백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가)의 화자는 봄밤의 애상적 정서를, (나)의 화자는 독수공방의 외로운 처지를 독백적으로 노래하고 있다.

② (나)는 동일한 시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감정을 고조시키고 있다.
(나)는 '귀뚜리'를 반복함으로써 화자의 외로운 감정을 고조시키고 있다.

④ (다)는 글쓴이의 생각을 단정적인 어조로 드러내고 있다.
(다)는 '~ㄴ/는 것이다', '~이다' 등을 통해 글쓴이의 생각을 단정적 어조로 드러내고 있다.

⑤ (가)~(다)는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체험에 바탕을 두고 있다.
(가)는 봄밤의 애상적 정서를, (나)는 가을밤에 임을 그리워하는 외로운 마음을, (다)는 좋은 글을 쓰고 싶고 읽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가)~(다) 모두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체험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38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다)는 고사를 인용하여 글쓴이의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에서는 '상강의 넋을 실어 오는 듯했다.', '백아가 있고, 또 종자기가 있는 것이 아닌가.'와 같이 고사를 인용하여 글쓴이의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다.

오·오·이

① 화자 오류 (가)는 ~~삶에 대한 회의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가)의 화자는 봄밤의 애상감을 노래하고 있을 뿐, 삶을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다.

② 화자 오류 (나)는 ~~자연물을 보고 느낀 감탄을~~ 표현하고 있다.
(나)의 화자는 '귀뚜리'에게 동병상련을 느끼고 있을 뿐, '귀뚜리'를 보고 감탄하고 있지는 않다.

439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촉매**: 어떤 일을 유도하거나 변화시키는 일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정·정·이

⑤ 헛짚기 ㉠, ㉡은 모두 ~~화자의 마음을 대상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자규(㉠)'는 화자에게 봄밤의 애상적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귀뚜리(㉡)'는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 ㉡ 모두 화자의 마음을 대상에게 전달하고 있지 않다.

오·오·이

① ㉠은 화자의 정서 변화에 촉매 역할을 한다.
아름다운 봄밤의 정경을 보고 있는 화자는 '자규(㉠)'의 울음소리로 인해 애상적 정서가 촉발되고 있다.

② ㉡은 화자가 자신의 처지를 확인하게 해 준다.
'귀뚜리(㉡)'는 화자가 자신이 독수공방의 외로운 처지임을 확인하게 한다.

③ ㉠, ㉡은 모두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자규(㉠)'는 봄밤의 애상적 정서를, '귀뚜리(㉡)'는 외로운 화자의 슬픔을 환기하며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④ ㉠, ㉡은 모두 소리로써 화자의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자규(㉠)'와 '귀뚜리(㉡)'는 모두 청각적 이미지로, 각각 화자로 하여금 애상적 정서와 외로운 정서를 느끼게 한다.

440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찬미**: 아름답고 훌륭한 것이나 위대한 것 따위를 기리어 칭송함.

정·정·이

③ ⓐ에는 '귀뚜리'를 야속해하는 심정이, ⓑ에는 자신의 마음을 달래는 심정이 드러나 있다.
(나)의 화자는 임을 그리워하다 겨우 '여윈 잠(얕은 잠)'에 든 상태였는데, '귀뚜리'는 그 잠을 '살뜰히도(ⓐ)' 깨웠다. 따라서 ⓐ에는 귀뚜리를 야속해하는 심정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화자는 곧 '두어라(ⓑ)'라며 '귀뚜리'만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준다고 여기고 있으므로, ⓑ에는 자신의 마음을 달래는 심정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범위 오류 ⓐ에는 '귀뚜리'를 찬미하는 심정이, ⓑ에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심정이 드러나 있다.
'귀뚜리'는 얕은 잠에 든 화자를 깨웠으므로 ⓐ에 '귀뚜리'를 찬미하는 심정은 드러나 있지 않다. 한편 ⓑ에는 '귀뚜리'만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도 있다.

② 화자 오류 ⓐ에는 '귀뚜리'를 연민하는 심정이, ⓑ에는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는 심정이 드러나 있다.
ⓐ에 '귀뚜리'에 대한 화자의 연민은 드러나지 않으며, ⓑ에서 화자가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있지도 않다.

④ 화자 오류 ⓐ에는 '귀뚜리'를 불신하는 심정이, ⓑ에는 자신의 슬픔을 억제하려는 심정이 드러나 있다.
ⓐ에 '귀뚜리'에 대한 화자의 불신은 드러나지 않으며, ⓑ에서 화자는 자신의 마음을 달래고 있을 뿐, 슬픔을 억제하고 있지는 않다.

⑤ 화자 오류 ⓐ에는 '귀뚜리'를 동정하는 심정이, ⓑ에는 자신의 외로움을 이겨 내려는 심정이 드러나 있다.
ⓐ에 '귀뚜리'를 동정하는 마음은 드러나지 않으며, ⓑ에서 화자가 외로움을 이겨 내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도 않다.

441 답 (1) 은한 (2) 귀뚜리 (3) 난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가)의 '(은한, 자규)'에서는 시각적 심상이 두드러진다.
(가)의 '은한'에서는 밝고 환한 시각적 심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자규'에서는 청각적 심상이 나타난다.

(2) 교체 (나)의 '(귀뚜리, 새는 밤)'에서는 청각적 심상이 두드러진다.
(나)의 '귀뚜리'에서는 청각적 심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새는 밤'에서는 시각적 심상이 나타난다.

(3) 교체 (다)에서 옛 사람들은 선비의 맑은 인격이라는 추상적 요소를 '(난, 매화)'을/를 통해 표현하였다고 하였다.
(다)의 '옛 사람이 높은 선비의 맑은 향기를 그리려 하되, 향기가 형태 없기로 난을 그렸던 것이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매화'를 통해 표현한 것은 아리따운 여인의 빙옥 같은 심정이라고 하였다.

442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촉발**: 어떤 일을 당하여 감정, 충동 따위가 일어남. 또는 그렇게 되게 함.

정·정·이

④ 헛짚기 (나)의 '귀뚜리'는 '미물'이지만 화자가 현실에서 부딪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나)의 '귀뚜리'는 '미물'이지만 '무인 동방의 내 뜻'을 알아주는 존재로, 화자가 동병상련을 느끼는 대상이다. 그러나 화자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뚜리'가 이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가), (나)는 모두 자연물에서 촉발된 화자의 정서를 노래하고 있다.

(가)는 '이화', '월백', '자규' 등에서, (나)는 '귀뚜리'의 울음소리에서 촉발된 정서를 노래하고 있다.

② (가)의 '월백'과 (나)의 '지는 달'은 모두 시간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가)의 '월백'과 (나)의 '지는 달'은 모두 밤하늘의 달을 의미하므로, 시간적 배경을 드러낸다.

③ (가)의 '일지춘심'은 '이화'나 그것을 바라보는 화자의 마음을 가리킨다.

'일지춘심'은 한 나뭇가지에 어려 있는 봄기운을 의미하므로, '이화'나 그것을 바라보는 화자의 마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⑤ (가)의 화자는 '다정'으로 인해 '잠'에 들지 못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잠'에서 깨어나 '슬픈' 감정을 느끼고 있다.

(가)의 화자는 '다정'도 병인 양하여 '잠'에 들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나)의 화자는 자신의 잠을 깨운 '귀뚜리'의 울음을 '슬픈 소리'로 인식하는 것으로 볼 때, '잠'에서 깨어나 '슬픈'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43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필법**: 동양화나 서예에서 붓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리키는 미술 용어.

정·정·이

③ 배 위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장면을 그려 탈속적 정신세계를 표현하고 있군.

[A]의 관점에 따르면, 예술은 형태가 없는 추상적인 것들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형태가 없는 '탈속적 정신세계'를 '배 위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장면'으로 표현하였다는 ③이 [A]의 관점에 따른 감상으로 적절하다.

오·오·이

① 헛짚기 ~~대나무 가지들이 배를 향해 뻗은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군.~~

'대나무 가지'라는 형태가 있는 대상을 그린 것에 주목한 감상이므로 [A]의 관점과는 거리가 멀다.

② 헛짚기 ~~강과 산과 하늘의 경계를 두지 않은 독특한 필법(筆法)을 구사하고 있군.~~

④ 헛짚기 ~~인물 뒤로, 가는 선의 폭포와 새 한 마리를 그려 배경을 간략하게 처리하고 있군.~~

⑤ 헛짚기 ~~배와 인물을 중심에 두고 대나무와 폭포를 수직으로 배치하여 안정감을 주고 있군.~~

②, ④, ⑤는 모두 그림의 여러 표현 방법에 주목한 감상으로 [A]의 관점과 관련이 없다.

정·오 지름길

• 다음은 「주상탄금도(舟上彈琴圖)」라는 그림이다. ~~[A]의 관점에 따라 감상한 것은?~~

글의 내용을 그림 자료에 적용하는 문제예요. 선지의 내용이 그림의 특징과 일치하는지 판단하느라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나요? 이 문제의 핵심은 '[A]의 관점에 따라 감상한 것'이에요. 그러니 [A]의 관점, 즉 예술은 형태가 없는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하는 것이라는 내용에 주목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이렇게 지문의 특정 부분을 기준으로 하는 문제는, 제시된 부분의 핵심을 파악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444 답 ㄱ, ㄷ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ㄱ. 예술이란 형태가 없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A]에서는 선비의 맑은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 난을 그리고, 여인의 빙옥 같은 심정을 나타내기 위해 매화를 그리는 것과 같이 형태가 없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예술이라고 하였다.

ㄷ. 옛 사람은 '대'를 그림으로써 서릿발 같은 불굴의 기개를 형상화하고자 하였다.

[A]의 '한 폭 대를 그리면 늠름한 장부, 불굴의 기개가 서릿발 같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오·이

ㄴ. 헛짚기 옛 사람은 ~~풍요로운 가을에 대한 기대를~~ '갈대'를 그림으로써 형상화하였다.

'갈대를 그리면 가을이 오고'라고 하였으나, 이는 가을을 갈대로서 형상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풍요로운 가을에 대한 기대를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없다.

ㄹ. 헛짚기 ~~'신기'를 얻은 사람이 '돌'을 그릴 때에만~~ 고박한 음향이 그윽하게 풍기는 그림이 완성된다.

'돌을 그리면 고박한 음향이 그윽하니, 신기가 아니고 무엇인가.'는 '돌'을 그림으로써 고박한 음향이 느껴지게 하는 예술의 경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는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하는 예술의 속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 '신기'를 얻은 사람이 '돌'을 그릴 때에만 고박한 음향이 그윽하게 풍기는 그림이 완성됨을 이르는 것이 아니다.

445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오상고절**: 서릿발이 심한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외로이 지키는 절개라는 뜻으로, '국화'를 이르는 말.
- **굳건한**: 뜻이나 의지가 굳세고 건실한.
- **주체**: 짐스럽거나 귀찮은 것을 능히 처리함.

정·정·이

③ 화자 오류 〈보기〉에서는 '동풍'이 불어오는 '삼월'이, (가)에서는 '은한'이 기우는 '삼경'이 화자가 ~~대상과 이별하는~~ 시간적 배경으로 제시되어 있다.

〈보기〉의 '삼월'과 (가)의 '삼경'은 모두 시간적 배경이라 할 수 있지만, 화자가 대상과 이별하는 시간은 아니다. 〈보기〉에서 '동풍'이 불어오는 '삼월'은 '낙목한천'과 대비되어 꽃을 피우기 좋은 계절을, (가)에서 '은한'이 기우는 '삼경'은 애상적 분위기가 느껴지는 봄밤을 나타낸다.

오·오·이

① 〈보기〉의 '네 홀로'에는 다른 꽃들과 대조되는 국화의 속성이 드러나 있다.

〈보기〉에서 '낙목한천'에 '네 홀로' 핀 국화는 '삼월 동풍'에 피는 다른 꽃들과 대조되며, 겨울에도 굽히지 않는 절개를 지녔음이 드러난다.

② (가)에서는 밝은 달빛을 받는 '이화'에서 환기된 화자의 정서가 '자규'를 통해 심화되고 있다.

밝은 달빛을 받는 '이화'에서 느끼게 된 화자의 애상감은 '자규'를 매개로 더욱 심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④ 〈보기〉의 '오상고절'에는 굳건한 절개가, (가)의 '다정'에는 애상적 정서가 표현되어 있다.

〈보기〉의 '서릿발이 심한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홀로 외로이 지키는 절개'라는 뜻의 '오상고절'에서는 국화의 굳건한 절개가 드러난다. (가)의 '정(느끼어 일어나는 마음)이 많음.'을 뜻하는 '다정'에는 아름다운 봄밤의 분위기와 자규의 울음소리로 인해 촉발되는 애상적 정서가 담겨 있다.

⑤ 〈보기〉의 '너뿐인가 하노라'에는 대상을 예찬하는 화자의 태도가, (가)의 '잠 못 들어 하노라'에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보기〉의 화자는 '오상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라며 국화를 예찬하고 있고, (가)의 화자는 봄밤의 애상적 감흥으로 인해 '잠 못 들'고 있다.

53 가 산민육가 나 유산가 다 산정무한

작품 분석 본문 204~207쪽

가 산민육가

작가 이홍유
갈래 연시조
주제 자연에서 유유자적하는 삶의 만족감
특징 ① 대조적 의미의 시어, 의인법 등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함.
② 자연에 묻혀 지내는 화자의 고독감이 드러남.

한 줄 의미

1. (공명)과 부귀를 멀리하며 자연에서 한가하게 지냄.
2. 세상을 잊고 자연을 (벗) 삼아 혼자 지냄.
3.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해 자연을 벗 삼아 묻혀 지냄.
4. 초야에 오랫동안 묻혀 있어 임금의 (은혜)를 갚기 어려움.

나 유산가

작가 미상
갈래 잡가
주제 봄 경치의 완상과 예찬
특징 ① 한자어와 우리말을 혼용함.
② 대구법, 비유법 등 다양한 표현법을 사용하여 봄 경치를 표현함.
③ 의성어와 의태어를 다채롭게 사용하여 자연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묘사함.

한 줄 의미

1. 화려한 (봄) 경치를 구경하고 그 아름다움을 예찬함.
2. 봄을 맞이한 자연의 역동적이고 아름다운 경치를 (예찬)함.

다 산정무한

작가 정비석
갈래 현대 수필
주제 금강산의 아름다움
특징 ① 현재형의 진술을 통해 생생한 느낌을 전함.
② 풍경을 묘사한 후 그에 대한 글쓴이의 감상을 덧붙임.
③ 대구법, 직유법, 의인법 등을 사용하여 화려한 문체로 서술함.

한 줄 요약

1. (망군대)에서의 조망
2. 옛글과 유사한 (마하연사)의 모습과 (남포등) 불빛에 떠올리는 옛 기억

446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나)와 (다)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유상앵비는 편편금이요, 화간접무는 분분설이라', '층암절벽상의 폭포수는 콸콸, 수정렴 드리운 듯' 등에서 비유적 표현을 통해 봄의 아름다운 경치를 예찬하고 있다. 그리고 (다)는 '우러러보는 단풍이 새색시 머리의 칠보단장

~ 붉은 치마폭 같다고나 할까.' 등에서 비유적 표현을 통해 금강산의 아름다운 풍경에 대한 감탄을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① 범위 오류 (가)와 (나)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높이고 있다.
(나)는 '콸콸, 주루루룩, 쏠쏠' 등의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폭포수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나타내고 있으나, (가)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② 범위 오류 (가)와 (다)는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지향하는 가치를 밝히고 있다.
(가)는 속세에 있던 과거와 자연 속에 머무는 현재를 대비하여 자연 속에서의 한가로운 삶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나)에서는 과거와 현재를 대비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③ 부재 (가)와 (다)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어휘를 반복하여 대상의 역동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가)는 '몸', '혼자', '벗' 등의 어휘를, (다)는 '단풍'과 같은 어휘를 반복하고 있으나 이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어휘가 아니므로, 이를 통해 대상의 역동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부재 (나)와 (다)는 어조의 변화를 통해 화자나 글쓴이의 심리 변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나)와 (다) 모두 어조가 변화하지 않으며, 그에 따른 화자와 글쓴이의 심리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다.

447 답 (1) 산림 (2) 수정렴 (3) 예찬적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유보적: 어떤 일을 당장 처리하지 아니하고 나중으로 미루어 두는. 또는 그런 것.

정·정·이

(1) 상반 (가)의 화자는 현재 '(산림, 홍진)'에서 지내고 있다.
(가)의 〈제5수〉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는 '홍진'이 가려진 '산림'에서 지낸 지 오래되었다.

(2) 교체 (나)에서는 폭포수가 쏟아지는 모습을 '(수정렴, 은옥)'에 빗대었다.
(나)의 '층암절벽상의 폭포수는 콸콸, 수정렴 드리운 듯'에서는 폭포수가 쏟아지는 모습을 '수정렴'에 빗대어 표현하였다. '은옥'은 '흐르는 물결이 은옥같이 흩어지니'에서 알 수 있듯이 흐르는 물결을 빗댄 표현이다.

(3) 교체 (다)에서 글쓴이는 '산'에 대해 (예찬적,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의 '산은 언제 어디다 이렇게 많은 색소를 간직해 두었다가, 일시에 지천으로 내뿜는 것일까?'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글쓴이는 '산'에 대해 예찬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448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나)와 (다)는 시선의 이동을 통해 대상에 대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나)는 '만산 홍록', '층암절벽상의 폭포수', '일출낙조' 등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봄을 맞은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에 대한 예찬을 드러내고 있다. (다)는 '단풍', '연화담 수렴폭', '백마봉', '비로봉', '황천 계곡' 등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글쓴이가 느끼는 아름다운 금강산의 풍경에 대한 감동을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① 상반 (가)와 (나)는 감정을 절제하는 표현을 통해 화자의 감흥을 전달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드러내어
(가)는 '좋아하노라', '내 벗인가 하노라' 등에서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여 자연에서 지내는 화자의 감정을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다. (나)는 '좋을씨고'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봄 경치에 대한 화자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② 범위 오류 (가)와 (나)는 대구의 방법을 활용하여 대상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다.
(나)는 '유상앵비는 편편금이요, 화간접무는 분분설이라', '주곡제금은 천고절이요, 적다정조는 일년풍이라' 등에서 대구의 방법을 활용하여 아름다운 봄의 경치를 구체화하고 있다. 그러나 (가)는 대구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③ 범위 오류 (가)와 (다)는 대립적 시어를 통해 화자가 처한 상황을 환기하고 있다.
(가)는 '산수 간, 청풍명월, 산림' 등과 같이 자연을 나타내는 시어와, '공명부귀, 세상의 시시비비, 십장 홍진' 등과 같이 속세를 나타내는 시어의 대립을 통해, 속세를 떠나 자연에 머무르는 화자의 상황을 환기하고 있다. 그러나 (다)에서는 대립적 시어를 통해 화자가 처한 상황을 환기하고 있지 않다.

④ 헛짚기 (나)와 (다)는 자연물의 묘사를 통해 계절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나)와 (다)는 자연물의 묘사를 통해 각각 봄과 가을이라는 계절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계절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449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퇴락**: 낡아서 무너지고 떨어짐.

정·정·이

⑤ 헛짚기 ⓜ: 마하연 여사의 퇴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은 마하연 여사의 퇴락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마하연 여사가 산중에 있어 찾는 사람이 드문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오·오·이

① ㉠: 속세와 거리를 둔 처지임을 나타내고 있다.

번거롭고 속된 세상을 의미하는 '십장 홍진'이 가렸다는 것은 화자가 속세와 거리를 둔 처지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② ㉡: 아름다운 경치를 보러 갈 것을 권유하고 있다.

화자가 '벗님네'에게 구경 가자고 권유하고 있는 '산천경개'는 아름다운 자연의 경치를 의미하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③ ㉢: 꽃이 활짝 피어난 봄의 계절감을 부각하고 있다.

'만산 홍록'은 붉고 푸른 것이 온 산에 가득하다는 뜻으로, 꽃이 활짝 피어난 봄의 계절감을 부각하고 있다.

④ ⓔ: 주위의 단풍과 물아일체가 된 심정을 제시하고 있다.

글쓴이는 자신의 다리는 줄기가, 팔은 가지가 되고, 피부는 단풍으로 물들어 버린 것 같다고 표현하며, 산속의 단풍과 하나가 된 것 같은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450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상반 (가)에서 '십장 홍진'은 '청풍명월'과 유사한 의미의 시어이다.
상반된

(○, ⊗)

(가)에서 '십장 홍진'은 '열 길이나 되는 붉은 티끌'이라는 의미로 속세를 의미하는 시어이다. 이와 달리 '청풍명월'은 화자가 벗 삼는 대상으로 자연을 의미한다.

(2) 화자 오류 (나)에서 화자는 '벗님네'에게 연민을 느끼고 있다.

(○, ⊗)

(나)의 화자는 '때 좋다 벗님네야, 산천경개를 구경을 가세.'라고 하며 '벗님네'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즐길 것을 권유하고 있다. 따라서 '벗님네'에게 연민을 느끼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화자 오류 (다)에서 글쓴이는 망군대에서 바로 마하연사로 이동하였다.

(○, ⊗)

글쓴이는 망군대에서 마하연의 여사로 이동하여 여장을 푼 후, 마하연사를 찾아갔다.

451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여정**: 여행의 과정이나 일정.

정·정·이

② ⓑ: 망군대에서 바라본 풍경에 대한 소감을 드러내고 있다.

글쓴이는 망군대에 올라서 일망무제로 탁 트인 풍경을 바라보며 천하가 광활하고 웅장하고 숭엄하다는 소감을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 연화담과 수렴폭을 그린 그림을 감상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는 연화담과 수렴폭이 마치 그림처럼 아름답다는 의미이다. 글쓴이가 그림을 감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헛짚기 ⓒ: 백마봉에서 비로봉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다른 여정에 비해 간략하게 묘사하고 있다.

ⓒ는 망군대에서 백마봉과 비로봉이 매우 가깝게 보인다는 의미일 뿐, ⓒ에 백마봉에서 비로봉으로 이동하는 과정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④ 화자 오류 ⓓ: 마하연 여사에서 일행의 발언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고, 그에 공감하는 뜻을 드러내고 있다.

일행인 문 형이 "남포등은 참말 오래간만인데."라고 말하는 말씨가 따뜻하다고 여기고, 장난삼아 심지를 돋우었다 줄였다 하는 것에서 글쓴이가 문 형의 말에 공감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글쓴이가 문 형의 말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

⑤ 화자 오류 ⓔ: 마하연 여사에서 과거를 회상하며 여정을 계속하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마하연 여사에서 '그리운 얼굴들'이 떠돌았다고 하며 과거를 회상하고 있으나, 여정을 계속하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452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풍광: 산이나 들, 강, 바다 따위의 자연이나 지역의 모습. = 경치.

정·정·이

② 헛짚기 (가)의 '조그만 이내 몸'은 자연 속에서 ~~심리적 위안이 필요한 속세에서의~~ 화자의 모습을 일컫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가)의 〈제2수〉에서 '조그만 이내 몸'은 '청풍명월을 벗 삼'은, 즉 자연 속에서 생활하는 화자가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한 것이다. 자연 속에서 심리적 위안이 필요한, 속세에서의 화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오·이

① (가)의 '공명부귀'는 화자가 관직에 나아가 이룰 수 있는 세속적 가치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군.

(가)의 '공명부귀'는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으며 공을 세워 이름을 떨침.'을 이르는 것으로, 화자가 관직에 나아가 이룰 수 있는 세속적 가치를 의미한다.

③ (가)의 '내 벗인가 하노라'는 화자가 자연물과 조화를 이루는 친밀감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가)의 〈제4수〉에서 화자는 '송죽'을 '벗'이라고 하고 있다. 이는 화자가 자연물과 조화를 이루는 생활을 하며 친밀감을 느끼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나)의 '무릉도원이 예 아니냐'는 화자가 자연을 이상향의 이미지와 연결시켜 이상적인 유흥의 공간으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보기〉에서 잡가의 자연은 감각적 흥을 극대화한 이상적인 유흥의 공간으로 형상화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나)의 화자는 봄의 아름다운 경치를 이상향인 '무릉도원'의 이미지와 연결시켜 이상적인 유흥의 공간으로 형상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⑤ (나)의 '경개 무궁 좋을씨고'는 화자가 아름다운 풍광을 통해 감각적 흥을 느끼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군.

(나)의 '경개 무궁 좋을씨고'는 화자가 봄의 아름다운 풍광을 보며 느낀 감각적 흥을 나타낸 표현이다.

453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헛짚기 (가)에서 '시시비비'는 ~~사대부들이 자연 속에서 받은 심리적 위안을 의미한다.~~

(가)의 〈제2수〉에서 화자는 청풍명월을 벗 삼아 자연 속에 있으면서 세상의 '시시비비'를 몰라 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시시비비'는 속세와 관련 있는 것이므로, 사대부들이 자연 속에서 받은 심리적 위안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오·이

② (가)에서 '늙고 병든 몸'은 관직에 오르지 못했거나 관직에서 물러난 사대부의 처지와 관련된다.

(가)의 〈제5수〉에서 '늙고 병든 몸'을 세상이 버렸다고 하였는데, 이는 〈보기〉에 언급된 관직에 오르지 못했거나 관직에서 물러나 자연에 귀의한 사대부의 처지를 드러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③ (나)의 '산천경개를 구경을 가세'에서는 자연을 즐기려는 유흥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보기〉를 통해 (나)의 자연은 감각적 흥을 극대화한 이상적인 유흥의 공간으로 형상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산천경개를 구경을 가세'에서는 자연을 즐기려는 유흥적인 태도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454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마하연사의 고즈넉한 분위기와 그곳에 대한 인상을 드러내려는

글쓴이가 [A]를 인용하고 '옛글 그대로다.'라고 한 것을 고려할 때, 글쓴이는 [A]를 인용함으로써 전개상의 단조로움을 피하고, 마하연사에서 느낀 고즈넉한 분위기와 그곳에 노승이 많다는 인상을 전달하고자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오·오·이

② 화자 오류 마하연사에서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얻은 깨달음을~~ 독자에게 알리려는

글쓴이가 마하연사에서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헛짚기 ~~마하연사의 건립 이념과~~ 마하연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절인지 소개하려는

마하연사가 승려들이 불경을 공부하는 선원임은 알 수 있으나, 마하연사의 건립 이념은 확인할 수 없다.

④ 화자 오류 마하연사가 깊은 산속에 자리 잡아 ~~방문하는 데에 고생이 많았음을 나타내려는~~

글쓴이가 마하연사에 방문하는 데 고생이 많았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화자 오류 마하연사에 종교적 교리를 익히기 위해 애쓰는 훌륭한 승려가 많음을 ~~과시하려는~~

글쓴이는 마하연사에 불경 공부하는 승려들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이를 과시하는 않았다.

54 가 성산별곡 나 독자왕유희유오영 다 신록 예찬

작품 분석 본문 208~211쪽

가 성산별곡

작가 정철
갈래 가사
주제 성산의 사계절 풍경과 식영정 주인의 풍류 예찬
특징 ① 한자어의 사용이 두드러짐.
② 체험에서 우러난 전원생활의 흥취와 작가의 개성이 잘 드러남.
한 줄 의미
❶ 주인의 청한한 삶과 성산의 (**봄**) 정경
❷ 세속을 떠난 (**신선**) 같은 주인의 삶

나 독자왕유희유오영

작가 권섭
갈래 연시조
주제 벗들에게 산수 유람을 권유하며 풍류를 즐기리라 다짐함.
특징 ① 각 수마다 화자가 전환되면서 시상을 전개함.
② 풍류적 태도가 드러남.
③ 일상적인 시어로 당시의 생활상을 보여 줌.
한 줄 의미
❶ 벗들에게 (**남산**)에 놀러 갈 것을 권함.
❷ 벗이 놀러 가기를 (**거절**)함.
❸ 또 다른 (**벗**)에게 놀러 갈 것을 권함.
❹ 또 다른 (**벗**)이 놀러 가기를 거절함.
❺ (**혼자**)서라도 놀러 가겠다는 포부를 다짐.

다 신록 예찬

작가 이양하
갈래 현대 수필
주제 신록의 아름다움 예찬
특징 ① 명상적인 삶의 태도와 자연에 몰입하는 자연 친화적인 삶의 태도가 나타남.
② 비유와 대조를 통해 표현의 묘미를 살리고 주제 의식을 드러냄.
한 줄 요약
❶ '나'는 솔밭 사이의 (**소나무**) 그루터기에서 자연을 즐기기를 좋아함.
❷ '나'는 (**사람**) 사이에서 사는 것이 좋은 평범한 사람임.
❸ '나'는 (**신록**)의 매력에 매료됨.

455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가)와 (다)는 대상들의 속성을 대비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삶을 드러내고 있다.
(가)는 자연을 벗 삼아 지내는 한가롭고 소박한 삶과 변화무쌍하고 험난한 세상일을 대비하여, 세속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욕심 없이 지내는 삶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다)는 신록이 산과 언덕을 덮는 때를 맞이하여 아름다운 자연과 돈, 지위, 명예 등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세속적인 욕망을 대비하여, 순수한 자연과 동화되는 삶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가)와 (나)는 ~~선경후정의 방식으로 화자의 애상적 정서를 고조하고 있다.~~
(가)와 (나)에는 모두 선경후정의 방식이 나타나 있지 않으며 화자의 애상적 정서도 나타나 있지 않다.

③ 부재 (나)와 (다)는 ~~시간적 배경에 의미를 부여하여 삶의 무상함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는 시간적 배경이 드러나 있지 않으며, 산수를 구경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삶의 무상함과도 관련이 없다. (다)에는 신록의 계절인 봄이라는 시간적 배경이 드러나 있으나, 신록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으므로 삶의 무상함과는 거리가 멀다.

④ 부재 (가)~(다)는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환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가)~(다) 모두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통한 환상적 분위기도 조성되지 않는다.

⑤ 범위 오류 ~~(가)~(다)~~ (나)는 과거의 기대와 다른 현재의 모습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제1수〉에서 화자가 벗들과 남산에 구경 가기로 약속한 것을 알 수 있는데, 벗들의 거절로 약속이 깨짐에 따라 화자는 아쉬움을 느끼며 혼자라도 구경을 가겠다고 한다. 한편 (가), (다)에는 과거의 기대와 다른 현재의 모습에 대한 아쉬움이 나타나지 않는다.

456 답 (1) 외씨 (2) 남산 (3) 사람 사이에서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가)의 '(외씨, 죽장)'은/는 계절적 배경이 봄임을 나타내는 시어이다.
봄이 되어 양지에 뿌리는 '외씨'는 계절적 배경이 봄임을 나타내는 시어이다. '죽장'은 계절적 배경과는 관련이 없다.

(2) 교체 (나)에서 〈제1수〉의 화자는 '벗님네'들에게 (남산, 곡성)에 놀러 가기로 약속했던 일을 상기시키고 있다.
(나)의 〈제1수〉에서 화자는 '벗님네 남산에 가세 좋은 기약 잊지 마오'라며 남산에 가기로 했던 약속을 상기시키고 있다. '곡성'은 〈제2수〉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와 '벗님네'가 이미 다녀온 곳이다.

(3) 상반 (다)에서 글쓴이는 자신이 (군속을 떠나, 사람 사이에서) 사는 것을 즐기는 평범한 사람이라 생각한다.

(다)의 2문단에서 글쓴이는 '물론 나에게 멀리 군속을 떠나 고고한 가운데 처하기를 원하는 선골이 있다거나 ~ 사람을 싫어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뒤 '나는 역시 사람 사이에 처하기를 즐거워하고'라고 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57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칭송**: 칭찬하여 일컬음. 또는 그런 말.

정·정·이

④ [B]와 달리, [A]의 화자는 특정한 인물을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A]의 화자는 '주인'을 '장공에 뜬 학'이라는 자연물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반면 [B]에는 인물을 자연물에 빗댄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오·오·이

① 범위 오류 [A]의 '손'은 '주인'과, ~~[B]의 '우리'는 '미친 사람'과~~ 일체감을 느끼고 있다.

[A]에서는 '손인지 주인인지 다 잊어버렸구나'에서 알 수 있듯이 '손'은 '주인'과 일체감을 느끼고 있다. 반면 [B]의 '우리'는 '미친 사람'에게 '어제 곡성 보고 또 어디를 가자는 말인고'라며 비판하고 있을 뿐, 일체감을 느끼고 있지 않다.

② 범위 오류 [A]의 '손'은 '주인'을, ~~[B]의 '우리'는 '미친 사람'을~~ 칭송하는 태도를 보인다.

[A]에서 '손'은 '주인'을 '이 골의 진선'이라며 칭송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B]의 '우리'는 '미친 사람'을 비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③ 범위 오류 [A]의 '주인'과 ~~[B]의 '미친 사람'은~~ 속세를 떠나 자연에 은거하고 있는 사람이다.

[A]의 '주인'은 속세를 떠나 자연에 은거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B]의 '미친 사람'은 자연에서 유희를 즐기고 싶은 사람일 뿐, 자연에 은거하고 있지 않다.

⑤ 헛짚기 ~~[A]와 달리~~, [B]의 화자는 ~~부정적인 현실의 모습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A]에서 화자는 '주인'을 칭송하고 있을 뿐, 부정적인 현실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B]의 화자는 '미친 사람'을 비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이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458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초연했던**: 어떤 현실 속에서 벗어나 그 현실에 아랑곳하지 않고 의젓했던.

정·정·이

④ 화자 오류 '손'과 '주인'이 어울려 '풍입송'을 연주하는 장면에서 ~~화자의 소외감이 심화되고 있다.~~

(가)에서 화자인 '손'과 '주인'이 어울려 거문고를 타며 '풍입송'을 즐기는 모습은 자연을 즐기며 한가로운 풍류 생활을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 장면에서 두 사람은 서로 어울려 지내고 있으므로 화자가 소외감을 느끼거나 화자의 소외감이 심화된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화자는 '한기'에서 '성현', '호걸'과 같은 역사적 인물들을 헤아려 보고 있다.

'한기를 쌓아 두고 / 만고 인물을 거슬러 헤아리니 / 성현도 많거니와 호걸도 많고 많다'를 통해 화자가 '한기'를 읽으며 '성현', '호걸'과 같은 역사적 인물들을 헤아려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시운'이 '일락배락' 하는 것에서 화자는 역사의 영광과 고난을 깨닫고 있다.

화자는 역사 속의 인물을 떠올리며 '시운'이 '일락배락' 하는 것, 즉 시대의 운이 흥했다가 망했다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있으므로, 역사의 영광과 고난을 깨닫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고사를 들어 '고불'의 '조장'이 높다고 하면서 화자는 세상에 초연했던 '고불'의 인생관을 긍정하고 있다.

박 소리를 핑계로 세상에 나가지 않았던 '고불'의 행동을 '조장'이 높다고 하는 것에서, 화자가 세상에 초연했던 '고불'의 인생관을 긍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화자는 '손'의 말을 빌려 '주인'을 '진선'에 비유하며 '주인'의 흥취 있는 삶을 흠모하고 있다.

'그대 그인가 하노라'라는 '손'의 말은 '주인'이 '이 골의 진선'이라는 것으로, 자연을 즐기는 '주인'의 삶이 신선의 삶과도 같다는 의미이다. 이를 통해 '손', 즉 화자가 '주인'의 흥취 있는 삶을 흠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59 답 ㄱ, ㄷ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ㄱ. (가)의 '도화 핀 시내 길'은 한가로운 자연을 나타내는 공간이다.

화자는 '도화 핀 시내 길', 즉 복숭아꽃이 핀 길을 따라 걸을 채비를 하며 한가로운 자연을 즐기고자 하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ㄷ. (가)의 '세사', (나)의 '중시 급제'는 모두 세속적 가치와 관련이 있다.

(가)의 '세사는 구름이라 험하기도 험하구나'라는 구절을 통해 '세사'는 세속적 삶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나)의 '중시 급제'는 과거 급제로, 세속적 가치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오·오·이

ㄴ. 헛짚기 (나)에서 '승유편'을 짓는 것은 ~~입신양명을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

'승유편'은 즐겁게 잘 놀았던 일을 적은 글로, 풍류의 기록이지 입신양명을 위한 노력과는 거리가 멀다.

460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구도적**: 진리나 종교적인 깨달음의 경지를 구하는. 또는 그런 것.
- **불가피하다**: 피할 수 없다.

정·정·이

④ 화자 오류 글쓴이는 '조화'라는 ~~자연의 이치를 탐구하며 구도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다)의 글쓴이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예찬하고 즐길 뿐, 자연의 이치를 탐구하거나 깨달음을 구하고 있지는 않다.

오·오·이

① 글쓴이는 '특권'이라는 표현을 쓰며 자연을 누리는 기쁨과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글쓴이는 소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하늘을 보는 시간을 '특권'이라 표현하며 자연을 누리는 기쁨과 만족감을 표출하고 있다.

② 글쓴이는 '기쁨의 노래'라는 표현을 통해 신록이 뒤덮은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기쁨의 노래'는 신록이 가득한 계절의 속성을 글쓴이가 자연으로부터 얻는 기쁨과 관련지어 표현한 것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이 두드러지는 표현이다.

③ 글쓴이는 '아니할 수 없게 된다'에서 자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아니할 수 없게 된다'는 수동 표현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거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일임을 드러내고 있다.

⑤ 글쓴이는 '한가지로 숨 쉬고 느끼고 노래하고 싶은 마음'을 통해 자연과 동화되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풀과 나무와 하늘과 바람과 한가지로 숨 쉬고 느끼고 노래하고 싶은 마음'에서 자연과 동화되고 싶은 글쓴이의 태도가 드러난다.

461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극적**: 극의 특성을 띤.
- **가미**: 본래의 것에 다른 요소를 보태어 넣음.

정·정·이

④ 헛짚기 〈제3수〉의 종장과 〈제4수〉의 초장에서는 ~~일상적 관용 어구를 사용하여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제3수〉의 종장은 자연을 즐기다 돌아와 승유편을 지어 후세에 남기겠다는 내용으로, 일상적 관용 어구가 사용되지 않았고 엄숙한 분위기도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제4수〉의 초장은 숨차고 오금이 아파 놀이를 갈 힘이 없다고 말하는 내용으로, 일상적 관용 어구가 사용되지 않았고 엄숙한 분위기도 나타나지 않는다.

오·오·이

① 〈제1수〉에서 〈제5수〉까지 화자를 바꿔 가며 극적 요소를 가미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보기〉를 참고할 때, (나)는 〈제1수〉부터 〈제5수〉까지 화자를 바꿔 가며 극적인 대화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수〉의 요청과 〈제2수〉의 불응, 〈제3수〉의 요청과 〈제4수〉의 불응이 반복되어 서로의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1수〉와 〈제3수〉에서는 작자가 벗들에게 남산에 놀이를 가자고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제2수〉의 벗은 과거 급제를 이유로, 〈제4수〉의 벗은 고단함을 이유로 들며 이러한 요청을 거절하고 있다.

③ 〈제1수〉의 화자의 의도를 〈제5수〉에서도 드러내면서 주제를 강조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제1수〉에서 화자는 '자네가 아니 간다면 내 혼자인들 어떠리'라며 놀이를 가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제5수〉에서 '남이 말한다고 아니 보랴'를 통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다.

⑤ 〈제4수〉의 중장과 종장에서는 생활 속 삶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제4수〉의 중장과 종장에는 편안한 집에서 자식들의 재롱을 즐기는 생활 속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462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화자 오류 〈제2수〉의 화자는 ~~〈제4수〉에서 산수 유람 제안을 한 번 더 거절하고 있다.~~ (○, ⊗)

〈제2수〉와 〈제4수〉의 화자는 모두 산수 유람 제안을 거절하고 있지만,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두 화자는 서로 다른 인물이다.

(2) 〈제4수〉의 화자는 산수 유람을 가는 대신 집에서 자식들의 재롱을 즐기고자 한다. (⊙, ×)

〈제4수〉의 '배 위에 아기들을 치켜올리며 사랑해 보려 하노라'라는 구절로 볼 때, 화자는 산수 유람을 가는 대신 집에서 자식들의 재롱을 즐기려함을 알 수 있다.

(3) 〈제5수〉의 화자는 혼자라도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

〈제5수〉의 화자는 '벗이야 있고 없고 남들이 웃거나 말거나' 혼자라도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고 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463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과업**: 꼭 하여야 할 일이나 임무.
- **망연하여라**: 아무 생각이 없이 멍하여라.

정·정·이

④ 범위 오류 ㉠의 '할 일'은 ~~'산옹'이 세상을 위해 해야 할 과업이고,~~ 〈보기〉의 '잔등 돋워'는 '나'가 자신을 위해 해야 할 일이다.

〈보기〉의 '잔등 돋워'는 등불의 심지를 돋워 다시 밝게 하는 행위로, 잠이 오지 않는 밤에 불을 밝히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것이므로 화자 자신을 위해 해야 할 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의 '할 일'은 '산옹'의 한가로운 생활을 뜻하는 것으로, 세상을 위해 해야 할 과업과는 거리가 멀다.

오·오·이

① ㉠의 '매창'과 〈보기〉의 '창'은 모두 '산옹'과 '나'가 각각 머물고 있는 곳의 안과 밖을 연결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의 '매창'은 방 안에서 잠을 자던 '산옹'이 방 밖의 '아침볕'과 '향기'를 느끼게 한다. 그리고 〈보기〉의 '창'은 방 안에서 홀로 잠들지 못하는 '나'가 방 밖의 '굵은 빗소리'를 듣게 한다. 따라서 '매창'과 '창'은 모두 안과 밖을 연결하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의 '아침볕'은 '산옹'이 맞고 있는 아침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보기〉의 '기러기 우는 밤'은 '나'가 지새고 있는 밤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의 '아침볕'은 '산옹'이 맞이하는 아침의 분위기를, 〈보기〉의 '기러기 우는 밤'은 '나'가 잠 못 들고 지새는 밤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③ ㉠의 '향기'는 '산옹'의 잠을 깨우는 역할을 하고, 〈보기〉의 '굵은 빗소리'는 '나'가 잠들지 못하는 데 영향을 주고 있다.

㉠에서 '산옹'은 '향기'에 잠을 깼다고 하였고, 〈보기〉에서 '나'는 '굵은 빗소리'에 더욱 망연하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⑤ ㉠의 '곧 없지도 아니하다'에서는 '산옹'의 생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드러나고, 〈보기〉의 '더욱 망연하여라'에서는 '나'의 처지에 대한 애상감이 드러나 있다.

㉠의 '곧 없지도 아니하다'에는 '산옹'의 소박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보기〉의 '더욱 망연하여라'에는 홀로 잠 못 드는 밤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나'의 고독감과 슬픔이 드러나 있다.

55 가 누항사 나 병산육곡 다 조어삼매

작품 분석 본문 212~215쪽

가 누항사

작가 박인로
갈래 가사
주제 누항에 묻혀 사는 선비의 곤궁한 삶과 안빈낙도의 추구
특징 ① 현실에 대한 사실적 묘사가 두드러짐.
② 설의법, 대구법, 대조적 시어 등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냄.
③ 서정적이고 관념적인 조선 전기 가사에서 사실적인 후기 가사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특징을 보임.

한 줄 의미

❶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해 (**농사**)를 포기함.
❷ (**자연**)을 벗 삼아 살고자 함.
❸ (**빈이무원**)의 삶을 살고자 함.

나 병산육곡

작가 권구
갈래 연시조
주제 자연 속에서 안빈낙도하는 삶
특징 ① 당시 세태에 대한 비판을 드러냄.
② 대비되는 소재를 제시하여 화자가 추구하는 삶을 나타냄.

한 줄 의미

❶ 자연과 함께하며 (**세속**)을 잊은 삶
❷ 혼탁한 현실에 대한 한탄과 (**서러움**)

다 조어삼매

작가 김용준
갈래 현대 수필
주제 혼란한 시대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지식인의 괴로움
특징 ① 의인법을 통해 세태에 대한 비판을 드러냄.
② 영탄적 어조로 글쓴이의 감정을 드러냄.

한 줄 요약

❶ 쉽지 않은 (**낚시**)와 뒤숭숭한 현실에 대한 고통과 울분
❷ 깨끗하고 (**고결**)한 존재와의 만남을 바람.

464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귀의**: 몰아의 경지에서 종교적 절대자나 종교적 진리를 깊이 믿고 의지하는 일.

정·정·이

③ (다)는 의인화된 대상을 통해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다)의 '아무리 내 재주가 서툴기로서니 개구리나 방게란 놈들도 염치가 있지', '개구리까지도 망둥이까지도 나를 멸시하는 아니 그 더러운 멸시를 받고도 꼼짝달싹할 수 없는 세상이란 원래 이러한 것인가.'를 통해 의인화된 대상을 통해 세태를 비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오·이

① 부재 (가)는 ~~풍자의 기법을 활용하여 대상을 조롱하고 있다.~~
(가)에서는 풍자의 기법을 사용하지 않았고, 대상을 조롱하고 있지도 않다.

② 부재 (나)는 ~~정중한 어조로 절대자에 대한 귀의를 다짐하고 있다.~~
(나)의 '두어라' 등을 볼 때 정중한 어조를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화자는 세상과 거리를 두고 자연 속에서 살아가고자 할 뿐, 절대자에 대한 귀의를 다짐하고 있지는 않다.

④ 부재 (가)와 (나)는 ~~전경후정의 구조를 통해 삶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고 있다.~~
(가)는 선경후정의 구조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며, 삶에 대한 한탄은 드러나지만 빈이무원의 삶을 살고자 다짐한다는 점에서 삶에 회의를 드러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는 선경후정의 구조로 볼 수 있으나, 화자가 서러움을 드러내고 있을 뿐, 삶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⑤ 상반 (나)와 (다)는 감정을 ~~절제한 표현으로 서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나)의 화자와 (다)의 글쓴이는 모두 감정을 솔직하고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다.

465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헛짚기 (가)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동자를 게을리하는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 ⊗)
(가)의 화자는 몹시 가난한 처지로, 농사를 짓기 위한 소를 빌리지 못해 결국 농사를 포기하게 된다. 따라서 화자는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것이지 농사를 게을리하는 것이 아니다.

(2) (나)의 〈제4곡〉에서 화자는 '두견'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고 있다. (⊙, ×)
(나)의 〈제4곡〉에서 화자는 '저 가는 달에 혼자 우는' '두견'에 자신의 슬픔을 이입하고 있다.

(3) 헛짚기 (다)는 '잉어'를 의인화하여 ~~더러운 멸시를 받는 글쓴이의 처지를 표현하고 있다.~~ (○, ⊗)
(다)에서 '잉어'는 '깨끗한 신사의 체구를 가진', '현명한 신사'로 표현되며 의인화되었다. 그러나 이는 더러운 멸시를 받는 글쓴이의 처지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글쓴이가 지향하는 깨끗하고 고결한 존재를 의미한다.

466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헛짚기 〈제4곡〉의 초장은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풍류의 흥취를 자아내고 있다.~~

'저 가는 달'의 모습에서 시각적 이미지가, '혼자 우는 저 두견'에서 청각적 이미지가 나타난다. 그러나 이를 통해 애상적 분위기가 형성될 뿐, 풍류의 흥취는 드러나지 않는다.

오·오·이

① 〈제2곡〉의 초장은 수직과 수평 이미지를 통해 공간을 묘사하고 있다.

'천심절벽'의 수직적 이미지와 그 아래에 흘러가는 '일대 장강'의 수평적 이미지를 제시하면서 공간을 묘사하고 있다.

② 〈제2곡〉에는 속세와 거리를 두고 지내는 화자의 처지가 드러난다.

〈제2곡〉의 종장에서 '세간 소식'을 몰라 하는 데서 화자가 속세와 거리를 두고 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제4곡〉의 종장은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여 자연과의 동질감을 강조하고 있다.

'백조야 한하지 말아'에서 '백조'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한스러워하는 '백조'와 서러워하는 화자와의 동질감이 강조되고 있다.

⑤ 〈제2곡〉과 〈제4곡〉에서는 모두 화자가 직접 등장하여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제2곡〉 종장의 '나는', 〈제4곡〉 종장의 '내곳'과 같이 화자가 직접 등장하여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467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번민: 마음이 번거롭고 답답하여 괴로워함.

정·정·이

④ 범위 오류 (가)의 '풍월 강산'과 ~~(다)의 '세간'은~~ 풍류의 공간이다.

(가)의 '풍월 강산'은 자연 속 풍류의 공간이지만, (나)의 '세간'은 '풍월 강산'과 대비되는 세속적 공간을 의미한다.

오·오·이

① (가)의 '죽'은 화자의 궁핍한 생활을 나타내는 소재이다.

(가)의 '있으면 죽이요 없으면 굶을망정'을 통해 먹을 것이 '죽'밖에 없는 화자의 궁핍함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나)의 '백구'는 화자가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는 대상이다.

(나)의 화자는 '백구'를 벗으로 삼는다고 하였으므로, '백구'는 화자가 추구하는 긍정적 가치가 부여된 대상으로 볼 수 있다.

③ (다)의 '잉어'는 고상하고 순결한 존재를 의미한다.

'잉어가 보고 싶다. ~ 현명한 신사 잉어가 보고 싶다.'로 볼 때, '잉어'는 '개구리'나 '방게', '망둥이' 등과 대비되는 대상으로, 고상하고 순결한 존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⑤ (나)의 '광풍'과 (다)의 '소식'은 화자를 번민하게 한다.

(나)의 화자는 '광풍'으로 인해 꽃이 떨어지고 날짐승들이 의지할 가지를 잃은 상황에 번민하고 있고, (다)의 글쓴이는 자꾸만 들려오는 심사 틀리는 세상의 '소식'에 번민하고 있다.

468 답 (1) 백구 (2) 광풍 (3) 서재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가)에서 '(오디새, 백구)'는 화자가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는 대상이다.

'무심한 백구'는 욕심이 없는 자연으로, 화자가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는 대상이다. 반면 '무정한 오디새'는 화자의 한을 북돋우는 존재이다.

(2) 교체 (나)에서 화자가 '세간 소식'과 단절하려는 이유는 '(두견, 광풍)'으로 비유된 상황 때문이다.

〈제4곡〉의 '광풍'은 어지럽고 혼탁한 현실을 비유한 것이다. 따라서 '세간 소식'과 단절하려는 화자의 태도는 '광풍'으로 비유된 상황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두견'은 화자가 의지할 곳 없는 자신과 동일시한 대상으로,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대상일 뿐이다.

(3) 상반 (다)에서 '(서재, 거리)'는 글쓴이가 세상을 피해 머무르는 공간이다.

'세상이 하도 뒤숭숭하니 고요히 서재나 지켜', '죄 없는 곳은 내 서재니라'에서 알 수 있듯이 '서재'는 글쓴이가 세상을 피해 머무르는 곳이다. 반면 '거리'는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이 모조리 심사 틀리는 소식밖엔 없'는 곳으로 글쓴이가 부정하는 세상이다.

469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헛짚기 [A]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화자의 정서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A]에서는 '새벽'이 지나 '아침'으로 시간의 흐름이 드러난다. 그러나 화자의 정서는 오디새가 '한을 돕는' 것에 이어 '아침까지 울적하'다고 하였으므로, 변화하지 않는다.

오·오·이

② [B]는 의문형 진술을 통해 대상이 처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낙화 광풍에 어느 가지 의지하리'에서 의문형 진술을 통해, 의지할 데 없는 두견의 힘겨운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③ [A]의 흥 없이 들리는 '농가'와 [B]의 혼자 우는 '두견'에는 화자의 심리가 반영되어 있다.

[A]에서 화자는 '즐기는 농가'도 흥 없이 들린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화자의 한스러운 심정이 반영되어 있다. [B]에서 화자는 어지럽고 혼탁한 현실로 인한 슬픔과 한탄을 혼자 우는 '두견'에 이입하여 표현하고 있다.

④ [A]의 '오디새'와 [B]의 '백조'는 모두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는 기능을 한다.

[A]의 '오디새'는 화자의 '한'의 정서를, [B]의 '백조'는 화자의 서러운 심정을 심화한다.

⑤ [A]와 [B]는 모두 감정을 나타내는 어휘를 통해 화자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A]의 '한', '울적하여', [B]의 '설워하노라'는 감정을 나타내는 어휘로, 화자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470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이질적**: 성질이 다른 것.

정·정·이

⑤ 역사 속 인물을 끌어와 화자의 삶에 대해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다.

〈보기〉의 구절에서는 '원헌'과 '석숭'이라는 역사 속 인물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보기〉의 내용이 ㉮ 부분에 추가되면, 역사 속 인물의 삶을 통해 인간의 삶은 공평하므로 가난하다고 해서 금방 죽는 것이 아니고 부유하다고 해서 백 년을 사는 것도 아니라는 인식을 드러냄으로써, 인간의 모든 일을 명에 따른 것으로 여기고 빈이무원을 추구하는 화자의 삶에 대한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여러 인물을 등장시켜 ~~대화 상황으로 전환하고 있다.~~

'원헌'과 '석숭' 등의 인물을 등장시킨 것은 맞지만, 인물들이 대화하는 상황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② 헛짚기 ~~새로운 공간을 더하여 사건의 선후 관계를 첨착하게 한다.~~

실제 역사 속 인물이 제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새로운 공간이 더해지거나 사건의 선후 관계가 드러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헛짚기 ~~이질적인 이야기를 삽입하여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보기〉는 가난과 부유함이 명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이므로,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질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 이를 통해 새로운 갈등이 유발된다고 볼 수도 없다.

④ 헛짚기 구체적인 단서를 제공하여 ~~인물 간의 심리적 거리를 드러내고 있다.~~

〈보기〉를 구체적인 단서로 볼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해 인물 간의 심리적 거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은 아니다.

471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부재 ~~자문자답의 방식으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에서 의문의 형식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스스로 묻고 답하는 자문자답의 방식이 사용된 것은 아니다.

오·오·이

② 고사를 인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원헌'과 '석숭'의 고사를 인용함으로써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대구의 방식으로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는 몇 날(해) 살고(살았나)'의 대구적 표현을 통해 리듬감이 형성되고 있다.

472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고결한**: 성품이 고상하고 순결한.

정·정·이

④ 헛짚기 ⓔ은 ~~권력욕에 빠진 위정자들에 대한 비판을~~ 보여 주는군.

ⓔ에서 '훌륭한 군자'는 안빈낙도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화자가 빌리고자 하는 '낚대(낚싯대)'는 자연을 벗 삼는 삶의 모습을 보여 주는 소재라 할 수 있다. 이로 보아 화자는 ⓔ을 통해 훌륭한 군자들과 같이 안빈낙도의 삶을 살고자 하는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은 권력욕에 빠진 위정자들에 대한 비판과 거리가 멀다.

오·오·이

① ㉠은 화자와 세상과의 심리적 거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화자는 '먼 들(㉠)'을 바라보며 '세정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른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먼 들(㉠)'은 화자가 세상을 멀게 느끼고 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에 언급된 세상에서 점점 소외되는 박인로의 모습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② ㉡은 사대부로서의 직분을 현실에서 실천할 수 없는 화자의 안타까운 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에서 화자는 쓰이지 못하고 벽에 걸려 있는 '쟁기'를 보고 쓸데없이 걸렸다고 생각한다. 〈보기〉에서 박인로는 세상에 나아가 태평성대를 구현하는 사대부의 직분을 실천할 만한 지위를 얻지 못했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은 사대부로서의 직분을 현실에서 실천할 수 없는 화자의 안타까운 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은 화자가 선비로서의 고결한 삶을 살 수 없었던 이유로 볼 수 있겠군.

'입과 배가 누가 되어(㉢)'는 먹고사는 문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화자가 '강호 한 꿈'을 잊게 한 이유이다. 〈보기〉를 참고하면 '강호 한 꿈'은 사대부로서의 고결한 내면을 지키기 위한 삶, 즉 안빈낙도를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③은 적절한 진술이다.

⑤ ㉤은 안빈낙도하며 살아가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에서 화자는 '풍월 강산', 즉 자연에서 늙어 가겠다고 하였으므로, 이는 안빈낙도의 삶에 대한 의지로 볼 수 있다.

정·오 지름길

② ㉡은 사대부로서의 직분을 현실에서 실천할 수 없는 화자의 안타까운 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보기〉를 바탕으로 제시된 구절을 이해하는 문제예요. ㉡을 화자가 농사를 지으려다 실패하여 탄식하는 것으로 보았다면, ②를 답으로 골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기〉에 따르면 작가가 사대부의 직분을 실천하고자 했지만 그럴 만한 지위를 얻지 못했음을 알 수 있어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은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또 ㉡을 농사에 실패하여 탄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보기〉를 참조한 감상이라고 보기 어렵죠. 〈보기〉가 제시된 문제는 반드시 〈보기〉에 근거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56 가 용추유영가 나 강호연군가 다 산나물

작품 분석 본문 216~219쪽

가 용추유영가

작가 정훈
갈래 가사
주제 지리산 용추동의 아름다운 경치와 풍류 예찬
특징 ①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아름다운 경치를 묘사함.
② 고사를 인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냄.

한 줄 의미

❶ 용추동의 (겨울) 경치
❷ (중국)의 명승지와 비교하여 본 용추동의 뛰어난 경치

나 강호연군가

작가 장경세
갈래 연시조
주제 연군지정, 우국지정, 학문과 성현에 대한 흠모
특징 ① 총 12수로, 전 6수에서는 연군과 우국지정을, 후 6수에서는 학문과 성현에 대한 흠모를 노래함.
② 고사의 인용, 대조적 의미를 지닌 시어의 사용 등으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함.

한 줄 의미

❶ (임)을 향한 사름으로 괴로워함.
❷ 부정적 (현실)에 대해 걱정함.
❸ (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늘 근심함.
❹ 성현의 (학문)에 대해 칭송함.
❺ (자연)에서 안분지족하는 삶
❻ 때를 만나지 못해 (은거)하는 삶에서의 만족감

다 산나물

작가 노천명
갈래 현대 수필
주제 순수함의 회복에 대한 바람
특징 ①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주제 의식을 형상화함.
② 의문형 진술, 반복을 통해 화자의 소망을 강조함.

한 줄 요약

❶ (산나물)을 캐러 다녔던 어린 시절의 기억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❷ 고향을 떠난 이후의 생활과 순수한 (산나물)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바람

473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계절감을 나타낸 어휘를 사용하여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가)는 '겨울', '백설', '설경' 등 계절감을 나타내는 어휘를 사용하여 자연에서의 삶에 대한 화자의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차가운 서리 흰 이슬', '봄 ㄱ을' 등의 어휘를 통해 화자의 근심이 계절에 상관없이 지속됨을 드러내

고 있다. (다)는 '진달래도 아직 꺾어 보지 못한 채 봄은 완연히 왔는데 ~ 모두가 을씨년스럽다.'에서 계절감을 나타내는 어휘를 사용하여, 완연히 온 봄과 달리 춥고 쓸쓸한 글쓴이의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① 범위 오류 (다)는 의성어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다)는 '꿩이 푸드덕 날면'에서 의성어 '푸드덕'을 사용하여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지만, (가)와 (나)는 의성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② 부재 ~~고사를 활용하여 삶에 대한 반성을 드러내고 있다.~~

(가)는 '맑은 물 귀 씻으니 허유를 내 부러워하랴 ~ 이원의 반곡이 이러턴가 엇더ᄒᆞ며' 등에서, (나)는 '송옥이 ᄀᆞ을ᄒᆞᆯ 만나 므스 이리 슬프던고'에서 고사를 활용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삶에 대한 반성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한편 (다)는 고사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④ 범위 오류 (다)는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드러내고 있다.

(다)에서는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순수함이 상실된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가)에서는 고사 속 인물의 상황과 현재 자신의 상황을 비교하고 있지만, 이는 자신의 만족감을 드러내는 표현일 뿐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한편 (나)에는 과거와 현재의 대비가 드러나 있지 않다.

⑤ 부재 ~~자연 현상과 인간의 삶을 대조하여 삶의 무상함을 드러내고 있다.~~

(다)의 '진달래도 아직 꺾어 보지 못한 ~ 모두가 을씨년스럽다'에서 '봄'이 오는 자연 현상과 '나'의 쓸쓸함을 대조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를 통해 삶의 무상함을 드러내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가)와 (나)는 자연 현상과 인간의 삶을 대조하여 삶의 무상함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474 답 ㄱ, ㄴ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ㄱ. (가)의 '허유'는 고사 속 인물로 자연 속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기 위해 차용한 것이다.

(가)의 '허유'는 고대 중국 요임금이 왕위를 물려주려 하자 받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귀가 더러워졌다며 강물에 귀를 씻고 산속으로 들어간 고사 속 인물이다. 자연을 사랑하고 속세를 멀리한 대표적 인물인 '허유'의 고사를 차용해 화자는 '허유를 내 부러워하랴'라며 자연 속에서의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ㄴ. (나)의 〈제11수〉에서는 안분지족의 삶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나)의 〈제11수〉에서 화자는 자연에 둘러싸인 즐거움이 끝이 없으며 부귀를 따르지 않겠다고 하면서 안분지족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ㄷ. 교체 (다)의 글쓴이는 오늘 ~~산에서 산나물을 캐며~~ 산나물을 대하여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

(다)의 '오늘처럼 이런 산나물을 대하는 날'을 통해 오늘 글쓴이가 산나물을 보며 과거를 회상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글쓴이가 오늘 산에서 산나물을 캤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475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의문의 방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가)는 '허유를 내 부러워하랴', '이 별천지는 나밖에 뉘 아ᄂᆞᆫ고' 등에서 의문의 방식을 활용하여 현재의 공간에 대한 만족감을, (나)는 '부귀를 따를 줄 이시랴' 등에서 의문의 방식을 활용하여 안분지족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는 '그리운 고향엔 언제쯤 가게 될 것인가?', '산나물 같은 사람이 어디 없을까?' 등에서 의문의 방식을 활용하여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순수함의 회복에 대한 바람을 부각하고 있다.

오·오·이

① 범위 오류 (다)는 과거 회상을 통해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다)는 유년 시절에 대한 회상을 통해 화자의 그리움과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가)와 (나)에는 과거에 대한 회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② 부재 ~~색채의 대비를 통해 공간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가)에는 '백설', (나)에는 '흰 이슬'과 같은 색채 이미지가 드러나 있다. 그러나 (가)~(다) 모두 색채의 대비는 나타나지 않는다.

③ 부재 ~~대상을 다양한 관점으로 묘사하여 생동감을 주고 있다.~~

(가)에서 겨울을 맞은 자연의 모습을 묘사하고는 있으나 다양한 관점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다. (나), (다) 역시 대상을 다양한 관점으로 묘사하여 생동감을 주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⑤ 부재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청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가)~(다) 모두 말을 건네는 방식이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통해 청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476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동심**: 어린아이의 마음.

정·정·이

④ ㉠과 ㉡은 모두 긍정적인 가치가 부여된 공간이다.

(가)의 '별천지(㉠)'는 화자가 현재 머물고 있는 자연을 비유한 표현으로, 화자가 풍류를 즐기며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는 공간이다. 그리고 (나)의 '에덴동산(㉡)'은 글쓴이가 '서울로 올라오던 그때부터' 내쫓긴 곳이라며 안타까워하는, 글쓴이의 유년 시절의 순수함이 있는 공간이다. 따라서 ㉠과 ㉡은 모두 긍정적인 가치가 부여된 공간이다.

오·오·이

① 교체 ㉠은 ㉡과 달리 동심이 유발되는 공간이다.

㉡은 글쓴이의 유년 시절과 관련된 곳으로 동심이 유발되는 공간이라 할 수 있으나, ㉠은 동심과 관련이 없다.

② 헛짚기 ㉠은 ~~㉡과 달리 새로운 소식을 듣는 공간이다.~~

㉠, ㉡ 모두 새로운 소식을 듣는 공간이 아니다.

③ 상반 ㉠과 ㉡은 모두 ~~비판의 대상이 되는~~ 긍정적 공간이다.

㉠, ㉡ 모두 비판의 대상이 되는 공간이 아니라, 긍정적 가치가 부여된 공간이다.

⑤ 헛짚기 ㉠과 ㉡은 모두 ~~만남과 이별이 반복되는 공간이다.~~

㉠은 만남과 이별이 반복되는 공간이 아니다. ㉡은 화자가 떠나온 곳이라는 점에서 이별이 이루어진 공간이라 할 수 있지만, 만남과 이별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다.

477 답 (1) × (2)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범위 오류 (가)의 '계산', '칠리탄'은 화자가 있는 공간의 아름다움과 비교되는 공간이다. (○, ⊗)

(가)의 '칠리탄'은 고사 속의 지명으로, 화자가 있는 공간의 아름다움과 비교되는 곳이다. 그러나 나뭇잎이 다 진 후 삭막해진 '계산'은 화자가 있는 공간이다.

(2) (나)의 〈제3수〉의 '의론이 여긔 저긔' 하는 것은 화자가 걱정하는 현실을 나타낸다. (◎, ×)

(나)의 〈제3수〉에서 화자는 '시절이 하 수상하'다고 여기며 '의론이 여긔 저긔 하니 그를 몰라 ᄒᆞ노라'라고 하였으므로, 이는 화자가 걱정하는 현실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478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범위 오류 (가)의 '우활ᄒᆞᆫ 정신'은 ~~속세에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나)의 '장부의 몸'은 자연 속에 사는 화자를 가리킨다.

(가)의 '우활ᄒᆞᆫ 정신'과 (나)의 '장부의 몸'은 모두 자연 속에서 은거하는 화자 자신을 가리킨다.

오·오·이

① (가)의 '설경'은 화자가 즐기는 풍류의 대상이다.

(가)의 화자는 눈이 쌓인 '설경'을 즐기며 '시의 제재'가 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② (나)의 '부귀'는 화자가 거리를 두는 대상이다.

(나)의 화자는 '내 마다 부운 부귀를 따를 줄 이시랴'라고 하였으므로, '부귀'와 거리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가)의 '내 부러워하랴'와 (나)의 '나뿐인가 ᄒᆞ노라'에는 화자의 만족감이 드러난다.

(가)의 '내 부러워하랴'에는 허유가 부럽지 않다는 화자의 만족감이 드러나 있으며, (나)의 '나뿐인가 ᄒᆞ노라'에는 자연 속에 은거하며 흥취를 즐기는 사람이 자신뿐이라는 화자의 만족감이 드러나 있다.

⑤ (가)의 '낚싯대'는 화자의 흥취가 드러나는, (나)의 '양춘곡'은 화자의 시름이 묻어나는 소재이다.

(가)에서 '아름다운 경치에 흥취도 ~ 낚싯대 드리우니 칠리탄과 엇더ᄒᆞᆫ고'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낚싯대'는 화자가 자연에서 느끼는 흥취가 드러나는 소재라 할 수 있다. 또한 (나)에서 '양춘곡을 ᄐᆞ온마리 ~ 시름이 곡조마다 나ᄂᆞ니'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양춘곡'은 화자의 시름이 묻어나는 소재라 할 수 있다.

479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당쟁**: 당파를 이루어 서로 싸우던 일.
- **성현**: 성인(지혜와 덕이 매우 뛰어나 길이 우러러 본받을 만한 사람)과 현인(어질고 총명하여 성인에 다음가는 사람)을 아울러 이르는 말.

정·정·이

③ 헛짚기 〈제6수〉: 자신을 다른 인물과 비교하며 자연의 변화 속에서 ~~근심을 잊고 사는 작가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제6수〉에서 화자는 '송옥'의 고사를 인용하여 '송옥'의 슬

픔과 자신의 슬픔을 비교하고 있다. 그러나 '이내의 남은 져 근심은 봄 ᄀᆞ을이 업서라'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의 근심은 계절의 변화와 관계없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자연의 변화 속에서 근심을 잊고 사는 작가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제1수〉: 강호에서도 임금을 잊지 못하는 작가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보기〉에서 작가는 임금을 잊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제1수〉의 '님 향ᄒᆞᆫ 시름'은 임금을 향한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② 〈제3수〉: 당쟁이 계속되는 나라의 상황을 걱정하는 작가의 고뇌를 엿볼 수 있군.

'시절이 하 수상하니 ᄆᆞᄋᆞᆷ을 둘 듸 업'는 상황에서 화자는 '의론'이 분분한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이는 〈보기〉에서 언급한 당쟁으로 인해 혼란한 정국 속에서의 작가의 고뇌와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④ 〈제9수〉: 성현의 학문적 정통성을 언급하며 그들의 학문을 칭송하는 작가의 태도를 엿볼 수 있군.

〈보기〉에서 작가는 성현의 학문을 칭송하는 태도를 드러내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공맹의 적통이 ~ 나란히 일렀네'에서 공자와 맹자의 적통을 이어받은 주자의 학문을 칭송하는 작가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⑤ 〈제12수〉: 군자의 뜻을 실현할 수 없는 혼란한 정국에서 은거하는 작가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득군 행도ᄂᆞᆫ ~ 즐겨ᄒᆞ늬'에서는 군자의 뜻을 실현하지 못하고 자연 속에 은거하는 화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데, 이는 〈보기〉에서 언급한 혼란한 정국 속에서, 권력에서 소외되어 가던 작가의 고뇌와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480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화자 오류 (가)와 〈보기〉 모두 ~~홀로 지내는 화자의 아쉬움이 드러난다.~~

(가)에서는 '이 별천지는 나밖에 뉘 아ᄂᆞᆫ고'와 같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아는 이가 자신뿐이라는 자부심이 나타난다. 그리고 〈보기〉에서는 '조화신공이 물물마다 헌ᄉᆞᄅᆞᆸ다'와 같이 자연 풍경에 대한 감탄이 드러난다. 따라서 (가)와 〈보기〉 모두 홀로 지내는 화자의 아쉬움과는 관련이 없다.

오·오·이

① (가)와 〈보기〉 모두 경치를 본 감상을 노래하고 있다.

(가)와 〈보기〉는 모두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본 감상을 노래하고 있다.

② (가)와 〈보기〉 모두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가 있다.

(가)는 '겨울', '백설', '설경' 등이 겨울의 계절감을 드러내고, 〈보기〉는 '새봄', '도화 행화', '녹양방초', '춘기' 등이 봄의 계절감을 드러낸다.

④ (가)와 달리 〈보기〉에는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자연물이 있다.

〈보기〉에서는 수풀에 우는 '새'에 봄의 흥취를 즐기는 화자의 감정이 이입되어 있다. 그러나 (가)에는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자연물이 없다.

⑤ 〈보기〉와 달리 (가)는 다른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화자의 만족감을 드러낸다.

(가)는 '맑은 물 귀 씻으니 허유를 ~ 이원의 반곡이 이러턴가'와 같이 고사 속의 명승지와 비교하여 화자가 있는 공간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보기〉에는 다른 대상과 비교하여 화자의 만족감을 드러낸 부분이 없다.

481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갈망**: 간절히 바람.
- **풍물**: ① 산이나 들, 강, 바다 따위의 자연이나 지역의 모습. ② 어떤 지방이나 계절 특유의 구경거리나 산물.

정·정·이

④ 화자 오류 '미운 사람'을 보고도 반갑게 웃어 주는 글쓴이의 모습에서 ~~순수함이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바람이 드러나는군.~~

'10여 년 전 같으면 ~ 내게도 꽤 때가 앉았다.'로 볼 때, '미운 사람'을 보고도 반갑게 웃어 주는 글쓴이의 모습은 순수함이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때가 묻은 모습임을 알 수 있다.

오·오·이

① '예쁜이, 섭섭이, 확실이, 넷째' 등을 떠올리는 것에서 아름답고 낭만적인 유년 시절을 추억하는 글쓴이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글쓴이는 '나물을 뜯으러 가던 그 시절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 당시에는 느끼지 못했던 일'이라고 하며 '예쁜이, 섭섭이, 확실이, 넷째' 등 나물 동무들과 함께했던 아름답고 낭만적인 유년 시절을 추억하고 있다.

② '뻐꾹채', '싱아', '칡뿌리' 등은 유년 시절 글쓴이의 체험 속 풍물들에 해당하는군.

'우리는 이 산 저 산으로 뛰어다니며 뻐꾹채를 꺾고 싱아를 캐고 심지어는 칡뿌리도 캐는 것이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나'가 오늘 마주한 '산나물'은 글쓴이에게 고향과 인정에 대한 그리움을 환기하는군.

'나는 늘 내 기억에 남은 고향이 그립고 오늘처럼 이런 산나물을 대하는 날은 고향 냄새가 물큰 내 마음을 찔러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놓는다.'에서 오늘 마주한 '산나물'이 글쓴이에게 고향과 인정에 대한 그리움을 환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⑤ '산나물 같은 사람'을 찾고 싶어 하는 모습에서 과거의 순수함을 잃어버린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글쓴이의 마음을 엿볼 수 있군.

〈보기〉에서 알 수 있듯이 글쓴이는 지난날의 순수를 잃어버린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따라서 '심산 속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자연의 품에서 퍼질 대로 퍼지고 자랄 대로 자란 싱싱하고 향기로운' 산나물 같은 사람을 찾고 싶어 하는 모습에서 과거의 순수함을 잃어버린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다.

482 답 (1) 칡순 (2) 산나물 (3) 순수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칡순, 빼꾹채)'은/는 글쓴이를 위하는 친구의 마음을 보여 준다.

뱀을 무서워하는 글쓴이를 위해 섭섭이가 머리에 꽂아 준 '칡순'은 글쓴이를 위하는 섭섭이의 마음을 보여 준다. '빼꾹채'는 유년 시절 글쓴이의 체험 속 풍물들에 해당한다.

(2) 교체 '(산나물, 진달래)'은/는 글쓴이에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소재이다.

481번-③의 해설을 참고할 때, 글쓴이에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소재는 '산나물'임을 알 수 있다.

(3) 교체 미운 사람을 보고도 반갑게 웃어 주는 글쓴이의 모습은 어린 시절의 '(순수, 추억)'을/를 잃어버린 상태를 나타낸다.

미운 사람을 보고도 반갑게 웃어 주는 글쓴이의 모습은 어린 시절의 '순수'를 잃어버린 상태를 나타낸다. 글쓴이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며 순수의 회복을 바라고 있다.

57 가 농가월령가 나 관등가 다 신생

작품 분석 본문 220~223쪽

가 농가월령가

작가 정학유
갈래 가사
주제 달과 절기에 따라 농가에서 행할 일과 풍속
특징 ① 시간과 계절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② 명령형, 청유형 어조를 통해 농민들에게 교훈을 주고 계몽하고자 함.
③ 비유법, 대구법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함.

한 줄 의미

• 음력 (팔(8))월의 날씨와 (풍경) 및 준비할 것들

나 관등가

작가 미상
갈래 가사
주제 돌아오지 않는 임에 대한 그리움
특징 ① 한 해의 세시 풍속을 노래하는 월령체 가사의 성격을 띰.
②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함.
③ 대조법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함.

한 줄 의미

❶ (정월) 상원일에 다리밟기를 하는 소년들을 보며 임의 부재에 외로워함.
❷ (청명일)에 봄기운이 풍기는 풍경을 보며 임의 부재에 외로워함.
❸ 삼짇날에 (제비)와 만발한 꽃을 보며 임의 부재에 외로워함.
❹ (초파일)에 관등놀이 하는 모습을 보며 임의 부재에 외로워함.

다 신생

작가 현기영
갈래 현대 수필
주제 봄을 맞아 떠올린 신생의 이미지
특징 ①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통해 신생의 이미지를 제시함.
② 널리 알려진 소설의 내용을 인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함.

한 줄 요약

❶ 어미 닭과 (병아리)의 모습에서 떠올리는 어머니와의 추억
❷ (줄탁동시)에서 느끼는 생명력
❸ 태어나는 것들의 강인한 (생명력)에 대한 경외감

483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가)~(다)는 모두 계절적 배경을 바탕으로 화자나 글쓴이의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가)는 '추기가 완연하다', '귀뚜라미 맑은 소리' 등을 통해 가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나)는 '정월'부터 '사월'까지 제시된 것으로 볼 때 겨울과 봄을 계절적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는 '봄 병아리', '노란 봄빛', '봄기운', '봄의 햇살' 등을 통해 봄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가)~(다)는 모두 계절적 배경

을 바탕으로 인식과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② 부재 (가)~(다)는 모두 ~~공간의 대조를 통해 화자나 글쓴이의 정서의 변화를 부각하고 있다.~~

(가)~(다) 모두 공간의 대조는 드러나지 않으며, 화자나 글쓴이의 정서 변화도 드러나지 않는다.

③ 범위 오류 (가)와 ~~(다)는~~ 대화체와 독백체를 교차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가)는 '절기로다', '완연하다' 등의 독백적 어투로 팔월의 정경을 제시하고 '장만하소', '쓰게 하소', '혼수하세'와 같이 말을 건네는 어투도 드러나고 있으므로, 대화체와 독백체를 교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대화체와 독백체가 교차되고 있지 않다.

④ 부재 (가)와 (다)는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세상과 거리를 두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가), (다) 모두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고 있지 않으며, 세상과 거리를 두려는 태도 역시 드러나 있지 않다.

⑤ 부재 (나)와 (다)는 ~~반어적 표현을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나), (다) 모두 반어적 표현이나 이를 통한 현실 비판 의식은 드러나 있지 않다.

484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범위 오류 (가)는 가을을, ~~(다)는 여름을~~ 계절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 (○, ⊗)

483번-①의 해설을 참고할 때, (가)는 가을을, (나)는 겨울에서 봄까지를 배경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나)는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친근감을 주고 있다. (◎, ×)

'제비 왓노라 현신하고'와 '기러기는 가노라 하직한다'에서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친근감을 주고 있다.

(3) (다)는 다양한 소재들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

(다)는 '봄 병아리', '여린 새싹', '노란색' 등 다양한 소재들을 활용하여 신생의 이미지라는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485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부재 (가)는 (나)와 달리 ~~점층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점층적 표현은 내용의 강도를 점점 높이거나 범위를 넓히면서 그 내용을 강조하는 방법인데, (가)는 팔월에 해야 할 농가의 일을 나열할 뿐 점층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오·이

① (가)와 (나)는 모두 대상을 나열하여 시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가)는 '수수 이삭 콩 가지' 등의 농작물과 '머루 다래', '밤 대추' 등의 과실을 나열하여 가을에 먹거리가 풍족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어룡등 봉학등'과 같은 다양한 등의 종류를 나열하여 여러 사람들이 초파일에 관등놀이를 즐기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③ (가)는 (나)와 달리 청유형의 문장을 사용하여 청자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가)에서는 '혼수하세' 등 청유형의 문장을 사용하여 청자에게 그러한 일들을 할 것을 권하고 있다. 그러나 (나)에는 청유형의 문장이 사용되지 않았다.

④ (나)는 (가)와 달리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나)는 '우리 임은 어듸 가고 ~ 줄 모로난고'라는 구절을 반복하여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한편 (가)는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으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지 않다.

⑤ (나)는 (가)와 달리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자연물을 통해 시적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나)의 '나무마다 춘기 들고 ~ 만물이 화락한듸'에서 봄기운이 만연한 자연물과, 돌아오지 않는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처지가 대비됨으로써 화자의 그리움이 강조된다. 한편 (가)에서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자연물은 찾을 수 없다.

486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재회**: 다시 만남. 또는 두 번째로 만남.

정·정·이

③ [A]의 화자는 다양한 모양을 지닌 대상들을 나열하고 있고, [B]의 글쓴이는 유사한 속성을 지닌 대상을 제시하고 있다.

[A]의 화자는 사월 초파일에 보이는 다양한 모양의 등을 나열하고 있다. 그리고 [B]의 글쓴이는 낮은 소리를 내며 수많은 균열이 생기는 빙렬 현상과, 그와 유사한 속성을 지

닌 달걀의 부화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오·오·이

① 화자 오류 [A]의 화자는 ~~천장에서 지상의 동물들을~~, [B]의 글쓴이는 ~~지상에서 천상의 사물들을 동경하고 있다.~~

[A]의 화자는 지상에서 다양한 모양의 등을 바라보고 있을 뿐, 동물들에 대해 동경하고 있지 않다. [B]의 글쓴이는 지상에서 지상의 사물들을 언급하고 있을 뿐, 천상의 사물들을 동경하고 있지 않다.

② 화자 오류 [A]의 화자는 ~~재회를 확신하게 된 이유를~~, [B]의 글쓴이는 ~~부화를 기대하게 된 이유를 밝히고 있다.~~

[A]의 화자는 부재하는 임을 그리워하고 있을 뿐, 임과의 재회를 확신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B]의 글쓴이는 병아리의 부화 모습에 대해 언급하고 있을 뿐, 부화를 기대하게 된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다.

④ 범위 오류 [A]의 화자는 ~~자신이 지향하는 상상의 공간으로 이동하고 있고~~, [B]의 글쓴이는 관찰을 위해 익숙한 공간을 둘러보고 있다.

[B]의 글쓴이는 얼었던 강이 풀리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으므로 관찰을 위해 익숙한 공간을 둘러보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A]의 화자는 관등을 하기 위해 높은 곳에 오른 것일 뿐, 상상의 공간으로 이동하지는 않았다.

⑤ 범위 오류 [A]의 화자는 타인과 단절된 상황에서 느끼는 고독감을, [B]의 글쓴이는 ~~자연물과 조화를 이룬 상황에서 느끼는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A]의 화자는 부재하는 임에 대한 슬픔과 그리움 때문에 관등 행사를 온전히 즐길 수 없는 처지이므로, 타인과 단절된 상황에서 고독감을 느낀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B]의 글쓴이가 자연물과 조화를 이룬 상황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487

답 (1) 등 (2) 병아리 (3) 생명력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A]에서 화자는 다양한 모양의 (등, 동물)을 바라보고 있다.

[A]에는 관등 행사에 걸린 다양한 모습과 형태의 등이 나열되어 있다. '사자', '호랑이' 등은 실제 동물이 아니라 등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2) 교체 [B]에서 글쓴이는 빙렬 현상이 일어날 때의 소리가 (어미 닭, 병아리)의 낮은 울음소리와 흡사하다고 여긴다.

[B]에서는 봄에 얼었던 강이 풀리며 얼음장들이 자글자글 낮은 소리를 내며 균열이 가는 소리가 알 속의 병아리가 어미를 부르는 낮은 울음소리와 흡사하다고 하였다.

(3) 교체 (다)의 글쓴이는 '노란색', '병아리', '여린 새싹' 등을 통해 (생명력, 모성애)을/를 떠올리고 있다.

(다)의 글쓴이는 '노란색', '병아리', '여린 새싹' 등을 통해 강인한 생명력을 떠올리고 있다. 모성애는 병아리를 보호하는 어미 닭의 모습을 보고 떠올린 것이다.

488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은 ㉠과 달리 특정한 대상을 회상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에서 글쓴이는 햇빛의 노란색에서 어린이들이 뛰노는 소리와 함께 노란 털북숭이 봄 병아리를 떠올린다. 반면 ㉠에서 황운은 벼가 노랗게 익은 모습을 묘사한 것일 뿐, 특정 대상을 회상하는 계기가 되지 않는다.

오·오·이

① 헛짚기 ㉠은 ~~㉡과 달리 미래의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

㉠, ㉡ 모두 미래의 소망과는 관련이 없다.

③ 헛짚기 ㉠은 ~~㉡과 달리 화자의 정서를 변화시키는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다.~~

㉠은 가을의 정경을 묘사한 것일 뿐, 화자의 정서를 변화시키는 매개체가 되지 않는다.

④ 헛짚기 ㉠과 ㉡ 모두 ~~구도적인 자세를 통해 사물이 지닌 의미를 깨닫게 하고 있다.~~

㉠은 가을의 정경을 묘사하고 ㉡은 글쓴이로 하여금 신생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할 뿐, 사물이 지닌 의미를 깨닫게 하지는 않는다. 또한 ㉠의 화자와 ㉡의 글쓴이가 구도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지도 않다.

⑤ 범위 오류 ㉠과 ~~㉡은 모두~~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연의 풍요로움을 예찬하고 있다.

㉠은 노란색의 색채 이미지를 통해 곡식이 익은 자연의 풍요로운 정경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연의 풍요로움을 예찬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은 노란색이라는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고는 있으나, 자연의 풍요로움과는 관련이 없다.

489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세시 풍속**: 한 해의 절기나 달, 계절에 따라 민간에서 전하여 온 풍속.

정·정·이

⑤ 헛짚기 ⓔ는 유락적인 속성을 통해 이별의 정한이 해소된 상황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는 강남에서 제비가 날아오고 소상강 기러기는 떠나는 봄의 정황을 의인화하여 표현한 것으로, 유락적 속성이나 이별의 정한을 해소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이어지는 '우리 임은 어듸 가고 화유할 줄 모로난고'로 볼 때 화자의 한과 슬픔은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는 농촌에 거주하는 양반이 농민들에게 농사일을 장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보기〉에 따르면 (가)는 농촌에 거주하는 양반이 창작한 작품으로, 농민들에게 필요한 농사일을 장려하는 작품이다. 따라서 농사 도구들을 장만하라는 ⓐ는, 농민들에게 농사일을 장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는 미래의 용도를 대비한 실용적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는 잘 익은 아람을 모아 말려 두었다가 나중에 필요한 시절에 사용하라는 것이므로, 미래의 용도를 대비한 실용적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③ ⓒ는 부모에 대한 유교적 윤리를 농민에게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나이가 많으신 부모님을 위하여 수의를 유의하라는 ⓒ는 〈보기〉에서 언급한 유교적 윤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④ ⓓ는 상사의 매개가 되는 세시 풍속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보기〉에 따르면 (나)는 매월의 세시 풍속을 상사의 매개로 삼아 이별의 정한을 드러낸다고 하였다. ⓓ에서 화자는 정월 상원일에 '답교'하고 노니는 소년들을 보며 부재하는 임을 떠올리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490 답 ㄱ, ㄷ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ㄱ. (가)의 '백곡의 이삭'은 '팔월'이 되어 추수를 해야 하는 농사 일정을 드러낸다.

(가)에서 '백곡의 이삭'은 농사의 결실로, '팔월'을 맞아 추수를 해야 하는 시기임을 드러낸다.

ㄷ. (나)의 '관등'은 유락적 분위기를 조성하면서도 화자로 하여금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소재이다.

초파일에 등을 밝히는 풍속인 '관등'은 유락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화자로 하여금 곁에 없는 임을 떠올리게 한다.

오·오·이

ㄴ. 헛짚기 (나)의 '제비'와 '기러기'는 화자가 느끼는 이별의 슬픔이 이입된 소재이다.

봄을 맞아 강남에서 날아오는 '제비'와 떠나가는 '기러기'는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일 뿐, 화자가 느끼는 이별의 슬픔이 이입된 소재는 아니다.

491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허물**: 잘못 저지른 실수.

정·정·이

⑤ 딱딱하게 굳은 땅을 뚫고 솟아오르는 '새싹'을 통해 강인한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군.

(다)의 글쓴이는 '새싹'이 굳은 땅을 뚫고 솟아오르는 것에서 강인한 생명력을 발견하고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봄 병아리'와 다른 모습의 '서리병아리'를 통해 어려운 상황을 견디는 인내심을 드러내고 있군.

'봄 병아리'는 '서리병아리'와 달리 아름답고 튼튼한, 생명력 넘치는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 '서리병아리'가 어려운 상황을 견디는 인내심이 있는 존재인지는 알 수 없다.

② 헛짚기 '매운바람'이 몰아칠 때 새끼를 거두어 안는 '어미 닭'을 통해 약자의 허물을 감싸 주는 포용력을 드러내고 있군.

'매운바람'이 몰아칠 때 새끼를 거두어 안는 '어미 닭'의 모습은 자식을 지키고 보호하는 모성애를 보여 준다. 약자의 허물을 감싸 주는 포용력과는 관련이 없다.

③ 헛짚기 오일장에 곡식을 팔러 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고난 속에서도 피어나는 생명력을 보여 주고 있군.

오일장에 곡식을 팔러 가는 '어머니'의 모습은 자식 넷을 먹여 살리는 어머니의 모성애를 보여 준다. 고난 속에서도 피어나는 생명력과는 관련이 없다.

④ 헛짚기 스스로 균열을 일으키는 강가의 빙렬 현상을 통해 '줄탁동시'의 중요성을 보여 주고 있군.

'줄탁동시'는 어미 닭과 병아리가 달걀 안팎에서 동시에 쪼아 껍데기를 깨뜨리는 일이다. 강가에 빙렬 현상이 일어날 때 나는 소리가 병아리가 부화할 때 내는 울음소리와 비슷하다고는 언급되어 있지만, 빙렬 현상이 줄탁동시의 중요성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58 가 고려 속요의 기원과 형성 과정 나 동동 다 가시리

작품 분석 본문 224~227쪽

가 고려 속요의 기원과 형성 과정

갈래 설명문

주제 고려 속요의 형성 과정과 그 특성

한 줄 요약

❶ (**고려 속요**)의 정의와 민간의 노래가 궁중의 노래로 사용된 연원

❷ (**민간**)의 노래가 궁중악으로 수용될 수 있었던 이유와 민간의 노래가 궁중악으로 불렸을 때의 의미를 보여 주는 (**예**)

❸ 민간의 (**사랑**) 노래가 고려 속요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겪게 된 변화

나 동동

작가 미상

갈래 고려 가요

주제 이별한 임에 대한 사랑과 송축

특징 ① 객관적 상관물, 비유법 등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함.
② 북이나 악기의 소리를 흉내 낸 의성어를 후렴구로 사용하여 음악적 흥취를 고조하고 운율을 형성함.
③ 월령체 형식을 취함.

한 줄 의미

❶ (**덕**)과 복을 빎.

❷ 홀로 살아가는 (**외로움**)

❸ 임의 훌륭한 (**인품**)을 찬양함.

❹ 아름다운 임의 (**모습**)을 찬양함.

❺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

다 가시리

작가 미상

갈래 고려 가요

주제 임과 이별하는 슬픔

특징 ① '기-승-전-결'의 구조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② 3음보 율격, 후렴구를 포함한 어구의 반복 등을 통해 운율을 형성함.

한 줄 의미

❶ 이별의 상황에 대한 (**슬픔**)

❷ 떠나는 임에 대한 (**원망**)

❸ 이별에 대한 두려움과 (**체념**)

❹ 이별의 체념적 수용과 (**재회**)에 대한 소망

492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나)의 〈서사〉에서 '아으 동동다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의 예로 볼 수 있다.

(나)의 〈서사〉에서 후렴구인 '아으 동동다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임에 대한 송축의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의 예로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상반 (나)의 '아으 동동다리'는 ㉠의 예로 볼 수 ~~없다.~~ 있다.

(나)에서 후렴구인 '아으 동동다리'는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형식적 장치로서,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의 예로 볼 수 있다.

② 상반 (나)의 〈서사〉에서 '아으 동동다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의 예로 볼 수 ~~있으나~~ 없으나, ㉢의 예로는 볼 수 ~~없다.~~ 있다.

(나)의 〈서사〉에서 '아으 동동다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송축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의 예이며, 이별의 상황과 관련 없다는 점에서 ㉢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작품의 통일성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의 예로는 볼 수 없다.

④ 상반 (다)의 '위 증즐가 대평셩ᄃᆡ'는 ㉡의 예로 볼 수 있으나, ㉢의 예로는 볼 수 ~~없다.~~ 있다.

(다)의 후렴구인 '위 증즐가 대평셩ᄃᆡ'는 '대평셩ᄃᆡ'라는 표현으로 보아 ㉡의 예로 볼 수 있다. 또 이별의 상황을 노래한 (다)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의 예로 볼 수 있다.

⑤ 상반 (다)의 제1연에서 '위 증즐가 대평셩ᄃᆡ'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의 예로 볼 수 ~~있다.~~ 없다.

(다)의 제1연에서 후렴구인 '위 증즐가 대평셩ᄃᆡ'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별의 상황을 노래하고 있으므로 ㉡의 예로 볼 수 없다.

493 답 ㄱ, ㄷ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ㄱ. 고려 속요는 조선 시대까지 궁중 연향에서 사용되었다.

1문단에서 '고려 속요는 고려 시대 궁중에서 형성되어 조선 시대까지 궁중 연향에서 전승되어 불린 노래'라고 언급하고 있다.

ㄷ. 궁중악에서는 남녀의 사랑이 군신 간의 관계로 확장, 전환되어서 해석될 수 있었다.

3문단의 "인륜의 차원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노래들은 ~ 남녀 간의 사랑 노래는 그 화자와 대상이 '신하'와 '임금'의 구도로 치환되기 용이했기 때문에 궁중악으로 편입될 수 있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오·이

ㄴ. 교체 『시경』의 '풍'에 실린 노래에는 ~~상층의~~ 민중의 삶이 반영되어 있다.

2문단에서 '풍'에는 민간의 노래가 실려 있다고 하였으므로, 상층의 삶이 아니라 민중의 삶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94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맥락**: 사물 따위가 서로 이어져 있는 관계나 연관.

정·정·이

② 헛짚기 (나)의 '아으 동동다리'는 이별의 상황과 동떨어진 시어를 통해 ~~송축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으 동동다리'는 악기 소리를 흉내 낸 의성어로, 별다른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 후렴구이다. 따라서 이별의 상황과 동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송축의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오·오·이

① (나)의 〈서사〉가 작품의 전체적인 맥락과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민간의 사랑 노래가 궁중악으로 정제되어 편입되는 과정에서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나)는 임에 대한 사랑과 이별의 슬픔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과는 다르게 〈서사〉에서는 덕과 복을 빌고 있다는 점에서, 〈서사〉는 민간의 사랑 노래가 궁중악으로 정제되어 편입되는 과정에서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다)의 '위 증즐가 대평셩ᄃᆡ'는 작품의 주제와는 무관하게 송축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의 '위 증즐가 대평셩ᄃᆡ'는 이별의 슬픔이라는 작품의 주제와는 다르게 태평성대('대평셩ᄃᆡ')를 기원하는 송축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다)의 '위 증즐가 대평셩ᄃᆡ'는 각 연마다 반복된다는 점에서 작품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의 '위 증즐가 대평셩ᄃᆡ'라는 동일한 어구가 각 연마다 반복됨으로써 작품에 형식적인 통일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나)와 (다)가 모두 사랑에 관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풍'에 실린 민간의 노래와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의 2문단에서 '풍'에는 민간의 노래가 실려 있는데 사랑 노래가 대부분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는 (나)와 (다)는 '풍'에 실린 민간의 노래와 주제 면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495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헛짚기 [A]에서는 제1행과 제2행이, (다)에서는 제1연과 제2연이 ~~대상의 변화에 따른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군.~~

[A]의 제1행과 제2행은 물수리 한 쌍이 모래톱에서 우는 모습을 노래한 것으로 시적 대상의 변화나 대칭 구조가 드러나지 않는다. (다)의 제1연과 제2연도 떠나는 임에게 하소연하는 내용으로 시적 대상의 변화에 따른 대칭 구조가 드러나지 않는다.

오·오·이

① [A]에서는 자연과 인간 간의 조화로움이, (나)의 〈정월령〉에서는 남녀 간의 사랑으로 인한 외로움이 드러나 있군.

(가)에서 [A]는 '이미 짝을 지은 물수리 암수의 모습과 앞으로 짝을 이룰 요조숙녀와 군자의 모습이 상응하면서 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조화로움을 노래한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고 하였다. 또한 (나)의 〈정월령〉에서는 정월의 냇물과 비교하며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화자의 처지를 노래하고 있으므로, 남녀 간의 사랑으로 인한 외로움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② [A]의 '물수리 한 쌍'과 (나)의 '만춘 돌욋곶'은 생활 속에서 민중이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는 대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군.

[A]의 '물수리 한 쌍'은 조화로움이라는 긍정적 가치를, (나)의 '만춘 돌욋곶'은 아름다움이라는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는 대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③ [A]에서는 화락의 상황을, (다)에서는 이별의 상황을 보여 주고 있군.

[A]는 이미 짝을 지은 물수리 암수의 모습과 앞으로 짝을 이룰 요조숙녀와 군자의 모습을 통해 화평하고 즐거운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 (다)는 화자와 임의 이별의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⑤ [A]에서는 풍속을 교화할 만한 이상적인 사랑을, (나)에서는 모두가 우러러볼 만한 '덕'을, (다)에서는 '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군.

[A]는 '부부간의 화락과 공경을 읊은 것, 풍속 교화의 시초' 등의 평을 받고 있으므로 풍속을 교화할 만한 이상적인 사랑을 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나)는 〈이월령〉에서 임을 만인을 비추는 '등ㅅ불'에 빗대어 임이 모두가 우러러볼 만한 '덕'을 지녔음을 읊고 있다. (다)는 사랑하는 임과의 이별을 안타까워하는 애절한 심정을 읊고 있다.

496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A]의 '요조숙녀'와 '군자'의 관계가 '화락'을 이루는 것과 달리, (나)와

(다)의 화자는 사랑하는 사람과 '화락'의 상황에 이르지 못하고 있군.

(가)의 [A]는 부부간의 화락을 읊은 것으로 평가받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작품 속 '요조숙녀'와 '군자'의 관계로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나)와 (다)의 화자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상황이므로, 화락의 상황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교체 [A], (나), (다)는 모두 상층의 노래가 하층의 문학에 영향을 준 결과물로 이해할 수 있군.

[A]는 『시경』의 '풍'에 실린 노래, (나), (다)는 고려 속요로, 모두 궁중에서 불린 노래이다. (가)에서 알 수 있듯이 민간 가요의 궁중 악곡으로의 전환은 '하층에서 상층으로의 편입·흡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A], (나), (다)는 하층의 노래가 상층의 문학에 영향을 준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② 범위 오류 [A]에는 문왕과 후비의 덕이, (나)에는 ~~화자 자신과~~ 임의 덕이 드러나 있군.

(가)에서 [A]는 문왕과 후비의 덕을 읊은 것으로 평가받는다고 하였으므로, [A]에는 문왕과 후비의 덕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나)에서는 〈이월령〉에서 임의 덕을 드러내고 있을 뿐, 화자 자신의 덕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③ 범위 오류 [A]에서는 '물수리 한 쌍'과 '요조숙녀', '군자'가 자연과 사람의 조화를 나타내고 있고, (다)에서는 ~~화자와 '님'이 조화를 이루었음을 '대평성대'로 나타내고 있군.~~

(가)에서 [A]는 물수리 암수의 모습과 앞으로 짝을 이룰 요조숙녀와 군자의 모습을 통해 자연과 사람의 조화로움을 노래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다)의 화자는 이별한 임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므로, 화자와 '님'이 조화를 이루었다고 볼 수 없다.

④ 범위 오류 [A]에서 부부간의 공경이 드러난 것처럼, (나)와 (다)에는 ~~화자의 뜻을 존중하는 임의 모습이 드러나 있군.~~

(가)에서 [A]는 부부간의 화락과 공경을 읊은 것으로 평가받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나)와 (다)에는 떠나간 임에 대한 화자의 마음이 드러나 있을 뿐, 화자의 뜻을 존중하는 임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497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화자 오류 ⓐ에는 ~~〈보기〉와 달리 대립된 욕망으로 인한 시적 화자의 고뇌가 나타나 있다.~~

ⓐ와 〈보기〉 모두 시적 화자의 대립된 욕망은 나타나 있지 않다. ⓐ에서 화자는 홀로 지내는 자신의 처지를, 〈보기〉의 화자는 임이 오지 않는 상황을 서러워하고 있을 뿐이다.

오·오·이

① ⓐ와 〈보기〉 모두 임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바탕에 깔려 있다.

ⓐ의 화자는 임이 없이 홀로 살아가는 자신의 처지와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고 〈보기〉의 화자는 강가에서 임을 기다리고 있으므로, 두 화자 모두 임에 대한 그리움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와 〈보기〉 모두 강물이 얼었다 풀리는 상황과 시적 화자의 처지를 대비하고 있다.

ⓐ에서는 정월의 냇물이 얼었다 녹았다 하는 상황과 세상 가운데 홀로 지내는 화자의 처지를 대비하고 있다. 그리고 〈보기〉에서는 얼었던 강물이 풀리는 상황과, 얼음이 풀리면 배를 타고 올, 그러나 아직 오지 않는 임으로 인해 설움이 풀리지 않은 화자의 처지를 대비하고 있다.

④ ⓐ와 달리 〈보기〉에는 임을 향한 시적 화자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에서 화자는 임이 없이 홀로 지내는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고 있을 뿐이다. 반면 〈보기〉의 화자는 강가에 나가 임을 기다린다는 점에서 임을 향한 화자의 구체적인 행위가 드러난다.

⑤ ⓐ와 달리 〈보기〉에는 연쇄적 시상 전개를 통해 시적 화자의 심정이 강조되고 있다.

〈보기〉에서는 '강이 풀리면 → 배가 오겠지 → 님도 탔겠지 → 님은 안 타도 편지야 탔겠지'와 같이 연쇄적 시상 전개를 통해 임을 애타게 기다리는 화자의 심정을 강조하고 있다. ⓐ에는 연쇄적인 시상 전개가 드러나지 않는다.

498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보기〉의 화자는 '배'를 타고 올 '님'을 기다리고 있다. (○, ×)

〈보기〉의 화자는 강이 풀리면 '님'이 '배'를 타고 올 것이라며, 강가에서 임을 기다리고 있다.

(2) (나)의 ⓐ의 'ᄒᆞ올로'와 〈보기〉의 '기다리다'는 모두 화자의 처지를 보여 준다. (○, ×)

ⓐ에서 화자는 'ᄒᆞ올로', 즉 임이 없이 홀로 지내는 처지임을 드러내고 있다. 〈보기〉의 화자는 강에 가서 배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가기를 반복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한 진술이다.

(3) 헛짚기 (나)의 ⓐ와 〈보기〉의 '강물'은 모두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소재이다.~~ (○, ×)

497번-②의 해설을 참고할 때, (나)의 ⓐ와 〈보기〉의 '강물'은 모두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소재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것으로 볼 수 없다.

499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심경**: 마음의 상태.

정·정·이

⑤ '나릿물'이 '어져 녹져' 하는 것, '곳고리새'가 '아니 니저' 오는 것과 같은 자연물의 모습은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적 상황이라 할 수 있군.

(나)의 〈정월령〉에서 화자는 '나릿물'이 '어져 녹져' 하는 것과 달리 임이 없이 홀로 살아가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다. 또 〈사월령〉에서는 사월을 '아니 니저' 오는 '곳고리새'와 달리 '녹사님'이 오지 않는 상황을 탄식하고 있다. 따라서 '나릿물'이 '어져 녹져' 하는 것과 '곳고리새'가 '아니 니저' 오는 상황은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적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어져 녹져' 하는 '나릿물'은 상태가 변화한다는 점에서 임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으로 복잡한 화자의 심경을 의미하는군.

'어져 녹져' 하는 '나릿물'은 상태가 변화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홀로 있어 외로운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자연물일 뿐, 복잡한 화자의 심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② 헛짚기 어두운 곳을 밝혀 주는 '등ㅅ불'은 희망을 잃지 않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어두운 곳을 밝혀 주는 '등ㅅ불'은 임의 훌륭한 인품을 상징하는 사물일 뿐, 희망을 잃지 않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③ 교체 'ᄂᆞᄆᆡ 브ᄅᆞᆯ' 모습을 지니고 있는 '돌ᄋᆞᆺ곶'은 화자의 아름다움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니고 있는 '돌ᄋᆞᆺ곶'은 화자가 아니라 임의 아름다움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자연물이다.

④ 헛짚기 '아니 니저' 돌아오는 '곳고리새'는 '녹사님'이 화자에게 곧 돌아올 것임을 보여 주는군.

아니 잊고 돌아오는 '곳고리새'는 화자로 하여금 돌아오지 않는 '녹사님'에 대한 원망의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자연물이다.

59 가 문학적 의미 생성의 세 가지 양상 나 만흥(漫興) 다 우언(迂言)

작품 분석 본문 228~231쪽

가 문학적 의미 생성의 세 가지 양상

갈래 설명문

주제 문학적 의미 생성의 세 가지 양상

한 줄 요약

❶ 문학 작품의 (**의미**)가 생성되는 세 가지 양상

❷ 문학적 의미 생성 양상에 따른 작품 속 자기와 (**외부**) 세계의 관계

나 만흥(漫興)

작가 윤선도

갈래 연시조

주제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과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

특징 ① 자연 속에서 사는 만족감과 즐거움에 대해 노래하면서도 임금의 은혜를 언급하여 사대부로서의 모습을 보여 줌.

② 자연과 속세를 의미하는 시어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태도를 부각함.

③ 설의법, 대유법, 대조법 등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한 줄 의미

❶ 자연에 묻혀 (**분수**)에 맞게 살아감.

❷ 자연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즐거움

❸ 자연에 몰입되어 (**사랑**)하는 마음

❹ 강호한정의 삶에 대한 (**자부심**)

❺ 자연에 (**귀의**)한 삶의 즐거움

❻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

다 우언(迂言)

작가 이덕무

갈래 고전 수필

주제 자신의 삶의 방식에 대한 자부심

특징 ① 삶의 방식을 분류한 후 비교함.

② 우회적 표현을 통해 삶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냄.

한 줄 요약

❶ 삶의 방식을 (**분류**)하는 기준과 그에 대한 평가

❷ 자신의 삶의 방식에 대한 (**자부심**)

500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제1수〉에서는 경험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제6수〉에서는 관념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시상이 전개된다.

〈제1수〉의 시상이 전개되는 '산슈 간 바회 아래 뛰집'은 화자가 현재 거처하고 있는 일상의 공간으로 경험적 성격과 연결된다. 〈제6수〉의 시상이 전개되는 '강산'은 자연을 상징하는 시어로 화자가 '님군 은혜'를 더욱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므로 관념적 성격과 연결된다.

오·오·이

② 범위 오류 〈제2수〉에서는 구체성이 드러나는 소재로, 〈제3수〉에서는 ~~추상성이 강화된~~ 구체성이 드러나는 소재로 시상이 시작된다.

〈제2수〉의 '보리밥 풋ᄂᆞᆯ'과 〈제3수〉의 '잔'은 둘 다 일상의 소재로, 구체성이 드러난다.

③ 헛짚기 〈제2수〉에서 설의적 표현으로 ~~제기된 의문이 〈제5수〉에서 해소되었음이~~ 영탄적 표현으로 드러난다.

〈제2수〉의 '그 나믄 녀나믄 일이야 부를 줄이 이시랴'에서 설의적 표현을 찾을 수 있지만, 이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횟 긋 믉ᄀᆞ'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제5수〉의 'ᄒᆞ시도다'는 영탄적 표현으로 볼 수 있지만, 의문의 해소와는 관련이 없다.

④ 부재 〈제3수〉에서의 현재에 대한 긍정이 ~~〈제4수〉에서의 역사에 대한 부정으로 바뀌며 시상이 전환된다.~~

〈제3수〉의 '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자연 속에 거처하는 현재에 대한 긍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제4수〉에서 역사에 대한 부정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제4수〉는 고대 중국의 은자인 '소부', '허유'에 대한 언급을 통해 자연 속에서 지내는 삶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⑤ 부재 〈제3수〉에 나타난 정서적 반응이 ~~〈제6수〉에서 감각적 표현을 통해 구체화된다.~~

〈제3수〉에는 '뫼'에 대한 반가움이라는 정서적 반응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 〈제6수〉에서 감각적 표현은 드러나지 않으며, 뫼에 대한 반가움의 정서가 구체화되지도 않는다.

501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제1수〉에서 '산슈 간 바회 아래 뛰집'은 화자가 현재 거처하고 있는 공간이다. (○, ×)

〈제1수〉에서 화자는 '산슈 간 바회 아래 뛰집'을 짓고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상반 〈제2수〉에서 화자는 '그 나믄 녀나믄 일'을 ~~부러워하고 있다.~~ 부러워하지 않는다. (○, ×)

〈제2수〉의 '그 나믄 녀나믄 일이야 부를 줄이 이시랴'는 '그 나믄 녀나믄 일'로 표현된 세속적 가치를 부러워할 리가 없다는 의미이다.

(3) 상반 〈제4수〉에서 화자는 '삼공'의 삶을 ~~긍정적~~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다. (○, ×)

〈제4수〉에서 '누고셔 삼공도곤 낫다 ᄒᆞ더니'는 '누가 (자연에 묻혀 사는 삶이) 높은 벼슬보다 낫다 하더니'의 의미로, 자연에서의 삶과 대조적 의미를 지닌 '삼공'의 삶은 화자가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02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대조적 의미의 시구를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나)에서 '뛰집', '바횟 긋 믉ᄀᆞ', '뫼', '강산' 등은 자연에서의 삶을 의미하는 시어들이고, '녀나믄 일', '삼공', '만승', '인간 만ᄉᆞ' 등은 속세에서의 삶을 의미하는 시어들이다. 이러한 대조적 의미의 시구를 통해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이라는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어조에 변화를 주어 시의 분위기를 바꾸고 있다.~~

어조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으며, 시의 분위기도 바뀌지 않는다.

② 부재 ~~점층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가 고조되고 있다.~~

점층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③ 헛짚기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계절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산슈 간 바회 아래 뛰집', '바횟 긋 믉ᄀᆞ' 등에서 시각적 이미지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으나, 계절의 변화는 확인할 수 없다.

④ 부재 ~~대상을 다양한 관점으로 묘사하여 생동감을 드러내고 있다.~~

자연을 다양한 관점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다.

503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헛짚기 '님'에 대한 '반가옴'보다 더한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뫼'의 의미를 부각하여 ~~화자와 '님' 사이의 거리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제3수〉에서 화자는 '뫼'를 바라보는 감흥이 그리던 '님'이 오는 반가움보다 크다고 하였다. 이는 '뫼'의 의미를 부각하여 자연에 대한 화자의 만족감을 드러낸 것으로, (가)의 '자기와 외부 세계와의 거리는 가까워지고 친화적 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화자와 '님' 사이의 거리가 드러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통해 자기와 외부 세

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되는 것도 아니다.

오·오·이

① '산슈 간'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이에 공감하지 못하는 '놈들'의 생각을 병치하여 화자와 '놈들' 사이의 거리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제1수〉에는 '산슈 간 바회 아래 뛰집'을 짓고 자연 속에서 지내고자 하는 화자를 '놈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드러나 있다. 이는 (가)를 참고할 때, 화자와 '놈들' 사이의 거리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바횟 긋 묽ᄀᆞ'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삶과 '녀나믄 일'을 대비하여 세상일과 거리를 두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제2수〉의 '바횟 긋 묽ᄀᆞ'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화자는 속세의 일을 '녀나믄 일'이라고 말하며 그것과 거리를 두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가)를 참고할 때, 화자와 세상일 사이의 거리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님천'에서의 '한흥'이 '삼공'이나 '만승'보다 더한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하여 화자와 '님천'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

〈제4수〉에서 화자는 '님천'에서의 '한흥'이 '삼공'이나 '만승'보다 낫다며 '님천'에서의 삶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가)를 참고할 때, 화자와 '님천'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친화적 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강산' 속에서의 삶이 '님군'의 '은혜' 덕택임을 제시하여 화자와 '님군'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

〈제6수〉에서 화자는 '강산' 속에서의 삶이 '님군 은혜' 덕택이라고 하며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가)를 참고할 때, 화자와 '님군'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친화적 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오 지름길

③ '님'에 대한 '반가움'보다 더한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뫼'의 의미를 부각하여 화자와 '님' 사이의 거리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나)의 화자가 '님'보다 '뫼'에 대한 감흥이 더 크다는 점에서, 화자와 '님' 사이의 거리가 드러난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워하던 임이 오는 반가움'은 '뫼'를 좋아하는 화자의 감정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일 뿐, 화자가 실제로 '님'을 그리워하고 있다고 볼 근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자와 '님' 사이의 거리가 드러난다고 볼 수 없는 것이지요. 어떤 문제를 풀더라도 화자의 정서나 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기본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504 답 (1) 보리밥 풋ᄂᆞ믈 (2) 먼 뫼 (3) 강산

정·정·이 & 오·오·이

○부재 ○화자 오류 ○헛짚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나)에서 '(보리밥 풋ᄂᆞ믈, 만승)'은 화자의 안분지족(安分知足)하는 삶의 태도를 보여 주는 소재이다.

(나)에서 화자의 안분지족(安分知足)하는 삶의 태도를 보여 주는 소재는 '보리밥 풋ᄂᆞ믈'이다. '만승'은 화자가 부정적으로 여기는 세속적 삶을 의미한다.

(2) 교체 (나)의 〈제3수〉에서 '말솜도 우움도' 않는 주체는 (먼 뫼, 화자)이다.

'말솜도 우움도' 하지 않는 것은 '먼 뫼'이다. 화자는 이러한 '먼 뫼'를 못내 좋아한다고 하였다.

(3) 상반 (나)의 〈제5수〉를 통해 화자가 본성에 따라 '(인간 만ᄉᆞ, 강산)'을/를 지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의 〈제5수〉에서 화자는 자신의 본성이 게으른 것을 하늘이 알고서 인간 만사는 하나도 맡기지 않고 다툴 이 없는 강산을 지키라고 하셨다고 하였다.

505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부재 ☑화자 오류 ○헛짚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정·정·이

⑤ ㉠과 ㉡은 모두,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우회하여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에서 화자는 자신을 '햐암'이라고 낮추어 표현하면서 자연 속에서의 삶이 자신의 분수에 맞다고 여긴다. 이는 자연 속에서의 삶의 가치를 모르는 '놈들'과 달리, 자연 속에서 만족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다)에서 화자는 '가장 높은 것은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자'인데, 자신은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자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작은 즐거움을 가장 높은 것으로 말한 것이 '물정 모르는 소리일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이는 자신의 삶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 '백에 하나 있거나 아주 없거나'한 것임을 부각하는 것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오·이

① 화자 오류 ㉠은 자신의 처지를 ~~남의 일을 말하듯이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에서는 화자가 자신의 처지를 남의 일을 말하듯이 표현하고 있지 않으며,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고 있지도 않다.

② 화자 오류 ㉡은 자신의 행동을 냉철하게 성찰함으로써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있다.

㉡에서 화자는 자신의 행동을 냉정하게 성찰하고 있지 않으며,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있지도 않다.

③ 부재 ㉠은 ㉡과 달리, 자신의 처지를 자문자답 형식으로 말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일반화하고 있다.

㉠과 ㉡ 모두 자문자답의 형식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

④ 부재 ㉡은 ㉠과 달리, 자신의 생각을 남의 말을 인용하여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신념을 객관화하고 있다.

㉠과 ㉡은 모두 남의 말을 인용하여 표현하고 있지 않다. ㉡은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비교하고 있을 뿐이다.

506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화자 오류 ㉠은 ㉡과 달리, 타고난 분수에 따르겠다는 체념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에서 화자는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사는 것이 자신의 분수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체념적 태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오·오·이

① ㉠에서 화자는 자신을 '햐암'이라고 낮추어 표현하였다.

㉠에서 화자는 자신을 '시골에서 지내 온갖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의미의 '햐암'이라고 낮추어 표현하고 있다.

② ㉡에서 '물정 모르는 소리'는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자는 백에 하나 있거나 아주 없'는 것과 관련된다.

'나'는 작은 즐거움을 가장 높은 것으로 말한 것이 '물정 모르는 소리'일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이는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자는 백에 하나 있거나 아주 없'다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과는 거리가 먼' 생각이기 때문이다.

507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대유**: 하나의 사물이나 관념을 나타내는 말이 경험적으로 그것과 밀접하게 연관된 다른 사물이나 관념을 나타내도록 표현하는 수사법.

정·정·이

① ⓐ, ⓑ는 모두 설의적 표현으로 화자의 만족감을 드러낸다.

'부를 줄이 이시랴(ⓐ)'와 '반가옴이 이리ᄒᆞ랴(ⓑ)'는 모두 의문의 형식을 사용한 설의적 표현으로, 자연에서의 삶에 대한 화자의 만족감을 드러낸다.

오·오·이

② 범위 오류 ⓒ의 '만승'과 ⓓ의 '소부 허유'는 모두 대유적 표현으로 화자가 부정적으로 여기는 삶의 모습이다.

ⓒ의 '만승'은 세속적 삶을, ⓓ의 '소부 허유'는 자연에서의 삶을 의미하는 대유적 표현이다. 그러므로 '만승'은 화자가 부정적으로 여기는 삶의 모습을, '소부 허유'는 화자가 긍정적으로 여기는 삶의 모습을 의미한다.

③ 화자 오류 ⓒ는 과장된 표현을 통해 나라에 대한 화자의 걱정을 드러내고 있다.

'만승이 이만ᄒᆞ랴(ⓒ)'는 화자의 만족감을 천자의 자리와 비교했다는 점에서 과장된 표현으로 볼 수도 있으나, 화자가 나라에 대해 걱정하고 있지는 않다.

④ 부재 ⓔ는 역설적 표현으로 화자의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내 성이 게으르더니(ⓔ)'에는 역설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고, 화자의 복잡한 심경이 드러나지도 않는다.

⑤ 부재 ⓕ는 반어적 표현을 통해 자조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내 분으로 누얻ᄂᆞ냐(ⓕ)'에는 반어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고, 화자의 자조적인 태도도 드러나지 않는다.

508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견준**: 둘 이상의 사물을 질(質)이나 양(量) 따위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기 위하여 서로 대어 본.

정·정·이

④ 화자 오류 (나)에서는 선인들의 삶의 태도를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는 과정을 겪쳐, (다)에서는 대다수 사람들의 뜻을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는 과정을 겪쳐 새로운 의미를 생성한다고 볼 수 있다.

(나)의 〈제4수〉에 '소부 허유' 같은 선인들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화자가 선인들의 삶의 태도를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는 과정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한편 (다)에서 글쓴이는 작은 즐거움을 가장 높은 것으로 말한 자신의 말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였으므로, 대다수 사람들의 뜻을 내면으로 수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오·오·이

① (나)에서 무정물인 대상에 대해 호감을 표현한 것은 자신의 정서를 대

상에 투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에서 화자는 무정물인 '뫼'에 대해 호감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자연 속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감, 즉 자신의 정서를 대상에 투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② (다)에서 자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대상에 투영하여 세계를 해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에 따르면 '산림'은 큰 부끄러움이나 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이처럼 자연인 '산림'에 의미를 부여한 것은 자신의 생각을 투영하여 세계를 해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③ (다)에서 삶의 방식을 상대적 기준에 따라 나누어 평가한 것은 자신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비교하여 세계의 의미를 새롭게 파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에서 글쓴이는 '산림'과 '시정' 중 어디에 사느냐와 '명리'와 '은거' 중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 삶의 방식을 나누고, 그중에서 시정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는 것이 가장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생각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과는 거리가 먼' 소리일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자신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비교하여 세계의 의미를 새롭게 파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⑤ (나)에서 자기 본성을 하늘의 뜻에 연관 지은 것과, (다)에서 자기 삶의 방식을 일반적인 삶의 방식과 견준 것은 자기 삶의 가치를 새롭게 해석하여 의미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의 〈제5수〉에서 화자는 자신의 본성이 게을러서 하늘이 인간 만사를 맡기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한 (다)의 글쓴이는 자신과 같이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자는 백에 하나 있거나 아주 없다고 하면서 자기 삶의 방식이 일반적인 삶의 방식과 다름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나), (다)는 모두 자기 삶의 가치를 새롭게 해석하여 의미를 만들어 냈다고 할 수 있다.

509 답 ㄷ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ㄷ. '나'는 '산림'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즐거움을 누리는 경우보다 부끄러움을 가진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한다.

'나'는 산림에 살면서 명리에 마음을 두는 것은 큰 부끄러움인데, 큰 부끄러움을 안고 사는 자는 백에 반이라고 하였다. 또 산림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는 것은 큰 즐거움인데, 큰 즐거움을 누리는 자는 백에 서넛쯤 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나'는 산림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즐거움을 누리는 경우보다 부끄러움을 가진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오·오·이

ㄱ. 상반 '나'는 스스로 ~~큰~~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자라고 생각한다.

'나'는 시정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는 자로,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자이다.

ㄴ. 화자 오류 '나'는 ~~부끄러움과 즐거움을 조화시킴으로써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부끄러움과 즐거움을 조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510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수양**: 몸과 마음을 갈고닦아 품성이나 지식, 도덕 따위를 높은 경지로 끌어올림.

정·정·이

⑤ '나'가 스스로의 삶에 만족을 느끼게 하는 공간이다.

(나)의 화자는 '먼 뫼'를 바라보며 그리던 '님'이 오는 것보다 더한 반가움을 느끼며 만족하고 있다. 또한 (다)의 글쓴이는 '시정'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는 '작은 즐거움'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먼 뫼'와 '시정'은 모두 '나'가 스스로의 삶에 만족을 느끼게 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오·오·이

① 화자 오류 '나'가 ~~현재 은거하고 있는~~ 공간이다.

(나)에서 '먼 뫼'는 화자가 바라보는 공간일 뿐, 은거하고 있는 공간은 아니다. (다)에서 '시정'은 화자가 살고 있는 공간이지만, 화자는 '은거'에 마음을 두고 있으므로 '시정'에 은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화자 오류 '나'의 ~~인격 수양에 도움을 주는~~ 공간이다.

'먼 뫼'와 '시정'은 모두 인격 수양과는 관련이 없다.

③ 화자 오류 '나'로 하여금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공간이다.

(나)의 화자와 (다)의 글쓴이는 모두 무력감을 느끼고 있지 않다.

④ 화자 오류 '나'가 ~~잘못된 지난 삶을 반성하게 하는~~ 공간이다.

(나)의 화자와 (다)의 글쓴이는 모두 지난 삶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